

이천의 옛노래

| 홍순석 |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구전되는 노래이다. 창작자가 누구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곡조나 사설조차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고 가창자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지역, 가창자,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요는 이런 특징을 지니기에 민중의 살아 있는 소리요,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된다. 민요에는 지역민의 생업, 의례, 세사풍속, 신앙, 놀이 등 생활상이 그대로 배어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민요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속원



홍순석은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한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찬원과 단국대·성균관대 강사를 거쳐, 현재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구소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은의 생애와 시』, 『양사언의 생애와 시』, 『김세필의 생애와 시』,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인명자호사전』(공편) 등이 있다.

이천의 옛노래

홍순석

민속원

책머리에

“끓었네 끓었네 텅이만 슬슬 굴러라~”로 시작되는 논매기노래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백사면의 민요를 채록할 때는 이 노랫말의 뜻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한 사업이 7년 동안 2개읍 9개면의 조사 과정을 통해 무려 2천여 편이 채록되었다. 녹음테이프가 260여 개나 된다. 민요를 구연해주신 분도 3백 명이 넘는다. 그 동안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인원도 1백여 명이 넘는다. 이러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채록한 민요를 정리하여 이 책으로 갈무리한다.

필자가 이천지역의 민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5년도이다. 『이천시지』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에서 타 시군과 인접지역인 백사면·율면·마장면·신둔면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문화유적·민속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96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백사면의 조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점차 각 읍·면별 조사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요조사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민요조사였다. 조사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간행되었고, 개인적으로 민요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천의 옛노래」를 CD로 제작 배포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왔다. 이제 그같은 작업들이 하나씩 갈무리된 것이다.

이 책은 CD와 함께 제작되었다. CD에는 민요의 음악적 요소를 그대로 담기 위해 채록된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책은 CD의 가사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민요의 구비문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자

료집의 편집체제를 따라 정리하였다.

개혁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수성이 짙은 전통문화유산은 그 원형을 고수하기 어렵다. 특히 민요자료는 보존의 한계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이미 대중민요로 변해 있고, 더러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민요의 핵심인 기능요는 이미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구현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 민요 보존회를 구성하여 전수하고 있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벗어난 노동요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 비기능요로 전락되었다. 이제 민요의 현장조사는 원형을 잃은 ‘소리’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천의 옛노래』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이천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마을 전체를 조사하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업이다. 이 책의 진가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미 작고한 구연자들의 노래는 그 후손들에 의해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것이다.

이 책을 엮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발의하여 무려 7년간이나 이끌어준 이인수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실이 없었을 것이다.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이천시 유승우 시장님과 이은구 문화위원장님의 배려도 잊을 수 없다. 학술조사단원 모두가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각 지역의 읍면장과 이장, 구연자 여러 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전산처리 작업을 도와 난삽한 원고를 깔끔하게 다듬어준 박상미양과 책자를 기꺼이 맡아서 빛을 보게 해준 민속원의 홍기원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 분에게 감사드린다.

임오년 개천절에
치인재에서 적다.

일러두기

1. 이 책에 실린 민요는 강남대학술조사단이 이천시문화원의 의뢰를 받아 현장 조사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이천시문화유적·민속사보고서』(총10책)에 실린 자료 가운데 1,217곡을 선별하여 정리해서 실었다.
2. 보고서에 실린 자료 가운데 노래 제목·가사·구연자의 인적사항 등에서 잘못된 부분은 가급적 고쳐 실었다.
3. 자료의 분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비기능요의 하위 분류는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유사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분류하였다.
4. 자료의 설명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래 제목 앞에 자료번호를 다음과 같이 붙였다(이천시 민요 조사지역 분류표를 참조할 것).

<사례> 0510-1 : 7 **논물대기** (05 부발읍, 10 대흥리, 1 : 7 보고서의 자료번호, 제목)

5. 구연자의 인적사항은 조사 당시의 상황이며, 구연 현황이나 조사자, 정리자 등은 지면의 제한상 첨부하지 못했다. 해당 지역의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천시 민요 조사지역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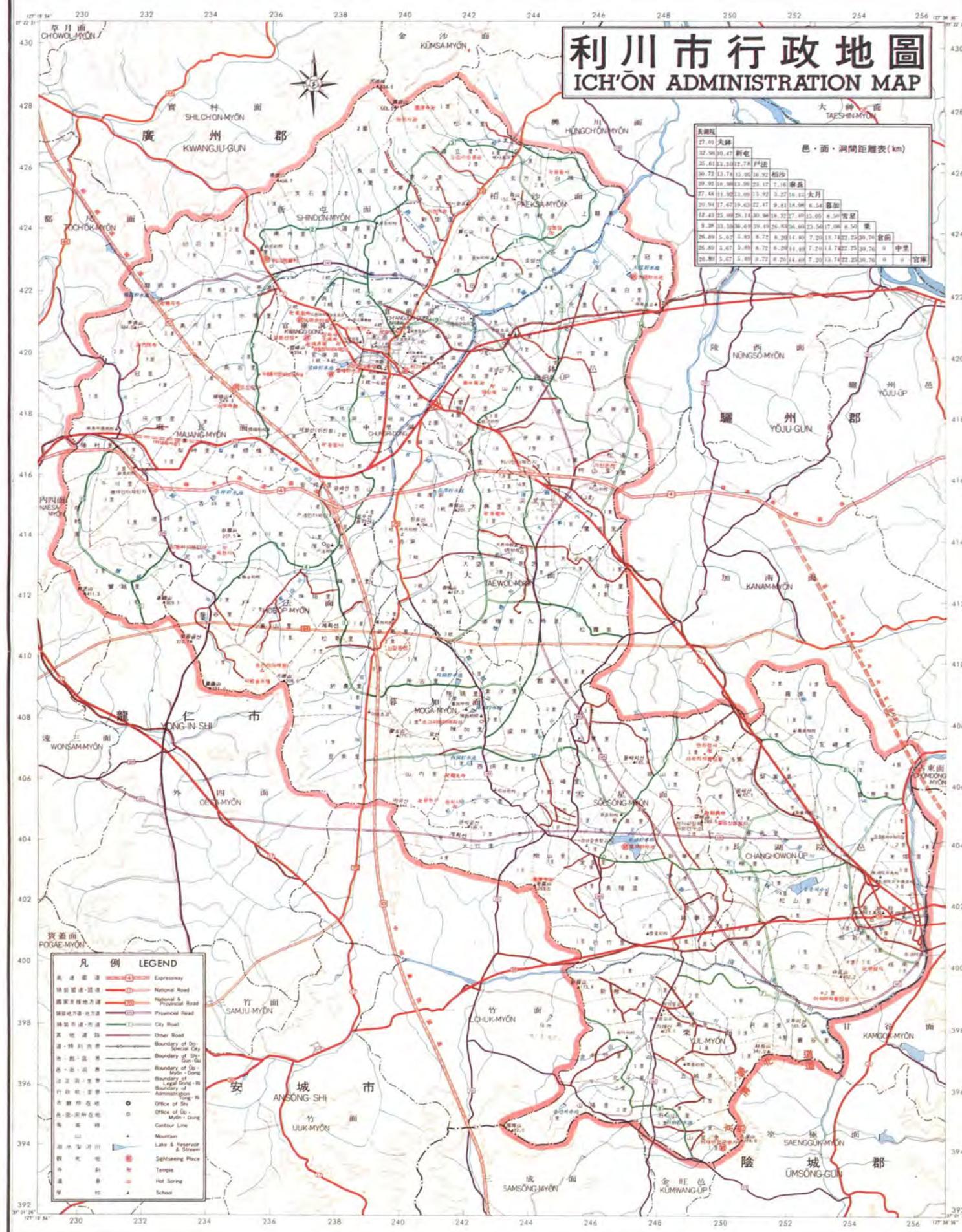
읍/면 단위		동/리 단위									
01	백사면	01	현방리	02	내촌리	03	송팔리	04	상용리	05	우곡리
		06	도지리	07	경사리	08	신대리	09	조읍리		
02	울 면	01	고당리	02	신추리	03	본죽리	04	북두리	05	산양리
		06	석산리	07	산성리	08	오성리	09	월포리	10	총곡리
03	설성면	01	금당리	02	장능리	03	행죽리	04	제요리	05	신필리
		06	장천리	07	자석리	08	암산리	09	송계리	10	상봉리
		11	수산리	12	대죽리						
04	마장면	01	오천리	02	양촌리	03	관리	04	회억리	05	장암리
		06	목리	07	표교리	08	이치리	09	각평리	10	터평리
		11	이평리	12	해월리	13	작촌리				
05	부발읍	01	부촌리	02	죽당리	03	신원리	04	고백리	05	대관리
		06	마암리	07	산촌리	08	신하리	09	가좌리	10	아미리
		11	수정리	12	송온리	13	가산리	14	응암리		
06	장호원읍	01	나래리	02	노탑리	03	대서리	04	방추리	05	선읍리
		06	송산리	07	어석리	08	오남리	09	와현리	10	이황리
		11	장호원	12	진암리	13	풍계리				
07	신둔면	01	수광리	02	남정리	03	지석리	04	장동리	05	도봉리
		06	도암리	07	수하리	08	수남리	09	고척리	10	용면리
		11	인후리	12	마교리	13	소정리				
08	호범면	01	단천리	02	동산리	03	매곡리	04	송갈리	05	안평리
		06	유산리	07	주마리	08	주박리	09	후안리		
09	모가면	01	두미리	02	산내리	03	서경리	04	소고리	05	소사리
		06	송곡리	07	신갈리	08	양평리	09	어농리	10	원두리
		11	진가리								
10	대월면	01	도리리	02	구시리	03	군량리	04	송라리	05	장평리
		06	부필리	07	초지리	08	사동리	09	대대리	10	대흥리
11	이천시	01	고담동	02	단월동	03	장록동				

利川市行政地圖

ICH'ON ADMINISTRATION MAP

區	洞	距離	區	洞	距離
27.01	大錄	32.90	30.47	新屯	35.61
32.90	30.47	35.61	32.12	尹達	36.72
35.61	32.12	36.72	13.74	15.00	16.92
36.72	13.74	15.00	16.92	7.16	8.54
38.90	16.92	18.28	23.12	7.16	8.54
39.92	18.28	23.12	7.16	8.54	12.43
41.30	23.12	27.04	11.92	3.27	16.41
42.54	27.04	29.94	17.47	19.43	22.47
43.81	29.94	46.30	19.43	18.98	6.54
48.25	46.30	50.89	25.46	17.08	6.50
50.89	25.46	54.39	19.26	18.98	23.56
55.87	54.39	58.89	6.72	8.20	14.80
58.89	6.72	62.89	6.72	7.29	14.74
62.89	6.72	66.89	8.20	14.80	7.29
66.89	8.20	70.89	8.20	14.80	7.29
70.89	8.20	74.89	8.20	14.80	7.29

高速公路	Expressway
国道	National Road
省道	Provincial Road
市道	City Road
其他道路	Other Road
市界	Boundary of City
特別市界	Boundary of Special City
縣界	Boundary of County
鄉界	Boundary of Myeon
洞界	Boundary of Dong
行政區界	Administrative Boundary
市廳所在地	Office of City
縣廳所在地	Office of County
境界線	Contour Line
山	Mountain
湖沼	Lake & Reservoir
觀音堂	Sightseeing Place
寺	Temple
溫泉	Hot Spring
學校	School



여 백

차 례

책머리에 / 3
일러두기 / 5
이천시 행정지도 / 7

제1부 개 관

이천시 민요의 개관 및 특징 / 13
I. 자료의 분포 양상 13
II. 이천지역 민요의 분석 15
III. 비민요 24
IV. 이천의 특징적인 민요 25
V. 이천의 대표적인 소리꾼 25
이천지역의 무속신앙과 무가 / 27
I. 무속인(巫俗人) 29
II. 무속신앙의 형태 30
III. 무가(巫歌) 32

제2부 자료

기능요 / 37

I. 노동요	39
II. 의식요	171
III. 유희요	364

비기능요 / 421

I. 타령	423
II. 아리랑	472
III. 한탄가	482
IV. 연정가	501
V. 사모가	518
VI. 통속민요	521
VII. 시절가	602
VIII. 동요	612

비민요 / 615

무가(巫歌) / 633

I. 무가(巫歌)	635
II. 무경(巫經)	674

부록(附錄) / 679

제1부 개 관

이천시 민요의 개관 및 특징

이천지역의 무속신앙과 무가

여 백

이천시 민요의 개관 및 특징

강남대 학술조사단이 이천시 문화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이천시 지역에서 조사된 민요자료는 2천여 편이나 된다. 한 지역의 자료로서는 방대한 양이다.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자료적 가치가 빈약한 자료는 산정하였다. 이 책에 수록한 자료는 1,217편이다. 민요자료는 각 지역의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선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¹⁾ 따라서 여기서는 이천시 민요의 개관과 특징만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인다.

I. 자료의 분포 양상

이천 지역에 분포된 민요는 모내기노래·논매기노래와 같은 농업노동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이 타령요·의식요 순이다. 부발읍·장호원읍에서는 타령요가 더 많이 채록되었다. 상여노래·달구질노래와 같은 의식요는 대부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백사면·설성면·마장면·신둔면에서 채록된 민요의 양적 비중은 노동요, 의식요, 타령요 등의 순인데, 부발읍·장호원읍에서는 타령요, 의식요, 노동요 순이며, 울면·호법면에서는 노동요, 타령요, 의식요 순이다. 모가면에서 채록된 민요는 이천지역에서 제일 많은 양이다. 다양한 유

1) 이천시 각 지역의 민요에 대한 논문은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14 이천의 옛노래

형의 민요가 채록되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타령이나 통속민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노동요인 모내기노래, 논매기노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대월면에서도 같은 양상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의 전래 민요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요는 조사 때마다 그 숫자가 줄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신고산타령·청춘가·노랫가락 등이 주로 채록되고 있다.

이천지역에 모내기노래·논매기노래와 같은 농업노동요가 널리 분포된 것은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잘 대변해 준다. 반면 부발읍·장호원읍의 경우 타령요가 더 많다는 것은 산업구조의 차이점을 시사한다. 타령류의 노래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천 지역민의 소박하고 낙천적인 단면을 시사해준다. 자료를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이천에서는 남요(男謠)에 비해 여요(女謠)는 매우 적게 채록되었다. 이는 이천시가 예로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짙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유희요는 비교적 많은 양이 채록되었으나, 근래까지 이루어진 놀이에 한하여 채록되었을 뿐이다. 동요가 빈약한 것은 이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요는 일제 하 이전의 자료를 채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천의 역사적·지리적 여건에 기인한 때문인지 민요에서도 장호원읍·율면·설성면 지역의 자료는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반면, 타지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마장면은 용인지역과, 백사면·부발읍은 여주지역과, 신둔면은 광주지역과 인접한 때문인지 인접지역의 민요와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다.

〈표 1〉 이천시 민요자료 현황

백사면	율면	설성면	마장면	부발읍	장호원	신둔면	호법면	모가면	대월면	고담동	단월동	장록동	소계
58	162	173	91	97	127	123	74	151	142	5	3	11	1217

Ⅱ. 이천지역 민요의 분석

1. 내용면

1) 기능요

(1) 노동요 : 이천지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업노동요인 모내기노래·논매기노래이다. 논매기노래는 대부분 초벌·재벌 때 부르는 노래만 분포되어 있는데 백사면 상용리에서는 초벌·재벌·삼벌 때 각기 다른 곡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어얼싸 대허리야 / 여주 이천 자채 방아 / 누가 얼렁 어쨌나 / 어얼싸 대허리야 / 여주 이천 자채 방아, 자채방아 / 어얼싸 대허리야”(상용리 2 : 3)로 불려지는 대허리는 이 지방 특유의 노래이다. 가락은 대체로 단조롭고 느리나 끝날 무렵에는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내용은 모를 잘 심어 삼배출짜리가 되게 해달라는 당부와 빨리 일하고 다른 눈으로 옮기자는 독촉, 농사지어 부모 처자 공양하자는 것이다. 주제는 농사예찬이다.

벌채노동요는 지게동발, 나무할 때 노래, 나물캐는 노래, 나물하러갈 때 노래 등 18편이 채록되었다. 매우 빈약한 편인데, 이는 이천 지역이 논농사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길쌈노동요인 베틀가는 10편이 채록되었으나, 매우 빈약한 편이다. 울면 북두1리의 정지영씨가 구연해준 베틀가는 무려 80여행이나 되는 장편이다. 베를 짜는 아낙의 형상과 베틀의 구조와 설치, 베지는 동작, 옷감을 재단하여 만드는 모습, 옷을 곱게 지어놓고 님을 기다리는 정한(情恨), 님의 죽음을 원망하는 사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의 설정은 다른 베틀가에서 살필 수 없는 단락으로, 내용 전개가 뛰어난 자료이다. 일부자료는 길쌈 노동과는 관계없이 불려진 비기능요에 포함될 것들이다.

〈표 2〉 이천시 기능요 자료 현황

노동요	농업노동요	논물대기(1), 논갈기(4), 못자리하고 쉴 때(1), 모찌기(2)	182
		모내기(61), 논매기(113)	
		밭갈이(1), 밭매기(2)	3
	벌채노동요	지계동발(10), 나무할 때 노래(2), 나물캐는 노래(6)	19
		나물하러갈 때 노래(1)	
길쌈노동요	베틀가(10)	10	
잡역노동요	소몰이(2), 땅다지기 노래(27), 물길는 노래(2)	32	
	화초 심는 노래(1)		
		자장가(40), 애기 어르는 노래(28), 걸음마노래(1)	69
의식요	세시의식요	달거리(3), 성주풀이(2), 태평성대(1), 홍수풀이(1), 농사풀이(1)	8
		고사반(8), 우물고사(2), 장승고사(1), 마당굿(1), 터주굿(1)	15
		부엌굿(1), 대청굿(1)	
	장례의식요	상여노래(73), 재도듬노래(2), 달구질노래(72)	147
신앙의식요	공덕가(2), 산염불(1), 자진염불(1), 염불공덕가(1), 회심곡(14)	19	
유희요	세시유희요	그네뛰기(10), 자차기(1)	11
		상사태야(2), 폐지나칭칭나네(1), 기와밧기(1), 거북이노래(1)	5
		환갑노래(1), 혼인가(1), 화전놀이(1)	3
	경기유희요	줄넘기(6), 고무줄놀이(3)	9
		술래찾기(1), 다리세기(71), 춘향각시놀이(7), 풍감물기 (3)	85
		종지놀이(1), 수건돌리기(1), 수박놀이(1)	
	조형유희요	소꿉장난노래(1),	1
	풍소유희요	왔다봐라노래 (3), 잠자리노래(1), 방아깨비노래(1), 눈요(1)	7
	바람요(1)		
언어유희요	화투풀이(26) 언문풀이(18) 곱사풀이(1)	45	

잡역노동요인 땅다지기노래는 집터를 닦을 때 부르는 노동요인데, 이천에서는 달구질노래의 사설과 혼용되어 불려진다. 집터나 묘터를 다진다는 노동 행위의 유사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설은 같더라도 후렴구는 반드시 다르게 부른다. 예를 들면, 땅다지기노래의 후렴은 “에이허라 지경이여”으로, 달구질노래는 “에헤리 달고(달공)”으로 불려진다. 땅다지기노래는 이천지역에서도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전지역에서 27편이 채록되었을 뿐이며, 최근에 조사한 모가면에서는 1편도 채록되지 않았다.

(2) 의식요 : 이천지역의 세시의식요로 달거리, 성주풀이, 태평성대, 홍수풀이, 농사풀이, 고사반, 우물고사, 장승고사, 마당굿, 터주굿, 부엌굿, 대청굿 등이 채록되었다. 이 노래들은 처음에는 가정이나 부락에서 행해지던 민속신앙의 한 형태로 불려지던 의식요였을 것이나, 지금은 주로 이천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거북놀이의 연희과정에서 불려진다. 고사반은 거의 각 지역마다 채록되었는데, 주로 마을의 농악패를 이끄는 상쇠들에 의해 구연되었다. 올면 고당리 유인준옹의 고사반은 사설이 50여행이나 되는 장편이며,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다. 성주풀이의 내용은 고사반과 같고, 후렴구로 “올로로 상사대야”를 반복하고 있다.

장례의식요인 상여노래·달구질노래는 이천 전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노동요가 점차 소실되고 있음에 비해, 장례의식요는 비록 소수이나 일부러 배워서 구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다. 소위 족보라는 사설집을 베껴서 전해오는 마을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회심곡의 사설을 암송해서 구연한다. 내용은 인생무상·충효·불교적 내세관 등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회심곡 사설을 그대로 외워서 구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도둑노래는 올면 총곡리에서 처음으로 채록되었는데, 사설은 상여노래와 다를 것이 없으나, 후렴이 매우 이색적이다.

달구질노래의 사설은 땅다지기노래와 혼용되어 불려기도 한다. 올면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노래는 연원도 뚜렷하고 특색 있는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구연자 스스로 명칭자체를 차별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노래의 특색은 받는 노래에 있다. 보통 달구지노래는 “에허리 달구” 식의 한 가지 노래로 이루어졌는데 비해,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노래는 7가지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후렴의 변화가 전체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신앙의식요의 주류인 회심가는 이천지역에서도 이미 대중화된 회심가의 사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올면 오성리 황결준옹이 구연해준 회심곡은 매우 이질적이다. 구연자 자신이 다른 회심곡은 불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어서 싫기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3) 유희요 : 이천지역에서 채록된 유희요는 매우 다양하다. 세시유희요로 그네뛰기, 자치기, 췌지나칭칭나네, 상사데야, 기와밟기, 거북이노래, 환갑노래, 혼인가, 화전놀이노래 등이 채록되었다. 거북이노래는 이천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그네뛰기노래는 추천가 또는 추천당가라는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 경기유희요로 줄넘기, 고무줄놀이, 술래찾기, 다리세기, 춘향각시놀이, 풍감문기, 종지놀이, 수건돌리기, 수박놀이 노래가 채록되었다. 특히 다리세기요는 전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록되었다. 소형유희요로는 소꿉장난노래 1편이 채록되었을 뿐이다. 풍소유희요라 할 수 있는 왔다봐라노래, 잠자리노래, 방아깨비노래, 눈요, 바람요 등은 동요의 영역에 들 수 있는 자료이다. 이천 지역에서는 언어유희요가 많이 채록되었는데, 특히 화투풀이, 언문풀이, 곱사풀이는 중시되는 자료이다. 화투풀이는 화투 1자에서 12까지의 숫자를 넣어 말을 엮어서 형성된 노래이다. 율령체를 빌어 사실을 붙인 노래로 내용이 거의 전형적이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가사의 내용은 제한적이고 일반적이다. 언문풀이는 가가거겨에서 하하허여까지 우리말 자음순으로 말을 넣어 엮는 노래이다. 대부분 장편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연정가류이다. 언문풀이는 대부분 중간에서 생략되었는데 백사면의 자료는 거의 전단락이 채록되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2) 비기능요

이천지역에서 채록된 비기능요는 전체 자료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산정된 자료만도 타령(96), 아리랑(26), 한탄가(62), 연정가(57), 사모가(8), 통속민요(220), 시절가(25), 동요(6)으로 504편이다.²⁾

2) 비기능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도 하부 분류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표 3〉 이천시 비기능요 자료 현황

타령	건드령타령(1), 꽃타령(2), 날개타령(1), 달타령(3), 담바귀타령(14), 덕담타령(1), 도라지타령(6), 돈타령(1), 매화타령(1), 바위타령(1), 방구타령(1), 방아타령(9), 범벅타령(1), 사랑타령(3), 새타령(1), 술타령(5), 신고산타령(8), 신세타령(1), 양산도타령(1), 어랑타령(11), 오봉산타령(1), 입타령(1), 장타령(31), 질경이타령(1), 춤타령(1), 치마타령(1), 칠봉산타령(1)	96
아리랑	아리랑(20), 역음아리랑(1), 자진아리랑(1), 긴아리(4)	26
한탄가	시집살이노래(32), 수심가(4), 한탄가(17), 탄로가(1), 백발가(2), 이별가(6)	62
연정가	사랑가(19), 연정가(35), 절개가(1), 연군가(2)	57
사모가	사친가(5), 화친가(1), 사향가(1), 사우가(1)	8
노랫가락	권주가(31), 난봉가(4), 노들강변(3), 노랫가락(89), 맺노래(20), 사발가(4), 창부타령(34), 청춘가(30), 풍년가(5)	220
시절가	개탄가(1), 해방가 (11), 국민병시절 노래(1), 징용때 노래(1), 6.25때 노래(1), 6.25 군가(1), 군인 간 노래(1), 왜정때 애국가(1), 제주도군가(1), 무궁화(1), 권학가(2), 잡가(1), 금강산 노래(1), 성냥팔이노래(1), 기차길노래(1),	25
동요	동요(8)	6

타령류는 이천에서도 다양한 노래가 채록되었다. 특히 설성면, 울면, 마장면, 부발읍, 장호원읍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채록되었다. 이 자료집에 산정된 것만도 108 편이나 된다. 담바귀타령, 덕담타령, 바위타령 등을 제외한 다른 자료는 지금도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대중 민요이다. 설성면의 바위타령은 설성면의 노성산·마옥산의 바위전설과 관련 있는 자료로써 지역성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아리랑류로 구분된 자료는 대부분 전형적인 양상이다.

한탄가류는 시집살이노래를 비롯하여 탄로가, 이별가 등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정리되었다. 시집살이노래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체험을 노래한 것이기에 이색적이다. 백사면 현방리에서 채록한 전도길 할머니의 노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발읍 무촌리의 송봉순 할머니가 구연해준 자료는 다음에서 보듯이 “형님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땀디까” 투의 일반적인 노래와 구별된다.

노랑두 대가리 뒤범벅 상추/ 언제나 길러서 내 낭군하나
눈에도 몸이 학이나 되어/ 날개 몸애다 입을 신고
이별 없는 고장을 가서/ 이별 없이 잘살아 볼걸
오동 같이도 검던 머리/ 파뿌리 될 줄은 누가 알았나
셋별 같이도 밝던 눈이/ 탄탄수 될 줄은 나 몰랐네

연정가류는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민요들이다. 다른 지역의 민요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사모가류는 사친가, 화친가, 사항가, 사우가를 포함하는데,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고향이나 부모,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대월면 도리리에서 채록한 한효손(94세)옹의 노래는 일찍 여윈 부모를 그리워하며 평생 불렀다는 노래이다. 그만큼 간절하다.

노랫가락·청춘가·한탄가·뱃노래와 같은 통속 민요류는 곡은 일정한데 비해 가사가 구연자에 의해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들 노래는 여럿이 돌림노래로 부르거나 두 사람이 주고 받는 형태로 부르기도 한다.

시절가류는 시대상을 직접 반영하고 있는 민요를 지칭한다. 해방가가 그 대표적인 민요이다. 해방가는 널리 불려지면서 대중민요화 되어 사설이 전형적이다. 울면 월포1리의 배기분 할머니가 구연해준 해방가는 체험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25 때 불려진 군가도 여러 편 채록되었다.

2. 형식 및 기교면

이천지역의 민요는 다음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노동요와 상여노래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여러 사람이 여음을 따라 부르는 선후창의 ‘선소리’ 형식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의식요라 할지라도 고사반·회심곡 등은 독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계동발 같은 노래도 독창이다. 둘째,

사설의 형식은 1음보는 3내지 4음이나, 4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행은 3음보 내지 4음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에도 3·3·4의 3음보행도 있어 주목을 끈다. 대체로 모내기노래를 비롯하여 논매기노래·땅다지기노래 등의 집단요는 정형성이 강하고, 그 외의 개인요는 비교적 자유롭게 구연된다. 어쨌든 이천지역 민요의 문장 형식은 3내지 4음보의 행이 무한히 연접하는 ‘나열법에 의한 연장체’가 일반적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셋째, 음수율은 3·3, 3·4, 4·4, 4·5, 4·6, 5·3, 5·4, 5·5, 5·6, 6·4, 6·5, 7·5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역시 기본율은 4·4조이다. 넷째, 표현적 특징은 대체로 상여노래에서는 중국의 고사와 한자어가 많이 구사되고 있는데 반해, 다른 민요에서는 지역에서 보통 쓰이는 일상어의 상투적 표현이 쓰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다섯째, 민요의 형식 중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후렴을 들 수 있다. 이는 조흥적, 조율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의 피로를 달래주며, 서로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후렴구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천지역에서 조사된 후렴구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모내기노래 : 이천지역 모내기노래의 후렴구는 “여하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하냐”가 전형으로 보인다. 전지역에서 거의 같은 후렴구가 채록되었다. 모가면 진가리의 “오 온다 에헤 생우야”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2) 논매기노래 : 이천 지방에서는 논매기노래를 초벌·재벌·세벌 때 각기 다르게 불렀다. 신탄면·대월면에서는 세벌 때 노래는 채록되지 않았다. 초벌 때는 “오홀로 가세야”를, 재벌 때는 “끓었네”를, 세벌 때는 “대허리”를 불렀다. 이것은 일하는 여건에 따라 노래의 분위기와 속도를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사면·율면에서는 초벌매기의 후렴구로 “오호아 에헤이 오호오 헤이아”, “오~ 올홀롤 상사테야”, “어하 올렐러 가세야” 세 가지 형태로 구연되고 있다. 재벌매기노래의 후렴구는 “오호 끓었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가 전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하 얼씬 대허리야”, “올로로 상사테야” 와 같은 후렴구가 있으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대허리는 여주지역의 일반적인 후렴구로, 율면에서는 채록되지

22 이천의 옛노래

않았으나, 여주와 인접지역인 설성면에서 채록할 수 있었다. 마장면에서는 초벌때는 오흠차 짚었네야를, 재벌때는 꿏았네, 흠쳤네, 둘러라를, 세벌때는 우기기를 불렀다. 장호원에서는 꿏았네, 단허리, 대허리를 불렀다. 신둔면에서는 초벌 때는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를, 재벌 때는 꿏았네를 불렀다. 부발읍에서는 꿏았네, 단허리를 불렀다. 장호원읍에서는 꿏았네, 단허리, 대허리를 불렀다. 신둔면에서는 초벌 때는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를, 재벌 때는 꿏았네를 불렀다. 호법면에서는 초벌 때는 “오금차 짚었네야”, “오하 오후이 에헤에야” 두 가지 형태로 구연되고 있다. 재벌 때는 꿏았네를 불렀다. 모기면·대월면에서는 초벌 때는 “오하 오후이 에헤에야”를 재벌 때는 꿏았네를 불렀다.

	초벌때기	재벌때기	세벌때기
백사면 · 울면	오호아 에헤이 오호오 헤이아 오~ 울흠물 상사대야 어하 울릴러 가세야	오호 꿏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	오하 얼썬 대허리야
마장면	오흠차 짚었네야	꿏았네, 흠쳤네, 둘러라	우기기
장호원		꿏았네	단허리,대허리
신둔면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꿏았네	
호법면	오금차 짚었네야오아 오후이 에헤에야	꿏았네	
모기면	오하 오후이 에헤에야	꿏았네	
대월면	오허야 오호 오헤이아 오호아	꿏았네	

이천지역의 모내기노래·논매기노래에서 한 노래에 후렴이 두 가지 형태로 구연되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 가는 양상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천지역 논매기노래의 후렴구는 대개 “오호 오 호이아”나 “오호 꿏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 “에헤 우겨라 방아로다”, “어얼짜 대허리야” 등으로 집약된다. 인접한 타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성 지역에서는 “어하 어기 릴릴”이라 하고, 용인 지역에서는 “어흠차 짚었네”, “에에이 둘레오”라고 한다. 이에 반해 여주 지역에서는 “어화 월썬 단허리야”, “골 골 꿏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 “에이여라 방아호”라고 한다. 이천의 백사면·울면과 흡사하다. 여주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

문에 서로 영향을 끼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재도듬노래 : 재도듬노래는 울면 총곡리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마물 마물 나무아미타불”이란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상여노래 : 상여노래의 후렴구는 지형이나 상여꾼의 발걸음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발인해서 나갈 때는 상여꾼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다소 느린 가락과 후렴 “어하 어하 (오하 오하)” 등으로 시작한다. 설성면에서는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로 시작되는데 특이한 경우이다. 평지를 갈 때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가령, “어허 어하 어거리 넘차 내하”(백사면), “어허어 어하 예헤이 어허아”(울면),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갈까 오호”(설성면), “오호 오호 어거리 넘차 오호야”(마장면), “오호 오호 어거리 넘차 오호야”(부발읍), “오호 오호이 어이나 가리 오호”(장호원읍·대월면), “오호 오호 어거리 넘차 오호야”(신둔면) 등으로 구연된다. 같은 노래에서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야”, “어허 어허나 가리 어허아”(호법면·모가면·대월면)가 함께 구연된 사례도 있다.

	발인할 때	평지에서	빨리갈때
설성면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갈까 오호아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마장면 부발읍 호법면 신둔면 모가면	어하 어하 (오하 오하)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장호원 모가면 대월면		어허 어허나 가리 어허아	

빨리 갈 때는 일반적으로 “오호 오호 오호 오호”로 받는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구연자의 발음상 차이일 뿐이다.

(5) 달구질노래 : 달구질노래는 일반적으로 “에라 에헤리 달고(에라 에헤리 달공)”로 불리며,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천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장호원에서는 “에헤리 달고(에헤리 달구)”로 후렴이 불려지다가 달구질을 마무리할 때는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를 부른다. 율면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노래는 후렴에 있어서도 매우 특이하다. 이 노래는 7가지 소리로 구성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에헤헤이 - 에헤헤이 오호호하 - ”이다. 이어서 선 소리가 메겨지고, 다시 같은 소리로 받는다. 선소리꾼이 바뀌지는 소리를 선창하면 받는 사람들이 다시 반복하면서 후렴구를 차례로 바꿔 부른다.

(6) 땅다지기노래 : 땅다지기노래의 후렴구는 “에헤야 지경이요”가 일반적이다. 이천지역에서도 “에야 헤리 지경이요”(백사,대월면), “에헤라 지경이요”(율면), “에헤야 지경이여”(부발읍·대월면), “에라 화-리 지경이야하”(마장면) 처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경이야” 대신 “지점이요”로 붙이는 사례도 있다. “에이-여라 지점이요”(설성면), “야 헤리 지제미요”(장호원읍)가 그 형태이다. 이밖에 “어기여차 디겼노”(신둔면), “어허라 영차 지경이라”(호법면), “오하 얼덜레 지경이우”(호법면)로 후렴을 붙인 경우도 있다.

Ⅲ. 비민요

이천지역에서 채록된 민요 가운데 비민요 자료도 14편이나 된다. 특히 율면과 설성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록되었다. 내용은 주로 춘향전이나 삼국지의 내용을 민요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산정된 자료는 농부가(1), 잡가(1), 달거리(1), 단가(1), 십장가(2), 적벽가(1), 초한가(2), 춘향가(5) 등이다.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의 곡에 맞춰서 단가를 부른 사례도 있고, 춘향가의 일부가 삽입되어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비민요 자료들은 소설작품을 구송(口誦)하는 과정에서 민요화한 사례를 실증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V. 이천의 특징적인 민요

어느 지역이든 고유의 노래가 있다. 대부분 그러한 민요는 지역적인 특색이나 구연자의 개성에서 비롯한다. 이천지역에서도 타지역에서 전혀 채록되지 않은 민요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율면 오성1리에서 채록된 농부가는 50여행이나 되는 장편이다. 내용으로 보아 식자층에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환갑노래·맹자공자뒤풀이,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노래 이색적이며 자료적 가치도 크다. 설성면에서 채록된 징용 때 불렀다는 노래, 국민병 시절에 부르던 노래나 마장면의 전봇대 노래, 6.25 당시에 부르던 노래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신둔면의 군인 간 노래, 기와 밟기, 씨레질노래, 왜정 때 애국가, 점잖은 노래, 질경이타령, 장부가 등도 특징적이다. 호법면에서 처음 채록된 무거운 짐을 들때 부르던 노래, 홀소풀이노래, 덕담타령, 자치기노래, 곱사풀이 등도 다른 지역에서 살피기 힘든 자료이다. 모가면의 모찌는노래, 성냥팔이노래, 잡가, 제주도군가 등도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성주풀이, 운문풀이는 가정신앙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유희요 가운데는 “가때 우리손이 하나이찌 몸매 / 또리 또리 또리 하나이찌 몸매”(호법면 단천리 1: 5)에서 보듯이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이 점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이천의 대표적인 소리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소리꾼이 있기 마련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의 현상이 달라졌음에도 아직은 모내기노래·논매기노래가 남아 있다. 각 마을마다 널리 인정받고 있는 소리꾼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백사면 내촌리의 박찬중씨는 여러 장르의 소리를 섭렵한 소리꾼이다. 율면 고당리의 박영하·유인준·이근영씨는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노래의 기능보유자라

해도 손색이 없다. 북두리의 송경수·정지영씨 역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설성면 행죽2리의 권순남·정분남 할머니, 신평2리 소서운할머니는 여러 편의 내방요를 구연해 주신 분이다. 장능리 오성철·홍인표, 송계3리 주영표, 장천3리 최덕교, 자석1리 유병희, 상봉2리 유흥철, 수산3리 안순균, 대죽1리 정주화씨도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마장면에서는 오천1리 김옥순, 관2리 서정분, 장암1리 이대복, 목리 이세채, 표교리 강성숙·김영하, 이치1리 지길현, 덕평1리 이춘수, 이평1리 유성렬, 작촌리 박준순씨가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부발읍에서는 무촌2리의 김창봉, 마암1리의 신태준, 죽당리의 오순규·서귀당, 아미1리의 이성복, 가좌리의 이옥순·윤정분, 대관리의 김영숙, 수정리의 이명하·윤병순·박금선씨가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장호원읍에서는 나래 1리 강대기, 오남 1리 최국현, 선읍 2리 김기현, 와현 1리 유성문, 장호원 3리 이상호, 이황 4리 권태호, 진암 3리 최재현, 어석 2리 박재형, 노탑 1리 박윤례, 노탑 2리 최용이, 황순립씨가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신둔면에서는 수남리의 한준수, 박계순, 용면리의 김창봉, 박용목, 전정희 수하리의 김영달, 마교리의 양창석, 소정리의 구연준, 남정리의 신영목, 지식리의 서정호, 김진오, 장동리의 황석하씨 등을 들 수 있다.

호법면에서는 동산리의 김문용, 유산리의 이종철, 단천리의 유재은, 주미리의 진광춘, 매곡리의 김백열, 정혁수씨 등을 들 수 있다.

모가면에서는 소사리의 황영균, 소고리의 조병동, 권영찬, 두미리의 이한우, 진가리의 송중하, 서경리의 이신출씨 등을 들 수 있다.

대월면에서는 군량리의 김병전, 홍대숙, 부필리의 김주선, 대대리의 최규식, 유경순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규식옹은 한때 국악을 수학한 적이 있는 소리꾼이다. 이천의 거북놀이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천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이 분들의 구연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으로 구연 분위기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채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천지역의 무속신앙과 무가

이천지역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까지는 토속신앙과 함께 무속신앙이 남달리 깊이 자리잡았던 지역이다. 강남대학술조사단이 1996년도 이후 매년 실시한 민속조사 결과 이천시 외곽지역에서는 무속신앙이 아직도 실제생활에 잠재해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무속인이 동리에 거주하면서 굿을 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장면 오천리에는 아직도 3대에 걸친 세습무(世襲巫)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무속협회인 경신연합회 이천시 지회장인 지경철씨에 의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무속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천지역의 무속 형태는 경기도 전역에서 살필 수 있는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무속 형태는 공동제와 개인제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동제의 형태로는 마을굿, 개인제의 형태로는 개인 치성굿 및 간단한 비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대체로 마을굿은 마을 전체의 공동제사로서 그에 따르는 절차를 지니고 있다. 무당굿도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있다. 조사결과 굿을 주관하는 무당 중에는 도당굿 또는 대동굿 등의 마을굿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마장면 오천리와 양천리의 무속인을 제외한 다른 무속인들은 굿의 전수 관계가 없고, 학습 과정도 자기 나름대로여서 마을굿의 내용과 형식이 무당 자신이 해주는 개인굿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개인굿 역시 나름대로 터득하고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 익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굿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굿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우환굿이고, 이 우환굿에서는 조상굿이 중심이 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집안에

든 액을 제거하고 재수가 있기를 기원하는 재수굿인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조상의 영향력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식으로 조상이 대두된다.

마을굿이든 개인굿이든 굿을 하는 무속인은 화려한 신당을 꾸미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신당은 여러 종류의 무신들을 모셔놓고, 또 여래·보살 등의 불상과 산신 등의 신상(神象)을 모셔놓은 것도 공통이다. 크기나 형태는 나름대로 구입 또는 주문 제작된 것이었다. 그 외에 각종 지화(紙花)를 장식한 것과 수많은 등을 걸어 놓고 촛대도 대형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 공통적이다.

무복(巫服)은 여러 벌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사옷과 장군복이다. 불사옷은 천궁불사거리에서 입는데, 완전히 갖추어 입은 모습을 살펴보면, 흰 장삼에 십장생 등의 수를 놓은 가사(무복의 가사는 폭이 좁고 일정하며 길다)를 양어깨에서 서로 반대편 허리 쪽으로 내려 걸치고 흰 고깔을 쓰며, 긴 염주를 목에 건다. 이 불사옷은 다른 지역 굿의 제석굿 때 입는 옷과 비슷하다. 여러 지역의 무굿에서 가장 많이 입는 무복 중의 하나이다. 장군복은 붉은 움(옷감)의 갑옷에 투구를 갖추고 있는데, 이 장군복 역시 다른 지역의 것과 비슷하다. 굿을 하지 않는 무당은 점을 쳐서 예언을 해주고 간단한 비손(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소원을 말하고 기원하는 것이 주된 행위)만 해준다.

이천지역의 무속인은 대부분 강신자(降神者)로서, 찾아온 손님에게 점을 쳐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간단한 치성을 드려주는데, 굿과의 차이는 악사들의 악기 반주가 없다는 것, 무복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굿거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또한 이천지역에서는 내륙의 도서와 농촌마을에서 주로 행해지는 개인굿이 많다.

이천시에서 무속신앙이 아직도 비중 있게 인식되고 굿을 행하는 지역으로는 마장면·율면·설성면·장호원읍의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이천시내에 거주하는 무속인도 더러 있으나 경신회에 가입하지 않고 무업(巫業)을 행하는 이가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이면 각 지역에 상주하는 무속인·무속신앙의 형태·무가(巫歌) 등은 다음과 같다.

I. 무속인(巫俗人)

이천시내에 거주하면서 무업에 종사하는 무속인은 홍보살(홍경자, 여, 62세), 윤보살(윤복순, 여, 31세) 등 5, 6명이 있다. 홍보살은 사슴1동에 거주하는데, 10세 때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하였고, 가정에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산기도를 다니다가 49세에 부악산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무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관음사(태고종)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모시는 신은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일월선관도사, 산신할아버지 등이다.

윤보살은 진리동에 거주하며 11살 때 신병이 들어 방황하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강화도 마니산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자신은 용궁의 자손이라서 용궁의 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맨 처음에는 불사할머니가 들어왔고 그후에는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 후부터 부적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 신어머니가 자꾸 자리 가리를 하라고 해서 인연을 끊었다고 한다. 그가 모시는 신은 불사할머니, 글문도사할아버지, 산신할아버지, 별상장군님, 단군할아버지, 선녀, 오방신장님(천아버지), 대신할머니(천어머니) 등이다. 그는 주로 쌀점을 보는데 7살 정도의 용궁선녀가 내려와 점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장호원읍내에도 예전에는 무속신앙이 짙었는데 점차 사라져서 현재 상주하며 굿을 하는 당집은 매우 희소하다. 오남2리에 정구연씨(68세, 남)가 소문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울면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무속신앙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상주하는 무속인도 여러 명이다. 이름난 무속인으로는 본죽리의 박정순 할머니(여, 70세), 산성2리 권상균씨(남, 58세), 그리고 고당리에 두 분이 계셨는데, 본 조사단이 뵈었던 분은 두 사람뿐이다.

설성면의 무속인으로는 행죽1리의 할머니(68세, 여), 수산2리의 할머니 등 두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얻지 못하였다.

마장면에 거주하는 무속인으로는 오천2리의 최순희 할머니(76세, 1970년 작고), 유인숙 할머니(70세)가 있으며, 양촌리의 이정순 할머니(78세)는 널리 알려진 무속인이

다. 이들 신할머니는 마장면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세습무이다. 동리의 부락제나 산신제때 초빙되어 의례를 주관하고 있다. 마장면 오천리 당거리의 당주인 용숫골만신 박간난은 원래 용인시 백암 용숫골에서 살면서 옹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천장에 옹기를 팔고 이곳을 지나 가다가 갑자기 현 당거리 쪽에 와서 손뼉을 치고 서낭당으로 뛰어 올라가 그 자리에서 신통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오천 도당의 당주 노릇을 했으며, 이천과 마장면 일대에서 큰 만신으로 불렸다고 한다. 박간난은 작두를 잘 탔는데, 당시 쌀가마나 벧가마를 놓고 그 위에 쌀 말을 엮은 후 작두를 탔다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작두를 탔음을 알 수 있다. 신딸인 현 당주 유인숙은 31세에 이곳으로 들어와 32세에 신내림을 받은 후 46년간이나 당을 지키고 살고 있다. 유인숙 역시 당시에는 작두를 탔으며 박간난의 뒤를 이어 이천의 큰 만신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이치리에도 무속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조사하지 못하였다. 역만이의 성광사(김성열씨)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사찰로 보이나, 무속신앙이 짙은 곳이었다. 여러 불상 외에 칠성단과 업신을 숭상하고 있다.

II. 무속신앙의 형태

이천지역에서도 10여년 전까지는 무속신앙이 가정신앙처럼 여겨졌다. 읍면의 무속인 권상균 씨에 의하면, 대부분 굿의 열두거리 중에서 제석거리·조상거리·성주거리·뒗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읍면지역 민가에서 이루어진 굿으로는 대개 삼신과 칠성에게 아기 갖기를 원하거나 아이의 무병 성장을 비는 삼재풀이·삼신풀이·칠성제 등이 있다. 치병(治病)굿으로는 병굿이나 푸닥거리가 주종을 이루고, 병상굿·손재풀이가 있다. 미친 병을 치료하는 두린굿도 가끔 있다고 한다. 이사할 때 성주굿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고사 정도에 그친다. 가장 많이 행해졌던 것은 액막이굿과 재수굿이며,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건이 셋김굿, 익사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넋건지기도 있고, 진오기굿으로 죽은 이를 천도하기도 한다. 지금은 병굿이나 액막이·살풀이·삼재풀이·자리건이

등 작은 곳이 고작이고, 가끔 재수굿을 하나, 규모는 크지 않다.

설성면에서는 무속신앙은 설성산·노성산·마옥산 기슭의 도처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원경사 연화정사의 불교 의식에 이미 무속신앙이 깊게 습합 되었다. 산신제도 사찰에서 주도하여 치르는데, 무속신앙과 불교의식이 혼합된 형태이다.

마장면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속신앙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오천리에서는 가정신앙이나 부락제 때도 무속인들을 불러다 대신 축원하였을 정도로 무속신앙이 널리 분포되었다. 당집이 있어서 ‘당거리’(오천3리)라는 지명도 생성되었다. 마장면 오천리 당거리는 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의 초등학교 뒤에 당집이 있어서 당거리라고 했으나, 현재는 당이 자리를 옮겨서 당거리라는 명칭만 남아 있다. 마장면의 무속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모시고 있는데, 외지에서 찾아드는 여러 형태의 굿은 물론, 타지역에 초빙되어 굿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수굿이나 부락의 대동굿과 같은 큰 굿을 벌일 때는 함께 일원이 되어 행한다. 관3리의 조옥순 할머니는 동티가 날 때 각 성(姓) 셋이 모여서 복숭아 회초리를 만들어 빈 도투마리를 두들기면서 옥출경을 암송하며 물리쳤다고 한다. 민간요법에도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짙게 배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천지역 경신회 회장인 지경철씨에 의하면, 현재 이천시에서 행해지는 도당굿은 서울 새남굿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며, 이천지역의 굿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곳 무당들의 중론이다. 이천지역에서 도당굿이 행해졌던 대표적인 사례는 마장면 오천리의 도당굿에서 살필 수 있다.¹⁾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천리에서 백중일에 장터에서 도당굿을 펼쳤는데, 한창 때는 인근의 주민들이 다 참석해서 성시를 이루었다 한다. 마을에서 사는 만신들이 굿을 하면 삼현육각을 잡히고 줄광대가 들어와서 줄을 타는 큰 도당굿이었다고 한다. 특히 오천2리에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 앞에 서낭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서낭을 받아 고속도로 지하도 입구에 서 있던 장승에 가서 축원을 한 후, 당에 가서 당굿을 하고, 장터로 옮겨서 큰 굿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당나무와 장승은 없고 장승백이라는

1) 하주성, 『경기도의 도당굿』, 경기문화재단, 1999, 190~194쪽 참조.

명칭만 전해지고 있을 뿐 옛곳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천리의 도당굿은 강신무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천의 도당은 일년에 두 번, 음력 정월 초2일과 10월 3일에 문을 열고, 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 당고사를 드린다고 한다. 원래 오천리에서는 7월 백중일에 당에서 당굿을 하고, 장터로 나가 거기서 도당굿을 했다고 한다. 1960년대에는 작두방인 최순희(1997년 사망), 마장면 내의 단골로 알려진 오봉어머니(1980년대 사망), 마장면의 큰 만신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 당주 유인숙의 신어머니며, 용숫골 만신이라는 박간난(1970년대 말 사망, 강신 무로 작두를 잘 탔다고 함), 현재 77세로 신엄마인 용숫골 만신에게서 당을 물려받아 40여 년째 지키고 있는 유인숙 등이 참여해서 굿판을 벌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먼저 현 오천2리 마을회관 앞에 서 있던 서낭(당나무)에 가서 서낭굿을 펼치고 난 후, 마을회관 옆으로 난 길을 따라서 고속도로 입구(마을에서는 지금도 장승백이라고 부른다)에 이르며, 거기 있던 장승 2기(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에서 거리부정을 치고, 이어 당으로 가 당굿을 펼쳤다고 한다. 당에서 당굿을 마친 후에는 만신들과 악사들이 다시 장터로 와서 마당굿을 펼쳤는데, 이때는 만신 박간난과 유인숙이 작두를 탔으며, 마장면 일대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굿이 끝나고 나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축원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위해서 백중일을 맞이하여 지내 오던 도당굿은 1960년대까지 전해지다가 그 이후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일년에 음력 정월 초 3일과 10월 초 3일에 당을 열고 당고사를 지내는데, 이 때 뿐이고 다른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당집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Ⅲ. 무가(巫歌)

일반적으로 무가는 청배(請拜)·공수(拱手)·축원(祝願)·오신(娛神) 등으로 이루어진다. 청배는 신의 내림을 비는 무가이다. 공수는 강립한 신이 인간을 향하여 잘못을 꾸짖거나 재수와 복록을 약속하는 형식의 무가이다. 축원은 신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이다. 오신의 과정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어지는 뒷풀이다. 마장면의 자료는 이 가운데 청배·축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가는 제의(祭儀)의 성격에 따라 기복제무가(祈福祭巫歌)·사령제무가(死靈祭巫歌)·치병제무가(治病祭巫歌)·무신제무가(巫神祭巫歌)로도 구분한다. 이 천지역에서 채록된 무가에서도 이 5가지 양상을 각각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이천시 무가 자료현황〉

무가	액맥이(1), 대감굿거리(1), 치성굿거리(1), 자리건이(2), 성주풀이(2), 제석굿(1), 조상굿(1) 병굿(1), 고사반(1), 제석본풀이(1), 객구물림(1), 성주굿(1), 진오귀굿(1), 당금애기(1)
무경	부부해로경(1), 경문(1)

울면지역에서 채록된 무가는 만신굿·액맥이굿·대감굿·치성굿·성주풀이 등 여러 곳에서 행하는 굿거리이다. 마장면 양촌리의 무속인 이정순씨(78세, 여)가 구연해준 무가 5편과 표교리에서 채록된 무가 1편은 타지역에서 채록하지 못한 귀중한 자료이다. 양촌리의 무가 5편은 제석풀이·치병(治病)굿거리·상당고사(성주신)·진오기굿·당금애기(巫祖神)로 무가의 여러 특징적인 면을 개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마장면에서 채록된 무가는 제석신을 위한 제석거리, 상당고사에 해당하는 사설인데 바로 기복제무가에 해당한다. 상당고사는 성주신을 위로하고 재수와 복록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병굿에서 구연되는 치병제 무가와 땅자의 넋을 위로하고 달래는 내용의 사령제 무가도 채록되었다. 무속인이 모시고 있는 무조(巫祖)당금애기의 내력을 풀이한 부분은 무신제 무가에 해당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바리데기가 대표적이다. 장호원읍 지역의 무가는 오남2리에서 정구연씨(68세, 남)가 구연해준 제석굿·성주풀이·병굿·부부해로경 등 7편이 채록되었다.

■ 참고문헌

<자료>

-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문화원 공편, 『이천시 문화유적·민속조보고서』, 백사면(96.12), 울면(97.5), 설성면(97.12), 마장면(98.12), 부발읍(98.12), 장호원(99.4), 신둔면(00.5), 호법면(01.4), 모가면(02.4), 대월면(02.11).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1~4권, 1998~2001.
- 하주성, 『경기도의 굿』, 경기문화재단, 1999.

<논저>

- 김순제, 「경기도 이천지방 일노래의 음악적 분석」, 『기전문화연구』 15집, 인천교육대학, 1986.
- 박광준, 「이천지역 민요조사연구」, 강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인수, 「利川 紫彩와 農謠」, 『기전문화』 2집, 기전향토문화연구소, 1987.
- 정동화, 「이천지방의 민요고」, 『기전문화연구』 9집, 인천교육대학, 1978.
- 하주성, 『이천의 민속 ‘거북놀이’』(향토문화조사보고서 1집), 이천문화원, 1985.
- 홍순석, 「이천시 백사면 민요조사연구」, 『논문집』 28집, 강남대출판부, 1997.
- _____, 「이천시 울면 민요조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4집,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 _____, 「이천시 마장면 민요조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5집,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 _____, 「이천시 부발읍 민요조사 연구」, 『국문학논집』 16집, 단대 국문과, 1998.
- _____, 「이천시 신둔면지역 민요의 특징」, 『민속학연구』 9호, 국립민속박물관, 2000.
- _____, 「이천시 호법면지역 민요의 특징」, 『인문과학연구』 10호,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제2부 자료

기능요 || 비기능요 || 비민요 || 무가

여 백

가능요

논쓰러 가자 논쓰러 가자/ 열두밤 쓰레발 걸머지고
 이발 저발 골러다가/ 네 목에다 언저 놓고
 뒤뜰에서 내가 서서/ 가자는 데루나 가자구나
 이려 이 소 어저가자
 우리도 참을 내어가니/ 앞에 내서 물을 지니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랴 이 소 어서가자
 이룬 빼미를 얼른 하고/ 수저 장구배미로 들어가서
 갈지자로 눌러질제/ 이통 저통을 제쳐놓고
 네발통만 치지말구/ 이려 이소 어저가자

여 백

I. 노동요

1. 논농사요

0510-1 : 7 논물대기

어어허 어허야/ 이는 저논 물넘어 들고/ 어어허 어허야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이마리)

0703-1 : 7 논갈기

논쓰러 가자 논쓰러 가자/ 열두밭 쓰레발 걸머지고

이발 저발 골러다가/ 네 목에다 언저 놓고

뒤뜰에서 내가 서서/ 가자는 데루나 가자구나

이려 이 소 어저가자

우리도 참을 내어가니/ 앞에 내서 물을 지니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랴 이 소 어저가자

이 논배미를 얼른 하고/ 수저 장구배미로 들어가서

갈지자로 눌러질제/ 이통 저통을 체쳐놓고

네발통만 치지말구/ 이려 이소 어저가자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석리)

0802-2 : 11 **논갈기**

이리야 어서 이리야 가자 어서 가자
니가 내말을 잘들어야만 너두 좋구 나두 좋구
힘두 작구 부지런히 하고 집에 간다
이리여 서야 어서 가자 이리여 디어 디어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2-2 : 12 **논갈기**

(빠른 소리)

이리야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디여 디 어디어디
허이 이리 돌아라 저리 돌아라/ 어서 빨리 가자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1003-1 : 8 **논갈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오호 아리랑 에헤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아리에이/ 아리랑 에에 에랑 아하리랑 (후렴1)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질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아리에이/ (후렴1)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 지며/ 날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아리에이/ (후렴1)

홍당목 치마는 붉어서 좋고/ 백공단 속곳은 넓어서 좋으네
아리랑 아리랑 아아리에이/ (후렴1)
요놈의 총각아 내 팔을 놓게/ 조각난 잡저고리가 쪽 나가네
어어허 걸음네야 어하저기저하/ 어어어허 어하 저기 저하 (후렴2)

밭은 일색 ...(미상)... / (후렴2)
 오늘 하루 차전건지/ 골목마다 연기나네/ (후렴2)
 오늘 하루 차전건지/ 골상추 밭에 큰애기 노네/ (후렴2)
 이 논자리에 모를 찌고/ 저 논자리에 모를 심세/ (후렴2)
 풍년일세 풍년일세/ 올해도 풍년일세/ (후렴2)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만 오소/ (후렴2)
 시화연풍 굳(?)해지나 ...(미상)... 에만 돌아오소/ (후렴2)
 이 못자리를 얼렁 지어/ 새참을 데려를 보세/ (후렴2)

* 1987.9.6, 김병익(남, 대월면 군량1리) 외 주민

0407-2 : 8 못자리하고 쉼 때

앞동산에는 푸룻푸룻/ 뒷동산에는 울긋불긋
 황금같은 피꼬리는/ 벼들 사이로 앓았노
 백설같은 흰나비는/ 변다리 밭으로 날으른다
 얼송돌송 호랑 나비는/ 향기 묻혀서 날으른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다/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나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미정면 표교리) 외 2인

0909-2 : 4 모찌기

몽치세 동치세/ 워허 이모판 몽치세

* 2001.5.7, 윤수경(남, 모가면 아농리) 외 1인

1009-1 : 1 모찌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차 모질 심으러 왔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잘 이 집이 부자가 되도록 모를 필납해 주십다. 모찌는 거라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어이랑/ 에헤루어 아라리로구요
(요소리는 한 묶음 찢겨요 세 춤을 찢야 되는거요)

42 이천의 옛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어이랑/ 얼씨구 아라리로구요

(두뚝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어이랑/ 에헤루아 아라리로구요

(자 모전애비 모덜 저 가시오)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104-1 : 3 모내기

심어주게 심어주게/ 서마지기 논배미를 심어만 주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심어주게 꽃아주게/ 삼배출자리로만 꽃아주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1996.7.11, 이상욱(64세, 남, 백사면 상용리)

0201-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오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오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1)

여기저기 심더라도 삼배출 짜리로 심어주오/ (후렴1)

여기도 하나아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1)

이 논배미를 얼른 심구 우에 논으로 올라가세

여기두 하난데 오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2)

여기저기 심더라도 삼배출 자리로 심어주오/ (후렴2)

여기도 하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3)

이팔청춘 소년들아 이 내 말을 들어봐라/ (후렴3)

천지천지 보루에 성난 화상이 일날제/ (후렴3)

여기도 하하나 저하 - 저기도 또 하나/ (후렴3)

* 1997.1.28, 조창구(70세, 남, 월면 고당리) 외 6인

0201-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보소 농부님네 아내 말 들어보소/ (후렴)
닷마지기 이 논배미 반달만치 남았구나/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하나 둘이 할지라도 열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3-3 : 1 모내기

오하 얼른 가아세아/ 오하 얼른 가아세아 (후렴)
잘도 한다 잘도 한다/ (후렴)
우리 농군들 잘도 하네/ (후렴)
사람은 많아도 소리는 작다/ (후렴)
오하 얼른 가아세아/ (후렴)
새록들이 찬바람에/ (후렴)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후렴)
울고 가면 울고 가지/ (후렴)
자는 나를 왜 깨우나/ (후렴)
잘도 하네 잘도 해요/ (후렴)
우리 농군들 잘도 하네/ (후렴)
오하 얼른 가아세아/ (후렴)
이팔 청춘 소년들아/ (후렴)
백발보고 웃지마라/ (후렴)

44 이천의 옛노래

휘~유~

* 1997.2.17, 구자원(79세, 남), 김용성(71세, 남), 오관영(72세, 남, 울면 본죽리)

0204-1 : 2 모내기

야~여기도 또 하나 지하 저기도 또 하나
야~여기도 또 하나 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저기 꼽더라도 삼배출 나게만 꼽이주소/ (후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야~여기도 또 하나 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1 모내기

여하 여기도 하난데 지하 저기도 또하나
여하 여기도 하난데 지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
옛날 같은 이논배미 반달같이 남았구나/ (후렴)
하나둘씩 심어도 삼배출만 심어주소/ (후렴)
옛날 같은 이논배미 반달같이 남았구나/ (후렴)
여기도 방인데 신발은 벗고서 들으세요/ (후렴)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산양리)

0205-1 : 2 모내기

여어 여기두하나 저어 저기두 또하나
여어 여기두하나 저어 저기두 또하나 (후렴)
심어주게 심어주게/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심어만 주게/ (후렴)
심어주게 꽃이주게/ (후렴)

삼배출 자리를 꽃어주게/ (후렴)

여어 여기두하나 저어 저기두 또하나

여어 여기두하나 저어 저기두 또하나

여기저기 꽃더래두/ (후렴)

삼배출 자리를 꽃어주게/ (후렴)

* 1997.2.28, 이종철(85세, 남, 울면 신안리)

0206-2 : 5 모내기

여기 저기 꽃더라도 삼배출 짜리만 꽃이주소

올로로 상사대야/ (후렴)

입은 가고 이별주고 꽃들은 한창인데/ (후렴)

산천초목은 젊어지고 우리네 인생은 늙어가나/ (후렴)

입은 가고 봄은 오니 임의 생각이 절로난다/ (후렴)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 웃지마라/ (후렴)

일들 하는데 신발을 벗고서 들거라/ (후렴)

꽃진다고 서러워말고 잎이나 핀다고 흘러마라/ (후렴)

너도 가고 나도 간다 마음대로는 못가리라/ (후렴)

너도 가고 나도 가는데 마음대로는 못가느냐/ (후렴)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꽃진다고 서러워말고/ (후렴)

어서 가세 바빠 가세 일은 많고 술은 없네/ (후렴)

너도 가네 나도 가네 우리네 인생은 늙어가나/ (후렴)

마음대로 못 가는데 너도 가고 나도 가네/ (후렴)

* 1997.2.18, 최동훈(81세, 남, 울면 석산리) 외 1인

0208-3 : 1 모내기

야 여기도 또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야 여기도 또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1)

여기 저기 꺾더라도 삼배출 자리로 꺾어주오/ (후렴1)
이 농사를 지어다가 무엇을 먼저할 것인가/ (후렴1)
부모공양 처자생육 먼저 해둔 다음에/ (후렴1)
...(중략)..
오하 올러 호호 세야/ 오하 올러 호호 세야 (후렴2)
얼씨구 좋구나/ (후렴2)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후렴2)
우리 농군 신선일세/ (후렴2)
이 논자리 얼른 심고/ (후렴2)
저 논자리로 옮겨가세/ (후렴2)

오호 휘이 - (모내기를 마치기 논에서 나오며 하는 소리)

* 1997.1.30. 이봉희(76세, 남, 울면 오섬리) 외 1인

0209-1 : 1 모내기

여기두 하나 저하 저기두 또 하나
오하 여기두 또하나 저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
반달 같은 이 논배미 웬달 같이만 심어주게/ (후렴)
오늘 해두 다갔는지 골골마루마다 연기 나네/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창잎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저기 저기도 꺾더라도 삼배출 짜리를 꺾어주게/ (후렴)
...(중략)..
여기 여차 대허리야 어하 얼썬 대허리야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외 1인

0210-1 : 1 모내기

여하 여기도 또하나 저하 저기도 또하나
여하 여기도 또하나 저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삼배출로 꽃아 주소/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고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고 삼배출 자리로만 바랍니다/ (후렴)
동남풍이 슬슬 불어 복논가약 바람 부네/ (후렴)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301-2 : 1 모내기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이 논자리 모를 심어/ (후렴)
삼배출 자리로 심어 주게/ (후렴)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 1997.11.16, 이희찬(73세, 남, 설성면 금당리)

0302-3 : 1 모내기

여기두 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여기두 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여기 저기 꽃더래두/ 삼배출 자리루 품어주소/ (후렴)
잘도하오 잘도하오/ 우리네 농부님 잘도하오/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만백성에 식량이로다/ (후렴)

* 1997.11.15, 홍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3-1 : 2 모내기

모를 심어~ 모를 심어~ / 오배출만 내어주게
 어~허싸 어~얼싸 어싸루나 갈까 어루아~ (후렴)
 이 논배미 평작 삼아/ 저 논배미 모를 심더대도/ (후렴)
 올해 부논 일 친이면/ 삼배출만 남겨주게/ (후렴)

* 1997.4.11, 김병철(47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4-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일이 훨훨 영화로구나/ (후렴)
 다른 공상 직업 중에/ 귀중할 손 농사로구나/ (후렴)
 신농씨 일운 답이/ 친추만세를 유전하네/ (후렴)
 드문드문 꼽아져도/ 오배출짜리로 꼽아주게/ (후렴)
 잘도 한다 잘도 하네/ 우리 농군님 잘도 하네/ (후렴)
 아들딸 낳걸랑 학교에 들어/ 신학공부를 시켜 보세/ (후렴)
 이 농사를 미리 지어/ 임금님께 봉양하고/ (후렴)
 남은 곡식 저축하여/ 부모 봉양을 하여 보세/ (후렴)
 남은 곡식 저축하여/ 백성이 유족히 지내며는
 우리 반도가 부강일세/ (후렴)
 잘도 한다 잘도 하네/ 우리 농군님 잘도 하네/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관용(56세, 남, 설성면 재요리)

0305-1 : 2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야- 여기도 하난데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하나 하나 농가님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후렴)

한 잔 술을 못 자셔도 약주 삼잔을 드는 듯이/ (후렴)
 없는 신명을 절로 내서 얼랑 얼랑 놀아 볼까/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로다 농사밖에 또 있나/ (후렴)
 반달 같은 이 논배미 원달같이 심어주오/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김준희(69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05-3 : 1 모내기

여기두 하난데 오하 저기두 또 하나
 여기두 하난데 오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
 하나 둘이 하드래두/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여기 저기 심더래두/ 삼배출짜리루 심어주소/ (후렴)
 이 농사를 지어서 무얼 먼저 할건가/ (후렴)
 부모공양 처자생육 먼저 해둔 다음에/ (후렴)
 우리도 실컷 먹고 놀아나 보세/ (후렴)

* 1997.11.22. 방인석(66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06-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저기 심더래도 삼배출짜리로 심어주오/ (후렴)
 이 논배미 얼른 심구 우에 논으로 올라가세/ (후렴)
 여기저기 심더래도 삼배출짜리로 심어주오/ (후렴)
 여기도 하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징천리)

0306-2 : 1 모내기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여기 저기 심드래두 삼배출짜리루 심어주게/ (후렴)
오늘해두 다졌는지 골골마다 연기나네/ (후렴)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07-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예루하 저기두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예루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여기도 하난데 오하 저기두 새루하나 (후렴2)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또다시 피련마는/ (후렴1)
우리 인생 한번 가며는/ 다시금 오기 어려워라/ (후렴1)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싶어서 지나/ (후렴1)
공산에 뜨는 달은/ 뜨고 싶어서 뜨나/ (후렴1)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10-1 : 3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일밖에 또 있는가/ (후렴)
우리 모두 힘을 다해 꽃아보세/ (후렴)
꽃아주게 꽃아주게 삼배출자리 꽃아주게/ (후렴)
여기 저기 꽃드래두 삼배출자리 꽃아주게/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올농사는 대풍일세/ (후렴)

* 1997.12.15, 김재선(62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3 모내기

여기두 하나 예하 저기두 또 하나
여기두 하나 예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
여기서 저만치 심드래두/ (후렴)
츄츄 힘으로 심어주께/ (후렴)
여기두 하나 예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
이 논배미를 모를심어/ (후렴)
장앞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여기두 하나 예하 저기두 또 하나

우 - 종구 종구 좋다 우회이이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1 모내기

여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심드래두/ (후렴)
삼배출짜리로 심어주소/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후렴)
장네빛 허구 영화로다/ (후렴)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1 모내기

여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꽃드래두 삼배출 짜리로 심어주소/ (후렴)
이 논배미 얼른 심고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52 이천의 옛노래

건너배미 얼른 심고 오늘의 일일랑 그치세/ (후렴)

* 1997.12.16, 정규동(70세, 남), 김용득(68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심더라도 삼배출짜리로 심어주소/ (후렴)

이 논배미 얼른 심고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이 논배미 모 심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후렴)

처자 형제 배불리 먹여보세/ (후렴)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312-1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푼더래두 삼배출 나게만 푼어주소/ (후렴)

노세 노세 짧아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 1997.12.16, 안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외 3인

0406-1 : 3 모내기

꽃었네 꽃었네 양석가리로 꽃었네

꽃어주소 심어주소 삼배출짜리만 꽃어주소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농사밖에 또 있나

에양 에양 에헤양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10-1 : 3 모내기

여어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 하나
여어 여기두 하난데 저하 저기두 또 하나 (후렴)
심어주게 심어주게/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심어만 주게/ (후렴)
심어주게 꽃어주게/ (후렴)
삼배출짜리를 꽃어주게/ (후렴)

* 1998.4.25, 이춘수(60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1-1 : 2 모내기

여어 여기도 하나 저어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심어 주게 심어 주게/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심어주게/ (후렴)
심어 주게 꽃어 주게/ (후렴)
삼배출짜리루 꽃어 주게/ (후렴)

* 1998.3.28, 최성환(74세, 남, 미장면 이평리)

0411-2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원달 같은 이 논배미 반달 같이나 남았구나/ (후렴)
하나 들씩 심더래두 삼배출만 심어주소/ (후렴)
여기도 하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 1998.4.10, 유원화(86세, 남, 미장면 이평리)

0412-1 : 3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심드래두 삼배출짜리루 심어주게/ (후렴)
오늘해두 다졌는지 골골마다 연기나네/ (후렴)

* 1998.3.29, 김종필(71세, 남, 마장면 해월리)

0412-1 : 3 모내기

여어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어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서 저만치 심드래두/ (후렴)
춤춤 힘으로 심어주게/ (후렴)
이 논배미를 모를 심어/ (후렴)
장있어 훗훗 영화로다/ (후렴)

* 1998.3.29, 이동철(69세, 남, 마장면 해월리)

0501-2 : 1 모내기

에헤라 방아로다 에이허라 방아로다 (후렴1)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후렴2)
하나를 심드래두 삼배출짜리만 꽃아주소/ (후렴1)
이 논배미 얼른 심고 건넌논으로 가세나/ (후렴1)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601-1 : 1 모내기

여기두 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여기두 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듬성 듬성 심드래두/ 삼배출짜만 심어주게/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풍년이 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후렴)

* 1999.1.16, 김대기(81세, 남), 주구홍(90세, 남), 주내영(76세, 남), 박도호(81세, 남, 장호원을 노래리)

0602-1 : 15 모내기

하나 꺾어 저하 저기도 꺾어 보세

여기 저기 꺾더래두/ 삼배출짜리만 꺾어 주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만 넘어가리

어령 어러령 어러리요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

어령 따다 먹으니 봄철이 왔나/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

어령 따다 소금 방초가 또 찾아왔네/ (후렴)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최용옥(74세, 남), 황순림(70세, 여), 김중환(62세, 여, 장호원을 노래리)

0609-1 : 3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 저기 저기도 또 심자/ (후렴)

여기 저기 심더래두/ 삼배출짜리로 심어주게/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날려라/ (후렴)

* 1999.1.14, 한효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을 노래리)

0612-1 : 9 모내기

하나 하나 하난데 오하 여기두 또 하나

하나 하나 하난데 오하 여기두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꺾더래두/ 삼배출짜리루 꺾어주소/ (후렴)

56 이천의 옛노래

꽃어주오 심어주오/ 삼배출짜리만 꽃어주소/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께/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이 세상에 농사밖에 또 있나/ (후렴)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을 진암리)

0702-1 : 3 모내기

꽃았네 심졌네 삼배출짜리로 꽃았네

여기도 하나 한 개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에헤 꽃았네 삼배출짜리로 꽃았네/ (후렴)

꽃았네 심졌네 여기 저기 꽃도래두/ (후렴)

삼배출짜리만 꽃아주게/ (후렴)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2-1 : 4 모내기

호하 호이여어 어기 허기야

골았네 골았지 삼배출짜리로 골았네

호호 호기두하 호하

호하 호이여어 허이 허어야이

골았네 골았네 삼배출짜리로 골았네

호하 호이려어 허이 허어야 호이야

잘도 허네 잘도 허네

우리나라 일꾼들 잘도 허네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3-1 : 4 모내기

모심으러 가세/ 모심으러 가세

논두랑으로 들어서서/ 한춤 두춤 모를 쥐서

네구배미에 던져놓고/ 만남 감님 들어서서
한줄 두줄을 넘길적에/ 여기 저기나 꽃드래도
사방 굴모로 꽃어주소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적리) 외 2인

0704-1 : 3 모내기

야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하나
야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하나 (후렴)
새루 하나를 또하나/ (후렴)
꽃여취 심어라/ (후렴)
사방에 줄모를 꽃여라/ (후렴)
에다가 제다가 꽃어도/ (후렴)
사방에 줄모 되었네/ (후렴)
신구명산 만장봉에/ (후렴)
바람이 분다 쓰러지며/ (후렴)
여기도 하나 또 하나/ (후렴)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706-2 : 3 모내기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후렴)
심어주게 심어주게/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에 심어를 주게/ (후렴)
바다 같은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후렴)
여기 저기 심더래두 삼배출짜리로 심어주게/ (후렴)

* 2000.3.12, 이병준(67세, 남, 신둔면 도암리)

0706-1 : 3 모내기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후렴)
여기 저기 꽃더래도/ (후렴)
삼배출짜리만 꽃아주게/ (후렴)
심어주게 꽃아주게/ (후렴)
삼배출짜리만 꽃아주게/ (후렴)

* 2000.3.4, 김월규(69세, 남, 신둔면 도암리) 외 2인

0708-1 : 4 모내기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하나 (후렴)
여기 저기 꽃아도 삼배출짜리만 꽃아주게/ (후렴)
바다같은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심어주게 꽃아를 주게/ (후렴)
삼배출짜리만 꽃아를 주게/ (후렴)

* 2002.3.4, 현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12-1 : 1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여기 저기도 또하나
하나간데 돌이요 둘간데 셋이로다
부지런히 손놀려서 이 논배미를 얼른 심고
자리 뜸을 해봅시다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외 1인

0713-1 : 3 모내기

어~ 여기도 하나 새루 하나가 또하나
 어~ 여기도 하나 새루 하나가 또하나 (후렴)
 어~ 여기도 하나 새루 하나가 또하나
 여기 저기다 붙드라도 빨간 턱 밑에만 꽃어라/ (후렴)
 어~ 여기도 하나 새루 하나가 또하나/ (후렴)
 * 2000,2,15, 구연준(68세, 남, 신도면 소정리) 외 2인

0804-1 : 1 모내기

여기도 하아나 저기도 또 하나
 여기 저기다가 심더라도 방방 고르게 심어주게
 여기도 하아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도 방인테 모주밀 가지고 들어오게/ (후렴)
 여기 저기다가 심더라도 오배출자리로 심어주게/ (후렴)
 여기도 방인테 술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후렴)
 장군배미를 얼른 심고 북배미논 다 넘어가세/ (후렴)
 저 낮이 되거니 농사밖에 또 있나/ (후렴)
 여기도 하아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후렴)
 여기도 하아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년년 해해마다 풍년이로구나/ (후렴)
 여기도 하나이요 저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
 풍년이요 풍년이로다 이강산 삼천리에 풍년이로다/ (후렴)
 여기도 하나이요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저기다가 심더라도 방방 고르게 심어주게/ (후렴)
 여기저기 심었네 저하 저기도 또 심었네/ (후렴)
 이 배미를 얼른 심고 술처 몰다 떼어보세/ (후렴)

어허 잘도 하네 모심는 수래를 잘도 해요/ (후렴)
여기도 하나이요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도 하나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서 병들면 못 노나니/ (후렴)
젊어서 노지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후렴)
늙어서 병이 들면 일을 못하고 놀거니까/ (후렴)
인생 일장춘몽이요 아니 놀고서 무엇하나/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사람이 늙고 보면 하던 일도 못하더라/ (후렴)
여기도 하나이요 저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외 5인

0807-1 : 10 모내기

여기두 방인데 신발을 벗구서 들어오소
여기두 방인데 신발을 벗구서 들어오소 (후렴)
들어와서 돛을 꽃고 모를 꽃아서 수확을 허자/ (후렴)
여보시오 벗님네들 다같이나 들어와서/ (후렴)
한푼 두푼 잘 꽃아서 삼배출자리로 꽃아보세/ (후렴)
금년도에도 풍년들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살제/ (후렴)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03-1 : 4 모내기

여기도 또하나 저기저기도 또하나 (후렴)
이논빼미를 열른심고/ 장구자리로 건너서자/ (후렴)
가나다라마바사아/ 천하장사 잇었구나/ (후렴)
여기저기 다 심더라도/ 삼배출자리로 꽃아주면/ (후렴)

가히없는 아내몸이/ 그지 없어도 되었구나/ (후렴)
 가가구구하니 고생하던/ 우리님이 구관하기라 짝이 없네/ (후렴)
 가나다라마바사아/ 천하장간 잊었구나/ (후렴)
 노새노새 젊어노새/ 늙어보면 못노나니/ (후렴)
 다닥다닥 붙었던 정이/ 없어도 떨어졌네/ (후렴)
 도중에 만났던 입/ 이별된 줄은 난 몰랐네/ (후렴)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후렴)
 도류장화를 꺾어서들고/ 청풍명월로 흘러가네/ (후렴)
 가자마자 빠졌더니/ 입의 생각 또 다시 난다/ (후렴)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의 내 낭군 모지도다/ (후렴)
 밥을 먹다도 입의 생각에/ 목이 매어서 못 먹겠네/ (후렴)
 보고지고 보고지고/ 정든 내님을 보고지고/ (후렴)
 사신 행차 바쁘시길/ 중간산이 늦어진다/ (후렴)
 소솔단풍 찬바람에/ 올고가는 저기럭야/ (후렴)
 한양 형네 가더들랑/ 일장소식을 전해다오/ (후렴)
 아야야 어허해 이수담수 나뉘던정/ 인정없이도 떨어졌네/ (후렴)
 오동동판 거문고를/ 새줄을 매고서 뜰노라니/ (후렴)
 백학이 먼저 저 짐작하고/ 우줄우줄 춤을 춘다/ (후렴)
 자주종종 만났던 입/ 소식좋다 돈절쿠나/ (후렴)
 조별낭군이 내 낭군인데/ 소식조차 무소식이야/ (후렴)
 차라리 죽었더면/ 이것저것을 다 잊을걸/ (후렴)
 초당 위에 깊이 든잠/ 화개소리에 놀라깨니/ (후렴)
 그악 소리 간곳없이/ 들리나니 물소리라/ (후렴)
 타향 땅 드는 칼로/ 이 내 목을 비고 지고/ (후렴)
 고이고이 품은 한을/ 어느 누가 동정하리/ (후렴)
 타도타도 울다더니/ 누구를 바라고 여길왔나/ (후렴)
 파요 파요 보고파요/ 한양에 낭군을 보고파요/ (후렴)
 폭포수 흐르는 물에 풍덩 빠졌더면/ 이것저것 다 잊을걸/ (후렴)

한양낭군이 내 낭군인데/ 한 번 가고서 무소식이/ (후렴)
호형하게도 먹었던 함이/ 탄상이리에 아니 간다/ (후렴)
영애 같은 갖은 님이/ 관문불입이 웬 말이요/ (후렴)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904-2 : 1 모내기

여기도 하나 저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저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 저기 심더라도 삼배출짜리로 심어주소/ (후렴)
노세 노세 젊어서 늙아 늙으나 병들면 못노나니/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옆에 사람은 보기 좋게/ (후렴)
반달 같은 이 논배미를 원달 같이도 심어주게/ (후렴)

* 2001.6.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외 6인

0909-1 : 28 모내기

여기도 하난데 저기 저와도 또 하나다
여기도 하난데 저 저기도 또 하난데 (후렴)
여기 저기 꽃더라도 삼배출짜리로 꽃여주어/ (후렴)
연년월에 풍년으로 연년으로 풍년일세/ (후렴)

* 2001.4.28, 이틀석(76세, 여, 모기면 어농리) 외 5인

0910-4 : 1 모내기

어하 여기도 또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어하 여기도 또하나 저하 저기두 또하나 (후렴)
여보시오 일꾼님네 우리 모두 노래나 해보세/ (후렴)
대강 대강 꽃드래두 반듯하게 꽃아주소/ (후렴)
여기 저기 꽃드래두 삼배출짜리만 꽃아주소/ (후렴)

* 2001.6.26, 임춘길(69세, 남, 모기면 원두리)

0911-2 : 1 모내기

우리 하루에 흥이로다

여기도 어 저기도 또 하나 (후렴)

하나하나 십다보니 삼배출짜리로 꽃아보세/ (후렴)

허 여보셔 농부님네 이내 이 말쌈 들어주소/ (후렴)

하루아침 넘어 떨어질적에 일년이 가요 천년이 가요/ (후렴)

* 2001.5.26, 송중화(64세, 남), 차인순(61세, 여, 모가면 진가리)

0911-2 : 2 모내기

오 온다 예혜 생우야/ 오 온다 예혜 생우야

이 논배미 얼른 심구/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 2001.5.26, 송중화(64세, 남), 차인순(61세, 여, 모가면 진가리)

0911-2 : 8 모내기

여기도 하나 어허이 저기도 또하나

여기도 하나 어허이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여기도 저기도 또하나 심어주세 꽃아주세

삼배출짜리로 꽃아주세/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심고 구손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꽃아주소 꽃아주소 슬스리도 꽃아주세/ (후렴)

담뱃대 꽃는 이 자리를 슬스리도 끊어가며/ (후렴)

* 2001.5.26, 송중화(64세, 남, 모가면 진가리) 외 1인

1001-3 : 5 모내기

이리저리 막 꽃자두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후렴)

비뚝 뻘뻘이 막 꽃자두요/ (후렴)

64 이천의 옛노래

삼배출내기로 심어주세요/ (후렴)

아무렇게나 막 심어두요/ (후렴)

삼배출내기로 심어나 주쇼/ (후렴)

* 2002.5.3, 김진각(59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1 : 4 모내기

여기도 허난데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허어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앞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이 논배미 산을 지어내어 나릿님전 진상하고/ (후렴)

부모공경 허구보면 요런 경사가 어디 있는가/ (후렴)

여기도 방인테 저기 저방을 메꿔라/ (후렴)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나 심어주게/ (후렴)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는 이천시 전역에서 불려지는 모내기노래의 후렴인데, 편의상 “하나 하나”로 제목을 대신해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자료에서 “허어나”로 발음된 것은 구연자 개인의 목소리 때문이다.

* 1986.7, 김순제 교수 채록자료, 김병익(대월면 군량1리) 외

1003-1 : 8 모내기

여기도 허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여기도 허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1)

아침 이슬 ... (미상)... 가지를 높고/ (후렴1)

한일자로 늘어서서 이 못자리만 심어를 주게/ (후렴1)

오다가다 꽃돌이 속만 ... (미상)... 주고/ (후렴1)

여기저기 꽃돌이 실랑속자리로 꽃아라/ (후렴1)

여기저기 꽃돌이 오배출자리로 꽃아라/ (후렴1)

십원에 꽃았네 이 논자리에 모를 꽃었네/ (후렴1)
 여보시오 청년님네 일심을 받아 모를 심으세/ (후렴1)
 우리네 넘보돌이 …(미상)… 에 모를 심어가지고/ (후렴1)
 나랏님전 진상하고 늙으신 부모 봉양을 하고/ (후렴1)
 어린자식 배불려 밀을 심어 …(미상)… / (후렴1)
 여기도 허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후렴1)
 달 돌아오네 달 돌아오네 월출동녘에 달 돌아온다/ (후렴1)
 서산에 지는 해를 동편으로 보네를 주고/ (후렴1)
 서편에 지는 중에 양무사로 잡어를 매세/ (후렴1)
 오뉴월에 혼례를 가나 구시월에 …(미상)… 되네/ (후렴1)
 심어라 꽃아라 일심을 받아서 꽃아라/ (후렴1)
 심어라 꽃아라 실심을 받아서 꽃아라/ (후렴1)
 이날 같이 등근달이 반달 만큼 남았구나/ (후렴1)
 심어라 꽃아라 이 논자리에 모를 꽃으요/ (후렴1)
 일락서산 해는지고 월출동녘에 저 달이 붉네/ (후렴1)

오오호오야 오호오호야/ 오오호오야 오호오호야 (후렴2)
 오야 허는 청춘님네들/ (후렴2)
 오야 일색 받아서 일시에 매고/ (후렴2)
 오야 봄 돌아 왔구나 봄 돌아 왔네/ (후렴2)
 오야 이 강산 삼천리 봄 돌아 왔네/ (후렴2)
오오호오야 오호오호야/ (후렴2)

노들강변 배따라지/ (후렴2)
 풀꽃 하나를 입에 갈아 물고서/ (후렴2)
 앞에 손님을 주고/ (후렴2)
 일심에 받아 앞님을 주게/ (후렴2)

* 1987.9.6, 김병익(대월면 군량1리) 외 주민

1003-2 : 2 모내기

어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여기도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1)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나 심어주게/ (후렴1)
 이 논자락 모를 심어 쉼이나 고루 꼽어주소/ (후렴1)
 이 논자락 모를 심어 삼배출짜리루다 심어주소/ (후렴1)

좋아 좋아하 올라 으~아 좋구나 으에
 에헤이 에헤이 휘이익 (후렴2)

(북채로 북을 두들기며 소리를 냄)

좋아 좋아하 올라 으~아 좋구나 으에/ (후렴2)

* 2002.3.17, 김병전(62세, 남, 대월면 군량리) 외

1009-1 : 2 모내기

(세모리에 못짐 올라 갑니다. 자 들어서시오 모를 심는다고요)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하나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또하나 (후렴)
 하나 간데는 둘 가고 둘 간데는 서이라/ (후렴)
 여기도 방인데 신발을 벗고 들어라/ (후렴)
 하나 간데 둘 가고 둘 간데 서이라/ (후렴)
 심었네 꽃았네 셋방으로 심어라/ (후렴)

(자 이 논배미도 다 심었으니, 자체배미로 들어간다고요)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103-2 : 4 모내기

심었네 꽃었네/ 삼배출짜리로만 꽃았네
심었네 심었네/ 오륙팔짜리 병치말고 잘잘 심었네
대풍년 오기를 기다리네/ 심었네 꽃었네
양석자리 너흑자리/ 수십절에 이은소
삼백쪽에 오리팔/ 이내맛은 말씀말고
심었네 꽃었네/ 대풍년 오기를 바라네
청춘나비가 날아들고/ 참새 콩새가 울고가고
눈물흐르는 소쩍새/ 이내 가슴 놀리는 구나
심었네 꽃었네/ 삼배출짜리 만석 짜리
두어실 가치나 쏟아지네
아버지는 평안할새/ 우리 나라 부유하고
눈물이 땅에 감투가/ 평안하기를 비나이시네
심었네 꽃었네/ 대풍년 들기를 기다리시네
이내 가슴 농군일세/ 심었네 꽃었네

* 2002.5.22, 장병근(75세, 남, 인천시 장록동)

0108-1 : 1 초벌매기

오호 오 호이야/ 오호 오 호이야 (후렴)
오늘 이 농부님네/ (후렴)
이논배미 다 매고서/ (후렴)
다른 논배미로 자리뎌 가봅시다/ (후렴)
서마지기 열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후렴)

* 1996.7.12, 이광희(78세, 남, 백서면 신대리)

0109-2 : 2 초벌매기

오호 오 호이 오호 오 호이야 에헤야
오호 오 호이 오호 오 호이야 에헤야 (후렴)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후렴)
늙어지면 못노리로다/ (후렴)

* 1996.7.15. 정자호(76세, 남, 백사면 조음리)

0201-1 : 2 초벌매기

오하 헤이이 오오호오야
오하 헤이이 오오호오야 (후렴)
오화 에이히 오호오야/ (후렴)
강좌허리를 하면서/ (후렴)
굶실굶실 잘도하네/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군인데/ (후렴)
농사 한철을 지을적에/ (후렴)
황소같은 농부들은/ (후렴)
오화 에이히 오호오야/ (후렴)
이 논배미를 열른 다 매고/ (후렴)
우에 논으로 올러를 가세/ (후렴)
오화에히 오허허야/ (후렴)
오화헤이 어허허야/ (후렴)
오화헤이 어허허야/ (후렴)

휘이

* 1997.1.28. 조창구(70세, 남, 울면 고당리) 외 6인

0201-1 : 7 초벌매기

오호아 에헤이 오호오 헤이야
오호아 에헤이 오호오 헤이야 (후렴)
여부시오 농부님네 이 내말 들어보소/ (후렴)
해는 지구 저문날에 옥천앵두 붉었으니/ (후렴)
시호시호 부제내를 온정 부제네 왜 아닌가/ (후렴)
송백수야 푸른 가지 높다랗게 끈을 매고/ (후렴)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 노니는데/ (후렴)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2-1 : 1 초벌매기

오하 에히 오호야/ 오하 에히 오호야
오하 에히 오호야/ 오하 에히 오호야 (후렴)
해는 지고 저무진 날에/ (후렴)
옷갓을 하고 어디를 가오/ (후렴)
* 1997.2.16, 최순철(62세, 남, 울면 신추리)

0203-3 : 2 초벌매기

오하 얼른 가아세아/ 오하 얼른 가아세아 (후렴)
오하 얼른 가아세아/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장구배미로 넘어나 가세/ (후렴)
오하 얼른 가 아세아/ (후렴)
오늘 해도 다갔는지/ (후렴)
골골이 연기난다/ (후렴)
이만 저만 고만 두고/ (후렴)

70 이천의 옛노래

휘~유~

* 1997.2.17, 구자원(79세, 남), 김용성(71세, 남), 오관영(72세, 남, 울면 본족리)

0203-4 : 5 초벌매기

오하 얼씬 대허리아/ 오하 얼씬 대허리아 (후렴)

농사는 천하지대본/ (후렴)

우리 농군 제일일세/ (후렴)

이 논배미 다 매고서/ (후렴)

다른 논자리로 옮겨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후렴)

반달같이 남아구나/ (후렴)

오하 얼씬 대허리아

지는해는 지구싶어 지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 1997.2.17, 안달웅(60세, 남, 울면 본족리)

0204-1 : 3 초벌매기

오~ 율홀롤 상사데야/ 오~ 율홀롤 상사데야 (후렴)

하나 둘이 할지라도/ (후렴)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우렁 우렁도 하여를 보소/ (후렴)

잘도 하시네 잘도나 해요/ (후렴)

우리 농부님들 잘도 하시네/ (후렴)

이팔 청춘 남녀들아/ (후렴)

백발 보고서 웃지를 마라/ (후렴)

나도 엇그제 청춘이더니/ (후렴)

오늘 백발 되었구나/ (후렴)

오~ 올홀롤 상사대야/ (후렴)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5 초벌매기

어하 올렐러 가세야/ 어하 올렐러 가세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할거나/ (후렴)

이 논배미 얼른 하고/ (후렴)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한데/ (후렴)

인제 매면 언제나 맬까/ (후렴)

내년중에나 또 맬건가/ (후렴)

여러분이 합심하여/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저 논배미로 들어가세/ (후렴)

* 1997.2.28, 이종철(85세, 남, 울면 산양리)

0206-1 : 2 초벌매기

오하 오올렐 고고세야/ 오하 오올렐 고고세야 (후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후렴)

저 논배미로 옮겨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우리 농군 잘도하네/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저 논배미로 옮겨가세/ (후렴)

* 1997.2.19, 이명식(69세, 남, 울면 석산리)

0209-1 : 1 초벌매기

주게 주게 삼배출짜리로 심어주게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하나 (후렴)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앞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하나/ (후렴)
 심어주게 꽃아주게 이 논배미다 꽃아주게/ (후렴)
 여기도 하나 저하 저기도 하나/ (후렴)
 바람앞에 지는 잎과 풀잎속에 지는 인생/ (후렴)
 간다 간다한데 초래초래가 구신일세/ (후렴)
 노세노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후렴)
 화무하고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신고강산 만장봉에 바람분다고 쓰러지면/ (후렴)
 송죽같이 굳은 절개 꽃핀다고 허락할까/ (후렴)
 가지가지 꽃가지요 구지구지 내 천자야/ (후렴)

오호호호~ 휘~ (마무리하는 소리)

* 1997.1.29. 김인용(72세, 남, 울면 월포리) 외 3인

0301-2 : 2 초벌매기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 1997.11.16. 이희찬(73세, 남), 안병희(73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2-3 : 2 초벌매기

자 우리 또 논덜 매보세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에헤야아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에헤야아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건너배미로 넘어보세/ (후렴)

장구배미로 넘어가세나/ (후렴)

오하 얼른 가아세야/ (후렴)

오늘 해도 다 기우는지/ (후렴)

골골마다 연기가 난다/ (후렴)

이만저만 고만 두고/ (후렴)

휘~ 유~ (일을 마치고 함께 나오면서 하는 소리)

* 1997.11.15, 흥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3-1 : 1 초벌매기

오하 오올러 가세/ 오하 오올러 가세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후렴)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후렴)

이 자리를 얼른 다 매고 쉬어를 보세/ (후렴)

잘들도 한다, 잘들도 하네/ (후렴)

우리 농부가 잘들도 하네/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임계순(69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5-1 : 2 초벌매기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
노세 노세 어하 젊어서 놀아/ (후렴)
늙고 병들면 어하 못노리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얼른 저건너 배미로들어가세/ (후렴)
저 건너 배미 다 매기만 하면/ (후렴)
오늘 힘든 농사 그만일세/ (후렴)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6-1 : 2 초벌매기

오홀로 가세아 오하 오홀로 가세아
오홀로 가세아 오하 오홀로 가세아 (후렴)
굵실굵실 잘도하네/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군인데/ (후렴)
농사 한철을 지을적에/ (후렴)
황소같은 농부들은/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다 매고/ (후렴)

...(중략)...

자 이제 그만매고 나가보세
휘이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잠천리)

0306-2 : 2 초벌매기

오하 올라 가아세야/ 오하 올라 가아세야 (후렴)
무정세월 야유파라/ 원수백발 달려드니/ (후렴)

인간 칠십 고래희라/ 없던 망향 절로 난다/ (후렴)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07-1 : 2 초벌매기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에헤야아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에헤야아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또다시 피련마는/ (후렴)

우리인생 한번 가면 또다시 오기가 어렵나니/ (후렴)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09-1 : 2 초벌매기

에헤야 데헤야 얼얼얼 상사디야

에헤야 데헤야 얼얼얼 상사디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건너배미로 넘어나 가세/ (후렴)

오늘해도 어느덧 지구/ (후렴)

골골마다 연기가 나는구나/ (후렴)

이만 저만 고만두고/ (후렴)

이 논배미나 얼른 매고/ (후렴)

오늘 농사는 여기서 마치세/ (후렴)

후르르륵 웨이

* 1997.12.15, 최관영(80세, 남), 권태군(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09-1 : 2 초벌매기

오희로 해여세야 오희로 해여세야
오희로 해여세야 오희로 해여세야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또다시 피련마는/ (후렴)
우리인생 한번가면 또다시 오기가 어렵나니/ (후렴)
살아생전 맘을 흘려 일하면서/ (후렴)
부모봉양 처자생육 잘한 뒤에/ (후렴)
늡기도 전에 실컷 놀아보세/ (후렴)
한번 가면 못오는 우리 인생/ (후렴)
아니 놀고는 눈 못감네/ (후렴)

* 1997.11.29. 주영표(74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10-2 : 2 초벌매기

오희라 개야 세야/ 오희라 개야 세야 (후렴)
동네 일군이 다모여서/ (후렴)
이 논배미를 다 매주네/ (후렴)
오희라 개야 세야/ (후렴)
이 논배미를 다 매구서/ (후렴)
저 논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오희라 개야 세야/ (후렴)

* 1997.12.15. 권영신(66세, 남), 한승우(7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1 초벌매기

오희라 개야 세야/ 오희라 개야 세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구/ (후렴)
장구배미를 넘어가세/ (후렴)

오홀라 개야 세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구/ (후렴)
막걸리 참이나 대여보세/ (후렴)
오홀라 개야 세야/ (후렴)

* 1997.12.15. 유흥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1 : 1 초벌매기

오홀싸 개야 세야/ 오홀싸 개야 세야 (후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우리 모두 힘을 다해/ (후렴)
저 논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후렴)
우리 일꾼 잘도하네/ (후렴)
이 논배미 끝내고서/ (후렴)
오늘에 농사 손을 떼서/ (후렴)

* 1997.12.15. 김재선(62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2 초벌매기

오홀로 가세아 오홀러 가세아
오홀로 가세아 오홀러 가세아 (후렴)
잘도 한다 잘도 한다/ (후렴)
우리 농군들 잘도 하시네/ (후렴)
사람은 많다해도 소리는 작다/ (후렴)
하나 둘이 하더라도/ (후렴)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얼른 얼른 이 논배미 매고/ (후렴)

장구배미로 넘어를 가세/ (후렴)
오늘 해도 다 갔는지/ (후렴)
골골마다 연기가 난다/ (후렴)
이만 저만 고만두고/ (후렴)
호이유 휘익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2 초벌매기

오하 에일러 거하세야/ 오하 에일러 거하세야 (후렴)
하나 둘이 하더래도/ (후렴)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우렁차게 불러나 보세/ (후렴)
잘도 하시네 잘도 해요/ (후렴)
우리 농부님들 잘도 해요/ (후렴)
이팔청춘 남녀들아/ (후렴)
백발보고서 웃지를 마라/ (후렴)
나도 엇그제 청춘이더니/ (후렴)
오늘 이 백발 되었다네/ (후렴)
가세 가세 얼른 가서/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저 건너로 넘어를 가세/ (후렴)
오하 에일러 거하세야/ (후렴)
오하 에일러 거하세야/ (후렴)

* 1997.12.16, 정규동(70세, 남), 김용득(68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2 초벌매기

오하 얼릴러 상사디아/ 오하 얼릴러 상사디아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동산에 떠오른 아침해가/ (후렴)
벌써 서산에 다 기울어가니/ (후렴)
이 논배미 빨리 매고/ (후렴)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312-1 : 2 초벌매기

어야 텅이야 어야 텅이야/ 어야 텅이야 어야 텅이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동산에 있던 아침해가 벌써 서산에 걸렸으니/ (후렴)
이 논배미 빨리 매고 저 건너로 넘어가세/ (후렴)

* 1997.12.16, 안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외 3인

0405-1 : 3 초벌매기

“(북을 둥둥 치면서) 야 노래할 양반은 가운데로 오고 노래 안할 양반은 저 끝으로 가시유”

어하 오호이 예헤에야
어하 오호이 예헤에야 (후렴)
여보게 김매던 여러 양반/ (후렴)
이 내 말을 좀 들어를 보세/ (후렴)
무슨 날이가 잘들었다가/ (후렴)
이따가 주모님이 나오시건든/ (후렴)

마시기 좋은 막걸리 가져오라고/ (후렴)
한동이 두동이 가져오라고 일리지/ (후렴)
그 술을 먹고서 김을 매야/ (후렴)
김매는 여러 양반 글력이 좋아/ (후렴)
춤을 너무 여럿이 춘다/ (후렴)
김을 누가 맬라고 여럿이 춤을 추나/ (후렴)
에헤야 그것도 고만두고/ (후렴)
어허이 에헤야/ (후렴)
주모님이 막걸리 가지고 오셨는데/ (후렴)
얼른 내려가서 한사발씩 먹자/ (후렴)

(야 나가서 술한잔씩 먹고하자)

* 1998.4.21, 이대복(74세, 남, 마장면 장암리)

0406-1 : 4 초벌매기

에라 농부들 말들소/ 에라 농부들 말들소
저기 저기 심던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소
너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10-1 : 1 초벌매기

오호 오흠차 찍었네야
오호 오흠차 찍었네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동산에 떠오른 아침해가/ (후렴)
벌써 서산에 다 기울어가니/ (후렴)

* 1998.4.11, 임종국(67세, 남, 마장면 덕평리)

0410-1 : 1 초벌매기

오흠차 째었네야/ 오흠차 째었네야 (후렴)
이 논배미 얼른매고/ (후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후렴)
저 논배미로 옮겨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우리 농군 잘도 하네/ (후렴)

* 1998.4.25, 이춘수(60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1-1 : 1 초벌매기

오흠차 째었네야 오흠차 째었네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할거나/ (후렴)
이 논배미 얼른 하고/ (후렴)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한데/ (후렴)
인제 매면 언제나 맬까/ (후렴)

* 1998.3.28, 최성환(74세, 남, 미장면 이평리)

0412-1 : 1 초벌매기

오흠차 째었네야/ 오흠차 째었네야 (후렴)
노세 노세 어하 짧어서 노세/ (후렴)
늡고 병들면 어하 못노리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얼른 저 건너 배미로 들어가세/ (후렴)
저 건너 배미 다 매기만 하면/ (후렴)
오늘 힘든 농사 그만일세/ (후렴)

* 1998.3.29, 김중필(71세, 남, 미장면 해월리)

0413-1 : 5 초벌매기

오호 오호 고르호 네헤야 어하 술술 둘러라
어기어차 두기허 네헤라/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네나 말씀들 들어보소/ 오호 오호 고르호 네헤야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마장면 직촌리)

0602-1 : 9 초벌매기

오홀싸 댜호리아/ 오홀싸 댜호리아 (후렴)
우리 농부 논 잘 매서/ (후렴)
일취나 월장을 키워보세/ (후렴)
여기 저기 찍어노면/ (후렴)
흙덩어리가 잘 굴러서/ (후렴)
무럭 무럭 잘도 단네/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후렴)
이내 말씀 좀 들어보게/ (후렴)

* 1999.1.13, 이삼태(74세, 남), 최용익(74세, 남, 장호원을 노탑리)

0604-1 : 1 초벌매기

오홀싸 댜허리아/ 오홀싸 댜허리아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건넌논으로 넘어나 가세/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벌써 다 기울었고/ (후렴)
집집마다 연기나니 저녁일세/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여기서 마치세나/ (후렴)

* 1999.1.12, 박기현(60세, 남), 윤호채(77세, 남, 장호원을 방추리)

0609-1 : 1 초벌매기

네가 잘나 일색이더냐/ 내 눈이 어두워 환장이지
오하 얼싸 대허리야 (후렴)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나 조종은 황해수라/ (후렴)
네가 잘나 일색이냐/ 내 눈이 어두워 환장이지/ (후렴)
몸은 비록 기생일 망정/ 절개 조차도 없을쏘냐/ (후렴)
* 1999.1.14, 한효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을 외현리)

0612-1 : 8 초벌매기

오홀싸 대허리야/ 오홀싸 대허리야 (후렴)
에라 농부들 말든소/ (후렴)
저기 저기 논배미가/ (후렴)
반달만큼 남았소/ (후렴)
니가 무슨 반달이냐/ (후렴)
초생달이 반달이지/ (후렴)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을 진양리)

0702-1 : 5 초벌매기

곶았네 곶았네 텅이만 슬슬 굴러라
곶았네 곶았네 텅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우리 동네 일꾼님들/ (후렴)
이 논밭에 다 모였네/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저 건너배미로 넘어를 가세/ (후렴)
잘도 맨다 우리 일꾼님들/ (후렴)
목이 마르면 술을 마시고/ (후렴)
시장들 하면 새참도 있네/ (후렴)

84 이천의 옛노래

이 논배미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지는 해는 서산에 기울고/ (후렴)

골골이 연기만 이는데/ (후렴)

이 논배미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3-1 : 2 초벌매기

오호오 오야 에헤에야

오호오 오야 에헤에야 (후렴)

오~오~호 오호오이~/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들/ (후렴)

이네 말쌈을 들어보소/ (후렴)

일세 가꾸고 일세 노소/ (후렴)

여기 한창 내다보이면/ (후렴)

앞두렁을 넘어서서/ (후렴)

장구나 배미를 물러가세/ (후렴)

앞 뒤 뚜렁에 농부님네들/ (후렴)

강부리루다 손을 주소/ (후렴)

강부리에 농부님네들/ (후렴)

강부리 소꿈을 돌워주소/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구/ (후렴)

저 논배미를 매어볼까/ (후렴)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자석리) 외 2인

0707-3 : 1 초벌매기

오호아 오힐 메헤에 호리야

오호아 오힐 메헤에 호리야 (후렴)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어디서 노나/ (후렴)
* 2000.3.12, 김봉수(61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08-1 : 5 초벌매기

오하 오일레헤야 오하 오일레헤야
오하 오일레헤야 오하 오일레헤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후렴)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어데서 노나/ (후렴)
우리 이 논 얼른 매고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 2000.3.4, 한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12-1 : 12 초벌매기

오호 오호히 오히야 오호야
여기서 저름 찍더라도/ 빨리 빨리 찍어가며
베폭 하나 지지 말자/ 메땀땀이도 하여보세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외 1인

0712-1 : 13 초벌매기

논을 매어 봅시다/ 올가뎡이나 달가뎡이나
올가뎡이나 달가뎡이나/ 이간뎡이야 산간뎡이다
오호히이다 이간다
일등가면 담배 한 갑/ 이등가면 술 한 잔
너두 매서 나도 매고 부지런히 매어보세요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외 1인

0713-1 : 4 초벌매기

오하 오호레 헤이 호야/ 오하 오호레 헤이 호야
오하 오호레 헤이 호야/ 오하 오호레 헤이 호야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후렴)
이 논 배미를 얼른다 메고 장구배미로 이동을 가세/ (후렴)

* 2000.2.15, 구연준(68세, 남, 신둔면 소정리) 외 2인

0803-1 : 2 초벌매기

오~오금차 찍었네/ 오~하 얼릴레 찍어 넘어가라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우리 모나 찍었나 보자
오~오금차 찍었네

* 2000.4.29, 이명희(78세, 남, 호법면 매곡리) 외

0804-1 : 2 초벌매기

오호 꿏은나 텡이나 슬슬 굴러라
오호 꿏은나 텡이나 슬슬 굴러라 (후렴)
천하도 명산은 승지단은 논계를 보더니 눈 그리고/ (후렴)
만화 방충을 확인중에는 펄펄 뛰도는 발 그리고/ (후렴)
만화 방충은 무중에는 내 잘맞든 코 그리고/ (후렴)
만초지초가 음가화초를 돌 다먹든 입을 그려/ (후렴)
좌편에는 청산이요 우편에는 녹수рода/ (후렴)
우편에는 녹슬어 계수나무나 박혔으니/ (후렴)
계수나무에 그늘밑은 영금주춤 허리는 잘록/ (후렴)
몽치나 몽푼에 앞발은 자루고 뒷발은 길어/ (후렴)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외 5인

0807-1 : 11 초벌매기

오후우~ 오후이~ 에헤헤야 오후이야
 오후우~ 오후이~ 에헤헤야 오후이야 (후렴)
 놀어 놀어 젊어만 노세/ (후렴)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후렴)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06-2 : 13 초벌매기

어하디야 어혈라디아/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어혈라디아
 삼각산 나린 줄기/ 비봉 땅에다 절을 짓고

* 2001.5.24, 민병국(76세, 남, 모기면 송곡리) 외 1인

1001-1 : 2 초벌매기

논들 매러 갑시다
 여기 저기를 찍더래도/ 방만 고르게 매주세요
 여기 저기다 훑치더래도/ 벼꼭만 잡아다 놔주세요
 여기 저기를 찍더래도/ 병만 고르게 매주세요
 오화 훑차 찍었네야
 여기 저기를 찍지말고/ 고르 방만 고르게 매주시오

* 2002.3.17, 한중순(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1 : 5 초벌매기

조저조조조조조조 워
 오후야 오후오이야/ 오후야 오후오이야 (후렴1)
 오후야 오후오이야/ (후렴1)
 웨야 세월 네월야 가지를 따라/ (후렴1)

웨야 한때 청춘이 다 늙어가네/ (후렴1)
 웨야 언문에 머루 하니/ (후렴1)
 웨야 수월 지나 적막하다/ (후렴1)
 웨야 축태왕을 기다리지를 말라/ (후렴1)
 웨야 궤를 짚고 일어서니/ (후렴1)
 오오오오이 오호오이야 오호야
 오오오오이 오호오이야 오호야(후렴2)
 시월에 …(미상)… / (후렴2)
 우리 청춘은 이 논빼미에 논다/ (후렴2)
 이 논빼미에는 어느 때 매구/ (후렴2)
 새번빼미에는 너머를 헨다 갑시다/ (후렴2)

“오호이 에헤이야”는 이천시 대월면 지역에서 불려지는 초벌매기 노래의 후렴인데,
 편의상 “오호이 에헤이야”로 제목을 대신해 지칭하기도 한다.

* 1987.9.6. 김순제 교수 채록 자료, 김병익(대월면 군량1리) 외 주민

1003-2 : 3 초벌매기

오허이야 오호 오헤이야 오호야
 오허이야 오호 오헤이야 오호야 (후렴1)
 자 연분홍 청춘에 논만 매고/ (후렴1)
 어허 어히 오하 널부렁졌구나/ (후렴1)
 어허 어히 오하 중방이 지나치게 되면/ (후렴1)
 어허 어히 정이나 두고나 들면/ (후렴1)
 어허 어히 잘도 한다 잘도 해야/ (후렴1)

오호 오호이야 오호야 에헤야
 오호 오호이야 오호야 에헤야(후렴2)
 일락 중천 가신날은 어디다가 쏘다가 붓는건가/ (후렴2)

청춘은 완세가 세월 내월이나 가리치는데/ (후렴2)
우리네 놀다가 가면은 누가 따라나 줄라나/ (후렴2)
좋다 좋아 좋구나

(아유 잘들도 하네)

* 2002.3.17. 김병전(62세, 남, 대월면 군량리) 외

1009-1 : 3 초벌매기

(자 이번에는 자채배미로 맨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 하마루 보관에는 장정이 드시구 노약자
부인 늙은이는 두렁 밑으로 들이시오)

오호하 오이에헤 에헤야~/ 오호하 오이에헤야 에헤야
오호하 오이에헤야 에헤야/ 오~하 오오히 에헤~에야

(자 부녀들과 노약자는 두렁 밑으로 서시오. 너무 급히 매가지구 안 되갓시유. 방아소리가
너무 빨라서)

오호 오이에헤 에야/ 오하 어이 에헤에야/ 오하 오히 에헤에야

(어이구 숨이 차서 큰일 났시유. 이렇게 하다가는, 좀 천천히 하자구)

오~하 오호이 에~헤~에~헤야

(참 잘도 매시오. 자 이제 땀으니, 자채논으로 들어간다고요)

에양 데에양 에헤야양/ 나의이이히 에헤루야 매화로다야
에양 데에양 에헤야양/ 나의이이히 에헤루야 매화로다야

(어참 잘덜 매시유. 자채논은 뒷걸음으로 매야 잘 매는거요. 너무 빨리들 매면 안됩니다)

90 이천의 옛노래

에양 데에양 에헤야/ 나의이이히 에헤루야 매화로디아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5 : 1 초벌매기

(자, 좌장님이 말씀하시니 잘 들 들어라. 예이. 자, 장정들은 한마루 복판으로 들고 노약자는 저 가생이로들 들으시오. 김을 맨다고요)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후렴)

(자, 방아소리가 좀 느리니까 김이 좀 덜 매진다. 자진방아로 한번 넘어간다.)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후렴)

덜커댕이나 얼커댕이다/ (후렴)

(야, 아저 너무 자진방아로 하니깐 숨들차군. 조금 느리게 해보자)

우기고 달리려므나/ 오호 오호오 오호 오호하

(자, 여러분 이 논배미 다 뺏으면 샘치배미로 넘어섭니다.)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후렴)

오하소리만 따라만 하세/ (후렴)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이렇게 매다가는 논 언제 다 매느냐. 한번 자주 좀 매보자. 자진방아로)

오하 오호이 에헤이야/ (후렴)

얼커댕이나 걸커댕이다/ (후렴)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104-1 : 1 재벌매기

오호 오 호이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려라

오호 오 호이야/ 오호 오 호이 꿏았네

오호 오 호이야

* 1996.7.11, 이상옥(64세, 남, 백사면 상용리)

0104-1 : 2 재벌매기

오호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려라

오호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려라 (후렴)

이 논배미를 다하고서/ 어느 논자리로 갈거냐/ (후렴)

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할거냐/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하네/ (후렴)

인제 매면 언제 땀까/ 내년 중에나 또 매고/ (후렴)

이 논배미를 다매고/ 저 논배미로 간다/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 농사가 풍년일세/ (후렴)

여러분이 합심하여/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는 더 있느냐/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들어가자/ (후렴)

* 1996.7.11, 이상옥(64세, 남, 백사면 상용리)

0108-1 : 2 재벌매기

에야 에헤리 꿏았네

에야 에헤리 꿏았네 (후렴)

이 논자리 매고서/ (후렴)

다른데로 자리뜯하여/ (후렴)

높은 댕이를 내여 갈며/ (후렴)

* 1996.7.12, 이광희(78세, 남, 백사면 신대리)

0109-2 : 1 재벌매기

오호 꿏았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꿏았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
무정한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후렴)
이제 가면 언제와요/ (후렴)
* 1996.7.15. 정자호(76세, 남, 백사면 조음리)

0201-1 : 3 재벌매기

오호호 꿏았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호 꿏았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일락서산 지는 해는 지구싫어 진다느냐/ (후렴)
장애요소야 흐르는 물아
흐르는 물은 다시 보기가 어려워라/ (후렴)
오호야 부모의 기대는 이 아니오고/ (후렴)
꽃이라도 낙화가 되니 오던 나비도 아니온다/ (후렴)
좋은 음식도 바뀌나니 수천겁을 찾아가네/ (후렴)
이 다음도 나 물려지니 나도 그대로 가네/ (후렴)
* 1997.1.28. 조창구(70세, 남, 월면 고당리) 외 6인

0203-3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오하 슬슬 굴러라
오호 꿏었네 오하 슬슬 굴러라 (후렴)
사람은 많어도 소리는 적어/ 어찌하면 좋을 까나/ (후렴)
오호 꿏었네 오하 슬슬 굴러라/ (후렴)
이논배미 얼른 매고/ 장구배미로 넘어나 가세/ (후렴)
하나 둘이 할지라도/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고 곁의 사람은 보기 좋게/ (후렴)

오호 꿏었네 오하 슬슬 굴러요/ (후렴)

오호 꿏었에 오하 슬슬 굴러요/ (후렴)

한토리 종자 싹이 터서/ 만고 싹이 열매 맺는/ (후렴)

신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 땅의 조화로다/ (후렴)

오호 꿏었네 오하 슬슬 굴러요/ (후렴)

* 1997.2.17, 구지원(79세, 남), 김용삼(71세, 남), 오관영(72세, 남, 율면 본죽리)

0203-4 : 6 재벌매기

에헤리 꿏었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에헤리 꿏었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어느 논자리로 갈거냐/ (후렴)

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할거냐/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들어가세/ (후렴)

* 1997.2.17, 인달홍(60세, 남, 율면 본죽리)

0204-1 : 2 재벌매기노래

에헤헤 꿏었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에헤헤 꿏었네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우리 농부들 잘도 하네/ (후렴)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잘넘어 가네 잘넘어 가네/ (후렴)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골골마다 연기나고/ (후렴)

덩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 1997.2.18, 송경수(77세, 남, 율면 북두리) 외 2인

0204-1 : 4 재벌매기

에헤~헤~ 꿏었네 댕이만 술술 굴러라
에헤~헤~ 꿏었네 댕이만 술술 굴러라 (후렴)
세상 천지 넓다 해도 나 갈곳이 바이 없고/ (후렴)
인간 금진 혼타 해도 한 푼 없는 맥긴달이/ (후렴)
오늘 낮 논매기에 만취토록 먹어 보자/ (후렴)
잘도 하시오 잘도 해요 우리 농부님네 잘도 하지/ (후렴)
나물 먹고 물마시고 달을 베고 누웠으니/ (후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지/ (후렴)
우후혀 호야 허하/ 우후혀 호야 허하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2 재벌매기

꿏았네 꿏았네
어하 두등실 좋구나 댕이만 술술 굴러라
어하 두등실 좋구나 댕이만 술술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할거나/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들어가세/ (후렴)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산양리)

0206-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댕이만 술술 굴러라
오호 꿏었네 댕이만 술술 굴러라 (후렴)
오호 꿏었네 댕이만 술술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를 다하고서/ (후렴)

어느 논배미로 갈거냐/ (후렴)
서산에 해는지고 어두워지는데/ (후렴)
이 논배미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이 논배미 다하고서/ (후렴)
저 논배미로 간다/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후렴)

* 1997.2.19. 이명식(69세, 남, 울면 석산리)

0208-3 : 2 재벌매기

오호 굶왔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굶왔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여기 저기 문질러도 발바닥 같이 문질러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후렴)

* 1997.1.30. 이봉희(76세, 남, 울면 오성리) 외 1인

0209-1 : 3 재벌매기

오호 굶왔나 댕이나 슬슬 굴러라
오호 굶왔나 댕이나 슬슬 굴러라 (후렴)
오호 굶왔나 댕이나 슬슬 굴러라/ (후렴)
하나 둘이 할지라도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초나온다 초나온다 우리 소리에 초나온다/ (후렴)
주야장천 밭도 갈다 나만 홀로 밭일인가/ (후렴)
오호 이리도 고될때 난 님을 만나 안아볼까/ (후렴)
오호 굶왔나 댕이나 슬슬 굴러라/ (후렴)
바람앞에 지는 잎은 풀잎속에서 지는 인생/ (후렴)
속히 하기난 어렵난데 어여 하기는 고단하다/ (후렴)
유유독은 다 떠난데 고해 상해다 집을 짓는다/ (후렴)

바람앞에 지는 잎은 풀잎속에서 지는 인생/ (후렴)

유유별은 분명한데 소래 소래가 수심이라/ (후렴)

오호호호호~ 휘~(마무리하는 소리)

* 1997.1.29, 김인용(72세, 남, 울면 월포리) 외 3인

0210-1 : 2 재벌매기

오홀썩 단 호리아 오홀썩 단 호리아

오홀썩 단 호리아 오홀썩 단 호리아 (후렴)

이 논배미 논을 매어/ (후렴)

풍년이래 기약하네/ (후렴)

논매는 분들 여러분들/ (후렴)

이 내 한 말 들어보소/ (후렴)

우리 일생 탄생하여/ (후렴)

오홀썩 단 호리아/ (후렴)

동남풍이 슬슬불어/ (후렴)

풍년기약 되었는데/ (후렴)

여보시오 농군님네/ (후렴)

이 내 한 말 들어보소/ (후렴)

우리 이 세상 탄생할제/ (후렴)

부모은공 받은 은혜와/ (후렴)

집 장만해 탄생을 해서/ (후렴)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210-1 : 2 재벌매기

에헤 골었나 골었나 댕이나 술술 굴러라

에헤 골었나 골었나 댕이나 술술 굴러라 (후렴1)

에헤 골었나 골었나 댕이나 술술 굴러라/ (후렴1)
 사계절이 지나설랑 가을풍경 되었내나/ (후렴1)
 산천들을 바라보니 추풍낙엽 되는구나/ (후렴1)
 들녘을 바라보니 황금의 물결이 치는구나/ (후렴1)
 에헤 골었나 골었나 댕이나 술술 굴러라/ (후렴1)
 농부들의 피땀흘려 오곡이 다 무르익네/ (후렴1)
 풍년이 다 되었으니 농부들 다 춤을추소/ (후렴1)
 우리 이때 못 놀면은 어느 때나 놀아보나/ (후렴1)
 에헤 골었나 골었나 댕이나 술술 굴러라/ (후렴1)

호롤로 상사디야 호롤로 상사디야 (후렴2)

이 논배미 얼른매고/ (후렴2)

저 논배미 얼른매고/ (후렴2)

건너를 가세 에헤헤에이/ (후렴2)

호롤로 상사디야/ (후렴2)

이 논배미 얼른매고/ (후렴2)

저 논배미 얼른매고/ (후렴2)

건너를 가세 에헤헤에이/ (후렴2)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읍면 총곡리)

0301-2 : 3 재벌매기

오호오 굶었네 오하 등등 굶었네

오호오 굶었네 오하 등등 굶었네 (후렴)

여보시오 우리 농꾼님네/ (후렴)

천하제일 농사밖에 더 있나/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한배미로 넘어들 가세/ (후렴)

한배미도 얼른 매고/ (후렴)

잉어배미로 넘어들 가세/ (후렴)

* 1997.11.16. 이희찬(73세, 남), 안병희(73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2-3 : 3 재벌매기

(자 그러든 아시는 댕으니 이듬을 매보세)

오호 꿩었나 댕이만 슬슬 둘러주게

오호 꿩었나 댕이만 슬슬 둘러주게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 들어보소/ (후렴)

농사일이 천하지 대본이라/ (후렴)

우리 모두 땀흘려 일을 해서/ (후렴)

부모처자 배불리 먹여보세/ (후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후렴)

이 나라의 동량재 되어하네/ (후렴)

청년 장년 되어서는/ (후렴)

우리처럼 땀흘려 일을 해서/ (후렴)

부모 은혜를 갚아야 한다네/ (후렴)

* 1997.11.15. 홍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5-3 : 3 재벌매기

꿩었네 썩었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꿩었네 썩었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오호오 꿩었나 오하 두루기 좋아/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어느 배미로 갈거나/ (후렴)

한마지 논배미를 어이 다 할거나/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싶어 지나/ (후렴)

우리 님은 가고 싶어서 갔겠나/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미 들어가세/ (후렴)
얼른 마치고 집에가서 쉬세나/ (후렴)

* 1997.11.22. 방인석(66세, 남, 설성면 신팔리)

0306-1 : 3 재벌매기

오호호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오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후렴)
일락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 싶어 지나/ (후렴)
칭미천에 흐르는 물은 주야장천 흐르는데/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떠오르지만/ (후렴)
흐르는 물은 다시 보기가 어려워라/ (후렴)
한번 가신 부모님은 다시 아니오고/ (후렴)
어제까지 만발하던 담장 밑의 꽃들도/ (후렴)
떨어진 낙화가 되니 오던 나비도 아니온다/ (후렴)
오호오 꿏았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07-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후렴)
옛날옛적 진시황이 만고지서를 불사를제/ (후렴)
...(중략됨)... / (후렴)
이 논배미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후렴)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09-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하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하 (후렴)
이 논배미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이미 다 기울었고/ (후렴)
골골이 나는 연기 저녁때가 되었네/ (후렴)
어서 어서 이 논배미 빨리 매고/ (후렴)
오늘 일일랑 여기서 마치세나/ (후렴)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하/ (후렴)

호이~휴 헤~

*1997.12.15, 최관영(80세, 남), 권태균(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09-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이미 다 기울었고/ (후렴)
골골이 나는 연기 저녁때가 되었네/ (후렴)
어서 어서 이 논배미 빨리 매고/ (후렴)
오늘 일일랑 여기서 마치세나/ (후렴)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돌려라/ (후렴)

호이~휴 헤~

* 1997.11.29, 주영표(74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10-1 : 2 재벌매기

오홀싸 골았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홀싸 골았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를 다 매고서/ (후렴)
어느 논자리고 같거나/ (후렴)
목이 마르면 술마시고/ (후렴)
시장들하면 새참도 있네/ (후렴)
이 논배미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서산에 지는 해 다 기울었고/ (후렴)
꿀꿀이 연기만 일어나는데/ (후렴)
이 논배미를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 1997.12.15, 김재선(62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2 재벌매기

오홀싸 골었네야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홀싸 골었네야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두마지기 이 논배미 반달 같이만 굴려주게/ (후렴)
잘들도 하네 잘들도 하네/ (후렴)
우리네 농군님 잘도하네/ (후렴)
일락서산 해떨어지구/ (후렴)
월출동녘에 달이 솟아/ (후렴)
말은 가자 네굽을 놓고/ (후렴)
님은 다 맹세코 아니오니/ (후렴)
저 입아 날잡지 말고/ (후렴)

지는 해 저 해를 잡아 매게/ (후렴)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3 재벌매기

어혈싸 골았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어혈싸 골았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어느 배미를 갈거나/ (후렴)

서마지 논배미를 어이나 다 맬거나/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싶어 지는가/ (후렴)

동산에 오른 해가 어느새 서산에 있네/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로 들어가세/ (후렴)

어혈싸 골았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 1997.12.15, 권영신(66세, 남), 현승우(7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꿏었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불러보세 불러보세 다같이 불러보세/ (후렴)

사람들은 많아도 소리가 작으니 어찌할꼬/ (후렴)

한 두 사람 해도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후렴)

화무 십일홍이요 인생은 일장춘몽/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생 아니 놀고 어찌리/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우리 농사 풍년일세/ (후렴)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땡이만 슬슬 굴려라
 오호 꿏었네 땡이만 슬슬 굴려라 (후렴)
 우리 농군님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농사일은 천하지대본이라/ (후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불러보세/ (후렴)
 이 논배미 다하고서 어느 배미로 갈거나/ (후렴)
 서마지 논배미가 반달처럼 남았네/ (후렴)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골골마다 연기 아니/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오늘일 마치세/ (후렴)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하고/ (후렴)
 배 고프니 새참이나 하여보세/ (후렴)
 허리나 펴고 담배 한 대 피고나서/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오늘일 마치세/ (후렴)
 오호 꿏었네 땡이만 슬슬 굴려라/ (후렴)

플리릭 후이의 휘 (골루기 소리)

* 1997,12,16, 정규동(70세, 남), 김용득(68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3 재벌매기

어허 어허야 오호 꿏었네 땡이나 슬슬 굴려라
 어허 어허야 오호 꿏었네 땡이나 슬슬 굴려라 (후렴)
 이 논배미 다하고서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할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한데/ (후렴)
 이 논배미 이제 매면 또 언제나 매나/ (후렴)

내 년 중에나 다시 매게 되리/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 농사 풍년일세/ (후렴)
우리 일꾼 합심하여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이 논배미 마치면은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312-1 : 3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땡이나 슬슬 굴러라
오호 꿏었네 땡이나 슬슬 굴러라 (후렴)
사람은 많아도 소리가 작으니 어이하나/ (후렴)
하나들이 할지라도 열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 좋고 곁에 사람은 보거나 좋게/ (후렴)
한톨 씨앗이 싹이 터서 만곡 종자 열매 맺는/ (후렴)
신기로운 이 농사 하나님의 조화로다/ (후렴)
이 논배미 다하고서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할거나/ (후렴)
이 논배미 이제 매면 또 언제나 매나/ (후렴)
내 년 중에나 다시 매게 되리/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 농사 풍년일세/ (후렴)
우리 일꾼 합심하여 이 논배미 얼른 매고/ (후렴)
이 논배미 마치면은 건너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 1997.12.16, 인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외 3인

0410-1 : 2 재벌매기

오호 꿏왔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꿏왔네 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 다하고서 어느 논자리로 갈거나/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할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한데/ (후렴)

* 1998.4.11. 임종국(67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0-1 : 2 재벌매기

오호 꿏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꿏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를 다하고서/ (후렴)

어느 논배미로 갈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두워지는데/ (후렴)

이 논배미 언제나 매려는가/ (후렴)

* 1998.4.25. 이춘수(60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2-1 : 2 재벌매기

오호 꿏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꿏네 댕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아내말씀 들어보소/ (후렴)

일락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싫어지나/ (후렴)

청미천에 흐르는 주야장천 흐르는데/ (후렴)

지는해는 내일다시 떠오르지만/ (후렴)

흐르는 물은 다시 보기가 어려워라/ (후렴)

* 1998. 3.29. 김종필(71세, 남, 미장면 해월리)

0412-1 : 2 재벌매기

오흠차 흠쳤네야 오흠차 흠쳤네야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를 어이나 다 맬거나/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싶어 지느냐/ (후렴)
동산에 오른 해가 어느새 서산에 있네/ (후렴)

* 1998.3.29, 이동철(69세, 남, 마장면 해물리)

0501-2 : 2 재벌매기

에하 골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
오하 골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건넌논으로 넘어나 가세/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벌써 다 기울었고/ (후렴)
집집마다 연기나니 저녁일세/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여기서 마치세나/ (후렴)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2-1 : 1 재벌매기

오호 오호야 꿏았네 오호 오호야 꿏았네
오호 오호야 꿏았네 뎡이만 슬슬 굴러나 (후렴)
서산 넘어 해길이 높이 만큼이나 길어졌나/ (후렴)
뎡이만 슬슬 굴러나/ (후렴)
남서바다에 섬도 많고 지숙서숙 찾아가지/ (후렴)
강원도 땅에는 감자 많고 우리땅은 쌀이 많아/ (후렴)
뎡이만 슬슬 굴러나/ (후렴)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외 2인

0503-1 : 1 재벌매기

오호 오호 뎡이만 슬슬 굴러라
오호 오호 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김을 메던 부모님들 이내 말썸을 들어보소/ (후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다른 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빨리 매고~ 다른 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신명이 나네 신명이 나네 방아소리가 신명이 나네/ (후렴)
누구 광초 승화시에 해는 왜이리 더디가나/ (후렴)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외 1인

0601-1 : 2 재벌매기

에헤 꿏었네 에하 슬스리 돌려라
에헤 꿏었네 에하 슬스리 돌려라 (후렴)
이력저력 흠치더래두 모폭만 슬슬 돌려라/ (후렴)
이논배미 모를 심어 울창하니 기분좋다/ (후렴)
우리 농군 모를 심어 영화보니 쉬일일세/ (후렴)

* 1999.1.16, 강대기(81세, 남), 주구홍(90세, 남), 주내영(76세, 남), 박도호(81세, 남, 장호원을 나라리)

0609-1 : 2 재벌매기

오호 꿏었네 댕이만 슬슬 굴려라 (후렴1)
김을 매던 부모님들 이내 말씀들 들어보소/ (후렴1)
이 논배미를 얼른매고 다른 배미로 넘어가세/ (후렴1)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신명이 나네 신명이 나네 방아소리가 신명이 나네/ (후렴2)
누구 광초 승화시에 해는 왜이리 더디가나/ (후렴)

* 1999.1.14, 한효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을 와천리)

0610-1 : 11 재벌매기

오호 꿏었나 댕이만 슬슬 굴려라
오호 꿏었나 댕이만 슬슬 굴려라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건너 논으로 넘어나 가세/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벌써 다 기울었고/ (후렴)
 집집마다 연기 나니 저녁일세/ (후렴)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여기서 마치세나/ (후렴)
 * 1999.1.14, 권태호(58세, 남, 장호원읍 이월리)

0702-1 : 6 재벌매기

오하 오호이 얼씨구하/ 오하 오호이 얼씨구하 (후렴)
 불러보세 불러를 보세/ (후렴)
 사람들은 망기도 한데/ (후렴)
 소리하는 사람은 어데를 갔나/ (후렴)
 이왕지사 하는 소리/ (후렴)
 신명나게 뽑아나 보세/ (후렴)
 한 두 사람이 하드래두/ (후렴)
 열 스무명이 하는 듯이/ (후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후렴)
 한 번 늙어를 지면 못노나니/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후렴)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생/ (후렴)
 아니 놀고는 어찌리/ (후렴)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3-1 : 9 재벌매기

오호 오호이 오호호오야 헤에야
 오호 오호이 오호호오야 헤에야 (후렴)
 김매러 가세 김매러 가세/ (후렴)

들녘 복판에 들어가서/ (후렴)
 이네 미를 들었으니/ (후렴)
 양귀가 늘어졌으니/ (후렴)
 열손구락을 줍혀가주고/ (후렴)
 한 번에다 굶어다가/ (후렴)
 밭 밑에다 묻어 놓고/ (후렴)
 또 한 번을 굶어다가/ (후렴)
 뒤쪽에다 묻어 놓고/ (후렴)
 한걸음 두걸음 올라가니/ (후렴)
 작일이 훨훨 영화로다/ (후렴)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석리) 외 2인

0708-1 : 6 재벌매기

골았네 골았네 텅이만 슬슬 굴러라
 골았네 골았네 텅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 논배미를 다하고서 어느 자리로 갈거나/ (후렴)
 바다같은 논배미를 어느 철에 다 할거나/ (후렴)
 서산에 해는 지고 어둠 침침하는데/ (후렴)
 인제 매면 언제 맬가/ (후렴)
 내년 중에나 또 다시 맬걸/ (후렴)
 바다갈던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후렴)
 얼른 빨리 이 논 매고/ (후렴)
 어서 빨리 저 논으로 넘어가세/ (후렴)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 농사 풍년일세/ (후렴)
 여러분네 합심하여 저 논마저 얼른 매고/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 싶어 지나/ (후렴)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더 있는가/ (후렴)

이 논자리 얼른 매고 담배나 피우세/ (후렴)

호르르르 휘~이익 (끝마칠 때 내는 소리)

* 2000.3.4, 한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12-1 : 18 재벌매기

꿨았네 잘 꿨았네 여기 저기도 잘 꿨았네
베폭사이 꺾꺾눌러 긴바늘 잡어보고
휘휘 둘러 앞장가면 내 일등에 담배 한 갑
휘휘 둘러 두벌매고 꾸정물만 지어보세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외 1인

0904-2 : 3 재벌매기

오 고랑에 땡이만 슬슬 굴러라
오 고랑에 땡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이팔청춘 손님네들 백발을 보고서 웃질 마오/ (후렴)
어제 잠깐 청춘이더니 오늘의 잠깐은 백발이라/ (후렴)

* 2001.6.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외 6인

0910-5 : 18 재벌매기

오호호오이이/ 어허어허야해해야
땡이만 슬슬 굴러라/ 땡이만 슬슬 굴러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죽으면 못노나니
오오호호오이이/ 어허어허야해해야
땡이만 슬슬 굴러라/ 땡이만 슬슬 굴러라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외 8인

1001-1 : 3 재벌매기

여기 저기를 훑치더라도/ 베푼만 잡아다 놓게
우화 훑차 찍었네
여기 저기로 매더래도/ 등위만 슬슬 굴러두게
여기 저기를 훑치더라도/ 베푼만 잡아를 두시오

* 2002.3.17, 한호손(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1 : 6 재벌매기

오호 오오네 땡이만 설설 굴려라
오호 오오네 땡이만 설설 굴려라 (후렴)
나는 가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후렴)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 간다고 잊을 손개/ (후렴)
논두렁아 밭두렁아 날 살려라/ (후렴)
이일병정 탄알이 비오듯하네/ (후렴)

“땡이만 슬슬 굴려라나”는 이천시 전역에서 불려지는 재벌매기노래의 후렴인데, 편의상 “땡이만 슬슬 굴려라”로 제목을 대신해 지칭하기도 한다.

* 1987.9.6, 김병익(대월면 군량1리) 외 주민

1009-1 : 4 재벌매기

(자 여러분들 논 이듬매는거 한번 하는거니까. 아이논매는거보담 좀 쉽습니다. 잘덜 매줍시다)

오호아 오이 에헤에헤야
이 논배미를 어서 매고/ 샴티배미를 들어들 가서

(좀 빨리. 저 뒤에 오는 사람은 땡이만 슬슬 굴려도 들어 가는 겁니다)

112 이천의 옛노래

심을 빼노면 아니되고/ 모를 빼노면 아니되네
자채논 매고 이듬매고/ 세 번은 손으로 매새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103-2 : 5 재벌매기

여보게 (한사람 선창)/ 예 (여러명 후창)

여보게/ 예/ 한번하세

꿨었네 꿨었네 동이만 슬슬 굴러라

꿨었네 꿨었네 동이만 슬슬 굴러라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나 싶어서 지겠느냐/ (후렴)

지는 해는 지겠지만 내일 또다시 뜨것네요/ (후렴)

금년에 내년에 풍년 또 다시 풍년이 오겠네/ (후렴)

* 2002.5.22, 이범수(60세, 남, 이천시 장록동)

0104-1 : 5 세벌매기

에헤 에헤 우겨라 방아로다

에헤 에헤 우겨라 방아로다 (후렴)

여주이천의 찹쌀방아 아침 방아 저녁 방아

방아중엔 내 방아일세/ (후렴)

어느 조선의 찹쌀방아 어느댁 방아를 찢느냐/ (후렴)

찹쌀 방아 멥쌀 방아 방아하면은 내 방아인데/ (후렴)

여주 이천의 자채방아/ (후렴)

여주 이천 지구중 백사면의 상용리/ (후렴)

* 1996.7.11, 이상욱(64세, 남, 백사면 상용리)

0104-1 : 6 세벌매기

어얼싸 대허리야 어얼싸 대허리야 (후렴)
이 방아가 뉘 방아냐 이 방아가 회방아다
회방이는 내방아로구나/ (후렴)
여주 이천 자체 방아 누가 얼렁 어쨌나/ (후렴)
여주 이천 자체 방아 자체방아/ (후렴)
여주이천 방아하면 두서없이 들어가는 자체방아인데/ (후렴)
내가 짙는 방아 저녁 방아 늦은 방아 각시 방아
저녁 방아 누가 짙는 방아일까/ (후렴)

* 1996.7.11, 이상옥(64세, 남, 백사면 상흥리)

0109-2 : 3 세벌매기

오호 오 호이 오호 오 호이야 에헤야
오호 오 호이 오호 오 호이야 에헤야 (후렴)
오호 오 호이 오호 오 호이야 에헤야/ (후렴)
자 우기고 달려보자/ (후렴)
우겨라 우겨 참 좋구나/ (후렴)
누구나 달려라

* 1996.7.15, 정자호(76세, 남, 백사면 조읍리)

0209-1 : 2 세벌매기

어허얼싸 대허리야/ 어허얼싸 대허리야 (후렴)
매어주오 매어주오/ (후렴)
이 논배미를 논을 매어/ (후렴)
장리빔 훨훨 당하올라/ (후렴)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후렴)
우리님을 어데로 보냈나/ (후렴)

자호에 부단히면/ (후렴)
잠든 이몸을 깨워나 주니/ (후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후렴)
이태백이가 놀던 달아/ (후렴)
허공에 기러기 있나니/ (후렴)
오호얼싸 대허리야/ (후렴)
바람앞에 지는잎과/ (후렴)
풀잎속에 지는 인생/ (후렴)
열녀난다 수절한데/ (후렴)
오호얼싸 대허리야/ (후렴)

오호호호 휘 (마무리하는 소리)

* 1997.1.29. 김인용(72세, 남, 울면 월포리) 외 3인

0304-1 : 2 세벌매기

어 얼싸 대허리야/ 어 얼싸 대허리야 (후렴)
여보소 농군님네/ (후렴)
이내 말씀 들어 보소/ (후렴)
경상도라 중북상은/ (후렴)
주저리 주저리 열렸구나/ (후렴)
났다네 났다네/ (후렴)
전라어사가 함당하니/ (후렴)
서울이라 유다르게/ (후렴)
달도 듣는 곳이 보기도 좋다/ (후렴)
천하지 대본은 농사밖에 또 있는가/ (후렴)
태고적 시절이라/ (후렴)
신농씨 심은 답이/ (후렴)

천추만세로 유전할 재/ (후렴)
높은 데는 밭이 되고/ (후렴)
깊은 데는 논이 돼서/ (후렴)
사농공상의 제일이로다/ (후렴)
천추만세로 유전을 하세/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관용(56세, 남, 설성면 제요리)

0305-1 : 1 세벌매기

오 - 허 오울싼 대허리야
오 - 허 오울싼 대허리야 (후렴)
어허하는 농가님네/ (후렴)
이내 할 말 들어보소/ (후렴)
한 잔 술을 못 자셔도/ (후렴)
약주 삼 잔 드는 듯이/ (후렴)
얼랑얼랑 놀아 볼까/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니/ (후렴)
달도 차며는 기우나니라/ (후렴)
아니 놀며는 슬퍼진다/ (후렴)
노류장화 꺾어서 들고/ (후렴)
청풍명월에 놀아볼까/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김준희(69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05-3 : 2 세벌매기

어혈싼 대호리야 어혈싼 대호리야 (후렴)
여보시오 농군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후렴)
하나 둘이 하드래두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먼데 사람은 보기만 좋구 곁에 사람은 듣기 좋게/ (후렴)

* 1997.11.22. 방인석(66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06-1 : 4 세벌매기

에헤얼씬 대허리야 에헤얼씬 대허리야
에헤얼씬 대허리야 에헤얼씬 대허리야 (후렴)
굼실굼실 잘도하네/ (후렴)
우리 농군님들 잘도 하네/ (후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후렴)
농사 한 철 지을 적에/ (후렴)
구슬같은 땀방울 흘리지만/ (후렴)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11-1 : 4 세벌매기

오호히 에헤야/ 오호히 에헤야
오호히 에헤야/ 오호히 에헤야

* 1997.12.16, 정규동(70세, 남), 김용득(68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4 세벌매기

오호히 에헤야/ 오호히 에헤야 (후렴)
오호히 에헤야/ 오호히 에헤야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406-1 : 5 세벌매기

오호야 에헤야 우겨라 달리려무나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인생일장 춘몽이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옥리)

0601-1 : 3 세벌매기

어허 어혈싸 대허리야
 어허 어혈싸 대허리야 (후렴)
 여보시오 농부님네/ (후렴)
 이내 농사를 누가 내셨나/ (후렴)
 신농씨의 본을 받아/ (후렴)
 농사 한철을 지어를 보세/ (후렴)
 논밭 전지를 마련할 제/ (후렴)
 높은 데는 밭을 풀고/ (후렴)
 얇은 데는 논을 풀고/ (후렴)
 물이야 출렁 수답이되고/ (후렴)
 물이 말른건 건답일세/ (후렴)
 건답 수답 농사를 할제/ (후렴)
 나랏님에는 진상벼 심고/ (후렴)
 인간칠십에 노인벼 심고/ (후렴)
 여주 이천에 자채를 심어/ (후렴)
 대한민국에 이름일세/ (후렴)

* 1999.1.16. 김대기(81세, 남), 주구홍(90세, 남), 주내영(76세, 남), 박도호(81세, 남, 장호원을 내려리)

2. 밭농사요

0309-1 : 10 밭갈이

이여 어여 어디여 어디여/ 마라 마라 (소를 모는 소리)
 바우돌에 밭도 다치지 말고/ 암소는 기고 말아소는 우겨주오

슬슬 넘고 슬슬 넘고/ 이랴 이랴 어디야 땡겨
어디여 어디여 마라 마라/ 암소야 이겨~

* 1997.12.15, 최관영(80세, 남), 권태균(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04-1 : 3 발매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아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후렴)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명지 질짚을 못한다고 날 가라네/ (후렴)
잔디밭에 속잎 나고 노고지리 선길(?) 떠고
건너 산에 아지랑이 아질아질 어찌고
콩밭의 쟁기는 꼴꼴 푸드득 우르릉 우는데
보령침지 돈벌러 가신 낭군 언제나 오나/ (후렴)
홍두깨 방망이 두루르 말아 쥐고
경기도 포천 가신 낭군 돈이나 벌어야 오지
공동묘지에 가신 낭군은 어느 시절에 오나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봉 팔만구암자
법당안 불공을 말고 돈 없는 무산자 팔세를 말아/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관용(56세, 남, 설성면 제요리)

1103-2 : 6 발매기

금이로다 이내가슴 답답하나/ 다시는 맘을 불리리
부부동반 밭을 매니/ 속상한 일도 많으나
당신임과 부부동반/ 밭을 매니 신이 나네

* 2002.5.22, 장병근(75세, 남, 이천시 장록동)

3. 벌채 노동요

0109-2 : 5 지계동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서라 말어라 그리마라/ 사람의 팔세를 당하고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늙은 부모 병들어 놓고/ 어린 자식 잠재워 놓고
 야반도주 해간 년아/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 1996.7.15. 정자호(76세, 남, 백시면 조읍리)

0305-2 : 3 지계동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만 넘겨주게
 어데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
 네귀에 풍경 달아 동남풍이 건듯 불면
 풍경소리 멩그렁하고 호의호식하고 잘사는데
 이놈의 팔지는 왜 이 지경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열씨구 절씨구
 행주치마 울치고 담치고 분홍치마 거듭치고
 열무김치 초친듯이 살짝 돌아가더니
 이천 팔십리 왜 못가고서 내 집엘 또 들어 왔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정선읍에 물레방아 사구는 삼십륙
 삼십륙 바퀴는 물만 안고 뱅뱅 돌건마는
 나무지게 진 이 사람은 누굴 안고 도나

우리네 서방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안팎 곱사등이 조막손이 곱배팔이
장체다리 뒷박이마 해가지고
이천장으로 품을 팔러갔는데
어느 시대 돈을 벌어 가난을 면해보나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손용운(59세, 남, 소설면 신필리)

0310-2 : 5 지계동발

상도꾼아 발맞추어라/ 요랑꾼아 요랑쳐라
풍랑꾼아 불박혀라/ 앞상제는 앞을 서고
뒷상제는 뒤를 따라/ 낭내동이 아들렁박아
싱그레 병글 웃었으며/ 요하 세상 다 버리고
타향으로 넘어간다

* 1997.12.15, 권영신(66세, 남), 한승우(70세, 남, 소설면 상봉리)

0406-1 : 7 지계동발

간데 족족 정들여 놓고/ 이별이 갖아 못살겠네
이별별자를 누가 냈나/ 어와 나와는 웬수로다
이별별자를 누가 냈는지/ 당신과 나와는 웬수로다
이팔청춘 늙은이들/ ... (생략됨) ...
이팔청춘 젊은이들아/ 한숨을 쉬며 놀아보자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06-1 : 9 지계동발

세상을 한탄을 말고
금전 없다고 비판을 마라
일천석 실은 배가

하루 아침에 파산되고
 열흘 붉은 꽃 없건마는
 십년세도가 없는데
 사람애 관세를 그리 말라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06-1 : 10 지계동발

울밑에 풀 비는 총각아
 덩치나 있으면 떡 받아 먹지
 떡을 받아 옆에다 끼고서
 두손을 붙잡고 발발 떠다
 총각아 손목을 놓아라
 불같은 내 손이 다 녹는다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11-1 : 3 지계동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나를 버리구 가시는 님은/ 십리두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두 많구/ 우리집 살림살인 말썽두 많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 1998.3.28, 최성환(74세, 남, 마장면 이평리)

0609-1 : 5 지계동발

뒷동산에는 봄춘자 요호/ 앞동산에는 푸를 청자
 가지가지 꽃 화자여/ 굽이굽이는 내 천자라
 동자야 술 가득 부어라/ 마실 음자가 얼간주라

* 1999.1.14,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을 외현리)

0703-1 : 3 지계동발

가세 가세 올라가세/ 앞산으로 올라가세
한가지 두가지 따다보니/ 역가지 한가지가 늘어졌네
이 가지를 나르다가야/ 한단 두단 묶어놓고
지계끈을 느린후에/ 칭칭으로다 가다듬어
양어깨다 걸머지고/ 이산 굽이를 넘어와서
집근처를 다가오니/ 어느 누가 반겨갈까
부모님이 반겨갈까/ 처가 술이나 반겨갈까
한걸음에 들어가니/ 바깥에나 들어서니
주말상을 차려놓고/ 뜨끈 밥에도 먹으니
앞산대가 높아지니/ 세상일이 고만일세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역리)

0703-1 : 6 지계동발

가세 가세 가세 가세 어서가세
세제골 나무하러 올라가세
자네도 간짐 나도 간짐 같이 가요
이골 저골 타고 땡겨 놀다오세
이낭구 짐 한짐을 져다가 놔가
안방에 부엌에다 불을 놓아
맛있는 밥을 다 지어달랠까
온식구 앉아서 즐겁게 먹세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역리)

0704-1 : 18 나무할 때 노래

낭구꾼아 나무가자/ 배가 아파서 못가겠네
무슨 배냐 자라 배다/ 무슨 자라 읍 자라

무슨 읍 천지 읍/ 무슨 천지 다홍 천지
 무슨 다홍 꼭지 다홍/ 무슨 꼭지 선황 꼭지
 무슨 선황 각 선황/ 무슨 선황 갈 선황
 무슨 갈 칩 갈/ 무슨 칩 방아 칩
 무슨 방아 물방아/
 무슨 꽃 함박 꽃/ 무슨 함박 이남 박
 무슨 한강 때 한강/ 무슨 때 구리 때
 무슨 구리 말 구리/ 무슨 말 청사 말
 무슨 청사 다홍 청사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804-1 : 5 나무할 때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루 넘어를 가세
 여보소 동네친구 낭구지게 지구 나오게
 나 하구 같이 저 산으로 낭구를 가세
 낭구를 못하면은 니가 하면은 내가 하구
 내가 하면은 너를 해 주께
 저기 저 산으로 같이 낭구를 같이 가자
 나오너라 친구님 나오너라
 저 산으로 나 혼자 어떻게 가느냐
 어서 나오너라 지게지구 나오너라
 같이 나 저 산넘어로 같이 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루 나를 냉겨주께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101-3 : 1 나물캐는 노래

잡아 뜯어 꽃다지/ 쓱쓱 뽑아 나생이

124 이천의 옛노래

치게 치게 지친개/ 어영부영 말맹이

* 1996.7.8, 전도길(79세, 여, 백사면 현방리) 외 1인

0310-1 : 1 나물 캐는 노래

어영부영 말맹이/ 잡아뜯어 꽃다지

쭉쭉뽑아 나생이/ 이개 저개 지친개

* 1997.12.15, 민일선(83세, 여, 설성면 상봉리)

0612-1 : 6 나물 캐는 노래

저 높은 산에 올고사리/ 얇은 산에 늦고사리

젊은이가 뜯은 나물/ 노인네가 뜯은 나물

자밤 뜯은 나물 늘어 놓고/ 자밤 뜯은 나물 고여 놓고

삼사실과도 고여 놓고/ 동서남북으로 재배하구

가다가 앉지 마라/ 앉을뱅이 된다 카다가

섯지 마라/ 장승된다 카다가

돌아보지 마라/ 흘 때 눈이 된다 카다가

문짓문짓 하나는/ 두눈 칼로 복을 비어

발목 잘리 구리 철사만/ 지옥으로 보낼터니 썩 물러가리라

* 1999.1.11, 최상용(남, 장호원읍 진암리)

0808-2 : 1 나물 캐는 노래

가지대기는 시집가고/ 영경기는 장가가고

소사랑깨비는 우유가고/ 등칼제비는 하인가고

엄병덤병 차려놓고/ 가지랑 창창 놀아보세

뚝뚝뜯어 꽃다지/ 쭉쭉뽑아 나생이

오양도양 말맹이/ 한푼두푼 돛나물

* 2001.2.6, 유영현(66세, 여), 이일환(90세, 여, 호법면 주박리)

0904-1 : 1 나물 캐는 노래

가지대기는 시집가고/ 소시랑깨비는 장가가고
꽃다지는 함메고 가고/ 미나리 아재비는 후양간다

* 2001.6.5, 송봉환(65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4-3 : 1 나물 캐는 노래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지초 캐는 저 처녀야
지출랑은 내 캐줄께/ 내 품안에서 잠들어라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4-3 : 21 나물하러갈 때 노래

나물가세 나물가세 나물가세/ 우리야 삼동세 나물가세
우리야 삼동세 보나물가세/ 참나물 모시는데 씨러진골로
나물가세 나물가세 나물가세/ 우리야 삼동세 보나물가세
모시데 참나물 씨러진골로/ 우리나라 삼동세 나물가세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외 2인

4. 길쌈 노동요

0102-5 : 1 베틀가

노전에 자리 깔고/ 북남간에 베틀 놓고
베틀다리 다리려고/ 부어전에 앉으면 우리 조선 효자던가
무채가 풍년이던/ 북두칠성 눈 부신다

날 채인 면은/ 우리 봉태 채인 듯이
 대추낭구 깊은 부분/ 금자 옥자 안물고 대문간에 넘나드네
 자중 낭구 바투 쥐고/ 일단개는 지는 듯이
 병나기나 진배없네/ 홀아비는 혼자도 노네
 잉엣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외독손이요
 용두머리 우는 소리/ 기러기 날아가며 우는 소리
 절로 굽은 승철낭구/ 은줄개로 목을 매며
 도툼하리라 이리쿵덕/ 저리쿵덕 하는 면은
 뱃탱이를 하는 면은/ 초가 삼간 집을 짓네
 * 1996.7.9. 이태화(64세, 여, 백사면 내촌리)

0204-3 : 1 벼들가

바람 슬슬 부는날에/ 구름이 등실 뜨는 날에
 월궁항아 노든 선녀/ 옥황전이나 죄를짓고
 인간으로 귀양와서/ 좌우산천을 둘러보니
 할 일이란 전혀 없어/ 금사 한 필을 짜자하고
 월궁으로 지치달아/ 달 가운데 계수나무
 동편으로 짝어를 내여/ 금도끼로나 다듬어서
 먹줄로 탱과 내여/ 작은 나무는 굽다듬고
 굽은 나무는 깎다듬어/ 은대패로 밀어내여
 얼른뚝뚝 지어노니
 벼들은 좋다마는/ 벼들 놓을곳이 전혀없네
 좌우를 둘러보니/ 옥난간이 비었거늘
 앞다리는 낮게놓고/ 구름에다도 잉아걸고
 안개속에 꾸리삼아/ 앓을께에 앓은 선녀
 양귀비의 녀이로다/ 아미를 숙이시고
 나삼을 발아차고/ 부티허리 두른양은

만첩산중 높은 봉에/ 허리안개 두룬 듯이
 도투머리노는 양은/ 늙으신대 병이든가
 이리도지고 저리도지고/ 쿵더러쿵 도투머리
 정저러쿵 뒤넘어서/ 명주분루 짜내어서
 은장도 잘드는 칼로/ 으룩 슬큰 내어
 앞넷물에 빨아다가/ 뒷넷물에 횡귀다가
 담장울에 넣어누나/ 옥같은 돌을해서
 흥두께에 옷을 입혀/ 아랑타랑에 두들겨서
 입에나 징영을 지어낼제
 금가새로 비어내어/ 은바늘로 폭을 붙여
 은다리미 다리어서/ 핏대 걸면 먼지 앓고
 개어두면 살잡히고/ 방바닥에 던져노니
 조그마한 시누이가/ 들며 날며 둘다 밥는다
 점침점침 곱게 개여/ 자계함 농반 다지에
 맵시 있게 넣어두고/ 대문밖을 썩나오며
 저기가는 저 선비님네/ 우리나라 선비도 오시든고
 오기야 오데만은/ 칠성판에두 누어보네
 웬말인고 웬말인고/ 칠성판이 웬말인고
 배가 고파 죽었거든/ 밥을 보고 일어나고
 목이 말라 죽었거든/ 물을 보고서 일어나고
 임이 그리워 죽었거든/ 내가 왔으니 일어나오
 아가 아가 우지말아/ 너 아버지 죽었다단다
 수밀누명 유대군에/ 상여노래가 웬말이나
 원수로구나 원수로다/ 한양의 서울이 원수로다
 한양 서울 아니였다면/ 우리 낭군님 살았을걸
 낮에 짜는건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건 월광단이라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6-1 : 4 베틀가

오늘날두 하 심심한데/ 베틀이나 놓아볼까
베틀다리가 두다리요/ 내다리두 두다리네
하늘에 있는 선녀/ 할 일이 전혀 없고
동남간에다 베틀 놓고/
베틀다리는 양 두다리/ 큰 애기 다리두 양 두다리
구름잡어 잉아달구/ 잉아짜는 실 명주여
받침대는 형제로다/ 놀림대는 녀신이요
두줄이 있는 잉아/
제과방이 팔을 잡고/ 억만장을 헤치는 듯
앉을뱅이 앉은 양은/ 용상에 앉아서
베틀에 앉은 양은/ 하늘에 노든 선녀
상사를 꼬꼬리가/양 미간에 넘나든다
신추리 나무는/ 꼬부랑 거리는 건
강태공의 꿈은 낙수/ 때를 찾는 듯 하구요

* 1997.2.19. 원옥선(90세, 여, 울면 석산리)

0209-1 : 1 베틀가

심심해 베틀이나 놓아 볼까/ 베틀 놓을때 사방을 둘러보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옥난간에 베틀놓고
밤에 짜면 월광단이요/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을 짜어내여/ 과거보러 가시는데 관복을 지어노니
왼쪽에는 백학을 놓고/ 바른 쪽에는 청학을 놓고
우리 낭군 입고 가시더니/ 알성급제로 해가지고 오시네
널리리 널리리야

* 1997.1.30. 배기분(84세, 여, 울면 월포리)

0302-1 : 2 베틀가

오늘날두 하심심한데/ 베틀이나 놓아볼까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아걸구
 잉아대는 삼형젠대/ 요내몸은 독신이라
 용두머리 우는소리/ 큰애기 맘만 달뜨고

* 1997.11.15, 허경순(65세, 여, 설성면 장능리)

0310-1 : 4 베틀노래

베틀을 노세 베틀을 노세/ 옥난간에다 베틀을 노세
 오늘날도 하 심심하니/ 베틀에 앉아나 볼까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베틀노래 사랑노래
 베틀에 한숨만 지누나/
 낮에 짜는건 일광단이요/ 밤에짜는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어느새 백발이 다 되었네

* 1997.12.15, 맹정순(65세, 여, 설성면 상봉리)

0511-1 : 17 베틀가

비였구나 비였구나/ 억낭강이 비였구나
 달이 떴네 달이떴네/ 연방아 옆에 달이 떴네
 저 달속에 계수나무/ 동쪽으로 뺨은 가지
 금도끼로 찍어찍어/ 은도끼로 다듬어서
 베틀 한쌍 그려보자/ 굵은 나무 깎아듬고
 젓은 나무 곧다듬어/ 베틀 한쌍 그려보세
 앞다리는 솟아놓고/ 뒷다리는 낮춰놓고
 억낭강에 베틀 놓고/ 잉에따라 크는 양은
 잉에때는 새맨가고/ 묶는 때는 훌에비고
 보금이는 잘도 가네/ 마을코에 차는 양은

바리잡아 차는 양은/ 양큼 양큼 치알장은
거침없이 잘도 가고/ 물민길과 현대자를
하루 짜고 이틀 짜고/ 사흘만에 다 짜냈네
앞집에 김도령아/ 우리 선배 안오던가
그 선배두 오기야 오건만은/ 스물여덟 상주군에
말을 맞춰 떠나오네/ 물민길아 현대자를
하루 짜고 이틀 짜고/ 사흘만에 다 짜내서
서울가신 김선배를/ 김남도포 할려고
앞넷물에 희어다가/ 뒷넷물에 유아 실어
김남도포 지어놓고/ 앞집에 이 선배야
우리 선배 안오던가/ 그 선배는 오기야 오건만
스물여덟 상주군에 떠나오다/ 김선달네 딸애기에 집에 오다
다리에서 발이 붙어 못오시네/ 김선달네 딸애기야
머리풀고 곡을 해라/ 언제봤던 임이라고
머리풀고 곡을 할까/ 속적삼을 벗어든지
임내 말고 땀내 말고/ 애기 너나 가두고
어서 바빠 떠나시오/ 스물여덟 상주군이
발이 붙어 아니 가네/ 김선달네 딸애기야
머리풀고 곡을 하고/ 흰선 타고 나서거라
속적삼을 벗어주고/ 임내 말고 땀내 말고
이거 가지고 떠나시오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외 7인

0607-1 : 8 베틀가

오늘날에 하심사 하길래/ 베틀가나 불러보세
에헤요 어허야/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맞아라
낮에 짜는 것은 일광단이오/ 밤에 짜는 것은 월광단일세

틀을 노세 베틀을 노세/ 옥난간에나 베틀을 노세

* 1999.1.12, 박재형(80세, 남, 장호원을 어석리)

0706-1 : 6 베틀가

앞집에다 기대놓고/ 베틀함상 걸어주소

베틀이야 걸지마는/ 낭귀없어 못걸겠네

서울이라 지체 달라/ 대궐 짓는 감대놓고

베틀함상 걸어주소

베틀이야 걸지마는/ 낭귀없어 못걸겠네

높은 병에 올라서서/ 사방산천 살펴보니

동해 동쪽 돌는 달에/ 달밤에도 기수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굵은 나무 접다듬고

앞두다리 앞히놓고/ 뒷두다리 앞히 놓고

베틀함상 걸었네

가를세라 길린양은/ 호인호식 금복했네

말크라고 길린 양은/ 삼대독도 기둥하다

민가부까 멩기 떴다

허리 밑에 두린 양은/ 호인호식 금복했네

앞질께라 노인양은/ 우리나라 양산님네

양시레 자기 하시도다

허리밑에 두린양은/ 호인호식 금복했네

말크라고 길린 양은/ 삼대독도 기둥하라

민가부까 멩기 떴다

자바같은 날른 부근/ 개험여대 걸보리는 소리 좋다

구름 잡아 잉어떼는/ 새내기요 늘름떼는 흠애비라

영두마리 우는 양은/ 백옥당에 던지리니

벗 부르는 소리로다
도두마리 미는 양은/ 늙기 싫어 낚히시라
놀구 싶네, 병안인가/ 읽기 싫어 낚히시라
백댕이라 지는 양은/ 도서국내 숫갓인가
예도 지고 저도 지내/ 절도 굽은 신진낭간
혼신짝에 목을 메고/ 큰애기만 들여다 보네
* 2000.3.12, 장연희(83세, 여, 신둔면 도암리)

1004-1 : 7 베틀가

베틀다리는 삼형제요/ 뒷다리는 말쳐놓고
앞다리는 높여놓고/ 베틀다리는 사형제요
잉앗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독소리라
찌곡찌곡 짜노라니/ 산넘어서 편지 왔네
한손으로 받아설랑/ 두손으로 펼쳐보니
어머니 죽은 편지로다/ 어머니 집이 가자 하고
한올한올 돌아가서/ 비녀 빼서 땅에 꽂고
머리 풀어 산발하여/ 땀기 풀어 남개걸고
어머니 집에 당도하니/ 여기저기 초상소리
곡성소리가 진동하네/ 예고 어머니 내가왔소
어머니 내가 왔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이고 어머니 나왔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중단하심)

* 2002.3.17, 장채순(81세, 여, 대월면 송리리)

5. 잡역 노동요

0804-1 : 6 홀소몰이

히여 어디 어디여/ 저앞 발로 올려 서라
여디 여디 여디 여디/ 저 앞발이 저친다
올러서라 올러서라 올러서/ 안소 들어서라
바갈소 '들어서라/ 히여 어디 어디여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외 5인

1003-1 : 1 소몰이

어어어 어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어어 어어 저저저저저저 이어저저저저 워 돌아라 (후렴)

저저저저 저기어리이러저저저/ (후렴)
어저저저저 어디어 디어 어더어
어더어 기러어 어서가자 어기어디어 워
* 1987.9.6, 김순제 교수 체록 자료, 김병기(대월면 군량리)

0102-2 : 1 땅다지기 노래

에헤야 지경이요 에헤야 지경이요
질근 질근 다져라 (후렴)
문두깨비 체할라/ (후렴)
살금 살금 다져라/ (후렴)
이택에서 지경당네 김씨네서 지경당네/ (후렴)
문두깨비 체할라 살금 살금 다져라/ (후렴)

* 1996.7.9, 김효순(61세, 여, 백사면 내촌리)

0108-1 : 5 땅다지기 노래

에야 헤리 지경이요 에야 헤리 지경이요 (후렴)

이 집 짓고 삼년만에

터를 매기면 업자가 되고/ (후렴)

배를 먹이면 배우가 된다/ (후렴)

* 1996.7.12, 이광희(78세, 남, 백사면 신대리)

0208-4 : 4 땅다지기 노래

에헤라 지경이요

여기에 일터를 잡을적에/ 조선이라 명산을 관광하니

산지조종은 곤령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다

곤룡산 낙맥에 산지맥이 분명쿠나/ 일진맥은 떨어져서 각막으로 들어가고

일진맥은 중원대륙으로 들어가고/ 일진맥은 떨어져서 우리 조선에 나올적에

백두산에다가 귀봉하고/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에 귀봉하고/ 지리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에다 귀봉하고/ 팔도강산을 다 돌아보니

팔도강산에 명기를 모아/ 한양 서울로 와서 삼각산에다 귀봉하고

팔만 장안에 억만 가구를 귀봉하고/ 왕실에도 청룡되고

동해 멀리 백두로다/ 삼각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구물 굽실 어정에 들어서서/ 여기서 팔성산에다 귀봉하고

팔성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구나

* 1997.1.30, 황룡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305-1 : 3 땅다지기 노래

에히 야라 지경이요/ 에히 야라 지경이요 (후렴)

산지조종은 곤룡산이요/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로다/ (후렴)

곤륜산 내력이 내려를 와서/ (후렴)
 삼각산이 삼겨 있고/ (후렴)
 설악산 내력이 내려를 와서/ (후렴)
 도봉산이 삼겨 있고/ (후렴)
 도봉산 내력이 내려를 와서/ (후렴)
 종암산이 삼겨 있고/ (후렴)
 종암산 내력이 내려를 와서/ (후렴)
 왕십리 청룡이요/ (후렴)
 만일재 백호라/ (후렴)
 한강이 호수이 되고/ (후렴)
 동작이 수구를 막아/ (후렴)
 친구 금탕되었으니/ (후렴)
 만호 장안이 예 아닌가/ (후렴)
 사람은 나며늘/ (후렴)
 선한 자는 선하고/ (후렴)
 악한 자는 무서워라/ (후렴)
 어허라 달아 밝은 달아/ (후렴)
 이태백이 놀던 달아/ (후렴)
 저기저기 저 달 속에/ (후렴)
 계수 남구 박혔으니/ (후렴)
 은도끼로 찍어 내어/ (후렴)
 금도끼로 다듬어서/ (후렴)
 기억자로 집을 짓고/ (후렴)
 양친부모 모시고저/ (후렴)
 천년 만년을 살아도/ (후렴)
 천년 만년 살아주오/ (후렴)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후렴)
 천년만년을 살아주오/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김준희(69세, 남, 소설면 신필리)

0305-2 : 1 땅다지기 노래

에이 여라 지점ियो/ 에이 여라 지점ियो (후렴)

산지조종은 곤륜산ियो/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로다/ (후렴)

곤륜산 낙막이 툇 떨어져서/ (후렴)

백두산이 삼겨 있어/ (후렴)

백두산 상상봉에/ (후렴)

천지라는 못이 생겼는데/ (후렴)

그 물줄기가 흘러 내려/ (후렴)

압록강이 되어 있고/ (후렴)

또 한 줄기는 흘러 내려/ (후렴)

두만강이 되었구나/ (후렴)

평안도의 묘향산은/ (후렴)

대동강이 둘러 있고/ (후렴)

황해도 구월산은/ (후렴)

예성강이 둘러 있고/ (후렴)

강원도 금강산은/ (후렴)

일만 이천봉 서서 있고/ (후렴)

경상도 태백산은/ (후렴)

낙동강이 둘러 있고/ (후렴)

전라도 지리산은/ (후렴)

섬진강이 둘러 있고/ (후렴)

충청도 개룡산은/ (후렴)

공주 금강 둘러 있고/ (후렴)

경기도로 올라오니/ (후렴)

수락산이 떨어져서/ (후렴)

도봉이 생겨 있고/ (후렴)

도봉이 떨어져서/ (후렴)

중암산이 생겨 있고/ (후렴)
왕십리는 청룡이요/ (후렴)
만리재가 백호로다/ (후렴)
한강이 조수가 되고/ (후렴)
동작이 수구를 막아/ (후렴)
천구음탕 되었으니/ (후렴)
억만장안이 이 아니냐/ (후렴)
삼각산 낙막이 똑 떨어져서/ (후렴)
남한산성 생겨 있고/ (후렴)
그 밑으로 내려오니/ (후렴)
이천 북악산 생겨있고/ (후렴)
그 밑으로 내려오면/ (후렴)
설성산이 생겼는데/ (후렴)
설성산 낙막이 똑 떨어져서/ (후렴)
행죽리가 생겼구나/ (후렴)
행죽리 흩어지니/ (후렴)
설성학교 터전일세/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손용운(5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5-2 : 2 땅다지기 노래

에이에라 지점이요/ 에이에라 지점이요 (후렴)
여보소 역군님네/ (후렴)
이내 말씀 들어를 보소/ (후렴)
동방에 청학이 묻혔으니/ (후렴)
청학이 머리를 다칠세라/ (후렴)
가만가만 감어 주게/ (후렴)
남방에 적학이 묻혔으니/ (후렴)

적학의 머리를 다칠세라/ (후렴)
가만가만 감어를 주게/ (후렴)
서방에 백학이 묻혔으니/ (후렴)
백학의 머리를 다칠세라/ (후렴)
가만가만 감어를 주게/ (후렴)
북방에 흑학이 묻혔으니/ (후렴)
흑학의 머리를 다칠세라/ (후렴)
가만가만 감어를 주게/ (후렴)
중앙에 황학이 묻혔으니/ (후렴)
황학의 머리를 다칠세라/ (후렴)
가만가만 감어를 주게/ (후렴)
이 터전에 집을 질제/ (후렴)
팔층 와가 양옥으로/ (후렴)
덩그렇게 지어 놓고/ (후렴)
팔괴놓아 원담을 쌓고/ (후렴)
청룡방에 우물을 파고/ (후렴)
복덕방에 서당을 짓고/ (후렴)
이 다음 살 적에/ (후렴)
어떤 분이 살던지/ (후렴)
백세 장수 누릴 것이요/ (후렴)
자손만대 영화로세/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손용운(59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11-1 : 6 땅다지기 노래

에이헤라 지점이호/ 에이헤라 지점이호 (후렴)
이 집터가 누구집이런가/ (후렴)
경기도라 이천땅에/ (후렴)

설성면에 수산리라/ (후렴)
동래정씨 계주댁에/ (후렴)
명당일레 명당일레/ (후렴)
이 집터에 집을 지면/ (후렴)
아들 나면 효자동이/ (후렴)
딸을 나면 열부로다/ (후렴)
송아지를 나면 암소요/ (후렴)
강아지를 나면 복슬이라/ (후렴)
닭을 치면 봉황이 되고/ (후렴)
곡식뿌려 수확하면/ (후렴)
천석 만록 당연하네/ (후렴)
자좌우향 쇠를 놓아/ (후렴)
명당터를 닦을지니/ (후렴)
산년안에 발복하여/ (후렴)
운수대통 할것일세/ (후렴)
에이혜라 지점이호/ (후렴)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410-1 : 6 땅다지기 노래

애라 회리 지경이야하
애라 회리 지경이야하 (후렴)
여기에 일터를 잡을 적에/ (후렴)
조선이라 명산을 관광하니/ (후렴)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후렴)

* 1998.4.25. 이춘수(60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1-1 : 4 땅다지기 노래

오호라 지경이호오/ 오호라 지경이호오 (후렴)

여기에 일터를 잡을적에/ (후렴)

조선이라 명산을 관광하니/ (후렴)

사지조정은 곤령산이요/ (후렴)

수지조정은 황하수다/ (후렴)

곤령산 낙맥에 산지맥이 분명쿠나/ (후렴)

일진맥은 떨어져서 각막으로 들어가고/ (후렴)

일진맥은 중원대륙으로 들어가고/ (후렴)

일진맥은 떨어져서 우리 조선에 나올적에/ (후렴)

* 1998.3.28, 최성환(74세, 남, 마장면 이평리)

0411-2 : 3 땅다지기 노래

에이허라 지경이호/ 에이허라 지경이호 (후렴)

이 집터가 뉘 집이런가/ (후렴)

이 집터에 집을 지면/ (후렴)

아들 나면 효자동이/ (후렴)

딸을 나면 열부로다/ (후렴)

* 1998.4.10, 유원학(86세, 남, 마장면 이평리)

0412-1 : 4 땅다지기 노래

에헤라 지경이요 에헤라 지경이요 (후렴)

이 집터를 마련할제/ (후렴)

에헤라 지경이요/ (후렴)

자좌우향 쇠를 놓고/ (후렴)

에헤라 지경이요/ (후렴)

양지쪽에 안채를 놓아/ (후렴)

에헤라 지경이요/ (후렴)

* 1998.3.29. 김종필(71세, 남, 마장면 해월리)

0412-1 : 4 땅다지기 노래

에헤라 지경이요 에헤라 지경이요 (후렴)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정은 황하수로다/ (후렴)

곤륜산 내력이 내려를 와서/ (후렴)

삼각산이 삼겨 있고/ (후렴)

* 1998.3.29. 이동철(69세, 남, 마장면 해월리)

0502-1 : 13 땅다지기 노래

에여라 지경이요 에여라 지경이요

이집터를 다져가세 (후렴)

세월 상황세를 놓고/ (후렴)

양지쪽에 안치를 놓아/ (후렴)

높을 산에 집을 짓나/ (후렴)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외 2인

0511-1 : 20 땅다지기 노래

에여라 지경이요/ 에허라 지경이요 (후렴)

번쩍 들었다 과광광 놓고/ (후렴)

여보나시오 여러분네들/ (후렴)

이 내말좀 들어보자/ (후렴)

이 터 잡을 때 누가 잡나/ (후렴)

일심을 받아 받아 하여보자/ (후렴)

이 터들 다 명당이로다/ (후렴)

142 이천의 옛노래

여보나시오 여러분네들/ (후렴)
이문 낼 적에 어디로 내나/ (후렴)
서쪽으로다가 내어볼까/ (후렴)
경상도 안동땅에/ (후렴)
제비보네 솔씨 받아/ (후렴)
소평대평 던졌더니/ (후렴)
소부동이 되었구나/ (후렴)
대부동이 되었네/ (후렴)
이 집터를 잡을적에/ (후렴)
도선대사가 잡었나/ (후렴)
서산대사가 잡었느냐/ (후렴)

* 1998.8.6. 황춘남(63세, 남, 부발읍 수정리) 외 7인

0511-1 : 21 땅다지기 노래

번쩍 들었다 팡팡 댕요/ 에헤야 지경이여 (후렴)
이 터를 닦을제 잘 닦아보세/ (후렴)
동문으로 문을 열까/ (후렴)
서문으로 문을 열까/ (후렴)
여보시오 곰방님네/ (후렴)
일심을 받아 다져보세/ (후렴)
이 터를 볼 때 누가 봤나/ (후렴)
이 자리가 부귀영화/ (후렴)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후렴)
딸은 열녀로다/ (후렴)

* 1998.8.6. 이명하(58세, 남, 부발읍 수정리) 외 7인

0602-1 : 23 땅다지기 노래

에헤리 지저미호/ 에헤리 지저미호 (후렴)

여기저기 놓더래두/ (후렴)

딱딱해지게 다져주게/ (후렴)

높은데는 광광 놓고/ (후렴)

얕은데는 살살 놓아/ (후렴)

평지가 되도록 다지실 제/ (후렴)

죽제비 어디 다치리다/ (후렴)

가만 가만히 다져주오/ (후렴)

저기 저기 다지더라도/ (후렴)

고만 저만 다져보게/ (후렴)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최용이(74세, 남, 장호원음 노탕리)

0604-1 : 4 땅다지기 노래

에헤리 지점이요/ 에헤리 지점이요 (후렴)

이집터를 다져가세/ (후렴)

세월 상황세를 놓고/ (후렴)

양지쪽에 안처를 놓아/ (후렴)

높을 산에 집을 짓나/ (후렴)

* 1999.1.12, 박기현(60세, 남), 윤호채(77세, 남, 장호원음 빙추리)

0608-1 : 6 땅다지기 노래

에헤 지저미호/ 에헤 지저미호 (후렴)

이집 저집 다져봐도/ (후렴)

이집 터를 다질 적에/ (후렴)

어느 집을 다져놓고/ (후렴)

이집 터가 부자터나/ (후렴)

한 데미에 복자리터를/ (후렴)
다진다고 또 다지어/ (후렴)
얼른 들어 쿵광 단고/ (후렴)
덜어간다 덜어간다/ (후렴)
다지면서 돌아간다/ (후렴)
어느 길을 물어 단고/ (후렴)
열두 대문 열고 가서/ (후렴)
이 자리가 복자리터내/ (후렴)
헌 손 바른손 다져단고/ (후렴)
어서 빨리 들었다 놓게/ (후렴)
이집 저집 다질적에/ (후렴)
다진 것은 또 다지고/ (후렴)
이집 저집 대감님전/ (후렴)
이 집을 다져 집을 짓고/ (후렴)
어서 빨리 부자 되서/ (후렴)
대감님요 대감님요/ (후렴)
대주대감 불러딜여/ (후렴)
백년 집을 짓게 하소/ (후렴)
이제 고만 쉽시다/ (후렴)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609-1 : 4 땅다지기 노래

야 헤리 지제미요/ 야 헤리 지제미요 (후렴)
가만 가만 다지어라/ (후렴)
업두꺼비가 다칠쏘냐/ (후렴)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후렴)
아들 애기를 날 것이다/ (후렴)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후렴)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후렴)
딸을 나면 열녀를 낳고/ (후렴)

* 1999.1.14. 한효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을 외현리)

0612-1 : 1 땅다지기 노래

에헤리 지저미호/ 에헤리 지저미호 (후렴)
사람은 많아도 소리는 주게/ (후렴)
에헤리 지저미호/ (후렴)
여보시오 우리동네/ (후렴)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을 진암리)

0702-1 : 7 땅다지기 노래

지경이여 지경이여/ 에 - 이 오리하 지경이여 (후렴)
이 터를 닦고 집을 지면/ (후렴)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후렴)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지/ (후렴)
에이여라 지경이 호오/ (후렴)
간다 간다 나는 가요/ (후렴)
허덜덜 거리로 나는 가요/ (후렴)
에이여라 지경이 호오/ (후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후렴)
늙어지면 못 노나니/ (후렴)
에헤야 지경이 호오/ (후렴)

* 2000.3.11. 심낙홍(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7-3 : 2 땅다지기 노래

어기여차 디졌노 어기여차 디졌노 (후렴)

(처음 부분 생략됨)

말을 먹이면 용막이구/ (후렴)

개를 먹이면 네눈박이 청삼살이/ (후렴)

앞마당에 곤드러졌네/ (후렴)

소를 먹이면 억대우가 되구/ (후렴)

말을 먹이면 용마우 되구/ (후렴)

* 2000.3.12, 김봉수(61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08-1 : 3 땅다지기 노래

어기여차 지경이요/ 어기여차 지경이요 (후렴)

어기여차 지경이요/ (후렴)

이 집터가 뉘집인가/ (후렴)

청주한씨 명문중에/ (후렴)

아무개떡 집안인가/ (후렴)

이 집짓고 삼년안에/ (후렴)

터를 매기면 갑부되고/ (후렴)

아들 나면 장군동이/ (후렴)

딸을 나면 열녀동이/ (후렴)

개를 먹이면 청삼살이/ (후렴)

어기여차 지경이요/ (후렴)

소를 먹이면 억대우 되고/ (후렴)

어기여차 지경이요/ (후렴)

말을 먹이면 용마되고/ (후렴)

어기여차 지경이요/ (후렴)

* 2000.3.4, 한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809-2 : 7 땅다지기 노래

어허라 영차 지경이라/ 번쩍 들었다 과광광 놓자
한 번 놓으면 한 자가 들어간다/ 어허라 영~ 지경이라

* 2000.6.03, 최장호(80세, 남),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후안리)

0809-2 : 11 땅다지기 노래

오하 얼렐레 지경이우
오하 얼렐레 지경이우 (후렴)
여기 저기다 놓더래두/ (후렴)
땅이 다지도록 잘 들어 주소/ (후렴)

* 2000.6.03, 최장호(80세, 남),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후안리)

0904-4 : 20 땅다지기 노래

에여라 지경이여/ 에여라 지경이여 (후렴)
에여라 이 땅을 다질적에/ (후렴)
아들나면 효자동이/ (후렴)
딸을나면 열녀로다/ (후렴)

* 2001.6.26, 조병동(68세, 남),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1001-3 : 4 땅다지기 노래

에헤리 지경요/ 에헤리 지경이요 (후렴)
이 집 진지 삼년만에/ (후렴)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후렴)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후렴)
말을 빌면 낙타가 되고/ (후렴)
개를 먹이면 네눈백이/ (후렴)
참살 밑에 곤두라 졌네/ (후렴)

여보시오 덩보 님네/ (후렴)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후렴)
부자 장자 아니 되면/ (후렴)
앞산 고만 노적봉이요/ (후렴)
뒷산에는 노적봉이라/ (후렴)
앞뜰 갈제 냇물 건너/ (후렴)
농사지면 풍년일세/ (후렴)
에헤리 지경이요/ (후렴)

* 2002.5.3, 김진각(59세, 남, 대월면 도리리)

0809-1 : 13 물길는 노래

우물 안에 고기는 꼬리만 툭툭 치구요
우물 밖에 큰아긴 바가지 장단만 치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디야 내 사랑아

* 2000.4.29, 임태욱(여, 호법면 후안리)

1101-1 : 3 물 길러갈 때 노래

물 뜨러 가세/ 물 뜨러 가세
표주박 들고서/ 물길어다가
이모 저모 논밭걸에/ 졸졸 졸졸 붓구려
벼이삭이 주렁주렁 황금밭 되면
쿵쿵 쿵쿵 쿵다리/ 쿵쿵 놀아나 보세

* 2002.5.22, 이순기(60세, 여, 이천시 고담동)

0908-1 : 16 화초심을 때 노래

가자가자 갓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김치가지 꽃가지/ 맨드래미 봉숭아

* 2001.4.28, 한순현(78세, 여, 모기면 양평리)

6. 가사 노동요

0101-2 : 2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썩근 썩근 잘도 자네/ 썩근 썩근 잘도 자자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아무쪼록 잘 잡시다
 검등개도 잘 자더라/ 흰등개도 잘 자더라
 저기 가는 저 기러기/ 아무쪼록 우리 손주딸
 우리 은영이 잘도 자게 해줍소서
 삼신 할머니 삼신 할아버지
 우리 은영이 아무쪼록 수명 장수해서
 삼천갑자 동방석에 드게 해줍소서
 아버지 어머니 아무쪼록 우리 은영이 잘도 키워주옵소서
 어서 자자 빨리 자자/ 해가 가고 시간 간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자네
 저기 저기 저 검등개도/ 썩근 썩근 잘도 잔다
 우리 애기도 잘도 잔다/ 어서 자자 시간 간다
 할머니 즐겁다 어서 자자 어서 자자
 너 자고 나 자면은/ 썩근 썩근이 잘도 자네
 우리 은영이 잘도 잔다/ 어서 자자 시간 간다
 저기 저기 흰둥이도/ 썩근 썩근 잘도 잔다
 우리 은영이도 어서 자자
 아무쪼록 삼신 할머니 삼신 할아버지
 우리 은영이 잘도 자게
 만수무강하게 키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 1996.7.12, 허금자(84세, 여, 백사면 경사리)

0102-3 : 1 자장가

봉남아 우지말고 어서 자거라
너를 업고 배주리는 나도 있단다
극락세계 다시없다 이에 젓 좀 주오
봉남이는 등에 업혀 울고 있어요
어떤 아이 팔자좋아 엄마 손잡고
어서 가자 어서가자 엄마 따라 가는데
우리들은 담밑에서 거적잡자네
이만하면 조선시내 알아주련만

* 1996.7.9, 심순애(74세, 여, 백사면 내촌리)

0107-1 : 3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손주/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어허 등등 내 사랑/ 잠을 자도 꼬꼬닭 같이 잘도 잔다
뒷집의 검둥개도 우지마라/ 앞집의 흰둥개도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손주 잘도 잔다/ 앞집의 강아지 우리 손주 깬다
뒷집의 검둥이도 깨질마라/ 우리 손주 깬다

* 1996.7.12, 허금자(84세, 여, 백사면 경사리)

0205-5 : 5 자장가

자장자장 잘도나 잔다/ 우리 애기가 잘도 잔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산첩 산중 보배등아/ 어허 등등 내사랑아
배고파 지은밥엔/ 돌도 많고 뉘도 많고
이거는 니탓이더냐/ 님이 안계신 탓일러라
밥을 먹으려 해도/ 목이 매어 못 먹겠네

* 1997.2.18, 이보견(74세, 여, 울면 신양리)

0206-1 : 2 자장가

엮어줄까 내사랑/ 안아줄까 내사랑
금을 주면 너를사니/ 은을 주면 너를사니
자장 자장 잘두 잔다/ 명명 개야 짓지마라
우리애기 잠들었다/ 아가 아가 우지 마라

* 1997.2.19, 원옥선(9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1 : 7 자장가

하나님전에 충신동아/ 부모님전에 효자동아
형제간에는 우애동아/ 집안간에는 화복동아
내우간에는 화순동아/ 동아동아 열두동아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금도 싫고 옥도 싫고
백수상수가 지신이라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302-1 : 1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꿈을 꾸고있나
효자동이 될려느냐/ 충신동이가 될려느냐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동이/ 집안간에는 화복동이
동네간에는 칭찬동이

* 1997.11.15, 허경순(65세, 여, 설성면 장능리)

0305-2 : 2 자장가

자자 자자 우리애기/ 잘두 잔다 우리애기
꼬꼬닭아 우지마라/ 멍멍개야 짓지마라
자장 자장 우리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 1997.11.22, 소서운(71세, 여, 설성면 신필리)

0310-1 : 1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잠들걸랑
뒷집개두 짓지말구/ 앞집개두 짓지마라
청석자리 잘두자구/ 응석자리 잘두잔다

* 1997.12.15, 김옥희(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310-1 : 7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집안에는 효자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곱게곱게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안친척 화목하고/ 나라님께 충신되어라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 1997.12.15, 홍분희(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310-1 : 8 자장가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짓지 마라/ 꼬꼬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 1997.12.15, 민월선(83세, 여, 설성면 상봉리)

0310-1 : 9 자장가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심산심곡 보배동아/ 동네방네 우리 애기
부모님전 효자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 1997.12.15, 맹정순(65세, 여, 설성면 심봉리)

0312-1 : 1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은자동이나 금자동이나
부모님전 효자동이/ 나랏님전 충신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어화동동 우리애기

* 1997.12.16, 김명선(84세, 여, 설성면 대죽리)

0401-1 : 8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잔다/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꿈을 꾸고있나/ 효자동이 될려느냐
충신동이가 될려느냐/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동이
집안간에는 화목동이/ 동네간에는 칭찬동이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403-1 : 3 자장가

아가 아가 자장 자장/ 마루밑에 멍멍개야 짓지마라
우리 아기 잠 못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 1998.3.28, 목영복(88세, 여, 마장면 관리)

0403-1 : 5 자장가

애기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지마라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꿈을 꾸었는가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지마라

* 1998.3.29, 한인애(80세, 여, 마장면 관리)

0407-2 : 3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 개야 짓지마라
밤 한말을 좃어다가 삶았더니/ 생쥐한마리가 들락날락
어떻 두었는데 상애개/ 달봉달봉 다 먹고
찌그러진 알갱이/ 겁데기만 남겼네

* 1998.5.14, 김영희(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407-2 : 4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밤 한말을 사다가
밀빠진 가마솥에 푹푹 삶았더니/ 살강 밑에 놓아 뒀더니
새끼 한 마리가/ 들락날락 다 까먹고
밤 한톨을 뱉겨뒤서/ 달궁달궁 다 까먹었다

* 1998.5.14, 김영희(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408-2 : 1 자장가

아가야 잘자거라/ 우리애기 잘자거라
앞동산에 강아지도/ 새록 새록 잘도잔다
아가야 잘자거라/ 우리애기 잘자거라

* 1998.4.25, 신옥규(77세, 여, 마장면 이치리)

0413-1 : 1 자장가

토닥 토닥 자장/ 할머니 손은 약손
자장 자장 애기배는 똥배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마장면 직촌리)

0502-1 : 5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 잔다 우리애기
멍멍개야 짓지마라/ 흰둥개야 짓지마라
꼬꼬닭도 우지마라/ 우지마라 우지말고
우리애기 잠잘자게/ 우지마라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잔단다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8-1 : 2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애기 잘두 잔다
앞집 개야 짓지 말라/ 뒷집 개두 짓지 마라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애기 잘두 잔다

* 1998.8.1, 안종렬(87세, 남, 부발읍 신하리)

0510-1 : 2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두잔다
먹고 자구 먹구 놀고/ 우리 애기 잘두 잔다
무엇이나 될래느냐/ 나라님겐 충신동이
부모님겐 효자동이/ 동기간엔 화목동이
일기간엔 우애동이/ 동네방네 인심동아
자장자장 어서 자소/ 어서커서 무엇이 될래
고관 대장 될래느냐/ 어시출두가 될래느냐
그것저것 다 그만두고/ 대통령이나 되어보자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아미리)

0510-1 : 9 자장가

둥기 둥기 둥기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나라님께 충신동아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아미리)

0612-1 : 9 자장가

자거라 자거라/ 귀여운 아가야
꿈속에 잠드는/ 봄나비 같이
고요히 눈감고/ 꿈나라 가거라
꽃잎을 날리는/ 바람결 따라서

* 1999.1.11, 최순택(67세, 여, 장호원읍 진암리)

0706-1 : 1 자장가

아가 아가 우리아가 잘두잔다/ 마루 밑에 똥강아지
똥두테기 물어 자고/ 우리 애기 잔다

뒤집개도 잘두 자고/ 우리 애기 잘두 잔다

* 2000.3.12, 장연희(83세, 여, 신둔면 도암리)

0708-2 : 6 자장가

검둥개야 짓지마라/ 우리 아가 잠꼰라
앞집개야 우지마라/ 우리 아가 잠꼰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 아가 잠꼰라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썩근 썩근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썩근 썩근 잘도 잔다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10-2 : 18 자장가

자장 자장 잘도잔다/ 우리 애기 잘도잔다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아기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잘도잔다

* 2000.2.18, 김침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803-1 : 15 자장가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 났나
검둥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자장 자장 자장 자장/ 부른다 부른다 잘한다
애기 노래 잘 부른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 2000.4.29, 정오순(71세, 여, 흥법면 매곡리)

0805-4 : 1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마루 밑에 금동이도 잘도 자고
뒷집개도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 2000.6.7, 이용년(71세, 여, 호법면 안평리)

0809-2 : 6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두 자네 남의 아기 못두자구
우리 귀염둥이는 잘두자구/ 자는 거를 볼수록 이쁘기도 하네

* 2000.6.03, 최장호(80세, 남),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후안리)

0903-1 : 1 자장가

자장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만첩청산 옥포둥이/ 어린 궁해는 수달피냐
얼씨구 절씨구 잘도 크다/ 만수무강으로 잘자라라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903-1 : 2 자장가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부모님겐 효자둥이/ 나라님겐 충신둥이
동기간엔 우애둥이/ 일가친척 화목둥이
동네방네 우리둥이/ 만민간에 칭찬둥이
만첩청산 옥포둥이/ 어린 궁해는 수달피다
얼씨구 좋구나 잘도 잔다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910-5 : 4 자장가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야기 잘도잔다
우리애기는 잘두잔께/ 꽃밭에다 뉘어놓고
동네애기는 잠 안잔께/ 개똥밭에 뉘어놓고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1003-1 : 22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자고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짚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야기 깊이 든 잠/ 너희들 소리에 다 깨간다.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6-3 : 3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자네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잠깨운다
명명개야 짚지마라/ 우리애기 잠깨운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우리애기 잘도자네/ 자장자장 잘도자네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겐 효자동아
우리애기 잘도자네

* 2002.3.30, 김숙영(74세, 여, 대월면 부팔리)

1008-2 : 2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명명개야 짚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어서어서 잔병 없이 잘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 있고
집안간에 화목하며/ 동네간엔 친목동이
나라님께는 충신동이
어서어서 잘자라서 참 일꾼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장군이 되어라

* 2002.3.30, 조각형(76세, 여, 대월면 사동리)

1008-3 : 10 자장가

우리애기 잘도잔다/ 찻 잘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나라에 큰 일꾼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장군이 되어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있고
집안간에 화목하고/ 나라안에 인재되니
나라님께는 충신되니/ 어라둥둥 우리애기 잘도잔다
꼬꼬닭아 우지마라/ 멍멍개야 짓지마라
우리애기 잠 못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육설월에 우리부터/ 자기부터 선녀같이 잘자래라
열녀 동백꽃 인형을 들고/ 천수에 복을 내려 일춘 잠 잘자네

* 2002.5.15, 허성인(84세, 여, 대월면 사동리)

1009-4 : 2 자장가

자장 자장 자장가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꿈을 꾸고 있나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부모님께는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화목동이
나라님께는 충신동이/ 자장 자장 자장귀야

하늘에서 뚝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아났나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6 : 1 자장가

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애기는 잘도 자고
건넌집 애기는 못도 자고/ 우리 애기는 한자에 하루에
두자씩 세자씩 크고/ 무럭무럭 잘자라서
나라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해야지
자장자장 자장자장/ 달도 밝고 명랑한데
우리 애기 잘도 자네

* 2002.4.27, 김준배(62세, 여, 대월면 대대리)

0303-4 : 3 세상달공

달공 달공 세상달공/ 밤하나를 좇아서
살강밀에 묻었더니/ 들락날락 새앙쥐가 다 파먹구
밤 한톨이 남았네/ 가마솥에다 삶을까
오고솥에다 삶을까/ 가마솥에다 삶아서
조래미루 건질까/ 조래미루 건져서
겉껍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구/ 속껍데기는 엄마 아빠 드리고
알맹이 너구나구 먹자/ 세상달공 달공 달공

* 1997.12.17, 정향기(71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10-1 : 12 세상달공

달공 달공 세상달공
서울간에 가서/ 밤 한톨을 사다가
실경 우에 없었드니/머리감은 새앙지가
들락날락 다 까먹고/ 밤 한톨을 남겼는데

가마솥에 삶을까/ 옹솥에 삶을까
가마솥에 삶아서/ 조래미로 건져서
주걱으로 뭉개서/ 껍데기는 할머니 드리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둘이서만 먹자
달공 달공 세상달공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삼봉리)

0403-2 : 3 세상달공

달공 달공 세상달공/ 밤한톨을 주었던가
생쥐가 들락말락하면서/ 한강에 빠졌네
조래미로 건져서/ 밤한톨은 할머니 주고
밤한톨은 아가 주고/ 세상달공 세상달공
실경뒤에 생쥐가 들락날락 하면서/ 죄다 먹어 버렸나

* 1998.3.28, 윤석용(74세, 남, 미장면 과리)

0901-3 : 9 달공노래

세상달공 달공 달공/ 우물길에 가지마라
암탉한테 채일라/ 수탉한테 채일라
달공 달공 달공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기면 두미리)

0904-4 : 26 달공노래

시장 시장 할아버지가/ 마당쓸다 동전한푼 얻었더니
서울가는 인편에 보냈더니/ 밤 한말을 사왔길래
암반끝에다 었었더니/ 들락날락 다까먹고
벌레먹이 한톨 남은거를/ 왕가마에다 삶아서 광주리로 건져서
껍데기는 할아버지 드리고/ 범이는 할머니 주고

중살점은 너하고 나하고 먹자/ 달공 달공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4-4 : 27 달공노래

할머니가 마당 쓸다/ 동전한푼 주은 것을
서울가는 인편에다 보냈더니/ 밤 한말을 사왔길래
암반끝에다 었었더니/ 멀리가면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벌레먹이 한톨 남은 것을
왕가마에 삶아서/ 광주리로 건져서
겹데기는 할아버지 주고/ 할머니 범이를 주고
중살점은 너하고 나하고 먹자/ 달공 달공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1009-4 : 3 세상달공

달공 달공 세상달공
할아버지가 마당 쓸다/ 일전 한푼을 좇어다가
밤 한말을 사다가서/ 상강밑에다 들뜨렸더니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 까먹고/ 밤 한톨을 냉졌는데
가마솥에다 삶아가지고/ 삼태미로 건질까요
조래미로 건질까요/ 조래리로 건져다가
겹겹데기는 에미 주고/ 속겹데기는 애비 주고
알갱이는 깎아주고/ 너고 나고 세상달공 먹자꾸나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0208-2 : 1 동기노래

동기동기 동선아/ 날라가는 학선아
비가오니 초록산/ 눈이오니 백두산

서리가 오나 비가오나/ 논두랑 밑에 송사리새끼
맹달말미가 큰 애기/ 얼개미 챗바퀴
우리체 둘러미고/ 송사리새끼 잡으러 나가자

* 1997.1.30, 김기태(59세, 여, 울면 오성리)

0303-2 : 1 동기노래

동기 동기 동기야/ 날러가는 학선아
오금에 진선 내 딸아/ 천지 불공 내 아들
옥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옥자동아 금자동아/ 옷고름에 산주씨
댕기 끝에 진주씨/ 둥둥 동기야

* 1997.4.11, 권승남(71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4 : 6 동기노래

동기 동기 동기야/ 날러가는 학선아
오금에 진선 내 딸아/ 천지불공 내 아들
옥을주면 너를사라/ 금을주면 너를사라
옥자동아 금자동아/ 천지불공 내 아들
옷고름 끝에 진주씨/ 댕기 끝에 산주씨
동기 동기 동기야/ 둥둥 동기야

* 1997.12.17, 정항기(71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5-2 : 3 동기노래

동기 동기 동개야/ 날러가는 학선이나
오금에 진상에두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옥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주면 너를 사나
은을 주면 너를 사나/ 어화 동개 내 사랑

등개 등개 등개야/ 동네방네 효자동아
집안간에 화목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오화 등개 내 사랑

* 1997.11.22, 소서운(71세, 여, 설성면 신평리)

0310-1 : 10 동기노래

등개야 등개야/ 등개야 등개야
등개 등개 우리 학선이/ 잘도 논다 잘도 웃는다
등개 등개등개야/ 우리 학선이 잘도 웃는다
까꾸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407-2 : 5 동기노래

등기 등기 등기야/ 어와 등등 내 사랑아
등기 등기 등선야/ 늙으나 젊으나 등기야
자나 깨나 등기야/ 구름 밑에 신선이야
그 누구메 신선 내 딸이나/ 선지 물고 내 아들이
오그메 자그메 방빨이/ 연화 대천 돌절구
끈이 끈이 끈끈이/ 이 술한잔 마시라거니

* 1998.5.14, 김영희(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413-1 : 2 동기노래

등등아 내사랑아/ 어쌀등아 내사랑아
등두기 등등 등등등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마장면 작촌리)

0505-1 : 12 등기노래

등등등 등등아 먹으나/ 굶으나 등등아
입으나 벗으나 등등아/ 부모님께서는 효자등이
나랏님께서는 충신등이/ 동네간에는 화목등이
등등등 등등등아

* 1998,8,4, 조영숙(87세, 여, 부발읍 대관리)

0508-1 : 3 등기노래

등아 등아 보배등아/ 나랏님전 충신등아
부모님전 효자등아/ 등등 등기야 등기야

* 1998,8,1, 안종렬(87세, 남, 부발읍 신하리)

0602-1 : 14 등기노래

등계등 등계등/ 금을 주면 너를 사나
은을 주면 너를 사나/ 등계 등계 등계야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을 노탑리)

0608-1 : 8 등기노래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내가 요렇게 고울 적에는/ 너의 엄마는 얼마나 예쁘냐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내가 요렇게 고울적에
너의 엄마는 얼마나 예쁘냐/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딸일망정 고이 길러/ 일본 동경에 공소를 불러나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딸일 망정 고이 길러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 등등 등등등 내 딸이야
널리리리 리리 간절히 나는구나/ 내가 날 만큼은 사랑을 한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좋다/ 단 숨에 뛰건만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을 오남리)

0704-1 : 4 동기노래

등개 등개 등개 우리 손주/ 천년만년을 살고지고
동방석에 명을 빌고/ 석층에 복을 받고
등개 등개 등개 우리 손주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803-1 : 19 동기노래

등개 등개 등개야/ 두둥실 등개야
등개 등개 등개야/ 두둥실 등개야
엄마 생각 하지 마라
등개 등개 등개야/ 두둥실 등개야

* 2000.4.29, 안만은(75세, 여, 호법면 매곡리)

0809-1 : 11 동기노래

등개 등개 등개야/ 먹으나 굶으나 등개야
우리 등개 누가 낳나/ 우리 등개 이쁘기도 하구나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지화자 좋구나

* 2000.4.29, 임태옥(여, 호법면 후안리)

0904-3 : 19 동기노래

등개 등개 등개야/ 친선 보면은 대추씨
능진산엔 꽃쟁이/ 뜨락 밑에는 병아리
뜸물 동우엔 호박씨/ 등개 등개 등개야
어허 등개 등개야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5-1 : 12 동기노래

동기동기 동기야/ 우리애기 잘도잔다
동기동기 동기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어하 둥둥 내 사랑/ 어하 둥둥 내 사랑
어하 둥둥 우리애기 잘도 크다
동글동글 호박모양 잘도 크다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0910-2 : 2 동기노래

동기 동기 동개야/ 먹으나 굶으나 동기야
자나 깨나 동기야/ 둥둥 동개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주면 너를 사라

* 2001.5.4. 최정화(86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15 동기노래

둥둥 동개야/ 자나깨나 동개야
먹으나 굶으나 동개야/ 입으나 벗으나 동개야
둥둥 동개야/ 자나깨나 동개야
한 두 살에 동개지/ 사시사철 동개가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1008-2 : 25 동기노래

똥기나 똥기나 똥기야/ 한 철가지 똥기지
사시사철 똥기냐/ 오 똥기 내 사랑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자 둥이 금자 둥이

똥기야 똥기 똥기 똥기야/ 한가지 들고 똥기야
한 두살에 똥기지/ 사시사철 둥긴가

똥기나 똥기나 똥기야/ 입으라 짓이나 똥기야
똥기나 똥기나 똥기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자 둥이 금자 둥이

* 2002.3.30, 채수인(72세, 여, 대월면 사동리)

1009-4 : 1 **둥기타령**

둥게 둥게 둥게야/ 먹으나 굶으나 둥게야
날러가는 학선야/ 앵도낭구에 피꼬리
조팝나무에 피죽새/ 먹으나 굶으나 둥게야
나라님께는 충신동이/ 둥기간에는 화목동이
일가간에는 우애동이/ 둥게 둥게 둥게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우에서 불끈 솟았는가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0310-1 : 11 **불아불아**

부라 부라 부라따따/ 벌벌 걸어라
천난만냥 걸어라/ 부라 부라 부라따따
이게 어디 풀무냐/ 경상도에 풀무냐
전라도에 풀무냐/ 부라 부라 부라따따
부라 부라 부라따따

* 1997.12.15, 맹정순(65세, 여, 설성면 상봉리)

0709-1 : 1 불아불아

불아 불아 불어라/ 우리 애기 무럭무럭 자라게 불어라
얼른커서 나랏님께 충신이요/ 부모님께 효자고
동기간에 우애 있고/ 동네방네 칭찬 듣고
착하게 잘 자라거라

* 2000.3.11, 조병숙(75세, 여, 신둔면 고척리)

0709-1 : 7 불아불아

불아 불아 불어라/ 부지런히 불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먹고 남으면 집을 지으면 어찌리
집을 질 때 여덟팔자/ 바깥에는 행량을 짓고
처마에는 풍경 달고/ 마당 가운데 연못 파고
연못 가운데 다당 짓고/ 소를 먹이면 두자 되고
돼지를 먹이면 돌이 되고/ 개를 먹이면 삼살이 되고
닭을 먹이면 봉화이 되고

* 2000.3.11, 조병숙(75세, 여, 신둔면 고척리)

0305-2 : 4 걸음마노래

길가자 길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길가자 길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 1997.11.22, 소서은(71세, 여, 설성면 신흥리)

Ⅱ. 의식요

1. 세시 의식요

0201-1 : 15 성주풀이

성주분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다
 제비원의 솔씨를 받아/ 소평대평에 던졌더니
 그솔이 점점 자라/ 소부동이 되었노라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노라
 그 재목을 내라하고/ 서른세명 역군들은
 소산에 올라가 소목을 내고/ 대산에 올라가 대목을 내고
 원조산의 직을 끊어/ 궁글궁글 떼를 모아
 양구 양천 흐르는 물에/ 어리둥실 띄웠노라
 이 물에 이 사공아/ 그 물에 그 사공아
 허리간의 물때가 점점 늦어간다/ 예라 만수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907-2 : 3 성주풀이

성주군행이 어던가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걸일러라
 제비원 들어가/ 솔씨 밀말을 받아다가
 양로집평 용문산에/ 태편소편 던졌더니
 그 나무가 자라날제/ 우짚우짚 자라더냐
 대불산이 되었네/ 소불산이 되었네
 저나무 점점 자라나/ 대부동 소부동이 되었구나

저나무가 점점 자라나/ 대궐안 대들보감이 되었으니
주인댁 구중부수
옥도끼 갈아매고/ 금도끼도 갈아매고
서른 세명 적군들을/ 모두다 모아가지고
태산에 올라 태목 낸다/ 소산에 올라 소목 낸다
운둔산 칩을 끊어/ 아래위를 질끈 매어
양구양천 흐르는 물에/ 둥기덩기 실어내리니

주인대주 거동봐라
그 나무를 우겁지겁 실어다가/ 어떤 집위를 들여놓나
이지위 김지위/ 안중철 김중철을 들여놓고
잣나무는 잣다듬고/ 굵은 나무 굽다듬어
양짓장 나무는 악철이 배구고/ 뒷장 나무는 너무 못쓰겠네

나무 나무 나무로다
십리밖에 우리나무/ 우리밖에 십리나무
갓은 나무를 다 베어서/ 슬금슬쩍 잘러다가

* 2001.6.6. 익명(89세, 여, 모가면 신갈리)

0602-1 : 3 달거리

이월달에 들은 액운은/ 이월 매조에 풀어놓고
삼월달에 들은 액운은/ 삼월 삼진에 풀어놓고
사월달에 들은 액운은/ 사월 초팍일에 풀어놓고
오월달에 들은 액운은/ 오월 단오에 풀어놓고
유월달에 들은 액운은/ 유월 유두에 풀어놓고
칠월달에 들은 액운은/ 칠월 칠석에 풀어놓고
팔월달에 들은 액운은/ 팔월 한기위에 풀어놓고

구월달에 들은 액운은/ 구월 구일에 풀어놓고
 시월달에 들은 액운은/ 시월 산달에 풀어놓고
 동짓달에 들은 액운은/ 동지 맛이 해로 풀고
 선달에 들은 액운은/ 흰떡가래로 풀고

* 1999.1.13, 심옥란(53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1009-1 : 10 달거리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달거리가 이택가정에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 가자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인데
 이 가문에 묻은 정을/ 다 풀어 짐지하자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진날 제비 팽떡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이라 초파일 석가 여래 관등놀이로 막아주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 타는 그네줄로 막아주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 유두날 밀전병으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건우직녀 상봉시에/ 오작교 다리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
 햅쌀 송편을 많이 빚어/ 이웃집에 나눠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이라 구구절에
 국화 농주를 많이 빚어/ 이웃에 모셔다가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이라 일년중 상달인데
 좋고 좋은 날을 가리어서/ 무일날 무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달 동지날 동지 팔죽을 정히 쑤어
 양손에 죽퍼 들고/ 중문 대문 드날드며
 이리 저리 끼었으니/ 오는 잡귀 가는 잡귀

뜨거운 팔죽 뒤집어쓰고/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동지달에 드는 액은/ 선달의 그믐달 흰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을 정히 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 한 장에 둘둘 말아/ 막걸리 한잔 끼얹은 채로 원강에 소멸하니
백사가 여일하고/ 만사 대길이요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달거리를 풀고가니
화기만당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0-2 : 4 달거리

달거리가 이택 가정에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 가자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인데
이 가문에 묻은 정을/ 다 풀어 접지하자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 맹맥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 석가여래/ 관동놀이로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타는
그네줄로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일/ 밀젼병이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상봉시에/ 오작교 다리놓던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
햐쌀 송편을 많이 빚어/ 이웃집에 나눠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이라 구구절에
 국화농주를 많이 빚어/ 이웃에 모셔다가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이라 상달인데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달이라 동지날
 동지팔죽을 정히 쭈어/ 양손에 죽퍼들고
 중문 대문 드나들며/ 이리 저리 끼었으니
 오는 잡귀 가는 잡귀/ 뜨거운 팔죽 뒤집어쓰고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동지달에 드는 액은/ 선달의 그믐날
 흰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을 정히 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 한장에 둘둘 말아
 막걸리 한잔 끼얹은 채로/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가 대길이요/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 1985. 「이천의 기록놀이」 수록 자료, 이천도(대월면)

0102-1 : 2 고사반

해동은 조선의 남한국이요
 국태민안이 복년이나/ 시하연풍에 돌아든다
 이씨 한양 등국후에/ 삼각산이 동하하야
 삼각산 뚝 떨어져서/ 한강수가 조수가 되고
 봉악을 눌러 대궐을 짓고/ 오호 영문이 각도 각읍을 마련할제
 왕십리는 청량리 되고/ 한강수가 조수가 되고
 경기도 뚝 떨어지니/ 어디로 다녀가나

이천이 좋다하니/ 이천이나 구경을 갈까
이천으로 들어서니/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네
이리 저리 물어보니/ 백사면이 좋다던데
백사면으로 들어서니/ 어디로 가볼건지
내촌리가 좋다하니/ 내촌리가 어찌멘가
내촌리로 들어서니/ 술이 좋고 마을이 좋아
이씨택에 들어가니/ 누구와 함께 들어갈고
대문안으로 들어서니/ 대문안에는 수문장군이 떡 앉아계시도다
마루대청 바라보니/ 성주님이나 앉아 계시고
올망졸망 전태콩이나/ 방장마다 주나미콩
앞에 며느리 춤을 추고/ 뒷뜰에는 아드님이 춤을 춘다
마루대청을 지나다가/ 안방을 건너보니 조상님이 떡 앉아계시도다
이곳 저곳을 돌아보니/ 조상님이 계시는구나

* 1996.7.9, 박진중(62세, 남, 백사면 내촌리)

0201-1 : 4 고사반

불성명당 신도형은/ 천강태지 수명당일
성내외지자/ 동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여기 지신이 하강하여/ 소원성취가 발원이라
당상학벌 양친일랑은/ 오동나무 상상지에
봉황같이 점제하고/ 슬하 자손이 만세영일이라
무쇠 목숨에 푯끈 달어/ 천만세를 점지하라
이때 가중에 금년신수가 대통할제
동절문을 닫은듯이/ 오뉴월문을 열은듯이
물에두에나 물탄듯이/ 술에두 술탄듯이
평반에두나 진주를 담은 듯이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은 불이 밝어
 비단에두나 수열과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그냥 그대로 나리소서
 이택에 없는 아기는 짐지하고/ 있는 아기는 수명장수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아
 그 자손이 점점 커서/ 대과급제를 하올적에
 육조판서를 제수한듯/ 삼정승을 제수한듯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간에는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간에는 화목동이
 친구간에 유신동이/ 세상천지 으뜸동이
 동방석에도 명을 빌고/ 강태공에도 날을 빌어
 선 팔세 후 팔세/ 일백 네수를 짐지하라
 물과 복을 빌을적에/ 석승에도 복을 빌어
 물복은 흘러들고/ 구름복은 기어들고
 쪽제복은 다 뛰어들고/ 인복은 다 덮었으니
 백만장자 아니되라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8-1 : 6 고사반

가을철이 접어들어서
 물매같은 머슴애 종놈은/ 식에 바쳐서 쳐드리고
 물매같은 기지배 종년은/ 다래바쳐서 여들이고
 바깥마당에 쌓인 노적은/ 견명대중의 노적이요
 안마당에 쌓인 노적은/ 공명대주의 노적이요
 마루대청에 쌓인 노적은/ 귀중하게 노적이라
 이 노적 저 노적/ 명에 노적을 덩그렇게 싸여놓고
 집을 한채 지어보자/ 소거등에 대부들

와작~ 지끈 배어다가/ 동그렇게 지어놓고
원갓 짐승을 먹여보세/ 무슨 짐승을 먹이나
꽂지없는 땡경이 소/ 무슨 소를 먹여보나
네 눈백이 청삽살이/ 청경 짓고 나가는 소리
저건너 건너편 노적봉 건너다보고/ 커저커영경 짓는 소리
만고봉록이 두둥 떠들어 오십소소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208-5 : 1 고사반

에헤라 에에히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일진맥은 떨어져서/ 강남으로 들어가고
일진맥은 떨어져서/ 중원대륙으로 들어가고
일진맥은 떨어져서/ 조선으로 들어와서
백두산에 기봉하고/ 백두산 낙막이 떨어져서
오종주추 내려와서/ 삼각산에다 기봉하고
삼각산 낙막이 떨어져서/ 오종주추 내려와서
산주정신이 어디어서/ 대궐터가 생겼구나
대궐터를 잡을 적에/ 무학선생이 쇠를 놓고
왕십리는 청룡이요/ 무악재는 백호로다
한강이 조수되고/ 남산이 솟았으니
대대손손 날 것이다/ 부귀영화도 하리로다
없는 얘기는 점지하고/ 있는 얘기는 수명장수할 것이다
재수 발복할 것이다/ 소원성취 하리로다

* 1997.1.30, 황결준(80세, 남, 울면 오성리)

0405-1 : 2 고사반

다 거저 잘 들어보시오/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잘 들어보시오
 천재유지는 하날 되고/ 지지조차 땅 생긴지
 오륜삼강이 으뜸이라/ 국타이면 범연처/ 시화연풍 요순년이나
 이씨 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되어
 삼각산이 뚝 떨어져/ 어정출청 내려온 줄기/ 백운봉이나 생겼구나
 학을 놀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초로다
 육조 앞에 오염문/ 하각산이 각도각읍 마련되고
 다 모두 동대문이 생겼구나/ 서대문이 생겼구나/ 남대문이 생겼구나
 그 문을 다/ 낮이면은 열어 놓고/ 밤이면은 닫을 적에
 어떤 양반 다 들어왔다/ 대궐안에서~ 주무시고
 살림하시던 양반이/ 열어 놓고 닫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김씨가 대주가 들어와 보니/ 이택에 김씨 가족부인/ 넘어가 찬장을 뵈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인을 얼굴을 들여다보면 반짐작은 한다구요, 반짐작은 하는게)
 낮이면은 문을 열어 놓고/ 밤이면은 문을 닫고
 다 김씨역사한 가족중에/ 천년만년 살더라도
 근심 없고 걱정 업고/ 우환 없고 재난 없고
 만수무강 재수관운을/ 소원성축을 이루소사
 아들은 삼형제/ 딸은 사형제로구나
 그러면은 칠남매를 두고서/ 자손들을 다 모두 출가를 시킬때에
 만아들이 만아들이/ 자식복이 있어가지구서
 애기엄마가 들어오는데/ 이 애기아줌마가 들어온 뒤에는
 시시때때로 밥숯갈 올라가는대로/ 다 모두 복이 들어오고
 만수무강이 그 숯갈에 땡겨와서/ 애기 아빠가 만며느리가 잘되니
 지차에도 둘째 며느리 잘된다/ 셋째 며느리 또 들어온다
 이렇게 다 들어와 가지구서는/ 일년은 열두달에 반년은 열속달에
 삼백 예순날에 근심 없고 걱정 없는 건

정월이라 드는 액은/ 이월 이팔로 막아내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진으로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이라 팔일로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근심/ 오월 단오로 막아내어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날 밀그름적으로
 덜미를 지어 질끈 집어서/ 원단커니 쇠멸하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오작교에 ...(미상)... 으로다 막아내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날 오이생채 꼭꼭눌러
 덜미를 질끈 집고/ 원장커니 쇠멸하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이라 구일날 귀년머리를 쇠멸하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이라 상달에 무시루떡으로
 덜미를 질끈 집어서/ 원장천리를 쇠멸해서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에 동짓날 팔죽을 쭈어 잡수세고
 대문간에다 뿌려 놓으니/ 원귀객귀가 천리밖이 조용한다
 동짓달에 드는 액은/ 첫달이라 그믐날 안반 밑에다
 근심걱정을 잡아 놓고/ 내가 때리고 제 때려
 넙적귀신이 만들어 가지고
 첫달이라 드는 액은/ 정월이라 초사흘날
 이 고사반을 덜미/ 고사반을 오재를 바쳐
 천년만년 살드래도/ 근심업고 걱정 없고
 우환 없고 재난 없고/ 만수무강 재수바람에
 소원성취 하옵소서

* 1998.4.21, 이대복(74세, 남, 미장면 장암리)

0803-2 : 8 고사반

범윤년 시화년풍 국태민안/ 강남 산이 기봉하여
 봉학이 뚜렷하여/ 봉의 머리 터를 닦고

학의 등에 대궐 지어/ 대궐 앞에 육조로다
 육조 앞에 화각산은/ 등구자 마자 백호로다
 팔도강산 매련할제/ 경상도는 칠십이관 매련하고
 충청도로 오십삼관 매련후에/ 경기도로 올라와서
 설봉산은 주산이요/ 대덕산은 남산이라
 좌청룡 우백호는/ 자손 복을 둘러있고
 남주작 복현무는/ 재화질병 막았으니
 청산지 삼광이요/ 인간지 오복이라
 당상부모 슬하지손은/ 만세영화 하였으니
 제일명당 여기로구나/ 금차 모씨가중
 이 터전에서 부귀영화 하시고/ 자손창생하옵소서
 아하~ 에헤~ 흠이로다/ 그는 그러하려니와
 금차 모씨가중에/ 장년같은 행운년은
 몽종 같이 지내시고/ 신년새해 접어들어
 몸주대살 세다하이/ 모든 살도 풀러주자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려 야신살
 물로 가서 요왕살/ 거리 나서 홍수살
 고개 넘어 서낭살/ 터에 터전 돌아드니
 바깥마당 벼랑살/ 안마당에 보적살
 내당에는 성주살/ 부엌에는 주왕살
 부부지간 공방살/ 형제지간 우애살
 일가친척 화목살이며/ 이살 저살 원진살이며
 삼재팔난 관재구설은/ 예지월강 무인도에
 소지소멸 하옵시고/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은 열숙달/ 삼백육십오일을
 안과태평 신수대길 하옵소서/ 만복성취발원이로소이다

아하 ~ 에헤~ 흠이로다/ 그는 그러 하려니와

농촌에서 일년이래 살다보니/ 집 한번 아니 질까
 제일명당 골라 질제/ 곤륜산 낙맥으로
 백두산이 기봉하여/ 질부도장 흐른 정기
 와룡산천 머물다가/ 금강산 일만이천봉 기봉허이
 봉하나 떨어져서/ 남방세계 분장할제
 설악산 석탑서/ 좋은 영웅탑도 절도하여
 도봉망열산 관음보살이/ 삼각산이 기봉허니
 인왕은 주산이요/ 종남산은 남산이라
 왕십리 청룡이요/ 만리재가 백호로다
 한강은 조수가 되고/ 동작이 수구요
 한양성이 되었으니/ 태평성대 그 아닌가
 선의방초는 가지가지 꽃이 피고/ 금지옥엽 되었으니
 국태민안 기병이요/ 가급인종 좌편이라
 관악산이 응낙하여/ 조수강산 둘러낼 때
 치악산 여주강은/ 이십사지 중왕이라
 그산 내력 내려다가/ 제일명당 여기로다
 제일 명당터에/ 터전 잡어놓고
 순머섬 불러들여/ 술한잔 먹여놓으니
 도끼톱을 갈아지고/ 만첩칭산 들어갔다
 가다보니 간나무/ 오다보니 옷나무
 오리박계 신나무/ 엉거주춤 짚내나무
 통통부어 봉나무/ 애기 자장 자장나무
 입맛춘다 쪽나무/ 방귀편다 뽕나무
 만경청파 비수중에/ 동실떴다 배나무
 춘하추동 사철나무/ 발발편다 사시나무
 이 나무는 짓혀놓고/ 청송녹주 술을 비여
 이리저리 짓혀놓으니/ 서울편수 도편수요
 시골편수 부편수레/ 자진나무 굽게 깎고

구분나무 작게 깎어/ 자자머리 잘라내고
 이귀 꺾어 저리 집고/ 이귀 꺾어 이리 집고
 열두 대문 비겨 달고/ 네귀 풍경 달아놓으니
 땡그렁 땡그렁하는 소리에/ 만복이라 들어옴이다

아하~에헤~ 흠이로구나/ 그는 그러하려니와
 농촌에서 농막을 지어놓고/ 농사 한철 안이질가
 뒤뜰에다 논을 사고/ 앞뜰에다 밭을 사니
 남전북답 좋을세라/ 어떤 벼를 심었더냐
 여주 이천 진상벼/ 광주문안에 사발벼
 다 먹어서 다마금/ 못 먹어서 흘쭉이
 혼자 먹는 돼지찰/ 알록달록 까투리찰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어떤 두태를 심었더냐
 만리타국 강낭콩/ 팔팔튀는 벼룩팔
 시집가는 각시동부/ 녹두까지 꺾어드려서
 여기저기 심어놓고/ 그 농사를 거둘 적에
 선머슴 불러들여/ 술한잔 먹여노니
 갈강낫을 갈아들고/ 여기저기 늘어놓으니
 녁대같은 남아종놈/ 황발지게 저드리고
 앵무같은 녀애종년/ 동아리밧처 옆드려서
 앞도 노적 뒤도 노적/ 산노적 멩애노적
 열두노적 누렸으니

아하헤~에허~오흠이로다/ 그는 그러 하려니와
 금차가중 옥동자 귀연애기/ 인물적간시키려고 자나 굴그나
 녹두손님 신신부인 나올적에/ 왔던 배를 잡아탈가
 나무배는 썩어지고/ 돌배는 흠어지고
 쇠배는 만경청파/ 파도중에 물메이고

버들잎을 주루룩 훑어/ 일엽선을 모아놓으니
 어허 그 배 못쓰겠네/ 옥을 쪼와 배를 모니
 열녀 충신 앞을 서고/ 공맹자가 노를 지어
 예지월강 훑훑 건너/ 억만장안 팔만가구
 인물적간 장권하고/ 이대가중 접어들어
 옥동자 귀한애기/ 인물적간 하실적에
 어허 그 애기 잘생겼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 보배동아/ 나라님전 충신동아
 부모님전 효자동아/ 형제지간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하루이틀 보일무렵
 사흘나흘 드을무렵/ 닷새엿새 소슬무렵
 이레 여드레 거물무렵/ 아레 열흘 막아내어
 일취월장 자랄 때/ 한살 먹구 두살 먹구
 세살 네살 다섯 살에/ 그 아기 글자나 가르치라고
 천자유학 동문선습/ 통감초권 소학 맹자
 서전시전 주역까지/ 그렇저렁 십오세라
 이때는 어느 때이나/ 세화년풍 국태민안
 알성과를 보이실세/ 도련님도 과거기별
 어느 풍년 년지듯고/ 과행차를 차리는데
 신수좋다 고은 얼굴/ 분세수를 정이 하고
 산대같이 거문머리/ 태양을 잔뜩 발러
 반달같은 월낭무로/ 슬슬이 비겨내려
 공단땡기 끝만/ 맵시있게 잘근매고
 상하의복은/ 수수하게 잘차리고
 소상귀 술질하여/ 순금안장 지어 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나흘 곱집어 여드레 팔십리
 서울장안 당도하여/ 헌귀판을 바라보니
 어떤 글귀 걸었다냐/ 충성충 매울렐 단 두자 걸었구나

중추증명 뜻을 받아/ 일부영애하고 일필휘지 지어낼 때
 만호년적 물을 따라/ 시영매화 진제갈어
 청조못필 반만 풀어/ 명주필을 펴트리고
 일필휘지 지어다가/ 선장계 바쳤더니
 상시관이 한번 보고/ 허소 그글 잘 지었다
 글제도 해당하고/ 필법도 아름답다
 자자마다 비점ियो/ 귀귀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하고/ 삼일이 지난 후에
 승차 다시 불러 들여/ 경기감사 내렸으니
 일상봉은 춤을 추고/ 열녀봉에서 저를 분다
 본택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전 헌다하고
 고사당에 참배 하니/ 이런 경사 또 있느냐
 아들을 나오시거든/ 관직효자 낳으시고
 딸을 낳으시거든/ 열녀로만 두웁소서
 소원성취 발원이로소이다/ 아하헤~에헤~오홈이로구나

* 2000.9.29, 정혁수(83세, 남, 호법면 대곡리)

1006-2 : 1 고사반

이제 가뭇들어 신이 내려 명당 다닐적에
 어떤 한알이 생겼느냐 조상님을 발언하여
 조상님전에 터춧대감님과 성주님 마련하시고
 이 맥을 마련하실 적에 고사를 마련하니
 정월이라 드는 달엔/ 이월 한식으로 막아내고
 이월이라 드는 달엔/ 삼월 삼진날로 막아내고
 삼월이라 드는 달엔/ 사월 초파일로 막아내고
 사월이라 드는 달엔/ 오월 단오로 막아내고
 오월이라 드는 달엔/ 유월 유두로 막아내고

유월이라 드는 달엔/ 칠월 칠석으로 막아내고
칠월이라 드는 달엔/ 팔월이라 한가위에 송편가래로 막아내고
팔월이라 드는 달엔/ 구월 구일로 막아내고
구월이라 드는 달엔/ 시월 상달로 막아내고
상달을 맞이하였으니/ 시월 연세 보름달
시월이라 드는 달/ 동지 팔죽 쑤어다가
동지선달 그믐달은/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정월이라 대보름날

이 맥에 이 명당에
아들 나면 효자되고/ 딸을 나면 열녀되니
저 열녀 합숙하여/ 만복근원을 재주하여시다
그건 그렇고 하려니와/ 신년새해를 맞이하여
농사지어 천하지대본/ 농사 대복근원 마련하시고
볍씨 마련하여/ 여기저기 심을적에
볍씨 마련하여/ 한푼 심으면 삼배출
두푼 심으면 육배출/ 세줄 심으면 구배출에
여기저기에 풍년일세

그건 그렇고 하려니와/ 시월달이 되었으니
나가실땐 빈발이며/ 들어오실땐 찬발이
이리저리 싫어도/ 쌓고 안아도 쌓고
업어도 쌓고/ 좋아도 쌓고
이 명당 이 지지에/ 뒤조진다 뒤조져

그건 그렇고 하려니와/ 신년 새월을 맞이하여
이 명당 이 지지에/ 이 터전 마련할제
어느 터전 마련할까/ 경상도 안동땅에 수실 받아

소편 대편 던졌으니/ 밤이되면 찬이슬 맞고
 낮이되면 태양 맞아/ 하루이틀 점점 자라
 송이송이 되었구나/ 송이송이 점점자라
 대부송이 되었으니/ 소부송이 되었구나
 소산에 올라 소목 베어/ 이명당 이지지에
 이 터전 세울적에/ 어느 하날 생겼느냐
 갑자을축 해질 무렵/ 이명당 이지지에
 천하지대본 마련하시고

그건 그렇고 하려니와/ 이 집을 세워놓고
 어느 하날이 생겼느냐/ 집우자로 집을 짓고
 아들 나면 효자되고/ 딸을 나면 열녀되니
 그런 경사 또 어딴느냐/ 어떤 책을 디져놓아
 하늘천자 따지자에/ 따지자에 집을 지으면

(이하 숨이 차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중단됨)

* 2002.3.30, 김주선(73세, 남, 대월면 부필리)

1009-2 : 1 장승고사

장승님께 고사하나이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우통광난이 불안한 장승이요/ 호봉팔현 가급천명이라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405-1 : 1 우물고사

이 댁의 김씨가 대주가 들어 왔으니
 첫째는 우물에 가서 용왕님 할아버지께 빌어야겠다
 용왕님 할아버지 이 댁에 김씨가 대주인인 댁이죠

시시때때로 물을 주려 먹게시리 하지 말고
그저 담가 심신하고 목욕하고 잡숫고 허망하게시리 잘하십시오
* 1998.4.21. 이태복(74세, 남, 마장면 잠암리)

1009-2 : 2 우물고사

(사람은 물을 먹어야 하는 법, 자 우물굿을 하는데)

동방천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사해 용왕님이/ 칠년대한 가물에도
물이나 철철 나게 해주오
이 샘물을 먹으면/ 만인간이 수명장수 하나이다.

뚫어주오 뚫어주오/ 샘구멍 뚫어라
물주시오 물주시오/ 사해 물주시오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2 : 3 마당굿

(상쇠가 “주인 주인 이 집 주인 없나”하고 외치면, 머슴이 “예” 하고 대답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온다)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 들어가오
문 여시오 문 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가오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2 : 4 터주굿

질토지신 오방관신 선고한바/ 이택 규중자녀 한번 거나리고
안가태평 소원성취 비나이다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2 : 5 부엌굿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일년은 열두달/ 나날은 삼백육십여일
 큰술은 밥술이요/ 작은 술은 국술이요
 큰술에 불을 때면/ 밥이 그득 수북하고
 또 작은술에 불을 때면/ 국이 출렁 넘실대고
 이 가정에 거북이 높고가니/ 부귀공명하고 크게 한번
 태평성대가 비치실 것입니다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2 : 6 대청굿

고사 고사 고사로다/ 이세 태평 후세로다.
 만복을 접지할 때 국태민안/ 시화 연풍 범유자 돌아든다
 연년이도 돌아들때/ 이씨 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천 기봉되고/ 학을 놀러라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육조 앞에는 오형문 혜각사
 각도 각읍 마련할 때/ 왕십리 청룡되고 동구재 백호로다
 한강수는 조수가 되고/ 동적강수가 멀리 인왕산천
 나린 줄기는 북으로 고향이니/ 여천지는 무궁되고
 우리나라 금상님은/ 태평성대가 장안되고
 은하는 금요 차일에 사바 세계로다
 해동대한은 유명국/ 경기하고 삼십칠관
 강원도는 이십칠관/ 경상도는 칠십이관
 충청도는 오십삼관/ 양승같은 대목 안에
 이 대면내는 대면내요/ 이대동중 대동이요
 권명 아무개씨 택에/ 상남자 서방님이요
 중남자 도련님이요/ 하남은 여자 아기

어깨 너머 길동자/ 무릎 밑에 손동자
느냥머리 더벅머리/ 칭칭 자라날 때
작년 같은 험한 시절/ 꿈결같이 지내놓고
헌용신용 가리여 보자/ 모수적삼에 거상살이요
현인 장사에 주당살이요/ 원근도중 이별살이요
내외간에도 이별살/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들로 나리면 들룡살/ 물에 들면 용왕님살
집으로 들어가자/ 바깥 마당에 벼락살
안마당엔 비천살/ 마구간엔 우마대살
장독간엔 고두대살/ 부엌 한 칸 들어가자
부엌으로 들어서니/ 판만하고 대장군살
마루대청 올라서니/ 마루대청에는 성주님살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래윗방 지식님살
햇대 밑엔 능마대살/ 햇때 끝에 삼신살
이살저살 휘몰아다/ 금일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만사는 대길이요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이택 가중애 호구역살이 세다고 하니/ 호구역살을 풀고 가지
강남은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는 조한국이요
십이지국이 열두나라/ 저궁을 받으려고 드나드는
호구 별쌍의 손님마다/ 신신불이 나오실 때
산불을 뚝떨어지다만/ 삼신불이 나오실 때
앞뒤강도 열두강/ 이십사강을 년닐적에
무슨 배를 타고 갈까/ 나무배를 타고 가자
나무배는 모진 태풍을/ 못 이기기로 홀렁 쓰러지고
돌배를 집어타니/ 가로 덩빙 가라앉고
무쇠배를 타고 가니/ 지남철이라 들러붙고

흙두선을 집어타니/ 물이라 힘을 못 이겨
 흙이라 슬슬 다 풀리고/ 앓따 그 배는 못 타겠다
 배 하나를 지어보자/ 수양산 마립산
 앵무공작이 놀다간/ 버드나무 버들가지에
 버들잎을 세네잎 쭈루루 훑어서/ 엽엽선을 모아 보자
 거무패는 청산개/ 저무패는 황성개
 북을 치켜 달고/ 두리둥실 올리면서
 이십사강을 건넜으니/ 부산관에 숙조하고
 부산장안 잠시보고/ 부산을 뚝떠나서
 한양터에 들어서서/ 은지문에 말을 매고
 금지문에 진을 치니/ 입문휘선 잠시하고
 아래대길 옷대길/ 불탄 대길 구경하고
 한양을 뚝떠나서/ 왕십리 살고지오
 경안장을 썩지나서/ 아래쌍용 윗쌍용
 곤지암을 썩지나서/ 이천장 당도하니
 대월면 대대리 사백이십일번지
 최상쇠택의 손님마다 들어오신다
 하루 이틀 자리보고/ 사흘 나흘 보람보고
 천지대역의 백중력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일상생화 이중복덕/ 삼화절친은 사중육훈
 오생(五牲)생화 육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구망
 좋고 좋은 날을 가려/ 일광보살이 점지하여
 중애 한쌍 돈았구나/ 칠성님의 은덕으로
 하에 한쌍 돈았으니/ 손님마마도 곱게곱게 지나가서
 이런 경사가 어데있나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농사한철 짓고가자/ 높은 데는 밭을 풀고

낮은 데는 논을 풀어/ 농사 한철 짓고 가자
 벼농사를 지을 적에/ 어떤 벼를 심었느냐
 두렁 밑엔 들청벼요/ 썩쓸어라 검불벼요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적게 먹어라 홀쭉벼요
 혼자먹어라 돼지벼요/ 덜커덩 푸드덩
 채기찰 휘휘둘러라/ 상모찰 환진갑에
 노인벼 여기저기 심어놓고/ 보리농사를 지을 적에
 무슨 보리를 심었느냐/ 가을 보리 봄보리
 썩까아라 중보리/ 흘랑벗겨라 쌀보리
 이모저모 육모보리/ 들러붙은 매미보리
 여기저기 심어놓고/ 두태농사를 지어보자
 만리타국의 강남콩/ 불쌍하다 호래비콩
 방정맛은 주더니콩/ 알롱달롱 까투리콩
 도갈포수의 검은 콩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스승농사도 지어보자/ 옥조 늦조 참절미차조
 여수거리 신날거리/ 여기저기 심어놓고
 잠방입고 곰팡이 물고/ 깔당낫 싹갈아서
 지게에다 꽃아지고/ 서마지기 논배미가서
 이리로 걸어 저리로 베고/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베어
 논두렁나다 걸어놓으니/ 앵무같은 한남네는
 파뱅이 받을 여드릴 때/ 앗따, 이 일 못하겠다

소 한 마리를 부려보자/ 억억부리 저격부리
 별백이는 노고지리/ 쫓지없는 동경소요
 나가면 빈자리/ 들어오면 침바리요
 앞으로 부리면 앞노적/ 뒤로 부리면 뒷노적
 멍에 노적에 싸노적을/ 암불담불 쌓아노니
 난데 없는 봉덕새가 날아와서/ 상봉에 깃도 되고

중봉에 내려 앉아/ 울음을 울적에
 이 날개를 툭탁치면/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저 날개를 툭탁치면/ 이리로 만석이 쏟아진다
 말을 치면 용마가 되고/ 개를 치면 내눈백이
 닭을 치면 봉황이 된다/ 없는 아이 짐지하고
 있는 아이 수명장수/ 긴 명은 서려담고
 짧은 명은 이어담아/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육지/ 육석달인데
 이 가문에 묻은 정을/ 다 풀어 짐지하자
 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 또는 맹매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 석가여래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타는 그네줄로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일 밀전뱅이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 상봉일에
 오작교 다리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날
 햅쌀송편을 많이 빚어/ 이웃집에 나누어 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이라 궁구날에
 국화농주를 많이 빚어/ 이웃에 모셔다가
 사당차리를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이라 상달인데
 좋고 좋은 날 가리어/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이라 동짓날
 동지팔죽을 정히 쑤어/ 양손에 죽퍼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 저리 끼었으니
 오는 잡귀 가는 잡귀/ 뜨거운 팔죽을 뒤집어쓰고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동짓날에 드는 액은/ 선달에 그믐날 흰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 액은/ 내연정월 열나흘날
 오탁밥을 정히 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 한 장에 둘둘말아/ 막걸리 한 잔 끼얹은채로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가 대길이요/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동지에 하는 곳은/ 이 고사복 받으신다
 생각을 해도 측근자거니/ 받아주어서 오실 적에
 정월하고 상달인데/ 고사반으로 놀아보세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103-2 : 2 고사반

농사를 잘 지었으니/ 여러신네 제 말씀들 들어주소
 금년에도 대풍 들어/ 일부열집 천금하여 동부 흐홍 부천이요
 쌀한톨에 금연실이/ 진짜로다 진짜로다
 만고뱅이 피어나서/ 이 고사를 잡수시면
 한잔술에 눈물나고/ 두잔술에 눈물 흘러
 삼자삼년에 이후가서/ 내내년에 풍년 들길
 희료님께 비나이다/ 희료님전 이루시니
 부처님전 상사올리니/ 대풍년 계절오네
 이내말씀 들으시오/ 대풍년 들어
 우리가족 일편단심/ 편안하게 살게 해주오
 대동천년 일진일은/ 부명삼사 상인하여
 이내 부락 부귀 되어/ 백년천년 잘살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하일 대장군이여/ 부인의 지하장 여장군이여
 이내말씀 다시 하니/ 아무 병폐무방 근사무방
 천지대지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 2002.5.22, 장병근(75세, 남, 이천시 장록동)

1000-2 : 1 태평성대

천지우주 만물되고/ 지하조차 땅 생기니
 삼강오륜 으뜸이라/ 국태민안 시화연풍
 범윤자 날이든다/ 이씨 한양 등극시에
 봉황에 주천이 생겼구나/ 학을 놀러라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육조 앞에는 오영문 삼각산
 각도 각읍을 마련할제/ 왕십리는 청룡되고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반하는 금연연/ 사마는 세계로다
 남산이 주봉되고/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네라/ 이천같은 대목 안인데
 이 대면내는 대면내/ 이 대동중 대동중 근면중
 상남에 서방님/ 중남에 도련님
 하남에 여자아기/ 무릎 밑에 손동자
 어깨 넘어 길동자/ 무럭무럭 자라날 때
 기러기 한백년/ 천추만세 살아가고

* 1985, 「이천의 거북놀이」 수록 자료, 김문섭(대월면)

1000-2 : 2 홍수풀이

작년같은 험한 세월/ 꿈결같이 다 보내고
 금년 새해에 접어들어/ 홍수대살을 풀고 가자
 모랭이 모랭이 서낭살/ 돌무더기는 서낭살

고개 고개도 서낭살/ 바깥마당에 벼락살
 대문간에는 수문장살/ 안마당에는 해룡살
 원근 도중에 이별살/ 내외간에도 이별살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물에 들면 용왕살
 마굿간에는 우마다살/ 장독간에 고무대살
 부엌에는 대장간살/ 마루대청 싱주살
 아래윗방 지식살/ 햇대 밑에 능마대살
 햇대 끝에 삼신살/ 이살 저살 휘몰아다
 금일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만사는 대갈이요

* 1985, 「이천의 거북놀이」 수록 자료, 김문섭(대월면)

1000-2 : 3 농사풀이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높은데는 밭을 갈고
 낮은데는 논을 풀어/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벼농사를 지을적에/ 어떤 벼를 심었느냐
 두렁 밑엔 들청벼요/ 썩 쓸어라 검불벼요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적게 먹어라 흘쪽벼요
 혼자 먹어라 돼지벼요/ 덜키덩 푸드덩 쟁기찰
 휘휘 둘러라 상모찰/ 환갑 진갑에 노인벼
 여기 저기 심어놓고/ 요즈음 시체 나는벼
 은방도 그미도/ 칠성도 다마금을
 여기 저기 심어놓고/ 보리농사를 지을적에
 무슨 보리를 심었느냐/ 가을보리 봄보리
 쪽 깎아라 중보리/ 흘랑 벗어라 쌀보리
 이모 저모 육모보리/ 들러붙은 매미보리도
 여기 저기 심어놓고/ 두태농사를 지어보자
 만리타국의 강남콩/ 불쌍하다 홀아비콩

방정맞은 주더니콩/ 알록달록 까투리콩
 도갈포수의 검은콩을/ 여기 저기 심어놓고
 서숙농사도 지어보자/ 옥조 늦조 참절미 차조
 여수거리 쇠날거리도/ 여기 저기 심어놓고
 잠방이 입고 곱방이 물고/ 깔딱낫 싹 갈아서
 지제에다 꽃아지고/ 서마지기 논빼미 가서
 이리로 걸어 저리로 베고/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베고
 논두렁마다 걸어 놓으니/ 앵무같은 한님네는
 따방이 받을 여드릴 때/ 앓다 그 일 못하겠다
 소 한 마리를 부려보자/ 억억부리 저격부리
 벌백이는 노고지리/ 쫓지없는 동경소요
 나가면 빈바리/ 들어오면 참바리요
 앞으로 부리면 앞노적/ 뒤로 부리면 뒷노적
 명에 노적에 싸노적을/ 암불 담불 쌓아놓고
 난데없는 봉덕새 날아/ 상봉에 깃도 피고
 중봉에 내려 앉아/ 울음을 울음을 울적에
 이 날개를 툭탁치면/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저 날개를 툭탁치면/ 이리로 만석이 쏟아진다.
 말을 치면 용마가 되고/ 개를 치면 네눈백이
 닭을 치면 봉황이 된다/ 이런 저런 전답보고
 농사 한철을 짓고 가자

* 1985, 「이천의 거북놀이」 수록 자료, 이천도(대월면)

2. 장례 의식요

0102-1 : 5 상여노래

오호 오호이 어거리 녁차 에헤야

오호 오호이 어거리 녁차 에헤야 (후렴)

어거리 녁차 하지말고/ 상여 노래나 부릅시다/ (후렴)

오호 오호이 어거리 녁차 에헤야/ (후렴)

산이 높아 못 가시나/ 눈이 높아져 못 가나/ (후렴)

노자 동양이 떨어져서/ 저승길에 못 가시나/ (후렴)

이 집안 친척이 많다지만/ 이 내몸 떠나가니 모두 없다/ (후렴)

인제 가면 마지막인데/ 자손 많으면 무엇하나/ (후렴)

애들아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부은게 얼마냐/ (후렴)

논 한섬지 밭 한되기/ 한 오백평을 주었는데/ (후렴)

내가 가면 아주 가니/ 니가 오면 아주 오나/ (후렴)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내몸은 떠나간다/ (후렴)

목이 말라 못 가시나/ 시장해서 못 가시나/ (후렴)

우리 육남매 자손 대대로/ 내가 간다고 좋아하나/ (후렴)

동네 여러 친구 친척/ 이 내몸은 떠나가네/ (후렴)

안녕히 계시게나 잘 있어요/ 한 번 가면은 못 온다/ (후렴)

또락 또락 여러 날에/ 오호 오 오호이/ (후렴)

저승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다/ (후렴)

이 내 목숨 끊어지고/ 자손 불일 어이 없네/ (후렴)

그런 때는 삼상인데/ 이 내몸은 간곳이 없네/ (후렴)

어머님도 아버님도/ 부모 공양도 못드렸소/ (후렴)

다리에 따라 잘 가세요/ 이 내몸은 저승길이라/ (후렴)

여봐라 여봐라 육남매 들어 보거라/ 내가 가고 싶어 가느냐/ (후렴)

검은 머리에 파뿌리 되어도/ (후렴)
여보 영감님 잘계세요/ 이 내몸은 가노라네/ (후렴)
가지마오 가지마오/ 어머니 가지마오/ (후렴)
다음 번에 아버지하고/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냐/ (후렴)
* 1996.7.9, 박찬종(62세, 남, 백시면 내촌리)

0201-1 : 8 상여노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위마라
어허어 어하 에헤이 어허어
오호오 오호아 에헤이 여하 (후렴)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사/ 아차 한번 죽어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후렴)
어허어 어하 에헤이 어허어/ (후렴)
아침나절 성탄 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후렴)
실날같은 이내 몸이/ 태산같이 병이드니/ (후렴)
무너블러 곳을 한들/ 곳 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후렴)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 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후렴)
저승길이 머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다/ (후렴)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1-2 : 1 상여노래

어허어 어하 어이나 갈까 어허
어허어 어하 어이나 갈까 어허 (후렴)
이세상에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 몰라/ (후렴)

어제 오늘 성튼몸이/ 태산같은 병이드니/ (후렴)
 무당불러 곳을 하나/ 굿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판수불러 경 읽은들/ 경덕이나 입을소나/ (후렴)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이나 있을손가/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북망산이 멀다드니/ 뒷동산이 북망일세/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후렴)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후렴)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후렴)
 여보시오 손님네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후렴)
 이 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아버지전 뼈를 빌고/ 어머니전 살을 빌어/ (후렴)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석님전 복을 빌어/ (후렴)
 오호오 오호/ 오호오 오호
 오호오 오호/ 오호오 오호

* 1997.1.29. 최병환(66세, 남), 이근용(76세, 남, 울면 고당리)

0203-4 : 3 상여노래

오하 헤에이 오호오 호이야
 오하 헤에이 오호오 호이야 (후렴)
 불쌍하구 가련두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하다/ (후렴)
 어저께 밤에두 성튼 몸이/ 오날 아침에 병이 들어/ (후렴)
 천하일색의 양귀비도/ 죽어틀지머는 허사로다/ (후렴)
 세살 먹어서 성튼 몸이/ 오날 아침에 병이들어/ (후렴)
 이산 저산 양산봉에/ 도라지 꽃이나 만발하여/ (후렴)
 이제가면 언제 오나/ 어느 천년에 다시와/ (후렴)
 여보시오 군중님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어덜떨거리구 나는 간다/ (후렴)
 세살 먹어서 어머니 잃고/ 네다섯 먹어서 아버지 잃고/ (후렴)
 한밤 꿈에 기러기보고/ 새벽 아침엔 편지 왔네/ (후렴)

* 1997.2.17, 안달웅(60세, 남, 울면 본죽리)

0204-1 : 3 상여노래

오호 호오아 어이나 갈까 호오
 오호 호오아 어이나 갈까 호오 (후렴)
 유념할적에 백발이요 무념할적에 죽음이라/ (후렴)
 인간 백년 휘라해도 하루종일 고뇌로다/ (후렴)
 칠십 다 털어도 근심걱정 제하면은/ (후렴)
 단사십을 못살려니 놀아놀아 젊어놀아/ (후렴)
 아침에는 성탄 몸이 저녁 나절 병이 드니/ (후렴)
 부르논이 어머니요 찾는이 형수로다/ (후렴)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어디 쓸데 있나/ (후렴)
 돌아보니 약탕관은 위에 있고/ (후렴)
 일가 친척 모여앉아 하릴없이 가이없네/ (후렴)
 염라 대왕의 명령 받아/ (후렴)
 일직사자 월직사자/ (후렴)
 담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선/ (후렴)
 심을 삼다 불르니 혼비 백산 나죽겠네/ (후렴)
 일직사자 월직사자 철퇴를 둘러매고/ (후렴)
 어여가자 바빠가자 시간없구 때가 없다/ (후렴)
 저승길이 어디려니 대문밖이 저승이요/ (후렴)
 북망산천 물어보니 앞산이 북망일세/ (후렴)
 북망산천 도라가서 산천으로나 울울 삼고/ (후렴)
 뒤견으로 이불을 삼고 홀로나 누웠으니/ (후렴)

살은 썩어 진토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니/ (후렴)
 가련한거는 인생이요 불쌍한거는 혼이로다/ (후렴)
 염려대왕을 들어가니 재판관은 문서잡고/ (후렴)
 열두대왕 물을적에 악한 사람은 지옥가고/ (후렴)
 착한 사람 저승가고 승태길이 되지라/ (후렴)

* 1997.2.18, 송경수(77세, 남, 울면 북두리) 외 2인

0204-1 : 5 상여노래

어허 - 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어허 - 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잘나 자로 남문밖에/ 월매딸 춘향이 불쌍하다/ (후렴)
 하늘 막고 하는 말이/ 일편 단심 춘향이가/ (후렴)
 일장 지심 먹은 마음/ 죽으면 죽어도 못잊겠네/ (후렴)
 돌을 막고 하는 말이/ 이부불경 이내 몸이/ (후렴)
 이군불사 본을 받아/ 이군불사 본을 받아/ (후렴)
 이부지장 이어든/ 일구이언 못하겠네/ (후렴)
 어허 - 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어허 - 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빠르게 걸을 때)

오호호~ 오홍~/ 오호호~ 오홍~/ 에헤이 오홍~
 오호호~ 오홍~/ 에헤이 오홍/ 오호호~ 오홍~

(뛰면서)

오홍 - 오홍 - / 오홍 - 오홍 - / 에헤이 - 오홍 -
 오홍 - 오홍 - / 에헤이 - 오홍 - / 오홍 - 오홍 -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2 : 1 상여노래

우호오 우하 어이나 갈까 누흐/ 예헤 예헤야 어이나 갈까 누흐 (후렴)

나는 가요 나는 가요/ (후렴)

고향땅을 버리고 나는 가요/ (후렴)

언제고 내년 이맘때 만나보소/ (후렴)

아니 노지는 못하리요/ (후렴)

나는 가요 나는 가요/ (후렴)

고향 성 떠나갈 때/ (후렴)

인사 한마디 할새 없네/ (후렴)

* 1997.2.18, 윤석건(66세, 남, 울면 산양리)

0208-6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하 어이나 갈까 오호

오호 오호 오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영영 다시 못오는데/ (후렴)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 제하면/ (후렴)

단사십도 못사는 인생/ (후렴)

어제 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로다/ (후렴)

(이하 회심곡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생략함)

(상여가 빨리 갈때의 소리)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30, 조남성(58세, 남, 울면 오성리)

0210-1 : 4 상여노래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하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하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는 날짜 기약하소/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북망이라/ (후렴)

여러 대가족 많다더니 이제와서 소용없네/ (후렴)

원통하고 통분하다 백년해로 하자더니/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북망으로 가는 새야 너는 슬피 왜 우는가/ (후렴)

짜을 찾아 가려는가 너도 슬피 왜 우느냐/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여보시오 군정님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오 호오 오하 이해야아 오 하/ (후렴)

적과혈의 공복으로 아버지전 뼈를 빌고/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어 집장만해 탄생했네/ (후렴)

한두살에 걸음배워 무정세월 얼었더라/ (후렴)

십오세를 당도하여 부모 은공 갚으랄제/ (후렴)

무정세월 여유하야 원수백발이 웬말이나/ (후렴)

여보시오 이팔청춘 이 내 한말 들어보소/ (후렴)

나도 어제 청춘인데 오늘날에 백발일세/ (후렴)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210-1 : 4 상여노래

(산 오를 때)

오호하 오우 호 오호하 오우 호 어이나 가자
 오오 오오하 에해야 오호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여기가 북망일세/ (후렴)
 여기 한번 묻혀지면 다시 창일 못할지라/ (후렴)
 방정 오르다 방한을 삼고 온곤으로 집을 삼아/ (후렴)
 여기 이날 누웠으니 어느 누가 찾을소냐/ (후렴)
 우리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그만일세/ (후렴)
 삼천이라 육백마귀가 혼비백산 흩어지네/ (후렴)
 살은 썩어서 물이되고 뼈는 다썩어서 흙이 되네/ (후렴)
 원통하고 통분한걸 어디에다 하소하라/ (후렴)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302-2 : 1 상여노래

(평지에서)

오호아 여하 어이나 갈까 여하
 오호아 여하 어이나 갈까 여하 (후렴)
 천지지만 만물지중에/ 사람밖에 또있느냐
 이세상에 나온사람/ 다행으로 나왔느냐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받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세상에 태어나니
 곱게기른 우리부모/ 부모은공 못다갠고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갚을소냐
 이삼십을 당도하니/ 어이없고 기막히다
 인간칠십 고래회요/ 팔십장년 구십춘광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이나 입을소나
 무너블러 굶을한들/ 굶덕이나 입을소나
 판수블러 경읽은들/ 경덕이나 있을소나
 재미쌀을 쏘고쓸어/ 명산대천을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소지삼장 올릴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칠성님전에 발원하고/ 제석님전에 공날한들
 어느 부처 이름 있어/ 감홍이나 할까보나

제1에는 진광대왕/ 제2에는 초관대왕
 제3에는 도시대왕/ 제4에는 오관대왕
 제5에는 육관대왕/ 제6에는 염라대왕
 제7에는 번성대왕/ 제8에는 금릉대왕
 제9에는 보광대왕/ 제10에는 영릉대왕

열시왕위는 불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실낱같은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들어
 약탕관을 벌려놓고/ 부모처자 둘러앉아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명을 살릴손가
 동기일신 많다한들/ 어느 동기가 동행하며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 일가가 대신가며
 친구벗님 많다한들/ 어느 친구가 대신가리
 적삼개여 손에들고/ 대문밖을 나서며
 성명삼자 불러내니/ 없든곡성이 낭자하다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위마라
 명년봄 춘삼월에/ 너는또다시 피었건만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렵구나
 황천길이 멀다더니/ 건너산이 황천이요
 저승길이 멀다보니/ 대문밖에 저승일세
 활동같은 굵은길을/ 활대같이 달려와서
 일시왕의 명을 받고/ 결박하여 끌어내며
 한손에는 철봉들고/ 또한손에 쇠사슬들고
 쇠몽치로 등을치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어서가자 바빠가자/ 시간늦고 때늦었다
 뉘명이라 거역하며/ 뉘분부라 어길소냐
 여보시오 사자님에/ 이내말씀 들어보소
 배고픈데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 애결한들/ 어느사자 들을소냐
 들은체도 아니하고/ 쇠몽치로 등을 치네
 악에악식 모은재산/ 노자한푼 못써보고
 저승원문 다달으니/ 두렵기가 측량없네
 두렵기로 하려니와/ 무섭기가 측량없네
 우두나찰 마두나찰/ 인정달라 하는구나
 인정줄돈 반푼없어/ 의복벗어 인정쓰고
 이렇저렇 여러날만에/ 염두대문 드리거나
 최판관이 문서잡고/ 옥사장이 나열하며
 모든죄인 잡아들여/ 문초하고 봉초하네
 여보시오 동포님네/ 이네말씀 들어보소
 회심곡을 허수말고/ 살애생전 좋은일하여
 연화대로 가옵시고/ 극락세계로 가십시다

(빨리갈 때)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 1997.11.14, 오성철(56세, 남, 서울면 정능리)

0303-1 : 1 상여노래

어어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어~/ 어어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어~
 어어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어~ (후렴)
 만당같은 내 집 두고/ 친구 곁을 홀로 두고 가네/ (후렴)
 문전옥답 다 버리고/ 십이궁천 어케버려~/ (후렴)
 어어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어~/ (후렴)
 만첩청산 들어가니/ 구척광산 깊이 들어파고/ (후렴)
 이어로 요를 삼고/ 개청으로 이불삼아/ (후렴)
 삼은 석은 물이 되고/ 별은 썩어 진토되니/ (후렴)
 삼은 칠베 흩어지니/ 어느 친구 날 찾으랴/ (후렴)
 서산의 지는 해는 지고싶어 지나/ (후렴)

(빨리 갈 때)

에헤에헤에헤 어이나 갈까 에헤이~
 에헤에헤에헤 어이나 갈까 에헤이~ (후렴)
 에헤에헤에헤 어이나 갈까 에헤이~
 에헤에헤에헤 어이나 갈까 에헤이~ (후렴)

* 1997.4.11, 김병철(47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3-1 : 5 상여노래

(평지에서)

에헤~러 허루~후~ 어이나 갈까 어하~
 에헤~러 허루~후~ 어이나 갈까 어하~ (후렴)
 만당같은 집을 두고 형제 벗을 떠나 노라/ (후렴)
 간다 가~ 나는 가~ 친구 벗을 두고 간다/ (후렴)
 오늘 몸이 성던 몸이 내가 온 병 왜 들었나/ (후렴)
 친구 벗이 좋다 한들 대문 저승엔 벗이 없네/ (후렴)
 가는 길을 누가 막아~ 벗님네 두고 가네/ (후렴)

어제 저녁에 명계덕이 활개를 친 듯 소용있나/ (후렴)
 가던 길도 친구 찾아~ 내 못가고 혼자가네/ (후렴)
 여보시오~ 벗님네들 아 말씀 좀 들어보소~/ (후렴)
 친구 벗이 많다 한들 가던 길에 동행 없네/ (후렴)
 에헤~러 허루~후~ 어이나 갈까 어하~

(빨리 갈 때)

에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헤헤/ 어이나 갈까 어호호~
 에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헤헤/ 어이나 갈까 어호호~
 에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헤헤/ 어이나 갈까 어호호~
 에헤헤 가자가자 가자가자/ 우리 빨리 가자
 어호호호호호 어허허허허허~

* 1997.4.11, 김병철(47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5-1 : 3 상여노래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갈까 오호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오셨나/ (후렴)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후렴)
 칠성님전 명을받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후렴)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세상에 태어나니/ (후렴)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갚을소냐/ (후렴)
 이삼십을 당도하니/ 어이없고 기막히다/ (후렴)
 인간칠십 고래희요/ 팔십장년 구십춘광/ (후렴)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후렴)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이나 입을소냐/ (후렴)
 무녀불러 굿을한들/ 굿덕이나 입을소냐/ (후렴)

판수불러 경읽은들/ 경덕이나 있을소나/ (후렴)
재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천을 찾아가서/ (후렴)
상탕에 매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후렴)
하탕에 수족씻고/ 소지삼장 올릴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후렴)
칠성님전에 발원하고/ 제석님전에 공날한들/ (후렴)
어느부처 이름있어/ 감홍이나 할까보나/ (후렴)
실낫같은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들어/ (후렴)
약탕관을 벌려놓고/ 부모처자 둘러앉아/ (후렴)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명을 살릴손가/ (후렴)
동기일신 많다한들/ 어느동기가 동행하며/ (후렴)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가 대신가며/ (후렴)
친구벗님 많다한들/ 어느친구가 대신가리/ (후렴)
적삼개여 손에들고/ 대문밖을 나서며/ (후렴)
성명삼자 불러내니/ 없든곡성이 낭자하다/ (후렴)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후렴)
명년봄 춘삼월에/ 너는 또다시 피었건만/ (후렴)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렵구나/ (후렴)
황천길이 멀다더니/ 건너산이 황천이요/ (후렴)
저승길이 멀다보니/ 대문밖에 저승일세/ (후렴)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5-1 : 4 상여노래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후렴)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후렴)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후렴)

여보소 소년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춘추는 연연록/ 왕손은 귀불권데/ (후렴)
 인생 한번 돌아가면/ 어느 때에 다시오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위 말게/ (후렴)
 명년 삼월 돌아오면/ 어느 때에 다시오나/ (후렴)
 상전이 벽해되면/ 그 때 한 번 오시려나/ (후렴)
 고목이 봄춘되면/ 그 때 한 번 오시려나/ (후렴)
 오실 길이 전혀 없네/ 하늘이 높다 해도/ (후렴)
 산삼 녹용 이시로공/ 짐우가 넓다 해도/ (후렴)
 사신 행차 있건마는/ 황천길은 얼마 멀어/ (후렴)
 한번 가면 왜 못 오는가/ 여보소 소년님네/ (후렴)
 일년은 삼백 육십일이요/ 과년은 열석달이요/ (후렴)
 하루도 헛 놀지 않고/ 담배 줄여 모은 세간/ (후렴)
 싸고 가나 먹고 가나/ 옷 벗어 인정쓰며/ (후렴)
 여보소 소년님네/ 이내 말좀 들어보세/ (후렴)
 우리 인생 탄생할 제/ 아범님 전 뼈를 빌고/ (후렴)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열 달을 익혀 키워/ (후렴)
 인생을 탄생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 (후렴)
 부모 은공 갚을손가/ 그 자손을 가를 적에/ (후렴)
 마른 자리 골라 뒤고/ 젖은 자리 부모 누어/ (후렴)
 쥐면 날까 불면 꺼질까/ 공들이고 힘들여서/ (후렴)
 그 자손을 길러 낼 제/ 일곱살 넘짓 먹여/ (후렴)
 아직 글을 가르칠 때/ 천자 유학 동문서식/ (후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다 가리켜/ (후렴)
 삼강이 최고리요/ 오류이 으뜸이라/ (후렴)
 인의예지 다 가리켜/ 부모 은공 알소나/ (후렴)
 부모 은공을 갚자하면/ 바른 어깨에 아버질 엮고/ (후렴)
 왼 어깨에 어머님 엮고/ 수미산 팔천봉을/ (후렴)

212 이천의 옛노래

일만 팔천봉을 다 돌아도/ 부모 은공 못 다 갚네/ (후렴)
이삼십을 당도해도/ 원통하고 아까와라/ (후렴)
그렇저런 인간칠십/ 인간 칠십을 당도하니/ (후렴)
인간 칠십 고래흰데/ 없던 망령 절로 나네/ (후렴)
망령이라 흉보느냐/ 분하고 절통하네/ (후렴)
여보소 소년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우리도 어제는 소년이더니/ 오늘은 백발일세/ (후렴)
오는 백발 가는 청춘/ 뉘라서 막아낼까/ (후렴)
서산에 지는 해를/ 뉘라서 금지하며/ (후렴)
황해 유수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 어려워라/ (후렴)
한 손에는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갈퀴 들고/ (후렴)
오는 백발 짝어내어/ 가는 청춘 굶어다린들/ (후렴)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흥안 백발 할 수 없네/ (후렴)
인간 백살을 다 살아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후렴)
한 사십을 못 살 인생/ (후렴)
어제 그저께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은 것은 냉수로다/ (후렴)
무녀 불러 굿을 한데/ 굿떡조차 전혀 없네/ (후렴)
판수 불러 설경한데/ 경덕조차 전혀 없네/ (후렴)
질미 쌀 찢고 찢어/ 명산 대천 찾아가서/ (후렴)
상탕에 목욕하고/ 중탕에 매를 지어/ (후렴)
하탕에 목욕하고/ 자친 밥을 바쳐 놓고/ (후렴)
부처님께 안위한들/ 어느 부처가 돌볼손가/ (후렴)

제1전에 초간대왕/ (후렴)
제2전에 진간대왕/ (후렴)
제3전에 송재대왕/ (후렴)
제4전에 오관대왕/ (후렴)

제5전에 염라대왕/ (후렴)

염라대왕이 거기로세/ (후렴)

여복소 소년님네/ 이내말씀 들어 보세/ (후렴)

말 잘하던 소진장이/ 열국 제왕 다 달래도/ (후렴)

염라 대왕을 못 달래어/ 춘풍 새우 두견성에/ (후렴)

슬픈 혼백이 되어 있고/ 팔백 장수 팽조수도/ (후렴)

염라 대왕을 못이기고/ 삼천갑자 동방석도/ (후렴)

염라 대왕을 못 이기고/ 술 잘 먹던 이 태백도/ (후렴)

염라 대왕 전혀 못 이기네/ 들어 보소 소년님네/ (후렴)

이내 말씀 들어 버게/ 염라대왕 매인 사자/ (후렴)

좌도 나찰 한 끈이요/ 우도 나찰 한 끈이요/ (후렴)

태양 사자 한 끈이요/ 염라 대와 거동 보게/ (후렴)

십삼대왕 좌지하고/ 최판관 문서잡고/ (후렴)

암사자를 넘젓 불러/ 명령 복종 내릴 적에/ (후렴)

저 사자 거동보게/ 한 손에 뭉치 들고/ (후렴)

또 한 손에 구리사슬 비껴 차고/ 활대같이 굽은 길로/ (후렴)

철봉들고 살대같이 내달아서/ 성명 삼자 불러내니/ (후렴)

팔뚝같은 쇠사슬로/ 실날같이 병든 몸을/ (후렴)

휘휘 칭칭 감아내어/ 풍우같이 부치면서/ (후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뉘 명이라 못가겠나/ (후렴)

여보시오 소년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게/ (후렴)

정심 차려 살펴 보니/ 약탕관을 옆에 놓고/ (후렴)

지성으로 권한들/ 죽은 목숨 살을손가/ (후렴)

쓸데 없다 쓸데 없다/ 인삼 녹용 쓸데 없네/ (후렴)

여복시오 사장님네/ 이내 말씀들어 보게/ (후렴)

시장한테 요기하고/ 신발이나 고쳐 신고/ (후렴)

쉬어서나 가옵시다/ 저 사자 듣지를 앓고/ (후렴)

일식 사자는 앞을 끌고/ 월식 사자는 등을 밀며/ (후렴)

어서 가자 어서 가/ 바빠 가세 어서 가세/ (후렴)

일가 친척 많다 한들/ 어느 친척 대신 가뇨/ (후렴)

친구간이 많다고 한들/ 어느 동무 대신 가뇨/ (후렴)

하늘이 높다 해도/ 삼사오경에 이시라고/ (후렴)

지구가 넓다 해도/ 사신 행차 있건마는/ (후렴)

황천길은 얼마 멀어/ 한번 가면 왜 못 오는가/ (후렴)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김준희(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5-3 : 4 상여노래

오호오 호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

오호오 호호하 못가졌네 오호

오호오 호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고/ 아버님전 병을 빌어/ (후렴)

칠성님전 명을 빌고/ 지식님전 복을 받아/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 이내일신 태어나서/ (후렴)

한두 살에 철을 몰라/ (후렴)

부모 은공을 알쫌나/ 이 삼십이 당하여도/ (후렴)

어이여고 애 닳구나/ (후렴)

부모은공을 다 못 갚아서/ (후렴)

무정 세월이 여류하여/ (후렴)

원수 백발이 되었구나/ (후렴)

원통하고 분통하다 할것 없다/ (후렴)

흉안 백발 다늬어 간다/ (후렴)

우리 인생이 늙어지면/ (후렴)

다시 젊지는 못할 인생/ (후렴)
어제 오날 성튼 몸이/ (후렴)
저녁나절로 병이 들어/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나니 냉수로다/ (후렴)
인삼 녹용에 약을 쓰니/ 약효힘이나 있을쏘냐/ (후렴)
무녀들이 굿을 하니/ 굿덕인들 있을쏘냐/ (후렴)
판수 불러 설경을 하니/ 경덕인들 입을쏘냐/ (후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전에 비나이다/ (후렴)
칠성님 전에 발원하고/ 지성님 전에 봉양하고/ (후렴)
이내 부처가 감동을 하여/ 요행이나 막을쏘냐/ (후렴)

제1전에는 진광대왕/ (후렴)
제2전에는 초간대왕/ (후렴)
제3전에는 공지대왕/ (후렴)
제4전에는 우간대왕/ (후렴)
제5전에는 염라대왕/ (후렴)
제6전에는 변승대왕/ (후렴)
제7전에는 채선대왕/ (후렴)
제8전에는 평등대왕/ (후렴)
제9전에는 도시대왕/ (후렴)
제10전에는 보덕대왕/ (후렴)

열 대왕 전에 불린 사자/ 한 손에 철봉 들고/ (후렴)
또 한 손에는 창검 들고/ 쇠사슬로다 비껴 차고/ (후렴)
활등같이 굽음 길을/ 살대같이 달려와서/ (후렴)
닫은 문을 박차면서/ 철통같이 소래하며/ (후렴)
성명 삼자를 불러내어/ 어서 나오 바빠 나오/ (후렴)

귀 분부라 어길쏘나/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하/ 오호 오호/ 오홍 오홍/ 오홍 오홍

* 1997.11.22, 방인석(66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6-1 : 5 상여노래

(발인할 때)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미타불

(이때 상여꾼들은 발을 맞춤)

(평지에서)

오 - 하 오호아 어이나갈까 오호아

오 - 하 오호아 어이나갈까 오호아(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후렴)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생/ 잘못 한번 죽어지면/ (후렴)

다시 오지 못하리라/ (후렴)

아침나절 성터 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후렴)

실날같은 이내 몸이/ 태산같이 병이드니/ (후렴)

무너블러 곳을 한들/ 곳 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후렴)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 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후렴)

저승길이 머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다/ (후렴)

(이하 회심곡 사설이 계속됨)

(빨리 갈 때)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오호 오 - 하 오호 오하

(선소리꾼의 사설이 없이 모두 이 소리만 반복함)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정천리)

0306-2 : 3 상여노래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아미타불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갈까 누하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갈까 누하 (후렴)
명사십리 해동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후렴)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후렴)
이세상을 하직하고/ 북망산에 가리로다/ (후렴)
어이 갈꼬 심산 없는/ 정처 없는 길이로다/ (후렴)
애고 답답 설운지고/ 이를 어이 하잔 말과/ (후렴)
옛 사람들 말들으면/ 저승길이 머다더니/ (후렴)
오늘 내게 당하였네/ 북망산이 머다더니/ 건너 산이 북망일세/ (후렴)

(빨리 갈 때)

오호오 오하 오호 오하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정천리)

0307-1 : 4 **상여노래**

오호오 호오호 어이나 같까 오호
오호오 호오호 어이나 같까 오호 (후렴)
 닭아 닭아 우지마라/ (후렴)
 니가 올면 날이새고/ (후렴)
 날이 새면 나 죽는다/ (후렴)
 요내 몸 죽기는 설잖으나/ (후렴)
 앞 못보시는 우리 부친/ (후렴)
 누구를 믿고서 산단말야/ (후렴)
 저승 황천길이 멀다더니/ (후렴)
 대문박이 곧바로 저승일세/ (후렴)
 저승사자 첩퇴들고 들어와서/ (후렴)
 내리치며 하는 말이/ (후렴)
 시간 없다 재촉하며/ (후렴)
 빨리빨리 가자 험박하니/ (후렴)
 병들고 힘이 없는 내몸이/ (후렴)
 어이 아니 갈 수 있나/ (후렴)
 내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후렴)
 우리 부모 놓고 어이 가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이 진다고 설위마라/ (후렴)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못오네/ (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 싶어서 지고/ (후렴)
 우리 사람들은 죽고싶어 죽는가/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1.29, 유병현(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09-1 : 4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호야 오호허

오호 오호 오호야 오호허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후렴)

우리 인생도 한번가면/ 저 모양이 되나니/ (후렴)

살았을적 부모 봉양 처자 생육/ (후렴)

다 못이루고 눈감으니/ (후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탓을 돌리려나/ (후렴)

이내품을 만드실 때/ (후렴)

누구의 공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부처님전 불공을 드러/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어/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

갖은 공덕으로 태어나신/ (후렴)

일가친척 부러움속에/ (후렴)

부귀영화 다누렸지만/ (후렴)

애고 한번 가니 누가 알아나주나/ (후렴)

복망산천이 머다하나/ (후렴)

대문밖이 저승인 것을/ (후렴)

살았을적 내 몰랐지만/ (후렴)

죽고나니 영글렀구나/ (후렴)

저승사자 문밖에 기대서서/ (후렴)

한손에 첩퇴들고/ (후렴)

또 한손에 오라줄 들고/ (후렴)

협박하며 놀래키며/ (후렴)

어가자 재촉하누나/ (후렴)

가기싫다 아니갈까/ (후렴)

일가친척 많다면들/ (후렴)

친척일가 대신 갈까/ (후렴)

가세 가세 바빠가세/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후렴)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2.15. 최관영(80세, 남), 권태균(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10-1 : 4 상여노래

오호 오하 어이나 갈까 오하

오호 오하 어이나 갈까 오하 (후렴)

우리 일신 생겨날 때/ (후렴)

누 공덕으로 생겼는가/ (후렴)

부처님전에 불공으로/ (후렴)

칠성님전에 명을 빌어/ (후렴)

부모님전 뼈를 빌고 살을 빌어/ (후렴)

이 내 일신 나왔건만/ (후렴)

아침나절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천하 명약을 써도 소용없고/ (후렴)

무당 불러 굿을 한들 소용없네/ (후렴)

가련하다 이 내 일신 가련하다/ (후렴)

초로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후렴)

일가친척 동기간에 아웅다웅/ (후렴)

친한 벗들 시기질투 일삼았네/ (후렴)

후회한들 무엇하며 뉘우친들 뭇하리/ (후렴)

살았을적 부모님께 효도하고/ (후렴)

일가친척에게 우애 있고/ (후렴)

그래 살아도 아까운 인생인데/ (후렴)

오호 오하 어이나 같까 오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지는 꽃이야 명년 봄에 다시 피겠지만/ (후렴)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못오나니/ (후렴)
 가세 가세 북망산천으로 찾아를 가세/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 1997.12.15. 김재선(62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6 상여노래

어하 어이나 같까 어하/ 어하 어이나 같까 어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후렴)
 꽃이야 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피겠지만/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그만일세/ (후렴)
 가세 가세 북망산천/ 찾아를 가세/ (후렴)
 북망산천이 어디메나/ 동구밖에 동산이지/ (후렴)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네/ (후렴)
 갑갑하고 답답하다/ 가엾고 애닦도다/ (후렴)
 머나먼 길 어찌해서/ 혼자서 가야하나/ (후렴)
 일가친척 많다해도/ 누가 대신 갈것인가/ (후렴)
 친한 벗들 많다지만/ 누가 동행하겠는가/ (후렴)
 어서 가세 어서 가세/ 북망산천 찾아가세/ (후렴)
 어하 어이나 같까 어하/ (후렴)

(빨리갈 때)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후렴)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후렴)

* 1997.12.15. 권영신(66세, 남), 한승우(7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4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아
 오호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아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공적으로 생겼는가/ (후렴)
 부처님전 은덕으로/ 칠성님전 복을 빌어/ (후렴)
 아버지전 뼈를 빌고/ 어머니전 살을 빌어/ (후렴)
 석가여래 지도하여/ 인생일십이 탄생하니/ (후렴)
 한두살엔 철을 몰라/ 부모 속을 썩이고/ (후렴)
 나이 먹고 철들어서/ 부모은공 갚자하니/ (후렴)
 우리 부모님들 이미 벌써/ 백골이 되셨겠고/ (후렴)
 어제 오늘 성튼 몸이/ 태산같이 병이 드니/ (후렴)
 무당 불러 굿을한들/ 굿덕인들 있을소냐/ (후렴)
 판수불러 경 읽은들/ 경덕이나 입을소냐/ (후렴)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덕이나 있을소냐/ (후렴)
 초로같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고만이네/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법/ (후렴)
 우리 인생도 낙화처럼 일장춘몽인데/ (후렴)
 저슬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북망산이 멀다드니/ 뒷동산이 북망일세/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명년 춘삼월이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후렴)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5 상여노래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공적으로 생겼는가/ (후렴)
 부처님전 은덕으로/ 칠성님전 복을 빌어/ (후렴)
 아버지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
 산이 높아 못가시나/ 눈이 많아 못가시나/ (후렴)
 노자 동냥이 떨어져/ 저승길에 못가시나/ (후렴)
 일가친척 많지만 내 한 몸 떠나가니 모두 없다/ (후렴)
 이제 가면 마지막인데/ 자손 많으면 무엇하나/ (후렴)
 이제가면 고만인데/ 재산 많아 무엇하나/ (후렴)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내 몸만 떠나간다/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312-1 : 4 상여노래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갈까 오호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공적으로 생겼는가/ (후렴)
 부처님전 은덕으로/ 칠성님전 복을 빌어/ (후렴)
 아버지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
 이내 일신 탄생하니/ 부모은공 어이하나/ (후렴)
 창찰 빼어 신을 삼고/ 머리 뽑아 신을 삼아/ (후렴)
 어깨에 짊어지고/ 수미산을 오른다해도/ (후렴)

하늘같고 바다같은/ 부모은공 어이 깊으리/ (후렴)
 아침나절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로다/ (후렴)
 무당 불러 굿한들/ 굿덕이나 있을소나/ (후렴)
 판수 불러 경 읽은들/ 경덕이 있을소나/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일가친척 다버리고/ 북망산천 떠나가네/ (후렴)
 산이 높아 못가시나/ 눈이 많아 못가시나/ (후렴)
 노자 동냥이 떨어져/ 저승길에 못가시나/ (후렴)
 이제 가면 고만인데/ 자손 많으면 무엇하나/ (후렴)
 이제가면 고만인데/ 재산 많아 무엇하나/ (후렴)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내 몸만 떠나간다/ (후렴)
 이 내몸 떠나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후렴)
 우리 부모처자/ 누가 모시고 기를까/ (후렴)
 가련하구 슬프도다/ 갑갑하고 답답하다/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7.12.16, 안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외 3인

0401-3 : 1 상여노래

오오호오 오호이 오호이야 오호이

이제가면 언제오나/ 언제가면 언제오나

오호 오호야 오호이 영차 오호 (후렴1)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희들을 두고서 나는 간다/ (후렴1)

불쌍한 너희들을 두고서 가니/ 이네 가슴이 좋을 소나/ (후렴1)

간다 이제는 돌아간다/ 다시 못올길을 찾아간다/ (후렴1)

한많은 인생살이 떠나가네/ 아주 다시 못올길을/ (후렴1)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화/ 오호야 오화 오호야 (후렴2)

오화 오호야 오화 오호야/ (후렴2)

인제가면 오호야 언제오나 오호야

아주가면 다시 못을길을 오호야/ (후렴2)

오화야 오호야 인생오십 오호야 떠날적에는 오호

오호 오호야 너희들이 오호야 나를 오호

따라주면은 오호 좋을 것을/ (후렴2)

오호야 오호여 아 여러분들 오호야

나 때문에 오호야 고생이 오호야 많구려/ (후렴2)

* 1998.3.27, 정의남(58세, 남), 박문기(66세, 남, 미장면 오천리)

0406-1 : 12 상여노래

오허 허아 오거리 닝차 오호야

오허 허아 오거리 닝차 오호야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있지고 꽃진다 설워마라/ (후렴)

인생 한번 가며는/ (후렴)

씩이 나나 움이 나나/ (후렴)

동기 일신이 많다해도/ (후렴)

나는 누가 대신가나/ (후렴)

일가친척 많다해도/ (후렴)

그 어느누가 동행하나/ (후렴)

벗이 많다 핸들/ (후렴)

그 누구가 대신 가나/ (후렴)

...(생략됨)...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오호 어하

오호 오호 오호 어하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08-1 : 1 상여노래

(발인할 때 상여꾼들이 발을 맞춘다)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오호오 오호야 (후렴)

(평지에서)

이 세상의 만물 중에/ (후렴)

사람밖에 더 있느냐/ (후렴)

인간 세상에 나오신 양반들/ (후렴)

빈손 들고 빈 몸으로/ (후렴)

부력 상식은 누이고/ (후렴)

백년 사물은 니속이라/ (후렴)

허무의 지심은 천세 뒤요/ (후렴)

한냥 두냥을 모아다가 놓고/ (후렴)

옷다 벗고 옷다 가지고/ (후렴)

길은 없지 산은 있네/ (후렴)

한여 한삼 짚어를 지면/ (후렴)

앞이 나느냐 쌀이 나느냐/ (후렴)

인간 칠십은 고래희요/ (후렴)

팔십 장년에 새집엘 가네/ (후렴)

청사 때때옷을 사다가 해도/ (후렴)

잘도 간다 잘도 가네/ (후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후렴)
- 아버님전에 뼈를 빌어/ (후렴)
- 석달 만에는 피를 모고/ (후렴)
- 여섯 달 만에는 입이 생겨/ (후렴)
- 오뉴월이라 한 여름 밤에/ (후렴)
- 모기 빈대가 들끓을 때라/ (후렴)
- 둥그러진 잠을 못 다주무시고/ (후렴)
- 동지선달 소담풍에/ (후렴)
- 백설이 펄펄 날리는 데/ (후렴)
- 배부른데다가 덮어주고/ (후렴)
- 발씨 발씨 눌러를 주면/ (후렴)
- 은자동아 금자동아/ (후렴)
- 금지옥엽 일월동아/ (후렴)
- 나라에는 충신동아/ (후렴)
- 일가 친척에 화목동아/ (후렴)
- 동네방네 귀염동아/ (후렴)
- 오색비단에 채색동아/ (후렴)
- 채색비단에 오색동아/ (후렴)
- 둥글둥글 수박동아/ (후렴)
- 우리 인생이 반백할 적에/ (후렴)
- 우리의 부모가 잘 길러낼 제/ (후렴)
- 마른자리는 아기를 뉘며/ (후렴)
- 음식이라고 맛을 보고/ (후렴)
- 달디단 것은 아기를 매겨/ (후렴)
- 쓰디쓴 것은 인자하신 어머님 잡수시고/ (후렴)
- 은을 주면 너를 사랑/ (후렴)
- 애지 중지 기른 정을/ (후렴)
- 부모에 은공을 못 갚으며는/ (후렴)

태산이라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후렴)
가지에 강연을 사쨌더니만/ (후렴)
무정세월이 어름하야/ (후렴)
부모에 은공을 못 다갠고/ (후렴)
봉두라니 백발이요/ (후렴)
못열을건 죽음이로구나/ (후렴)
김던 머리는 백발이되고/ (후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부량신각에 집을 짓고/ (후렴)
만제비방에 흙판갈어/ (후렴)
삼신산에 불로초를/ (후렴)
여기저기다 심어놓고서/ (후렴)
백발양친을 모셔다간/ (후렴)
천년 만년을 살쨌더니만/ (후렴)
무정세월이 어류하야/ (후렴)
부모의 은공을 못 다갠고/ (후렴)
둥그러니 백발이라/ (후렴)
귀는 먹어서 질벽이 되고/ (후렴)
이는 빠져서 잡신이 되니/ (후렴)
부모들은 병이 들었으니/ (후렴)
있던 병이 절로난다/ (후렴)
작년에두 애가 타는 우리가/ (후렴)
애달프구 속상하구나/ (후렴)
청춘들아 청춘들아/ (후렴)
백발보고서 웃지를 마라/ (후렴)
나도 엇그저께 청춘이러니/ (후렴)

이 백발이 원수로구나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진다 잎진다 설위를 마라/ (후렴)

풍지기 뒷산에 심었다가/ (후렴)

명년 삼월 봄이 돌아오면/ (후렴)

너는 다시 피련 마는/ (후렴)

우리네 인생이 한번 가면/ (후렴)

어느 시절에 다시 돌아오나/ (후렴)

세상만사를 기다리며는/ (후렴)

하늘의 달 이로다/ (후렴)

우리 인생은 부평초라/ (후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후렴)

천년을 살며 만년을 사오/ (후렴)

천 만년을 못사는 인생/ (후렴)

궁중 같은 살림살이/ (후렴)

대미 쌀을 일귀 노시고/ (후렴)

명산대천 찾아가서/ (후렴)

상상에다 메를 짓고/ (후렴)

중상에다 목욕을 하구/ (후렴)

하상에다 수족을 씻구/ (후렴)

비나이다 비나이다/ (후렴)

* 1998.4.26. 지길현(47세, 남, 마장면 이치리)

0410-1 : 4 상여노래

오호오 오호이 어거리 넘차 오호야
 오호오 오호이 어거리 넘차 오호야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는 날짜 기약하소/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북망이라/ (후렴)
 여보시오 군정님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후렴)
 한두살에 걸음 배워/ 무정세월 열었더라/ (후렴)
 십오세를 당도하여/ 부모 은공 갚으랴/ (후렴)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이 웬말이나/ (후렴)
 여보시오 이팔청춘/ 이 내 한말 들어보소/ (후렴)
 나도 어제 청춘인데/ 오늘날에 백발일세/ (후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 1998.4.25, 이춘수(60세, 남, 미장면 덕평리)

0410-2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야 오호히 영차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히 영차 오호야 (후렴1)
 가다 가다가 만다지만/ 아니가고는 못하것네/ (후렴1)
 이내 가슴 답답하다 답답하구나/ 어서가자 바빠가자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후렴2)
 너도 가냐 오호 나도 간다 오호/ 어서가세 오호 바빠가세 오호
 어서가자 오호 빨리가자 오호/ (후렴)
 떠나가세 오호 어서가세 오호/ (후렴2)
 북망산천 오호 내집이오 오호/ ...(미상)... 오호 다시보고 오호

망령이라 오호 하는소리 오호/ 절통하고 오호 원통하다 오호
 오늘 내가 오호 백발이나 오호/ 원래 내가 오호 백발이나 오호
 이가 빠져 오호 노인네 되고 오호/ 금일 내가 오호 원수로다 오호
 망령이라 오호 하는소리 오호/ 절통하고 오호 원통하다 오호/ (후렴2)
 여보시오 오호 여러분들 오호/ 삼천세재 오호 가질말고 오호
 북망산천 오호 들어갈 때 오호/ 마음뎛아 오호 불공들여 오호
 좋은대로 오호 인도하세 오호/ (후렴2)
 쉬었다가면 오호 눈물나요 오호/ 오늘 내가 오호 갇힌세계 오호
 원통하고 오호 절통하다 오호/ 못다먹고 오호 못다쓰고 오호
 가는 인생 오호 슬퍼마라 오호/ 노여워마라 오호 오늘 내가 오호
 장에서 오호 애늬은이 오호/ 앉으려니 오호 저승밖에 오호
 그뿐일세 오호 하는말이 오호/ 어서가자 오호 빨리가자 오호/ (후렴2)

오호 오호야 오호이 영차 오호야 (후렴1)
 가라 마라 눈물 젖고/ 설운 마음 이내 몸도/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1)
 대문밖에 눈물이면/ 늙어서 배위에 언고/ (후렴1)
 자 손들아 나를 보고/ 망령이라 하는 소리/ (후렴1)
 자가자 눈물이 나네/ 나는 가요/ (후렴1)
 주저 마라 노여워 마라/ 이제 가면 언제오나/ (후렴1)
 나는 죽어서 시드는데/ 어서 가자 바삐들 가자/ (후렴1)
 이내 몸은 어데 가나/ 아내 몸에 나는 가요/ (후렴1)
 앞뒤면 여러분들/ 어서 가요 바삐들 가요/ (후렴1)

자 슬슬 떠나들 보세/ (후렴1)
 오호 오호 이내 청춘 바삐간다/ (후렴1)
 오호 어허 주름지면은 눈물이 나고/ (후렴1)
 떠나 보세 다리 아파 아니 가나/ (후렴1)

가자 가자 어서들 가자 꽃들 지면 아니 간다/ (후렴1)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바빠 가세/ (후렴2)

어서 가세 오호 바빠 가세 오호/ 내가 가냐 오호 언제 올까 오호
기약 없는 오호 이별 일세 오호/ 눈물 흘러 오호 무엇 이요 오호
인정 쓸까 오호 요즘 내가 오호/ 먹고 가고 오호 쓰고 가고 오호
못다한 인생 오호 이 세상에 오호/ 칠성님께 오호 명을 빌어 오호
칠성님에 오호 상제 빌어 오호/ 아니 오면 오호 돌아 올까 오호
설움 많고 오호 눈물은 오호/ 잦아지고 오호 돌고 지고 오호
어서 가세 오호 가다 보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야 오호히 영차 오호야/ (후렴1)

여보시오 신부님네/ 이네 말씀 들어 보소/ (후렴1)

명사십리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1)

부모 형제라도/ 어느 누가 대신할고/ (후렴1)

일가 친척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갈까/ (후렴1)

친구 간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갈까/ (후렴1)

실락 같은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후렴1)

가라 마라 흐르는 물은/ 저리 절로 흘러간다/ (후렴1)

고개 고개 열든고개/ 넘어 갈적에 한숨 된다/ (후렴1)

차디찬 겨울 동지 선달 묻었다가/ (후렴1)

바람 불면 쓸어지나/ 낙엽지면 떨어지나/ (후렴1)

소풍 한철 찬바람에/ 눈물이 앞가려 나 못가것네/ (후렴1)

고개 고개 열두고개/ 넘어 넘어 나는가요/ (후렴1)

올라가세 올라가세/ 바빠들 올라가세/ (후렴1)

가다 가다가 못다가면/ 아니가니만 못하도다/ (후렴1)

상제님아 이내 온기를 넣어 주소/ (후렴1)

님도 가고 사랑도 가고/ 정든 님을 찾아를 가요/ (후렴1)

수술 삼천 남잔봉에/ 청산유수가 내돌아 듯이/ (후렴1)

가네 가네 부디 극락을 내주소사/ (후렴1)
젊은 청춘 나중 가고/ 늙은 청춘 먼저 갈제/ (후렴1)
선한 이는 극락 세계로 모십시다/ (후렴1)
다와 간다 다와 간다/ 극락세계 다와가요/ (후렴1)

여보시오 오호 여러분들 오호/ 삼천세재 오호 가질말고 오호
북망산천 들어갈 때/ 마음뒹아 불공들여
좋을대로 인도하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중략)...

쉬었다 가면 눈물이 나오/ (후렴2)
오늘 내가 갇힌 속에 원~ 절/ 못다먹고 못다쓰고/ (후렴2)
가는 인생 슬퍼마라 노여워마라/ (후렴2)
오늘 내가장에서 내 늙은이 앉으려니/ (후렴2)
저승밖에 그뿐일세/ (후렴2)
오호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빨리 가자/ (후렴2)

오호 오호야 오호이 영차 오호야
가라마라 눈물이 질고/ 설운 마음 이내 몸도/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후렴1)
대문밖에 천리 만리 나는 가요/ (후렴1)
대문밖에 눈물이면/ 늙어서 배위에 언고/ (후렴1)
자손들아 나를 보고/ 망령이라 하는 소리/ (후렴1)
자 가자 눈물이 오호 나는가요/ (후렴1)
주저마라 노여워마라/ 이제 가면 언제오나/ (후렴1)
나는 죽어서 시드는데/ 어서 가자 바삐들 가자/ (후렴1)
이내 가라 이내 몸예/ 오호 나는 가요/ (후렴1)
앞뒤엔 여러분들/ 어서 가요 바삐들 가요/ (후렴1)

자 슬슬 떠나들 보세/ 오호 오허 이내 청춘 바빠간다
 주름지며는 눈물이 나고/ 떠나 보세 다리 아파 이리거나
 가자 가자 어서들 가자/ 꽃은 지면 아니 간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오호야/ 어서 가세 오호 바빠 가세
 오호 내가 가나 오호/ 언제 올까 오호
 기약없는 오호 이별일세 오호/ 눈물 흘러 무엇이여

인정쓸까 요즘 내가/ 먹고 가고 쓰고 가고/ (후렴2)
 칠십인생 이세상에/ 신선님께 명을 빌어/ (후렴2)
 칠성님께 상제빌어/ 아니오면 돌아올까/ (후렴2)
 서름많고 눈물은/ 잦아지고 돌고 지고/ (후렴2)
 어서 가세 가다보면/ (후렴2)

오호 오호야 오호히 영차 오호야 (후렴1)
 여보시오 신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1)
 명사십리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1)
 부모형제 있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할고/ (후렴1)
 이내 친척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갈까/ (후렴1)
 친구간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갈까/ (후렴1)
 실락같은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 들어/ (후렴1)
 가라 마라 물은 저리 흘러간다/ (후렴1)
 고개 고개 열두고개/ 넘어 갈적에 한숨이 된다/ (후렴1)
 차디찬 동지 선달 묻었다가/ (후렴1)
 바람불면 쓸어지나/ 낙엽지면 떨어지나/ (후렴1)
 소풍한철 찬바람에/ 눈물이 앞을 가려 나 못가것네/ (후렴1)
 고개~ 넘어 넘어 나는가요/ (후렴1)
 올라가세 올라가세/ 비뻐들 올라가세/ (후렴1)
 가다 가다가 못다가면/ 아니 가니만 못하도다/ (후렴1)

상제님아 이내 온기를 넣어주소/ (후렴1)
 남도 가도 사랑도 가고/ 정든 님을 찾이는 다요/ (후렴1)
 수삼천 남잔봉에/ 청산유수가 내돌아듯이/ (후렴1)
 가네 극락을 내주소사/ (후렴1)
 젊은 청춘 나중가고/ 늙은 청춘 먼저 갈제/ (후렴1)
 극락세계로 모십시다/ (후렴1)
 다와 간다 다와 간다/ 극락세계 다와가요/ (후렴1)
 * 1998.5.25, 김성배(51세, 남, 마장면 덕평리)

0411-3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이 어거리 넘차 네허
 오호 오호이 어거리 넘차 예호 (후렴)
 어저께 저녁 성튼몸이/ 오늘 저녁에 병이들어/ (후렴)
 무당 불러 곶을 한들/ 곶 덕인들 있을 소냐/ (후렴)
 판수 불러 경을 읽은들/ 경 덕인들 있을 소냐/ (후렴)
 고양명이 밝은 자죽으로/ 난 병색은 물렀으니/ (후렴)
 앞뜰 안에는 앞산이 막히고/ 뒷뜰에는 병이 막혀/ (후렴)
 흑도산에 지긋하니/ 흑도산은 부러지고/ (후렴)
 돌배를 잡얼타니/ 돌배는 가도 앓고/ (후렴)
 나무배를 잡얼타니/ 나무배는 썩어를 지고/ (후렴)
 이십사강 건너가서/ 앞 뜰에는 천석지기/ (후렴)
 뒷 뜰에는 만석지기에/ 조종산에 꽃이 피어/ (후렴)
 만사 고두기 날아드니/ 뺨은 꽃은 간곳이 없고/ (후렴)
 평생기 맞음이 인생일세요/ 술잔 맹길어 술 가득 부어라/ (후렴)
 이만 저만 노다를 가이세/ (후렴)
 열싸 좋다 잘덜두 하네/ 먼데 사람 듣기나 좋구/ (후렴)
 가까운데 사람 보기나 좋게/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로다/ (후렴)
백수 발에 흠나비는/ 소녀 거상을 입었는지/ (후렴)
소바 간자 두드려 놓고/ 잠자리 발에를 넘나드네/ (후렴)

* 1998.4.10, 유성열(67세, 남, 마장면 이평리)

0502-1 : 11 상여노래

오호 오호야 오거리 넘차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거리 넘차 오호야 (후렴1)
이제 가면 언제오나/ 명년 춘삼월 꽃이피니/ (후렴1)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극락세계로 나는 간다/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러워마/ (후렴1)
산을 넘고 강을 건너에/ 찾아서 나는 간다/ (후렴1)
일척 사랑 못잊느냐/ 산수금강 찾아가니/ (후렴1)
너희들도 알던 테지/ 인생 젊은날 뛰어가리라/ (후렴1)

(빨리가기)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야 (후렴2)
언덕밭이 같이살아/ (후렴2)
저산 넘어 가신님아/ (후렴2)
몇해든지 떠나들 간다/ (후렴2)
청천하늘 잔별도 많고/ (후렴2)
애지중지 기른자식은/ (후렴2)
동네 방네 화목동아/ (후렴2)
일가친척 많다한들/ (후렴2)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외 2인

0503-1 : 2 상여노래

(느리게 갈 때)

오호 오호야 어이나 갈까나/ 오호 오호야 어이나 갈까나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는/ 봄이 오면 피건마는/ (후렴)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후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느털을 두고 나 혼자 간다/ (후렴)

(빨리갈 때)

오호 오호야/ 이제가면 언제 오나/ 오호 오호야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외 1인

0504-1 : 1 상여노래

대문밖을 썩 나서며/ 적삼을 개어서 손에 들고

오호 오호야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저승길이나 멀다해도/ 오늘날 내가 당해서는/ (후렴)

친구의 벗이 많다한들/ 어느나 친구가 대신가며/ (후렴)

일가야 친척이 많다한들/ 어느나 누가 동행할까/ (후렴)

저승길이 멀다해도/ 내가 오늘날은 당했구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나 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명년 춘삼월 돌아보면/ 너는야 또다시 피련마는/ (후렴)

* 1998.8.4, 김윤수(65세, 남, 부발읍 고백리)

0506-2 : 4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호야 어거리 넘차 오호야

오호 오호 오호야 어거리 넘차 오호야 (후렴)

명사야 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러워마라/ (후렴)

명런 춘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후렴)
우리 인생 한번가면/ 옴이 나느나 싹이나나/ (후렴)

(빨리가기)

오호~ 오호~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발을 맞춰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오호

오호~ 오호~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발을 맞춰 오호아 오호아 오호아 오호

* 1998.8.1, 유수열(68세, 남, 부발읍 미암리)

0510-1 : 8 상여노래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하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하 (후렴)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천지 나을적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여보시오 시주님/ 이네 말씀을 들어보소/ (후렴)

이 세상에 나을적에/ 누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성님전에 복을 빌어/ (후렴)

일곱칠성에 명을 받고/ 열달비로야 탄생하니/ (후렴)

한두살엔 철을 몰라/ 이삼십을 당하여도/ (후렴)

부모님 공을 못다 갚고/ 어이없고 애달구나/ (후렴)

무정세월 열어가려/ 원수 백발 도랑물이/ (후렴)

검은머리 백발되고/ 없던 망령 절로난다/ (후렴)

망령이라고 흉을 보고/ 구석구석이 웃는 모양/ (후렴)

애닦구나 슬프도다/ 들통맞고도 분하구나/ (후렴)
 어제 오늘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삼선 약전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드니/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은 것은 냉수로다/ (후렴)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 효염이 있을 손가/ (후렴)
 무너블러 곳을 하나/ 굿덕인들 입을 소냐/ (후렴)
 판수블러 경을 한들/ 경덕인들 입을 손가/ (후렴)

(긴소리)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하/ (후렴)
 이제 가면 언제오나/ 명년 춘삼월에 돌아올까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하/ (후렴)

(짧은소리)

오호 오호하 어이나 가리 오호하/ (후렴)
 긴소리는 이만하고/ 짧은 소리로 넘어가세/ (후렴)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이미리)

0510-1 : 16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발맞춰라 오호 왼발 오호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후렴)
 어이나 갈까 오호하/ 왼발 바른발 딱딱 맞추며/ (후렴)
 이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오호 오호야/ (후렴)
 둥기간이 많다한들/ 어느 누구가 같이가나/ (후렴)
 일가친척이 많다한들/ 어느 누구가 대신가나/ (후렴)
 원통해서 못살겠네/ 가련해서도 못살겠네/ (후렴)
 이 세상에 태어날제/ 어느 누구가 알아주나/ (후렴)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이미리) 외 3인

0511-1 : 22 상여노래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이나 가리 어화~
어화 어화 어아니 가리 어화 (후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희를 두고 간다/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여/ 꽃진다고 서러워 마라/ (후렴)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후렴)
우리 인생 한번가고/ 다시 오기 어렵도다/ (후렴)
아침나절 성탄 놈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실낱같이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후렴)
부르나니 오마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후렴)
무녀 불러 곳을 한들/ 곳덕인들 입을소나/ (후렴)
판수 불러 경 읽은들/ 경덕인들 들을소나/ (후렴)
인삼 녹영 약을 쓴들/ 약덕인들 들을/ 소나/ (후렴)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외 7인

0601-1 : 9 상여노래

어허 어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어허 어허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인지가면 언제오나/ 오만 한을 일러주게/ (후렴)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더 있는가/ (후렴)
이 세상에 태어날제/ 어느 공덕으로 태어났나/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 이내 일신 태어날제/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구/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후렴)
이내 일생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 몰라/ (후렴)
인생 백년 꽃지느니/ 절통하구 한심하다/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박이 저승인가/ (후렴)
북망산천 머다드니/ 건너산이 북망일세/ (후렴)

인간 세상을 살아보니/ 허무하고 한심하다/ (후렴)

* 1999.1.16. 김대기(81세, 남), 주구홍(90세, 남), 주내영(76세, 남), 박도훈(81세, 남, 장호원음 내려림)

0602-1 : 18 상여노래

어허 어하 어하 넘차 오호

어허 어하 어하 넘차 오호 (후렴)

여보시오 균중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게/ (후렴)

우리인생 한번 가면/ 어느 새에 돌아오나/ (후렴)

아침나절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어허 백약으로두 공양한데/ 백약이 소용없소/ (후렴)

이내 인생 한번 가면/ 움이 나오 짝이 나나/ (후렴)

어허 명사 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서러마오/ (후렴)

꽃은 명년 삼월되면/ 앞마당에도 피건마는/ (후렴)

인제 가면 못보시오/ 다시 보기 어려워라/ (후렴)

신사당에 허례하고/ 구세당에 작별하고/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건너산이 북망일세/ (후렴)

가마술에 삶은 박이/ 짝이 트면 내가 오나/ (후렴)

(빨리 갈 때)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어디로 갈까/ 오호 오하 가오 가오 나는 가오

오호 오하 인제 가면 못오시네/ 오호 오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오호 오하 북망산천 기다린다/ 오호 오하

(상주에게 인사할 때)

어허 어-하 어하 넘차 오호

어허 어-하 어하 넘차 오호(후렴)

여보시오 균중님네/ 이내 이말 들어보소/ (후렴)

일가 친척 많다해도/ 어느 일가 대신 가나/ (후렴)

242 이천의 옛노래

동기 일심 좋다 하면/ 어느 동기 이플소내/ (후렴)

동네사람 허다하고/ 빈사당에 하직하고/ (후렴)

인자 가시면 언제 오오/ (후렴)

인자 가시면 언제 오오/ (후렴)

동지설달 소담풍에/ 꽃이 지면 내가오나/ (후렴)

유월 산토끼면/ 얼음이 얼면 내가오나/ (후렴)

* 1999.1.13, 이삼태(74세, 남), 최홍익(74세, 남, 장호원읍 노탑리)

0603-1 : 1 상여노래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지면 언제 오나/ (후렴1)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네/ (후렴1)

못간단다 못간단다/ 노자가 없어 못간단다/ (후렴1)

친지들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갈꼬/ (후렴1)

간다 간다 안 온단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하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어이날 갈까 어하 (후렴2)

인제가면 언제 오나/ 정녕 이길을 못올텐데/ (후렴2)

저승길이 굴러주나/ 내가 간들 아주 가느나/ (후렴2)

사람은 많아도 소린 적다/ 어이 가지도 못하는가/ (후렴2)

어허어 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하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후렴1)

가자 가자 어서가자/ 어서 바빠 쉬이나라/ (후렴2)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후렴)

(평지에서 빨리 갈 때)

오호 오호/ 어허 어허/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어하/ 오호 어하

어허 어허하 에헤이 오오하/ (후렴1)
못간단다 못간단다/ 노자가 없어 못간단다/ (후렴1)
육촌 동생들 어딜갔느냐/ 어디를 가서 못오느냐/ (후렴1)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明年 일월 못 올텐데/ (후렴1)

어허 어허하 에헤이 오오호/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어이나 갈까 어하/ (후렴1)
우리부모 한번가면/ 영영 이길 못올텐데/ (후렴1)
오늘날에 살어보니/ 한푼없이 이내사정/ (후렴1)
우리인생 죽어지면/ 한푼없이 이몸이라/ (후렴1)
한번간들 또올쏜가/ 영영 이길을 못올쏜다/ (후렴1)
우리 인생 죽어지면/ 한푼없는 주먹이니/ (후렴1)
자손들이 나는 간다/ 우리자손 잘되려구/ (후렴1)
슬슬 가라 애달구나/ 우리 인생 가버리면/ (후렴1)
일가 친척이 많다해도/ 죽어지면 그만인데

오호 오호/ 어허 어하/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어허어 어허하 에헤이 오호/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지며는 언제오나/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어허어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한손에는 요령들고/ 바빠 바빠 시행하라/ (후렴1)
 오호 오호/ 어허 어하/ 오호 오호/ 어허 어하
 오호 오호/ 어허 어하/ 오호 오호/ 어허 어하
 오호 오호/ 어허 어하

불쌍하구 가련하다/ 먹을 것을 못다먹구/ (후렴1)
 입을 것을 못다입구/ 북망산천이 왜말이나/ (후렴1)
 실낱같은 가는 몸예/ 태산 같은 병이되어/ (후렴1)
 못간단다 못간단다/ 기름이 없어 못간단다/ (후렴1)
 우리 형제들 어딜갔나/ 어디를 가서 못오느냐/ (후렴1)
 육촌들은 안보인다/ 어디를 가서 안보이나/ (후렴1)
 어서 바빠 떠나가라/ 왜 이다지도 못가는가/ (후렴1)
 어허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어허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어허 어허하 예헤이 오호/ (후렴1)

* 1999.1.13.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을 대서리)

0604-1 : 2 상여노래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가리 오호 (후렴)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너를 두고 나는 가요/ (후렴)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봉드라니 백발이라/ (후렴)

천황지황 지황시면/ (후렴)

요지야 몇단을 어디두고/ (후렴)

북극지황은 단을 냈으나/ (후렴)

* 1999.1.12, 박기현(60세, 남), 윤호채(77세, 남, 장호원음 방추리)

0605-1 : 6 상여노래

어허어 허어하 어이나 가리 허호

이곳 저곳 다 제쳐놓고/ 이어 떠나는 내마당

에하 금전 다 제쳐놓고/ 내가 갈길은 머나 멀다

에헤에 헤헤호 어이나 가리 허호

오호이 오호/ 오호이 오호 (후렴1)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자리를 떠나서/ (후렴1)

황천길이 멀다드니/ 대문 밖이 황천이다/ (후렴1)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는 길은 한가지다/ (후렴1)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면 그만이다/ (후렴1)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는 곳은 한곳인데/ (후렴1)

에헤이 에헤/ 에헤이 에헤 (후렴2)

그 새중에 더 살라고/ 바둥바둥 할 적에가/ (후렴2)

엇그저께 그 날인데/ 내가 우째 이래됐나/ (후렴2)

가나 가나 가지마는/ 나의 도행 하나없네/ (후렴2)

친구지간 일가친척 많다해도/ 나의 도행 하나 없네/ (후렴2)

서러워서 못가겠다/ 저승길을 못가겠네/ (후렴2)

집안 친구 잘있게/ 나 혼저 가겠네/ (후렴2)

이 세상에 불쌍한건/ 죽는 상난 불쌍하다/ (후렴2)

문힐적에 두고보자/ 등장급잔 나로구나/ (후렴2)

편안하게 누웠으니/ 어느 누가 도와주나/ (후렴2)
 자식 들어와서/ 국사갓은 다 갖춰놓고/ (후렴2)
 절을 수백번을 소용 있나/ 애고하면 소용 있나/ (후렴2)
 이미 간것을/ 어쩔 수 없다구나/ (후렴2)

(상여 떠날 때)

어허어 허이하 어이나가리 허어호(후렴3)
 이제가면 언제 오나/ 이제가면 그만이지/ (후렴3)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 일 못해구 가는구나/ (후렴3)
 이곳 저곳 살펴봐도/ 나의 맘에 아니든다/ (후렴3)
 여보 여보 나좀 보오/ 자식들을 부탁하오/ (후렴3)
 내가 가는 이 도중에/ 자식만은 부탁합니다/ (후렴3)
 여보 나는 못가겠소/ 당신이 그리워 못가겠소/ (후렴3)

(이때 그 부인이 상여 앞에다 돈을 얹어준다)

여보시오 고마우이/ 여보 당신 고마우이
 어허어 허이하 어이나가리 허어호/ (후렴2)
 여보 당신 두 번 다시/ 내가 안 찾고 가리시다/ (후렴2)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을 선음리)

0606-1 : 3 상여노래

오호오 호오하/ 오호오 호오하 (후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 산천 나는 가요/ (후렴)
 요길 따라서 한번 가면/ 두번 다시 못올 길을/ (후렴)
 가마술에 죽은 닭이/ 꼬기오하면 오겠는가/ (후렴)
 춘삼월에 해당화야/ 너 지면은 오시겠나/ (후렴)
 열두군사에 꽃상여 태워서/ 북망산천 들어설 때/ (후렴)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후렴)

꽃이라도 낙화가 지면/ 오던 나비도 아니오네/ (후렴)
 장비 기계를 불러다가/ 오만 방구들 잘다지고/ (후렴)
 이 자리 높이고 저 자리 높여서/ 북망산천이 여기맨데/ (후렴)

* 1999.1.12, 이상훈(48세, 남, 장호원음 장호원리)

0606-1 : 12 상여노래

가자 가자 다시 가자/ 오호 호오오 호오호 (후렴)
 다시 오기는 어려울터/ (후렴)
 이내 몸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 (후렴)
 내 이내 몸이 한번 가니/ 일직 사자 월직 사자/ (후렴)
 이제 오니 내가 가면/ 가는 님이 나를 보아/ (후렴)
 너는 어이 하였느냐/
 저놈 마차 불러들여/ 엄치 국문 하는 말이/ (후렴)
 불 붙이러 다니면서/ (후렴)
 싹 붙이기 좋아하면/ (후렴)
 악한 여자를 불러들여/ (후렴)
 엄치 국문 하는 말이/ (후렴)
 시부모와 친부모께/ (후렴)
 세상 악덕 까부리며/ (후렴)

* 1999.1.12, 박영환(57세, 남), 박재홍(61세, 남, 장호원음 송산리)

0609-1 : 7 상여노래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후렴)
 저승 길이 멀다더니/ 오늘 날로 저승일세/ (후렴)
 일가친척 많다더니/ 어느 누가 대신가나/ (후렴)
 이팔청춘 소년들이/ 백발보고서 웃지마라/ (후렴)

엇그제께 청춘이더니/ 오늘날로 저승일세/ (후렴)
 의사마다 병 고치면/ 북망산천이 왜 생겼나/ (후렴)
 원통해서 못 가겠네/ 원통해서 나 못 가겠네/ (후렴)
 * 1999.1.14. 한호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징호원읍 와현리)

0610-1 : 1 상여노래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가리 오호오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가리 오호오 (후렴)
 이제가면 언제 오나/ 이제나 가면 언제 와/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에 저승일세/ (후렴)
 북망산천을 가려한들/ 길이나 멀어 못 가겠네/ (후렴)
 명년 삼월 봄이 오면/ 꽃이나 다시 피련마는/ (후렴)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한 번 죽어 강촌가면/ (후렴)
 움이나 나라 싹이 날꼬/ 움이나 날까 싹이 나라/ (후렴)
 꽃이라도야 낙화되면/ 오던 나비도 아니 온대/ (후렴)
 나무라도 고목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오네/ (후렴)
 구만리 장천 저승길을/ 이제나 가면 언제오나/ (후렴)
 한번 가면 못 오는 길/ 나는 못 가네 나는 못가/ (후렴)
 일가친척이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가며/ (후렴)
 친구 복도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가며/ (후렴)
 이왕지사 가실바에/ 극락 세계 연화대로/ (후렴)
 모시오 모셔 잘 모셔/ 모시고 모셔 잘 모셔보자/ (후렴)
 * 1999.1.14. 권태호(58세, 남, 징호원읍 이흥리)

0612-1 : 5 상여노래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갈까 오호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여보서요 군중님네/ 사람은 없어도 소리는 주게/ (후렴)

여보서요 군중님네/ 일심받아 소리를 하이소/ (후렴)

여보서요 상주님네/ 대문 밖이 저승일세/ (후렴)

오호오 호오하 어이나 갈까 오호/ (후렴)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을 진암리)

0613-1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아 예혜 - 오 - 호

오호 오호아 예혜 - 오 - 호 (후렴)

북망산에 허배하고/ (후렴)

허사당에 허배허니/ (후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후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이 진다고 서러말고/ (후렴)

일가 친척 많дах들/ (후렴)

어느 친척 대신 갈까/ (후렴)

친구 벗이 많дах들/ (후렴)

어느 친구 대신 갈까/ (후렴)

높은 산이 정기 되면/ (후렴)

형제들은 또 다시 올까/ (후렴)

해당화는 한 두 해면/ (후렴)

또 다시나 오련마는/ (후렴)

이내 인생 설위마라/ (후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후렴)
빈손으로 나오지만/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 (후렴)
아버님전 공을 빌고/ (후렴)
어머님전 덕을 빌고/ (후렴)
일가 친척 차례를 빌어/ (후렴)

(빨리 갈 때)

오호이 오하/ 오호이 오하/ 오호이 오하/ 오호이 오하
오호이 오하/ 오호이 오하
오호 오호아 에헤 - 오 - 호/ (후렴)
일백년도 못 사는 인생/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이 진다고 서러말고/ (후렴)
이 삼십을 먹고 보니/ (후렴)
부모은혜 다 못 갚고/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후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후렴)
빈손으로 나오지만/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고/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고/ (후렴)
일가 친척 차례를 빌어/ (후렴)
인생으로 탄신하면/ (후렴)
한두살에 철을 몰라/ (후렴)
이삼십을 먹고 보니/ (후렴)
부모 은혜 다 못 갚고/ (후렴)
칠팔십을 먹고 보니/ (후렴)

허허 백발 되었구나/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후렴)

대문 밖이 저승이네/ (후렴)

* 1999.1.13, 차천민(73세, 남, 장호원읍 풍계리)

0702-1 : 2 상여노래

오호 오호 어허/ 오호 오호 어허/ 오호 오호 어허 (후렴)

우리 인생 한번 가면은/ (후렴)

요모양 요꼴이 되는 인생/ (후렴)

살았을적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렴)

친구간에 우애가 깊고/ (후렴)

일가친척간에 화목하세/ (후렴)

저승길이 어디던가/ (후렴)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우리 인생 이제 가면 언제오나/ (후렴)

명년 춘삼월에 꽃이 피면 오실라나/ (후렴)

명삼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이 진다고 설위를 마라/ (후렴)

지는 꽃은 명년 봄이면 다시 피지만/ (후렴)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영영 글렀네/ (후렴)

(빨리 갈 때)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하오하 오하 오하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4-1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거리 넘차 오호야
오호 오호 오거리 넘차 오호야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후렴)
꽃은 한번 지고보면/ 명년 삼월 또 피련만/ (후렴)
우리네 인생 한번가면/ 눈이 나나 삭이 트나/ (후렴)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706-1 : 1 상여노래

오호아 오하 어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아 오하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오호 오호 오허 오호 오호 오허
오호야 오호야 오호 오허
오호 오호 오호야 오허야 (후렴2)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1)
지승길이 멀다드니/ (후렴1)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1)
한번 나서 한번 가는 인생/ (후렴1)
가고나면 다시 못오는 청춘/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1)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후렴1)
꽃은 저도 명년 삼월이면/ (후렴1)
다시 또 피건마는/ (후렴1)
우리네 인생은 한번 가면/ (후렴1)
다시 오기 어려운데/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1)
우리가 살면은 백년을 사나/ (후렴1)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후렴1)
 초로같은 우리 인생/ (후렴1)
 살았을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렴1)
 동기간에 우애가 있고/ (후렴1)
 친척간에 화목도 하고/ (후렴1)
 친구간에 의리 있게 살아야지/ (후렴1)
 아웅다웅 살다 가는 인생/ (후렴1)
 산이 높아 못가시나/ (후렴1)
 길이 멀어 못가시나/ (후렴1)
 노자 동냥이 떨어져 못가시나/ (후렴1)
 부모형제 그리워 못가시나/ (후렴1)
 어서 가자 빨리 가자/ (후렴1)
 일지사자 월직사자/ (후렴1)
 손을 끌고 들을 밀고/ (후렴1)
 북망산으로 들어갈제/ (후렴1)
 내가 살던 집은 보이지 않고/ (후렴1)
 내 놀던 곳도 보이지 않네/ (후렴1)
 살았을적 내 몰랐지만/ (후렴1)
 죽노나니 영글렀네/ (후렴1)
 일가친척 많다 해도/ (후렴1)
 누구하나 동행 없고/ (후렴1)
 저승사자 어서 가자 재촉하네/ (후렴1)
 이제가면 언제 오나/ (후렴1)

(빨리 갈때)

오하 오하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오하 오하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 2000.3.4. 김일규(69세, 남, 신문면 도암리) 외 2인

0706-2 : 1 상여노래

오호 오호 오호오아 오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 오호 오호오아 오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1)
 귀감 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후렴1)
 …(중략)…
 오호아 오호아 오거리넘차 오호아 오호아
 명사십리 해당화야/ 웃찌 마루 그러마라/ (후렴1)
 이제가면 언제 오나/ 오호 오호 오호오아 (후렴2)
 명사십리 해당화야/ 웃찌 마루 그러마라/ (후렴2)
 응달 석달 키웠다가/ 명년 삼월 봄이오면/ (후렴2)
 너는 다시 피었나요/ (후렴1)
 우리 인생 한번가면/ 싹이 피나 움이 나나/ (후렴1)

(빨리 할 때)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어허우

* 2000.3.12, 이병준(67세, 남, 신문면 도암리)

0708-1 : 1 상여노래

(발인하기 전에 발맞추는 소리)

오호 오하 오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 오하 오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오호 오호 오허 오호 오호 오허
 오호 오호 오호야 오허야 (후렴2)

오호 오하 오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앞을 보니 첩첩산중/ 뒤를 봐도 검검절벽/ (후렴1)

뒷장으로 띠를 삼고/ 땅 속을 집을 삼아/ (후렴1)
 우리 인생 한 번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라/ (후렴1)
 저기 저기 저 달 속에는/ 계수나무 박혔는가/ (후렴1)
 은도끼로 찍어다가/ 금도끼로 다듬어서/ (후렴1)
 초가삼간 지어놓고/ 양친 부모 모셔놓고/ (후렴1)
 백년천년 사졌더니/ 간단 말씀이 웬 말씀인가/ (후렴1)
 나는 싫어요 돈 많은/ 벽창호가 나는 싫어요/ (후렴1)
 못가겠다 못가졌네/ 다리가 아파서 못가겠다/ (후렴1)
 목이 말라서 못가졌네/ 다리가 아파서 못가졌다/ (후렴1)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돈 많은 벽창호가 나는 싫다/ (후렴1)
 갑니다 갑니다 나는 갑니다/ 수남리 떠나서 나는 가오/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삼십년을 기다려도 못오겠네/ (후렴1)
 잘있어요 잘있어요/ 나는 가오 나는 가오/ (후렴1)
 탁거리도 잘있거라/ 엄마당거리도 잘있거라/ (후렴1)
 동남머리도 잘있거라/ 이천 고개도 잘있거라/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집을 언제 오나/ (후렴1)
 우리 봤는지 다 봤구나/ 수남리 양반들 마지막이다/ (후렴1)
 갑니다 갑니다 나는 갑니다/ 수남리 떠나서 나는 가오/ (후렴1)

오오호 오호야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갈 길이 바빠서 빨리 가자/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수남리 길을 언제 오나/ (후렴1)

오오호아(오오호아) 허허(허허) 허허 (허허) 우우 우아(우우 우아)
 허허(허허) 허허(허허) 어허 우하(어허 우하)

오오호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1)
 너를 내가 기를 적에는/ 어떤 정성으로 길렀는가/ (후렴1)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후렴1)
 명달 석달 죽었다가/ 명년 삼월 봄이 오면/ (후렴1)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1)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짝이 트나 옴이 나나/ (후렴1)
 못가겠다 못가겠어/ 원통해서 못가겠네/ (후렴1)
 절통해서 못가겠네/ 노자가 없어서 못가겠네/ (후렴1)
 갑니다 갑니다 나는 갑니다/ 수남리 떠나서 나는 갑니다/ (후렴1)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십년이 백년도 못오겠소/ (후렴1)

(빨리 갈 때)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오호 오호야

* 2000.3.4, 함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10-1 : 1 상여노래

오허야 오호야 오허리 넘차 오호야 (선소리)
 오허야 오호야 오허리 넘차 오호야 (후렴)
 오허 오허 오허 오허 오허 오허 (선소리)
 오허야 오허야 오허 오허/ 오허 오허 오허야 오허야 (후렴)
 오허 오허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선소리)
 오허 오허 오호 오호 오호 오호 (후렴)

오호야 오허리 넘차 오호야 (선소리)
 오호야 오허리 넘차 오호야 (후렴1)
 늙어 하시는 끈방님네/ (후렴1)
 이네 할 말을 들어보소/ (후렴1)
 이 이 세상 만물 중에/ (후렴1)
 이 사람 밖에는 또 있는가/ (후렴1)

이런 세상에 태어날 때/ (후렴1)
 아버님 뜻으로 태어났나/ (후렴1)
 아버님전 복을 빌고/ (후렴1)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1)
 이 내몸이 늙어 병을 받고/ (후렴1)
 이내 일신은 태어를 나서/ (후렴1)
 간다 소리는 노래나 불러/ (후렴1)
 부모 은공을 들어보자고/ (후렴1)
 신랑까지도 구슬피 우네/ (후렴1)
 풍수 부풍 제를 나니/ (후렴1)
 석양을 찾아서 경희가 가니/ (후렴1)
 경을 찾아 일공을 하니/ (후렴1)
 무당을 찾아서 굿이나 하니/ (후렴1)
 굿덕이나 입을 손가/ (후렴1)
 이네 일신 한번 가면/ (후렴1)
 니나 나나 노지나 기나/ (후렴1)
 불쌍하구나 가련한 인생/ (후렴1)
 이제 가면 언제오나/ (후렴1)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후렴1)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1)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 오호야/ (후렴2)

가네 나는 가네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2)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야 어야 오호야/ (후렴2)
 간다 끝으로 끝으로 도네/ (후렴2)

이네 인생 돌아가네/ (후렴2)
 어허 불성님네 이네 인생 가련하네/ (후렴2)
 가네 나는 가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 (후렴2)
 어~ 어후 가련하다 어허야/ (후렴2)
 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승 중에 떠나거든/ (후렴2)
 어허 어허오 어이 네 오하/ 어허 어허오 어이 같까 어허야 (후렴3)
 어허 어허오 어이 같까 어허야/ (후렴3)
 어허 어허오 어이 같까 어허야/ (후렴3)

* 2000.2.19. 김창봉(63세, 남), 박용욱(48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2-1 : 1 상여노래

오호아 오하 어거리 넘차 오호아 (선소리)
 오호아 오하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
 오호 오호 오허 오호 오호 오허 (선소리)
 오호야 오호야 오호 오허/ 호 오호 오호야 오허야/ (후렴)
 가세 가세 이제 그만 가세/ (후렴)
 이제가면 언제 오나/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이 진다고 설워를 마라/ (후렴)
 꽃은 저도 명년 춘삼월이면 다시금 피건마는/ (후렴)
 우리네 인생은 한번 가면 그만이네/ (후렴)
 이 내몸을 만드실 때/ (후렴)
 누구의 공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부처님전에 불공을 드리고/ (후렴)
 아버님전 피를 받고/ (후렴)
 어머님전 살을 받아/ (후렴)
 갖은 공덕으로 태어나선/ (후렴)

일가친척 부러움 속에/ (후렴)
 부귀영화 다 누렸건만/ (후렴)
 애고 한번 가면 누가 다 알아주나/ (후렴)
 초로같은 짧은 인생/ (후렴)
 눈감으니 저승길일세/ (후렴)
 저승길이 멀다드니/ (후렴)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북망산천 어드메나/ (후렴)
 길이 멀어 못가시나/ (후렴)
 산이 험해 못가시나/ (후렴)
 노잣돈이 다 떨어져 못가시나/ (후렴)
 갑갑하다 답답도 하다/ (후렴)
 머나먼 길 어이 혼자 갈까나/ (후렴)
 일가친척 많다해도 누가 대신 갈까마는/ (후렴)
 친한 벗들 많다지만 누가 동행할까/ (후렴)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후렴)
 다시 못올 이 길일세/ (후렴)
 쉬었다 가세 쉬었다 가세/ (후렴)
 노잣돈 다 떨어져 못 가겠네/ (후렴)
 오호 오호 오호야 오허야/ (후렴)

(빨리 갈 때)

오하 오하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선소리)
 오하 오하 오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후렴)

* 2000.2.15. 양찬석(80세, 남), 이응록(65세, 남, 신둔면 마교리)

0713-1 : 1 상여노래

오호오 오호하 오호오 오호하
오호오 오호하 오호오 오호하 (후렴1)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후렴1)
아들 딸 다 버리고 나는 간다/ (후렴1)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후렴1)
대분박이 북망일세/ (후렴1)
오호오 오호야 오호야 오호하/ (후렴1)
가다 가다가 만다지만/ (후렴1)
아니 가고는 못하것네/ (후렴1)
가자가자 어서 가자/ (후렴1)
어서 가자 바빠가자/ (후렴1)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오 오호야 (후렴2)
너도 가냐 나도 간다/ (후렴2)
떠나가세 어서가세/ (후렴2)
북망산천 내집이오/ (후렴2)
망령이라 하는 소리/ (후렴2)
절통하고 원통하다/ (후렴2)
어제까지 젊던 내가/ (후렴2)
오늘 내가 백발이냐/ (후렴2)
원래 내가 백발이냐/ (후렴2)
이가 빠져 노인네 되고/ (후렴2)
금일 내가 원수로다/ (후렴2)
망령이라 하는소리/ (후렴2)
절통하고 원통하다/ (후렴2)
오늘 내가 갇힌 세계/ (후렴2)

원통하고 절통하다/ (후렴2)
 못다먹고 못다쓰고/ (후렴2)
 가는 인생 슬퍼마라/ (후렴2)
 명사십리 해당화야 설워마라/ (후렴2)

여보시오 신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1)
 명사십리 멀다해도/ 대문밖에 저승일세/ (후렴1)
 부모형제 있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할고/ (후렴1)
 일가 친척이 많다해도/ 어느 누가 대신갈까/ (후렴1)
 실락같은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 들어/ (후렴1)
 가라 마라 물은/ 저리 흘러간다/ (후렴1)
 고개 고개 열두고개/ 넘어 갈적에 한숨이 된다/ (후렴1)
 차디찬 동지 설달 못었다가/ (후렴1)
 바람불면 쓸어지나/ 낙엽지면 떨어지나/ (후렴1)
 폭풍한설 찬바람에/ 눈물 가려 못가것네/ (후렴1)
 고개~ 넘어 넘어 나는가요/ (후렴1)
 올라가세 올라가세/ 비뻬들 올라가세/ (후렴1)
 가다 가다가 못다가면/ 아니 가니만 못하도다/ (후렴1)

오호오 오호야 오호아 오호하/ 오호오 오호야 오호아 오호하 (후렴3)
 오호오 오호야 오호아 오호하/ (후렴3)
 다와 간다 다와 간다/ 극락세계 다와가요/ (후렴3)

* 2000.2.15, 구연준(68세, 남, 신둔면 소정리)

0803-2 : 9 상여노래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
 여보시오 군방님네/ (후렴)

이네 말삼 들어보소/ (후렴)
저승길을 멀다더니/ (후렴)
대문밖이 저승일세/ (후렴)
이제가면 언제 오나/ (후렴)
이제가면 언제 오나/ (후렴)
명년삼월 봄이 되면/ (후렴)
다시 한번 오시려나/ (후렴)
가마솥에 삶은 밥이/ (후렴)
싹이 나면 오시려나/ (후렴)
내년삼월 봄이 되어/ (후렴)
꽃이 피면 오시려나/ (후렴)
일가친척 많대한들/ (후렴)
어느 친척 같이 갈꼬/ (후렴)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후렴)
북망산천 가는구나/ (후렴)
심산궁곡 들어갈제/ (후렴)
어이 갈꼬 어이 갈꼬/ (후렴)
천지로 집을 삼고/ (후렴)
초목으로 울을 삼아/ (후렴)
황토로다 요를 삼아/ (후렴)
좋은 잔디로 이불 삼아/ (후렴)
천년만년 집을 짓고/ (후렴)
천년만년 살아가도/ (후렴)
백골이 진토되어/ (후렴)
일편단심이야 변할소나/ (후렴)

* 2000.9.29, 유재은(72세, 남), 정혁수(83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3-3 : 4 상여노래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명사십리 해당화는/ (후렴)
 춘삼월이면 꽃이/ 다시 피련마는/ (후렴)
 한번 가는 우리인생/ 죽어지면 허사로다/ (후렴)
 초로 같은 우리인생/ 죽어지니 허사로다/ (후렴)
 * 2001.1.26, 김백열(75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4-1 : 3 상여노래

오호 오호이 오호오호야 에헤야
 오호 오호이 오호오호야 에헤야 (후렴)
 백술같은 흰나비는/ 부모상을 입었는지/ (후렴)
 소복단장을 곱게하고/ 잠자리 밭으로 넘나드니(후렴)
 가자가자 어서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가세/ (후렴)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나두 같이 청산가자/ (후렴)
 청산가다 날이나 저물거든/ (후렴)
 꽃밭속에서 돌이 자구/ 잠을 자구 날아가자/ (후렴)
 낙양성 십리하에/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낙양성 낙양성이라 높고/ 낮은데 어디메냐/ (후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후렴)
 백구야 날지마라/ 높삼을 두고 헤아질시/ (후렴)
 성산을 나 받았으며/ 너를 쫓아 여기왔네/ (후렴)
 널 보려구 여기 왔네/ 넋을 바라고 여기왔네/ (후렴)
 없거들랑 같이 가자/ 없거들랑 같이 가세/ (후렴)
 백구야 날지마라/ 너잡을 내 아닐세/ (후렴)
 성상을 또 받았으며/ 너를 쫓아 여기왔네/ (후렴)

모를 심고 논을 매니/ 이벼를 잘 길러서/ (후렴)
나라님께 충성하고/ 그 나머지 부모님께/ (후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질랑은 씻기워/ (후렴)
나도 먹고 자식 먹여/ 우리 세상 살아보세/ (후렴)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상을 입었는지/ (후렴)
소복 단장을 곱게하고/ 잠자리밭으로 넘나드니/ (후렴)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
낙양성 십리하에/ 백구야 진테 청구영언/ (후렴)
영웅호걸이 몇몇이나/ 절대 가인은 누구누구/ (후렴)
어린이도 죽어를 지면/ 저기 저 모냥 될거로다/ (후렴)
덜걱덜걱 우지마라/ 달구달강 우지마라/ (후렴)
니가 울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설잖아도/ (후렴)
우리 앞 못본 우리 부친/ 누구를 믿고 산단말가/ (후렴)
불쌍하구 가련한 우리 부친 또 있느냐/ (후렴)
가자가자 어서가자/ 저리루 어서가자/ (후렴)
가면은 어딜 가나/ 가면 어디루 가/ (후렴)
일락서산에 해는 졌는데/ 어디루 가잖말야/ (후렴)
노자 노자 젊어 노자/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후렴)
춤추고 노래하고/ 거들거리고 놀아보세/ (후렴)
이때 못놀면 어느때 노나/ 이팔청춘 놀아보세/ (후렴)
가자가자 어서가자/ 아들따라 어서가자/ (후렴)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상을 입었는지/ (후렴)
소복단장을 곱게하고/ 잠자리밭으로 넘나드네/ (후렴)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외 5인

0804-1 : 4 상여노래

오호아 헤이 허어 호오 호오야
 오호아 헤이 허어 호오 호오야 (후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후렴)
 아나나 놀구서 무얼 하느냐/ (후렴)
 이팔 청춘아 소년들아/ (후렴)
 백발을 보구서 웃지를 말어라/ (후렴)
 나두나 잊그제 청춘이더니/ (후렴)
 어느날로 백발이 되었네/ (후렴)
 나를 보구서 웃지를 말어라/ (후렴)
 사력소리 찬바람에도/ (후렴)
 울구 나가는 저 기러기/ (후렴)
 울구를 가면은 니나 가지/ (후렴)
 홀로 잠든 날 왜 깨우고 가느냐/ (후렴)
 가거든 가거라 나는 참겠대/ (후렴)
 백설같은 흰나비는/ (후렴)
 부모상을 입었느냐/ (후렴)
 소복단장을 곱게나 하고서/ (후렴)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후렴)
 검은 곡지 연단안에도/ (후렴)
 전하해다 동네를 메고서/ (후렴)
 이상해 덩구 덩더러쿵이다/ (후렴)
 청산에 둥근 릴리리로구나/ (후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후렴)
 낙양성으로 들어를 가노라/ (후렴)
 낙양성 십리중에도/ (후렴)
 높고 낮은 저 무덤은/ (후렴)
 영웅호걸은 몇몇이던가/ (후렴)

나도 한번 죽을치면/ (후렴)
죽을치면 저 모양 일거다/ (후렴)
닭아 닭아 울지를 마라/ (후렴)
나가 올면 날이 새누라/ (후렴)
날이 새면은 나는 죽는다/ (후렴)
나 죽기는 싫지 않다만/ (후렴)
앞 못보시는 우리 부친은/ (후렴)
누구를 믿고 살드란 말이가/ (후렴)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외 5인

0809-2 : 14 상여노래

오호 오호이 어거리 넘차 오허아
오호 오호이 어거리 넘차 오허아 (후렴1)
가기는 가야지 안 갈 수는 없는데/ 이 짐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 (후렴1)
알뜰살뜰히 모든 살림을/ 이 집에다가 맡기고서 간단 말이나/ (후렴1)
만장 같은 짐을 두고 처자식을/ 그렇게 두고 어딜 가야 하나/ (후렴1)
아니가자 하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자고 하자니 한숨이 늘어지네/ (후렴1)
어저께 밤에는 내 집이었건 만은/ 앞에도 절벽이고 뒤도 절벽일세/ (후렴1)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후렴1)
하루에 갈 줄은 왜 이렇게도 몰르고/ 천년을 만년을 잘들 살았는가/ (후렴1)
갑시다 갑시다 떠나 갑시다/ 이집 저집 누굴 두고 떠나가는 건가/ (후렴1)
많이도 살면은 구십을 살것을/ 칠십도 못살고 갈줄은 몰랐네/ (후렴1)
한번 가면은 못오는 길인데/ 길이 나빠서 못오실 건가요/ (후렴1)
동네방네 남녀노소들/ 이말 한마디 잘들어 봅시다/ (후렴1)
열흘 살줄 왜 몰랐고/ 하루에 갈줄은 왜 몰랐는가/ (후렴1)
요기만 나가면은 내집을 못오니/ 앞에도 두고도 못올건가/ (후렴1)
놀다가 갑시다 놀면서 가요/ 마지막 가는 길에 못가셨구나/ (후렴1)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뼈는 다 썩어서 상투가 되니/ (후렴1)

오호~~오호~~~오오호~~~~/ 가진 가야지/ (후렴1)

어느 누가 날 붙잡나/ (후렴1)

에헤~~ 에헤~~~

사람마다 (오호) 베풀하면 (오호)

농부 될 사람 (오호) 왜 생겼나 (오호)

에헤~~ 오호~~~~

어젯밤엔 (오호) 내 집이었건만 (오호)

오늘 나는 (오호) 어딜 가나 (오호)

남녀노소 (오호) 잘 들어 봅시다 (오호)

이 세상에 (오호) 생겨났다 (오호)

만날 시에 (오호) 나도 넣고 (오호)

만날 적이 (오호) 많았건만 (오호)

갖은 고생 (오호) 다 해보소 (오호)

나이 먹으면 (오호) 알뜰 살뜰 (오호)

살자더니 (오호) 하늘이 무너져도 (오호)

분수가 있지 (오호)

이렇게 갈줄은 (오호) 난 몰랐네 (오호)

사람마다 (오호) 태어났다 (오호)

한번 가기는 (오호) 마찬가지로 (오호)

그렇게 가야 (오호) 하는 건가 (오호)

여보시오 (오호) 상죽은 양반들 (오호)

이 내 한마디 (오호) 잘 들읍시다 (오호)

살아 생전에 (오호) 잘살다가 (오호)

잘놀다가 (오호) 떠나 갑시다 (오호)

오호~오호~

내외간에 (오호) 싸우지 말고 (오호)
자손들 하고 (오호) 다투지 말고 (오호)

오호~~ 오호~~오오호~~~~

오호 오허아아 어거리 넘차 오허아
오호 오허아아 어거리 넘차 오허아 (후렴2)
마나님 따님 사위님들 이리와 봅시다
마지막 가는 길이니 인사 좀 합시다/ (후렴2)
따님들 사위님들 어서 와서/ 인사 좀 하고서 가봅시다/ (후렴2)
어려 철 몰리 못알아/ 부모님 은공을 못알아갔고/ (후렴2)
일을 빼어서 징을 박은들/ 부모님 은공을 누가 알았고/ (후렴2)
쇠를 빼앗아 강을 박은들/ 부모의 은공을 못 따라 가고/ (후렴2)
부모의 은공을 못 다 갚고 갈 줄은 몰랐네/ (후렴2)
알뜰살뜰 모든 살림 내비려 두고 갈 줄은 몰랐네/ (후렴2)
하늘이 무너져도 분수가 있지/ 요렇게 꿈인지 생사란 말인가/ (후렴2)
꿈이란들 못잊을걸 생시에도 못잊을걸/ 어느해 누군들 알아준단 말인가/ (후렴2)

오호~~오호~~오호허~~~~

어서 가자 (오호) 안 가자니 (오호)
어느 누가 (오호) 날 붙잡나 (오호)
세상사를 (오호) 생각하니 (오호)
여창해비 (오호) (오호)
꽃은 피어 (오호) 만발하고 (오호)
잎은 지어 (오호) 녹음지고 (오호)
가지 뻗어 (오호) 열매다네 (오호)
사람살다 (오호) 가는 것도 (오호)
북망산천이 (오호) 멀다더니 (오호)
건너산이 (오호) 북망산이 돼 (오호)

오호~

사람마다 (오호) 병들면은 (오호)
 의사마다 (오호) 병고치면 (오호)
 북망산천이 (오호) 왜 생겼나 (오호)
 인간 칠십 (오호) 고래희라 (오호)
 흥안백발 (오호) 늙어지면 (오호)
 다시 오긴 (오호) 어렵도다 (오호)
 청춘흥안 (오호) 두고 가니 (오호)
 영면결인 (오호) 돌아오마 (오호)
 말만 그렇지 (오호) 다시 정말 (오호) 아니오네 (오호)

오호~~오허~~

이팔청춘 (오호) 소년들아 (오호)
 백발보고 (오호) 웃지 마라 (오호)
 우리 누나 (오호) 엇그저겐 (오호) 청춘이더니 (오호)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혜혜~
 우리 누나 (오호) 엇그저겐 (오호) 청춘이더니 (오호)
 오늘 널은 (오호) 백발일세 (오호)
 이팔청춘 (오호) 소년들아 (오호)
 망녕이라고 (오호) 흥을 보고 (오호)
 구석구석 (오호) 웃는 모양 (오호)
 귀가 어두어 (오호) 눈이 없고 (오호)
 어느 누가 (오호) 나를 보나 (오호)
 잠든 날과 (오호) 병든 날을 (오호)
 걱정 근심 (오호) 화재하면 (오호)
 삼사십을 (오호) 못사는 인생 (오호)

오오~~오호~~~오호~~오호~

오허 오허 오호아 어거리 넘차 오호아

오호 오허이아 어거리 넘차 오허아 (후렴2)
여기만 가면은 다 왔으니/ 산이 높아서 못 오르는가/ (후렴2)
물이 깊어서 못 오시던가/ 길이나 좁아서 못 오시던가/ (후렴2)
오다가 보니까는 다 오게 됐으니/ 어떻게 가야만이 잘 가시느냐/ (후렴2)
만날 적에 자주나 보지/ 만날 뒤에도 헤어나 지네/ (후렴2)
어려서 갖은 고생 많이 하고서/ 나이살 먹어 잘 살자고 했건마는/ (후렴2)
육십 사세에 간단 말이/ 어느 해 누군들 알았을 건가/ (후렴2)
열대 왕전에 매일 사다가/ 주랑전에 명을 받아/ (후렴2)
팔자 같이 굵은 길음/ 화살 같이도 내려를 와서/ (후렴2)
사위님들 따님들도 왔다가 가야지/ 사위가 둘씩인데 왜 안 왔다가 가는가/ (후렴2)
후안리 장조카님 나왔다가 가야지/ 후안리 장조카님도 왔다가 갈테지/ (후렴2)
오호~~ 어서가자 (오호)
아니 가다 (오호) 간단 말인가 (오호)
오호~오호~
말 잘듣고 (오호) 잘 모시고 (오호)
여러분들 오호 남녀노소 (오호) 살아 생전에 (오호)
에 (오호) 잘 놀다가 (오호)
오래 살다 (오호) 가게 되면 (오호)
후세 가서 (오호) 만남시다 (오호)
이 세상을 (오호) 떠나간 걸 (오호)
다시 오기는 (오호) 어렵도다 (오호)
사람마다 (오호) 가고 싶잖치 (오호)
누가 가고 (오호) 싶어졌나 (오호)
오호~~오호~~~오호~~~~

허어 호오 어거리넘차 오허아/ (후렴2)
이 집이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구나/ 이 집을 보니까는 갈 수가 없네/ (후렴2)
오호 오허이아 어거리 넘차 오허아/ (후렴2)

이 집이 눈에 밝히고 가족이 밝혀/ 정말로 못가겠으니 어떻게 가느냐/ (후렴2)
 요기만 가면은 산천인데/ 이 집을 보고도 못오는 인생인가/ (후렴2)
 이 집을 두고서 못가겠으니/ 일가친척 양반네들 들렀다가 갑시다/ (후렴2)
 살아 생전에 봤던 집을/ 매정하게도 두고서 떠나 가느냐/ (후렴2)

오호~~오호~~어서가자~~ 오호~~~~에헤~~

오다가 보니 (오호) 다 왔으니 (오호)

시름없이 (오호) 죽은 인생 (오호)

열번 걸어 (오호) 배 위에 얹으니 (오호)

한심하고 (오호) 처량하다 (오호)

사람마다 (오호) 안 같라고 (오호)

애썼건만 (오호) 저승사자가 (오호)

데려가는덴 (오호) 할 수 없구나 (오호)

이렇게 가야만이 (오호) 잘 가지나 (오호)

오호~오호~오호~에헤~~허허~오호~오호~오호 오호~

오호이 넘차~~~~~

다 왔네요 다 왔네요/ 다시도 못 갈 길을 다 왔네요/ (후렴2)

품안에 친구가 많다 한들/ 어느 친구가 대신 가느냐/ (후렴2)

* 2000.6.03. 최장호(80세, 남),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후안리)

0901-4 : 1 상여노래

우~후~후~과/ 어이나 가리나 어허

인제 가면은 언제 오나/ 떠나면 황천길을

어허 허하 어이나 가리나 허하 (후렴)

일가나 친척이 많다더니/ 어느 일가 대신 가랴/ (후렴)

북망산천이 좋다더니/ 어느 누가 같이 가랴/ (후렴)

알뜰살뜰이 모은 세상/ 오늘날로 하직하리/ (후렴)
 어니 가라고 어이 가나/ 초로 같은 우리네 인생/ (후렴)
 한번 가면은 못오는데/ 어이하라 어이하라/ (후렴)
 못 가졌네 못 가졌네/ 인제 가면은 언제 오나/ (후렴)
 원통하구도 불쌍하다/ 우리네 인생이 불쌍하다/ (후렴)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또다시 한번 못오련만/ (후렴)
 원통하구도 가련하다/ 우리네 인생이 불쌍하다/ (후렴)
 어야 데니 오늘이라/ 한번 여차나 가는 인생/ (후렴)
 또다시 못오련만/ 원통하구 가련하다/ (후렴)

* 2001.7.10, 이환우(65세, 남, 모가면 두미리)

0901-4 : 3 상여노래

(긴소리)

오호 오호 호히 호호히야 헤헤야
 오호 오호 호히 호호히야 헤헤야 (후렴1)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는데/ (후렴1)
 한번 여차 죽어지면/ 봄이나 돋나 싹이나 돋나/ (후렴1)
 인생 여차 한번가면/ (후렴1)
 한번 여차 죽은 인생/ 불쌍하구 가련하다/ (후렴1)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후렴1)
 하루 같으니 우리네 인생/ 한번 여차나 가는구나/ (후렴1)
 어머님전 뼈를 빌어/ 아버님전 살을 빌제/ (후렴1)
 한번 가는 우리네 인생/ (후렴1)
 열두달 중에 너두 가구 나도 간다/ (후렴1)
 어머님이 가신 뒤에/ 나두 갈까 어이가랴/ (후렴1)

(느린 소리)

오호 호호하 어이나 가리나 호호하

오호 호호하 어이나 가리나 호호하 (후렴2)
 하느님전 뼈를 빌어/ 아버님전 살을 빌제
 어느 인생이 가련허나/ (후렴2)
 명사십리 해동화야/ 꽃이나 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삼월이 돌아오면/ (후렴2)
 꽃은 피어 만발할 제/ 잎은 피어 청산되고/ (후렴2)

(빠른 소리)

오홍 오홍 어형 어형 어하여하 어형 어하 어형 어하

* 2001.7.10, 이한우(65세, 남, 모가면 두미리)

0904-2 : 4 상여노래

어하하 어거리 남차 호아
 어하하 어거리 남차 호아 (후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거리 남차가 으하/ (후렴)
 이땅 천지 만물 중에는/ 사람밖에나 또 있는가/ (후렴)
 어머니의 살을 빌고/ 아버님에나 배를 빌어/ (후렴)
 칠성님에 영을 빌고/ 일성님에나 복을 빌어/ (후렴)
 이날 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나 철을 몰라/ (후렴)

* 2001.6.6, 조병동(68세, 남, 모가면 소고리) 외 6인

0904-4 : 1 상여노래

오호오 하 어하 남차 어하/ 오호오 하 어하 남차 어하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뒷동산에 군밤 심어/ (후렴)
 군밤씨가 나오면 오시려나/ (후렴)
 노새 노새 짊어서 노새/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후렴)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후렴)

274 이천의 옛노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서러워마라/ (후렴)
명년삼월 봄이 오면은/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
우리 인생은 한번 죽으면/ 다시나 오기가 어렵구나/ (후렴)

(빠른 소리)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 2001.6.26, 조병동(68세, 남), 권영찬(60세, 남)

0908-3 : 3 상여노래

어허 어허 어하 어히나 갈까 어하
어허 어허 어하 어히나 갈까 어하 (후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뇌들 두고 나는 간다/ (후렴)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 간들 잊을쏘나/ (후렴)
엇그저께 성튼몸이/ 오늘날로 병이 들어/ (후렴)
명년 이삼월 봄이 오면/ 꽃은 다시 피련만은/ (후렴)
이내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구나/ (후렴)
내가 가면 어딜 가나/ 북망산천으로 가는거지/ (후렴)

* 2001.6.4, 권오돈(71세, 남, 모가면 왕평리)

0910-5 : 25 상여노래

오호오호 호호아 애가리 넘자 오호아
인제 가면 언제오나/ 내년 이맘때 오실라나
오호오호 호호아 애가리 넘자 호호아 (후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고향을 두고서 나는 가네/ (후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후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만장같은 집을 두고 나는 간다/ (후렴)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외 8인

1001-4 : 1 **상여노래**

오호오후아 오호오후아/ 오호오후아 오호오후아 (후렴)

여보시오 상주님들/ (후렴)

이내 한말씀 들어를 보소/ (후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후렴)

누의 공덕으로 되었는가/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다/ (후렴)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후렴)

아버님 전에 뼈를 빌어다/ (후렴)

이내 인생 탄식하나니/ (후렴)

한 두 살에는 철을 몰라서/ (후렴)

부모 은공을 알을쏜가/ (후렴)

* 2002.5.17, 김성근(59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1-4 : 10 **상여노래**

오호오호오오아/ 오호오호오오아 (후렴)

여보시오 상주님네들/ (후렴)

이내 한말씀 들어를 보소/ (후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후렴)

누의 공덕으로 태어났나/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다/ (후렴)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후렴)

아버님 전에 뼈를 받아/ (후렴)

한 두살에는 철을 몰라/ (후렴)

부모 은공을 알을쏜가/ (후렴)

인삼 녹용 약을 쓴들/ (후렴)

약발이나 받을손가/ (후렴)

인간 칠십 고래희라/ (후렴)
창문 밖이나 저승이니/ (후렴)
어이 인생 한두 많아/ (후렴)
다시 오지는 못허리라/ (후렴)
영년 삼월 봄이 오면/ (후렴)
나는 썩어지런만/ (후렴)
어디 인생 한번 가시면/ (후렴)
다시 오지는 못허라/ (후렴)
일가 친척 많다한들/ (후렴)
어느 누구가 대신 가나/ (후렴)

* 2002.5.17. 김성근(59세, 남, 대월면 도리리) 외 마을 청년회

1003-2 : 4 상여노래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아
오호 오호아 어이나 가리 오호아 (후렴)
놀다 가세 놀다들 가세/ 오늘날에 가시는 그이/ (후렴)
다시도 한번 못올건대/ 인제 놀면 언제나 놀라/ (후렴)
여보시여 우리 일군님네/ 우리네 인생을 떠나를 가니/ (후렴)
일편생애 가시는 사람/ 비양해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후렴)
여러분네 자손님네/ 만수무강 빌고나 가니/ (후렴)
어서 가세 어서 가세/ 북망산천을 찾아를 가야/ (후렴)
높은데는 알아를 지고/ 얇은데는 높아를 지고/ (후렴)
(이하 생략됨)

* 2002.3.17. 김병전(62세, 남, 대월면 군량리) 외

1006-1 : 3 상여노래

오호 오호아 어거리 남자 에헤야
 오호 오호아 어거리 남자 에헤야 (후렴)
 여보시오 (허송간 있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후렴)
 (시대다두 어둠에는) 만년회로를 살았으니/ (후렴)
 (풍만삼천에 우다르니) 대문밖이 풍만일세/ (후렴)
 이제가면 언제오나 다시오기는 하려나/ (후렴)
 * 2002.3.30, 김주선(73세, 남, 대월면 부필리)

1103-1 : 7 상여노래

어허 어허아 예거리 남자 어허야
 어허 어허아 예거리 남자 어허야 (후렴)
 여보시오 벗님네들 에헤야/ (후렴)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 밖이 저승일세/ (후렴)
 이내몸이 갑자기 병이나 들었구라/ (후렴)
 고향 땅을 떠나는/ 그리운 이내 신세일세/ (후렴)
 이팔청춘이 어제 같은데/ 내몸이 앞도하여/ (후렴)
 아들딸은 생성하고/ 이내몸이 떠나는데/ (후렴)
 저승길을 당도하니/ 인상 사주 봄서서리/ (후렴)
 다 같은 우리 낭군님/ 당신을 이별하고 가니/ (후렴)
 아들딸을 잘 돌보오/ (후렴)
 이팔청춘에 소년이/ 백발보고 웃지마라/ (후렴)
 시들새들 봄배차는/ 찬실 올때만 기다렸는데
 내가 갑자기 이 내몸/ 저승 길을 가구 가네/ (후렴)
 정든 땅을 정들여 놓고/ 내가 간들 이세상 살이
 눈물도 끊이고 한숨도 나네/ (후렴)
 경기도라 이천이오/ 흥망산천을

일년동안을 장대 불사를 할랬더니
이 나이 칠순도 안되서 한생을 가네/ (후렴)
이 세상이 가련하고/ 부모님을 보고 악수하니
이내 불효가 어디 있을까/ (후렴)
어머님의 살을 빌어/ 아버님의 피를 타구나서
호주 상속을 못하고/ 이내 가슴 답답하네/ (후렴)
저승길을 갔더니 홍망사자/ 풍만삼천 네거리를
용왕님 전을 상성하여/ (후렴)

* 2002.5.12. 장병근(75세, 남, 이천시 장록동)

0207-1 : 2 재도듬노래

...(시작 부분 미상)... / 꽃가마 두분이라 하던일
길승관 등에 지구/ 일곱메로 메를 매어
열두문에 상두미/ 밭을 맞춰 잘모셔라
저승길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적삼벗어 초립을 하니/ 난데없는 곡소리가/ 온동리에 진동을 하고
첩첩이라 산중은/ 갑갑하고 답답도한데/ 저승사자 하는 말 들어봐라
어서가자 바빠가자/ 시간 늦고 때가 늦다
저승사자 이네 말을 들어보소
시장한데 요기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갑시다
여보시오 부인네야/ 그런말을 하지마오
저승길로 접어들자/ 열두사자가 달려들며
한손에는 철근을 들고/ 또 한손에는 쇠사슬로
휘휘 목을 부여걸고/ 등을 치며 가자하네
애고 답답 나 죽겠네/ 부르나니 어머니고/ 찾느냐니 냉수로다.
왕천 모두 웬말이나/ 중문밖에 방생하야
저승사자 품에 잡겼더니/ 일월같이 불을 밝혀/ 황천길이 웬말이나

일가동기가 온줄 아나/ 내가 가면 간줄 아나/ 영결종친 하는구나
 꽃과 잎은 진 다음에/ 춘삼월이면 보련마는
 초로같은 이내 인생/ 한번 알자 낙화되니/ 움도 싹도나 아니나네
 영결종친 하는구나/ 나 간다고 설워마라
 백골이라도 묻혔건만/ 천년만년 찾아간다
 천년집을 뒤에 두고/ 만년군사를 찾을 적에
 열두구배를 발맞춰/ 잘모셔라 잘모셔라
 앞 문패도 끌고가니/ 저승사자 기다린다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울면 산성리)

0210-1 : 3 재도듬노래

마물 마물 나무아미타불
 명사십리 해동화야/ 꽃이 진다 서러워마라
 마물 마물 나무아미타불
 우리 인생 태어나서/ 원수 백발 되려는가
 마물 마물 나무아미타불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102-1 : 6 달구질노래

아하 회리 달고 아하 회리 달고
 아하 회리 달고 아하 회리 달고 (후렴)
 아하 달구질하면 그만인것/ (후렴)
 아하 이내 한말씀 미신이라 하여/ (후렴)
 아하 한 두사람이 하는데도/ (후렴)
 아하 술집년이나 하는 듯이/ (후렴)
 아하 몸배 조감도에 보거나 좋게/ (후렴)
 아하 가까운 손님들 듣거나 좋게/ (후렴)

아하 인심 향년 한마음 한뜻으로/ (후렴)
아하 미친 발에다 몸보신하려느냐/ (후렴)
아하 내 마음 내 몸을 갖으려느냐/ (후렴)
아하 회리 달고/ 아하 회리 달고
아하 산등허리를 구부리면서/ (후렴)
아하 춤을 추는 듯이 먼데 사람 볼때도/ (후렴)
아하 엇그저께에 춤을 추더니/ (후렴)
아하 오늘 겁박이란 말이 웬 말이냐/ (후렴)
아하 어제 혼든 몸에/ (후렴)
아하 정말이로다 정말로구나/ (후렴)
아하 인삼녹용 약을 쓴들/ (후렴)
아하 소용이 없구나 병든 곳에/ (후렴)
아하 수전초목을 찾아가서/ (후렴)
아하 절간에 부처님께 비는구나/ (후렴)
아하 비나이다 비나이다/ (후렴)
아하 부처님께 바로 앉고/ (후렴)
아하 명산대천을 지나가서/ (후렴)
아하 하탕에 수령을 심고/ (후렴)
아하 중탕에 목욕을 하고/ (후렴)
아하 소주 한병을 비은 후에/ (후렴)
아하 비나이다 비나이다/ (후렴)
아하 부처님께 비나이다/ (후렴)
아하 한 짐채나 비나이다/ (후렴)
아하 어느 부처님이 들어줄쏘냐/ (후렴)
아하 회리 달고/ 아하 회리 달고
아하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 (후렴)
아하 다른 소리로 돌려봅시다
오호 오호이 오호 오호이야/ 오호 오호이 아하 돌아

오호 오호이 오호 오호이야/ 오호 오호이 아하 돌아
 오호 오호이 오호 오호이야/ 오호 오호이 아하 돌아
 오호 오호이 오호 오호이야/ 오호 오호이 아하 돌아

* 1996.7.9, 박찬중(62세, 남, 백사면 내촌리)

0103-2 : 2 달구질노래

에야 어하 어허리 녕차 어하 달고
 에야 어하 어허리 녕차 어하 달고 (후렴)
 니가 죽고 한번 가면/ 저승길로 가는데/ (후렴)
 한번 나서 한번 가면/ 또 다시 못 올 내 청춘/ (후렴)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나 저승길이로다/ (후렴)
 아들들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는다/ (후렴)

* 1996.7.10, 임윤빈(62세, 남, 백사면 송말리) 외 1인

0201-1 : 4 달구질노래(정승달구지노래)

에헤헤이 에헤헤이 오호호하
 에헤헤이 에헤헤이 오호호하 (후렴1)
 노년에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후렴1)
 간다간다 나는 가/ 저승길을 나는 간다/ (후렴1)
 일가친척을 뒤에다 두고/ 문전논답을 다 버리고/ (후렴1)
 천금같은 자식을 두고/ 번당같은 내집을 두고/ (후렴1)
 이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나의 온길이 딱딱하다/ (후렴1)
 뒷동산에다 군밤을 물어/ 싹이 나면은 오시련가/ (후렴1)
 명년 설달 초하루날/ 꽃이 피면 오시련가/ (후렴1)
 에헤 소리도 그 만큼 하고/ 다음 소리로 넘어를 가세/ (후렴1)
 에헤허라 달고/ 에헤허라 달고 (후렴2)

천만고 영웅호걸/ (후렴2)
북망산 기슭에/ (후렴2)
부귀영화 쓸데없다/ (후렴2)
상천객을 떠나 갈손가/ (후렴2)
천하일색 양귀비도/ (후렴2)
죽어지니 허사로세/ (후렴2)
술 잘먹는 이태백이도/ (후렴2)
죽어지니 허사로세/ (후렴2)
달고 소리도 그만 하고/ (후렴2)
또 다른 소리로 넘어를 가세/ (후렴2)

오호오호 오하호하 오호오호 오하호하 (후렴3)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3)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후렴3)
만경고라 백두산은/ (후렴3)
암록강이라 불러짓고/ (후렴3)
강남 돌아가 고향산은/ (후렴3)
대동강이라 불러짓고/ (후렴3)
강물 돌아 금강산은/ (후렴3)
소양강이라 불러짓고/ (후렴3)
오호 이 소리도 그만큼하고/ (후렴3)
또 다른 소리로 넘어를 가요/ (후렴3)

에럴럴 상사디야 에럴럴 상사디야 (후렴4)
뒤 소리릴랑은 고향을 질러/ (후렴4)
이 산천이 정가를/ (후렴4)
울음 울음을 하여를 보세/ (후렴4)
정월이라 대보름은/ (후렴4)

반겨하는 명절일세/ (후렴4)
 청춘남녀 짝을 지어/ (후렴4)
 만월산보가 저기인데/ (후렴4)
 우리님은 어태를 갔기에/ (후렴4)
 나를 가져할 날이 없나/ (후렴4)
 일월이라 한식에는/ (후렴4)
 날 곡식이로다/ (후렴4)
 북망산천을 찾아를 가세/ (후렴4)
 가는 님을 안고서 잘도하니/ (후렴4)
 얼얼얼 소리도 그만큼 하고/ (후렴4)
 또 다른 소리로 넘어를 가요/ (후렴4)

오호오호호 오호하 에에이/ 어오려하 에에이 오호혜하
 오호오호호 오호하 에에이/ 어오려하 에에이 오호혜하 (후렴5)
 여보시오 남정님네/ 이내 말씀들어보소/ (후렴5)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는고/ (후렴5)
 석가여래 공덕으로/ 하나님전 명을 받고/ (후렴5)
 칠성님전 복을 받고/ 아버님전 뼈를 빌고/ (후렴5)
 어머님전 살을 빌어/ 이 세상을 탄생하니/ (후렴5)
 한두 살에 칠을 몰라/ 부모 은공값을 손가/ (후렴5)
 선설같이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후렴5)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후렴5)
 어화소리도 그 만큼하고/ 그 다음 소리로 넘어를가요/ (후렴5)

닐리리 어화어화 닐리리 어화어화 (후렴6)
 여보시오 남정님네/ (후렴6)
 이 내말씀 들어보세/ (후렴6)
 부처님의 말씀따라/ (후렴6)

착한 일을 보거들랑/ (후렴6)
고양이가 쥐 잡듯이/ (후렴6)
목마른이 물 찾듯이/ (후렴6)
배고픈이 밥 찾듯이/ (후렴6)
착한일을 하고푸면/ (후렴6)
아미타불이 아니면/ (후렴6)
석가여래 이 아닌고/ (후렴6)
널리리 소리로 그 만큼하고/ (후렴6)
또 다음 소리로 넘어를 가소/ (후렴6)
오호야 어허야 허야/ 오호야 어허야 허야 (후렴7)
새야 새야 파랑새야/ (후렴7)
녹두발에 앉지를 마라/ (후렴7)
녹두꽃이 떨어러를 지면/ (후렴7)
청포장수 울고 간다/ (후렴7)
휘히이이~

* 1997.1.28, 조창구(70세, 남, 울면 고당리) 외 6인

0201-2 : 2 달구질노래(정승달구지노래)

에헤에에 에헤에 어하야/ 에헤에에 에헤에 어하야 (후렴1)
어거리닝차 넘어가네/ (후렴1)
어거리닝차 넘어가네/ (후렴1)
오늘나서 백발이어라/ (후렴1)
이 소리는 그만큼 하고/ (후렴1)
다음 소리로 넘어나 보세/ (후렴1)

에허라 달구 에허라 달구 (후렴2)
옆에 사람은 보기가 좋게/ (후렴2)

먼데 사람은 듣기가 좋게/ (후렴2)
우렁 우렁히 해어나 보세/ (후렴2)
이 소리는 그만큼 하고/ (후렴2)
다른 소리로 돌려나 보세/ (후렴2)

에헤에 호야 호하 에헤에 호야 호하 (후렴3)
성주분이 어디메나/ (후렴3)
경상도 안동땅에/ (후렴3)
제비원이 분이로다/ (후렴3)
제비원이 솔씨를 받아/ (후렴3)
소꿉 대꿉에 었었더니/ (후렴3)
어허 소리나 잘좀 내봐라/ (후렴3)
소부동이나 되었노라/ (후렴3)
소부동이 점점내 자라/ (후렴3)
대부동이나 되었구나/ (후렴3)
이 소리는 그만큼 하구/ (후렴3)
다른 소리로 돌려나 보세/ (후렴3)

얼릴러 상사데야 얼릴러 상사데야 (후렴4)
또 한번은 높여서 하구/ (후렴4)
한번은 낮춰서 해라/ (후렴4)
먼데 사람은 듣기가 좋게/ (후렴4)
이 소리는 그만큼 하구/ (후렴4)
다른 소리로 돌려나보세/ (후렴4)

어허어 어허아 에헤이 오호 호아 에헤이 오호 호아
어허어 어허아 에헤이 오호 호아 에헤이 오호 호아 (후렴5)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을 들어보게/ (후렴5)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며/ (후렴5)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석님전 복을 빌어/ (후렴5)
이내일신 탄생하니/ 부모은공을 어이하나/ (후렴5)
창잘빼어 신을 삼고/ 머리를 뽑어 신을 삼아/ (후렴5)
죄를 내어 …(미상)…
어허어 어허어 에헤이 오호 호아 에헤이 오호 호아
…(미상)… / 부모은공 어이하나/ (후렴5)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5)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노니 냉수로다/ (후렴5)
이 소리는 그만큼 하고/ 다른 소리로 돌려보세/ (후렴5)

엘레리 호아 호아/ 엘레리 호아 호아 (후렴6)
엘레리 소리를 잘도 하면/ (후렴6)
술이 생겨도 삼잔이고/ (후렴6)
밥이 생겨도 세 그릇일세/ (후렴6)
이 소리는 그만큼 하구/ (후렴6)
다른 소리로 돌려보세/ (후렴6)

어허야 호야 호야/ 어허야 호야 호야 (후렴7)
새야 새야 파랑새야/ (후렴7)
녹두밭에 앉지를 마라/ (후렴7)
녹두꽃이나 다 진다면/ (후렴7)
청포장사 눈물이 나네/ (후렴7)
오호오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 1997.1.29. 최병환(66세, 남), 이근용(76세, 남, 울면 고당리)

0203-3 : 7 달구질노래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후렴)
 하나둘이 할지라도 열스물이 하는듯이/ (후렴)
 우렁우렁 잘들하이먼/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고/ (후렴)
 곁의 사람은 보기나 좋게/ (후렴)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후렴)
 이팔청춘들아 백발 보고서 웃지를 마라/ (후렴)
 나두 어저께는 청춘인걸/ (후렴)
 오늘와서 백발이 됐네/ (후렴)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고/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어/ (후렴)
 이세상에 태어날제/ (후렴)
 뉘덕으로 태어났나/ (후렴)

* 1997.2.17. 구자원(79세, 남), 김용성(71세, 남), 오관영(72세, 남, 올면 본죽리)

0203-4 : 4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고웅 에헤리 달고웅 (후렴)
 불쌍하구 가련두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하다/ (후렴)
 어저께 밤에두 성튼 몸이/ 오날 아침에 병이 들어/ (후렴)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머는 허사로다/ (후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어덜떨거리구 나는 간다/ (후렴)
 사람은 많어두 소리가 작네/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가 좋게/ 옆에 사람은 보기가 좋게/ (후렴)

* 1997.2.17. 안달웅(60세, 남, 올면 본죽리)

0204-1 : 4 달구질노래

- 에헤이 달구 에헤이 달구 (후렴)
- 여보시오 역군님네/ (후렴)
- 이네 말쌈 들어보소/ (후렴)
- 풍향신구 더듬을제/ (후렴)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
- 수지조종은 황하수고/ (후렴)
- 그산 낙맥이 뚝떨어져/ (후렴)
- 어정에 들어가서/ (후렴)
- 일진맥은 뚝떨어져/ (후렴)
- 압록강을 건너와서/ (후렴)
- 동양장구 더듬을제/ (후렴)
- 백두산에 기봉하고/ (후렴)
- 팔도강산 더듬을제/ (후렴)
- 강원도는 금강산에/ (후렴)
- 경기도는 산각산에/ (후렴)
- 충청도는 계룡산에/ (후렴)
- 경상도는 태백산에/ (후렴)
- 전라도는 지리산에/ (후렴)
- 제주도는 한라산에/ (후렴)
- 팔도강산 매겨놀제/ (후렴)
- 백두산에 뚝떨어져/ (후렴)
- 몽실몽실 내려와서/ (후렴)
- 경기도를 들어가서/ (후렴)
- 삼각산이 땃을 지에/ (후렴)
- 이조오백년 맥일어날제/ (후렴)
-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 삼각산만 뚝떨어져/ (후렴)

북악산을 매겨놀재/ (후렴)
한강이 조수되어/ (후렴)
이씨왕터 매기고/ (후렴)
일진맥은 딱떨어져/ (후렴)
어정에 들어올제/ (후렴)
용산동을 더듬어서/ (후렴)
북두리 경로당 되어/ (후렴)
학생들이 여기와서/ (후렴)
옛날 역사를 바로보니/ (후렴)
북두리 2리에서/ (후렴)
올애기 돌아왔네/ (후렴)

* 1997.2.18, 송경수(77세, 남, 울면 북두리) 외 2인

0204-1 : 6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후렴)
하나 둘이 할지라도/ (후렴)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우렁 우렁 하여를 보소/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를 좋고/ (후렴)
옆에 사람은 보거나 좋게/ (후렴)
우렁 우렁 하여를 보소/ (후렴)
잘도 하시네 잘도 해요/ (후렴)
우리 군장님들 잘도나 하시네/ (후렴)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2 : 2 달구질노래

에헤 에헤 에헤 달구/ 에헤이 달구 에헤야 달구 (후렴1)
마봉산 꼭대기 툇 떨어졌소/ (후렴1)
이리갈까 저리갈까/ 어허 어허 달구 에헤라 달구 (후렴2)
어느 집안을 잡았는지/ (후렴2)
여기 있는 명당이다/ (후렴2)
사방을 훑어보니/ (후렴2)
이산 저산 앞이트고/ (후렴2)
어느 집안을 잡았는지/ (후렴2)
여기 있는 명당이다/ (후렴2)
어허 달구 이히라 달구/ (후렴1)
인생 일장 춘몽인데/ (후렴1)
아니놀지는 못하겠네/ (후렴1)
사람이 많아도 소리가 적어/ (후렴1)
목이 마르면 술을먹고/ (후렴1)
목이 가면은 냉수를 먹지/ (후렴1)

* 1997.2.18, 윤석근(66세, 남, 울면 산양리)

0207-1 : 1 달구질노래

조선국을 마련할 때/ 십팔도로 마련하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십팔도를 역임하니
황해도를 불러들여/ 경기도로 불러들여
그 산맥 툇 떨어지구/ 이 산맥에 접어드니
강원도로 돌아드니/ 금강산이 솟았구나
금강산 명당 여길러라/ 그 산맥이 툇 떨어지구
한양성이 솟았구나/ 삼각산 여길러라
그 산맥이 툇떨어지니/ 충청도로 내려와

충청도로 접어드니/ 계룡산이 명길러라
 그 산맥이 떨어지고/ 경상도로 내려가
 경상도라 대구 팔공산/ 그 영기 떨어지고
 전라도로 내려가/ 전라도로 뚜렷하니
 무등산이 명길러라/ 그 산맥이 떨어지구
 제주도로 가라하나/ 동해바다 변천느냐
 서해바다가 변천느냐/ 물이 깊어 못가겠네
 나무배를 타고가자/ 나무배는 썩었구나
 돌배를 타구가자/ 돌배는 가라앉고
 제여래 불러다가/ 제레엄을 타고가자
 제주도가 뚜렷하네/ 한라산이 명산이요
 그 산맥에가 떨어져/ 육지로나 접어들자
 육지 바다에 떨어지니/ 어드메냐 - 어드메냐
 부산항구로 접어들자/ 부산항구에 육지는
 바다가 육지 됐네/ 경상도로 접어드니
 경상도가 뚜렷하고/ 대구시가 분명하네
 대구도로 접어드니/ 경부선으로 접어들자
 강원도 충청도로 접어드니/ 충청도에 계룡산 명길러라
 허산 산맥에 떨어지고/ 팔성산에 명길러라
 그산 명산인데/ 명산대천 찾아요
 청왕봉에도 집을 지으니
 지관불러 명당터를 만나/ 행엄대 이 터를 보고
 자좌오행 군자노니/ 군자오행에 계자놓고
 개자위에 신음자/ 신음자위에 자잘러라
 초가 팽이로 푹푹 파/ 베개로 비계 삼아
 빗장으로나 지붕 삼고/ 무주공산 집을 지으니
 첩첩 산중이다/ 예-혜 달구
 명산대천이 찾아가/ 예-혜 달구

경계 보아요 집을 짓고/ 자손만대나 부귀주고/ 에--헤 달구
이산 저산을 바라보니/ 노적 구겠구나/ 에--헤 달구
홍이나 산맥 맥일러라/ 팔도명산의 명길러라/ 에--헤 달구
산천초목 다 다르니/ 골골마다 집터지네/ 에--헤 달구

* 1997.2.29. 권삼균(58세, 남, 울면 산성리)

0208-6 : 2 달구질노래

에헤 회리 달고 에헤 회리 달고 (후렴)
무학대사를 모시고서/ (후렴)
백두산에서 내려다 보니/ (후렴)
그산 낙맥이 뚝 떨어져/ (후렴)
차령산에 기봉을 드리고/ (후렴)
그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후렴)
팔성산에 기봉을 했네/ (후렴)
그산 낙맥이 뚝떨어져서/ (후렴)
이병각에 다 문혔으니/ (후렴)
이병 등에 돌아보니/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천하대지가 분명쿠나/ (후렴)
이병 등에 누울쏘면/ (후렴)
앞으로 자손이 번창하여/ (후렴)
과학부장관이 없을 쏘나/ (후렴)
문교부장관이 날것이고/ (후렴)
교통부장관도 날것일세/ (후렴)
상공부장관이 날것이며/ (후렴)
통일원장관도 날자리일세/ (후렴)
과학부장관이 나는가 하면/ (후렴)

국무총리도 날것일세/ (후렴)
총리가 날것이면/ (후렴)
대통령도 날자리일세/ (후렴)
대통령이 낱고 나면/ (후렴)
우리 고장도 발전하여/ (후렴)
고속도로 날것이고/ (후렴)
오층 아파트 설것일세/ (후렴)
우리 인생 이왕이면/ (후렴)
호의 호식을 하여나 보세/ (후렴)
여보시오 군자님네/ (후렴)
잘다지고 잘다져서/ (후렴)
지하대궐을 만들어 보세/ (후렴)
* 1997.1.30. 조남성(58세, 남, 울면 오성리)

0210-1 : 5 달구질노래

에헤이 달구음 우호이 이 달구음
에헤이 달구음 우호이 이 달구음 (후렴)
여보시오 군정님네/ (후렴)
이 내 한말을 들어보소/ (후렴)
팡팡튀겨 달구질할세/ (후렴)
여보시오 우리님네/ (후렴)
어느 누가 원망을 하랴/ (후렴)
사계절이 지나서/ (후렴)
엄동설한 이해 저해/ (후렴)
* 1997.1.30. 김홍섭(65세, 남), 김인배(75세, 남, 울면 총곡리)

0302-2 : 2 달구질노래

에헤 에헤리 달고~ 호/ 에헤 에헤리 달고~ 호 (후렴)
에헤 에헤리 달고~ 호/ (후렴)
백두산이나 원산이 되고/ (후렴)
한라산이나 조산이 되어/ (후렴)
두만강수는 외수구 되고/ (후렴)
압록강이나 내수구 된다/ (후렴)
태백산맥은 청룡이 되고/ (후렴)
소백산맥은 백호가 된다/ (후렴)
조산 원산이 뚜렷하고/ (후렴)
내수구 외수구 뚜렷하여/ (후렴)
청룡 백호 뚜렷하니/ (후렴)
늘에 이자리 명당이로다/ (후렴)
두산 낙맥이 똑떨어져서/ (후렴)
노성산이 생겼으니/ (후렴)
노성산 낙맥이 똑떨어져/ (후렴)
봉노재가 생겼으니/ (후렴)
장능리 능동 이씨대주/ (후렴)
오늘에 이자리가 명당이로다/ (후렴)
에헤 에헤리 달고~ 호/ (후렴)
에헤 에헤리 달고~ 호/ (후렴)

* 1997.11.14, 오성출(56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2-3 : 4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공/ 야 회리 달공/ 야 회리 달공 (후렴)
백두산이나 먼산이 되고/ (후렴)
한라산이나 저산이 되어/ (후렴)

두만강수는 외수구 되고/ (후렴)
 압록강이나 내수구 되어/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노성산의 정기 받아/ (후렴)
 김씨안택 정할 적에/ (후렴)
 자좌오행 군자노니/ (후렴)
 군자오행에 계자놀고/ (후렴)
 개자위에 신음자/ (후렴)
 신음자 위에 자잘러라/ (후렴)
 무주공산에 터를 마련하니/ (후렴)
 첩첩이 산중이로다/ (후렴)
 경계를 둘러보니/ (후렴)
 자손만대 부구하고/ (후렴)
 이산 저산 정기받아/ (후렴)
 흥이 날 산맥일세/ (후렴)
 팔도명산의 명지일세/ (후렴)
 야 회리 달공

* 1997.11.15. 흥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3-1 : 3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구~/ 에헤리~ 달구~ (후렴)
 노던 상을 비껴치구/ 청백같은 인연맺어/ (후렴)
 백봉산에 칼매치구/ 나 홀로 떠나가네/ (후렴)
 남아남아 우리남아/ 님 골짜를 어디다 뵈나/ (후렴)
 백봉산에 돛단 달구/ 중해바다에 님을 뵈나/ (후렴)

* 1997.4.11. 김병철(47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5-1 : 4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후렴)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정은 황하순데/ (후렴)

그산 낙맥이 뚝떨어져/ (후렴)

압록강을 건너와서/ (후렴)

백두산에 기봉하고/ (후렴)

팔도강산 더듬을제/ (후렴)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5-3 : 5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 (후렴)

여보시오 군중님께/ 이내말씀 들어보소/ (후렴)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정은 황하순데/ (후렴)

에헤리 달공/ 에헤리 달공(후렴)

그산 낙맥이 뚝떨어져/ (후렴)

압록강을 건너와서/ (후렴)

동양장구 더듬을제/ (후렴)

백두산에 기봉하고/ (후렴)

팔도강산 더듬을제/ (후렴)

강원도는 금강산에/ (후렴)

경기도는 삼각산에/ (후렴)

충청도는 계룡산에/ (후렴)

경상도는 태백산에/ (후렴)

전라도는 지리산에/ (후렴)

제주도는 한라산에/ (후렴)

팔도강산 매겨놀이/ (후렴)
백두산에 뚝떨어져/ (후렴)
몽실몽실 내려와서/ (후렴)
경기도를 들어가서/ (후렴)
설성면에 들어가서/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안택을 정할 적에/ (후렴)
자좌오행 군자노니/ (후렴)
군자오행에 제자놀이/ (후렴)
개자위에 신음자/ (후렴)
신음자 위에 자잘러라/ (후렴)
경계를 둘러보니/ (후렴)
자손만대 부귀하고/ (후렴)
이산 저산 정기반야/ (후렴)
흥이 날 산맥일세/ (후렴)
팔도명산의 명지일세/ (후렴)
에헤리 달공

* 1997.11.22, 방인석(66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6-1 : 6 달구질노래

야히리 야아헤히 달공/ 야히리 야아헤히 달공 (후렴1)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을 들어보게/ (후렴1)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며/ (후렴1)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석님전 복을 빌어/ (후렴1)
이내일신 탄생하니/ 부모은공을 어이하나/ (후렴1)

오호 오호이 오호야 오호야/ 오호 오호이 오호야 오호야 (후렴2)

통두란은 삼장이요/ 정삼봉은 모사로다/ (후렴2)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06-2 : 4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공/ 야 회리 달공/ 야 회리 달공 (후렴1)

무정새월 야유파라/ (후렴1)

(이하 회심곡)

호호오 호호이 오호야 호호야

호호오 호호이 오호야 호호야 (후렴2)

통두란은 삼장이요/ (후렴2)

정삼봉은 모사로다/ (후렴2)

일조에 반정해여/ (후렴2)

수천궁을 득달하니/ (후렴2)

등극한새 칠일만에/ (후렴2)

태평과를 보이실듯/ (후렴2)

정포은 두려해여/ (후렴2)

과거불자 없건만은/ (후렴2)

태조대왕 분을내여/ (후렴2)

정포은을 잡으렐제/ (후렴2)

금오산성 올라가니/ (후렴2)

벽석을 느지하고/ (후렴2)

완연히 누웠건만/ (후렴2)

정포은을 불러내려/ (후렴2)

선죽교 다리위에/ (후렴2)

말 물을제 하는 말이/ (후렴2)

말들으면 벼슬주고/ (후렴2)

안들으면 죽이리라/ (후렴2)

조영국에 그든 보석/ (후렴2)
삼십근 쇠방망이/ (후렴2)
소매속에 집어넣고/ (후렴2)
좌편에 서서있네/ (후렴2)
정포은에 거동봐라/ (후렴2)
이몸이 죽고 죽어/ (후렴2)
백번을 죽을진들/ (후렴2)
한번 먹은 맘 변할쏘냐/ (후렴2)
조영국에 거동봐라/ (후렴2)
삼십근 쇠방망이/ (후렴2)
소매속에 번듯매어/ (후렴2)
푹머리 내려치니/ (후렴2)
그런후로 지금꺼정/ (후렴2)
다리위에 피가흘러 완연하네/ (후렴2)

* 1997.11.22. 최덕교(81세, 남, 설성면 장천리)

0307-1 : 5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공 야 회리 달공 (후렴)
세상천지 동포님네/ (후렴)
요내 한말씀 들어를 보소/ (후렴)
요내 일생 탄생을 할제/ (후렴)
뉘 덕으로만 탄생을 했나/ (후렴)
아버님전 뼈를 다 빌고/ (후렴)
어머님전 살을 다 빌어/ (후렴)
칠성님전 명을 다 빌고/ (후렴)
제석님전 명을 다 빌고/ (후렴)
열달하구 개설을 한 후/ (후렴)

300 이천의 옛노래

이세상에 탄생을 할제/ (후렴)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09-1 : 4 달구질노래

에헤이라 달구/ 에헤이라 달구 (후렴)

삼각산이 뚝떨어져서/ (후렴)

한강수가 조수가 되고/ (후렴)

봉학을 눌러 대궐을 짓고/ (후렴)

영문이 각도 각읍을 정할제/ (후렴)

경기도 뚝떨어져서/ (후렴)

어디러로 다녀가나/ (후렴)

경기도로 뚝떨어져서/ (후렴)

경기도라 이천땅에/ (후렴)

이리저리 길을 물어보니/ (후렴)

설성면 노성산이 명당이네/ (후렴)

노성산이 좋다하니 어디인가/ (후렴)

설성면에 들어서서/ (후렴)

명당터를 정할적에/ (후렴)

* 1997.11.29, 주영표(74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09-1 : 5 달구질노래

에헤이라 달구/ 에헤이라 달구 (후렴)

삼각산이 뚝떨어져서/ (후렴)

한강수가 조수가 되고/ (후렴)

봉학을 눌러 대궐을 짓고/ (후렴)

영문이 각도 각읍을 정할제/ (후렴)

경기도 뚝떨어져서/ (후렴)

어디러로 다녀가나/ (후렴)
경기도로 뚝떨어져서/ (후렴)
경기도라 이천땅에/ (후렴)
이리저리 길을 물어보니/ (후렴)
설성면 노성산이 명당이네/ (후렴)
노성산이 좋다하니 어디인가/ (후렴)
설성면에 들어서서/ (후렴)
명당터를 정할적에/ (후렴)

* 1997.12.15. 최관영(80세, 남), 권태균(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310-1 : 5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고/ 야 회리 달고 (후렴)
경기도라 이천땅은/ (후렴)
우리나라 길지인데/ (후렴)
그 중에도 노성산은/ (후렴)
산맥중에 명길러라/ (후렴)
명당터를 잡을적에/ (후렴)
천하명관 대동하고/ (후렴)
자좌우행 군자노니/ (후렴)
군자오행에 게자 놓고/ (후렴)
개자 위에 신읍자/ (후렴)
신읍자 위에 자잘러라/ (후렴)
무주공산에 터를 마련하고/ (후렴)
첩첩산중에 안택을 정하니/ (후렴)
명길러라 발복하리/ (후렴)
야 회리 달고/ (후렴)

* 1997.12.15. 김재선(62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0-2 : 5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고/ 야 회리 달고 (후렴)

달고질 하시는 군중님께/ (후렴)

요내 말쌈을 들어를 보소/ (후렴)

달고질을 다 사람을 두나/ (후렴)

술이나 생겨두 삼잔일세/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진다 꽃진다 설위를 마라/ (후렴)

명년삼월 봄이오면/ (후렴)

졌던 꽃두나 피련마는/ (후렴)

우리네 인생 한 번가면/ (후렴)

다시 오지는 못하리라/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후렴)

사람밖에나 또있는가/ (후렴)

이 세상에 나온사람/ (후렴)

뉘덕으로나 나왔는가/ (후렴)

석가여래나 공덕으로/ (후렴)

아버님전에 뼈를 빌어/ (후렴)

어머님전에 살을 다빌어/ (후렴)

이내일신이 탄생하니/ (후렴)

한두살에 철을 다 몰라/ (후렴)

부모은덕을 다하여 본다/ (후렴)

인간칠십 고래회라/ (후렴)

원통하구 애달토다/ (후렴)

꿈결 같이두 곱던 손이/ (후렴)

호환 같이두 병이 드니/ (후렴)

절통하구두 분통하다/ (후렴)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삼봉리)

0310-2 : 7 달구질노래

에야 회리 달고/ 에야 회리 달고 (후렴)
에야 회리 달고/ 에야 회리 달고 (후렴)
명당터를 닦을 적에/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자좌우향 쇠를 놓고/ (후렴)
발복지를 택하여서/ (후렴)
명당터에 안택을 지니/ (후렴)
삼년 안에 발복하리다/ (후렴)
아들 나면 충신되고/ (후렴)
딸이면은 열녀로다/ (후렴)
소를 치면 황소요/ (후렴)
닭을 치면 봉황이로다/ (후렴)
우리 모두 우렁차게/ (후렴)

* 1997.12.15. 권영신(66세, 남), 한승우(7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5 달구질노래

에헤이리 달구/ 에헤이리 달구 (후렴)
달고질 사람 많기도 한데/ (후렴)
달고소리 너무나 적다/ (후렴)
우리 모두 합심하여/ (후렴)
달고질 한번 잘해보세/ (후렴)
한 돌이 하더라도/ (후렴)
열 스물이 하는 듯이/ (후렴)
우렁차게 하여를 보세/ (후렴)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1-1 : 6 달구질노래

야 에헤이 달고오/ 야 에헤이 달고오 (후렴)
달고질하는 사람은 많기도 한데/ (후렴)
달고질 소리가 너무나 적다/ (후렴)
목이 마르면 술을 주고/ (후렴)
먼데 사람은 보거나 좋게/ (후렴)
곁에 사람은 듣거나 좋게/ (후렴)

* 1997.12.15, 권영재(60세, 남, 설성면 수산리) 외 3인

0401-3 : 4 달구질노래

오호이 달고/ 에에야 헤리 달고
에헤야 헤리 달고/ 에에야 헤리 달고 (후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너희들을 두고 나혼자 가면
서러워서 못갈 것음/ (후렴)
장가들어 잘살려고 하였더니/ 인생 스물여섯에 세상을 떠나니/ (후렴)
모든 것을 두고 너희들을 두고가니/ 원통하고 가련하다/ (후렴)
에라르 헤리 달고/ (후렴2)

* 1998.3.27, 정의남(58세, 남), 박문기(66세, 남, 미장면 오천리)

0406-1 : 11 달구질노래

에야 헤리 달고오/ 에야 헤리 달고오
에야 헤리 달고오/ 에야 헤리 달고오 (후렴)
여보시오 젊은이들/ (후렴)
한숨에 받고 한숨에 받지/ (후렴)
한번 가면 언제오나/ (후렴)
명년 삼월에 다시 오나/ (후렴)
앞산에는 청춘비만/ (후렴)

뒤산에는 백발이랑/ (후렴)

...(생략됨)...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408-1 : 2 달구질노래

세상천지에 만물중에/ 에야 회리 달고 (후렴1)

사람 밖에 더 있느냐/ (후렴1)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적에/ (후렴1)

아버님에게 뼈를 받고/ (후렴1)

어머님 전에 살을 빌어/ (후렴1)

석달 만에는 피를 모고/ (후렴1)

여섯 달 만에는 입이 생겨/ (후렴1)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적에/ (후렴1)

우리의 부모가 날 기를 적에/ (후렴1)

마른 자릴랑 아기를 낚으며/ (후렴1)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후렴1)

쓰디쓴 것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후렴1)

달디단 것은 아기를 먹여/ (후렴1)

오뉴월이라 한 여름밤에/ (후렴1)

모기 빈대가 들끓을 때라/ (후렴1)

둥그러진 잠을 못다주무시고/ (후렴1)

동지선달 소담풍에/ (후렴1)

백설이 펄펄 날리는데/ (후렴1)

배부른데다가 덮어주고/ (후렴1)

사랑에 겨워서 하시는 말씀이/ (후렴1)

은자동아 금자동아/ (후렴1)

나라에는 충신동아/ (후렴1)

일가친척에는 화목동아/ (후렴1)

동네방네 귀염동아/ (후렴1)
채색비단에 오색동아/ (후렴1)
오색비단에 채색동아/ (후렴1)
둥글둥글 수박동아/ (후렴1)
금을 주면 너를 사라/ (후렴1)
은을 주면 너를 사라/ (후렴1)
애지중지해 기른정을/ (후렴1)
부모에 은공을 못값으며는/ (후렴1)
태산이라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후렴1)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세파에 부딪기어/ 남은 것은 한 뿐이라/ (후렴2)
만가 풍나가 비바람에/ 기달리구 기달리어/ (후렴2)
기달리구 기달리에/ 소로평야게 물이되니/ (후렴2)
차라리 갓을 치구/ 산중으로나 들얼가서/ (후렴2)
세상 번뇌를 잊어 볼까/ 세상고뇌를 잊어볼까/ (후렴2)
뒷동산에 자리도 하고/ 깨진 처마를 지쳐입고/ (후렴2)
원망하다 우리 님은/ 한없이도 기다리다가/ (후렴2)
일경 이경 삼사 오경/ 어느 사이 저녁일세/ (후렴2)
놀자 놀자 긴긴 밤을/ 혼전불매 잠 못들제/ (후렴2)
삼사 이경 애타는 놀/ 이내 상념 다시오다/ (후렴2)
이번 달구질은 그만 두시고/ 그 다음 달구질로 넘겨봅시다

오호오오 휘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마무리를 한다)

* 1998.4.26, 지길현(47세, 남, 마장면 이치리)

0410-1 : 5 달구질노래

에라 회리 달고오/ 에라 회리 달고오 (후렴)

여보시오 역군님네/ (후렴)

이 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풍향신구 더듬을 제/ (후렴)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후렴)

그 산 낙맥이 뚝 떨어져/ (후렴)

어정에 들어가고/ (후렴)

* 1998.4.25. 이준수(60세, 남, 마장면 덕평리)

0410-2 : 2 달구질노래

이내 말씀을 들어나 보소/ 에라 에이리 달고 (후렴1)

바람 막에 소리나요/ (후렴1)

천지 신명께 명복을 빌고/ (후렴1)

천년 살면은 만년을 살어/ (후렴1)

몸아 넌 늙지를 마라/ (후렴1)

산수 재미가 없구나/ (후렴1)

홍겨웁기도 하려만은/ (후렴1)

동네사람들 모이시오/ (후렴1)

인간 칠십은 고래회요/ (후렴1)

잠든 날 병든날을 빼면/ (후렴1)

삼사십을 못사는 인생/ (후렴1)

우리 인생 한번 가면/ (후렴1)

아차 한번 실수 하면/ (후렴1)

어느 시절에 다시를 올까/ (후렴1)

명년 삼월 꽃이 피면/ (후렴1)

너는 다시 피련만은/ (후렴1)

소리가 약해서 못하것네/ (후렴1)

김학선 이놈아 어디를 갔나/ (후렴1)

김학선 이놈들 어디들 갔느냐/ (후렴1)

산선 앞에 명복을 벌고/ (후렴1)

청춘 남녀가 혼인을 하면/ (후렴1)

은 세상에는 기쁨이 있어/ (후렴1)

나비같이 훨훨 날아/ (후렴1)

세상만사를 움직일적에/ (후렴1)

천리라도 살이는 가고/ (후렴1)

만리라도 살이는 가고/ (후렴1)

에라 에이 달고 고시래/ (후렴2)

에라 에이 달고 고시래/ (후렴2)

에라 에이 달고 고시래/ (후렴2)

여보시오 신부님네/ (후렴2)

범아 명복을 빌적에/ (후렴2)

높고 높은 명복하교/ (후렴2)

아하 자다가 후회 말고/ (후렴2)

천하 일색 양귀비도/ (후렴2)

한번 가면 다시 못오면/ (후렴2)

다시 오기가 어려운데/ (후렴2)

높은산에도 재날리고/ (후렴2)

천년 살면 만년을 살아/ (후렴2)

부명당에 집을 짓고/ (후렴2)

대명당에 우물 파서/ (후렴2)

흥겨웁게 노래를 하면/ (후렴2)

북소리가 흥겨운데/ (후렴2)

한강아 부러워 마라/ (후렴2)
 바람이 불면 나는 새야/ (후렴2)
 눈보라 치면 북풍한설 찬바람에/ (후렴2)
 눈물이 앞가려 못가것네/ (후렴2)
 한도 많고 설움도 많다/ (후렴2)
 돌아온다 돌아온다/ (후렴2)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후렴2)
 늙어지면은 못는다/ (후렴2)
 어찌면 이렇게 좋을시구/ (후렴1)
 건강하기를 좋다치면/ (후렴1)
 곱끼 곱게도 피었건만/ (후렴1)
 얼씨구나 놀다가자/ (후렴1)
 북소리가 흥겹도다/ (후렴1)
 손자며느리를 다갔다취도/ (후렴1)
 살아생전에 못다한 정을/ (후렴1)
 이제서야 찾는구나/ (후렴1)
 얼씨구나 놀다갈까/ (후렴1)
 짹짹 놀러서 다져들 줘요/ (후렴1)
 인간 세상 남은 서약 마오/ (후렴1)
 오호야 오호야/ (후렴1)

* 1998.5.25, 김성배(51세, 남, 마장면 덕평리)

0411-3 : 2 달구질노래

에라 회리 달고오/ 에라 회리 달고오 (후렴1)
 얼싸 좋다 잘덜두 달네/ (후렴1)
 꿈꿈히 잘덜두 달에/ (후렴1)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고/ 가견데 사람은 보기나 좋고/ (후렴)

너의 집은 꽃밭이로다/ 요내 집은 연못인데/ (후렴)

어허 어허이 어허이야 호호야하

오호 어허이 어허허이야 오호야하/ (후렴2)

얼싸 좋고 잘덜두 단네/ (후렴2)

오호 오호이 오호호이야 오호야하/ (후렴2)

* 1998.4.10, 유성열(67세, 남, 마장면 이평리)

0412-1 : 6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고/ 에헤리 달고 (후렴)

명당터를 닦을 적에/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자좌우향 쇠를 놓고/ (후렴)

발복지를 택하여서/ (후렴)

* 1998.3.29, 김종필(71세, 남, 마장면 해물리)

0504-1 : 2 달구질노래

세상에 천지만물 중에/ 사람밖에야 더 어디 있나

야~ 해리 달구 (후렴)

여보시오 시주님네/ 요네야 말씀을 들어보세/ (후렴)

이런저런 여러날에/ 개성의 원문을 달아노니/ (후렴)

무주야 낙천에 마루나 낙천/ (후렴)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 들어/ (후렴)

인정따라서나 가시는구나/ (후렴)

인정 줄돈은 반푼도 없냐/ (후렴)

담배를 물고서 무신 제군/ (후렴)

인정이나 한번 떠나 볼까/ (후렴)

개성으로나 옮겨나 볼까/ (후렴)
 한질의 부채를 가져를 갈까/ (후렴)
 의복을 벗어서 인정을 쓰며/ (후렴)
 열두나 대문을 들어를 가니/ (후렴)
 무서웁기두나 끝이나 없고/ (후렴)
 두려웁기두나 처량도 없다/ (후렴)
 구사야 당해야 하직을 하고/ (후렴)
 사사당에다 허배를 하고/ (후렴)
 적삼을 대어 손에나 들고/ (후렴)
 혼백을 불러서 처혼을 한다/ (후렴)
 웃는 곡성이 양자하다/ (후렴)
 일찍이 사자는 서를 끌고/ (후렴)
 멀찍이 사자는 등을 밀며/ (후렴)
 님내징을 등대를 할 때/ (후렴)
 정신을 차려서 살펴보니/ (후렴)
 약산 관을 놔 본절을 돕고/ (후렴)
 지상의 구월은 극진을 한데/ (후렴)
 죽은 내 목숨이 살아날쏘냐/ (후렴)
 옛 노인의 말씀 들으니/ (후렴)
 호방지방에 모라를 낼제/ (후렴)
 높은데는야 낮어나지고/ (후렴)
 아기야 악시게 구신제고/ (후렴)
 사자님아 사자님아/ (후렴)
 내 말 한마디 들어나 주오/ (후렴)
 대 광랑한데 심심하고/ (후렴)
 어느나 사자가 들을 소냐/ (후렴)
 아니고야 답답 설움을 지고/ (후렴)
 이를 어이나 과장 말고/ (후렴)

불쌍도 하구나 이내 일심은/ (후렴)
인간 하직이 만국도하다/ (후렴)
명사야 십리야 해당화야/ (후렴)
꽃이나 진다고 서러워마라/ (후렴)
명년 춘삼월 돌아나 오면/ (후렴)
너는야 또다시 피련만은/ (후렴)
우리야 인생 한번 가면/ (후렴)
또 다시 오기는 어렵도다/ (후렴)

* 1998.8.4, 김윤수(65세, 남, 부발읍 고백리)

0510-1 : 9 달구질노래

에라헤리 달공 에라헤리 달공
에라헤리 달공 에라헤리 달공 (후렴)
달고지로 실은 군밤님네/ (후렴)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후렴)
가까운데 사람은 보기도 좋게/ (후렴)
마음을 합쳐서 잘 다져보세/ (후렴)
긴소리 이만하고 짧은소리로 넘어가세/ (후렴1)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601-1 : 10 달구질노래

야 호리 달고/ 야 호리 달고 (후렴)
여보시오 군방님네/ (후렴)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북망산천 찾아와서/ (후렴)
하관하구 달구하니/ (후렴)

인간세상 끝이로다/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렴)
 꽃진다고 슬퍼마라/ (후렴)
 명년삼월 돌아오면/ (후렴)
 꽃은 다시 피련마는/ (후렴)
 황천길이 얼마 멀면/ (후렴)
 한번 가면 못오나니/ (후렴)

* 1999.1.16. 김대기(81세, 남), 주구홍(90세, 남), 주내영(76세, 남), 박도훈(81세, 남, 장호원읍 내려리)

0602-1 : 19 달구질노래

에라 헤리 달고/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달고지하시는 군중님네/ (후렴1)
 석자 세치를 지굴르고/ (후렴1)
 석자 세치를 내려굴려/ (후렴1)
 삼할이 되도록 다지실제/ (후렴1)
 우리 인생이 마련될제/ (후렴1)
 어찌나 하여 마련됐나/ (후렴1)
 어허 한지나 복덕을 가려내서/ (후렴1)
 좋은 질 지일 뽑아내서/ (후렴1)
 인간 세상을 태어나서/ (후렴1)
 한 두살에 철을 몰라/ (후렴1)
 어허 부모 은공 못다 갚고/ (후렴1)
 이세상 하직하니/ (후렴1)
 절통하고도 가련하오/ (후렴1)
 연연이도 보건마는/ (후렴1)
 초로 같은 인생 한번 가면/ (후렴1)
 여긴 다시 못오시오/ (후렴1)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어느 시절 내가 오나/ (후렴2)
가마솥에 삶은 계란/ 어딩딩 지지면 내가 오나/ (후렴2)
인제 가면 못오시면/ 못오시면 영영 다시 못오시오/ (후렴2)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서러마오/ (후렴2)
꽃은 명년 봄이 되면/ 잎 피고도 꽃이 피련만/ (후렴2)
목도 마르고 출출하제/ 고만 저만 다져 보세/ (후렴2)
* 1999.1.13. 이삼태(74세, 남), 최용익(74세, 남, 장호원음 노트리)

0603-1 : 2 달구질노래

에야 호리 달고 고시래
에야 호리 달고 고시래
에야 호리 달고/ 에야 호리 달고 (후렴)
아야 보시오 군방님네/ (후렴)
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아하 어머님전 살을 빌고/ (후렴)
아하 아버님전 뼈를 빌고/ (후렴)
아하 명년삼월 봄이오면/ (후렴)
아하 잠갔던 싹도 트건마는/ (후렴)
아하 우리 인생 한번 가며는/ (후렴)
영영 오기가 어려워라/ (후렴)
아하 피었던 꽃도 시들어지면/ (후렴)
어떤 나비도 아니온다/ (후렴)
아하 나무도 죽어 고목되면/ (후렴)
눈먼 새도 아니온다/ (후렴)
입두나 옷두 떨어지면/ (후렴)
굽은 매루다 돌아간다/ (후렴)

아하 목구녕두 쉬어지면/ (후렴)
 아하 뜬물통으로 돌아간다/ (후렴)
 사람은 많아두 소린 적다/ (후렴)
 아하 우리인생 죽어지면/ (후렴)
 화장터 복동을 찾아가네/ (후렴)
 엄마 엄마 나죽거든/ (후렴)
 앞산에두 묻지말구/ (후렴)
 뒷산에두 묻지 말구/ (후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소/ (후렴)
 눈이 오면 쓸어주고/ (후렴)
 비가 오면 덮어주소/ (후렴)
 나도 한뎀 좋았건만/ (후렴)
 자손들아 나오너라/ (후렴)
 일가친척이 많다해도/ (후렴)
 어느 누가 대신가느냐/ (후렴)
 먹을 것을 못다먹고/ (후렴)
 입을 것을 못다입고/ (후렴)
 북망 산천이 웬말이냐/ (후렴)
 아하 내가 너를 길블적에/ (후렴)
 예야 호리 달고/ (후렴)
 어서 바빠 시행하라/ (후렴)
 사람은 많아도 소린 적다/ (후렴)
 불쌍하구두 가련하다/ (후렴)
 힘두들구 목두타니/ (후렴)
 이제 그만 쉽시다/ (후렴)

둥둥둥 (복을 잘게 친다)

* 1999.1.13.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을 오님리)

0605-1 : 7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고/ 에헤리 달고(후렴)
이 세상에 태어날적/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어/ (후렴)
아버님전 뼈를 받아/ (후렴)
이런 시련 다제쳐 놓고/ (후렴)
육석만에 뼈를 모아/ (후렴)
십석만에 태어를 나서/ (후렴)
부모은공 갓자하니/ (후렴)
어느덧 몰래 이십이 됐네/ (후렴)
처자식을 길르다 보니/ (후렴)
부모은공은 언제 갓나/ (후렴)
어느덧 모르게 오십이 됐어/ (후렴)
부모은공 갓자고 하니/ (후렴)
검은 머리는 파뿌리 되고/ (후렴)
아니 먹은 귀는 절벽이 됐네/ (후렴)
그 좋던 박씨는 다 빠져가고/ (후렴)
이제 나는 무엇이던가/ (후렴)
젊은애들이 하는 소리가/ (후렴)
이제 누가 날 그려주나/ (후렴)
달은 문을 박차면서/ (후렴)
나도 엇그저께 청춘이었던데/ (후렴)
우째면 이렇게 이럴수 있나/ (후렴)
내가 가면 어디루 가나/ (후렴)
가는 군대는 한군텐데/ (후렴)
여보시오 며느리 양반/ (후렴)
어느덧 나도 청춘이었구나/ (후렴)
그래다 보니 그게 아니네/ (후렴)

저승사자가 오더니마는/ (후렴)
 한마디 하는게 무엇이던가/ (후렴)
 한쪽 손엔 철봉을 들고/ (후렴)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후렴)
 어서 가자 바빠가자/ (후렴)
 등을 밀어 지쳐갈적에/ (후렴)
 여보시오 사자님네/ (후렴)
 내가 가는 이마당에/ (후렴)
 신발이나 고쳐 신읍시다/ (후렴)
 이래다 보니 그게 아니다/ (후렴)
 철봉같은 거루 등을 밀어/ (후렴)
 가다보니 이게 아니오/ (후렴)
 높은데는 낮아지구서/ (후렴)
 앞은데는 높아지구서/ (후렴)
 곁팡질팡 가다보니까/ (후렴)
 바로 저기가 저승길일세/ (후렴)
 여보시오 동네분들/ (후렴)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후렴)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신읍리)

0607-1 : 1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고/ 에헤리 달고 (후렴)
 상수자리를 찾아 보세/ (후렴)
 백두산 찾아 둘러보니/ (후렴)
 아내하리기두 태비가 없어/ (후렴)
 하울 삼각산 둘러보니/ (후렴)
 아하 여기두 태비가 없네/ (후렴)

망치기산으로 둘러보니/ (후렴)
어하 거기두 태비가 없어/ (후렴)
아하 백족산을 찾아보니/ (후렴)
어하 천하태비가 나왔구나/ (후렴)
여하 천하태비루 상수를 모시게/ (후렴)
대등 허리를 찾았구나/ (후렴)
이산자리에 상수를 모시면/ (후렴)
남자라면 효자 두고/ (후렴)
여자라 생길적에/ (후렴)
아하 열녀가 생겼구나/ (후렴)
이산자리를 모시구 보면/ (후렴)
말을 메기면 명마가 되구/ (후렴)
소를 메기면 복소가 되네/ (후렴)
에헤리 달고/ (후렴)

* 1999.1.12, 박재형(80세, 남, 장호원을 어서리)

0608-1 : 3 달구질노래

에야 호리이 달고 (후렴1)
여보시오 군방님네/ (후렴1)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1)
아버님전에 살을 빌고/ (후렴1)
부모의 은공을 못다 갚고/ (후렴1)
저승길이 웬말이냐/ (후렴1)
실날같이두 가는 몸애/ (후렴1)
태산같은 병이 되어/ (후렴1)
아침나절 성튼 몸이/ (후렴1)
저녁나절에 병이 되어/ (후렴1)

인삼 녹용 약을 쓴들/ (후렴1)
약덕이나 있겠느냐/ (후렴1)
하룻밤사이에 하직하고/ (후렴1)
백발보고 웃지마라/ (후렴1)

오호오 오호이 오호 호이야 호호야 (후렴2)

나도 한 때 젊었건만/ (후렴2)
백발 보고 웃지마라/ (후렴2)
니가 본래 청춘이며/ (후렴2)
내가 본래 백발이냐/ (후렴2)
명년 삼월 봄이 오면/ (후렴2)
잠자던 싹도 트건마는/ (후렴2)
나무도 죽어 고목되면/ (후렴2)
눈먼 새도 아니 온다/ (후렴2)
피었던 꽃도 시들어지면/ (후렴2)
오던 나비도 아니온다/ (후렴2)
먹던 음식도 쉬어지면/ (후렴2)
뜬물통으로 돌아간다/ (후렴2)
입었던 의복도 떨어지면/ (후렴2)
물걸레로다 들어간다/ (후렴2)
우리네 인생 죽어지면/ (후렴2)
화장터 공동묘지 찾아간다/ (후렴2)
우리 부모 한번 가면/ (후렴2)
영영 이 길을 못 올텐데/ (후렴2)

꽤지나 칭칭 나네 (후렴3)
자네도 한잔 나도 한잔/ (후렴3)
일본동경이 얼마나 좋아/ (후렴3)

한잔 술에 취한 술이/ (후렴3)
두잔 술에 눈물이 난다/ (후렴3)
청천 하늘엔 참 별도 많고/ (후렴3)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후렴3)
서울을 갔더니 차도 많고/ (후렴3)
경기도 땅에는 깍쟁이도 많다/ (후렴3)
충청도 땅에는 양반도 많고/ (후렴3)
제주도 땅에는 해녀도 많다/ (후렴3)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고/ (후렴3)
붉고 푸른건 물이고요/ (후렴3)
땅을 보니 한이 없고/ (후렴3)
울긋 볼긋 저어 댕기/ (후렴3)
가는 길이 멀다더니/ (후렴3)
어느 하염없이 가나/ (후렴3)
문패 없는 집을 짓고/ (후렴3)
네 귀에다 풍경 달고/ (후렴3)
백년 천년 살자더니/ (후렴3)
아주 그만 다 살았네/ (후렴3)
힘도 들고 목도 타니/ (후렴3)
이제 고만 쉽시다/ (후렴3)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을 오남리)

0609-1 : 8 달구질노래

야 회리 달고/ 야 회리 달고 (후렴1)
이팔청춘 소년들이/ 백발보고서 웃지마라/ (후렴1)
엇그저께 청춘이더니/ 오늘날로 백발일세/ (후렴1)
인간 칠십 못 다 살고/ 이내 가슴 무심하다/ (후렴1)

오늘날로 저승이니/ 원통하고도 가련하다/ (후렴1)
 명사 십리의 해당화/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1)
 명년 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건마는/ (후렴1)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어느 때나 오시려나/ (후렴1)
 잘들들 하시네 잘들하셔/ 우리 군방님 잘도하셔/ (후렴1)

오호 호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 호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후렴2)
 넘어라도 늙어지면/ 오던 친구도 아니오네/ (후렴2)
 먼데 사람 보기 좋게/ 곁에 사람 듣기 좋게/ (후렴2)
 한두살 먹어 부모 잃고/ 세네살 먹어 어머니라/ (후렴2)
 몹쓸 놈에 병이 들어/ 부모 은공 못다갚고/ (후렴2)
 부르는 이 어머니요/ 찾는 이는 냉수로다/ (후렴2)
 저승 사자님도 무심하지/ 이내 나이 몇 살 안되어/ (후렴2)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저승길이나 빨리 가자/ (후렴2)
 오호 호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후렴2)
 이만 저만 고만 가고/ 다음 기회로 밀어보세/ (후렴2)

* 1999.1.14. 한호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음 외천리)

0610-1 : 2 달구질노래

에라 헤리 달고/ 에라 헤리 달고 (후렴)
 여보시오 시주님네/ (후렴)
 먼데야 사람 듣기나 좋게/ (후렴)
 곁에야 사람 보거나 좋게/ (후렴)
 일심을 합쳐서 달고질하세/ (후렴)

산지야 조종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야 조종 황하수로다/ (후렴)
팔도명산 정기가 보여/ (후렴)
백두산 정기로 이어나 내려/ (후렴)
팔공산 낙맥에 뚝 떨어져서/ (후렴)
설성산 정기로 이어나 내려/ (후렴)
장호원하고도 이황이로다/ (후렴)
좌청룡 우백호로다/ (후렴)
이들을 두면 효자충신/ (후렴)
딸을 두면 열녀로구나/ (후렴)
요적등도 비쳤으니/ (후렴)
구부장자가 날자리로구나/ (후렴)
문필등도 비쳤으니/ (후렴)
문장지사가 날자리로구나/ (후렴)
장수등도 비쳤으니/ (후렴)
수명장수 할 자리구나/ (후렴)
자자손손 대대로이다/ (후렴)
부귀공명을 누릴자릴세/ (후렴)
극락세계에 연화대로이다/ (후렴)
모시고 모시어 잘 모셔보자/ (후렴)
목도나 차고 숲도 찬데/ (후렴)
이만 저만들 그만들 허이고/ (후렴)
한 잔 잡수고 쉬었다 하세/ (후렴)

* 1999.1.14. 권태호(58세, 남, 장호원읍 이흥리)

0612-1 : 6 달구질노래

에헤리 달고/ 에헤리 달고 (후렴)
 일싸 좋다 잘덜두 단네/ (후렴)
 꼼꼼히 잘덜두 닭게/ (후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고/ (후렴)
 가견데 사람은 보거나 좋게/ (후렴)
 너의 집은 꽃밭이로다/ (후렴)
 요내 집은 연못인데/ (후렴)
 일싸 좋고 잘덜두 단네/ (후렴)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을 진양리)

0613-1 : 2 달구질노래

에야 헤리 달고 고시레/ 에야 헤리 달고 고시레
 에야 헤리 달고/ 에야 헤리 달고 (후렴1)
 건너 사람 보거나 좋게/ (후렴1)
 옆에 사람 보기두 좋게/ (후렴1)
 명사십리 해동화야/ (후렴1)
 꽃이 진다고 설위마라/ (후렴1)
 명년 삼월 봄이 오면/ (후렴1)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렴1)
 높은 자리 눌러주어/ (후렴1)
 낮은 자리 메워주마/ (후렴1)
 아버님전 빼을 빌고/ (후렴1)
 어머님전 살을 빌고/ (후렴1)
 칠성님전 명을 빌고/ (후렴1)
 칠성님전 복을 빌고/ (후렴1)
 한 백년도 못 사는 인생/ (후렴1)

이 삼십을 먹고 보니/ (후렴1)
부모은혜 다 못 갚고/ (후렴1)
칠 팔십을 먹고 보니/ (후렴1)
허허 백발 되었구나/ (후렴1)
허무하게 되었으니/ (후렴1)
웃는 소리 절로 난다/ (후렴1)
아침나절 성튼 몸이/ (후렴1)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1)
실낱같은 몸에다가/ (후렴1)
태산같은 병이 드니/ (후렴1)
인삼 녹용 약을 쓴듯/ (후렴1)
약효도 제뭇되고/ (후렴1)
무당다려 곶을 한들/ (후렴1)
곶덕이 제뭇되고/ (후렴1)
판수 드러 경 읽은들/ (후렴1)
경전덕도 제뭇되고/ (후렴1)
명산대천 찾아가서/ (후렴1)
어디 앉아 둘러보니/ (후렴1)
이리 가자 복을 빌고/ (후렴1)
저리 가자 명을 빌고/ (후렴1)
덩더쿵 꼬오꼭 놀러/ (후렴1)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오호 오호이 오호 호이야 오호야 (후렴2)
둥둥둥둥둥 (복을 잘게 친다)

* 1999.1.13, 차천만(73세, 남, 장호원음 품계리)

0702-1 : 1 달구질노래

에라 에헤리 달고/ 에라 에헤리 달고 (후렴)

달고질 사람 많기도 한데/ (후렴)

달고질 소리 너무도 적다/ (후렴)

우리 모두 합심하여/ (후렴)

달고질 한번 잘해 보세/ (후렴)

하나 둘이 하더래두/ (후렴)

열스물이서 하는 듯이/ (후렴)

우렁차게 하여를 보세/ (후렴)

우리 인생 한번 가면은/ (후렴)

요모양 요꼴이 되는 인생/ (후렴)

살았을적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렴)

친구간에 우애가 깊고/ (후렴)

(이하 상여노래와 같은 사설이 계속됨)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외 1인

0703-1 : 1 달구질노래

헤야 에헤리 달공

달고지를 하시는 군장님네들

헤야 에헤리 달공 (후렴1)

군장님네들 이내 말쌈 들어보소/ (후렴1)

일세 가꾸고 일세 노소/ (후렴1)

못내 사람 듣기나 좋고/ (후렴1)

곁에 사람이 보기 좋고/ (후렴1)

한발 떼고 두발 떼어/ (후렴1)

세마치 장단으로 들어보소
오오오 오호오 오호오야 (후렴2)
세상천지 만물중에/ (후렴2)
사람밖에나 또 있는가/ (후렴2)
여보시오 세주님네들/ (후렴2)
이내나 말쌈을 들어보소/ (후렴2)
이세상에 백인사람/ (후렴2)
무덤으로나 가엿는가/ (후렴2)
하나님전 은덕으로/ (후렴2)
가보진친 길을 들고/ (후렴2)
어머님전 살을 타고/ (후렴2)
칠성님전에 명을 타고/ (후렴2)
석가여래로 뒤돌아 여가/ (후렴2)
이네 인생이 탄생하여/ (후렴2)
한두살에 칠을 몰러/ (후렴2)
이삼세번 당도하니/ (후렴2)
누구나 은공을 갚을손가/ (후렴2)
절통하고 통분하다/ (후렴2)
아홉칸 여래 고생살이/ (후렴2)
알뜰 살뜰 모은 천자/ (후렴2)
먹구 가구 쓰고 가라/ (후렴2)
인수 백번 달려드니/ (후렴2)
다시나 경지를 못하니라/ (후렴2)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식리) 외 2인

0703-1 : 8 달구질노래

예라 에헤리 달공/ 예라 에헤리 달공
 달구지 가시는 청년님네들/ (후렴)
 이네 말쌈 들어보소/ (후렴)
 일세 가꾸 일세 노소/ (후렴)
 온데 사람이 듣기 좋고/ (후렴)
 곁에 사람이 보기 좋게/ (후렴)
 이 자리를 쓸적에는/ (후렴)
 어느 누가 잡으셨나/ (후렴)
 학선이면은 도선이요/ (후렴)
 이들을 잘 놀랄제/ (후렴)
 자좌오향을 놓아 볼까/ (후렴)
 계좌사향을 놓아볼까/ (후렴)
 한양에 댕을 털어/ (후렴)
 자좌오향을 놓았으니/ (후렴)
 이 터전을 잡을 적엔/ (후렴)
 해좌사향을 놓아보자/ (후렴)
 이 들을 다 둘러 보고/ (후렴)
 이 좌청룡에 우배고라/ (후렴)
 백호 한쌍을 내려보니/ (후렴)
 두수 두파가 유련하니/ (후렴)
 이 명당에다 모시면은/ (후렴)
 부귀영화도 누리지만/ (후렴)
 자손 장세 이루시어/ (후렴)
 대대 전승의 자리로다/ (후렴)
 이 터를 잡을 적에/ (후렴)
 어느 누가 잡으셨나/ (후렴)
 학선이가 잡을 적에/ (후렴)

사대 산광을 둘러보고/ (후렴)
팔도 명산을 집을 적에/ (후렴)
강원도루다 들어가서/ (후렴)
금강산이 명산이요/ (후렴)
금강산 명산을 뚝떨어져/ (후렴)
주춤 주춤 내려오다가/ (후렴)
황해도를 들어서니/ (후렴)
구월산이라 명산이다/ (후렴)
구월산 낙맥을 뚝떨어져서/ (후렴)
주춤 주춤 내려오다가/ (후렴)
한양에를 올려보니/ (후렴)
삼각산이 명산이고/ (후렴)
관악산이 주산지면/ (후렴)
만리제 백호되고/ (후렴)
왕십리루다 접느니라/ (후렴)
대명호문 이십오년에/ (후렴)
한양에 복직하구/ (후렴)
일년에 성취가구/ (후렴)
이년에는 성읍하니/ (후렴)
만리 강산이 내것 되네/ (후렴)
은장봉을 들어서서/ (후렴)
한강수를 더 건너서/ (후렴)
남원산성 둘러보이니/ (후렴)
이네 성이나 둘러 싸고/ (후렴)
이 산성을 너지 줌고/ (후렴)
주춤 주춤 내려오니/ (후렴)
이천시를 들어오니/ (후렴)
어느 명산이 되었느냐/ (후렴)

이 명산을 밟을적에/ (후렴)
북악산이 명산되고/ (후렴)
안삽 뚜장을 둘러보니/ (후렴)
설봉산이 명산이라/ (후렴)
이 명기를라 넘짓가서/ (후렴)
주춤 주춤 내려가니/ (후렴)
충청도를 들어서니/ (후렴)
계룡산이 명산되고/ (후렴)
계룡산 낙맥을 뚝떨어져서/ (후렴)
주춤 주춤 내려오네/ (후렴)
전라도를 들어서니/ (후렴)
공주산이 명산이라/ (후렴)
공주산 낙맥을 뚝떨어져서/ (후렴)
제주도루다 들어가니/ (후렴)
한라산이 명산이라/ (후렴)
팔도 명산을 집어다가/ (후렴)
이천시를 들어와서/ (후렴)
지석리를 들어오니/ (후렴)
소당산 낙맥을 뚝떨어져/ (후렴)
주춤 주춤 내려오다가/ (후렴)
이 명당에다 터를 두고/ (후렴)
아구 한장을 시켜노니/ (후렴)
대대 정성을 이룰쏘다/ (후렴)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석리) 외 2인

0704-1 : 7 달구질노래

에라 회리 달공/ 에라 회리 달공 (후렴)
이내 인생 태어를 나서/ (후렴)
아하 회회니로다/ (후렴)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후렴)
아버님 전에 뼈를 받아/ (후렴)
이 세상에 탄생하니/ (후렴)

에라 회리 달공/ (후렴)
어그적께 청춘일러니/ (후렴)
오늘날 이게 웬일이냐/ (후렴)
에라 회리 달공/ (후렴)
우리를 인생을 살어를 갈제/ (후렴)
에라 회리 달공/ (후렴)
남에게 공덕 많이 하고/ (후렴)
없는 사람 도와를 가며/ (후렴)
에라 회리 달공/ (후렴)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706-1 : 2 달구질노래

에야 휘리 달고/ 에야 휘리 달고
에야 휘리 달고/ 에야 휘리 달고 (후렴)
에야 휘리 달고/ (후렴)
에야 휘리 달고/ (후렴)
에야 휘리는 그만하고/ (후렴)
달구질노래나 시작하세/ (후렴)
삼각산이 뚜떨어져서/ (후렴)

한강수가 조수가 되고/ (후렴)
경기도라 뚝떨어져서/ (후렴)
경기도라 이천땅에/ (후렴)
이리저리 길을 물어보니/ (후렴)
신둔면에 원적산이 명당일세/ (후렴)
원적산 자락에 금산이네/ (후렴)
명당 중에 명당이네/ (후렴)
에야 휘리 달고/ (후렴)

* 2000.3.4, 김일규(69세, 남, 신둔면 도암리) 외 2인

0706-2 : 2 달구질노래

에야 헤이리 달구/ 에야 헤이리 달구/ (후렴)
경기도 이천땅은/ 오호아 오호아 에헤리 달공
명당중에 명당인데/ (후렴)
그 가운데 원적산은/ (후렴)
금반형지 길지라네/ (후렴)
이 산맥중에 쇠를 놓고/ (후렴)
자좌오향 군자 놓고/ (후렴)
군자오행에 개자 놓고/ (후렴)
터를 마련하고 광을 파니/ (후렴)
명지일세 발복지일세/ (후렴)
안택 정해 안장한 뒤에/ (후렴)
삼년 안에 발복하리니/ (후렴)

* 2000.3.12, 이병준(67세, 남, 신둔면 도암리)

0708-1 : 1 달구질노래

에라 회리 달공 (후렴)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후렴)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네 말 드러보소/ (후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 빌고/ (후렴)

어머님전 살을 빌며/ 칠성님전 명을 빌고/ (후렴)

제석님전 복을 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후렴)

한두살에 철을 몰라/ 부모은공 못 갚아/ (후렴)

어이없고 애답괘/ 무정세월 여류하야/ (후렴)

원수 백발도 아오니/ 없든 망령 절로 난다/ (후렴)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 수 없다 …(중략)… (후렴)

홍안백발 늙어가며/ 인간에 공덕을 누가 능히 막을손가/ (후렴)

춘조은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후렴)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후렴)

인간 백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후렴)

걱정 근심 다 제하며/ 단사십도 못 살 인생/ (후렴)

어제 오날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후렴)

섬섬약질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 드니/ (후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은 것이 냉수로다/ (후렴)

인삼녹용 약을 쓰나/ 약 효험이 있을 손가/ (후렴)

편수불어 경 읽은들/ 경의 덕을 있을손가/ (후렴)

무너 불러 곳을 하나/ 굿덕인들 있을손가/ (후렴)

제비쌀을 쏘고 쏘고어/ 명산대천 차어가서/ (후렴)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 하탕에 수족씻고/ (후렴)

초대 한 쌍 벌려놓고/ 행로 행합 불갈추고/ (후렴)

소지 한 장 든 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후렴)

부처님 전 비나이다

에야 휘리 달고/ 에야 휘리 달고/ (후렴)

에야 휘리 달고/ 에야 휘리 달고/ (후렴)

* 2000.3.4. 한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08-1 : 2 달구질노래

에야 휘리 달공/ 에야 휘리 달공

에야 휘리 달공/ 에야 휘리 달공 (후렴1)

분갑네~에 고시레/ 에야 허어리 달구 (후렴2)

이 산자리를 잡으실 적에/ 어떤 풍수가 잡으셨는지/ (후렴2)

이집 짓고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구관이 날 자리/ (후렴2)

딸을 낳으면 열녀가 날 자리/ (후렴2)

잘들도 다지네 잘들도 다지네/ 우리 군방님네 잘다지시네/ (후렴2)

잘들도 다지네 잘들도 다지네/ 우리 군정님들 잘다지시네/ (후렴2)

여보시오 시주님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2)

하나 둘이 다 떠나도/ 열이 스물이 달는듯이/ (후렴2)

가까운 양반들 보기가 좋게/ 먼데 손님 보기가 좋게/ (후렴2)

잘들도 다지네 잘들도 다지네/ 우리 군정님들 잘다지시네/ (후렴2)

여보시오 시주님네들/ 이내 말씀을 들어들보소/ (후렴2)

꽃다 자르다 달을 묶어/ 국화 자르다 다절을 부을까/ (후렴2)

잘다지네 잘들 다지시네/ 우리 군정님들 잘들 다지시네/ (후렴2)

좌를 보니 백호요/ 우를 보니 청룡이로다/ (후렴2)

청룡 백호가 뚜렷하구나/ 압록강 두만강 다 땡겨봐도/ (후렴2)

두손이 닥손이 다 모여서/ (후렴1)

나침반을 손에다 들고/ (후렴1)

곡금정 앞금정 꺼들어가서/ (후렴1)

나침반이 뚜렷하구나/ (후렴1)
잘들도 다지시네/ 잘들도 다지시네/ (후렴1)
여보시오 시주님네들/ (후렴1)
이내 말씀들 들어들보소/ (후렴1)
* 2000.3.4. 힌준수(67세, 남, 신둔면 수남리)

0710-1 : 1 달구질노래

에라 헤리 달고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고시레
에라 헤리 달고 고시레/ 에라 헤리 달고

늙어 하시는 군방님네/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이내 할 말을 들어보소/ (후렴1)
이 세상 만물 중에/ (후렴1)
이 사람 밖에는 또 있는가/ (후렴1)
이런 세상에 태어날 때/ (후렴1)
아버님 뜻으로 태어났나/ (후렴1)
아버님전 복을 빌고/ (후렴1)
어머님도 살을 빌어/ (후렴1)
이몸이 늙어 병을 받고/ (후렴1)
이내 일신은 태어를 나서/ (후렴1)
간다 소리는 노래나 불러/ (후렴1)
부모 은공을 들어보자고/ (후렴1)
신랑까지도 구슬피 우네/ (후렴1)
풍수 부풍 제를 나니/ (후렴1)
석양을 찾아서 경희가 가니/ (후렴1)
경을 찾아 일공을 하니/ (후렴1)
무당을 찾아서 굿이나 하니/ (후렴1)

굿덕이나 입을 손가/ (후렴1)
 이내 일신 한번 가면/ (후렴1)
 니나 나나 노지나 가나/ (후렴1)
 불쌍하구나 가련한 인생/ (후렴1)
 이제 가면 언제오나/ (후렴1)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후렴1)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1)
 달고 하시는 군방님네/ (후렴1)
 이제는 소리는 그만하고/ (후렴1)
 방을 방을 해봅시다/ (후렴1)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 오호야 (후렴2)

가네 나는 가네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2)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야 어야 오호야/ (후렴2)
 간다 끝으로 끝으로 도네/ (후렴2)
 이네 인생 돌아가네/ (후렴2)
 어허 불성님네/ (후렴2)
 이네 인생 가련하네/ (후렴2)
 가네 나는 가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 (후렴2)
 오호야 어허야 어허야/ (후렴2)
 어~ 어 후 가령군타 어허야/ (후렴2)
 어~ 이제가면 언제오나 이승 중에 떠나거든/ (후렴2)

예라 헤리 달고 고시레/ (후렴1)
 예라 헤리 달고 고시레/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어허/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늪어 가시는 군방님네/ (후렴1)
이내 할 말을 들어보소/ (후렴1)
이내 일신은 태어를 나시/ (후렴1)
어머님전으로 태어를 났나/ (후렴1)
아버님전 향기를 받고/ (후렴1)
어머님전 정기 받아/ (후렴1)
조상님전 공양을 들어/ (후렴1)
어머님의 몸 받쳐서/ (후렴1)
이내 일신 오늘날에/ (후렴1)
너는 인간에 태어를 나시/ (후렴1)
문전풍수 나는 간다/ (후렴1)
북망산월에 돈이나 쥐서/ (후렴1)
고수나 풍덕을 다하여 간다/ (후렴1)
배가 아픈 사람에 밥이나 쥐서/ (후렴1)
고수 풍덕을 다하여 떠나/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달고하시는 군방님네/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이내 인생 한번 가면/ (후렴1)
천하일색 양귀비도/ (후렴1)
인물 잘났어도 죽었구요/ (후렴1)
말 잘하는 소진장의도/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이내 인생은 가는 길은/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나는 가요 나는 가요/ (후렴1)

자손님 두고서 나는 가네/ (후렴1)

일가친지가 많다 하니/ (후렴1)

어느 일가 대신 가나/ (후렴1)

자손님들이 많다 한들/ (후렴1)

어느 자손 대신 가랴/ (후렴1)

외로운 이 산속에/ (후렴1)

에라 헤리 달고/ (후렴1)

천년 만파 집을 짓네/ (후렴1)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헤헤헤야 오호야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 오호야/ (후렴2)

가네 나는 가네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네/ (후렴2)

오호 오호에 오호 오호 오호야/ (후렴2)

* 2000.2.19, 김창봉(63세, 남), 박용묵(48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2-1 : 2 달구질노래

오호야 휘리 달고/ 예야 휘리 달고 (후렴)

오호야 휘리 달고/ (후렴)

예야 휘리 소리는 그만두고/ (후렴)

달고소리나 한번 하세/ (후렴)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인데/ (후렴)

그산 낙맥이 뚝떨어져/ (후렴)

압록강을 건너와서/ (후렴)

백두산에 기봉하고/ (후렴)

그 산 낙맥이 뚝 떨어져/ (후렴)
팔도강산을 더듬을제/ (후렴)
산각산이라 제일봉에/ (후렴)
...(생략됨)..
경기도 이천땅에 낙맥을 받아/ (후렴)
명당터를 닦을적에/ (후렴)
좌청룡 우백호에/ (후렴)
자좌우향 쇄를 놓고/ (후렴)
발복지를 택하여서/ (후렴)
명당터에 혈을 찾아/ (후렴)
편안안자 안택을 지니/ (후렴)
삼년안에 발복하리다/ (후렴)
이들 나면 충신되고/ (후렴)
딸을 나면 열녀로다/ (후렴)
소를 치면 황소요/ (후렴)
닭을 치면 봉황이로다/ (후렴)
우리 모두 우렁차게/ (후렴)
하나가 해도 열이 하는듯이/ (후렴)
우리 군부님들 잘들도 하네/ (후렴)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외 1인

0713-1 : 2 달구질노래

에라 헤허리 달공/ 에라 헤허리 달공 (후렴)
에라 헤허리 달공/ (후렴)
달고질 하는 군방님네/ (후렴)
이네 말씀들 들어보소/ (후렴)
하나 둘이 허더라도/ (후렴)
열 스물이 흐르는 듯이/ (후렴)

에라 헤허리 달궁/ (후렴)
 천지시간 만물중에/ (후렴)
 사람밖에도 또 있던가/ (후렴)

* 2000.2.15, 구연준(68세, 남, 신둔면 소정리) 외 2인

0803-2 : 7 달구질노래

산지조종은 곤륜산요/ 에~헤리 달궁 (후렴)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후렴)
 함경도라 백두산은/ (후렴)
 두만강수가 흘러 있고/ (후렴)
 황해도라 묘향산은/ (후렴)
 목단강이 둘러 있고/ (후렴)
 강원도라 금강산은/ (후렴)
 한강상류가 흘러 있고/ (후렴)
 강원도라 태백산은/ (후렴)
 낙동강이 흘러 있고/ (후렴)
 충청도라 계룡산은/ (후렴)
 남강이 흘러 있고/ (후렴)
 전라도라 지리산은/ (후렴)
 금호강이 둘러 있고/ (후렴)
 금호강이 둘러 있고/ (후렴)
 충청도라 계룡산은/ (후렴)
 금강이 흘러 있고/ (후렴)
 제주도라 한라산은/ (후렴)
 남해수가 둘러 있고/ (후렴)
 계룡산은 일지맥이/ (후렴)
 여기와서 맺혔구나/ (후렴)

용두산을 불작시면/ (후렴)
십만대군이 웅위하고/ (후렴)
청룡백호를 불작시면/ (후렴)
좌청룡 우백호 분명하다/ (후렴)
안산을 불작시면/ (후렴)
만조백관 조회를 하듯/ (후렴)
구불구불 굽어 있고/ (후렴)
득수를 불작시면/ (후렴)
부귀공명 녹수로다/ (후렴)
득파를 불작시면/ (후렴)
천대만손 지지로다/ (후렴)
이들나면 효자되고/ (후렴)
딸을 나면 열녀로다/ (후렴)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후렴)
열녀는 불경이부로다/ (후렴)
자진 달고로 들어잡시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에~ 헤리 달공/ (후렴)
이내말삼 들어보소/ (후렴)
여보시오 여러분들/ (후렴)
백발보고 웃지마소/ (후렴)
어제칭춘 오날백발/ (후렴)
백발되기 잠깐일세/ (후렴)
우리한번 늙어지면/ (후렴)
다시젊지 못하리라/ (후렴)
우리한번 죽어지면/ (후렴)
다시오지 못하리라/ (후렴)
내년삼월 봄이되어/ (후렴)

꽃이피면 오시러나/ (후렴)
명년삼월 봄이되어/ (후렴)
잎이피면 오시러나/ (후렴)
가마솥에 삶은밤이/ (후렴)
씩이나면 오시러나/ (후렴)
그것도저것도 아닙니다/ (후렴)
이제 가면 영영갑니다/ (후렴)
기왕에 가지거든/ (후렴)
극락세계 가옵소서/ (후렴)
기왕에 가지거든/ (후렴)
좋은곳에 가옵소서/ (후렴)
한번 더 닦고 끝을 냅니다/ (후렴)

* 2000.9.29. 유재은(72세, 남), 정혁수(83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3-2 : 10 달구질노래

에야하 에헤리 달궁/ 여보시오 여러분들
에야하 에헤리 달궁 (후렴)
이내 말삼 들어보소/ (후렴)
이산자리가 누구에 묘인고/ (후렴)
홍길동씨 부친에 묘지로다/ (후렴)
용두산을 살펴보면은/ (후렴)
구불구불 곡용이로다/ (후렴)
앞산을 건너다보니/ (후렴)
만조백관이 조회를 하듯/ (후렴)
구불구불 굽혀있네/ (후렴)
청룡백호를 볼작시면/ (후렴)
좌청룡우백호 분명하구나/ (후렴)

득과을 살펴보니까/ (후렴)
자손영화에 득과로다/ (후렴)
득수를 살펴보니까/ (후렴)
자손부귀에 득수로다/ (후렴)
사방팔방 둘러보니/ (후렴)
천하지명당이 여기로다/ (후렴)
천하지대지가 여기로다/ (후렴)
우주로다가 집을 삼고/ (후렴)
산천초목으로 올을 삼고/ (후렴)
황토로다가 요를 삼고/ (후렴)
금잔디로다가 이불잡고/ (후렴)
두견새로 벗을 삼아/ (후렴)
천년만년 음택을 짓고/ (후렴)
천년만년 살고지고/ (후렴)
여기다가 산소를 쓰고 보면/ (후렴)
아들을 나면 효자로다/ (후렴)
딸을 나면 효녀로다/ (후렴)
부귀공명을 누릴쏘다/ (후렴)
자손만대의 영화로다/ (후렴)
입신양명 하리로다/ (후렴)
가족일체 화목하고/ (후렴)
일가간에 우애 있고/ (후렴)
슬하자손 만세 영이라/ (후렴)
자진달고로 돌립시다/ (후렴)

* 2000.9.29, 유재은(72세, 남), 정혁수(83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6-1 : 3 달구질노래

에야하 에헤리 달공/ 여보시오 호 군방님네들
 에야하 에헤리 달공 (후렴)
 이내 한마디 잘들어 봅시다/ (후렴)
 경기도하고도 이천시에는/ (후렴)
 효양산 줄기가 불끈도 솟으니/ (후렴)
 복하천이 둘러섰으니/ (후렴)
 이 고장에다가 명기를 받아/ (후렴)
 어젯밤에는 내집이었건만/ (후렴)
 오늘날에는 산천이 내집인가/ (후렴)
 오니야 온줄을 누가나 아내/ (후렴)
 아들딸 많다고 말졌던마는/ (후렴)
 살어서 인생이지 가며는 그만이며/ (후렴)

(작은가락)

오호 오호 오호이 오호 오야 에헤야
 이왕에 망자는 갔을 망정
 오호 오호 오호이 오호 오야 에헤야 (후렴)
 살은 자손들 영화를 누립시다/ (후렴)
 천년이 지나고 만년 가도/ (후렴)
 자손들 영화나 잘살게 해주죠/ (후렴)

* 2000.4.29,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유산리)

0807-1 : 8 달구질노래

야하 호이 달공/ 야하 호이 달공 (후렴)
 여보시오 벗님네들/ (후렴)
 서로 서로 다하여/ (후렴)

344 이천의 옛노래

발을 맞춰서 다저를 보소/ (후렴)

힘차게 힘차게 불러 보소/ (후렴)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807-1 : 9 달구질노래

오호 오호 오호호 오호호이/ 오호호 호야 에헤이야

오호 오호 오호호 오호호이/ 오호호 호야 에헤이야 (후렴)

다저보세 다저보세/ 다같이 다저보세/ (후렴)

마음껏 다저서/ 천년만년에 집을 짓고/ (후렴)

인제 다지면은 언제 다지나/ 힘을 다하여 다저보소/ (후렴)

이천군의 명산은 설봉산이 명산이요/ (후렴)

호법면의 명산은 대덕산이나 명산이요/ (후렴)

주미리의 산이라면은/ 이산자리가 제일이요/ (후렴)

이산에다 터를 닦고/ 이산에다가 집을 지면/ (후렴)

자손만대가 복을 받고/ 자손 앞길이 흰해지니/ (후렴)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01-4 : 2 달구질노래

에라나 회리 달구/ 에라나 회리 달구 (후렴)

어로 갔든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은 못 오는데/ (후렴)

먼데 사람 보거나 좋게/ 곁에 사람 듣거나 좋게/ (후렴)

머나먼 황천길을/ 나 혼자서 어이가랴/ (후렴)

명사나 십리 해당환데/ 꽃이나 진다고 설위마라/ (후렴)

명년 삼월이 돌아오면/ 앞은 피어 청산이고/ (후렴)

꽃은 피어 만발할제/ 우리네 인생 한번 가네/ (후렴)

서로 같으네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은 못오련만/ (후렴)

* 2001.7.10, 이환우(65세, 남, 모가면 두미리)

0910-6 : 4 달고소리

에라 에이 달고/ 에라 에이 달고 (후렴)
여보시오 군방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후렴)
상춘하러 호시절에/ 초목군생이 돌아올 때/ (후렴)
산은 죽고 물도 죽고/ 이내 몸이 어딜가나/ (후렴)

* 2001.6.26, 김홍래(78세, 남, 모가면 원두리)

1001-1 : 4 달구질노래

에헤라 달고 에헤라 달고/ (후렴)
달고지 삼아서 춤도 추고/ (후렴)
한우 뿔림을 잘들 단계/ (후렴)
아무 뿔리면 단단히 단지/ (후렴)
술도 두고 괴기도 두네/ (후렴)
소리가 좋으면 춤도 잘나오고/ (후렴)
신명이 나와 춤도 추고/ (후렴)
아무 두기는 오늘 할료/ (후렴)
상괴를 보더라도 말로 하네/ (후렴)

* 2002.3.17, 한효손(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1-4 : 3 달구질노래

에라 에헤리 달구/ 에라 에헤리 달구(후렴)
에라 에헤리 달구/ (후렴)
달구질 하시던 여러분들아/ (후렴)
이내 한말씀 들어를 보소/ (후렴)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후렴)
수지등분은 황하수라/ (후렴)
고을 영선 일진에/ (후렴)

조은 수가 생겼으니/ (후렴)
압록강이 시수산이고/ (후렴)
백마강이나 한산지위라/ (후렴)
저 정덕 계룡산에는/ (후렴)
맞은 길이나 들러 있고/ (후렴)
인진 녀이나 들러 있고/ (후렴)
성 언덕 북망산에는/ (후렴)

* 2002.5.17. 김성근(59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2 : 5 달구질노래

에라 에히리 달고/ 에라 에히리 달고 (후렴1)
어허 달고질하는 청년남네/ (후렴1)
어허 달고질소리 맞출적에/ (후렴1)
장단을 맞춰서 소리를 하면/ (후렴1)
어허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후렴1)
오던 새도 아니나 오고/ (후렴1)
어허 물이라도 건수가 되면/ (후렴1)
놀던 물고기도 아니나 놀며/ (후렴1)
어허 우리 인생 죽어를 지면/ (후렴1)
노던 친구도 아니나 오면/ (후렴1)
에라 에히리 달고/ (후렴1)
어허 달고질소리 길기만 길고/ (후렴1)
어허 먼데 사람은 보기가 좋게/ (후렴1)
어허 가까운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후렴1)
오호 오허이 오허 오호야 에에야/
오호 오허이 오허 오호야 에에야 (후렴2)

어허 저기 잔소리를 맞지를 얹네/ (후렴2)

가네 가네 이 육신이 흠매러 가서/ (후렴2)

(이하 생략됨)

* 2002.3.17, 김병전(62세, 남, 대월면 군량리) 외

1008-1 : 1 달구질노래

에헤야 에헤리 달고오/ 에헤야 에헤리 달고오 (후렴)

여 이 세상에 생긴 사람이/ 누구 덕으로 생겼을까/ (후렴)

아버님전 뼈를 빌어/ 우리 인생이 생겨났네/ (후렴)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이 세상에 생겼구나/ (후렴)

어 칠성님전에 명을 빌어/ 이 세상에 생겨났네/ (후렴)

헤에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우리 인생이 생겨났네/ (후렴)

히 어제 오늘 성튼 몸이/ 저녁 나절에 병이 들었네/ (후렴)

저 명산 대천 성산에/ 어느 부처님 돌아보라/ (후렴)

허 부처님도 쓸데없고/ 하나님도 쓸데없네/ (후렴)

* 2002.3.30, 성환길(76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9-5 : 5 달구질노래

에라 에헤리 달공/ 에라 에헤리 달공 (후렴)

우리 친구는 쓸데가 있어/ 하느님이 데려갔네/ (후렴)

에라 에헤리 달공/ (후렴)

인제가면 언제와/ 오는 날이나 일러다오/ (후렴)

에라 에헤리 달공/ (후렴)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103-1 : 5 달구질노래

에헤야 달구/ 에헤야 달구 (후렴)
 십년 같은 세월에/ 이내 몸이 병이 들어/ (후렴)
 이내 글슴 조직하고/ (후렴)
 생전 인생일세/ 오호 오호이 오호이야/ (후렴)
 백설같은 서리가/ 갑자기 이월이 왔네/ (후렴)
 에헤 에헤 에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후렴)
 간단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등지고/ (후렴)
 에헤야 에헤야/ 이내몸이 간들/ (후렴)
 그저 추억에 인생 남네/ 에헤 에헤 에헤야 약속하세/ (후렴)

* 2002.5.12 장병근(75세, 남, 이천시 장록동)

1103-1 : 6 달구질노래

에라 에이리 달구/ 에라 에이리 달구/ (후렴)
 노세 노세 젊어 노세/ (후렴)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후렴)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 마라/ (후렴)
 에라나 에이리 달구/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핀다고 자랑마라/ (후렴)
 에라 에이리 달구/ (후렴)

* 2002.5.12 이범수(60세, 남, 이천시 장록동)

1103-2 : 1 달구질노래

에라 에이 달구/ 에라 에이 달구 (후렴)
 사숙하고 봄이내/ 이내 팔새 텃세마세/ (후렴)
 이내장사 관도하니/ (후렴)
 한잔 술에 눈물나고/ 두잔 술에 슬프도다/ (후렴)

진짜로다 만고강산/ 이내 한잔씩 들어봅시다/ (후렴)
 여보시오 한가지가 잊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후렴)
 이내 골터로 부랑아/ 한개 두개는 저리 가고/ (후렴)
 일심 정은 만고 살세/ (후렴)
 여보시오 만고풍산/ 풍년이 들고 새들가라/ (후렴)
 늙은 총각 장가가기/ 이럴 때 못가면 언제가나/ (후렴)
 여보시오 노조님네/ 상주님 소주를 이길손가/ (후렴)
 상검술에 서울인데/ 이내 혹은 경기도라/ (후렴)
 늦대 말고 콩지콩지/ 꽃아서나 물어주소/ (후렴)
 간다더니 내려왔나/ 우리 가족이 합심하여/ (후렴)
 대동철륜 만수하네/ (후렴)
 삼천갑아 들렸더니/ 이내 기념이었구나/ (후렴)
 예헤 예헤야/ 얼씨구나 만고풍산/ (후렴)
 시들새들 봄배추는/ 찬이슬 올때만 기다리는데/ (후렴)
 이내 마음 절은하네/ (후렴)
 저기 날으는 참새야/ 내말 한마디 듣고가라/ (후렴)
 간다더니 못가구/ 이내 몸춘 달뜬었네/ (후렴)
 야심하여 십오야 달밤/ 그름새기가 되었는지/ (후렴)
 어둔 길을 못가는구나/ (후렴)
 삼천갑자 드니/ 오는 해는 일락서산/ (후렴)
 갈길도 멀어가고/ 어느 상주님네 생각하오/ (후렴)

* 2002.5.22, 장병근(75세, 남, 인천시 장록동)

3. 신앙 의식요

0208-1 : 2 회심곡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더 있더냐
여보시오 지존님네/ 이 내 한 말 들어보소
우리 인생 태어날제/ 아버님전 뼈를 다 빌고
어머님전 살을 다 빌고/ 하나님전 명을 다 빌고
칠성님전 몸다 빌제/ 이내 인생 탄생하여
한두 살이 저를 몰라/ 부모은공 못다나 갚고
나이 삼십 당도하여/ 부모은공 갚으려 할제
우리 부모 깊은 병이 들었으니/ 어느 누가 고칠손가
실낱같은 이내 몸에/ 태산같은 병을 다 주니
무당불러 푸닥거리하여나 본들/ 깊고 깊은 병이 나올 소나
의원불러 진맥한들/ 어느 의원 나의 병을 고칠소나
깊게 깊게 내 몸에다/ 깊은 병을 주었으니
가지 가지 나는 가지/ 여러 자손 모여서
부모은공 못다 갚고/ 부모를 떠나 보낼제
부모님이 하는 말씀/ 염라대왕 가서라도
너희들을 살필 것이니/ 부디 부디 잘 살거라
일칙 사자 등을 미고/ 월척사자 쇠사슬로
내목을 졸러르고/ 어서가자 그러하니
어느 명이라 어길손가/ 어서가세 빨리 가세
염라대왕 문턱에서 기다리신다

* 1997.2.21, 왕세현(70세, 남, 울면 오성리)

0208-4 : 5 회심곡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라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뒷동산이 북망일세
 낙락이 지는 해는/ 오늘 지면 내일 오지
 초로같은 우리 인생/ 이길 한번 가고보면
 천만년인들 다시 올까/ 오호 오호 오
 소방산 대들위에/ 육망정 발맞추어
 어허 넘짓 두세마디/ 북망산천 들어가니
 청송위에 우주를 삼고/ 두견을 벗을 삼어
 뗏장으로 요를 삼고/ 금잔디로 이불 덮고
 천문이 막힌 곳에/ 잠든듯이 누었으니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니
 천년인들 다시 오며/ 만년인들 다시 올까
 영혼인들 아니 올며/ 닢인들 아니 올까
 생기나니 백발이요/ 찾아오나니 죽음이다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요순임금 태어났고
 장하도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굳게 쌓고
 아방궁을 높이 지어놓고/ 전생을 연로했겠지만
 사구평 백성 되었구나/ 오관 천장 관우장군
 천하 양사일지언정/ 화룡도에서 죽었구나
 태평 우리 …(미상)… 양이로
 필로 죽었던가/ 가진돈 돈없어 죽었던가
 초로같은 우리인생 두고서/ 일놓고 말해 무엇하겠는가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208-5 : 2 **회심곡**

생기나니 백발이요/ 놀면할손 죽음이다
천황 지황 인황후에/ 요순임금 성덕없어 봉하시어
장하도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굳게 쌓고
아방궁에 높이 앉아/ 치목지소하고 궁신지지 쇠락하여
장생불사를 하잖더니/ 여사간에 고힌되고
열나라 화택 편직이/ 약명 몰라 죽었으며
대국부사 석승이가/ 돈이 없어서 죽었는가
초로같은 우리 인생/ 말을 하면 무엇하리
이몸이 늙기전에/ 먹고 쓰고 돌아보세
한번 낱자 죽어지면/ 움이 날까 싹이 나나
살어 생전에 돈도 쓰고 돌아보세

* 1997.1.30. **황결준**(80세, 남, 울면 여성리)

0403-1 : 1 **회심곡**

가련하다 세상사람/ 난 사람은 다 죽는다
고천하에 많은 사람/ 백년전에 모다 죽네
이렇다시 헛된 세상/ 경멸할 것 무엇인고
죽을 곳에 가는자가/ 희락영복 당할 쏘냐
살고 죽기 상합하여/ 서로 어찌 못하나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죽지않는자 하나없네
예수성모 죽으셨네/ 우리 어찌 면할쏘냐
이목구비 오감상사/ 오래잖아 쉬는구나
연속구절 강물같이/ 이물강은 저무르고
바닥이가 끝이나니/ 저물강은 그물와서
어린아이 장승하여/ 죽을길에 돌아가서
백수암동 갈릴쏘냐/ 친척부모 인정보면

나 죽을일 생각나네/ 영혼육신 결합하면
 생명있고 사람이오/ 영혼육신 떠나면은
 지각없는 시체로다/ 아깝도다 생명이오
 산육신이 끊어지면/ 몸이 속한 좋은 물건
 하나이나 쓸데있나/ 부모 찾아 친인인이
 경쟁묘 오금보배/ 일조일석 다발이고
 따놓은 공제로다/ 장롱높은 영화이도
 죽을 때 다 버리고/ 부귀빈천 물러나고
 적신으로 나가나니/ 날때에도 적신이요
 죽을때도 적신이라/ 지낸후에 적신으로 돌아간다
 재물보화 쓸데있나/ 남은 없고 고만있나
 피제수도 많이 하면/ 해는 없고 이일세
 사람사람 사는 것이/ 사오기를 행함이라
 울밑에 빈식에게/ 죽을 기한을 정하였네
 태어나서 자랄때에/ 죽을 길로 가는구나
 하루살면 하루죽고/ 한해살면 한해죽네
 신속함도 신속하다/ 석화공이 다들쏘냐
 재수들이 법장에 가서/ 법장에도 가는구나
 법장에도 죽을 사람/ 희랑노릇 탐할쏘냐

하루살면 하루죽고/ 한해살면 한해죽네
 빠르다 생명이요/ 해시도 다 육신이요
 금일금식 살았으나/ 내일 내시 알수없다
 내 생명이 무엇이나/ 흩어지는 연기로다
 세상영화 다 버리고/ 선정에비 승선하소
 평생있어 무불헌사/ 평생있어 무불헌사
 죽을때를 내가 아나/ 오늘인지 내일인지
 예비없이 죽게 되면/ 선정하기 어렵도다

어아 세상벗님네야/ 우리본향 찾아가세
동서 남북 사해/ 사방 팔방 어느곳이
본향인고 복지로 가자하니/ 아담 먼저 내찾고나
부귀영화 얻을손들/ 몇회까지 즐기으며
빈공자 많다 한들/ 몇회까지 근심하라
이러하온 풍진세계/ 인간곳 아니로세
세상만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고만이라
우주간에 비끼서서/ 저 하늘을 살펴보니
태업지고 그 아니면/ 천일시석이아니야
아마도 우리낙도/ 천당밖에 다시 얻네
길경이 충만하다/ 무세를 지내도록 영원장생 무정이라

* 1998.3.29, 한언예(80세, 여, 마장면 관리)

0411-2 : 5 회심곡

저 판본에 명을 받아
한 손에는 첩퇴 들고/ 한 손에는 창검을 들고
활동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나 달려와서
딸기두 없구나/ 시내두 없구나
어서 가자 바빠가자/ 신을 들어 등을 치니
혼비백산에 정신이 없네
혁산농에 조문허고/ 사자밥을 다 지어놓고/
관두 지구 돌을 건지니/ 북망산천에 가신부모
다시 오기는 어려워라

* 1998.4.10, 유원화(86세, 남, 마장면 아평리)

0502-1 : 2 회심곡

아하~ 아하~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니 전에 살을 빌고

석달만에 탄생하니/ 석달만에 탄생하니

애지중지 기른 정은/ 부모님의 효자동아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달기 단 것은

어미가 잡수시고/ 맛있으면 나를 주오

진자리나 마른자리 자리뵈오

나라에는 충성동아/ 동네방네 화목동아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 누가 나 맡을소나

금을 주면 옷을 사고/ 은을 주면 엿을 사라

할머니 들 창밖에 내리는/ 가신 님의 눈물이라

에헤요 에헤요/ 어여라난다 기여라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6-2 : 3 회심곡

세상천지 만물들중/ 사람밖에 또 있느냐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 말씀들어보소

이세상 나온 사람/ 누에 더러 나왔나요

석가여래 공덕받고/ 아버지전에 뼈를 빌고

어머니전에 살을 빌고/ 칠성절에 명월 빌고

제성님전에 복을 빌어/ 이 세상에 탄생했다

한두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 몰랐구요

이삼십에 되었거늘/ 부모 은공 갚을소나

무정 세월 열여하야/ 원수 백발 돌아오니

없던 서름 절로난다/ 구석구석 ...(미상)...

애닭퍼서 서년지구/ 절통하고 통원하다

할수 없다 호원백발
 춘천은 연연록이요/ 왕소는 비불이라
 우리 인생 한번 늙으면/ 다시 젊지 못하느니
 인간 백년 다 산다고 해도/ 잠든날 병든날
 근심걱정 다 지나면/ 단 사십을 못사는 인생
 어제 오늘 성탄 몸이/ 저녁 나절 병이 들어
 섬섬 낙절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는건 어머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인삼 녹용 약을 쓰니/ 약효임 있을쏘이요
 무녀 불러 굿을 하니/ 굿덕인들 있을쏘냐
 판습으로 경 읽으니/ 경덕인들 입을 쏘냐
 제비쌀을 쏘고 쏘어/ 명산대천 찾아가
 상탕에 묘를 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 씻고/ 향로 향합에 불 갖추고
 촛대 한상을 벌려 놓고/ ...(미상)...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상일절에 발원하고
 심장일절 공양한들/ 어느 성현의 가문이나
 제일전에 칠성대왕/ 제이전에 천황대왕
 제삼전에 태산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평등대왕/ 제팔전에 태왕대왕
 제구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명대왕
 열시왕에 불린 사자/ 일척사자 월척사자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는 창검들고
 활동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와
 다듬문을 박차고/ 뇌성같이 소리치며
 팔뚝같이 쇠사슬로/ 결박하며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 죽는다

* 1998.8.1. 유수열(68세, 남, 부발읍 마암리)

0513-1 : 1 회심곡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이 세상 태어날 때/ 무궁무진한 이 세상살이
 너무 가엾게 고생하고/ 늙은 신세 인생이라
 무정 세월 가지를 따라/ 어제 청춘이 오늘의 백발
 어이 허무하게 늙었구나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읍 가산리)

0602-1 : 14 회심곡

피치 못할건 백발이요/ 면치 못할건 주검이로다
 천왕 지왕 인왕지면/ 덕향이 없어서 봉에 쓸면
 잘 하는 수지전이에/ 육국제왕 다 달랬으나
 염라 대왕은 못달랬오/ 그러한 영웅들은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마는/ 우리처럼 인생들이야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옴이 나나 싹이 나나
 명사십리의 해당화야/ 꽃 진다 잎 진다 설위마라
 너는 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보여 보건만은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가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장호원을 노탑리)

0606-1 : 1 회심곡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던가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칠성님전에 복을 빌고/ 지성님전 명을 빌어
 석가시주 공덕으로/ 이 세상을 탄생하니
 한두살에는 철을 몰라/ 부모님 은공 알을손가

인생이 삼십을 당도하니/ 부모 은공 못 따라가고
 인생 육십 다 지나가니/ 원수 백발 돌아왔네
 늙은이라고 구박하고/ 망령이라고 놀려댄다
 구석구석 늙는 몸이/ 애절하고도 슬프도다
 어제 오늘 성튼 몸이/ 저녁나절에 병이 들어
 부르는 이 어머니여/ 찾는 것은 냉수런데
 공약을 쓴 듯/ 약 효험이 있을 손가
 맹인 불러 경 읽은 듯/ 경덕이나 얻을 쏘냐
 명산 대천을 찾아가서/ 백리쌀을 씻고 씻어
 상탕에는 매를 짓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하탕에는 손을 씻고/ 경로 합손 불 밝히면
 소지삼장 올린 후에/ 비나이오 비나이오
 칠성님전 비나이오/ 칠성님전에 발원하고
 부처님께 봉양한 듯/ 감응이나 할까보냐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성추대왕
 제삼전에 삼신대왕/ 제사전에 호광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태성대왕
 제칠전에 칠성대왕/ 제팔전에 팔만대왕
 제구전에 구실대왕/ 제열전에 천왕대왕
 열시왕전에 부렴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한손에는 철봉들고/ 쇠시슬을 비껴차고
 팔등같이 굽은길로/ 화살같이 달려갈제
 가는 문을 박차면서/ 성령성자 불러내고
 쇠시슬로 목을 얹고/ 쇠몽치로 등을 치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뉘 분부라고 거역하리
 아니 가지는 못하겠네/ 좌우사방을 살펴보니
 약탕관이나 버려 있고/ 일가친척 다 모였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배고프고 시장한데

짐십이나 먹고 가세/ 지원 극진 빌어봐도
 아따 이 놈아 소용없다/ 잔소리 말고 어서가자
 추상같이 돌아가니/ 처자의 손을 잡고
 눈물지며 하는 말이/ 내가 죽어 갈지라도
 부모에겐 효도했네/ 어린 자식들 애비를 불러
 부모 간장 다녹이고/ 구사당에 고배하고
 신사당에 하직하며/ 대문밖을 썩 나서서
 적삼내어 손에 들고/ 혼백 불러 초흔하니
 어떤 목숨 안전하라/ 일직사자는 앞을 서고
 월직사자는 뒤를 보라/ 호방지방 돌아갈 때
 일가 친척 많다 한들/ 대신 갈 자 또 있는가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게 당했으니
 대문밖이 저승인걸/ 높은 산에는 끈 날리고
 낮은 산에는 재 날리며/ 역수장마 비가 오고
 개천 바다 물밑 듯이/ 만수산에는 구름이 일고
 빈지 만경 땅에 안개 걷듯/ 재수 소망을 비웁니다

* 1999.1.12, 이상호(48세, 남, 장호원읍 장호원리)

0908-3 : 2 회심가

여보시오 벗님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이내 인생 탄생하니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칠성님전에 목을 받아/ 하나님전에 명을 받아
 이내 인생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 몰라
 부모은공을 알을쏘냐

* 2001.6.4, 권오돈(71세, 남, 모기면 양평리)

1002-1 : 21 회심곡

아버님전 피를 타고/ 어머님전 살을 타고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 가사를 들어보소
태극이 초판시에/ 음양이 생겼도다
태극은 하늘이요/ 음양은 일월이라
일월성신 상관이요/ 이내일이 사단이라
구지성관 상관이요/ 부자유친 오류이라
초목금수 만물중에/ 연기같은 이내인생
아버님께 피를 타고/ 어머님께 살을 타고
지왕전에 명을 받아/ 삼신님의 덕택으로
이세상에 나셨도다/ 애달아라 우리 부모
애지중지 기를 적에/ 엮어주고 안아주고
애오라진 그 은혜를/ 어느 천년 갚아줄꼬
갚지서야 못할망정/ 성성백발 제부모를
지순차순 섬기어라

* 2002.5.21, 김희순(77세, 여, 대월면 구시리)

1004-1 : 8 회심곡

옛저녁에 성찰더니/ 오늘날에 병이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가자하고 돌아보니/ 아니가던 못하겠네
울삭시절 ...(미상)...
등을 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내니
아니가지는 못하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신발끈이나 해보려면/ 잠깐 참을 주십시오
아 저 바빠 시가 늦고/ 때가 늦었다
어서 바빠 급하게 해보라니/ 아니 갈 수 없으리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공동묘지 몰았더니/ 뒷동산이 공동묘지
 황천길이 멀다하니/ 대문 밖이 황천일세
 인생 한번 돌아가면/ 다시는 오지도 못하는데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나 진다고 설워마라
 너는 춘삼월 돌아오면/ 다시 한번 피건만은
 나는 한번 돌아가면/ 대신 오지를 못하리라
 보리 나던 쌀이 나던/ 인생살이 덧없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중단하심)

* 2002.3.17, 장채순(81세, 여, 대월면 송리리)

1103-1 : 8 회심곡

여보시오 어머니/ 이내 말씀 들으시고
 이내가슴 답답하니/ 아들딸이 오늘 경계 있다/ 같지라도 답답하네
 냉수 한모금 못들어서/ 갑자기 병이 악화되고 마네
 이 내 말씀 들으시오/ 부처님전에 상석하나
 이 내 말씀 못하고/ 이내 가슴 처량하나
 이 내 곳에 거동하여/ 신령님께 빌어서
 아들딸을 염주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돈만 벌고/ 부지런 일만 할랬더니
 이게 맘에 비정하고/ 비상천지 황량하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들들 나면은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나서
 이 세상에 평탄없이/ 인생살이 잘보낼렀더니
 이내 가슴 이내 목숨/ 혈수 없이 불효되어
 부처님전 이내 말씀/ 용서만이 하시기요
 이내 일진 청궁하여/ 망급 홍산 여렘렸던

십원한장 못모으고/ 금전일전 청중하니라
부모효자 망극하여/ 이세상을 떠나였소
이내 가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내 열심 청공하여/ 이내 가슴 답답할제
아들딸을 영거 놓고/ 한둘셋이 벌었시나
이내 말씀 흥승무요/ 백지천지 금이가고
금전먹사 이내 말씀/ 돈이 남아 쓰던 말던 할진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이내 가슴 목심 낙제 낙지하여/ 이세상을 떠나가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비나이다 비나이다

* 2002.5.12. 장병근(75세, 남, 이천시 장록동)

0101-5 : 7 산염불

서산낙중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솟아오르는데
황천길이 얼마나 멀길래/ 한번 가면은 왜 못오나
아헤 어허야 하야 염불이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시면 현방리)

0101-5 : 15 자진염불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나
에헤 에헤 어이 다하야 염불이다
이산 저산 양산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에헤 에헤 어이 다하야 염불이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시면 현방리)

0606-1 : 4 공덕가

인생 한번 죽어지면/ 금이 나나 쌀이 나나

공수래 공수거 한들/ 천하일색 양귀비도
 인물은 잘나도 죽었고요/ 말 잘했던 소진 장의도
 육군 제왕을 다 달래놓고/ 염라사를 못 달래서
 허필 춘차나 같은 양반도/ 양명을 잘 알아도 죽었는데
 말 잘했던 소진 장의도/ 육군 제왕을 다 달래놓고
 염라사를 못 달래서/ 천하통일 진시황도
 불사 불노를 더해보고/ 아방궁을 높게 짓고
 삼천동녀 오백명을/ 삼신산에나 보냈더니
 소식조차나 돈절하니/ 인생은 모두 가는구려

* 1999.1.12, 이상호(48세, 남, 장호원읍 장호원리)

0606-1 : 5 공덕가

조상문전에 당도하니
 재판관이 문서잡고/ 문서하며 묻는 말이
 너 인간에 태어날 때/ 무슨 공덕을 하였느냐
 배고픈 사람 밥을 주어/ 치사공덕 하였느냐
 목마른 사람 물 떠다 줘서/ 급수공덕 하였느냐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줘서/ 금전 공덕 하였느냐
 높은 산에는 불당 지어/ 중생공덕 하였느냐
 높은 강에는 다리를 놓아/ 월척공덕을 하였는가

* 1999.1.12, 이상호(48세, 남, 장호원읍 장호원리)

0712-1 : 8 염불공덕가

비범에 땅에다 절을 짓고/ 모시어라 모시어라 모시어라
 삼불제석을 모시어라/ 동자야 공양미 올려라
 염불 공불로 놀아보자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Ⅲ. 유희요

1. 세시 유희요

0209-1 : 5 그네뛰기

추천당 새모진 남개/ 넙뜨락에 그네를 매고
임이 뛰면 내가 밀고/ 내가 펼적엔 임이 밀어
그네야 줄미지 말아라/ 줄 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0406-1 : 8 그네뛰기

요샌머리 남개에/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님이 뛰면 내가 밀고요/ 내가 뛰면은 님이 밀어
벗님야 줄 밀지를 말라/ 줄 끊어지면 정떨어진다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509-2 : 21 그네뛰기

추천당 심어진 나무/ 넓다 하다 애야 그네를 매고
임이 뛰면 내가 밀고요/ 내가 뛰면 님이 민다
임아야 줄잡지 말아라/ 줄 끊어지면 정 떨어진다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602-1 : 26 그네뛰기

추천당 세모진 남개/ 상서실로다 높다랗게
그네 매어 놓고
아이 떨제는 내가 밀고/ 내가 떨제는 니가 밀고
임아 임아 줄잡지 마라/ 줄 끊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정뿐이 아니라/ 원뿔 전체가 다 떨어진다

* 1999.1.13. 박윤래(70세, 여, 장호원을 노탑리)

0710-2 : 13 그네뛰기

세모진 그 가지에다가/ 그네를 매고
님이 뛰면 내가 밀고/ 내가 뛰면 님이 밀어
임아야 줄 메지 마라/ 줄 떨어지면 정 떨어진다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808-1 : 5 그네뛰기

추천당 세모진 남개/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니가 뛰면 내가 밀구여/ 내가 뛰면은 님이 밀어
임아 임아 줄 밀지 말아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 2000.6.22. 윤희찬(78세, 남, 호법면 주박리)

0809-2 : 4 그네뛰기

추천당 세모진 남개/ 높다랗게다 추천을 매고
내가 뛰면 임이 밀고요/ 임이 뛰면은 내가 민다
임아 임아 줄 놓치마라/ 줄 놓치면은 정 떨어진다

* 2000.6.03. 이종철(67세, 남, 호법면 후안리)

0904-4 : 33 그네뛰기

금천당 세모진 낭귀/ 청실홍실 그네를 매고
임이 뛰면 내가 밀고요/ 내가 뛰면은 님이 밀어
임아야 줄 밀지 말아라/ 줄 끊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5-1 : 7 그네뛰기

추천당 세모진 낭구에/ 그네를 매고
님이 뛰면 내가 밀고요/ 내가 뛰면은 님이 밀고
님아 줄잡지 말아/ 줄 끊어지면 정 떨어진다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가면 소사리)

0909-1 : 7 그네뛰기

추천당 세모진 낭계/ 당사실로다 그네를 매고
임이 뛰면 내가 나 밀고/ 내가 뛰며는 임이 밀고
이에 님아 줄 밀진 말아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 2001.4.28, 이돌석(76세, 여, 모가면 여농리)

0801-1 : 5 자치기

가때 우리손이 하나이찌 몸매/ 또리또리또리 하나이찌 몸매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204-1 : 1 상사데야

올로로 상사데야/ 올로로 상사데야 (후렴)

전라 팔도에 남은 분은/ (후렴)

올로로 상사데야/ (후렴)

서울을 흐르는 강은/ (후렴)
 산수정기에 얽히여서/ (후렴)
 상투맹이가 생겼구나/ (후렴)
 칠세부터 공부하니/ (후렴)
 사서삼경 달통하고/ (후렴)
 십팔세를 당도하니/ (후렴)
 서울 상편도 위할일만/ (후렴)
 남은 불사를 지시하니/ (후렴)
 도의 만지 일상하네/ (후렴)
 백성한테 선취하니/ (후렴)
 거리거리 선정비라/ (후렴)
 사또 자제 도련님은/ (후렴)
 십팔세를 당도 하니/ (후렴)
 사서삼경 음독하고/ (후렴)
 풍채는 두목이라/ (후렴)
 남은 부귀에 덩피 좋아/ (후렴)
 면기 고운 있건만은/ (후렴)
 당대 본부 대동하네/ (후렴)
 공부하는 도련님이/ (후렴)
 도련님이 분부하네/ (후렴)
 잔말 말고나 들어오라/ (후렴)
 오작교를 건너서/ (후렴)
 올로로 상사태야/ (후렴)
 저간너 추천하니/ (후렴)
 그것이게 무엇인고/ (후렴)
 알아알아 도련님이/ (후렴)
 지노래는 안부니다/ (후렴)
 아무리 상한일을/ (후렴)

양반의 기운나고/ (후렴)
올로로 상사테야/ (후렴)
잔말말고 건너거라/ (후렴)
방자는 허릴없이/ (후렴)
살금살금 걸어가서/ (후렴)
춘향이 하는 소리/ (후렴)
춘향이 놀래어서/ (후렴)
올로로 상사테야/ (후렴)
방자가 하는 말이/ (후렴)
기집년이 낙태가/ (후렴)
도련님께 여쭙어라/ (후렴)
올로로 상사테야/ (후렴)
어것을 갖다주면/ (후렴)
도련님이 보오소서/ (후렴)
할말이 있으니/ (후렴)
방자 하릴없이 건너오니/ (후렴)
춘향 데려 오랬더니/ (후렴)
춘향 두고 오랬더니/ (후렴)
욕을 먹고 왔으니/ (후렴)
이것을 보옵시오/ (후렴)
도련님이 보려니/ (후렴)
올로로 상사테야/ (후렴)
올롤로 상사테야/ (후렴)

* 1997.2.18. 송경수(77세, 남. 울면 북두리) 외 2인

0502-1 : 18 꽤지나칭칭나네

꽤지나 칭칭 나네
앞산에 걸린 달은/ 꽤지나 칭칭 나네 (후렴)
정든 님의 얼굴을 비추니/ (후렴)
맑고 맑은 악수티이나/ (후렴)
물을 모아 찾아나 가나/ (후렴)
염불소리나 듣기나 듣나/ (후렴)
충청도에는 양반도 많고/ (후렴)
서울에는 사람도 많다/ (후렴)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고/ (후렴)
남쪽바다에는 섬도 많고/ (후렴)
초생달이 반달이나/ (후렴)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고/ (후렴)
공술먹고 말이 많다/ (후렴)
칭천하늘에 잔별도 많구/ (후렴)
독독 머리 풀어 헤쳐/ (후렴)
초생달이 반달이나/ (후렴)
달도 밝다 둥근달아/ (후렴)
우리네 인생 수심도 많다/ (후렴)
이들저들 들도 많구/ (후렴)
이산저산 절도 많수/ (후렴)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709-1 : 3 기와밧기

기와 밧세 기와 밧세/ 이 기와를 밧아서 무엇에 쓰자고 기와를 밧나
팔팔 꿇는 삼팔 바지에/ 팔팔 꿇는 삼팔 바지에
* 2000.3.11. 조병숙(75세, 여, 신둔면 고척리)

1009-2 : 7 **거북이노래**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거북아 놀아라
만석거북아 놀아라

(얼쭉 참 잘 논다. 거북이 참 잘 논다)

아이장 층층 호늘거리고 노는구나/ 얼쭉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거북아 놀아라
만석거북아 놀아라/ 얼쭉 얼쭉

풍년일세 풍년일세/ 우리 부락이 풍년일세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208-1 : 1 **환갑노래**

맹자야 공자야 내 아들이/ 이화야 도화간의 내 며누리
일월에 봉학은 내 손자야/ 물명지 한 쌍의 애지따라
장안의 호걸은 내 사우야/ 말년에 화초를 심었더니
육십평생에 영화로다

얼씨구 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602-1 : 10 **혼인가**

접시 위에 피는 꽃은 명화꽃이요/ 오늘날로 피는 꽃은 신랑신부라
명화롭다 오늘은 결혼식인데/ 백년 살자 맺은 언약 잊지 말아라
봄동산에 나비는 꽃을 따르고/ 저기 앉은 저 신부는 신랑을 따라
급행열차 한가운데 몸을 실으니/ 손수건 흔들며 떠나갈 때에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나더라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을 노탑리)

1002-1 : 3 화전놀이

어와 세상 벗님네야/ 너희 집에 잔치되면
 옆집에 있으려면 옆집에 밥차리면/ 여러 사람 친구 모여서
 화전놀음 가자 하자/ 여장부 칼버선을 땡시나게 지어신고
 어와 세상 벗님네야/ 오늘은 각처에 친구딸네 다 모여서
 화전놀음 가자하자/ 매화초당 고운 길로
 처발장대 빼탕기어/ 하늘같이 너른 길로
 화전놀음 가자하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악수 서로 하고 설량은/ 우리가 오늘은 모두 각처에서 모이서
 오늘은 해가는줄 모르고/ 재미나게 노다가 어깨꼭지 잘노다가
 각 곳으로 흩어지니/ 다시 만나기가 어렵구나

* 2002.5.21, 최일분(92세, 여, 대월면 구시리)

2. 경기 유희요

0303-4 : 1 줄넘기

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합시다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신발을 잡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가거라

* 1997.4.12, 변수석(59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10-1 : 18 줄넘기

진서방 들어오세요/ 들어 와서 인사하세요
 짱깨보/ 진사람은 나가주세요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삼봉리) 외 3인

0401-1 : 2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손을 들어라/ 꼬마야 꼬마야 자알 가거라

이 노래는 혼자서 줄넘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진 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하세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자알 가거라

이 노래는 여럿이 편을 갈라서 줄넘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 줄넘기를 시작한다.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마장면 오천리)

0511-1 : 4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가거라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808-2 : 3 줄넘기

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합시다
짱께이쇼(가위바위보)

* 2001.2.6, 이일환(90세, 여, 호법면 주박리)

0908-1 : 12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두들겨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 2001.4.28, 최순옥(68세, 여), 최순현(78세, 여, 모가면 양평리)

0209-2 : 8 고무줄놀이

빨간 동그레미 하나가/ 전차에 깔려서 납작콩
겨울에 어머니가 잘못이라고/ 땅바닥을 두드리며 엉엉엉

* 1997.2.20, 김병화(67세, 여, 울면 월포리)

0901-3 : 10 고무줄놀이

홀쩍 홀쩍 뛰다가/ 복순이도 잘뛰네
옷자락이 춤추네

홀쩍 홀쩍 뛰다가/ 한 신발짝이 벗어져
복순이의 가슴이/ 울렁울렁 잘뛰네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기면 두미리)

0909-1 : 16 고무줄놀이

뒷동산에 할미꽃/ 고부라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으나 젊나 고부라졌다

* 2001.4.28, 이들석(76세, 여, 모기면 어농리)

0303-2 : 1 솔래찾기

우리 모두 노랑나비가 되어/ 구름 속에 살짝 숨어 버렸네
솔래야 솔래야 어디서 왔니/ 꼭꼭 숨어라 찾으러 간다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유인선(남, 설성면 행죽리)

0101-4 : 1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나간다
영낭 거지/ 팔대 장군/ 코드래 땡

* 1996.7.8, 배경재(61세, 여, 백사면 현방리)

0308-1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짹바리 오양금/ 모기밭에 뚝서리

* 1997.11.22, 조영자(59세, 여, 설성면 암산리)

0310-1 : 17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인자 만자 주머니끈
짹발려 새양강/ 도리김치 사리육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401-1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짹바리 오양금/ 모기밭에 뚝서리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403-1 : 2 다리세기

한거리 째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오소리 납작 땡

* 1998.3.28, 서경순(75세, 여, 미장면 관리)

0403-2 : 2 다리세기

한다리 두다리 꺾꼬리/ 논차 만차 주머니 끈
오양감사 허리띠/ 푼뿔말아 장도칼/ 고리당 납작이 땡

* 1998.3.28, 윤석용(74세, 남, 미장면 관리)

0411-1 : 5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나그네 용용 그지
팔대 장군/ 고드레 마드레 뽕

* 1998.3.28, 최성환(74세, 남, 미장면 이평리)

0501-1 : 15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영영그지/ 팔대장군 노미장군/
사스미 버미 약장/ 고드레 땅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1-1 : 17 다리세기

한거리 두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머니꽂
돌돌말아 장뚝개/ 십이죽계 먹은 죽
소양강자 얼음뺄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2-1 : 7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신 나간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5-1 : 13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작빤려 오양간/ 도마찍게 장구채/ 호비밭에 독사리
* 1998,8,4, 조영숙(87세, 여, 부발읍 대관리)

0508-1 : 6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장구 빵
* 1998,8,1, 안종렬(87세, 남, 부발읍 신하리)

0510-1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한 대 만대 두만대
고드레 뽕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511-1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세만두
작발라 세양강/ 노리김치 사세요
육두육두 전라두/ 전라김치 사세요
아령이 타령이/ 정산에 목을 걸고 정산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512-1 : 1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썩빠지 새안강/ 모기밭에 독사리
구시월에 무서리/ 동지 선달 대서리
* 1998,8,5, 조금자(54세, 여, 부발읍 송운리)

0602-2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벌려 도래/ 김치 사래 육

* 1999.1.12. 한금현(65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2-2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벌려 세양강/ 구시월에 무서리/ 동지선탈 대서리

* 1999.1.12. 장옥현(65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2-2 : 3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벌려 소라면/ 인다지 꽃다지
바람에 쥐새끼/ 영남거지 고두래 뽕

* 1999.1.12. 한송자(57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6-1 : 3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 바리 호양강/ 모기발에 독수리
구시월의 무서리/ 동지선탈 대서리

* 1999.1.12. 오민자(65세, 여, 장호원읍 송산리)

0612-1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스머리 스머리 벽갈고/ 지리지리 똥뚜깥

* 1999.1.11. 최순덕(67세, 여, 장호원읍 진암리)

0704-1 : 7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사만사 주만사
뿔뿔말라 장두께/ 지비탕탕 먹은 죽/ 아이경상로 허더띠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4-1 : 8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짹발라 새양강
육두육두 전라도/ 나다리 쿵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4-1 : 9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짹바리 오양금/ 모기발에 딱서리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6-1 : 4 다리세기

이귀엔가 정산감사 오끼일세/ 밑쟁이나 밭아줄까
서른 석장 밭아주소
* 2000.3.12, 장연희(83세, 여, 신둔면 도암리)

0707-1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자만자 주머니콩
지비땅땅 모강지/ 사양 허리띠 땅 끝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08-2 : 17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아중 나알대/ 영랑 거지 팔대
장군 고드래 뽕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08-2 : 18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도 마도 두만도
쪽 벌려 오양개/ 모기발에 뚝서리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10-2 : 16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때기 열석냥
까마구 사이에/ 방구에 뚝 땡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1-1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깎거리/ 안사 만사 주머니끈
쪽 벌려 오양죽/ 군밤 사려 삶은 밤 사려

* 2000.3.11, 현원순(74세, 여, 신둔면 인후리)

0801-1 : 2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나그네/ 은다지 꽃다지
바람에 쥐새끼/ 영랑그지/ 고드래 땡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801-1 : 3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중두만두 두만두
전라감원 주게야/ 아랭이 타랭이
먼 산에 목을 감고/ 정~산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803-1 : 18 다리세기

천두 만두 두 만두/ 짹벌려 오양강/ 부침개 한푼 두푼 말맹이

* 2000.4.29. 안민은(75세, 여, 호법면 매곡리)

0803-2 : 4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나가니/ 은다지 꽃다지 바람에 쥐새끼
영랑거지 팔대장군 고드래 뽕

* 2000.9.29. 박성자(73세, 여, 호법면 매곡리)

0805-4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도 만도 도만도
жат갈랑 호양강/ 동지 설달 개설귀

* 2000.6.7. 권필순(71세, 여, 호법면 안평리)

0805-4 : 3 다리세기

수수깅을 꺾어다가 놓았더니/ 죽도 밥도 못얻어 먹는
김신간에 제일 풍

* 2000.6.7. 이흥년(71세, 여, 호법면 안평리)

0805-4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도 만도 도만도
사바리 꼬꼬 담박꼬/ 기름이 전지 잔죽칼

* 2000.6.7, 이웅년(71세, 여, 호법면 안평리)

0807-1 : 5 다리세기

에고리 제고리 꺾고리/ 반두만두 서만두
짜벌러 고양죽/ 모기발에 헛소리
구시월에 무서리/ 동지섯달 대사리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808-2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이띠 이띠 전래야/ 전래감사 조개

* 2001.2.6, 이일환(90세, 여, 호법면 주박리)

0901-2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짜벌러 소양간/ 노루김치 사리유

* 2001.6.27, 이정자(67세, 여, 모가면 두미리)

0901-3 : 7 다리세기

있나라 젓나라 매골 대골/ 흰자 노자 애양 갑자
말 모지리 오리 핑핑/ 가다리 콩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가면 두미리)

0901-3 : 8 다리세기요

한알 때 두알 때/ 영랑 거지
팔대 장군/ 고드레 빵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기면 두마리)

0904-3 : 3 다리세기

한알 대 두알 대/ 삼죽 날 때
영랑거지 팔대장군/ 고드래 쳐드래 빵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4-4 : 2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짜발루 소양간/ 도리김치 사리육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4-4 : 25 다리세기

한통 두통 앵기통/ 닭의 밑에 고매통
안경썼다/ 바람썼다/ 멍멍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5-1 : 1 다리세기

한거리 진거리 꺾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짜빨려 쇠양간/ 요리김치 멍뚱뚱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0905-1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짜빠리 쇠양간/ 도리김치 사래요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0906-1 : 1 다리세기

원철이는 장가가고/ 가지대기 시집가고
영경기는 우유 가고/ 소스랑계비는 하인 가고
안중뱅이는 짚신 삼고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6-1 : 3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수만두
짜 발라 새양강/ 오리김치 새 김치
오로록 조로록/ 걷어다 봅니다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6-1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수만두
짜 발라 새양강/ 오리김치 사리육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6-1 : 6 다리세기

한알 때 두알 때/ 삼사 나그네
혼다지 꽃다지/ 바람에 쥐새끼
영랑 그지/ 팔대 장군/ 고드레 뽕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6-1 : 10 다리세기

소스랑깨비는 장가가고/ 가지대기는 시집가고
영경구는 우유 가고/ 꽃다지는 등녕 쓰고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8-1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벌려 새양강/ 고드래 뽕

* 2001.4.28, 최순옥(68세, 여), 한순현(78세, 여, 모기면 양평리)

0909-1 : 2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녹두 녹두 전라두/ 짜벌려 소양간

* 2001.4.28, 이돌씩(76세, 여, 모기면 아농리)

0910-2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수만두
짜발라 소양강/ 조래 김치 사리육

* 2001.5.4, 최정화(86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짜벌려 소양개/ 모기밭에 답사리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선달 대서리 분판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육두육두 전라두/ 전라가는 요괴
아랭이 다랭이/ 정산에 목을 매고 육판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1-1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인사만사 주머니 끈
뿔뿔말아 장뚝간/ 제비튼튼 무간수/ 아이홍사 허리띠
* 2001.4.28, 박환식(73세, 여, 모기면 진가리)

0911-2 : 9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전자만자 주머니끈
뿔뿔 말아 장독간/ 제비딱지 먹음주/ 가야경사 허리띠
* 2001.5.26, 차인순(61세, 여, 모기면 진가리)

1003-1 : 25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딱벌려 새양갱/ 영남거지 고두레 빵
* 2002.3.17, 박혜숙(80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3-1 : 26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딱벌려 술안개/ 삼지밖에 답사리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설달 배서리 둔판
* 2002.3.17, 박혜숙 할머니 동생(대월면 군량리)

1003-1 : 27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육두육두 전라두
전라감사 촌척/ 무릎 밑에 가라판

* 2002.3.17, 박혜숙(80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4-1 : 1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수만두
짜벌려 세양각/ 요리 김치 조리 김치 사대육

* 2002.3.17, 박노희(72세, 여, 대월면 송리리)

1004-1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이모네 집에 갔더니
암닭 수닭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걸
나 한 술 안주고/ 우리 집에 와봐라
뜨물 한 술 안준다

* 2002.3.17, 정재옥(61세, 여, 대월면 송리리)

1005-1 : 1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나간다/ 인다지 꽃다지 바람에
영양 그지 팔대 장군/ 고드레 빵

* 2002.4.27, 장순애(75세, 여, 대월면 장평리)

1006-3 : 2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딱벌려 소양강/ 노래김치 사래육

* 2002.3.30, 이상희(71세, 여, 대월면 부필리)

1009-4 : 4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소만두
짜벌려 사양강/ 조래김치 사래육

* 2002.4.12. 이상애(73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5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만두 지만두
짜벌려 서양강/ 도리김치 사래육
육두육두 전라두/ 전라감사 주계
아랭이 타랭이/ 먼산에 묵을 꿩고 정산

* 2002.4.12. 김봉옥(69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6 다리세기

용기종기 가락골 녕골/ 사주 월쉬 소머리
팔골 텃밭골/ 연주 탕끼 열두위 가사마

* 2002.4.12. 이상애(73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7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낭아니 인다지 꽃다지
영남거지 팔대장군/ 고드래 뽕

* 2002.4.12. 유정옥(76세, 여, 대월면 대대리)

1101-1 : 7 다리세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두 만두 두만도
석발리 소양지/ 목화밭에 쥐새끼
칠팔월에 먼데기/ 동지 섯달 백설이

설로 나가는 곡소심배/ 야리 저리 다달이 씩

* 2002.5.22, 이순기(60세, 여, 이천시 고담동)

1102-1 : 7 다리세기

한알대 두알대 상난거지/ 팔대 장군 고두레 뽕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열대 강산 조계야

* 2002.5.25, 성미남(78세, 여, 이천시 단월동)

0308-1 : 1 춘향각시놀이

나마간 춘향아씨/ 성은 김가요 (술래의 성을 부른다)

생일은 사월초파일 (술래의 성을 부른다)

이도령을 만날려면/ 정기정기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 1997.11.22, 조영자(59세, 여, 설성면 임산리)

0310-1 : 16 춘향각시놀이

하늘바다 하늘장군/ 천에바다 천에장군

영마루에 대장군/ 구름으로 축질하여

비개태산 유일간에/ 천장군을 믿었더니

어깨집고 요령집고/ 설설 내립소사

썰썰이 내립소사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401-1 : 3 춘향각시놀이

나마간 춘향아씨/ 성은 김가요 (술래의 성을 부른다)

생일은 사월초파일 (술래의 생일을 부른다) 이도령을 만날려면

정기정기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술래가 신이 내려 신놀음을 하면, 다음과 같이 끝맺음)
춘향아 끝났다/ 다 놀았으니 깨거라
춘향아 잘 놀다 가니까/ 깨거라, 깨거라
(세 번 때림. 이때 안 일어나면 찬물을 끼얹거나 씻어줌)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403-1 : 1 춘향각시놀이

춘향 아씨 생일은 사월초파일/ 정기타고 정기 정기 내리시오
설설 내리시오/ 정기타고 정기 정기 내리시오
* 1998,3,28, 서경순(75세, 여, 미장면 관리)

0403-2 : 1 춘향각시놀이

춘향 아씨 내려라/ 등기둥 등등
춘향 아씨 내려라/ 등기둥 등등 (계속해서 반복됨)
* 1998,3,28, 윤석용(74세, 남, 미장면 관리)

0511-1 : 2 춘향각시놀이

(주문을 외운 후)
나마간 춘향아씨/ 사월초파일 광산에 목을 걸고
슬슬 내려 주시옵소서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602-2 : 4 춘향각시놀이

남원 골 춘향아씨/ 이도령을 만나려거든
강산에 중기 타고/ 중기중기 내리시오
중기중기 내리시오
* 1999,1,12, 장옥희(65세, 여, 장호원읍 노탈리)

1003-1 : 31 **춘향각시놀이**

남원골 춘향아가씨/ 당산의 정기타고
정기정기 내리시오/ 사월 초파일날 증기 타고
정기정기 내리시오

* 2002.3.17, 박혜숙(80세, 여, 대월면 군량리)

0602-2 : 5 **풍감묻기**

노자라 노자라/ 시냇 물결아/ 깊으고 깊으고
인산에 인산에/ 청남 같구나

* 1999.1.12, 장옥희(65세, 여, 장호원을 노탑리)

0606-1 : 10 **풍감묻기**

노자라 노자라/ 시내물자라/ 깊으고 깊으고
인산에 인산에/ 증명가고나

* 1999.1.12, 오민재(65세, 여, 장호원을 송산리)

0710-2 : 17 **풍감묻기**

풍갈래 풍갈래/ 자자리도 잘먹고
나나리도 잘먹고/ 꼬깨다리만 들어라/ 문지실적 묻어라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외 5인

0310-1 : 19 **수박놀이**

씨 씨 씨 씨 씨 씨/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기는 저 기리기/ 엽서 한 장 씨 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장 말고 석장이요
석장 말고 너장이요/ ...〈생략〉.../ 구리 구리 짱깨 뽀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외 3인

0908-1 : 2 수진돌리기

빙글 빙글 돌려라/ 어서 줄을 돌려라
하나 두울 셋 넷/ 빨리 빨리 돌려라

* 2001.4.28, 한순현(78세, 여, 모기면 양평리)

0909-1 : 23 종지놀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종지굽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종지굽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종지굽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종지굽이 돌아간다

* 2001.4.28, 이틀석(76세, 여, 모기면 어농리) 외 5인

3. 조형 유희요

0101-7 : 1 소꿉장난 노래

꼬방 꼬방 당 꼬방에/ 모래알로 밥을 짓고
꽃잎 따다 반찬 짓고/ 풀잎 따다 국 끓인다

* 1996.7.8, 이관형(8세, 남, 백사면 현방리)

4. 풍소 유희요

0612-1 : 5 왔다봐라 노래

이모네 집에 갔더니/ 닭을 잡아 놓고서
기름이 동동 뜨는데/ 고기나 한침 안 주고
내 생일 때 와 봐라/ 국물 한줌 안 준다

* 1999.1.11, 최순덕(67세, 여, 장호원을 진암리) 외 5인

0708-2 : 19 왔다봐라 노래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데/ 나 한자름 안주고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 팔떡 주나 보자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908-1 : 11 왔다봐라 노래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 걸/ 나 한침을 안주더라
우리집에 왔단 봐라/ 양태콩을 삶아주나
에롱에롱 대코바리

* 2001.4.28, 한순현(78세, 여, 모가면 양평리)

0106-3 : 1 방아깨비 노래

방아 방아 방아깨비/ 아침거리 짙어라
방아 방아 방아깨비/ 저녁거리 짙어라
우리 아씨 흰떡방아/ 너가 대신 짙어라

* 1996.7.11, 유다정(10세, 여, 백사면 도지리)

0401-1 : 1 잠자리 노래

잠잘아 고찰아/ 앓을 자리 앓아라
고추먹고 맴맴/ 담배먹고 맴맴
퐁퐁 앓아라/ 여기여기 앓아라
멀리멀리 가면은/ 똥물먹고 죽는다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303-2 : 2 바람요

간질 간질 간질/ 봄 바람이 쌀랑 불어 오는데
작년 갓던 제비가 피리를 분다고/ 지지 배배 지지 배배 노래를 한다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선희(11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2 : 3 눈요

아침에도 풍풍풍/ 저녁에도 풍풍풍
우리 보고 반갑다고/ 하얀 눈이 펑펑펑
엄마 얼굴 내 얼굴 달님이고요/ 엄마 얼굴 내 얼굴 서로 같아요
엄마 마음 내 마음 꽃밭이구요/ 엄마 마음 내 마음 꽃밭이구요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은하(11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4 : 1 유희요

옹기 종기 모여라/ 꽃따다 집 짓고
잎따다 물에 담구/ 지리 지리 온단다
노래 노래 부르면

* 1997.12.17, 정향기(71세, 여, 설성면 행죽리)

5. 언어 유희요

0203-3 : 8 화투놀이

일월 속속 들인 정을/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에 흩어 놓고
오월 난초 노든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서/ 팔월 봉산을 구경가자
구월 국화꽃이 피었다/ 시월 단풍에 떨어진다
구시월 찬바람이/ 이내 품으로 돌아든다

* 1997.2.17. 구자원(79세, 남, 울면 본죽리)

0204-3 : 4 화투놀이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정월 속속 뜨는 해는/ 이월 매조에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살이 흩어놓고
오월 난초에 노든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나 누워/ 팔월 공산을 구경하다
구월 국화 만발하야/ 시월 단풍에 똑떨어지니
동지나 설달 서남풍에/ 백설만 날려두 임의생각
임은 가구 붉은 오니/ 꽃만 피워두 임의생각
앉었으니 임이오시나/ 누웠으니두 잠이오나
앉어서 생각 누워서 생각/ 생각 생각에두 나 못사네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6-1 : 13 화투놀이

일월이라 섭섭한 마음/ 이월이라 매조에 맹세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후싸리 흩어놓고
 오월 난초는 곱게 피서/ 유월 목단에 춤을춘다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팔공산을 바라봐
 구월 국화 곱게 피서/ 시월 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추에 이십이라 해도/ 귀인 삼십을 당할소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1 : 2 화투뒤놀이

일월 일송에 속썩던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데/ 사월 후사리 흩어놓고
 오월 난초에 노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돼지 홀로 나와/ 팔월 동산에 구경가자
 구월 국화는 홀로 피어/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네
 오동추야 오신 손님/ 무엇으로다 대접하나
 흥돼지 잡아서 안주하고/ 약주술로만 대접한다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209-2 : 6 화투놀이

일월 일송 석석비리/ 이월 매조로 맺어놓고
 삼월 산란한 마음이/ 사월 후사리로 흩어진다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돼지에 홀로누워/ 팔월 명월에 달맞이 가자
 구월 국진 곱다하니/ 시월 낙엽에 딱 떨어졌네

* 1997.2.20, 김병화(67세, 여, 울면 월포리)

0302-1 : 3 화투놀이

들고나 보세 들고나 보세/ 화토 한 목을 들고나 보세
정월 송학 놀던 학이/ 이월 매조에 맹세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흐쳐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에 구경 간다
구월 국화 만발한 꽃이/ 시월 단풍에 시들어 졌네

* 1997.11.15. 허경순(65세, 여, 설성면 징능리)

0302-3 : 8 화투놀이

정월 솔가지라 솔솔한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흐트러지고
오월 난초 놀든 나비/ 유월 목단에 오는 구나
칠월 흥돼지가 홀로나 누워/ 팔월 공산을 구경할 제
구월 국화 피었는데/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고
동지 선달 소담풍에는/ 날리느니 백설이라

* 1997.11.15. 홍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징능리)

0303-1 : 4 화투놀이

일월 속속히 들인 정은/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에 흩어 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돼지 홀로나 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는 앞뜰에 피어/ 시월 단풍에 낙엽진다
동지 선달 새찬 바람은/ 품안으로만 숨어든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겠나

* 1997.4.11, 김병철(47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3-3 : 1 **화투놀이**

일월 속속히 들인 정은/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에 흠어 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돼지 홀로나 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는 앞뜰에 피어/ 시월 단풍에 낙엽진다
 동지 선달 새찬 바람은/ 품안으로만 숨어든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겠나

* 1997.4.11. 정분남(6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7-1 : 10 **화투놀이**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정월 속속들이 정들인 정을/ 이월 매조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흠어놓고
 오월 난초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를 누워/ 팔월 공산에 구경가세
 구월 국화 홀로를 피어/ 시월 시단풍 뚝 떨어지네
 오동동추야 헤에헤/ 달이 실그머니 밝은데 헤에헤
 임의 동동 생각이 좋구나/ 똥두다도 낫는구나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서리)

0310-2 : 10 **화투놀이**

일월 속속들이 속삭인 정은/ 이월 매조에나 맺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흠어놓고
 오월 난초에 노든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나 누워/ 팔월 공산에 높이올라
 구월 국화 꽃이나 피어/ 시월 단풍에 다떨어지니

오동주 소담풍에/ 백설만 날리어두 당신생각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삼봉리)

0502-1 : 14 화투놀이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송월 속속들이 이말 들으나/ 이월 매적에 맹세하고

삼월 삼사월과 전라사곰/ 사월 흑사리 아기 놓고

오월 난초 놀던 나비는/ 유월도 목단에 춤을 추니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칠월 흥돼지가 홀로나 누워/ 팔월도 공산을 구경할 제

구월 국화나 꽃이나 피었는데/ 시월도 단풍에 뚝 떨어진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저배 이배 가실라거든/ 나 죽는 풀이나 보고 가소

저 배 집은 꽃밭이요/ 나 배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버반철이요/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11-1 : 14 화투놀이

정월 흑사리 맺은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쿠라 산란한 마음/ 오월 난초에 흘뜨려 놓고

오월 난초에 나는 아이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고

구월 국화 피는 꽃은/ 시월 단풍에 낙화되네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602-1 : 16 화투놀이

송학산엔 백학이 놀고/ 백학 속잎엔 원각이 논다
 우주양이는 양산을 받고/ 공산 삼십은 동양에 떴다
 흑싸리 밭에는 메뚜 뿔다/ 난초 진초 꺾어 머리에 꽂고
 한국 단풍에 노루가 뿔다/ 일장을 지저라 대작을 지저라
 매주 심오는 어데다 두고/ 콩나물 제바람을 들고 섰나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3. 김종월(62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6-1 : 1 화투놀이

정월 속속들이 들은 정은/ 이월 매조에 맹서허구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흩어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는/ 유월 목단에나 춤을 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을 구경하니
 구월 국화꽃이 피어/ 시월 단풍에나 떨어지니
 동지섣달 소담풍에/ 낙옆만 떨어져두 임의 생각

* 1999.1.12. 이기범(65세, 남, 장호원읍 송산리)

0704-1 : 1 화투놀이

정월 속속들이 들은 정을/ 이월 매조에 맹세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 헤쳐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봉돼지 홀로 누워/ 팔월 봉산을 구경하니
 구월 국화 꽃이 피어/ 시월 단풍에 떨어진다
 동지섣달 서단풍에/ 백설만 날려도 임의 생각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탄면 장동리)

0802-1 : 2 화투뒤풀이

정월 속속 들은 정은/ 이월 매조로나 맹세하고
삼월이라 삼짓날은/ 제비도 옛집을 찾아오건만은
우리님은 어디를 갔기에/ 일년에 한번도 못오시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일이라
집집마다 등을 달고서/ 자손반월을 하건마는
오월랑 저예 놀던 나비는/ 유월 목단에 떨어지고
유월이라 드는 액은/ 칠월 칠석으로 막아주마
팔월이라 십오일은/ 오려송편을 먹는날
한가위에 오려송편 먹어가며/ 달맛이를 하건만은
구월이나 국화꽃피어/ 시월 시단풍에 떨어지는구나
시월이라 들은 액은/ 시월 시단풍을
십일월을 당도한때/ 호동제야 선달이라
선달 그믐은 오늘이거니와/ 내년 절기를 돌아봤네
동지팥죽 먹고나니/ 절기는 벌써 내년이다
나이를 한 살을 더먹었네
선달은 막날이라/ 빛진 사람 졸리는 때
해동창이 지나고 보니/ 절기는 벌써 돌아왔느니라

* 2000.5.5, 김문용(65세, 남, 호법면 동산리)

0903-1 : 8 화투 뒷풀이

일월 일숙 맺은 언약/ 이월 이매조에 걸어두고
삼월 사구라 곱게 핀 꽃은/ 사월 사리에 헤쳐놓고
오월 난초 오는 나비/ 육목단으로 날아든다
칠월 옥살이 홀로 누워/ 팔공산만 기다리네
구월 국긴 곱게 핀 꽃/ 시월 단풍에 시러지고
오동추야 달 밝은 밤에/ 비오실 리가 만무로다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904-3 : 8 화투놀이

일월 속속들이 들은 정은/ 이월 매조로 놀아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흙 사이로 흩어지고
오월 한철 놀던 나비는/ 유월 목단에 춤을 추고
칠월 혼백이 홀로 누워서/ 팔월 공산을 공평하고
구월 국화 꽃 피어서/ 시월 단풍에 흩어지고
동지섣달 서란풍에/ 백설만 날려서 이 내산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이런 때 안 놀고 어느 때 노나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4-4 : 13 화투놀이

정월 속속들이 들은 정을/ 이월 매조로 맹세하고
삼월 사구라 살리는 마음/ 사월 흑사리로 흩어놓고
오월 난초에 놀던 나비가/ 유월 목단에 춤을 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곰선을 구경할세
구월 국화 꽃 피어서/ 시월 단풍에 떨어지니
동지섣달 설한풍에나/ 백설만 날려든 임의 생각
얼씨구 좋구려 지화자 좋네/ 태평 성대가 여기로다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1003-1 : 17 화투놀이

정월 속속들이 뺏은 정은/ 이월 매조에 뺏어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짜리에 헤쳐놓고
오월 난초 놀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동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꽃이 피어/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니
동지 섣달 소란 통에/ 낙엽만 날려도 입에 생각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겠네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6-3 : 18 화투놀이

일월 일숨에 들은 정을/ 이월 매조로 맹서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흐트러 놓고
오월 난초 구하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을 추네
칠월 흥돼지 홀로나 누워/ 팔월 동산에 달마중 가고
구월 국화 만발하여/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네
동지 선달 설한풍에/ 낙엽만 날려도 임의 생각

* 2002.3.30, 이삼희(71세, 여, 대월면 부필리)

1009-4 : 9 화투놀이

일자나 한자나 들고봐/ 일이 송송 해송송
이자 한자를 들고봐/ 이웃 영감 행금소리
팔천 제자가 춤을 춘다/ 삼자나 한자를 들고봐
삼십 먹은 노총각/ 장가가기가 늦어간다
사자 한자나 들고봐/ 사자 행차 바쁜 길
중간 참도나 늦어간다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15 화투놀이

정월 속속들이 들은 정을/ 이월 이매조로 맹서하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데뿌려 놓고
오월 난초에 피는 꽃은/ 유월 목단에 다 풀어놓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에 달맞이 간다
구월 국화 만발한 것/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고

오동지 설달에/ 양산을 받고 어디를 가나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0102-1 : 4 언문풀이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가저겨 가이 없는 이 내몸이 거이 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생하는 우리 낭군 어디 갔나 안보이네
 나나너너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와 나와 짝을 짓자
 노노누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서 병들면 못 노누나
 다다더더 다정하던 우리 낭군 이별하고는 못살지라
 도도두두 도장 찍혀 나갔던 마음 그대 나 어이나 몰라주나
 라라러려 날라가는 원앙새야 오늘은 어디를 나가느냐
 료료류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서 병들면 못 논다나
 마마머머 마자 마자 마졌더니 생각나는 건 님 생각이요
 모묘무묘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 낭군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 먹어도 님의 생각에 목이나 메어서 못 살겠네
 보보부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 낭군 보고 지고
 아아어어 아두당투 잡았던 손이 인정 없이나 뚝 떨어졌네
 오요우유 오던 복판 검은 그루에 색줄 같이나 다노라니
 사샤서서 사시행차 바쁜 길에 중간 참이나 늦어가네
 소쇼수슈 소슬 같은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한양 천리 가거들랑 도련님 소식이나 전해주오
 자자저저 자주 종종 오시던 낭군 편지 조차 아니오나
 조쵸주쵸 조 별 낭군 내 낭군인데 다시는 못 오시나
 차차처처 차라리 죽었더라면 요런 풀은 아니 볼걸
 초쵸추쵸 초당안에 깊이 든 잠 학의 소리 놀라 깨니
 학의 소리는 간 곳이 없고 흐르니물소리라

카카커켜 칼칼이 또 슬픈 한을 그 누가 알아주나
코쿄쿠큐 콕콕 숨어 어디 가있게 못 보시나
타타터터 타도 타도 타동살이 우리님만 보고 지고
토토투투 토지지신 감동하셔서 이번에만 도와 주소
파파퍼퍼 파요 파요 보고 싶파요 우리 내 낭군님 보고 싶파
포포푸푸 폭포수 흐르는 물에 풍덩씩 빠져나 볼까
하하허허 한양 낭군 내 낭군인데 가시더니 못 오시나
호호후휴 호협하게 먹었던 마음 단사홀도 못다가서
 님의 생각이 절로 난다

나녀노뉴 나기가 한양 천리를 왜 가셨나
보보부부 불쌍하신 우리 부모님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 1996.7.9. 박진중(62세, 남, 이촌 내촌리)

0202-3 : 1 언문풀이

지글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았더니 일년이 중치 못하구나
가까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은 고단하기가 짝이없네
고교구규 고상하던 내팔자 그지만치 되었구나
나나너너 나귀등에 설치하여 조선의 팔도 일념할까
노뇨뉴뉴 노새노새 젊어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닥다닥 붙은 정이 오늘날로 뚝떨어졌네
도도두두 도도하구나 도도해요 한양의 낭군이 도도해요
라라러러 날러가는 원앙새야 나와 너와 짝을 짓자
로료루류 로루 장안에 흥피 진데 처처마다 다있건만
마마머머 마자마자 마챌더니 임의 생각 다시나네
모묘무뮤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의 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 먹다 임의 생각 물말은 밥이 목이 맨다
 보보부부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이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시 사천에 바쁜길 중간 참이 늦어 진다
 소소수수 소슬 같은 찬바람 울고 가는 저기러기
 한양 서울 갈라거든 이내 소식 전파하께
 아야어여 아차잠깐 잊었구나
 오오우유 오롱들에 갈림 셋길 어이 하고 같것이나
 자자저저 자주자주 만났더니 임의 생각 다시 나네
 차차처처 차라리 죽었다면 이꼴 저꼴 아니볼걸
 초초추추 초당안에 거위가 앓듯 안젓으니
 님이 오나 누웠으니 잠이 오나
 카카커켜 칼날같은 이내몸은 누가 알아주나
 하하허허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호호후후

* 1997.2.17. 배순임(70세, 여, 울면 신추리)

0204-3 : 5 언문풀이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았더니 이년이 빠졌구나
 가가가겨 가이없는 이 내몸이 거지없이두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관하기가 짝이없네
 나나너너 날러가는 원앙새야 너와 나는 짝을짓자
 노노누뉴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닥다닥 붙은 정이 오늘날로 뚝떨어졌네
 도도두두 도도하도 도도해요 한양 낭군이 도도해요
 라라러러 날러가는 원앙새야 나와 너와 짝을 짓자
 료료루류 료루장안에 흥피진데 처처마다 다있건만
 마따머며 마자마자 마졌더니 임의 생각 다시나네

모묘무묘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 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벼벼 밥을 먹다 임의 생각 물말은 밥도 목이 멘다
보묘부묘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시 사철에 바쁜길 중간 참이 늦어 진다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7 언문풀이

가가거겨하니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나나너녀하니 날아가는 원왕새야 너와 내가 짝을 짓자
다다더더하니 달은 밝고 명랑한데 임의 생각 절로난다
라려러려하니 날라가는 원왕새야 오늘은 어데로 가느냐
마마머며하니 마자마꿨더니 생각나는건 님생각이고
바바벼벼하니 밥을 한술 얻었더니 그지없이 되었네
사사서서하니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 참이나 늦어가네
아아어여하니 아등바등 함께 살았더니 인정없이 떠나갔네
자자저저하니 자지말고 꿈을꾸니 그지없어 못꾸겠네

* 1997.2.28, 이종철(85세, 남, 울면 신양리)

0206-1 : 2 언문풀이

기역자 안에 점한점 기역자 밖에 점두점
거자 안에 점한점 겨자 안에 점두점
고자 안에 점한점 교자 안에 점두점
두자 안은 내려긋고 듀자는 둘이 내려긋고
겨자는 건너가고 기자는 내려가고
아랫 가자는 점한점
나자 밖에 점한점 냐자 밖에 점두점
너자 안에 점한점 녀자 안에 점두점

노자 안에 점한점 노자 안에 점두점
 누자 밖에 점한점 노자 안에 점두점
 루자는 내려긋고 르지는 건너긋고
 리지는 내려긋고
 아랫 나지는 점한점

* 1997.2.18. 도전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6-1 : 5 언문풀이

기억자루 집을짓구 지글지글 살쨌더니 이년이 빼쳤구나
 가랴 거겨하니 가련한 이 신세가 그지없이 되었구나
 고교 구규하니 고생하구 살아갈라 무슨 덕을 보려하나
 나냐 너녀하니 나비없는 꽃에 임은가구 떠나없구
 노뇨 누뉴하니 노루장화 좋다하구 간곳없는 임이로다
 다다 더더하니 다짓다짓 다진정이 간곳이 전혀 없네
 도도 두두하니 도지케 먹은 마음 하루도 아니가서 낭군이 변해지네
 라랴 러려하니 내려가는 원앙새야 너와 나와 짝을 짓자
 료료 루류하니 노루 장화 좋다하구 가신님을 찾는 개가 그 큰 사람이 되었구나
 마마 머머하니 마저 마저하였더니 오늘 날루 임이 가네
 모모 무무하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낭군 모지도다
 보보 부부하니 보구지고 보구지구 님이 보구지구 우리 님이 보구지구
 사샤 서셔하니 살살살살 부는 님의 바람 품속으로 드는구나
 소쇼 수슈하니 소스라치게 잠을 깨니 빈 베계만 비어있네
 아야 어여하니 야장장견던 님은 간곳이 전혀 없네
 오요 우유하니 오이 따다 장을 담귀
 자자 저저하니 잠을 깨어 생각하니 잠은 꿈이 아니라나
 타타 터터하니 타관살이 말도 많고 일도 많구나
 토터 투투하니 토호를 하다보니 생각이 절로 나네

파파 피피하니 파를 뽑아 강에서 입을 기다려 볼까하구 뽑아다 놓았더니
 임은 간곳이 전혀 없네
 포포 푸푸하니 포로로 잡힌 몸을 어찌 다시 생각하나
 하하 허허하니 한숨 지어 동남풍메고

* 1997.2.19, 원옥선(9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1 : 4 언문풀이

기억 니은 디글 니을 기억자로다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살겠더니 이 년이 지중치 못하여서
 가까거겨 가이없는 이내 신세 그지 신세 되었구나
 고고고고 고생하던 우리 낭군 고단하기가 짝이없네
 나나너너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노노노노 노류장화 인계유지는 저처마다 있건마는
 (다다 ~ 라라 부분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음)
 마마머머 마자마자 마자해도 이내 생각이 또 다시 나네
 모묘모묘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 낭군이 모지도다
 사사서서 사시장천 바쁜 길에 중간참이가 늦어간다
 소쇼소쇼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서울 가걸랑은 우리님께 소식이나 전코가라
 바바버버 밥을 먹다가도 임의 생각에 목이 메어서 못 먹겠네
 보보보보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이 보고지고
 아야어어 아두당투 잡았던 임이 인정 없이도 떨어졌다네
 오요오요 오동복판 거문고를 쇠줄을 메어서 뜯어볼까
 자자저저 자주 종종 만나자더니 인정없이도 떨어졌다
 조조조조 조별 낭군이 내 낭군일세. 편지 일장이 존절한다
 카켜카켜 용천금에 들은 칼로 요 내 목을 비어볼까
 코코코코 콜콜히도 슬픈 하늘 어느 누가 동정할까

타타터터 타도타도 올타도에 누구를 바래고 나 여기왔나
 토토토토 토지귀신이 감동하여 나의 입을 보게 도와주소서
 파파퍼퍼 파요파요 보고 싶어요 이내 하영이 보고 싶어요
 포포포포 폭포수 흐르는 물에 통이나 등실 빠져나볼까
 하하허허 하염하게도 먹은 마음 단사허리가 못가서

남은 생각이 또다시 나네

호호호호 호험하게 먹은 마음 단사허리 다 못가서
 과거봐노 명예같이 지나실 길에 감언불입이 웬말인가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301-1 : 5 언문풀이

가나다라마바사아 (아차 잠깐 잊었구나)
 기억 나온 디글 리을/ 기억자로 짐을 짓고
 지긋지긋 살잖더니/ 이년이 지중치 못하구나
 가이나 없는 아내몸이/ 거지나 없이두나 되었구나
 고생하던 우리 낭군님/ 구관하기가 짝이없네
 소슬 단풍에 찬바람에도/ 울고가는 저 기러가
 우리님께 가시려거든/ 면에나 소식을 전코가소
 오동복판에 거문고를/ 새줄을 개워서 트노라니
 백학은 벌써 지음을 하구/ 우줄후줄 춤을 춘다
 초당 앞에두 깊이든 잠이/ 학에나 소리에 놀라깨니
 그에 학은 간곳 없구요/ 들리나니 문소리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2-1 : 4 언문풀이

가가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걸하기 짝이없네
 나나너너 나귀등에 손질하니 조선팔도 유람할까
 노노누뉴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닥다닥 붙은정이 인정없이 떨어졌네
 도도두듀 도별낭군 내낭군인데 소식조차 돈절하다
 라라러려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와나는 짝을짓자
 로료루류 노루장화 인과유지 주체마다 다있건만
 마먀머며 마자마자 마졌더니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모묘무뮤 모지도다 모지도다 흥구야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버벼 밥을먹다 님의생각에 목이메어 못먹겠네
 보묘부뷰 보고지구 보고지구 한양낭군이 보고지구
 사사서셔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참이나 늦어간다
 소쇼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한양성에 가거들랑 이내소식 전해주오
 아아어여 아씨다 덩씩 안던손이 인정없이 떨어졌네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납기에 쌍그네매고
 너하구 나하구 단 둘이 뛰자

* 1997.11.15, 허경순(65세, 여, 설성면 징릉리)

0310-3 : 1 언문풀이

가가거겨 가이나 없는 이내 몸 거지없이두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구관하기가 짝이없네
 나나너너 나귀등에나 숙절하야 조선팔도나 유람할까
 노노누뉴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머는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닥다닥 붙은정이 거지없이두 되었구나

도도두두 도지도다 도지도다 우리낭군이 도지도다
 라랴러려 날러나가는 원앙새야 너와나와두 살고지구
 료료루류 료루장화는 내장화요 재재마다두 잘있건만
 바바며며 밥을먹다가 생각하니 님의생각이 또다시나
 보묘부부 보고지구 보고지구 한양의 낭군이 보고지구
 사사서서 사신행차가 바쁜길에 중간참이 내려가구
 소소수슈 소솔단풍에 찬바람 울구나가는 저기러기
 한양의성에 가지거든 우리낭군 지켜주오
 아아어어 아사당숙 깊은골을 어이이리 물러날꼬
 오요우유 오동복판 거문고를 두손모아 비노라니
 임의 사연이 좋을시고

* 1997.12.15. 한승우(70세, 남, 설성면 삼봉리)

0504-1 : 6 언문풀이

가가거거 가이나 없는 이 내 몸이 헐릴 없이두 되었구나
 고교구구 고생하는 우리네 낭군 고간살이가 짝이 없네
 나나너너 낮익은 데다 소식을 하며 조선에 팔도를 유랑할까
 노노누누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나 지면은 못노니라
 다다더더 도래와 장화는 입자가 유지 처처 바다가 다 있건만
 마마며며 마자마자 맞았더니 님에나 생각이 또다시 나네
 모묘무무 모지나보다 모지나보다 한양의 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며며 밥을 먹다가도 임생각하니 목이나 메어서 못먹겠네
 보묘부부 보고나지고 보고나지고 한양 낭군이 보고나지고
 사사서서 사시나 행차에 바쁜신 길에 중간의 자리가 늦어간때
 소소수슈 소솔에 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약주를 한대 입에다 물고 백문에 사신을 들어갈때
 부모님 천기 정하여 두면 하얀 선비가 분명토다

* 1998.8.4. 김윤수(65세, 남, 부발읍 고백리)

0507-1 : 3 언문풀이

가가저겨 가이없는 이내 몸이 거지꼴이 되었네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어이가서 안오시나
나나너너 나를 두고 가신님은 어디가서 안오시나
노뇨누뉴 노새 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다다닥 붙은 정이 퇴자없이 떨어졌네
라라러러 날라가는 원양새야 너와 나랑 짝을 짓자
마마머머 맞이로다 맞이로다 우리낭군 맞이로다
바바버버 밥을 먹다 생각하니 임생각에 못먹겠네
사사서서 사시사철 늙은들에 섰지말고 들어오라
아아어어 앵비산에 바둑돌 서쪽으로 돌아간다
자자저저 자구자구 돌아누우니 정든님이 간곳 없다
차차처처 차구차구 들어보니 정든님이 간곳 없다
카카키켜 칼을 들고 돌아보니 님이 없어 못살겠네
타타터터 타국타국타국 살이 님이 없어 못하겠네
파파퍼퍼 팔죽속에 들은 골 제국에도 반골일세
하하허허 해달같은 밝은 선비 꿈가운데 잠깐 만나

* 1998.8.1. 유금순(74세, 여, 부발읍 신촌리)

0602-1 : 2 언문뒤풀이

가가저겨 가이없이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려
고교구규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관하기 짝이없네
나나너너 날라가는 원양새야 한양천리 가거들랑 이내소식 전코가쇼
노뇨누뉴 노새 노새 젊어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라라러러 날라가는 원양새야 한양천리 가거들랑 너와 나와 짝을 짓자
로료루류 로류장단이 임계유진 처철마다 있건마는
마마머머 마자 마자 맞았더니 님의 생각 다시나네

모묘무묘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낭군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 먹다가도 임의 생각에 목이메네
 보묘부묘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참이 늦어간다
 소소수슈 소술 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외기력아
 아아어어 아롱친금 들은칼로 이내몸을 버려주오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 불에 새줄 매어 타노니라
 자자저저 자주 종종 만나더니 이별 두자가 돈절이오

* 1999.1.13. 강월성(71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704-1 : 8 언문풀이

영영 다근을 기억자로다 집을 짓고
 지긋자시 사쨌더니 이년이 충치를 물네
 (아차 잠깐동안 있었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갸겨겨 가이 없는 이내몸이 거이 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생하는 우리 낭군 군안하기 짝이 없네
 나나너너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와 나와 짝을 맺자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고서 병들면 못 노리다
 다다더더 다정하던 우리 낭군 군안하기 짝이 없네
 도도두두 도적을 지켜 먹던 마음 어느 누가 알아주랴
 라라러려 나비똥 손질하여 삼천리 강산 구경을 가자
 료료류류 료류장화 임계요지 처참이 있건마는
 마마머머 마자 마자 마쨌더니 정든님 생각 절로 난다
 모묘무묘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 낭군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 먹어도 님의 생각에 목이 메어 못먹겠네
 보묘부묘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시 행차 바쁜 길에 잠깐 참이나 늦어간다
 소쇼수슈 소슬 같은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이 내소식을 전해주소
 한양 천리 가거들랑 도련님 소식이나 전해주소
 아아어어 아두당투 잡았던 손이 인정 없이나 떨어졌네
 오요우유 오던 복판 검은 그루에 색줄 같이나 다노라니
 자자저저 자주 종종 오시던 낭군 편지조차 아니오나
 조쵸주쵸 조별 낭군 내 낭군인데 가신 뒤로 소식없네
 차차처처 차라리 이놀이 죽었더라면 요런 꼴은 아니 볼걸
 초쵸추쵸 초당안에 깊이 든 잠 학의 소리 놀라 깨니
 그 학은 간 곳이 없고 흐르니 물소리라
 카카커커 옥천금 드는 칼로 이네 목을 땡강 쳐서 한이나 원이나 풀어주소
 코코쿠큐 꼴꼴이 더 슬픈 마음 어느 누가 알아주나
 타타터터 타도 타도 타도하니 우리낭군 보고 지고
 토토투투 토지지신 감동하셔서 우리 낭군 보게 하소
 파파퍼퍼 파요 파요 보고 싶파요 한양 낭군님 보고 싶파
 포포푸푸 폭포수 흐르는 떠등탕 등탕 빠져나 봐자
 하하허허 한양 낭군 내 낭군인데 소식조차도 안줄꾸나
 호호후후 호협하게 먹었던 마음 단 사흘도 못다되어
 님의 생각이 절로 난다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804-1 : 10 언문풀이

경년 지쿨날(기억 나온 디글 리울)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그저시 사췄더니
 이년이 지중치 못해 나는 나가 못살졌네
 가가겨겨 가이없는 이내 몸이 거치없이도 되었구나
 고교구큐 코가 나던 내 낭군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나나너너 나귀등에다 솔질하여 수고만장을 기어타고

팔도강산을 유람하니

노노누누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다다더더 다닥산에 늙은 봉은 다시 젊기가 마누러다
 도도두두 도덕산에 늙은 봉이 다시 젊기가 마누러다
 라라러러 라러가는 원앙새야 너와 내가 짝을 짓자
 러러루류 러류장과 임계유지 저처마다 다있건마
 마야머며 맞아맞아 맞았더니 또다시 맘이 돌았네
 머머무뽀 모지도다 한양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 먹다 생각을 하니 일먹다 목이메네
 보보부부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을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신행차 바쁜길이 그지도 없이 멀었네
 소소수수 소실 단풍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울고가면 니나나나 나와 짝을 짓자
 아야어어 아시다 담뱃 움켜진 손목 다시 놓기 어렵도다
 오요우우 오동복판 거문고에 세줄메고 뜯노라니 백학이 춤을 추네

* 2000.4.29. 김달월(63세, 남, 호범면 송갈리)

0905-1 : 10 언문풀이

가가거겨 가이없는 이네 몸이 거처없이 되었구나
 고교구큐 코가 나던 내 낭군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나나너너 나귀등에 솔질하여 수고만장을 기어타고

팔도강산을 유람하니

노노누누 노세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다다더더 다닥산에 늙은 봉은 다시 젊기가 마누러다
 도도두두 도덕산에 늙은 봉이 다시 젊기가 마누러다
 라라러러 라러가는 원앙새에 너와 내가 짝을 짓자
 러러루류 러류장화 임계유지 저처마다 다있건만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1003-1 : 32 언문풀이

가가거겨 가이없는 이내 몸이 거짓없이 되었구나
 나나너너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허구 나허구 짝을짓자
 노노누뉴 노새노새 젊어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타다타닥 붙은병이 암병없이도 떨어진다
 도도두두 도장에 늙은 이내몸이 다시 젊지 못하나다
 라라러려 날라가는 원앙새야 너허구 나허구 짝을짓자
 료료루류 료류장화는 처참하다 했건마는
 마마머머 마세마세 맞았더니 임의 생각이 또다시나
 모모무뮤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낭군이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먹다 한술 떠먹으니 임의생각이 또다시나
 자자저저 자주종종 만나던 님이 영소식이 무소식이오
 조조주주 조별낭군도 낭군인데 어디가고 일자한자가 없다
 차차처처 초장에 깊이 든잠이 닭의 소리에 놀라 깨니
 그악소리 간곳없고 들리나니 물소리오 흐르나니 눈물이오
 카카키켜 가하졌더니 임의 소식이 무소식 임의생각이 또다시
 코코쿠큐 코가 커 섰다고 냉대하더니 코가 작어
 토토투투 토지신이 나의 지신 나의 지신이 토지지신
 파파퍼퍼 밥을 먹다 마졌더니 임의생각이 또다시
 포포푸퓨 포도대장이 내대장 내대장이 포도대장
 하하허허 하루 찾다고 한량이나 하루 못써 한량이나
 호호후휴 호별낭군이 내낭군 늙어갔으나 내낭군

* 2002.3.17, 흥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0903-1 : 7 언문풀이

하늘같은 내 남편이요/ 천금같은 내 아들에
 만금 같은 내 며느리/ 봉사바친 내 손자는

만 천하에 호걸일세/ 금지옥엽 내 손녀는
 비행금에 비할소냐/ 반달같은 내 딸 애기
 장안에 호걸은 내 사위요/ 동방의 화초는 외손자요
 남방의 화초는 외손년데/ 이러하고 좋은
 이때 무엇을 먹고 늘어볼까/ 서엄쌀로 술 식일 때
 국화주로 식여놓고/ 앵두작고 왼손을 잡아
 왼뺨보는 장도칼로/ 어슷비슷 썰은 후에
 세모 젓대 화접시에/ 네모 반듯 담어 놓고
 섬쌀로 색인 술을/ 동이동이 받쳐놓고
 소양푼도 한 냥푼이요/ 대양푼도 한 냥푼이요
 모가지 짧으다 자라병에/ 모가지 길다 황새병에
 가득 가득 채운 후에/ 부모 형제 일가친지
 동네방네 이르신네/ 한 좌석에 모실적에
 백문석을 걷어치고/ 화문석을 펼친후에
 은잔 늦잔 사기잔을/ 잔 한잔에 가득 채워
 거나하거니 마시거니/ 취토록 하신후에
 흥을 겨워서 노닐적에/ 노류장화를 꺾어들고
 청풍명월을 구경가세
 일엽수선 배를타고/ 대동강수도 돌아보고
 에리베도 팔을 얹어/ 비루봉도 올라보고
 연락선에 몸을 싣고/ 부산의 항구도 돌아보고
 비행기를 높이 타고/ 외국유람도 하여보리
 달나라가 그림구나/ 가세가세 달나라가세
 달나라 꽃구경 갈제/ 우주선에 몸을 싣고
 구름에 두둥실 드높이 떠서/ 달나라를 구경한 후
 몸도 피곤 마음도 피곤/ 술 한잔 마신 후에
 손을 곱어 헤아리니/ 이내 나이 칠팔십에
 오고갈데 전혀 없어/ 갈곳은 한곳이라

친구 벼을 찾아가서/ 작별이나 하려하고
 친구에게 찾아가니/ 저 친구 거동보소
 작별조차도 아니하고/ 나보다도 앞서 갔네
 허무하여 하릴없이/ 일도로 후에 돌아올적에
 소호천변이나 생각하고/ 민언이나 헤아려서
 고향 산천 다시 가서/ 앞 남산 높은 봉에
 양지 바른 곳을 찾아/ 한평남짓 내집 짓고
 천년만년 살으리라/ 몇천년이나 살줄 알고
 고평배를 부여잡고/ 한푼 두푼 티끌 모아
 태산같이도 모았더니/ 이내 한몸 떠날제는
 수의 한벌 관한데에/ 땅 한평이 만족쿠나
 한평집에 드러누워/ 두손을 배에 얹고
 가만히 누웠으니/ 만사가 태평이라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가면 서경리)

0801-1 : 14 곱사풀이

일자도 모르는 반 무식/ 일본 놈 사랑 지누나
 이천도 천이고 개천도 천이고/ 쪽갈라진 경부천 가는 길ियो
 삼방 천안에 가나 낙동강 상냥류/ 얼 소리냐 다니러 갑시다
 녁살 좋구나 광해는 논노리가 신태복/ 니가 울면은 나도 설구요
 오천 댕이면은 낭승구/ 올라버지 사장에 속곳 벗어
 둘러매고 담 넘어 간다/ 오오 가는 황천길
 육방마 도원수로나/ 치레머리는 총각의 머리오
 속비우고 간 정녕도 드는가리라/ ... (미상) ... 콩고리 팔ियो
 구월산 국화가 피고/ 상을려 잔니는 족장자네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303-4 : 2 유희요

노들깡변 백사장 비둘기 한쌍이/ 구름똥 하나를 입에다 물고
암놈이 물어서 수놈 주고/ 숫놈이 물어서 암놈 주고
그걸 보는 젊은 과부는 보따리 싸구/ 늙은 과부는 한숨지네

* 1997.12.17, 정향기(71세, 여, 설성면 행죽리)

1002-1 : 20 유희요

일월에 밝은 달은/ 우리 고향 산천을 보건만은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부모 고향 가거들랑
엽서 하나 전해다오

* 2002.5.21, 최윤희(92세, 여, 대월면 구시리)

여 백

비기능요

구야 구야 담바구야/ 동네월선이 담바구야
 너희국도 좋거니와/ 조선지방을 왜나왔나
 우리국도 좋건마는/ 조경지명에 우러마소
 담바구씨를 싸가지고/ 저기 저산 씨뿌렸더니
 밤이면은 찬이슬 맞고/ 낮이면은 양금보아
 청풍백송수에/ 이글지글 지어놓고
 군산왕죽에 이겨놓고
 담배 한대 피고나니/ 목구멍에서 실안개 돈다
 또 한 대를 피고나니/ 근심걱정 다 녹는다

여 백

I. 타령

1009-1 : 11 건드령타령

건드령 건드령 건드령거리고 놀아보자
 왕십리 처녀는 풋나물장사로 나간다지
 고비 고사리 두릅나물 용문산채를 사시래요
 누각골 처녀는 쌈지장사로 나간다지
 질쌘지 찰쌘지 유자비빔을 사시래요
 모화관 처녀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천의 남전대띠에 춘방사령이 제격이래요
 애오개 처녀는 망건장사로 나간다지
 인모망건, 경조망건, 곱슬망건을 사시래요
 광주분원 처녀는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 대접, 탕기, 종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경기 안성 처녀는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주발, 대접, 방짜대야, 늦요강을 사시래요
 마장리 처녀는 미나리 장사로 나간다지
 봄미나리, 가을 미나리, 애미나리를 사시래요
 양사골 처녀는 나막신 장사로 나간다지
 홀테나막신, 코빠기며 통나막신을 사시래요
 건드령 건드령 건드령거리고 놀아보자

구리개 처녀는 한약장사로 나간다지
당귀천궁, 차전연실, 창출백출을 사시래요
자하문 밖 처녀는 과일장사로 나간다지
능금, 자도, 앵도, 살구, 복숭아를 사시래요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804-1 : 14 꽃타령

꽃가지야 곱다다만은/ 가지가 높아서 못꿨네
꺾으면은 단개화요/ 못꺾으면은 무정화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구서 무엇하나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903-1 : 10 꽃타령

때는 좋다 벗님내야/ 산천경계를 구경갈 제
앞은 뜯어 앞에다 물고/ 꽃은 꺾어서 머리에 꽂고
산천경계를 구경가니/ 산세도 좋거니와
영천지해가 예로구나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가면 서결리)

1009-5 : 3 날개타령

에~혜~나아~하 헤야/ 흰 백자 붉을 홍자 검을 고물이다
에~혜~나아~하 헤야/ 춘향아 술부어라 넘어간다 기울측
에~혜~나아~하 헤야/ 양류천만사인든 가는 춘풍을 잡아매
에~혜~나아~하 헤야/ 녹엽이 낙화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에~혜~나아~하 헤야/ 바람아 광풍아 불지마라 송풍 낙엽이 떨어져
에~혜~나아~하 헤야/ 왜철쭉아 진달아 노간주 하니 맨드라미 봉선화
에~혜~나아~하 헤야/ 양양간수 맑은 물은 구레고읍이 낡은 어선인데

에~혜~나아~하 혜야/ 십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는 나룻배
 에~혜~나아~하 혜야/ 이백이 기경 피상천 풍월 살러 간다는 배
 에~혜~나아~하 혜야/ 양류가지 뚝격어 심었더니 꾀꼬리 집을 지었네
 에~혜~나아~하 혜야/ 뒷동산 고목 나무에 뼈꾸기가 집을 지었네
 에~혜~나아~하 혜야/ 푸룻푸룻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려
 에~혜~나아~하 혜야/ 남원 옥중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려
 에~혜~나아~하 혜야/ 관공장비 유현덕이는 자룡오기만 기다려
 에~혜~나아~하 혜야/ 전라도 중복송이는 주절주절 열렸다.
 에~혜~나아~하 혜야/ 강릉땅 감대추는 나그네 다그네 열렸구나
 에~혜~나아~하 혜야/ 왕십리 큰애기는 못나물장사를 나간대요
 에~혜~나아~하 혜야/ 함경도 큰애기는 명태잡이를 나간다
 에~혜~나아~하 혜야/ 애오개 큰애기는 망건장사를 나간다
 에~혜~나아~하 혜야/ 인모합살 전주땅에 공단등액이 그만이다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301-1 : 4 달타령

달아 달아 등실뜬 달아/ 임의 동창을 비춘 달아
 임 홀로 누웠드나/ 어느 부랑자 품었드나
 명월아 백노일로라/ 이렇게로나 사생결단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407-2 : 1 달타령

꽃이야 곱다만은/ 가지 높아서 못 꺾었네
 꺾던지 못 꺾던지/ 이름이나 짓고나 갈까
 가지는 다 열두가지요/ 잎은 다 삼백육십이라
 무얼로다 이름을 짓까/ 정미화라고 이름을 지니
 일월이 뚜렷하다

* 1998.5.14, 김영희(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510-1 : 10 달타령

오동추야 에헤헤 달 등등 밝은데/ 이내 님 생각이 좋다 싫음 말어라
아서라 말어라 임그리워 말어라/ 사람의 발소리 좋다 그리워 말어라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이마리)

0101-5 : 1 담바귀타령

시작일세 시작일세/ 담바귀타령의 시작일세
담바구야 담바구야/ 동네나 울산의 담바구야
너의 국은 어땡길래/ 대한의 대한을 유람왔나
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이나 주려고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바구씨를 가지고 나와
저기 저기 저 담밭에/ 담바구씨를 술술 뿌려
낮이면은 찬냉수 주고/ 밤이면은 찬이슬 맞춰
돛대 솔잎 재쳐 놓고/ 속이나 속대를 고이길러
잘드는 은장도로/ 어슷 비슷 쓸어놓고
쳐너쌘지 한쌘지에/ 총각의 쌘지도 한쌘지요
담배한대 피고 보니/ 목구명속에서 실안개 돌고
또 한 대를 먹고 보니/ 목구명속에서 청룡 황룡이 꿈틀어졌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109-2 : 6 담바귀타령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네나 울산의 담바귀야
너의 국도 좋다면서/ 우리의 국에 왜 왔느냐
담바귀씨를 받아다가/ 저기 저기 저산 밑에
담바귀 씨를 뿌렸더니/ 한잎두잎 만발하여
낮이면은 태양을 받고/ 밤이면은 찬이슬 맞아
한잎 두잎 다자라서/ 한잎 두잎 다자라서

저기 저기 저 산에서/ 한뼘으로 말렸더니
 한대 주워다가/ 썸똥썸똥 쓸어다가
 아버지 씹지도 한쌘지요/ 아들의 씹지도 한쌘지요
 담배 한대를 피고 나니/ 목구멍 안에서 실안개 도네
 * 1996.7.15, 정지호(76세, 남, 백사면 조읍리)

0104-2 : 5 담바귀타령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네나 울산의 담바귀야
 너의 국이 좋다더니/ 조선에 유람을 왜 왔느냐
 나의 국도 좋다만은/ 담바귀를 구하러 왔소
 담배 한 대를 피우노니/ 목구멍 넘어가 실안개 돈다
 또 한 대를 피고 보니/ 목구멍속에 또 실안개 도네
 * 1996.7.11, 성건용(76세, 남, 백사면 삼용리)

0205-5 : 7 담바귀타령

담바귀야 담바귀야/ 동네 울산에 담바귀야
 담바귀질을 갖다가/ 소편배편에 뿌렸더니
 소무등에 패였구나/ 배무등에 패였구나
 얼얼 얼리 상사디야
 * 1997.2.18, 이보건(74세, 여, 울면 신암리)

0206-1 : 6 담바귀타령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네울산에 담바귀야
 너의 국도 좋다는데/ 우리 국에 왜왔느냐
 저기저기 저 산밑에/ 담바귀 씨를 솔솔 뿌려
 낮에는 태양 맞고/ 밤에는 이슬 맞아
 한잎 두잎 자라나서/ 한잎 두잎 따다가

승승 썰어 말려가지고/ 한대 피우고 나니
목안에는 실안개 돈다

* 1997.2.18, 도전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4 : 2 담바귀타령

귀야 귀야 담바귀야/ 울산국이 좋다더니
저산 고개를 뒤희러 왔다/ 우리국도 좋고 좋아
저산 국령에 유람하러 왔다/ 저기저기 저산 밑에
담바귀 씨를 뿌렸더니/ 밤이면 이슬 맞고
낮이면 양기를 쏘여/ 길게 승승 자랐구나
네모 반듯 창덕칼로/ 역세풀을 베어다가
서산관죽 풍산죽에/ 담배 한대를 피워보니
목구녕 넘어서 실안개가 돈다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302-3 : 9 담바귀타령

길래 길래 담바구이야/ 담바구이 타령이 시작일래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네나 울산에 담바귀야
은을 주려구 나왔느냐/ 금이나 주려구 나왔느냐
은도 없구 금도 없어/ 담바구씨를 가지고 왔네
저기저기 저 산밑에/ 담바귀 씨를 훌훌뿌려
낮이되면 태양맞고/ 밤이나 되며는 찬이슬 맞아
일취월장 잘자란 후에/ 속에나 속잎을 떼어다가
한대 담아 피우고 나니/ 목안에서 실안개 논다
또 한 대를 썩 피워보니/ 청룡 황룡이 노니는 구나
또 한대 피우고 보니/ 세상의 만사가 요만일세

* 1997.11.15, 흥인표(72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9-1 : 6 담바구타령

구야 구야 담바구야/ 동네월선이 담바구야
 너회국도 좋거니와/ 조선지방을 왜나왔나
 우리국도 좋건마는/ 조경지명에 우려마소
 담바구씨를 싸가지고/ 저기 저산 씨 뿌렸더니
 밤이면은 찬이슬 맞고/ 낮이면은 양금보아
 청풍백송수에/ 이글지글 지어놓고
 군산왕죽에 이겨놓고
 담배 한대 피고나니/ 목구멍에서 실안개 돈다
 또 한 대를 피고나니/ 근심걱정 다 녹는다

* 1997.12.15. 권태균(83세, 남, 설성면 송계리)

0506-1 : 6 담바귀타령

담바귀야 담바귀야/ 동네 월산의 담바귀야
 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을 주러 나왔느냐
 은도 싫고 금도 싫고/ 담바귀 한대만 주려므나

* 1998.7.31. 신태준(74세, 남, 부발읍 마암리)

0602-1 : 23 담바귀타령

구야 구야 담바구야/ 동네 울산의 담바구야
 네 국이 좋다더니/ 조선 팔도 돌아 봤나
 돈을 주려고 오랬느냐/ 금을 주려고 오랬느냐
 금도 없어 은두 없어/ 담바구 씨를 가져왔네
 저기 저기 저산 밑에/ 담바구 씨를 뿌려놓고
 낮이되면 태양을 쏘여/ 밤이되면 찬이슬 쏘여
 속있나구 큰있나구/ 네모 번듯 만두칼로
 어숙머숙이 다썰어 놓고/ 낭군의 싹지도 한쌈지요

한대 담어 입에 무니/ 청룡이 핵 들어간다

* 1999.1.13, 박윤래(70세, 여, 장호원음 노탕리)

0612-1 : 2 담바귀타령

구야 구야 담바귀야/ 동네나 울산 담바귀야
은을 주려 나왔느냐/ 금이나 주려고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바구 씨를 가지고 왔네
저기저기 저산 밑에/ 담바구 씨를 심었더니
낮이면은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찬이슬 맞아
한대 붙여 입에 무니/ 목구멍에서 실안개 돈다
또 한대 피우고 나니/ 청룡 황룡에 꿈 떨어진다

* 1999.1.11, 석진환(75세, 남),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음 진암리)

0702-1 : 19 담바귀타령

귀야 귀야 담바귀야/ 누구의 잡수실 담바귀야
이도령 잡수실 담바귀가/ 김도령 잡수실 담바귀가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나 울산의 담바귀야
너의 조국이 좋다드니/ 조선 땅에 왜 들어왔나
나의 국도 좋지마는/ 담바귀를 구하러 왔소
담바귀 한대 피워보니/ 목구멍에 실안개 돈다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3-1 : 11 담바귀타령

구야 구야 담바귀야/ 동네나 울산에 담바귀야
너희 국도 좋건만/ 조선땅에 왜 왔느냐
담바귀를 받아다가/ 여기저기 뿌렸더니
한잎 두잎 만발하여/ 한잎 두잎 다 자라서

한땀 한땀으로 말렸더니/ 주위다가 씌병씌병 썰어서
 아버지 씌도 한땀지요/ 아들의 씌도 한땀지요
 담배 한 대나 피고나니/ 목구멍에 실안개 도네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석리)

1003-1 : 29 담바귀타령

구이야 구이야 담바구야
 너의 국도 좋다더니/ 조선의 국에 왜 왔느냐
 우리 국도 좋지만은/ 조선의 국에 유람 왔네
 담바구 씨를 한되 가지고 나와/ 저기 저산 밑에다 고르게 뿌려
 낮이면은 양기 받고/ 밤이면은 찬이슬 받아
 이 나라 담바구가 되었구나

* 2002.3.17. 박혜숙(80세, 여, 대월면 군량리)

0804-1 : 12 덕담타령

황새야도 죽새야/ 네 어딜갔다가 인제오느냐
 추야청청 늘어진 가지에/ 잠을 자고 이제와
 이왕지세야 왔거들랑은/ 백년흔적을 맺고 가게
 개굴개굴은 청개굴 개굴/ 이집을 찾으려며는
 닭다리를 훌떡쿵/ 며나리 속잎을 열쳐라
 우리도 가자니 병이 들어서/ 약을 지으러 다닐새
 금시 경광이 났나부/ 금시 경광이 났나부
 약탕만을 번쩍들어서/ 방바닥에다가 둘러를 치니
 약은 탕만이 웬손이나/ 약은 탕만이 웬손이나
 영감할멈에 노던 곳고/ 애길랑 제길 표를 두고
 신부 신랑이 우등고자/ 사모관대를 별을 두고
 총각색시가 노든 곳에는/ 명절 소오거나 표를두고

갈부 건달이 놀던 곳에는/ 물장구를 표를 둔다
 현아 인수 대신이야
 누굴 망쳐 승하시느/ 해는 어이 쉬이 가느냐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얼마허이면 만족할까
 어화 세상 벗넘네야
 산전벽에 옆집 할학은/ 네가 다 얻을 소나

* 2000.4.29. 김달윤(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509-2 : 5 도라지타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산천에 백도라지/ 요모 쓸놈의 도라지
 어디가 날태가 없어서/ 큰바위 틈에가 났느냐
 에헤야 데헤야 어허가난다 데허라/ 허송세월을 팔아라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904-3 : 11 도라지타령

도라지야 도라지야/ 심심 산골 도라지야
 너의 색이 곱다/ 하리 고개 넘어 여기 왔다
 자춍꽃 보라꽃 너를 찾다/ 못다 찾고서 거저 간다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4-4 : 18 도라지타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신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두/ 대바구니가 처리철철이 다 넘는다
 에헤야 어허야/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 몯쓸년의 도라지

어디가 날 때가 없어서/ 쌍바위 틈에서 나누나
에헤요 어허야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7-1 : 14 도라지타령

도라지 켈러른 캐구요/ 더덕을 캐러른 캐야지
남모 집에 유흥객/ 근봉하려면 왜 캐느냐
데응 데응 데응 어허리 난다/ 지화자 좋구나

* 2001.4.28, 임복환(94세, 남, 모기면 신갈리)

1003-1 : 13 도라지타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 몯쓸 년에도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스리 살살 다 넘어간다
에헤영 에헤영 에헤영 어여라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 살살 다 녹인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 몯쓸년에도 백도라지
어데 날 때가 없어서/ 양바위 사이틈에 가서 낫느냐
에헤용 에헤용 에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 간장을 스리 살살 다 녹인다.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4-1 : 13 도라지타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강원도 금강산에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어디가 날데가 있어서
쌍바위 틈에가 났느냐/ 한 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 스리살짝/ 스리슬슬 다 넘어가네

434 이천의 옛노래

도라지 캐러 간다고/ 요핑계 조핑계 대더니
막걸리 병을 꿈무니차고/ 총각낭군 오걸레
삼오제 지내러 간다더라

* 2002.3.17, 장채순(81세, 여, 대월면 송리리)

0606-1 : 2 돈타령

돈 나온다 돈 나온다/ 모전단 조끼에 돈 나온다
아가리전은 일전ियो/ 어깨전은 삼전ियो
죽음전은 사전ियो/ 충신전은 오전ियो
조기전은 육전ियो/ 빼털전은 칠전ियो
어깨전은 팔전ियो/ 병아리전은 구전인데
일전만 보태면은 한장일세
얼씨구 좋네 저얼씨구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2, 조영원(68세, 남), 이기범(65세, 남, 장호원읍 송산리)

1103-2 : 7 매화타령

종구나 매화 좋다/ 에야 에야 에헤요
두견이 우누나 사랑도 매화 좋다
물 길러 가는걸 말을 말고/ 부뚜막 밑에다 우물을 파내면
종구나 매화 좋다/ 에야 에야 에헤요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슨 염치로 삼선 버선에 벌받아 달라고
종구나 매화 좋다/ 에야 에야 에헤야, 에~~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 좋다

* 2002.5.22, 정영환(70세, 남, 이천시 장록동)

0303-1 : 2 바위타령

첫발로 새문안 거지바우/ 문턱바우 문바우
 동구재 배꼽바우/ 유박골로 내려가서
 필운데 샷샷바우/ 봉학정 벼락바우
 무하간 선바우/ 남산 잠바우
 이태원 석바우/ 수재 두턱바우
 동구재 말뚝바우/ 과천 관악산 염불암 소바우
 …(미상)… / 앓은 바우
 여주 현바우/ 양근 덕바우
 황해도로 내려가서/ 금천 설바우
 연안 건들바우/ 서호 병풍바우
 동설령 새남 찌꺼기바우/ 황주 쪽도리바우
 도로 올라/ 조선 동토 …(미상)…
 범당 안에 돼지바우/ 공주 계룡산 선녀바우
 놀미 갯개이 벼락바우/ 진라 지리산 살개바우
 청도 밀양의 납작바우/ 문경 새재 구영바우
 충주 월악산 번개바우/ 강원도 들어가 감자바우
 정선 기름바우/ 금강산 일만 이천봉
 팔만 구암자 범당 뒤에 신선바우
 농바위 같은 돌맹이 같은 밥에
 청태콩 들른 듯이 들성 들성 박혔으니
 그 밥을 한 그릇 먹고 나서/ 누룽밥을 훑으려고
 솔뚜껑을 열어보니/ 해태 한 쌍이 나오누나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임계순(69세, 남, 설성면 행죽리)

0303-3 : 6 방구타령

방구타령이 나오는 구료/ 방구타령이 나오는 구료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방구
시동생의 방구는 구염방구/ 시누에 방구는 이간질방구
신랑의 방구는 사랑 방구/ 며느리의 방구는 근심방구

* 1997.4.11, 정분남(6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101-5 : 8 방아타령

에헤요 어허야 에헤야/ 어랑 우겨라 방아로구나
일낙은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은 동녘에 에헤라 맘소사 언디
에타 죽었구나 오다가다/ 만난 님은 정은 어이 깊었는지
이후에 다시 만나/ 에헤라 연분이로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107-1 : 5 방아타령

쿵덕쿵 쿵덕쿵 짙는 방아/ 언제나 다짙고 잠을 자나
잠을 자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입을 보지

* 1996.7.12, 허금자(84세, 여, 백사면 경사리)

0102-2 : 2 방아타령

방아로다/ 왜생겼나 왜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사람 애간장을 다 녹인다
에헤 어허야 에헤 어허야/ 얼릴릴 버리고 방아로다

앞집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메리간다
새끼 서발이 또 남봉난다
에헤 어허야 얼릴릴 버리고 방아로다

간다 간다 내가 돌아간다/ 얼릴릴 버리고 내가 돌아간다
 에헤 어허야 얼릴릴 버리고 방아로다

세월 세월 가지마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 간다
 에헤 어허야 얼릴릴 버리고 방아로다

영감을 데리고 술장사를 갈까/ 총각 데리고 뺑나기를 할까
 영감을 데리고 술장사를 하자니/ 밤잠을 못자서 걱정이 되고
 총각을 데리고 뺑나기를 하자니/ 나이 많은 년 실없는 년 되누나
 에헤 어허야 얼릴릴 버리고 방아로다

* 1996.7.9. 김효순(61세, 여, 백사면 내촌리)

0304-1 : 4 방아타령

에헤야 에헤라 어허라 방아로구나/ 밤낮이 늘어져 절반이 되니
 다시 젊지(?)는 고집이 앵도라졌네/ 에헤야 어허라 방아로구나
 하늘 천자 따지 땅에/ 짐우자라 집을 짓고
 날일자로 영창을 내고/ 달월자로 다리를 놓아
 별진 잘숙으로 잘 살아 보세/ 에헤 어여라 방아로구나
 이 방아 저 방아 다 버리고/ 어떤 방아로 에헤라 한 번을 행해볼까
 여주 이천은 자채방아/ 장단은 고성 매방아
 경신년 경신월 경신시에/ 강태공에도 어여라 조작방아
 에헤요 어여라 어이요 어허라 방아로구나

* 1978년도 인천교대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이관용(56세, 남, 설성면 제요리)

0608-1 : 9 방아타령

덜러덩 쿵덩 쿵 찡는 방아/ 언제나 다 찡고 밤 마실가나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저 넘어 계집애 행실을 봐라/ 밤 마실가면서 난질을 간다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904-4 : 8 방아타령

에헤 에헤에헤~야/ 어러 우겨라 방아로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녘에 달이 돌아온다
에헤 추었구나/ 오처동낭 너른 물에
오고가는 장고선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어차 닷 깎는 소리
원도 기도 긴데/ 에헤라 이 아니라 말가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6-1 : 11 방아노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콩콩 짙는 물방아야
너의 힘이 장하구나/ 한섬 두섬 짙어노니
배꽃 같은 흰쌀일세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가면 송곡리)

1003-1 : 3 방아타령

어아테야 에헤야 에헤야 데헤야 에
에루야 좋구나 매화로구나
에야 데야 에헤야 에에헤어
에아테야 데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야 헤 히히
에루야 좋구나 매화로구나
에아테야 에헤야 나헤이히에헤 바
좋구나 매화로구나
에아하테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나에헤히히

에루야 좋구나 매화로구나

* 1987.9.6. 김순제 교수 채록 자료, 김병기(대월면 군량리)

1101-1 : 5 방아타령

쿵닥쿵쿵 쿵 찡는 방아/ 언제나 다 찡고 임 품에 드나

오실오실 출거든 내 품에 들고/ 벼게가 얹거든 내 팔을 베쇼

* 2002.5.22. 송금주(65세, 여, 이천시 고담동)

0901-3 : 5 범벅타령

어어둥둥 내사랑아/ 어어둥둥 내사랑아

이월에는 씨라구 범벅/ 삼월에는 쑥 범벅

사월에는 느티 범벅/ 오월에는 단오 범벅

유월에는 호박범벅/ 칠월에는 칠성님네

칠성 범벅으로 들어가자

팔월에는 송편 범벅/ 구월에는 귀리 범벅

시월에는 무서리 범벅/ 동짓날에는 팔죽범벅

선달에는 흰떡 범벅/ 정월에는 달떡 범벅

어화둥둥 범벅이야/ 이리보아도 내 사랑이여

저리 보아도 내사랑이여/ 어화둥둥 내사랑아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기면 두미리)

0101-5 : 9 사랑타령

영감을 다리고 술장수를 할까/ 총각을 다리고 뺑소니를 할까

영감을 다리고 술장수를 하자니/ 밤잠을 못자서 고생이 되고

총각을 다리고 뺑소니를 하자니/ 나이 많은 년 실없는 년 되누나

어허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예헤

앞집의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놈이 목메러 간다

앞집의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놈 목메러 간다
아따 그 놈 죽는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세발이 또 남봉나누나
아아 어허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예헤

달도 밝소 별도 밝소/ 올명산천에 저 달이 밝소
달도 밝소 별도 밝소/ 올명산천에 저 달이 밝어
처녀 총각이 단둘이 만나/ 죽을등 살등 살등 죽을등
애가 들면 어떡하나/ 아이가 들든지 어른이 들든지
너하고 나하고 좋으면 그만이다
어야 어허 어야 더야 내 사랑아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203-2 : 3 사랑타령

내가 먼저 살자고/ 내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니안에 도장을 찍었나
어랑 어랑 호오야 호오야 데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삼수갑산 보름 달에/ 얼그럭 설그럭 뛰고요
보고싶은 님 못만나/ 얼그럭 설그럭 시는가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야/ 모두가 내사랑 이로다

* 1997.2.17, 목진순(60세, 여, 울면 본죽리)

0507-1 : 2 사랑타령

수향봉에 바람이 분다고 못오시나
정적 까치에 부동에 절개 매맞는다고 탓하리
몸은 비록 살이 될 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 1998.8.1, 유금순(74세, 여, 부발읍 산촌리)

0708-2 : 1 새타령

옷녀새나 아랫녀새나/ 허이 허이 허이
 너 까먹고 나 까먹으면/ 허이 허이 허이
 나라에 진상을 물로 하니/ 허이 허이 허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 허이 허이 허이
 녹두밭에 앉지를 마라/ 허이 허이 허이
 녹두꽃이 떨어지면/ 허이 허이 허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허이 허이 허이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203-3 : 9 술타령

청주도 소주군 약주면 탁주동/ 빼갈또랑 건너 위스키 담을 쌓고
 뼈루 연당에 사이다 폭포수/ 은전지등 지화 당판 소적수 벽을 발르고
 기생 종년에 승상 해먹던/ 이 내뎀이 다되어 갑니다

* 1997.2.17, 오관영(72세, 남, 울면 본죽리)

0205-1 : 3 술타령

내가 왜 이 술을 먹냐 하면은/ 이술 한잔을 잡으세요
 이 술 한잔을 잡수시면은/ 만수무강을 하오리다
 내가 왜 이술을 먹냐 하면은/ 오늘날도 이 술이 아니면
 맘붙일것이 전혀없네/ 님은 날잡고 아니놓네
 석양은 재를 다넘고/ 나의 갈길은 천리로구나
 말은 가자 네굽을 놓고/ 님은 날잡고 아니 놓네
 금잔디 속에 백년 친구를 묻어놓고/ 울지말아 울지를 말아
 고운 얼굴에 얼룩이 진다면/ 백년의 친구가 널 찾아온다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신양리)

0301-2 : 6 술타령

여보세요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이 술 한잔 잡숫고 나면/ 만수무강 술이라
내 장사라드나/ 이별에 들어 장사가 있나
항한구 눈물을 짓고/ 항우라두 말끝어 들면
차라리 내가 너여 갈걸했나/ 당신이 먼저나 가오

* 1997.11.16, 이희찬(73세, 남, 설성면 금당리)

0303-8 : 5 술타령

이 술을 즐겨서 먹자/ 아편인줄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여자의 마음/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
아마도 당신을 잃고는 나는 못살리라

* 1997.4.11, 강영순(7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10-2 : 7 술타령

내가 이 술을 즐기어 먹나/ 곱역인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 먹었던 마음/ 굵이굵이두 눈물과 함께로당
오날도 이술이 아니면/ 맘불일곳이 전혀없네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413-1 : 10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루루루/ 함홍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담뱃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여야 어허야 더허야 몽땅 내 사랑아
꼭부러진 오동낭군은/ 제멋에 지쳐서 건들건들거리고
장중천 뜯달은/ 사흘을 미쳐서 죽는다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미장면 직촌리)

0503-1 : 9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루루/ 함홍차 떠나는 소리에
 구보산 떠나게/ 판 봇짐을 싸는구나
 어랑 어랑 어어야 어러랑 두둥둥/ 모두가 내 사랑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릴 꺾꺾 찢렸지
 내가 먼저 살자고/ 기약에 도장을 찻누나
 어랑 어랑 어어야 어러랑 두둥둥/ 모두가 내 사랑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벌을 신원리)

0604-1 : 3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으르르/ 함홍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보짐만 싸노라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 사랑이로다
 신 나물을 갈까나/ 단 나물을 갈까나
 총각나물 데리고야/ 넝쿨 놀이를 갈까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사랑이로다
 * 1999.1.12, 윤호채(77세, 남, 장호원읍 방추리)

0608-1 : 10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르르/ 함홍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 공장 큰 애기/ 단보짐만 싸는 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야 디야 요것도 내 사랑아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한 번을 찢렸나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한 번을 찢렸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야 디야 요것도 내사랑아
 사면 재판이 끝나면/ 망국 재판을 할까나
 내 말 한마디 잘하면/ 너하고 나하고 자자 꾸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야 디야 요것도 내사랑아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609-1 : 11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보짐만 싸노라

어리 어리랑 어리랑 아라리요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콧콕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콧콕 찔렀냐

아리 어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1999.1.14, 한호석(72세, 남, 장호원읍 외현리)

0702-1 : 13 신고산타령

에우르릉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담보짐을 싣다지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란다 디어라 내 사랑아

산나물을 갈까 개구정나물을 갈까

도령님 데리고 덩불놀이를 갑시다

어랑어랑 어허야 내 사랑아

나 먼저 살자고 시부랑 사부랑 하였지

내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콧콕 찔렀나

어랑어랑 어허야 내사랑아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904-4 : 6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르릉/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보짐만 싣다네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내 사랑아

앞뒷집이 살아도/ 요런줄 조런줄 몰랐더니
열두가지 빈껍질에/ 뱃골이 잘잘 녹는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두둥둥 내가 놀든 사랑
부랑청진 가신 님은/ 돈이나 벌면은 오지만
공동묘지 가신 님은/ 어느 시절에 오느냐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내 사랑아

어린 자식은 밥을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영감님은 술자시고/ 양산도만 부른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내 사랑아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1009-3 : 5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르르/ 함홍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봇짐만 싣다
어랑 어랑 어허야/ 예헤야 테헤야 내 사랑아
고깔나무에 두견은/ 피나게 슬피 울고
강심에 어린 달빛/ 이리 빗겨 있네
어랑 어랑 어허야/ 예헤야 테헤야 내 사랑아

구부러진 노송은/ 바람에 건들거리고
허공중친 뜬 달은/ 사해를 비쳐주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예헤야 테헤야 내 사랑아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을 다 터뜨린다
어랑 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내 사랑아
백두산 녁쿨은/ 들쭉열매인데
압록강 굽이굽이/ 이천리를 흐르네
어랑 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내 사랑아

용왕담 맑은 물에/ 흙금을 씻고나니
무겁던 머리가/ 한결 쇠락해지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내 사랑아

삼수갑산 머루다래는/ 얼그렁 설그렁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그렁 설그렁지느냐
어랑 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내 사랑아

자작나무 향찰나무/ 잡목이 무성한데
한그루에 낙락장송/ 절벽에 우뚝 섰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내 사랑아

오동나무를 꺾어서/ 열녀탑이나 짓지요
심화병든 우리 님을/ 장단에 풀어나 줄거나
백두산 천지에/ 선녀가 목욕을 했는데
굽이치는 두만강에/ 뗏목에 몸을 실었네

물 푸는 소리는/ 어랑충청 나는데
날 오라는 손짓은/ 섬섬옥수로다
강원도 불원천리를/ 허우단신 그대 찾아왔건만
보고도 본체 만체/ 돈담무심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903-1 : 6 신세타령

오령화가 어데 두고/ 오목반란 의지하며
 서화도벽 어데 두고/ 갈대밭을 들렀느냐
 각장장판 어데 두고/ 삽다리를 깔았느냐
 농부의 장한의리/ 저리 길줄을 알았다면
 공명을 짓지 말고/ 농업이나 힘쓸 것을
 후회가 막급이다/ 후회한들 소용있나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101-5 : 10 양산도타령

에헤에이요

시어머니 죽으라구 백일불공을 드렸더니
 난데 없는 친정엄마가 죽었다고 전보가 왔구나
 아서라 때려 부셔라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은 못 노리구나
 에헤에이요 창포 말에 금잉어 놓고
 이리 등실 저리 등실 술안주감이로구나
 아서라 말어라 늙지는 마라 장난에 웃고름이 늘어지게 한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101-5 : 3 어랑타령

으슬 으슬 춤거들랑 내 품안에 들구요
 베개가 높으면 내 팔을 비어라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이 다리 저 다리 돌다리는 육시를 장마에 뜨는데
 내배가 뜰려면 영감수단에 뜨는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101-5 : 4 어랑타령

물없는 장관방에 니배 내배를 띄워놓고
뚝대질만 잘하면은 대통령감도 나온단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미상 잘 찬다고 큰소리 뽕뽕 치더니
배위에다 올려놓고 방구만 뽕뽕 끼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우리집에 살림살이 찬물에 쪽쪽 붙었는데
기집년의 서방질은 옛가락 늘듯한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시면 현방리)

0101-5 : 5 어랑타령

가을 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구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을 다 태우네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 사랑이로다
구부러진 오성낭귀 바람에 흔들리고
허공중천 걸린 달은 아래를 비쳐주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이야 디어라 내사랑아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시면 현방리)

0103-1 : 3 어랑타령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야/ 요것도 몽땅 내 사랑이로구나
십오야 밝은 달은/ 흰구름 속에서 놀구요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아기 벤또밥만 싸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야/ 요것도 몽땅 내 사랑이로구나

십원짜리가 없으면/ 오원짜리 두장도 난 좋구요
술집에 주모가 없으면/ 술집의 딸이라도 좋단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야/ 요것도 몽땅 내 사랑이로구나

* 1996.7.10. 임윤빈(62세, 남, 백사면 송말리)

0205-1 : 4 어랑타령

어랑어랑 이허야 어허난다/ 디어라 연사연이로구나
요로숙해 다녀도 사람이 땅땅죽는데
도화분을 바르고 신발만 따다팔 꼬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디어라 연사연이로구나
국화꽃이 고와도 춘추반절인데
니 얼굴이 고와도 이슬의 한쪽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난다 디어라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신양리)

0310-2 : 13 어랑타령

어랑타령 한고향은/ 함경도 원산이고요
나 나주신 고향은/ 경상 신마씨로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랄러이나 디어라
모두가 내사랑이로다/ 빨래질 소리는 또 돌아
콩다콩 나구요/ 어테 아롱 아롱
정든님 어디를 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털러이야 디어라/ 모두가 내사랑이로다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403-1 : 7 어랑타령

피꼬리 밖에서 하늘다리가 좋구요
신작로가 넓어서 도망질하기가 좋구요
어랑 어랑 예라 루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
어랑 어랑 예라 루라루 어기 여차

* 1998.3.29, 현언애(80세, 여, 미정면 관리)

0605-1 : 4 어랑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들커덕 덜커덕 들커덕
이것도 내사랑 이로우나
어떠한 처녀가/ 빨래를 빨리갔더니
못된 놈 만나서/ 예루하 돌비개 됐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어야 들커덕
나나리 바람에 훌까닥 넘어/ 콩나무 잡채로우나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을 선읍리)

0606-1 : 4 어랑타령

망초 일구루마는/ 밀어야 가지마는
총각 처녀 가는데는/ 약속이 맞아야 갑니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디어라
연사 연이로우나/ 하늘등천에 뜬 구름은
소내기 한줄금/ 줄려구 떴건만
신작로 복판에 뜬여자/ 누구를 오라고 떴는가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디어라 연사 연이로우나

* 1999.1.12, 이기범(65세, 남, 장호원을 송산리)

0801-1 : 13 어랑타령

내사령 내사령/ 양사령을 지고서
삼수갑산 무릉천지/ 은지와 물러잡시다
어랑어랑 어허야 열령땅
바람에 다 털어먹고/ 백수건달이 되었구나

* 2001.2.6, 김성보(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외 4인

1008-3 : 6 어랑타령

우리의 약속의 눈물을 똑똑이 떨구이면
네탓이나 내탓이나 지내기탓이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니가 나를 살려라
오동나무 칠성팔월에 정든님 발 붙여놓고서
젓밭을때 눈물을 풍남풍물 멀어지노라
어랑 어허야 어랑
땅바닥을 다 팔아먹고 백수건달이라지
보령천지 가신 낭군 모란 뚝 천지
비동강 뛰어라 눈물이 줄줄 흐른다
어랑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니가 나를 살려라

* 2002.5.15, 이재근(68세, 남, 대월면 사동리)

0305-2 : 6 오봉산타령

에루아 걸개나무는/ 가지 가지 꺾어두/ 에루아 모양만 나노라
에헤야 데헤야/ 열차속에 봄바람/ 봄바람 불며는
에루하 비올줄 알면서/ 어떤이 여인이/ 에루아 맞어를 갔느냐
에헤야 데헤야/ 연두사 봉록에 봄바람/ 바람이 불며는
에루아 머리 간장 다 풀어진다

* 1997.11.22, 소서운(71세, 여, 설성면 신말리)

1004-1 : 9 입타령

간밤에 꿈 좋더니/ 입에게서 편지왔네
편지는 왔다더니/ 이건 어찌 못오느냐
동자야 먹갈아라 먹갈아라
한자를 쓰고서 눈물이요/ 두자를 쓰고서 한숨이라
눈물은 흘러 한강수가 되고/ 한숨은 쉬어서 동남풍을
물이 깊어서 못오시면/ 물이 깊어서 못오시면
만경창과에 배를 띄워/ 두리둥실 떠서오쇼
산이 높아서 못오시면/ 산이 높아서 못오시면
무릎으로 살살 기어오쇼
골이 깊어 못오시면/ 골이 깊어 못오시면
쌍지팡이를 짚고 오쇼

* 2002.3.17, 장채순(81세, 여, 대월면 송리리)

0101-6 : 1 장타령

얼씨구 씨구 자리한다/ 절씨구 씨구 자리한다
그 자를 난건 거기두고/ 또 한자가 나온다
일자나 한자나 늙지나 마라
이행년의 북소리에/ 팔도기생이 춤을 춘다
이자를 난건 거기두고/ 또 한자가 나온다
일자나 한자나 늙지를 마라
이행년의 북소리에/ 팔도기생이 춤을 춘다

* 1996.7.9, 오정봉(75세, 남, 백사면 현방리)

0204-3 : 3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구나

폼바나하구 잘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이별송송 개여송송/ 밤중에 셋별이 완연하다
 이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이수중분 백로주에
 백구 훨훨 날아가고/ 삼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삼십먹은 노총각/ 장가 가기가 늦어진다
 사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사시사철 하는 일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복두리)

0206-1 : 14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니/ 일송정에 푸른솔
 이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이승만이 대통령
 삼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삼천만 동포들이
 사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사이팔삼년
 오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육이오사변에 집을 태우고
 거지 신세가 웬일이냐
 칠자나 한자 들고보니/ 칠십만 장병중에 일등병이 웬말이나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301-1 : 8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아
 한발 가지는 깡기/두발 가지는 까마귀
 세발 가지는 동노기/ 네발 가지는 당나귀
 걸린 고리는 문고리/ 뛰는 고리는 개고리
 어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폼바 하구서 잘한다
 너희 선생이 누구인지/ 널보다 더 잘한다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3-3 : 3 장타령

어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님
 돌아오기만 기다린다/일자나 이자나 들구나 보니
 이십에 청춘에 요내몸이/ 그지 없이나 되었구나
 품~품~ 품바하고도 자리를 한다/ 이자나 삼자나 들구나 보니
 삼십먹은 노총각 장개가기를 늦어간다/ 품바하고도 자리를 한다
 삼자나 사자나 들구나 보니/사십 평생에 요 내몸이
 그지 없이나 되었구나/ 사자나 오자나 들구나 보니
 오십에 청춘에 요내 몸이/ 그지나 없이나 되었구나
 품바하고도 자리를 한다/ 오자나 육자나 들구나 보니
 육이오 동란에 집태우고/ 깡통의 생활이 웬 말인가
 육자나 칠자나 들구나 보니/ 칠년 대한 기문날에
 비 한방울 떨어지니/ 망간에 인간이 춤을 춘다
 칠자나 팔자나 들구나 보니/ 아들의 형제 팔형제
 한 서당에다 글을 배워/ 천자 한간도 못떠어내고
 과게 보기만 힘을 쓴다/ 품마하고도 자리를 한다
 팔자나 구자나 들구나 보니/ 구십에 먹은 노인이
 손자 보기를 늦어간다/ 품마하고도 자리를 한다
 지루 지루 나간다/ 진사 자제나 팔잔데
 너를 낳을 때/ 너거머가 뜯물 먹었는지/
 걸찌게 걸찌게 자리한다/ 너거미가 너를 날제
 새끼 서리나 먹었는지/ 서리나 서리나 자리한다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너거미나 너를 날제
 기름땀이나 먹었는지/ 미끈히 미끈히 자리한다

* 1997.4.11, 정분남(6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10-3 : 2 장타령

얼씨구씨구 잘하고/ 품바허구 자리한다
 예하 이놈의 이래도/ 정성이 평소나 잘해도
 팔도강산을 맞아두/ 돈한푼에 팔려서
 드리구 드리구 잘하구/ 품바허구두 자리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봐/ 일이 송송에 개송송 밤중에 셋별이 완연하구
 이자나 한자나 들구봐/ 아들의 형제두 팔형제 여덟의 기상이 춤을추고
 삼자나 한자나 들구보네/ 삼십에 먹은 노총각 장가가기가 늦어가네
 사자나 한자나 들구봐/ 사신행차가 비쁘데 중간참이나 내려갔네
 오자나 한자나 들구봐/ 오원관상의 관운장 적토마를 툅툅타고 근국의 선생을
 찾어가
 육자나 한자나 들구보네/ 육만의 공명의 진시황 육궁유세 하는구나
 칠자나 한자나 들구보네/ 칠년의 대한의 양삼은 비한방울만 떨어지면 춤을추고
 * 1997.12.15. 현승우(7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502-1 : 19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정말로 참말로 잘도 한다
 단군님이 주신 우리 나라는/ 평평한 독독가 가져귀고
 높은데 갈면 밭도 되고/ 낮은데 갈면 논도 된다
 돈 돌아오면 소를 몰아/ 산천천하 논밭 갈고
 씨를 뿌려 가꿔 놓으니/ 예루야 좋구나 싹이 튼다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아랫 논 위에 논 물대주고
 모를 심어 가꿔 놓으니/ 예루야 좋구나 싹이튼다
 가을이 오면 추수하여/ 오곡잡곡을 쌓아놓고
 아들 딸 남매가 웅기종기/ 대빨에 풍박에 싹이튼다
 풍년일세 풍년일세/ 이택 가족에 풍년일세

세계에 평화가 어디 있냐/ 지리구 지리구도 자리한다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2-1 : 20 장타령

일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 장성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이 수준은 백록위에
백구가 훨훨 날아든다

삼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삼팔선이 가로막혀
부모처자를 다 잃었어

사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사주팔자 기박하여
요모양 요꼴이나 되었구나

오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오리안방에 오신 손님
만나 볼 날 거의 없네

육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육간 대청 마루끝에
팔선녀 데리고서 춤을 춘다

칠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칠보단장 꾸미고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집을 나가노

팔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팔자에 없는 만덕이 만나
대평성대가 되었구나

구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구박 맞던 우리 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네

십자나 한자 들구나 보니/ 십년 만에 찾았군
산천 초복도 변했구나

지리구 지리구도 자리한다/ 품바 품바 자리한다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7-1 : 4 장타령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 일전 들고 일전가신 우리낭군
 성공하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 들고 보니/ 이승만이는 대통령 장면이는 부통령
 삼자나 한자 들고 보니/ 삼월운동 유관순이 왜놈에게 잡혀갔다네
 사자나 한자 들고 보니/ 사십오년 대포소리가 들려오네
 오자나 한자 들고 보니/ 오동남부 숲속으로 오랑캐가 쳐들어 온다
 육자나 한자 들고 보니/ 육이오 사변에 남편 잃고 과부소리만 들려 온다
 칠자나 한자 들고 보니/ 아들 형제 칠형제
 팔자나 한자 들고 보니/ 팔월이라 십오일날 문전문전에
 태극기 거리거리 만세소리
 구자나 한자 들고 보니/ 구서구석 남편 잃고 울음소리 서글프네
 장자나 한자 들고 보니/ 장가 든날 첫날밤에 소집영장이 웬 말인가

* 1998.8.1, 유금순(74세, 여, 부발읍 신촌리)

0509-2 : 6 장타령

어혈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혈 시구시구 들어간다
 지난해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구려
 품바하고도 잘한다/ 품바하고도 잘한다
 우리 엄마가 나 낳았을 적에/ 뜯물을 똥이나 자셨는데
 걸쭉하게도 잘한다
 우리엄마가 나 낳았을 적에/ 냉수 똥이나 자셨는데
 시원하게도 잘도한다
 어혈 시구나 들어간다/ 저혈 시구나 들어간다
 심방구 눈물방구/ 목사님 방구는 아멘방구
 이방구 저방구 하여도/ 마누라 방구는 사랑방구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510-1 : 15 장타령

일자 한자나 들고 보니/ 일월성수 성수에 밤중 셋별이 뚜렷하다
두이자를 들고나 보니/ 이구매자 행군추가 행군기상이 춤을 춘다
석삼자를 들고나 보니/ 삼탱가리 노총각이 장가 못가서 안달이났다
녁사잘 들고나 보니/ 사인의 행춘 바쁜 길이 이 나무들에 막네소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이마리)

0601-1 : 11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두 잘한다/ 절씨구두 잘한다
너의 선생이 누구인데/ 시원가게두 잘하구/ 유식하게두 잘한다
너의 어머니가 널 낳때/ 뜯물통이나 먹었던지/ 걸썩하게두 잘하구
너의 어머니가 널 낳때/ 냉수통이나 먹었는지/ 시원 시원히 잘하구
너의 어머니가 널 낳제/ 시전서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두 잘하노라

(사설)

“에 - 마님 개 때려 너 이눔아 마님 개 때려라니. 아이구 마님 오라는데는 없어두 갈데
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마님 개 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시쇼”

에헤 일자나 한자나 들구봐/ 일이나 송송에 해 송송
밤중 셋별이 뚜렷하다
두이자나 들구보니/ 이리나 행군 열두 고개
제갈선상을 찾아간다
석 삼자나 들구봐/ 삼십 먹은 노총각은
장개 들기가 늦었구나/
녁사자나 들구봐/ 사시행차 바쁜 길에
외나무다리를 만났었네/ 건너가기가 막연하다

다섯에 오자 들구봐/ 오관참장 관운장이
적토의 마를 빗겨타고/ 제갈의 선생을 찾아간다

* 1999.1.16, 강대기(81세, 남, 장호원읍 나래리)

0602-1 : 1 장타령

일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 전공하시구 돌아오셨소
이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이승만의 대통령/ 아적까지 부족하구나
삼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삼천만의 우리동포가/ 굳게 굳게나 살아봅시다
사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사천이백 팔십년에/ 육이오 사변이 발생하였소
오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오십만의 인민군이/ 남한일대를 침입하였소
육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육이오 사변에 불태우고/ 강통생활에 들어간다
칠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칠십미리 야포하에/ 천하일대를 진동시키네
팔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팔일오 해방에 휴전회담이/ 오늘날까지도 그쳐지구려
구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국군 생활 구년 만에/ 천하일변이 웬말이오
장자나 한자를 들구나 보니/ 장가간지 삼일만에/ 소집영장을 받았구려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2-1 : 22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품바하고도 잘한다/ 지리고 지리고 잘한다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일어나 송송 다 송송
적토의 말을 집어타고/ 제갈선상을 찾아간다
이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이이나 떡장사 떡을 못팔아 화를 내고
삼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삼십 먹은 노총각 장개가기가 늦어간다
사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사시장철 바쁜 길 중년에 차니 늦었구나
오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오관참장 관운장

적토마를 집어타고/ 제갈선상을 찾아간다
칠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칠년 대한 가문 날
비 한 방울이 떨어지니/ 많은 백성이 춤을 춘다
팔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아들이 팔형제 과거 가기를 힘을 쓴다
구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구국사가 울었는지 정든 님 생각이 간절하다
장자나 한자를 들고보니/ 십년 묵은 고향땅에 돌아오니 많이많이 변했구나
얼씨구 절씨구 좋다 지화자가 좋다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장호원을 노탑리)

0605-1 : 9 장타령

아 - 지리지리/ 지리지리 들어간다
어느 상전을 들어가나/ 후야 저쪽을 들어가나
에하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않고 또 왔습니다
지리지리지리지리 들어간다/ 허하 천벽이 들어간다/ 느낌이 이쪽이 들어간다
푸우 - 푸우 - /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글자하나가 무엇이나/ 첫에 첫거지 무엇이나/ 얼싸 침이 천벽이다
푸우 - 푸우 - /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지리지리지리지리 들어간다/ 자리자리자리자리들어간다
이뭇 저뭇 다 들리고/ 엇그저께 만냈는데/ 인제가서 그만드느냐
지리지리 지리지리 자라자라/ 자자지자지자지자진짜
얼씨구 좋구나 정말좋네/ 요것이 바로 그거로다
푸우 - 푸우 - /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세상 물정을 물으러 갈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푸우 - 푸우 - /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푸우 - 푸우 - /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을 선음리)

0606-1 : 5 장타령

일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일월이 송송아 개송송/ 밤중에 셋별이 완연하다
 두이자 들구나 보니/ 이행숨에나 북소리 팔도나 기상이 춤을 춘다
 삼자나 한자 들구보니/ 삼십먹은 노총각이 장개가 늦어간다
 사자나 한자 들구보니/ 사시장철에 바쁜길 외나무 다리가 또만냈네
 오자나 한자 들구보니/ 오관 참장의 관운장
 적두에마를 빌어타고/ 재갈의 선상을 찾아간다
 육자나 한자 들구보니/ 육십먹은 노인네 아들 두기가 늦어간다
 칠자나 한자 들구보니/ 칠년에 대한에 왕가뭉
 앞 뒤 동산에 비를 물어/ 그 빗방울 떨어지면 많은 인간이 춤을 춘다
 팔자나 한자 들구보니/ 아들 형제가 팔형제
 한 살에서 글을 배워/ 천자 한권을 못다 띠고 과거 보기만 힘을 쓴다
 구자나 한자 들구보니/ 구십먹은 노인네 손자 보기가 늦어간다
 장자나 한자 들구보니/ 이장치구 저장치구 향아리 똥 다찼습니다

* 1999.1.12, 조영원(68세, 남, 장호원읍 송산리)

0606-1 : 6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품발이 하면서 들어간다
 기름동이를 먹었는지/ 미끈하게도 잘 하고
 냉수동이를 먹었는지/ 시원스럽게도 잘한다
 기름동이나 먹었는지/ 미끌미끌 미끌미끌 잘하고
 막걸리동이나 먹었는지/ 비틀비틀 비틀비틀 잘한다
 단군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튼튼한 옥토가 귀하기고요
 높은데를 까면 밭이 되고/ 낮은데 갈면 논도 되고
 봄 돌아 와서 씨를 뿌려/ 산천 낙천에 논밭 같고
 씨를 뿌려 김매주지/ 예로하 좋구나 싹이 튼다

여름이 오면은 비가 와서/ 아래는 뽕논에 물대주고
모를 심어 김매주니/ 예로하 좋구나 잘도 크다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여/ 오곡백곡을 다 먹고
아들 딸 남매가 옹기종기/ 햅쌀에 콩밥이 맛있구나

* 1999.1.12, 이상호(48세, 남, 장호원읍 장호원리)

0609-1 : 9 장타령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나 또 왔네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이시경도 아닌 밤에/ 밤중에 셋별이 완전하다
두이자 한자를 들고나 보니/ 이순신 장군의 한소리
갑골장단이 춤을 춘다/ 삼자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삼십 먹은 노총각/ 장개들이가 늦어간다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사시사철의 백발이
오늘날로 작살났네/ 오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오십 먹은 늙은이/ 처량하기 한이 없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육이오 사변이 일어나서
이내 가슴에 장타령이나 되었구나/ 품바 품바 자리한다

* 1999.1.14,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읍 와현리)

0610-1 : 10 장타령

에헤 얼씨구 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이 송송 개 송송
밤중에 셋별이 완전하다/ 네 선생이 누구신지
나보다 더 잘한다/ 저리 저치고 자리한다
시전 서전을 읽었던지/ 유식하게도 자리한다

이 몸이 이래봐도/ 정승관서 자제로
 팔도강산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나 나설 제
 에헬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 1999.1.14, 권태호(58세, 남, 장호원읍 이흥리)

0612-1 : 7 장타령

일자나 한자나 들구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 언제나 돌아오나
 이자 한자를 들구 보니/ 이승만씨가 대통령 부통령이 한태영
 삼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삼백명 괴뢰군 남한 일대를 울린다
 사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사천 이백 팔십 사년 육이오 동란이 일어났네
 오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오백미터 대포소리 육이오 사변이 일어났고
 육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육이오사변 일어나서 남한 일대를 울린다
 칠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칠백미터 대포소리 남한일대를 울린다
 팔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팔대문이 열어지니 아지사가 들어가지고
 구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군인간제 십년만에 문등병이 웬 말이고
 장자를 한자나 들구 보니/ 장가간날 첫날밤에 소집영장이 웬 말이나

* 1999.1.11, 최상용(66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702-1 : 16 장타령

얼씨구 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품바야 품바야/ 허기저기도 잘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를 한자를 들고나보니/ 일월이 성성 개성성
 밤중에 샛별이 뚜렷하다
 푸우 푸운 품바야/ 품바나 허기 자리한다

어어 이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니/ 이팔이 청춘에 소련들어
 백발 보구나 웃지마라
 얼씨구 씨구씨구 들어간다/ 저리절씨구 들어간다
 석석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니/ 삼십애 먹은 노처녀가
 시집가기가 느작한다/ 저리절씨구 들어간다
 녀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사시계 사철 밟든 길에
 종가나 저미가 느작한다
 어리절씨구 들어간다/ 저리절씨구 들어간다
 오자 한자나 들고나보니/ 오월이라 달 좋은 날에 손에 디거 좋을씨고
 어리절씨구 들고간다
 칠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가 만났구나
 어리절씨구 들어간다/ 쓰리쓰리절씨구 들어간다
 씨구씨구 씨구씨구 들어간다
 팔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팔어 팔아 깊이 팔아 야치보면 나중 온다
 저리절씨구 들어간다/ 저리절씨구 들어간다
 돈 한푼에 팔려서/ 각설이 타령으로 들어갔네
 저리 절씨구 들어간다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7-1 : 6 장타령

어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십애 청춘에 요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품 - 품 - 품바하고 자리도 한다
 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삼십 먹은 노총각 장가가기 늦어진다
 사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사십 평생에 요내몸이 그지없이나 되었구나
 오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오십 평생에 요내몸이 그지없이나 되었구나

품 - 품 - 품바하고 자리도 한다

육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육이오 동란에 집 태우고 깡통생활 웬말인가
칠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칠년 대한 가문 날에 비 한방울 떨어지니
망간에 인간이 춤을 춘다

팔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아들 형제 팔형제가 한 서당에 글을 배워
천자 한칸도 못뻐고 과거보기만 심을 쓴다

품 - 품 - 품바하고 자리도 한다

구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구십에 먹은 노인이 손자 보기를 늦어진다

품 - 품 - 품바하고 자리도 한다

우리 엄마 날 놀적에 땀물이나 먹었는지/ 걸쩍지게 걸쩍지게 자리도 한다
너저머니가 널 놀적에 새끼 서리나 먹었는지/ 서리나 서리나 자리 한다

품 - 품 - 품바하고 자리도 한다

너저머니가 널 놀적에 기름덩이나 먹었는지/ 미끈히 미끈히 자리 한다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12-1 : 16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품바 품바 잘한다/ 등실 등실 잘한다

우리 어머니 날 놀적에/ 땀물이나 먹었는지

굴직 굴직이 자리한다/ 품바 품바 자리한다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2-2 : 10 장타령

얼씨구 씨구 씨구 자리한다/ 품바라 하이구도 자리한다

일자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구 불경에 긴쟁뭉에

이구 문성에 분을 받아서/ 이수중구나 잘로 주로

주장에 나 간느니라/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삼한가죽에 우리 낭군/ 사멸치칠에 우리 사또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사서 삼경을 모르시는지
 사또까지는 못하니라/ 오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오매불망에 우리 낭군은/ 예야 누구나 버려야 한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육자 하거나 겁이 나는지
 옹랑 이슬에 오를라/ 칠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칠월칠석에 넓은 들에/ 부귀 당신이 앉아서도
 팔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팔잔 구진에 조강시에
 조출한 거나 차려놓고/ 고려 송편을 맛있게 먹고
 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구월이라 단풍이에
 시단풍을 좋게 본다/ 시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시월 단풍에 웬일이냐/ 십일월이나 들고나 보니
 십일월 석달은 동지 셋달/ 동지 팔죽을 먹고 나니
 셋달을 먹고 나니 석달을 난단다/ 빗진 사람 줄리는데
 해동자괴나 지나 보니/ 절기는 벌써 내년이로다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4-1 : 8 장타령

어~ 어 절씨구를 들어온다/ 저~ 절 씨구를 들어온다
 앞뒤 집에는 살어도/ 조론 새끼는 침 봤네
 대가리 검은 애자식이/ 평자금능에 만근에
 당줄 없시나 누리시고/ 천리나 만리나 가다가
 마누라 하나 생겼네/ 생기네 마누라 버릴까
 이릉저릉 하다가/ 아들이 하나 생겼네
 생기네 아들 버릴까/ 곱게 곱게나 길러서
 튀전 방으로 물렀더니/ 혼자 가이면은 도망질

둘이 가이면은 가래질/ 세이 가이면는 튀전질
 튀전 가보려 하다가/ 영문사령에 찍혔네
 돈 딴 놨은 몽창질/ 돈 잃은 놨은 짜장질
 양옆에는 주장질/ 우에 으르는 호통질
 흥개 품바가 증 조아/ 저 천리 만리나 가다가
 친구를 만났네/ 친구 계집은 뭇 하나
 떡친네를 들어 갔네/ 얼기설기는 백설기
 한개 두개는 시루떡/ 등글 납짝에 싹떡
 등글쳤나 인절미/ 먹구는 요구요 돌아다가 보니 친굴세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901-3 : 1 장타령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일성성 내성성/ 밤중 지빠리 뚜렷하다
 이자나 한자 들고보니/ 이승만에 대통령/ 괴뢰군으로 침략한다
 삼자 한자 들고보니/ 사시상천에 가는길/ 중하탕이나 얻어간다
 오자 한자 들고보니/ 오관천장 관운장/ 떡두마를 가마타고
 육자나 한자 들고보니/ 육이오사변에 집태우고/ 계집자식 간데없고
 깡통 생활이 웬말인가
 칠자 한자 들고보니/ 일년내내 가뭄나/ 왕비 한방울 떨어지니
 많은 인간이 춤을 춘다
 구자 한자 들고봐/ 구월이라 구일날/ 비둘기 한쌍이 날아든다
 십자 한자 들고봐/ 십칠세에 만난 낭군/ 언제 다시 만나보나

요내 팔자 기박하여/ 문전걸식이 웬말인가
 우리 어머니 날 낳을제/ 냉수댕이나 먹었나/ 시원시원 잘하네
 우리 어머니 날 낳을제/ 똥의댕이나 먹었나/ 걸직걸직 잘한다
 어떤사람 팔자좋아/ 기둥 네구석에 풍경달고

동남풍이 불면은/ 앵그랑 땡그랑 하건만은
요내 팔자 기박하여/ 문전걸식이 웬말인가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가면 두미리)

0904-4 : 12 장타령

얼씨구 씨구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 이놈이 이래도/ 정승판서 자제로
팔도나 감사를 마다하고/ 돈 한푼에나 팔려서 각설이로나 나섰네
똥물똥이나 먹었던지/ 걸죽하게나 잘한다
기름똥이나 먹었던지/ 미끈 미끈이 잘한다
냉수똥이나 먹었던지/ 시원 시원히 잘한다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5-1 : 22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일이성성 내 성성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라 바라보도 자리한다/ 예~ 한푼 줍쇼
느어머니가 처녀적에/ 똥물똥이나 먹었는지/ 걸죽하게도 자리 한다
얼씨구 씨구 저리 씨구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가면 소사리)

0905-1 : 23 장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느어머니가 너를 낳을제/ 똥물똥이나 먹었느냐/ 걸죽하게도 잘도 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느 어머니 널 낳을 적에/ 기름 땡이나 먹었느냐/ 미진하게도 잘도 한다
 얼씨구 씨구 잘도 들어간다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가면 소사리)

1003-1 : 16 장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품바도 자리하고/ 지고지고도 자리한다
 어허야 이놈아/ 정승판서의 자재로
 팔도나 감사를 마다하고/ 각설이 신세가 웬말인가
 품바품바 자리한다/ 지리고 지리고 자리한다
 네 선생이 누군지/ 날보다도 잘한다
 품바하고도 잘한다
 기름동이나 먹었는지/ 미끈하고도 잘하고
 똥물이나 먹었는지/ 걸적하게도 잘한다
 논어맹자 읽었는지/ 대문대문이 잘하고
 시전시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지리고 지리고 잘한다/ 어혈씨구나 잘한다
 안진 고리는 동고리/ 선 고리는 문고리
 뛰는 고리는 개고리/ 나는 고리는 찌꼬리
 입는 고리는 지고리
 품바품바 잘한다/ 지리고 지리고 잘한다
 네 선생이 누군지/ 날보다도 잘한다
 한발 가진 네까끼/ 두발 가진 까마귀
 세발 가진 통노기/ 네발 가진 당나귀
 먹는귀는 내귀로구나

품바품바 잘한다/ 지리고 지리고 잘한다.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10-1 : 14 장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일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일만 이천 배리로 치마
밥해 먹다가 다 태우고/ 이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이십 먹은 처녀들이/ 둘만 모여도 시집애기
삼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삼월 사구라 만발한데
요내 가슴도 산란하다/ 사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사시사철 오는 손님/ 중매자는 왜 안오나
오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옷도 싫고 밥도 싫고
총각낭군이 제일 좋아/ 육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육군도 싫고 공군도 싫고/ 고등의 학상이 나는 좋아
칠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치렁치렁 땀은 머리
파마 생각이 절로 난다/ 팔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팔자 좋은 양갈보는/ 댄스홀에서 춤만 추네
구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구시월에 춤다더니
동지선달에 아니 춤네/ 장자나 한자나 들고보소
장가가던 첫날밤에/ 소집에 영장이 웬말이나

* 2002.4.27. 최옥순(68세, 여, 대월면 대흥리)

0709-1 : 5 질경이타령

질경 질경 시어머니/ 형님머리 석자 머리
내 머리는 너자 머리/ 나비꽃은 오라버니라
제비 같은 말을 타고/ 연지 고개 넘어가고

은자동아 문 열어라/ 금자동아 문 열어라
은을 주랴 금을 주랴/ 은도 싫고 돈도 싫고
열네살 먹거든 손주시오

* 2000.3.11, 조병숙(75세, 여, 신둔면 고척리)

0401-2 : 6 춤타령

춤 나간다 춤 나간다/ 피꼬리 장단에 춤나간다
이 장단에 춤 못추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얼씨구 얼씨구 어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1002-1 : 8 치마타령

이 치마가 이래 뵈도/ 밤에 가면 조상치마
이 치마가 이래 뵈도/ 머리끝에 인사치마
이 치마가 이래 뵈도/ 동기간에 화목치마
이 치마가 이래 뵈도
나라 대통령도 이 밑으로 나고/ 나라 임금님도 이 밑으로 나고
이 치마가 이래 뵈도
동기간에 우애치마/ 동네 사람한테 화목치마

* 2002.5.21, 김희순(77세, 여, 대월면 구시리)

0206-1 : 1 칠봉산타령

칠봉산 꼭대기에는 실안개가 돌구요/ 술집의 마당에는 큰애기가 놀구요
큰 애기 노는데는 양갈비가 놀구요/ 양갈비 노는데는 하이칼라가 노네

* 1997.2.19, 원옥선(90세, 여, 울면 석산리)

II. 아리랑

0206-1 : 4 아리랑

오동 오동나무야/ 어서 빨리 크거라
우리 동생 시집갈적에/ 반다지 장롱 짜줄거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6-1 : 12 아리랑

꽃꺾어 머리에 꽂고/ 앞은따서 입에물고
산에올라 내려다 보니/ 동백야 열지를 마라
산골에 큰애기 난봉난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열리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를 다허물어도 왜 아니 나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4 : 1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얼었다 녹으니 봄철이야
아리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아리리로구나
아리랑 타령을 거기 누가 났노/ 뒷집의 김도령 내가 났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랑 아라 아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아리리로구나

진천방골에 큰애기는/ 납채를 받고 죽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랄 얼씨구 아리리로구나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401-2 : 4 아리랑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야 장마가 질라나
범중 검정구름이 왕래를 하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랑 아라리요/ 아우라지 뱃사공야/ 배 좀 돌려주세요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울타리밧에 맨드라미는 왜 심어났나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아라리/ 고개를 넘어갑니다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마장면 오천리)

0509-2 : 3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으으으/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재는 몇 고개나/ 구미야 구미구미가 눈물이로구나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으으으/ 아라리가 났네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510-1 : 4 아리랑

가라면은 가지요/ 술 담배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오늘 갈는지 내일 갈는지 병사 반경인데
호박넝쿨에 박넝쿨은 난출거리나
아리랑 어리어리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세요

가문에 팔베개 맑은 내 정신은 어디 어디다 두고서
걸음을 다 걸어두고 정신만 가느냐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아미리)

0511-1 : 16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넘어야 갈적에는 큰맘먹고 갔는데/ 문고리 잡아들고서 발발 댄다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608-1 : 1 **아리랑**

울타리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 다 부서도 아니나 오네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리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열리나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앞강에 뜬 배는 고기잡이배/ 뒷강에 뜬 배는 님 실러온다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1999.1.12, 최국현(5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609-1 : 12 **아리랑**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 마라/ 산골에 큰아기 줄라고 났네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열리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리나
울타리 밑에서 풀비는 총각/ 눈치가 있거든 떡 받아먹지
떡일랑 받아서 팽이를 치고/ 박속 같은 내 손목을 꼭 잡아주소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담 넘어 갈적에 울던 닭은/ 야산에 족제비 또 물려갔네

* 1999.1.14, 한춘석(72세, 남),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읍 외현리)

0612-1 : 3 아리랑

아리 아리 쓰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팔라당 팔라당 수갑사 댕기/ 곤때도 안묻어 사주가 왔네
 사줄랑 받아 옆에 끼고/ 눈물만 흘려서 한강이 됐네
 아리 아리 쓰리 스리 아라리요

* 1999.1.11, 최상용(66세, 남, 장호원을 진암리)

0612-1 : 7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가 났네 에헤
 왜 죽었나 왜 빠드러졌느냐 왜 돌아가셨나아
 어린 가장에 못 베겨 놓고서 왜 죽었소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나를 나좀 보소
 동지섯달에 꽃 핀 듯이 나를 나를 좀 보게

* 1999.1.11, 이규석(74세, 남, 장호원을 진암리)

0703-1 : 5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만 넘겨를 주네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 좋기에/ 한번만 가시면은 오실줄을 모르나

* 2000.3.11, 서정호(60세, 남, 신둔면 지석리)

0706-1 : 5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울 넘어 총각은 빈수레/ 물 길는 처녀는 한숨소리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 큰애기 젖통은 몽실몽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동남편 죽으라고 흰땀기/ 접어서 손에 들고 축수하네
 산실령 까마구는 까옥까옥/ 정든님 병안은 깊어간다

* 2000.3.12, 장연희(83세, 여, 신둔면 도암리)

0711-1 : 5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춘자야 배 띄어라/ 아저씨 배타고 뱃놀이 간다
영등포 다리밑에 빠이롱 소리/ 가만히 들으니 오빠 생각

* 2000.3.11, 한원순(74세, 여, 신둔면 이후리)

0910-3 : 2 아리랑

간다고 간다고 베르더니/ 십리도 못가고 발병났네
오리도 못가고 도지네/ 입을 그리워 못 가졌네

* 2001.5.10, 이갑주(86세, 여, 모가면 원두리)

0910-5 : 3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리네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0911-1 : 2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나 넘어 갈곳은 한두나 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오

* 2001.4.28, 박환식(73세, 여, 모가면 진가리)

0911-1 : 3 아리랑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나를 가라하네/ 삼베질삼 못한다고 나를 가라하네
삼베질삼 못하는 것은 배우면 하지/ 가장하나 잘못 만난건 백년이 원수
과부하나 잘못 만난건 하루식전 해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2001.4.28, 박환식(73세, 여, 모가면 진가리)

1003-1 : 7 **아리랑**

울타리를 꺾으면은 나온다고 하던데/ 행랑채를 다부셔도 안나온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담넘어 갈적에 큰마음을 먹고 가더니/ 문고리 잡고서 발발 편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8-2 : 3 **아리랑**

술이 생기길랑에/ 내 이리 장춘이 생기고
임이라고 생기길랑에/ 이별없이만 생겨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좋다

* 2002.3.30, 조각형(76세, 여, 대월면 사동리)

1008-2 : 22 **아리랑**

육백 육가래/ 십이원 팔전을 하여도
주인이주머니 한잔 못 비고서/ 나 혼자 다 먹어버렸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 2002.3.30, 이재근(68세, 남, 대월면 사동리)

0804-1 : 11 **역음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리랑 고개로나 넘어를 간다
우리택에 새서방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각구머리에 각구쓰고 모자쓰고 있고
양복입고 차고 환도차고/ 이십원짜리 가방들고
서른네로 우리들 출장을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소식이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만 넘어를 간다

니팔자나 내팔자나 니칠자나 내칠자나
이하여타 죽어지면 곁넷기도 일곱넷기
속넷기도 일곱넷기 질십사 열네넷기
꼭꼭묶어 소반석대털위에
덩그렇게 었어놓고서 오호동차 타는데
몽달 귀신이 된다는 말이야 왜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만 넘어만 간다
동서남북 일백오십 도모지 미루야
씩씩 쓸어서 잠들여 놓고
증울손이를 다리고선 선마령을 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만 넘어를 간다
정선읍내 식물나비 물래방아/ 사구삼십육 서른여섯 바구
허풍산이 국물께나 물어랑 한아름 담쑥안구서
물살을 못이기어서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네 서방님은 날 안구 돌줄은 왜 몰라주나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607-1 : 7 자진아리랑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가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는 구정자요/ 살구나무 정자로 만나보세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가세
올타리 밑에서 풀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받아 먹어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가세
호랑이 호랑이는 날 오라 놓고/ 문걸어 잠구고 나리잠 잔다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가세

* 1999.1.12. 박재형(80세, 남, 장호원읍 어석리)

1003-1 : 2 긴아리

날좁 보소 날좁 보소 날좁 보소/ 천하도척 아니거든 날좁 보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에에어 아리랑

홍당목 치마는 붉어서 좋고/ 백광단 속곳은 넓어서 좋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에에 아리랑

백꽃같은 애 우리딸애/ 얼굴 구름에 경자나 기어를 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 이어/ 아리랑 예에에 아리랑
요놈의 총각아 내 손목 놓게/ 백광단 저고리 등 너머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 이어/ 아리랑 예에에 아리랑

백광단 저고리가 등 너머가면/ 길상사 저고리를 내 줌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 이어/ 아리랑 예에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이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이헤 아리랑

이를 갈제 어딜 갈지 모르는데/ 박넝쿨 울 넘어를 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이헤 아리랑

건너 산에 철죽 꽃은 붉으세나 붉어/ 정든님의 얼굴이 흡사허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이헤 아리랑
수수백도지는 내가 물어줄게/ 구시월 거적난 명류 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에이어/ 아리랑 예이헤 아리랑

* 1987.9.6 김순제교수 채록 자료, 김병익(대월면 군량리)

1003-2 : 1 긴아리

아리랑 어 - 허 아라리어 어이하/ 에이 에이허 어허어 어리랑
저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었는데 에이/ 올같은 풍년에도 또다시 묵었구나
아리랑 어-허 아라리어 어이하/ 에이 에이허 어허어 어리랑
저넘어 올적엔 큰마음을 먹었는데/ 문고리 잡구서 왜 발발떠나
아리랑 어-허 아라리어 어이하/ 에이 에이허 어허어 어리랑
아리랑타령이 얼마나 좋길래/ 먼데서 이만큼 모여나 드나.아
아리랑 어-허 아라리어 어이하/ 에이 에이허 어허어 어리랑

* 2002.3.17. 김병전(62세, 남, 대월면 구랑리)

1009-3 : 7 긴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열씨구 놀다가세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를 마라/ 누구를 피자고 머리에 기름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여는가

곱게 핀 동백꽃 보기도 좋고/ 수줍은 처녀의 정렬도 같네
사랑에 겨워서 등을 밀었더니/ 가노나 명절에 무소식이로다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흙물에 연꽃은 곱기만한데/ 세상이 흐려도 나 설타이지

김꽃을 좇으며 헤어진 사람/ 금감이 익을때 오시마 한 사람
봄바람 불어서 꽃피건만은/ 고달픈 이 신세 봄은 아니오네
영창에 비친 달 다지도록/ 온다던 그님은 왜 아니오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산중에 귀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에 귀물은 말 안하나
 십오야 뜬달이 왜 이리 밝아/ 산란한 이 마음 달랠길 없네

풀벌레 구슬피 우는 밤에/ 다듬이 소리도 처량쿠나
 황량한 벌판에 해는 지고/ 앞으로 남은 길 천리만리
 희망찬 앞날을 다짐하고/ 힘차고 용감히 싸워보세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3 : 8 긴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날 넘겨주게
 만경창파에 거기 등실 뜬 배/ 대장간 닷 주어라 말 물어보자
 아리랑 고개에다 주막집 짓고/ 정든님 오시기만 고대 고대한다
 임 이별하던 말 내 어이 살았나/ 모질고 거센 세파 어이 살아갈까

추야공산 다 저문날에/ 모란 한국이 다 피었구나
 고운 얼굴에 눈물이 지니/ 이화 도화 춘대우로다
 우연히 저 달이 구름 앞에 가더니/ 공연한 심회를 살랑케한다.

푸른 물결에 두등실 뜬 백구/ 내 마음 아픈 걸 네 어이 알소나
 산 적적 어랑 우리/ 이별한 님 그리워라
 춘하추동 사시절에/ 임을 그리워 어이 살거나

모진 바람은 쓸쓸히 부는데/ 님을 그려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누구를 보고자 이 단장 했나/ 님 가신 나루에 눈물비 온다
 낙락장송을 더덤씩 잡고/ 외로운 마음을 하소나 할까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Ⅲ. 한탄가

0101-2 : 1 시집살이

성님 성님 사춘 성님/ 시집살이 어떻딴까
이야 아우 말도 마라/ 고추 당추 맵다하니
시집살이 보다 못하다/ 시어머니 죽어 좋다더니
보리방아 물부어 놓고/ 시어머니 생각나네
시아버지 죽어 좋다더니/ 시집살이 덜어지니
시아버지 생각 절로 나네/ 강괘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누년에/ 술개 같은 시아버지
아이구 답답아/ 내가 무슨 팔자로
이렇게 생일이 생겨서/ 시집살이 하느냐
웬수같은 서방자식/ 남포물이나 뿌리는데
에이구 못살겠다/ 못살겠다 나는 못살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한백년 살고 지고 할랬더니 못살겠네

* 1996.7.8. 전도길(79세, 여, 백시면 현방리)

0103-1 : 5 시집살이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아비 등살에 못살겠네
못사리라 못사리라/ 시어미 등살에 못사리라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부모 잔등살에 못살겠네
사랑문을 더덜경 여니/ 수담 같은 시아버지 진지나 잡수세요

안방 문을 더덜경 여니/ 암닭 같은 시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옷방 문을 더덜경 여니/ 씨암탉 같은 시누 밥 쳐먹어라
 보리방아 물 부어놓고/ 시부모 없는 생각이 절로 나네
 나 울자리 건네 주세요/ 시부모 어디 갔나 생각이 절로 나오
 어린 아이 우는 소리는/ 시부모 생각이 절로나 난다
 얼씨구나 씨구 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 1996.7.10, 임윤빈(62세, 남, 백사면 송말리)

0107-1 : 2 시집살이

시집살이 맵다고/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답까/ 고추당추 맵다더라
 뒷밭에는 명이 나서/ 당실당실하고
 앞밭에는 내다보니/ 산이 산들산들하고
 시집살이 삼년 해보니/ 미나리꽃이 폈구나

* 1996.7.12, 허금자(84세, 여, 백사면 경사리)

0203-2 : 2 시집살이

시집살이 못하고 가라면 갔지/ 술 담배 끊고선 나 못살겠네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리아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리아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1997.2.17, 목진순(60세, 여, 울면 본죽리)

0310-1 : 15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답까
 아우야 애야 말도 마라/ 고추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까/ 호랑이같은 시아버지

깡패같은 시어머니/ 여우같은 시누년에
숫개같은 시동생들/ 답답하고 갑갑하다
이내 신세 갑갑하다/ 내가 무슨 팔자로
일찌감치 시집 와서/ 이 고생을 사서하나
애고싫다 애고 싫다/ 시집살이 싫고싫다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상봉리)

0312-2 : 1 시집살이

우리집 시어머니는 염채도 좋지/ 저 잘난걸 내놓고 날 데려왔나
날 데려왔어 대하니 볶지나 말지/ 요리볶고 조리볶고 콩볶듯 하네

* 1997.12.16, 안한균(49세, 여, 설성면 대죽리)

0401-1 : 7 시집살이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아버 등살에 못살겠네
못살아요 못살아요/ 시어머니 성화에 못살겠네
시집살이를 못하고/ 가라고 하면 갔지요
술담배 끊고는 못살겠네
시집살이를 못하고/ 가라고 하면 갔지요
나는양 당신 말고는/ 못가네 나는 못가네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마장면 오천리)

0403-1 : 4 시집살이

시집살이 맵다하더니/ 고추단추보다 더 맵더라
너도 시집가면은/ 시집살이가 어떻더냐
드러누워서 명주꾸리/ 한올을 걸어봐라
팔이 아프고/ 눈이 아프도다

* 1998.3.28, 서경순(75세, 여, 마장면 관리)

0407-2 : 11 시집살이

영감아 꽃감아 일어를 나게/ 보리방아 품팔아 개가떡 찌냈네
어린애 자식은 젓달라고/ 다 큰 자식은 밥을 달라
쌀이 있어야 밥을 하지/ 영감아 잡놈아 어서 일어나게
세살 창문에 해 들었네/ 영감아 잡놈아 일어나게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미장면 표교리)

0407-2 : 13 시집살이

시집살인 활동말동 하는데
원수년의 호박통은 왜이리 혼드나
알뜰이 살뜰이 살림하면 내살림 되나
젓가락 숟가락 분질러 엇이나 사 먹지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미장면 표교리)

0413-1 : 11 시집살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집살이를 못하구선 가라면 갔지/ 술담배 끊고선 나는 못살것소
시아머니 죽었다고 좋다더니/ 버림하나 묶어놓고 또 생각나네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다더니/ 왕굴다리 다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미장면 직촌리)

0501-1 : 1 시집살이

노랑 두 대가리 뒤범벅 상추/ 언제나 길러서 내 낭군하나

시아머니 : “너 시방 며느리 뭐라 했나”

며느리 : “시집을 오면 시어머님 시아버님 있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어려워
신세 한탄을 한마디했지요”

눈에도 몸이 학이나 되어/ 날개 몸에다 입을 신고
이별 없는 고장을 가서/ 이별 없이 잘살아 볼걸

오동 같이도 검던 머리/ 파뿌리 될줄은 누가 알았나
샛별 같이도 밝던 눈이/ 탄탄수 될줄은 나 몰랐네

* 1998.7.31. 송봉순(73세, 여, 부발읍 무촌리)

0501-1 : 7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딪까
동생 동생 사촌 동생/ 시집살이 말도 말게
산판감이 머리춤이/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옥가락지 끼던 손은/ 개 가재 발이 되었네
말두 마라 말두 마라/ 시집살이 말두 마라
백옥 같은 얼굴이/ 미나리꽃이 다 피었네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1-1 : 14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딪까
동생 동생 사촌 동생/ 시집살이 말도 말까
고추 당추 맵다더니/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까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2-1 : 4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딪까
고추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까
미나리깁에 가봤더니/ 미나리꽃이 하얗게 변해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0505-1 : 2 시집살이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만 하나
시어머니 잔소리는 꿀잔소리/ 시누 잔소리는 고추 잔소리

* 1998.8.4, 조영숙(87세, 여, 부발을 대관리)

0509-2 : 9 시집살이

시집살이 못해도 가라면은 갔지/ 술 담배 안먹구 못살겠네
시집살이 암만 맵다해도/ 고추만은 맵다하리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을 가좌리)

0602-1 : 6 시집살이

성님 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떻게
시집사리 맵다한들/ 고추보다 더 매우라

* 1999.1.13, 박윤래(70세, 여, 장호원을 노탈리)

0612-1 : 1 시집살이

시어머니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더니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전화가 왔네

* 1999.1.11, 최순덕(67세, 여, 장호원을 진암리)

0602-1 : 23 시집살이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냉수가 있거든 한그릇 주오
냉수는 있기는 있지만은/ 누군지 몰라 못주겠소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어디서 꼭 한번 뵈겟 같소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딸이나 있거든 사우나 삼어
딸은 있기는 있지만은/ 나이가 어려서 못주겠네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고추가 작아도 맵기만 하오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체비가 작아도 강남만 가오
아, 여보 이주머니 그 말씀 마오/ 물새가 작아도 물만 잘퍼오
사랑문을 털커덕 여니/ 호랭이 같은 시아범 잡눔
만장의 단장을 차리시고/ 조반의 진지를 잡수시네
안방문을 털커덕 여니/ 여우같은 시어멈 잡넌
만장의 단장을 차리시고/ 조반의 진지를 잡수시네
건너방문을 털커덕 여니/ 신선 같은 우리 낭군
만장의 단장을 차리시고/ 조반의 진지를 잡수시네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음 노탑리)

0612-1 : 2 시집살이

구름 같은 세상에서 연기 같은 입을 믿고
당초진 두루말에 간장을 적십니다
소소는 발기발기 찢어버린 짝 편지
내 어이 당신을 믿고서 살겠소

* 1999.1.11, 최순덕(67세, 여, 장호원음 진암리)

0612-1 : 3 시집살이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느리 아가
너의 낭군이 오신다니/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우중중중중 발자욱소리
난데없이 들리더라/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흰빨래는 회게 빨아서/ 집이라고 찾아와 보니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느리 아가
너의 낭군이 오시었으니/ 건너방으로 들어가라

건너방에 들어가니/ 오색 가지 수를 놓고
기생첩을 옆에다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그꼴을 본 머느리아기느/ 아랫방으로 내려와서
너자 세치 명주에다가/ 목을 매어서 죽었노라

* 1999.1.11, 최순덕(67세, 여, 장호원읍 진암리)

0706-1 : 3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든가
시집살이 말도마소/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처럼 또매울까

* 2000.3.12, 장연희(83세, 여, 신둔면 도암리)

0710-2 : 11 시집살이

성님 성님 사춘 성님/ 나 온다고 근심마소
누른밥이 누렸으면/ 성도 먹고 나도 먹고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0-2 : 12 시집살이

성님 성님 시집살이가 어땀니까
고추당추 맵다더니
시집살이 보다 더 맵다답니까
독을 열어 보니 거미줄이 잔뜩 씌고
숯을 열어 보니 버린내가 잔뜩 나고
시집살이가 고추당추 보다 더 매웁디다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1-1 : 7 시집살이

성님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답까/ 아이구 애야 말도 마라
고추 당추 맵다한들/ 시집 밖에 더 배우라

* 2000.3.11, 한원순(74세, 여, 신둔면 인후리)

0803-1 : 16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고
시집살이 말도 마라/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진주 남강 두만강에/ 난데없는 발자국 소리
웬일인가 돌아보니/ 그림 같은 말을 타고
검정 빨래 주황 빨래/ 머리에 이고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하는 말씀/ 야야 며늘아가 건너방에 가가 있어라
민기섯대에 목을 걸고/자던 듯이 죽었구나

* 2000.4.29, 이명희(78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8-1 : 7 시집살이

살림살이 못하면 영 말았지/ 술 담배 못 먹곤 난 못 살겠네
살림살이 못하면 친성살이를 하고요/ 친정살이 못하면 난 넘어간다
담 넘어 올 넘어 님 숨겨놓고/ 호박당굴 흔들흔들 담 넘어가네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봐 주소

* 2000.6.22, 윤희찬(78세, 남, 호법면 주박리)

0903-2 : 2 시집살이

백호범이 무섭다한들/ 시아버님보다 덜 무섭고
와나무 다리가 어렵다한들/ 시숙보다 덜 어려워
배춧잎이 푸르다한들/ 만동서보다 덜 푸르며
해와 달이 맑다한들/ 시누이 말귀보다 더 맑으랴

가을구름이 맑다한들/ 시동생 눈치보다 더 매울까
담배잎이 쓰럽다한들/ 내 낭군보다 더 쓰려워
시집살이 맵다더니/ 고추당추가 맵다더니
하나도 아니 맵네/ 매워보자 매워보자
고추 당추가 맵다 한들/ 시집보다 더 매우라

* 2001.5.10, 박윤복(70세, 남, 모기면 서경리)

0904-3 : 2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딪까
시집살이는 괜찮더만/ 말끝마다 눈물이 돼
십이푹 행주치마가/ 눈물 씻어 다 나갔네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05-1 : 5 시집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꼬추당추 맵다더니
시집살이보다 더 매우라/ 명지꾸리 하늘 드러누워서 절어도
시집살이보다 더 되랴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1002-1 : 2 시집살이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누님보다 더 매울까
외나무다리가 어렵다해도/ 시아주버님보다 더 어려울까
배추 잎사귀가 푸르다해도/ 만동서님보다 더 푸를까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요렇게 좋다가는 땅팔아 먹겠네

* 2002.5.21, 김희순(77세, 여, 대월면 구시리)

0206-1 : 9 수심가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걱정도 많구나
구곡간장 맺은 마음/ 부모님 생각이 절로나 나는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511-1 : 13 수심가

새끼 많은 소가 멩에 벗을 날이 재미없네
아들 딸 많은 배는 바람 잘날 없고
나무끝에 앉은 새는 바람 불까 수심이요
물가곁에 놀던 붕어 가뭄질까 수심이고
머리 없고 묶는 색시 날만 갈까 수심일세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802-2 : 3 수심가

산속에 자규가 무슨 이유로/ 처량한 회포가 좋구나 또다시 나누나
십년에 긴세월 장끼두 하였는데/ 일이레 산천은 좋구나 무슨 연고나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3-1 : 12 수심가(일본에서 부르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아/ 뭐가 좋다고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일본에 왔구나/ 조선을 나가랑 언제나 가나
갈시간 날짜가 없는 나라/ 보내 주지도 않고 저희들만
일만 시켜 먹을라고 안 보내줘/ 노자 노자 젊어 노자
우리네가 살면 몇백년 사나/ 사자고 사며는 어디가 좋나
일본서 죽나 한국에서 죽나/ 어디 나가서 죽으면 때가 좋으나

* 2000.4.29, 안만은(75세, 여, 호법면 매곡리)

0201-1 : 1 한탄가

나무라도 고목이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꽃이라도 낙화가 되면/ 오던 나비도 아니오고
 물이라도 건수가 되면/ 노던 고기도 아니노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 엇그저께 청춘일러니/ 오늘날로 백발일세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널리리 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 1997.1.27, 조임석(85세, 여, 울면 고당리)

0201-1 : 2 한탄가

잘살고 못살기는 다 제 복이런만/ 가장 하나를 잘못 만나면 백년원수로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오백년 사졌더니 웬 성환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입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만 나네
 아무렴 구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졌더니 웬 성환가
 우수나 경칩이런대 대동강물이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 요내속이 풀리네
 아무렴 구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졌더니 웬 성환가
 팔라당 낭갑사 당기가/ 곤때두 아니 몰어서 사주가 왔네
 아무렴 구렇지 그렇구 말구/ 한오백년 사졌더니 웬 성환가
 산중의 괴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의 괴물은 다가 기생의 갈보로다
 오라버니 장개를 명년 봄에 들고/ 눈에 소 팔아서 나를 보내주게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6-1 : 11 한탄가

어리석은 사발 신세/ 의지할곳이 가이없어
 모든 미련을 잊으려고/ 산간벽지를 찾아가니

성조 바람만 쓸쓸한데/ 질경이조차도 슬피 울어
밤은 깊어 삼경인데/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어서 새워보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9-1 : 3 한탄가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입자없는 영월이라
어려서 잔병없이 자라던 노인이/ 군병 없이도 늙는구나
녹용은 천만사요/ 목은 병풍을 내어놓고
태만봉쪽에 지는 해를/ 어느 누가 그걸 알까
* 1997.1.30, 배기분(84세, 여, 울면 월포리)

0401-1 : 5 한탄가

오늘 같지 내일 같지/ 오늘 같는지 내일에 같는지
정수정망이 없는데/ 울타리밑에 줄 봉숭아는 왜 심어줬나
두일동산에 높이야/ 뜨리도(?) 나랏님 차지고
산천초목이 푸프고 푸러도/ 내마음은 안 시원해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510-1 : 5 한탄가

어머니 날 길러 낳을 적에/ 요 정사하라고 날 길러 놓았던가
에헤 가거라 날 몰래 가세요/ 한양에 낭군님이 날 데려 가세요
에헤 저잡놈 거동을 보아라/ 일촌에 요내야 간장만 슬사리 녹인다
에헤 못하고 가려면 가지/ 양골에 술잔꾼은 아는등 못살리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601-1 : 12 한탄가

세월이 가기는 유수 같구/ 사람이 늙기는 유수 같애
네가 더 살면은 한 오백년 사느냐/ 내가 더 살면은 몇 백년 시는가
살어서 생전에 이별 없이 살어를 보세

* 1999.1.16. 강대기(81세, 남, 장호원을 노래리)

0601-1 : 13 한탄가

오늘 갔는지 내일 갔는지/ 정수 정망 없는데
맨드라미 춘봉숭아/ 넌 왜 심어 났나
서산에 지는 해는/ 지구 싶어 지나
정들이구 가는 님은/ 가구 싶어 가나

* 1999.1.16. 주구홍(90세, 남, 장호원을 노래리)

0602-1 : 1 한탄가

왜 생겼소 왜 생겼소/ 저 달이 곱게두 왜 생겼소
들고 보니 술잔이요/ 이고 보니나 꽃땅고라
꽃땅고 땅땅소리/ 일심간장이 다 녹아요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장호원을 노래리)

0702-1 : 17 한탄가

집을 짓고서 천년만년 사갔더니/ 시년이 그리워 못살았구나
송탄용 병들어 놓구서/ 나의 갈 길은 천리로구나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4-1 : 3 한탄가

호박은 늙으면 빨게 달기는 하지만/ 사람은 늙으면 쓸곳이 없네
새끼 서발은 피면 쓸곳이 있어도/ 사람은 죽으면 송장이라 쓸곳이 없네

* 2000.3. 4. 이성순(73세, 여, 신탄면 장동리)

0904-3 : 13 한탄가

설대같이 곧은 허리가/ 길막가지가 웬말이나
박속같이 좋던 이속이/ 쓰리바리 되었구나
셋별 같이 밝던 눈이/ 반과수가 웬말이나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가면 소고리)

1002-1 : 14 한탄가

시월 이월 가지 마라/ 엇그저께 청년이더니
호호 백발이 웬일인가/ 시월 이월 가지 마라

* 2002.5.21. 최일분(92세, 여, 대월면 구시리)

1002-1 : 15 한탄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열두 고개로 넘어 간다
무정한 요치부론/ 이팔청춘 요렇게 늙을 줄은 누가 알았나
이팔 청년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엇그저께 청년이더니/ 너도 앞에 닥치온다
이팔 청년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백발 되기가 잠깐이다/ 조선 최가 나는 가네
너 얘기에 알뜰살뜰/ 벌어 벌어 너 얘기에 긴장하고
어기여차 스물 여덟 삼배구나/ 시간 없고 때가 늦다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무영일에 기억할까
할 일없어 나는 간다/ 알뜰살뜰 벌어서러

너 애기에 때는 간다/ 영길 종천 이백리길인가
 삼월에는 친정 살고/ 어기여차 나는 간다
 삼월에는 청천인데/ 잎은 띠여서 하산된다
 한분 가면 구시월/ 취단풍에 낙엽같이
 한분 가면 몇 년/ 삼사월이면은
 만갓 풀잎이 다 피는데/ 어제같이 거기 저
 무정하고도 한심하다/ 어기여차 반백년은
 조선 최가 물어드네/ 앞산천이 조선일세
 어제가면 언제올꼬/ 알뜰 살뜰 헤어쳐서
 너 애기에 긴장하고/ 하릴없이 나는 간다

* 2002.5.21, 최일분(92세, 여, 대월면 구시리)

1002-1 : 16 **한탄가**

기차 전차는 가는데/ 연기나 뽕뽕 나노만은
 요내 가슴 담배는/ 연기도 김도 아니나네

* 2002.5.21, 최일분(92세, 여, 대월면 구시리)

0301-1 : 1 **향난이 노래**

청사등이 켜지일 제/ 이몸은 내고향의 하얀 수선화
 꽃이야 닳을 망정 흠만은 한가지/ 꽃잎은 여덟 아홉
 꽃잎은 여덟 아홉/ 하소연은 한가지

* 1997.11.16, 김민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407-1 : 1 **농촌노래**

목이메인 보리밥을 먹어야 옹으나
 닭고기에 이 밥을 먹어야 옹으나

돈이 없는 농민이라 아무거나 먹었더니
내려가는 구비마다 구불텅거리네

* 1998.4.21, 서강윤(76세, 남, 마장면 표교리)

1101-1 : 16 탄로가

이 강산 낚아여서 흐르는 봄에/ 새 파란 산내음에 지은 맹세요
세월에 꿈을 실어 마음을 실어/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

* 2002.5.22, 이종화(90세, 남, 이천시 고당동)

0506-2 : 2 백발가

삼천갑자 동방석은/ 전생후생이 초문이요
팔백년을 사는 팽조/ 검은 금고가 또 있느냐
부운같은 세상/ 초로같은 우리 인생
물의 거품이요/ 이수부 평초라
칠십팔십을 살아도/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 1998.8.1, 유수열(68세, 남, 부발읍 마암리)

1008-3 : 5 백발가

은발이 백발이요/ 얼씨구 산곰 쪽곰니노다
천안지기 친구 십년/ 보고 잠걸 못봐주고
한참이 없어서/ 동네에 이르니 만~만세는 못하려니
육국채와 아낙네들만/ 염마대왕만 못하니
우리 천하 인생들이야/ 절 한번 채벌을 십년
앞이 나라 떡이 나라/ 명사십리에 뭐하냐 무친다
서른용년 춘삼월이면/ 다시 불리오너라
온천하 인생들이 한번/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2002.5.15, 이순천(74세, 남, 대월면 사동리)

0208-4 : 6 이별가

정든님을 이별하고서/ 잊어버리려고 하니
 밥을 먹어서 잊자하니/ 손가락이 그대 생각
 술을 먹어 잊자하니/ 한잔 먹고 두잔 먹어
 일배 일배 후일배 하니/ 석잔만 해도 그사람 생각
 글을 써서 잊자하고/ 용연적에 먹을 갈아
 황모대필 증등필을 일되/ 화선지를 펼쳐놓고
 한자 쓰고서 한숨이다/ 두자를 쓰고 눈물이라
 석자를 쓰고 떼어보니/ 그사람 얼굴이 완연쿠나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712-1 : 10 이별가

옛날 옛날적 진시황이/ 왕고시설을 부사릴제
 이별 두자 왜 덩기셨나/ 날 받아 백년이 스승일세
 천하장수 저피랑도/ 장중하네 눈물짓고
 우긴 이별하셨으니/ 날가도 백년이 스승일세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9-2 : 12 이별가

어느 때나 살자하러/ 화초동백 긴긴 밤내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태산 두고 맹세터니
 물을 보고 진짜일러나/ 이별이란 말이 웬말이나
 다 죽어 학이 되어/ 나의 등에 너를 싣고
 철달길 날아가서/ 이별 없는 곳에 내려두네

* 2000.6.03. 최장호(80세, 남, 호법면 후인리)

0903-1 : 3 이별가

인천항구 배떠난 자리/ 파도와 물결만 남아 있고
서울역 기차 떠난 자리/ 연기와 철도만 남았도다
시아머님 떠나신 빈 사랑에는/ 장죽과 씹지만 남아 있고
시아머님 떠나신 안방안에/ 걱정과 교훈만 남았도다
도련님 떠나신 빈 서당에는/ 서책과 필묵만 남아 있고
아가씨 떠난 초당에는/ 눈물과 콧물만 뿌렸구나
임이 떠나신 내 방안에는/ 담배의 콩초만 남아 있네
웬일이요 웬일이요/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년을 살자고 언약터니/ 이별의 두자가 웬일이요
이별 두자 내 임자는/ 어느 친구와 내었는지
나와 한 천년 원수로다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가면 서경리)

1008-3 : 11 이별가

다시 못을 이년이/ 정이라도 가지고 가지
임은 가고 적막잡으니/ 정든 꽃이 낭군이로다
저 하늘엔 잡년도 많고요/ 요내 나기슴에 잡념도 많구나
언제 언제나/ 이별 없이도 잘 살아볼까나

* 2002.5.15, 이순천(74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9-4 : 17 이별가

이별이야 이별이야
전송촌에선 낙화 이별/ 구궁 이별 한국 이별
토신 이별에 군신 이별/ 역로에서 흥재지 이별
이별이 다 싫다해도/ 임 이별이 더욱 싫다
죽자하면은 청춘이구요/ 사자하면은 곱상이라
얼씨구 정말 좋아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IV. 연정가

0104-1 : 4 사랑가

한강수야 서산에서 타고서/ 에루아 뱃놀이 가잔다
알싼마 등개 뛰어라 내 사랑아
남은 우리 둘이 들쳐 안고서/ 가지를 말라고 에루아 통사정 하는구나
알싼마 등개 뛰어라 내 사랑아
니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꼭꼭 짚렸지/ 내가 먼저 살자고 꼬리 쳤느냐
알싼마 등개 뛰어라 내 사랑아

* 1996.7.11. 이상욱(64세, 남, 백시면 상용리)

0205-5 : 4 사랑가

임 아니 불적에는/ 할말 못할말 많더니만
임을 이별하고 보니/ 우아니 심중만 답답
답답한 요내 가슴은/ 어느 잡놈이 알을소냐

* 1997.2.18. 이보견(74세, 여, 울면 신양리)

0208-1 : 8 사랑가

천추공원 월색가에 우리 두사람
짙을 지어 산보함이 무삼 연고냐
우리 둘이 깊은 연애 잊지 말자고
춘추명월 밝은 밤에 산보하였네
너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너를 보석같이 사랑하노라
우리들의 이 사랑을 변치말고 살아봅시다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303-3 : 3 사랑가

오동동 추야 에헤이에/ 달 등실 밝은데
우리님 생각이 히이/ 시렁실 나누나
천길 만길에 헤헤헤/ 똑 떨어져 살아도요오
우리님 떨어져선 에헤이/ 이틀을 못 살겠네

* 1997.4.11. 강영순(7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403-1 : 8 사랑가

서방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남의 집에 서방님은 은장수를 하는데
우리집의 남편네는 아무 장수도 못하는구나
에헤 에헤 간다 지화자가 좋구나

* 1998.3.29. 한언애(80세, 여, 마장면 관리)

0501-1 : 1 사랑가

사랑 사랑 사랑이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랑/ 있다가도 속는 사랑
오목조목 알뜰 사랑/ 이 내 간장을 다 녹이고

* 1998.7.31. 김침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3-1 : 11 사랑가

내 사랑 남 주지 말고/ 남에 님 사랑을 탐내지 마라
내 사랑을 어디다 두고/ 남에 님 사랑을 탐내느냐
알뜰한 내 사랑에 사랑/ 백년 짝 쉬일 소냐
우리도 이 사랑하시면/ 백년이 되도록 잘 살아보세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0511-1 : 19 사랑가

넘어 넘어 간다 넘어 넘어 간다/ 저주하는 난봉가 훨훨 넘어 간다
에헤 헤헤야 어야 두야 어허야/ 어러렁마 디여라 내 사랑아
물속에 잠긴 달은/ 잡힐듯 말듯 하고
우리님네 사랑은/ 알뜰 살뜰도 하구나
에헤 헤헤야 어야 두야 어허야/ 어러렁마 디여라 내 사랑아
줄줄도 동풍엔 곶은 비가 오고/ 시월 연풍엔 인생 저서 논다
에헤 헤헤야 어야 두야 어허야/ 어러렁마 디여라 내 사랑아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702-1 : 14 사랑가

에에 뜬구름 은비를 즐려고 떴지
식량 목관에 뜬 여자 누구라 떴는가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허야 내 사랑아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8-2 : 4 사랑가

뒷동산에 밤따는 청년은/ 밤한송이만 주려무나
외톨백이로 드릴까요/ 쌍톨백이로 드리리까
외톨 쌍톨 다집어치구/ 내품안에서 잠들어라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08-2 : 20 사랑가

칠년대한 가문 날에/ 빗발과 같이도 반긴 사람
당명황에 양귀비라도/ 죽어나지면 고만이지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구서 무엇하나
인생이 살어서 일만하면은/ 고까짓게 소용이 하나 없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구서 무엇하나
나물 먹고 물마시구요/ 여뿔팔 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만족하지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구서 무엇하나
날마다 상추만 따면/ 누가 돈을 준들 소용이 있나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12-1 : 5 사랑가

꽃같이도 고운 님을 열매같이 맺어놓고
가지가지 발던 정은 뿌리같이 깊었으니
아마도 백년이 진토록 이별없이 잘 살아보나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906-1 : 8 사랑가

야유산에 앓은 피꼬리/ 제비 만년 이겨서 잡아들인다
아유 더덤석 안고서/ 아유 이것이 내 사랑아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기면 송곡리)

0908-1 : 3 사랑가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문상을 입었는지
소복단장 곱게나 하고/ 잠자리밭이나 넘나든다
얼씨구나 좋아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1.4.28, 최순옥(68세, 여), 한순현(78세, 여, 모기면 양평리)

1005-1 : 13 사랑가

내 사랑 남 주지 말고/ 남의 님 사랑을 탐내지 마라
알뜰한 내 사랑에도/ 행여 접사랑 시킬새라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백년이 진토록 잘살아보자
가고서 못을 임이면/ 정이나 마저 가져를 가지
임은 가고 정만 남으니/ 사람의 심리로서야
병 아니 들리가 만무로다

* 2002.4.27, 장순애(75세, 여, 대월면 장평리)

1008-1 : 2 사랑가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게 무엇이냐
살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남의 정만을 다 뺏어가고/ 줄줄을 모르는 알미운 사랑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2.3.30, 이재근(68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8-1 : 3 사랑가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느니
춘풍화류를 벗하심에/ 딸을 길러 효도하려나
고대공산은 어데가고/ 적막강산에 올라가나
밤중에 나는 미워도 고운소리/ 억지로든 내겐 황감
얼씨구낭 정말 좋구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2.3.30, 성환길(76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8-1 : 6 사랑가

얼씨구나 좋네 정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주춧돌 있는 아가씨야
너들 집에 안가고/ 무슨 연고로 주춧돌게나
내집을 아실려거든/ 삼신산 신왕개속에
초가삼칸이 나의 집이요

오실려문 따로 오시구/ 오시기 싫으면 고만 두시구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3.30, 성환길(76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8-3 : 7 사랑가

에헤 돛버선 흘러 가지는 모른 담사/ 정들은 연신 도라지 도랑을
좋고 좋다 어르랑다 어루 니가 살려라
세월이 가고서 님이 아주 가는/ 누시다 백년을 누굴 믿고 살꺼나
에헤~ 좋고좋다 어러랑 마누라 니가 모를 사랑아

* 2002.5.15, 이순천(74세, 남, 대월면 사동리)

0401-1 : 11 노처녀 노총각 노래

저 건네 저 목발이/ 작년에도 목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로/ 또 목는구나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마장면 오천리)

0407-2 : 18 연정가

님 오실 땐 되었는데/ 처녀 애지가라
님 가신 곳을 아느냐/ 나막신 우사마 먼데로가
어허야 어여라난다/ 디여라 허성 세월 허러라

* 1998.5.14, 김영희(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407-2 : 19 연정가

담 넘어 갈적엔 큰 맘을 먹고/ 문고리 쥐고는 발발편다
올타리 격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를 다 부셔도 아니나 나오네
담 넘어 갈적엔 큰 맘을 먹고/ 문고리 쥐고는 발발편다

담 넘어 갈 적엔 짓던 개는/ 인황산 호랭이 짝 물어간다
울타리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를 다 부셔도 아니나 나오네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509-2 : 16 연정가

해는 지고 저무신 날에/ 꽃단장하고서 어딜까요
첩에 집에 가시려거든/ 나 죽는 꼴을 보소소
첩에 집은 꽃밭이요/ 나에 집은 연못이라
연못의 붕어는 사시사철/ 꽃과 나비는 봄한철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기좌리)

0509-2 : 22 연정가

신구 명산 만장봉에/ 바람이 분다고 쓰러질까
성죽같이 굳으신 절개/ 매 맞는다고나 허락하라
불쌍하다 불쌍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먹을거 찾는게 분명하다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기좌리)

0509-2 : 24 연정가

청산읍에 물레방아/ 허풍대고 덜경덜경 돌고 도는데
우리집의 저 멧탕구리는/ 나를 안고 돌줄은 왜 모르나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기좌리)

0511-1 : 15 연정가

꿀베는 총각 옆눈치 있거든 떡반아 먹게
떡올랑 받아서 팽개치고 두손을 잡고서 벌벌떠네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602-1 : 11 연정가

미련만 세계 가꾸고/ 임주련 마는
내 눈은 저 눈일망정/ 임계신 곳을 왜 못보나
저달의 광채를 빌려라/ 임계신 곳을 나두 좀 보자

* 1999.1.13. 김종월(62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5-1 : 1 연정가

아라리로구나 아야야 우리 집 댁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머리는 곱슬머리
이마는 대뺨 이마 코는 들창고 귀는 절벽
안팎 꼽사 뒤꽂 꼽사 다리는 작살에
불알은 토산불알 팔은 곱배팔이요
금에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범당 뒤 행길이 누구 권리로 났느냐
그나마 우리 남편 권리루 났는데 음
간지가 수 삼일이 되도 왜 아니나 오나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선읍리)

0606-1 : 14 우물터아낙네

한 번 웃었다고/ 수근 쑥덕 뒷공론 마오
우물터에 빠진 댕기/ 좃어주길래 웃었지요
에헤요 데헤요
우물터 아낙네는 말도나 많아/ 한번쯤 웃은 게 죄란 말이요

새벽물 길렀다고/ 수근 쑥덕 뒷공론 마오
총각눈 보기 부끄러워/ 사리살짝 길었지요
헤에요 데헤요

우물터 아나네는 말도나 많아/ 새벽물 기르게 죄란 말이요

* 1999.1.12, 오민자(65세, 여, 장호원읍 송산리)

0607-1 : 6 연정가

연꽃 상주 합창 공갈 못에/ 연밥따는 저 처녀야

연밥 건밥을 내 따주게/ 우리 부모를 섬겨 주소

* 1999.1.12, 박재형(80세, 남, 장호원읍 어석리)

0702-1 : 20 연정가

해는 졌지 저문 날에/ 옥갓을 하구서 어디를 가나

저 배는 가시거든/ 나 죽는 거를 다 보고 가지

저애 집은 꽃밭이로되/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통면 남정리)

0702-1 : 21 연정가

일석의 정겨운건 똥그런데/ 세상의 좋은 것은 막걸리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든 것을/ 담뱃대 고리에서나 정이 들고

처녀 총각 정든 것은/ 원단 이불에서나 정이 들고

시집간지 삼일만에/ 오미자루가 웬말이나

한길이나 두길 내려다보니/ 삼일 아니 되었으니

호미자루 옆에다 끼고서/ 아장아장 걸어온다

안방문을 열고나 보니/ 지랄하는 시에미 잔다

다락문을 열고나 보니/ 수캐같은 시에비 잡는

옷방문을 열고나 보니/ 여우같은 시누이라

이방 저방 다 그만두고서/ 나 자던 방으로 들어간다

얼씨구나 좋구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рода

잘난 사람 잘나서 살고/ 못난 사람은 내땀에 사니
언제 쓰자는 금족이나/ 어느때 먹자는 술상이나
먹고 씨고 씨구야 먹구/ 거들먹거리고 놀아보자
나물을 먹었다 물을 마셔/ 팔을 베고 누웠느냐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지
우우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나물을 먹었나 물을 마셨지/ 팔을 베고 누웠는가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지
이천간장에 매주 뜬 설움/ 부모 생각이 절로 나네
얼씨구 절씨구 좋네/ 지화자 절씨구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4-1 : 11 연정가

신랑 만나 셋별같이/ 팔이 팔이 밀어놓고
잠이오나 눈이오나/ 정든님이 기다리네

* 2000.3. 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4-1 : 17 연정가

구월산 밑에 지치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은 어디길래/ 해가 저도 갈줄을 왜 모르나
우리집은 하동당 구월산 밑에/ 초가삼간이 나의 집이오
나를 따라 오시려거든 오고/ 마 오시려거든 마 오시오
너의 집이 초가삼간 집이랜데/ 나를 어디가 자라고 데려가려
나는 어디서 자든지 말든지/ 내방이라도 빌려줄게
오시려거든 오시고/ 마오시려거든 마오시오

* 2000.3. 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7-1 : 8 연정가

여자 과거지사를 모두다 잊으라 꿈이로다
잊어야 보는 것을 나도 본연이 알면서도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08-2 : 14 연정가

하도 봉삼 구월선 밑에/ 지취를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 어디메길래/ 해가 저물어도 아니거나
나의 집을 아사려거든
삼신산 안개속에/ 초가나 삼칸이나 내어지고
연분이 맞걸랑 따라가고/ 연분이 아니면 그만두요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10-2 : 14 연정가

흐르는 물에/ 배추를 씻는 저 처녀야
배추를 내가 씻어 줄게/ 내품안에서 잠들어라
잠들기는 어렵지 않소만/ 임에게도 사생결단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2-1 : 4 연정가

동창에 비친 달이/ 서창으로 다지도록
오실님은 오실망정/ 잠은 드나 왜 안오나
잠조차 가차던 님/ 생각하느니 내가 우는구나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9-1 : 16 연정가

대천바다 한가운데에/ 우리 없느니 남기소서
가지는 열 두 가지요/ 잎파리 와서 삼백예순
거난데 열매가 열어 일월이라

* 2000.4.29, 임태욱(여, 호법면 후안리)

0904-3 : 18 연정가

오동 낭구 열매는 감실감실/ 큰 애기 젓통이는 몽실몽실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가면 소고리)

0906-1 : 7 연정가

저 건너 울타리 밑에 풀 비는 총각아/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먹게
떡을 줬더니 떡은 팽개치고/ 손목을 잡고 발발 떠네
요놈의 총각아 소매를 놓아라/ 무명적삼이 다 나간다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가면 송곡리)

0906-3 : 1 연정가

해는 지어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하고 어딜가요
첩의 집에 가시려 걸랑/ 나 죽는 꼴이나 보고 가오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꽃밭의 나비는 한철이요

* 2001.6.26, 이부석(67세, 여, 모가면 송곡리)

0907-1 : 1 연정가

황해도 봉산에 불곡산 밑에/ 저기 가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 어디길래/ 가다가도 뒤척이나

나의 집이를 오시려거든/ 물어 물어러 가시네
삼신석 안개속에/ 초가삼칸이 내집이요

* 2001.4.28, 임복환(94세, 남, 모가면 신갈리)

1003-1 : 10 연정가

단초 단초 사기 단초/ 임이 매준 사기단초
임도달고 나도달고/ 단추코가 늘어지면
임의 정도 늘어진다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3-1 : 30 연정가

팔월이라 보름날에/ 고향에 당도하니
거리거리 만세소리요/ 문간문간에 깃발 나부끼라
경성이라 혼란 당해도 올라오니/ 삼천만 동포가 춤을 춘다
우리 임은 어데를 가고/ 나를 보고 반길 줄 모르나
경성이라 혼련당에/ 응집무렵이 혼련을 하면 오실려나
강원도 금강산 비로봉에/ 경계가 되면은 오실려나
여주 병무청 말문이 열리면 오실려나
신작로게 뚫다 가리가/ 용바우가 되면은 오실려나
폭닥폭닥 삶은 개가 쾅쾅 쫓고/ 풍지를 이리저리 치면 오실려나
경기도 수탉이 꼬끼오 소리를 하고/ 두 날개 탁탁탁치면 오실려나
언제오나 언제오나/ 때도 늦고 시도 장이오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6-3 : 7 연정가

뗏다 보아라 무엇이 뗏느냐/ 육경성 마당에 (좋다) 임소식이 뗏구나
한달에 한번씩 편지를 맡고요/ 일년에 한번이라도 (좋다) 다녀를 가세요

* 2002.3.30, 김숙여(74세, 여, 대월면 부팔리)

1008-2 : 15 연정가

해는 지고 저문날에/ 꽃갓을 하고 어디를 가요
첩의 집에 가실라면/ 내 누운 꼴을 보고 가요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연못에 금붕어 사시장천/ 꽃에 나비는 한철이라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아/ 아니나 놀지는 못하겠네
요렇게 좋다면 첫딸 나오

* 2002.3.30, 이재근(68세, 남, 대월면 사동리)

1009-4 : 10 연정가

꽃과 같이도 고운 님을/ 열매 같이도 맺어놓고
일시라도 못 본다면/ 그리워서 나 못살아요
얼씨구 정말로 좋아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숲속에 지는 잎/ 풀속에서나 우는 즘생
유심히도 두께를 들면/ 관계할 바도 없건마는
유유별이 간절한데/ 소래 소래가 숲속이라
얼씨구 정말로 좋아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11 연정가

님 떠나신 이 밤중에/ 담배꽂이에 연기만 남아 있고
님 떠나신 부두에는/ 한숨의 눈물만 남아 있네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탄다더냐/ 한달에 두세번 편지질 말고요
두달에 한번만 다녀를 가세요

뒀다 보아라 무엇이 뒀느냐/ 우편국 마당에 님소식 뒀는데
우편국 배달부야 무엇을 하느냐고/ 님소식 안 전하느냐

* 2002.4.12, 한영순(83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4 : 19 연정가

울타리 밑에서 꿀 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먹지
떡을랑 받아서 내 팽개치고/ 손목을 잡고서 발발 떠네

* 2002.4.12, 유경순(84세, 여, 대월면 대대리)

1009-5 : 2 연정가

남전복답에 노비전답은/ 없어서 못 드리지만
소녀 몸에 있는 거야/ 왜 아니 드리겠소오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10-1 : 13 연정가

해는 지고 저무는 날에/ 꽃 갓을 하고서 어디를 가나
첩의 집에 가려거든/ 나 죽는 꼴이나 보고 가소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 철인데/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나 사철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신구 명산 만장봉에/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나
송죽 같이 굳은 절개/ 매맞는다고 허락하라
몸을 비록 화류계일망정/ 절개조차도 없을쏘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2.4.27, 최옥순(68세, 여, 대월면 대흥리)

1010-1 : 20 연정가

백설 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몽상을 입었는지
소복 단장을 곱게 하고/ 장다리 발으로 넘나든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진 못하겠네

시들 새들 봄 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좋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진 못하겠네

* 2002.4.27. 최옥순(68세, 여, 대월면 대흥리)

1102-1 : 11 연정가

해는 지고 저무신 날에/ 옥갓을 하고선 어데 가오
첩의 집에 가실라거랑/ 니죽는 곳을 좀 보고 가오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인데/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어린 가슴 못 박혀 놓고/ 너만 잘살기를 바라더냐
너도 청춘 나도 청춘/ 누구만 잘살기를 바라더냐

* 2002.5.25. 성마령(78세, 여, 이천시 단월동)

0809-1 : 14 절개가

신구명상 만장 봉에/ 바람불어서 쓰러진 나무
눈비가 온다고 일어날 소냐
송죽 끝의 굳은 절개/ 매맞는다고 흐리라
몸은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 소냐
마음은 한량이지만/ 절개조차 없을 소냐

* 2000.4.29. 도천석(남, 호법면 후안리)

0710-2 : 8 연군가

한들 한들 실은 바람 서늘한 바람/ 해 비쳐 누여 누여 가을이 오네
금빛술에 다가서 해바람 불면/ 바다건너 강 건너 오시는 손님
수수이삭 베끼려 매맞고/ 국화꽃은 방실방실 웃음 참았네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2-1 : 9 연군가

옥분에 매화를 심어/ 거리 노중에 던졌더니
찬바람 구진비는/ 맞을대로 맞았구나
박쥐가 나는체 하고/ 앓을똥 말똥 하는구나
입이 그리워 죽은 내 무덤이/ 몇몇이나 되더냐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V. 사모가

0710-2 : 7 사친가

등너머 콩밭 갈때 엄마 그럴 때/ 누나하고 저녁밥 지어놓고서
들에 갔던 엄마를 기다렸다고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1001-1 : 5 사친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요 내 가슴에 수심도 많네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주실 때는
세상에 없다고 귀엽게 키워주셨지
이렇게 커가지고 부모 되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 못한게 원이 되네

* 2002.3.17, 한효손(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1-1 : 11 사친가

아장아장 걷는 걸음에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걷는 걸음 대개도 좋아
나생이 꽃다지 뜯어 다 두고 올적에
어머니 손붙잡고 팔짱끼고 갈적에 켈 좋습니다

어머니하고 밭에 갈 적에는 손은 붙들고
아장아장 걷는 걸음이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어머니 참 오늘 밭에 오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나생이 태극 꽃가지 뜯어두고 집에 와서
어머님이 내생이 꽃다리 국을 끓여주시네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다

* 2002.3.17. 한효순(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2-1 : 9 사친가

산아 산아 높은 산아/ 네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 부모 날 낳으신/ 높은 은공 잊을쏘냐
바다 바다 깊은 바다/ 네 아무리 높다한들
우리 부모 날 기르신/ 깊은 은공 잊을쏘냐
산에 나는 까마귀도/ 부모 은공 극진한데
하물며 우리네 부모 은공 어이할꼬

* 2002.5.21. 김점순(96세, 여, 대월면 구시리)

1006-3 : 13 사친가

둥근 달 밝은 밤에 바닷가에는/ 엄마를 찾으려고 우는 물새가
달빛 밝은 나라로 헤매다니며/ 엄마 엄마 부르는 적은 갈매기

* 2002.3.30. 이상희(71세, 여, 대월면 부필리)

0602-1 : 27 화친가

형님 오네 형님 오네/ 붓고개서 형님 오네
형님 마중 누가 가나/ 반달같은 내가 가지
네가 우째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형님 반찬 뭘루 하나/ 토막 같은 반찬에다
앵두 같은 팔을 놓구/ 잘잡숫구 잘가시우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710-2 : 9 사향가

달 밝은 밤에 바닷가에는/ 엄마를 찾으려고 우는 물새가
남쪽나라 먼고향에 슬피 울 때/ 늘어진 날개까지 젖어 있구나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411-2 : 2 사우가

이만 저만 아니 오면 그리워라/ 보면 반갑고 한번만 그리워라
이 철은 또 다시 왔구나/ 세월은 가던지 말던지
이내 몸 하난 형편대로/ 어려서 병수 잘한 놈
늙기라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강산에 나도 절로

* 1998.4.10, 유원학(86세, 남, 마장면 이평리)

VI. 통속민요

0312-1 : 10 권주가

내가 이 술을 즐기여 먹는/ 극약인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 먹었던 마음/ 굽이굽이 맺어둔 님
오날로 이 술이 아니면/ 남 모질곳이 전혀나 없네

* 1997.12.16, 안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0407-2 : 9 권주가

좌중은 체면이요/ 본대 없지만 안녕하쇼
그대는 모르건만/ 시조 상개나 건너나 보오
시조는 모른다면/ 약주 삼잔 건너를 가오(좋다)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407-2 : 14 권주가

가지 가지 꽃화자요/ 굽이굽이 내천자요
동자야 술 가득 부어라/ 안주 짜다 열간 좋다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마장면 표교리)

0502-1 : 3 권주가

술이라고 먹거들랑/ 취하지 말고
님이라고 생각거든/ 이별 없이나 잘 살아보세
여보시오 술이라고 잡수거들랑/ 주정이나 하지 마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잡수고 노시라는 청배주 올시다

* 1998.7.31, 오순규(46세, 남, 부발읍 죽당리)

5.22 이천의 옛노래

0503-1 : 13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먹고 놀자는 청배주요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0505-1 : 5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한잔 잡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노자는 청배술이라

* 1998.8.4. 조영숙(87세, 여, 부발읍 대관리)

0509-2 : 7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먹고 노자는 청배주라
이 술을 잡수시면/ 천년 만년을 만수무강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기좌리)

0510-1 : 16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잡수고 노자는 청배주라
이 술 한잔 잡수시면은/ 만수무강을 하오리다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511-1 : 8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성노발에 이슬받은 술이로다
이 술 한잔 잡으시고/ 천년 만년 살고 자고

* 1998.8.6. 김연숙(45세, 여, 부발읍 수정리)

0513-1 : 6 권주가

시오 받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먹고 노자는 금로주라
이 술 한잔을 드시면은/ 만수무강을 하오리라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을 기산리)

0602-1 : 10 권주가

술을 즐기어 먹나/ 곱약인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 먹은 마음은/ 굽이굽이가 눈물이로구나
오날도 이 술이 아니면/ 맘 부칠곳이 정녕없네
아서라 느그리를 말고서/ 들던 술잔을 또 들어보자

* 1999.1.13, 이상태(74세, 남, 장호원읍 노탑리)

0602-1 : 13 권주가

시요시요 잡으세요/ 이 술 한잔을 잡으세요
이 술은 술이 아니라/ 청노반에 이슬받은 일배주요
이 술 잡수시면/ 천만년을 살읍니다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7-1 : 5 권주가

들거령 잡수시구려/ 이술 한잔을 잡수시구려
이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노자는 정배주요

* 1999.1.12, 박재형(80세, 남, 장호원읍 아석리)

0702-1 : 12 권주가

아아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술은 술이 아니로되/ 잡숫고 노자는 정배주로다
이 술 한 잔 잡숫고 나면/ 천년 만년을 사오리라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7-1 : 16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잡수고 노자는 청배주라
이 술 한잔 잡수시면은/ 만수무강을 하오리다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12-1 : 7 권주가

배를 타고 극룡에 가자/ 물아래 하늘이야
하늘가운데 명월이라/ 웅자야 술부위라 마실정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2-1 : 4 권주가

시오 잡으를 시오/ 이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 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을 만수무강
금잔 늦잔 다 제쳐 놓구서/ 사기잔에다 한잔을 드소
* 2000.5.5, 김문용(65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3-2 : 2 권주가

이 술을 즐겨 먹느내/ 광역인줄 알면서두
오늘날두 이 술 아니면/ 맘붙일 곳이 전혀 없구나
* 2000.9.29, 정혁수(83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5-2 : 2 권주가

이어 잡으시어/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한술이 아니라/ 먹구 노자는 정배주라
이 술 한잔을 잡수시며는/ 만수무강을 하오리라

* 2000.6.1, 임명순(72세, 여, 호법면 인평리)

0808-1 : 8 권주가

청산에 공산에 딸 길러주신 장모/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은 자녀가 먹고/ 내 딸 주리다 성공하소
성공이야 하겠소만은/ 복이 많아야 성공하지

* 2000.6.22, 윤희진(78세, 남, 호법면 주박리)

0901-3 : 12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잡숫고 노자는 정배주요
불로초로다 밥을 짓고/ 인삼녹용으로 불을 때서
이 술 한잔 잡수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라

* 2001.6.27, 김금순(86세, 여, 모기면 두미리)

0903-1 : 5 권주가

오령화가 좋은 집이/ 상순상어로 집을 지어
해학번도 안주를 놓고/ 금정 술잔에 술을 부어
저지만치 질기어서/ 만만세로 놀을적에
임의 인상 해아리니/ 여창에 일석이요
탄광음진 백년이라/ 무정세월 요요한데
부유같은 이 세상에/ 아니 놀고서 무엇하리
좋은술 좋은 안주/ 주량대로 들어 놓고

취흥대로 놀아보세/ 흔들흔들 잘도나 논다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가면 서경리)

0903-2 : 1 권주가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 술을 한잔 잡으세요
이 술은 술이 아니라/ 석달 열흘의 백일주요
이 술 한잔 잡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잡숫고 노자는 정배주요/ 이 술을 즐겨 잡숫고
즐겨서도 산다면/ 어느 누가 말리겠소
이 술을 잡수시고/ 만사태평 하시웁고
이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노자는 정배주요
아녀자엔 조심주요/ 부모님겐 효주요
동네방네엔 의리주요/ 동기간엔 근촌주요
만인가에는 칭찬주요/ 아녀자에겐 조심주요
대장부의 태평주요/ 대통령에게는 평화주라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술먹고 좋기는 처음이로구나

* 2001.5.10, 박윤복(70세, 남, 모가면 서경리)

0905-1 : 17 권주가

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놀자는 정배주라
오늘도 이 술이 아니면/ 맘 붙일 곳이 전혀 없다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가면 소사리)

0910-5 : 7 권주가

받으시오 들으시오/ 이 술 한잔을 받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노자는 정배주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이렇게 좋다가는 딸 낳겠네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0910-5 : 27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들으시오
이 술 한잔 잡수시면은/ 만수무강을 하오리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먹고 놀자는 정배주로도
오늘도 이 술 아니면/ 맘 붙일 곳이 전혀 없네
아마도 이 세상 백년을/ 내 맘 혼자서 늙는구나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0911-2 : 11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 한잔 잡으시면은/ 만수 무강이 태평성대
이 술로 말할 것 같으면/ 천년만년에 장백술이다

* 2001.5.26, 차의순(61세, 여, 모가면 진가리)

1001-1 : 10 권주가

드시오 드시오/ 술한잔을 드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천년만년 약주 술이오
드시며는 수명도 길고/ 오래오래 사십니다

* 2002.3.17, 한효순(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1 : 8 권주가

잡으시오 또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 한잔 잡으시면은/ 만사태평 하오리다
있는 자손은 수명장수요/ 없는 자손은 생남발원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6-3 : 8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을 한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먹구 노자는 청배주요
이 술 한잔을 잡숯고 보면/ 천년 만년을 산답니다
* 2002.3.30, 김숙여(74세, 여, 대월면 부필리)

0407-2 : 15 술 빛을 때 노래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다 술빛어 놓고
술 익자 국화피자 이모시작 알더니
동자야 술 걸어부어라 채우고 잔다
* 1998.5.14, 김영하(65세, 여, 미정면 표교리)

1009-1 : 5 난봉가

넘어 넘어를 간다 넘어를 간다/ 자주하는 난봉가 훨훨 넘어간다
에헤야 어야 더야 어허야/ 어라하함마 뒤어라 내사랑야
실쪽널쪽 잡아당길줄만 알았지/ 생사람 죽는줄 왜 몰라주나
이몸이 두둥 떠 저 백운 같은데/ 임상봉하기가 비난지사로다
이놈의 살림살이는 할지말지한데/ 울넘어 박녕쿨은 지봉을 훨훨 넘는다
쓸쓸한 이세상 뜻 붙일 곳 없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드란 말가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101-5 : 14 **자진난봉가**

물속에 잠긴 달은/ 접힐듯 말듯하고
정든 님의 마음은/ 다들듯하고도 모르것네
에헤 어허야 어허야 어여라
얼음에 냉수만 먹어도/ 내속이 답답하다
실쪽낼쪽 낼쪽 잡아다 낼줄만 알지/ 생사람 죽는줄 왜 몰리주나
에헤 어허야 어허야 어여라/ 얼썌마 둥둥 내 사랑아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201-1 : 18 **개성난봉가**

박연폭포 흐르는 물은 봄사장으로
예루하두나 곰돌아 들어가두나
어랑어람 아기라 내사랑이로다
박연폭포 제아무리 깊다해도
우리네 양일에 정만은 무다리로다
어라담바 어기어라 내사랑이로다

* 1997.2.14. 유인준(79세, 남, 울면 고당리)

0205-2 : 6 **개성난봉가**

난봉이 났구나 니가 난봉이 났구나
한발두팔 잡고서 니가 난봉이 났구나
에헤야 어야 예야 얼썌/ 둥기디어라 에 내 사랑아
석숭에 점장이가 니가 떴다고 났느냐
한발두팔 잡고서 니가 병신이구나
에헤에 어야 예야 얼썌/ 둥기디어라 에 내 사랑아

* 1997.2.18. 윤석건(66세, 남, 울면 산양리)

0901-1 : 2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버들가지
무정세월 한허리를 쩡쩡 동여서 매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잇으리로다
흐르는 저기 저물만 흘러 흘러서 가는구나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발짜국 자욱
망국풍상 비바람에 내 몇번이나 겪었던가
에헤요 봄버들도 못잇으리로다

* 2001.4.28, 차점동(67세, 여, 모기면 두미리)

0904-3 : 7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나 매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잇으리로다
노들강변에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욱
망국풍상 비바람에 몇몇이나 지나갔나
에헤요 봄버들도 못 잇으리로다

* 2001.6.26, 권정순(60세, 여, 모기면 소고리)

0910-5 : 21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잎이 늘어진다
무정세월 산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어나 볼까
헤헤여 봄버들 못 잇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물만 흘러 흘러서가노라
노들강변 푸른물 네가 무슨 망령에
하고 많은 땅에서 몇몇 번이나 탕겨갔나
헤헤여 봄버들 못 잇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욱
 만고풍상 비바람에 몇몇번이나 땀겨갠나
 이해여 봄버들도 못 잊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104-2 : 7 노랫가락

좌정은 초면이요 인정은 비록 평안하오
 처음에는 초면이지만 가수나 부인은 구면인데
 쓰디쓴 막걸리나마 이 좌석에서 사보세
 너하나 삼으려고 수 많은 금전을 다 내던지고
 석에 석조 주야를 세며 태산같이 너를 믿었더니
 연회정와서 놀다가 어느 부랑자 주었느냐
 아니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옥본 날에는 구렁이 담넘어가고 물본 기러기 강건너 갈계
 나무라도 고목이 지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우리는 늙어지지 어느 누가 날 찾느냐
 어씨구 절씨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좋다가 땅팔아먹네

* 1996.7.11, 성건용(76세, 남, 백사면 삼용리)

0109-5 : 2 노랫가락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노니
 너 하나 사귀려고 다른 인간을 다 버리고
 석에 석전 주야를 세며 태산 같이도 믿었더니
 너 같이 냉정한 년을 생각한들 무엇하랴

* 1996.7.15, 정지호(76세, 남, 백사면 조율리)

0201-1 : 17 노랫가락

가장 하나를 잘못 만나면 백년웬수로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구우/ 한오백년을 살자더니 웬 성환가
한많은 요세상 야속한 입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우/ 한오백년 사잖더니 웬성화가
팔라당 팔라당 남가가성/ 궁기에 곤때도 아니 묻어서 살운가왔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우/ 한오백년 사잖더니면 웬 성환가
... (중략) ...

사람마도나 벼슬을 하면 농부나 될사람 누가있나
어서마도나 병을 다 고치면 북망에 산천에 살손가
아서라. 팔세를 말아라 땅파는 농부를 팔세를 마라

*1997.2.14. 유인준(79세, 남, 울면 고당리)

0202-3 : 5 노랫가락

울며 불며 잡았든 손을 경찰서 문이라도 못 놓겠네
오마오마 오심하더니 무슨 염려로 못오시나
가마솥에 삶은 개가 꼬꽁꽁 짓으면 오시려나
부뚜막 위에 심은 봉숭아 싹이나면 오시려나
쌀강위에 찜어놓은 저밥이 싹이나면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학이 날개를 툭치면 오시려나
오마오마 오심 하더니 무슨 염려로 못오시나
기다릴 적에 못보는 입은 입이 아니라 원수로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1997.2.17. 배순임(70세, 여, 울면 신추리)

0202-3 : 6 노랫가락

온다고 못오느니/ 꽃만 피어도 너의 생각
오로지 첫달 서남풍에/ 백설만 피어도 너의 생각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어와 두둥둥 내 사랑아

* 1997.2.17. 배순임(70세, 여, 울면 신추리)

0203-3 : 4 노랫가락

노새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달아 두렷한 달아/ 임의 동창에 비친 달아
임홀로 누워 있더냐/ 어느 부랑자 품에 있나
명월아 본대로 일러라/ 계두만 사상견이다

* 1997.2.17. 오관영(72세, 남, 울면 본죽리)

0203-4 : 1 노랫가락

아니 아니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두 높은 사랑/ 하해와 같이두 깊은 사랑
일년은 삼백육십오일에/ 하루만 못봐두 못살겠네
니가 잘나 일색이 됐나/ 내눈이 어두어 한강수냐
니가 나를 따릴적에는/ 아프려구서 따렸느냐
정이나 오라구 따렸건만 일년은 삼백육십오일에
하루만 못봐두 못살겠네/ 오동 술상엔 봉학이 놓고
송학 송잎엔 백학이 놓고/ 부주행인은 양산을 받구
공산 삼십이 또 들어올때/ 기러기 잡아 술안주 하구
국화주 걸러서 즐기면서/ 흥싸리 발엔 내 토시 놓고
흑싸리 발에는 존줄이 놀때

선같이 때리며 땀흘림소리에/ 번갯불 소식만 남아있네
 동지선달 소단풍엔/ 백설만 날려두 너의 생각
 너는 가고 봄은오니/ 꽃만 피어두 너의 생각
 여주나 벽촌에 금부처가/ 말문이 열려야 오실려누
 가마솔에 폭 삶은 개가/ 쟁쟁 짓어야 오실려나
 병풍에 그린 수탉이/ 활개를 쳐야만 오실려누
 너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가 자가 좋네/ 요렇게 좋다간 딸 낳겠네
 이천군에 북악산 밑에/ 도라지 캐는 저 처녀야
 나의 집을 어데다 두고/
 심심산천 실안개속에/ 초가집 삼칸이 나의 집이요
 앞뜰에는 국화를 심고/ 뒷뜰에는 매화를 심어
 불통같은 내 방안에서/ 하룻밤만 쉬어나 가게

* 1997.2.17, 안달웅(60세, 남, 읍면 본죽리)

0203-4 : 9 노랫가락

세살 먹어서 어머니 잃구요/ 네 다섯 먹어서 아버지 잃구
 삼오십오 열다섯살에/ 시집이라구 가였더니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소년과부가 웬말이나
 아마두 본대를 말구서/ 지는 저 해를 머물려다오
 기차가 떠난 철뚝가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있구
 임떠나간 부산항구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 있네
 니가 잘나 일색이드냐/ 내 눈이 어두어 한강수냐

* 1997.2.17, 안달웅(60세, 남, 읍면 본죽리)

0204-3 : 7 노랫가락

일월이라 대보름날은/ 산보가 가자는데
 우리 님은 그 어디가고/ 나는 가잔말 어이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개자추의 녀이로다
 북망산천을 찾아를가서/ 무덤을 안고서 통곡하니
 무정하구 야속한님 왔느냐/ 소리두 없구나야
 삼월이라 삼짓날은/ 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귀흥덕에 천공아래/ 기러기두나 제집으로 돌아간다
 한번 가면 돌아볼줄은/ 미물의 짐승도 알건마는
 우리 낭군님 그 어데 가고/ 날 찾아줄줄은 왜 모르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일이라
 집집마다 등을 달고/ 자손 발원을 하건마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임없는 나에게 소용 있나
 오월이라 단오날은/ 추천하는 명절이라
 청춘남녀 짝을지어/ 추천놀이가 가관인데
 우리네 낭군님 그 어데 가고/ 추천가잔 말 어이 없나
 유월이라 십오일은/ 유두명절이 왜 아니냐
 백분청의에 지진 건병/ 쫓깃쫓깃두 맛두 좋다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오작교 먼 먼길에/ 일년에 한번은 만나건만
 우리 서방님 그 어데 가고/ 십년에 한번두 못 만나나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6-1 : 5 노랫가락

봄들었어요 봄들었어요/ 이 강산 삼천리 봄들었네
 푸른 것은 버들이고요/ 누른 것은 피꼬리라
 황금같은 피꼬리는/ 푸른 수풀로 넘나들고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상을 입었는지
소복단장 슬프게하고서/ 잠자리 밭으로 넘나든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6-1 : 8 노랫가락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공주님이 심으신 나무/ 한양 공주가 물을 주어
북두칠성 버들가지에/ 팔도강산에 꽃이 폈네
올라가는 구관사또/ 내려오는 신관사또
저 꽃이름을 짓고 가세/ 저 꽃이름을 짓고보니
천추만대의 무궁화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6-1 : 10 노랫가락

한송이 떨어진 꽃은/ 낙화가 된다고 서러워마라
한번 피었다 시드는 것은/ 나도 번연히 알면서도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도 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린데 신고 짓밟고 가니/ 넌들 아니도 슬플소냐
분명 내 운명이라면/ 너무도 슬퍼서 못살겠네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6-2 : 1 노랫가락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춘삼에 봄이오면/ 너도 다시도 피어나라

초로인생 한번가면/ 다시 오기가 어려우나
 어화 세상 본님네야/ 백발보고 웃지마라
 엇그저께 청춘이니/ 오늘날로 백발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젊아 젊어 한때 놀고 보자

* 1997.2.18, 최동훈(81세, 남, 울면 석산리)

0209-1 : 3 노랫가락

백두산석은 마도진이요/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세수청에 대장부라
 아마도 이걸 지은 양반/ 남이장군이 아니더냐
 차령아 날 농구 창쓰지 말아/ 만인 장정이 다 놀랜다
 비수는 어디다 두고/ 두루 언니 창극이나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0209-1 : 4 노랫가락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다 술빚어 놓고
 술 익고 임오시자/ 저 달이 솟내
 동자야 술 걸러라/ 마실 음자가 알관주다
 뒷동산 푸를 청자요/ 앞동산에는 붉은 홍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구비구비 내천자라
 동자야 술 걸러라/ 마실 음자가 알관주다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0209-1 : 7 노랫가락

밥만허니 빨만 피어도 임의 생각
 구시월에 시든 풍의/ 낙엽만 날려도 임의 생각
 동지석달 서남풍에/ 백설만 날려도 임의 생각

안저 생각 누워 생각/ 생각에 나면 달렸네
얼씨구나 좋다 정말 좋아/ 아니나 노지는 못하건네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0209-1 : 8 노랫가락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배고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 요만 하면은 만족하라
얼씨구나 좋네 정말 좋아/ 아니나 노지는 못하건네
높은 산에 눈날리듯/ 얇은 산에 재날려라
억수장마 비 퍼붓듯/ 재천바다 물밀 듯이
어느 저녁 우리 집에/ 손님네가 오신다고
오시거든 잔드려라/ 넘거나 남거나 말도마라

* 1997.2.20, 박우운(80세, 남, 울면 월포리)

0209-2 : 4 노랫가락

동방화초에 내 아들이/ 일월요지에 내 손자야
귀중불석에 내 딸이야/ 난방호걸에 내 사위야
이만 하면은 만족하지/ 이에 더 바랄소냐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야
이고을 저고을 다 돌아다녀도/ 우리 첫날밤 사랑이 간곳이 없다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야

* 1997.2.20, 김병환(67세, 여, 울면 월포리)

0302-3 : 5 노랫가락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백구야 가진 꺽총 날지마라/ 너를 잡을 나 아니니라
승상이 바리었으며/ 너를 쫓아내었으니

얼씨구 좋다 좋을씨구/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7.11.15, 홍인표(72세, 남, 설성면 징능리)

0303-3 : 1 노랫가락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늙구보니 병들구보니
한심하기가 처량하다/ 옛날 옛적 과거에 재산은
너무나 너무나 못살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아들들 칠남매/ 키우고 보니 나는 좋네

* 1997.4.11, 강영순(7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3 : 2 노랫가락

꽃꺼억 머리에 꽃고/ 잎은 따다가 입에 물고
산에 올라서 들 귀경하니/ 가던 행인이 길 못가네
아마도 그를 생각하면/ 나도 길을 다 못가리라

* 1997.4.11, 강영순(7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3 : 4 노랫가락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말은 가자고 울고/ 입은 날 잡고 놓지를 얹어
석양은 재를 넘구요/ 나의 갈길은 천리로구나
저 임아 나를 잡지를 마구/ 지는 해를 머물러라

* 1997.4.11, 정분남(6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3-3 : 5 노랫가락

아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은 서방님이/ 태산같은 병이 들어
처마를 팔아 비너를 팔아/ 삼신산 약을 지어나가
촉루 화로에 불 피워놓고/ 정든님 숨지는 걸 몰랐구나
가요 가요 나는야 가요
친리를 가두 따라를 가구/ 만리를 가도 쫓어를 가요
당신 없는 요세상을/ 누구를 믿구서나 산단 말이요
아리 갓을 벗을 삼고/ 담배대를 가지구
임을 삼고 누웠으니/ 앓았으니야 님이 오나

* 1997.4.11, 정분남(6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4-2 : 3 노랫가락

올려다보니 소라 반장/ 내려다보니 각자 장파
은어 금차 잣베게를/ 머리맡에 던져 놓고
새별같은 은요강을/ 반치 반치 반치나 던져놓고
월광단 이불 여광단 이불/ 훌훌이도 피여 놓고
등실 등실 잘도 논다/ 개천 개울에 금붕어 놀듯
등실 등실 잘도 논다

* 1997.4.12, 임영순(60세, 여, 설성면 제요리)

0305-1 : 6 노랫가락

이 술을 즐기어 먹나/ 꺾약인 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 먹었던 마음/ 당년 당년에
후들 날리는 저 백로야/ 송백화 탐내질 말고
가지 가지에 앉지를마라/ 석양에 즐친 거미는
너를 잡을라고 독을 쏜다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5-2 : 5 노랫가락

호박단 저고리/ 시어머니 등살에 못 입어보구
세모시 치마 열두폭 짜리/ 눈물에 콧물로 다 삭았네
얼씨구나 좋다 정말루 좋다/ 아니 놀면은 뭘하나

* 1997.11.22, 소서운(71세, 여, 설성면 신팔리)

0307-1 : 8 노랫가락

창강흐르난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곁에 떡잎 다 제쳐 놓고/ 속에 속대로 주려므나
당신을 언제 봤다구/ 속에 속대로 달라시오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10-2 : 6 노랫가락

가고 못을 닦은 정이나 마자
하소를 하지 운다고 정만 남으니/ 남은 정절두 나선정하니
바람에 실려서어아/ 정만이 그 뜻을 들어주나
창난에 낙수를 길구/ 조대를 위에 앉았더니
행선나귀 잘부른 노래/ 구경조차도 설지만 울어
요즘에 봉니를 다걸고/ 당하춘삼에 어떠하리
당신 하나를 사귀어 보려고/ 수많은 여성을 다 지쳐놓고
속에 속정 다 주어가며/ 태산같이두 믿었건만
요내정 다 가져다가/ 어떤 부랑자 주었더니
사람아 내 사람아/ 참된 사랑이 다 밀어주자
사랑이 그 같으다면/ 다산이들이 오죽하리
다산만 팔순이 아니라/ 이내 천심이 훗훗 타올라

* 1997.12.15, 유충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311-1 : 7 노랫가락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마라
명년 춘삼월에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어나련만
초로같은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화 벗님네야/ 백발보고 웃지마소
어저께 청춘이드니/ 오늘날 백발이네
얼씨구니 좋네 지화자 좋네/ 젊어서 한 때나 놀고보자

* 1997.12.16. 정태진(67세, 남, 설성면 수산리)

0312-1 : 4 노랫가락

아니 아니나 놀구 무엇하나/ 거들먹거리구 놀아보세
놀이 젊어서 놀아/ 늙구 병들면 못노나니
거들떡 거리구 놀아보세/ 화무는 십일홍인데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나 노지 무엇하나

* 1997.12.16. 김명선(84세, 여, 설성면 대죽리)

0312-1 : 9 노랫가락

앞마당에는 연못지자요/ 뒷동산에는 푸를청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골골마다 고을군자라
적밀적 가질적하니/ 경치를 좇아서 놀아나 보세

* 1997.12.16. 안영복(76세, 남, 설성면 대죽리)

0413-1 : 8 노랫가락

산은 이 산이로되/ 물은 이 물은 아니로다
지하로 흐르는 물을/ 옛물이라고 이름 쓰나
아서라 그리를 말고서/ 부르는 노래 불러보자

* 1998.3.28. 박준순(57세, 여, 마장면 직촌리)

0501-1 : 2 노랫가락

닐리리아 닐리리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춘풍 부는 번하시에/ 해가 뜨나 공뜨나
저들현아 어디다 두나
공산을 어디다 두고/ 새참 문전에 왜 우느냐
밤중이면 내 울음소리에/ 억지로 오던 잠이 다 깨인다

* 1998.7.31, 송봉순(73세, 여, 부발읍 무촌리)

0501-1 : 5 노랫가락

모시대 참나무 쓰러져/ 우리 삼동새 출람봉 말네
조부님 산소에 화산이 비취/ 우리 삼동새 출람봉 말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고개에다 짐을 짓고/ 정든 님 오기만 기다린다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1-1 : 6 노랫가락

아니 노지는 못하리/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이 강산 삼천리 물들었구나/ 방실 방실 옷는 꽃
뒷뜰에는 능수버들/ 비비 베베 종달새
졸졸 흐르는 물소리다/ 앞집에 수탉이 꼬끼오 울고
뒷집에 산풍은 길길이/ 올리고 가는 큰아기들은
흥이 겨워 사뽀사뽀/ 아장아장 호늘거리며 걸어가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509-2 : 2 노랫가락

홍성에 진느러진 꽃은/ 낙화 진다고 서러를 마라
한번 피었다 시들었구나/ 나도야 진더리 나왔소야
어리석은 저 여자야/ 낭군님 보면은 싱글벙글
얼씨구나 좋다 정말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드

*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510-1 : 1 노랫가락

간다 간다 내가 간다/ 너를 버리고 내가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꽃피고 잎 피면 올라든가
얼씨구나 좋을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열두 고운정 발 맞춰라/ 구름 채는 너풀너풀
염소때는 앞에 두고/ 간다 간다 내가 간다
젖은 피리에 모다드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8.8.1, 신장수(78세, 남, 부발읍 아미리)

0513-1 : 3 노랫가락

이도령 범벅은 맷쌀 범벅/ 김도령 범벅은 찹쌀 범벅
김도령은 벗낭군이고/ 이도령은 훗낭군이라
기집년에 한시를 달고/ 일만 강산을 나 간다고
간뱃 참뱃을 훈연이 벗어/ 뒷동산으로 올 따라간다
김도령에 글을 받아/ 이도령 은둔 싹을 말고
아닌 밤중에 들어가니/ 공공단이불을 싹펴놓고
원앙금천 잠베개에 셋별같은/ 은요강을 받침에다 밀어놓고
두 몸이 한몸이 되어/ 굼실굼실 잘도 돈다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읍 가산리)

0513-1 : 4 노랫가락

에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춘풍월에 봄날씨에도/ 애를 끊는 저 두견아
홍사는 어디에 두고/ 개천변에 와 왜 우느냐
밤중이 들면 내 울음소리에/ 억지로 든잠이 다 깨운다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읍 가산리)

0513-1 : 5 노랫가락

잊어라 잊어라 보니 뵈로구나
얼씨구나 좋아 정말로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겠네
무정세월에 약주 팔아/ 꽃잎이 진다는 이네 신세
한번 가면은 다시올까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읍 가산리)

0602-1 : 17 노랫가락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백구야 훨훨 날지를 마라/ 너 잡을 때 아니라
승상은 발이 없음에/ 너를 쫓아 예 왔는가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비고서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요것만 하면은 넉넉할까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거들거리고 놀아보자

* 1999.1.13, 최용오(74세, 남, 장호읍읍 노탑리)

0605-1 : 2 노랫가락

노세 젊어서 놀자/ 늙어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면 십일홍이요/ 저 달도 둥글면 기우나니
남이라 처서 놀면/ 어느 부처도 끝까지 논다

남이라 치면 노자 보면은/ 여기저기서 다 모여든다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선읍리)

0605-1 : 10 노랫가락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가 자가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를 날제/ 어느덧 몰르게 살렸더니

어느덧 몰르게 누가 말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 세상에 태어를 났다/ 그런 멋이 없으면 못산단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가 자가 좋네

요렇게 좋다간/ 딸꺼정 팔것네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선읍리)

0609-1 : 10 노랫가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나를 박차고 가신 서방

잊어야만 옹을런지는/ 서둘러보니 알면서도

어리석은 미련이 남아/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

밥을 먹고 물 마시면서/ 두팔을 다 벌리고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 그만하면 만족하리

남자라 할적에도 저렇건만/ 일부야 종사를 왜 못하구서

화류계 여성이 되었느냐/ 올려다 보니나 수라만자

내려다 보니나 술상이라/ 술상 앞에 앉은 손님

임이라 거든 늣지를 맡고/ 꽃이라 하거든 지질마소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요렇게 좋다간 또 딸 낳지

죽일려 하나 살릴려나/ 어린 가장을 배 꿰려 놓고

병든 낭군을 잠들려 놓고/ 옷 보따리 싣단 말이나

두고를 보자 두고를 보자/ 누가 잘 사나 두고 보세

* 1999.1.14, 유성문(62세, 남, 장호원읍 외현리)

0612-1 : 1 노랫가락

에헤 에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강실 강실 강도령아/ 강실책을 옆에 끼고
 웃서방네 담모통이/ 얼싸안고 돌아간다
 웃서방네 큰색시가/ 들창문을 반을 열고
 저이나 가는 저 도련님/ 거기나 잠깐 발맞추소
 들어와요 들어를 와요/ 나의 방으로 들어와요
 올려다 보니 소라지 반자/ 내려다 보거나 각두장판
 일공단 이불을 덧붙여놓고/ 원앙금의 저 비개는
 저리나 만큼 밀어 놓고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절씨구/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9.1.11. 최상용(66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612-1 : 2 노랫가락

에헤야 에헤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께끼 께끼 께끼나 적삼/ 복덕 명기로 깃을 달고
 방문에 초롱에/ 옷 고름 달어
 사월이라 초파일날/ 은다리미 얻어다가
 살금 살짝 다녀 놓고/ 해떡 회떡 걸어 놓으니
 열살 먹은 시부의 아기/ 들락 날락 젖었으니
 발기 받기나 찢어 났네/ 내가 여기를 올적에는
 천금을 바라고 내가 왔나/ 만금을 바라고 내가왔나
 반달같은 너의 오빠/ 하나를 바라고 내가 왔지

* 1999.1.11. 최상용(66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612-1 : 3 노랫가락

꽃 본 남아 화를 심었더니 노중에 번졌더니
찬이슬 굿은비에 맞을 때로 다 맞았구려
박쥐가 내려짓 하고선 꽃 위에서 앓을까 말까

* 1999.1.11,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612-1 : 5 노랫가락

에 - 에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배꽃 질라 배꽃 질라/ 처녀의 수건이 배꽃일래
배꽃 같은 흰수건 밑에/ 또 매보는 저 낭군아
얼빈 놀빈 옆눈질 마라/ 대장부 가슴이 다 녹는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황해도라 구월산 밑에/ 지치 캐는 저 낭군아
얼빈 놀빈 옆눈질 마라/ 대장부 가슴이 다 녹는다
얼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1, 최상용(66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702-1 : 8 노랫가락

아니 아니나 하니 하니/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한번 꿈에는 기러기가 울고/ 오늘같이 허둥 우에 까치가 없어지련만
허여나 이리 올까/ 허여나도 잠이 올까
기다리다가 못잊어서/ 잠잔 들었지만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깐/ 임은 잠이 오구서 낙엽소리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지/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4-1 : 5 노랫가락

꽃은 꺾어 머리에다 꽃고/ 잎은 뜯어 입에다 물고
산에 둘러 돌구경 하니/ 길가던 행인이 길을 묻는데
엄마도 천하의 일생/ 나뿐인가 하노라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707-1 : 7 노랫가락

간다 나는 간다/ 아들 딸 버리고 나는 가요
내가 가면 아주를 가나/ 아주 간들 잊을소나
얼씨구나 좋다 아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10-2 : 2 노랫가락

이때하고 어느 때나
때는 좋다 벗넌네야/ 산천경치를 구경가세
죽장을 짓고 단표자루/ 천리나 강산을 들어가니
폭수장님은 좋다마는/ 요상경계가 네로구나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0-2 : 3 노랫가락

푸르고 푸른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중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올때만 기다리네
얼씨구나 정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712-1 : 19 노랫가락

황해도라 봉산 굴산밑에/ 저 쪽맨들이 저 처녀야
너희가 집이 어드메기에/ 해가 지도록 아니 가누
나의 집을 아시려거든/ 삼신산 지당계 속에 초가삼간이 내집이요
마음에 있거든 따라를 오고/ 마음에 없거든 고만두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요렇게 좋다간 땅 팔겠네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1-1 : 11 노랫가락

높은 산 상봉에 눈 날리고/ 얇은 산에 재 날리 듯
무정한 기차야 날씨구 농구/ 한고양식일 줄을 예헤헤 몰랐나
꽃 꺾어 머리 위에 꺾어/ 산에 올라가 들구경 하니
이보실 때 바라고 꽃 꺾어/ 머리에 올라가 보니
이 몸은 어디로 가고/ 홀로만 앉아 있네
세상을 비판을 말고/ 고생한다고 서러들 마라
꽃이 지면 열매가 맺구요/ 고생이 지나면 낙이 온다
이서라 그리들 말고서/ 부르던 노래나 계속합시다

말은 가자고 애구별 놓고요/ 이 못난 자고 동시를 하네
임마야 날 잡지 말고서/ 넘어가는 저해를 좀 불러다오
세상에 모질고 강하고/ 인생은 호미밖에나 또 있으랴
제발로 재창살 빼어서/ 만발천상에다가 그물을 치고
밤이면 날으는 날짐생/ 옮기는 대로만 가자고 하네
이 몸이 불 적에는/ 하고 못할 말 많더니만은
이몸이 당하고 보니까/ 어어허이 가슴만 타네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801-1 : 15 노랫가락

내가 너를 낳을 적에는/ 아프려구 손을 따렀나
사랑에 키워서 널 따렸으니/ 과일 나는 노여마오

이들 새들 봄배치는/ 찬이슬만 오기만 기다린다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내가 너를 따릴적에는/ 아프라구 손을 따렀나
사랑에 키워서 널따렸으니/ 과일 낭군 노여마라

시들 새들 봄배치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요렇게 좋다가 땅팔아 먹어

하늘같이도 높은 사랑/ 하해와 같이도 깊은 사랑
당명황에는 양귀비요/ 이도령한테는 춘향이라
일년은 삼백육십오일/ 하루라도 못 보면 못살겠네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801-1 : 16 노랫가락

높은 산에 눈이 나리고/ 열은 산에 재 날리듯
앞선 장마 폭포같이/ 북바리 밭으로 날아든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높은 산에 눈이 날리고/ 열은 산에 재날리듯
앞선 장마 폭포같이/ 대천바다에 물밀듯이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요렇게 좋다가 도로 간다네

* 2001.2.6. 김성분(76세, 여, 호법면 단천리)

0802-2 : 6 노랫가락

오홋같이 고운 내님을/ 열매 같이 맺어놓고
가지같이 뺨은 저 정은/ 뿌리 같이 깊었으니
아마도 백년이 지도록/ 이별 없이 잘살아 볼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친구라도 늙어를 지면/ 오든 친구도 아니오나
낭구라도 고목이 생겨/ 놀던 새도 아니 논다
꽃이라 해도 낙화가 지니/ 놀던 나비도 자철 감취
물이라 해도 홍수가 지니/ 놀던 고기도 전혀 없고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2-2 : 8 노랫가락

명사십리 해동화야/ 꽃진다고나 서리마라
명년 삼월 돌아오면은/ 너희는 다시는 피련마는
우리 인생 한번을 가면/ 싹이 날까 움이 날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한다
활을 잘쏘아 할랑이드냐/ 돈을 잘 써서 팔락이나
제것 가지고 못쓰는 자는/ 장부 중에도 졸장부요
남의 것 가지고 잘쓰는 자는/ 장부 중에도 대장부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내가 간들 아주 가나
아주 가면 아주 가나/ 내가 간들 아주 가나
맘이 다장 다두고 가네/ 내 사랑 잊지는 전혀 마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한다
시든 새도 봄빛 찾는/ 참이슬을 기다리고
옥중에 갇힌 성춘향이는/ 이도령 오시기를 기다린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한다

* 2000.9.30, 김문용(78세, 남, 호법면 동산리)

0807-1 : 4 노랫가락

백두산성 마도진이여/ 두만강수는 음마수라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세수친의 대장부라
 이 시를 지으신 이는/ 남이장군이 아닐쏘나
 놀아 젊어만 놀아/ 늙어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두 차면은 기우나니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04-4 : 16 노랫가락

뒷동산에 군밤을 심어/ 군밤이 싹이 나오면 오시려나
 가마솥에다 푹 삶은 개가/ 어경콩 짓으면 오시려나
 병풍안에나 그린 수탉이/ 두 날개를 허허를 치고/ 꼬끼오 울면은 오시려나
 신작로에나 깔린 자갈이/ 바위가 되면은 오시려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4-4 : 30 노랫가락

사람마다 벼슬을 하면/ 농부될 사람 누가 있나
 의사마다 병 고치면/ 북망산천이 왜 생겼나
 앞동산에 봄 춘자와/ 뒷동산에는 푸를 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와/ 구비구비는 내 천자라
 동자야 잔 가득 부어라/ 마실 음자가 빨간 주라
 나비야 청산을 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거든/ 꽃에서라도 자고나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라도 쉬어가지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4-4 : 31 노랫가락

장미가 곱다더니/ 거꾸로 보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 하더니/ 따로 본즉은 눈물이로다
아마도 장미와 사랑은/ 가시와 눈물이 아니냐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6-1 : 5 노랫가락

물고기 등에 지고/ 칠팔월 흐린 날에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곱땡이 입고 잠땡이 입고
나가래 차고 금가래 메고/ 호미 들고 채쭈크 들고
수수떡잎을 툇 꺾어/ 머리를 질끈 동여 메고
고삐를 툇 툇 치며/ 여기야 낚낚~ 소 몰러 가는
노랑 데고리 더벅머리 아이눔아/ 게 좀 썰거라 말 물어 보자
저기 저 웅덩이/ 저 접 때 장마에
고기가 많이 수쿨 모였으니/ 네 종기 종다라기
자나 굶으나 굶으나 자나/ 함부로 주엄주섬 얼른 냉큼
수이 담어 지날 때에/ 님의 집에 전하여 주렴
우리도 사주팔자 기박하여/ 남으로 몸 사는 것으로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밤중이면 음문자나 뜯어보고
낮이면 농사짓고/ 한 달에 술 담배 곁들여
수백번 녹는 몸뚱이라/ 전할듯 말듯

* 2001.4.28, 박일순(80세, 여, 모가면 송곡리)

0906-2 : 7 노랫가락

백구야 맛이를 와라/ 내가 따져들 간다
 저 상이 버리었음에/ 느들도 왔노라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만족할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니라
 한송이 떨어진 꽃이/ 낙화가 진다고 서러와 마라
 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어느 누가 알면서도
 모진 설음을 내버리니/ 버린것 쓰러지거늘
 가는것 짓밟고 가니/ 갠들 아니 슬플쏨가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잊지는 못하리라

* 2001.5.24. 민병국(76세, 남, 모기면 송곡리)

0907-1 : 2 노랫가락

황해두산 상거지 응응/ 운수야 받들어 응응
 제 멋에 겨워서 응응/ 정말 좋구나 응응
 에헤야 좋구나 응응/ 성화가 났구나 응응

* 2001.4.28. 임복환(94세, 남, 모기면 신갈리)

0907-1 : 10 노랫가락

아서라 말어라/ 네라도 그리마라
 사람의 팔세를/ 네가 그리말어라
 에헤이요~ 가는이 붙잡고/ 나를 어찌지를 말구서
 니나 나무나 서로 만나서/ 옹기종기 잘 산다
 에헤이에 장터/ 요리 궁실 저리 궁실
 아서라 말어라/ 네가 그리마라
 사람의 팔세를/ 네가 그리 말어라

* 2001.4.28. 임복환(94세, 남, 모기면 신갈리)

0907-1 : 11 노랫가락

세상의 모진 긴세월 밤이/ 동짓밤 같아도 또 있으라
제발로 개청실 끈의/ 장녀 품으로 내려놓고
서경에 어느 긴 세월/ 다 잡아먹네
달아 둥근달아/ 임의 동창에 비친 달아
임으로 누웠드나/ 어느 수령을 품었드나
임을 본대로 일러/ 사생결단을 잃었구나

* 2001.4.28, 임복환(94세, 남, 모기면 신갈리)

0908-3 : 15 노랫가락

우편국 마당에 임소식도 없구나/ 떠나는 기차야 소리말고 달려라
아서라 말어라 니가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팔세를 니가 그리를 말어라
살면은 아느냐 한백년을 사느냐

* 2001.6.4, 권오돈(71세, 남, 모기면 양평리)

0909-1 : 15 노랫가락

아니 아니 놀지는 못 하리로다
뒷동산에 고목낭구가/ 잎피고 꽃피면 오시려나
우리집 마당에 군밤을 심어/ 새싹이 나오면 오시려나

* 2001.4.28, 이돌석(76세, 여, 모기면 어농리)

0910-1 : 1 노랫가락

꽃이야 곱다마는 못 꺾었네/ 꺾던지 못 꺾던지
그꽃 이름을 지어볼까/ 아마도 그꽃 이름은 천추만대 무궁화라

* 2001.4.28, 문정만(74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1 : 3 노랫가락

꽃을 찾는 부나비는/ 향기를 따라서 날아들고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혼상을 좇으려나
소복단장 곱게 하고/ 양달 발길을 넘나든다

* 2001.4.28, 이갑주(86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1 : 4 노랫가락

알쏭달쏭 호랑나비는/ 꽃을 보고 날아들고
백설같은 흰나비는/ 공단발길을 넘나든다

* 2001.4.28, 문정만(74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13 노랫가락

먹기 싫은 찬밥은/ 두었다도 먹으련만
살기 싫은 요세상 좋다/ 영 죽어도 못살겠네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19 노랫가락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려나
만고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무정한 세월아 갈때로 가거라
우리 같은 인생이 다 늙어 난다
우리야 청춘은 다 늙어지더라도
우리야 부모님은 늙지를 마라
무정한 세월은 덧없이 가고
이내나 인생은 다 늙어진다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28 노랫가락

달뜨자 배떠나 나가니/ 인제가면 언제 오나
만경창과 지수나 중에/ 나는듯이나 땡겨나요
언제나 당신을 만나서/ 옛날 얘기 이르고 또 살아보나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1002-1 : 10 노랫가락

어린 아이 정들을 때는/ 알알이 사탕으로 정이 들고
치녀 총각 절들을 때는/ 목화밭 속에서 정이 든다
신랑 신부 정들을 때는/ 목원단 이불속에서 정이 들고
과부 홀애비 정들을 때는/ 막걸리 한잔으로 정이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들을 때는/ 등어리만 굶어도 정이 든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나나 놀지는 못하리라

* 2002.5.21, 심순희(65세, 여, 대월면 구시리)

1003-1 : 9 노랫가락

노라 노라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노나니
나귀등에다 소질을 하여/ 송고만장을 눌러타고
삼천리 강산에 유람가자/ 오동목판 거문고에
쇠주렁 매어서 영금타니/ 백합이 제 짐작하고
우주 우주리 반 춤춘다/ 날러가는 원앙새야
너허구 나허구 짝을 짓자/ 외롭구나 슬프구나
언제나 유정님 만나/ 내에 슬픔을 풀어보나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3-1 : 11 노랫가락

초당 앞에 깊이 든 잠/ 닭의 소리에 놀래 깨니
그악 소리 간 곳 없고/ 들리나니 물소리오 흐르나니 눈물이다
눈물은 흘러서 한강수 담고/ 한숨을 쉬어서 동남풍 된다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3-1 : 21 노랫가락

창밖에 오던 비 산란도 하더니/ 비끝에 돌는 달은 비정도 하고나
날 다려 가거라 날 다려 가거라/ 한양의 낭군님아 (중대) 날 다려 가거라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3-2 : 6 노랫가락

죽일렀나 살릴렀나/ 해전 동편에 몸을 돌려
어린 자식 배골려 놓고/ 병든 노모 물 먹이네
심술긋은 봄바람에/ 개나리 붓짐이 웬말이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3.17. 김병진(68세, 남, 대월면 군량리)

1005-1 : 10 노랫가락

낙동강 칠백리엔/ 뼈꼭새가 울고요
이 강산 삼천리엔/ 무궁화가 피었도다
에헤야 에헤야 어려워 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시냇가에 빨래소리는/ 또드락 똑딱 나는데
버들잎은 아롱아롱/ 정든 님 얼굴을 가리는 구나
어헤야 어허야어여러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은 말어라

정든 님이 오실라면/ 떳떳하게나 오시지요
꿈속에만 오락가락/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인다
에헤야 어허야 어여러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 2002.4.27. 장순애(75세, 여, 대월면 장평리)

1006-3 : 5 노랫가락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 십일홍이오/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고 못오리면/ 정이나 마저 가지고 가지
임은 가고 정만 남으니/ 밤은 점점 야산경이다
사람의 심리로서야/ 병환이 들리가 만만이로다

* 2002.3.30. 이병림(68세, 여, 대월면 부평리)

1006-3 : 9 노랫가락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지치를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 어드메길래/ 해가 저도 아니 가니
나의 집은 심신산천 실안개 속에/ 초가삼간 있을테니
맘이 있걸랑 찾아를 오고/ 꿈에도 없걸랑 그만두소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지치를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 어드메길래/ 해가 저도 아니 가니
나의 집은 심신산천 실안개 속에/ 초가삼간이 있을테니
맘에 있걸랑 찾아를 오고/ 꿈에도 없걸랑 그만두소

* 2002.3.30. 이병림(68세, 여, 대월면 부평리)

1008-2 : 6 노랫가락

신구 명산 만장봉에/ 바람 불어서 무신난고
 눈비가 온다면 이별을 줄까/ 대쪽 같이 끈은 절개
 매를 질라면 노라고 그러냐/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도 없을소냐/ 얼씨구 좋다 기화자 좋아
 아니나 놀지는 못하니라

* 2002.3.30, 채수인(72세, 여, 대월면 시동리)

1009-2 : 15 노랫가락

충신은 만조정ियो/ 효자열녀는 가가재라
 화형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상 현판달어
 삼신산 불로초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북당의 학발양친을/ 모시어다가 연년익수

송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의 굶은 비 되어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성을 띄어놓고
 밤중만 월색은 좇아 완월장취

무궁화 옛등결에/ 광명의 새봄이 다시왔다
 삼천리 뻗은 가지/ 줄기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인연없는 그 사람을/ 잊어 무방하련 마는
 든정이 병이 되어/ 살으라니 간장이라
 지금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자사로 뺀 가지/ 맹자 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 꽃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환가

울 밑에 벽오동심어/ 봉황을 보랏더니
봉황을 제 아니오고/ 날아드느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 오작 쫓아라 봉황이 앉게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험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것은 역시 못 믿겠구려
날 같이 잠못 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수 있나

한평생 허덕이면서/ 남은 것이 그 무엇인가
담소화락 엄병엄병/ 매양일 줄만 알았더니
야속한 무정세월이/ 이내 청춘만 앗아갔네

내 한을 누구를 주고/ 누구의 한을 가져다가
한평생 지나긴 밤을/ 한 속에서 새는 구나
한 중에 말못할 한이 더욱 설위

가고 못을 남이면/ 정이나 마저 가져가지
님은 가고 정만 남으니/ 정들것이 난감이로다
이정을 어디두었다/ 님 오실때에 풀어볼까

* 2002. 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3 : 9 노랫가락

닐릴릴 닐릴 어리구 절싸 말마라
사람의 섬섬 간장 에루하 다 녹인다

한송낙이는 예루하 가인의 눈물이요
 고국진 흥망은 예루하 장부의 한이라
 용한 이라 예루하 당대춘은
 정든님 공경에 예루하 다 나간다

살살 바람은 예루하 옷깃을 세우치고
 방실방실 웃는 꽃은 예루하 내 마음을 달래네
 오솔길 언덕 위에 예루하 한떨기 핀 꽃은
 바람만 불어도 예루하 한들대두나

닐털릴 닐털 어리구 절싸 말마라
 사람의 섬섬 간장 예루하 다 녹인다

설부화용을 예루하 자랑마라
 세월이 흐르면 예루하 허사판사다
 천길만길을 예루하 똑떨어져 살아도
 님 떨어져서는 예루하 못살리로다

십오야 뜬달이 예루하 왜 저리 밝아
 명들은 이 가슴 달렐길 바이 없구나
 황성에 든 별리 예루하 골수에 맺혀
 잇을망자가 예루하 병들병자다

인왕산 덜미에 예루하 저 삐꼭새야
 누구를 그리워 밤새도록 우느냐
 춘하추동 사시절에 꽃이 몇 날인가
 백년 삼만육천일에 소년행락이 얼마인가

봄바람이 사랑불어 버들가지 한들대고
버들 위에 띄꼬리 구십춘광 노래한다
연분홍 저고리 남치마 자락을
잘잘 끌며 아리랑 아장 걸어 초당 위를 거니네

초당에 고히 든잠/ 학의 소리에 놀라 깨니
학은 간데 없고/ 들리는 이 물소리네
동자야 뉘시줄 쓸쓸 풀어/ 연방에 던지거라 고기 낚게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5 : 4 노랫가락

기산영수 별건곤에/ 소부허유가 날 찾나
백화심처 필승귀가/ 춘풍섞여 활인중에
성진화상이 날 찾나/ 그 누라서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청산기주 백로탄에 여동비니
그 뉘가 날 찾나/ 찾을 이 없건마는
그 누구가 날 찾나/ 도화유수 무릉가자
어주숙객이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그 누라서 날 찾나
칠석날 견우직녀가/ 함포로 지나가다가
함께 가자 날 찾나
날 찾을이 없건마는/ 그 누라서 날 찾나
수양산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자고 날찾나
그 누라서 날찾는고/
찬하역사 황적이가/ 범마굴을 보려하고
나부산에 갔건만은/ 그 누라서 날 찾는고
상산사혹 흰노인이/ 바둑을 두자고 날 찾나

부춘산 남자롱이라/ 가관에 대부는 마다하고
 동강칠리 담갔건마는/ 그 누라서 날 찾나
 기주하던 유통이가/ 동배주하자고 날 찾나
 그 누라서 날 찾는고
 천일숙소 진드라미가/ 같이 자자고 날 찾는고
 천하부자 왕개 석송이가/ 복자랑 하려고 날 찾나
 그 누라서 날 찾는고/ 날 찾을 이 없건마는
 찬태산 만고선녀가/ 약초를 캐자고 날 찾나
 그 누라서 날 찾는고
 고제염제 신농씨가/ 거북구자로 받을갈아
 오곡을 십자고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어허 저 구름이 날 속였구나/
 금수쟁이가 날 새겼지요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1009-5 : 7 노랫가락

월무족이 보천이요/ 풍무수이 요수로다
 동정에 걸린달도/ 그름이면 무광이요
 모진광풍은 손이 없어도/ 만수장님을 뒤흔드는데
 우리 다정하고 유정한 님은/섬섬옥수가 있건마는
 주서로 이내 편심을/ 어루만질줄을 왜 모르나
 불이 붙는다 불붙는다
 의주 통군정에 붙는 불은/ 압록강수로 끄련마는
 용천 철수 산천 중 추가산박철을
 얼른 지나 안주 백산으로 붙는 불은
 향산터 응구 딱 떨어져서/ 청천강수로 끄련마는
 숙천 순안을 얼른지나/ 평양 모란봉에 붙는 불은

을밀대는 만폭대요/ 대동강수로 끄러마는
 이내 이사람 주소로 붙는 불은
 어떠한 남녀 친구가 꺼준단 말이나
 생각사 어름 못잊겠네/ 덩그랗게 빈방안에
 홀로 앉았으니 님이 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수단이 몽분성이라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꺾야 임 만나지
 생각을 하면 가지는 설워 못살겠네
 삼척동자야 새벽달은 뚜렷이 떠오는데
 내다보아라 임은 어데 가 안 보이고
 이내 간장만 태우누나
 오늘가고 내일가고/ 모레가고 글피가고
 여드레 팔십일 모두다 가고/ 석달 열흘에 단천리 가고
 부월이 당꼴을 할지라도/ 입따라 갈까보다
 생각을 하면 가지는 설워 못 살겠네
 황능요상에 두견이 울고/ 창과녹림에 잔나비 소리
 소상야우에 시시로 오는 비는/ 아황여영의 눈물이요
 이내 이사람 주소로 붙는 불은/ 임으로 떠나야 흐르는구나
 백일 청천에 뜬기러기/ 너는 어디로 향하느냐
 임 계신 곳으로 거래가 트이면/ 일포화전을 펼쳐놓고
 세세사정을 기록하여/ 내 발에 등실 털어 줄 것이니
 임 계신 곳 전구 어서 가려므나
 저 기러기 대답을 하되/ 나도 소상동정에서 내 짝을 잃고
 짝 찾으러 가는 길인데/ 남의 소식 전하기는 둘째로다
 용만이 남만이요 불사이 자사로다
 정든 님은 잊어버리자 하여도
 밥을 먹다도 동전마다 임 생각이요
 술을 먹어 잊자하고/ 한잔 먹어 두잔 먹어

석잔만해도 그대생각/
 글을 써서 잊자하니/ 한자쓰고 한숨이요
 두자쓰고 눈물이라/ 석자를 쓰고 들여다를보니
 드러난 글자는 아니되고/ 임의 사진 추호만 변치 않았으니
 생각사로 못 잊겠네/ 생각을 하면 가지로 설위 못살겠네
 생각사로 못 잊겠네/ 생각을 하면 가지로 설위 못살겠네
 낭구라도 상사목은/ 음양을 맞춰 마주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좌우를 절하여 마주 섰는데
 우리 우정 님은/ 남북한 육십리 머지 안건만
 왜 그다지 못보고 못 오느냐/ 생각사로 못 잊겠네

* 2002.4.27.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103-3 : 1 뱃노래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작년같은 흥년에도 이밥은 먹었는데/ 올해같은 자식 풍년에 왜 장가를 못가나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어스럼 가을밤에 단 둘이 만나서 연애하고/ 키스할 때 뱃노래를 불렀단다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님이 죽고 내가 살면 몇 년을 사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어스럼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한 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님이 죽고 내가 살면 몇 년을 사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밤낮에 잘된이도 많구요/ 연애 가서 외는 소식도 많구나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천년을 사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에야루야루아 에야루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1996.7.10. 임윤빈(62세, 남, 백사면 송말리)

0109-4 : 1 뱃노래

만경창파에 배를 띄우고/ 파도치는 물결따라 님 쫓아가누나

어기야 디어라 어기야 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의 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어기야 디어라 어기야 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1996.7.15. 정호영(73세, 남, 백사면 조읍리)

0201-1 : 5 뱃노래

에야루야 루야 어야루야 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자

어스를 달밤에 개구리나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나네

에야루야 루야 어야디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자

부딪치는 파도소리 단잠을 깨우고/ 어기어차 노젓는 소리 처량도 하구나

에야루야 루야 어야디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자

우수나 경칩에는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 요 내 속이 풀리네

에야루야 루야 어야디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자

달은 밝아서 명랑한데/ 고향생각이 저절로 나네

에야루야 루야 어야디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자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2-3 : 2 뱃노래

아리랑 춘자야 배 띄워라/ 기와 술을 잔뜩 실고 뱃노리 가잔다아

뱃놀이하는데 자다가 깨니께/ 군인 간 오리 오빠소리가 나네

* 1997.2.16. 오명환(90세, 여, 울면 신추리)

0204-2 : 2 뱃노래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에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 타느냐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오실 오실 달밤에 둘이 살짝 만나시/ 살자고 살자 할제 왜 허락 못했나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 산 저산 도라지 꽃이 남물이 들었네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어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인달이 났구나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걸저고리 벗어서 뱃머리 걸구요/ 파도 치는 물결 따라서 이몸은 갑니다
 예헤야 나누야 예헤야 나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6 뱃노래

에야루야 루야 에야루 야루야/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앞집의 총각은 장가두 가는데/ 뒷집의 색시는 목매러 가노라
 에야루야 루야 에야루야 루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작년같은 흥년에도 이밥을 먹었는데/ 올해같은 색시풍년에 장가를 못가네
 에야루야 루야 에야루야 루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을까
 에야루야 루야 에야루야 루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신안리)

0301-1 : 9 뱃노래

동지선달 긴긴해에/ 밥은 굶고 산다해도
동지선달 긴긴해에/ 임그리워 못살것네
에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 어차 뱃놀이 갑시다

은니 틀니 없는 어선 노래에
여름 날 쓸쓸히 저물어만 가노라
에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 어차 뱃놀이 갑시다

바람 앞에 장년등은 꺼지거나 말거나
우리들의 마음만은 변치를 맙시다
에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 어차 뱃놀이 갑시다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2-3 : 7 뱃노래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파도치는 물결따러/ 이몸은 갑니다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만경창파에 두둥실 뜬배야/ 출렁 출렁 노저어라 달맞이 가잔다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무정한 기차는/ 땅 실어다 놓구서
한고향 뱃을 줄은/ 내 어이 몰랐더냐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 1997.11.15, 홍인표(72세, 남), 오성철(57세, 남, 설성면 장능리)

0303-3 : 4 **뱃노래**

파도치는 물결소리 처량도 하구나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살구 내가 죽으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날 만큼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에헤 맨발로 뛰어가지
 *1997.4.11, 김영순(76세, 여, 설성면 행죽리)

0305-2 : 7 **뱃노래**

어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잔다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앞집에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단봇짐 싸는구나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달 뜨던 동산에 달 떠야만 좋은데/ 요내마음 달뜬건 허사가 되노라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잔다
 *1997.11.22, 소서운(71세, 여, 설성면 신평리)

0509-2 : 11 **뱃노래**

어지러운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아우야~ 동상야 그런 말 말아라/ 형부의 코만 컸지 실속이 없다네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흘저고리 벗어서 요밑에 깔구요/ 이리빙글 저리빙글 인사를 가노라
 *1998.8.2, 이옥순(60세, 여, 부발읍 가좌리)

0510-1 : 1 뱃노래

세월아 오가지 말어라/ 아까운 요내야 청춘이 다 늙어졌네라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노릴 가잔다
 청천 하늘에 잔별이 많구요/ 요내야 가슴속에 수심도 많구나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노릴 가잔다
 강풍아 불지를 말어라/ 산천에 낙엽이 다 떨어지누나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노릴 가잔다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나무는/ 눈비가 온다거나 일어날소나
 황주까지 나부는 절개가/ 매마진다고나 허락을 할소나
 몸을 빌어서 기상일망정/ 절개가 좋아서 어귀나 날소나

* 1998.8.1, 이성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708-2 : 15 뱃노래

어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저 처녀가 안달이 나는구나
 어야노야 로야 어야노 야로/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누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어버리지
 어야노야 로야 어야노 야로/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12-1 : 14 뱃노래

어기여차 뱃노리 가잖다/ 어기 어야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나요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볼까요
 어야루야 루야 어야루야 누/ 어기여차 뱃노리 가잖다

저건너 저 아무정박 작년에도 묶더니
올해도 널그나 같이 또다시나 묶는구나
에어루여 루야 에어루여 누/ 어기어차 뱃노리 가잖다

* 2000.2.15. 양창석(80세, 남, 신둔면 마교리)

0805-3 : 4 뱃노래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예로야 뱃놀이 가잔다
아아 예헤 아아 예헤요오 이어야 하/ 얼싼마 등데 디여라 내 사랑아
멀리뵈는 관악산 풍전도 하구요/ 뚝단배 두서넛 예로야 한강으로 가누나
아 아 예헤요오 어 어 야하 예헤요오/ 얼싼마 등데 디여라 내 사랑아
양궁하천 흐르는 물 소양강으루 감돌아/ 양수리를 거쳐서 물으로 흘러만 가누나
아 아 예헤 아 하 예헤요오/ 얼싼마 등데이여라 내 사랑아

* 2000.6.1. 이몽년(71세, 여, 호법면 안평리)

0807-1 : 1 뱃노래

어야루야 루야 어야루야 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어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어야루야 루야 어야루야 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바람아 불어라 구름아 모여라/ 선풍에 닳을 달고 뱃놀이 가잖다
어야 디어차 어야 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10-5 : 29 뱃노래

어야루야루야 어야루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누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 죽잔다
언니는 좋겠네 형부는 좋겠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어스렁 달밤에 단둘이 만나서/ 어르고 달렐적에 왜아니 들더냐
어야루 야루야 어야루 야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 죽잔다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1003-1 : 14 뱃노래

어기어라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 꽃망을 남물이 들었네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으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소리/ 시집 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으시렁 달밤에 단둘이나 만나서/ 우는듯이 웃는듯이 키스를 하잔다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의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아우야 동생아 그 말을 말어라/ 형부의 코만 컸지 실속은 없더라
에야루 야루야 에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 2002.3.17. 박혜숙(80세, 여, 대월면 군림리)

1003-1 : 15 뱃노래

작년같은 풍년에는/ 이밥을 먹었는데
올같은 저년 풍년에/ 왜 시집을 못가나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야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잔다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우리 형부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아우야 동생아 그런 말 말아라/ 너의 형부 코만 컸지 실속은 없단다
 예야누 야누야 예야누 야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 꽃에 남물이 들었네
 예야누 야누야 예야누 야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일본의 동정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예야누야 누야 예야누야 누/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 2002.3.17, 김병진(77세, 여, 대월면 군량리)

1008-2 : 17 뱃노래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에 남물이 들었네
 예야루야 루야 예야루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분홍이 들었네 분홍이 들었네/ 뒷동산 칠썩꽃에 분홍이 들었네
 예야루 야루야 예야루 야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노랑두 대가리 뒤범벅 상투를/ 언제나 길러서 내낭군을 삼나요
 예야루야 루야 예야루야 루/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 2002.3.30, 채수인(72세, 여, 대월면 사동리)

0101-5 : 13 사발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가 펑펑 나구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난다
 예이요 어이야 어여라난다 디여라 허성 세월 말아라
 시냇가에 버들피리/ 오르락 푸르락 나는데
 아롱다롱 버들잎은/ 정든 님을 부르러 가준다

에이요 어이야 어여라난다 디여라 허성세월을 마라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205-1 : 5 사발가

석탄 연탄 타는데도 연기만 포복복 나고요

이 내 가슴 타는데도 연기 김도 안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난다 디어라

얼러덩 바람에 다 털어먹고 요모양 요꼴이 되었네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울면 신양리)

0904-4 : 10 사발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피벌석 나구요

요네 가슴 타는데는 연기두 김두나 안난다

에헤야 네헤야 어야루 난다 디어라 허성세월을 마러라

올해도 풍년 내년에두나 풍년

면년이 연년이 연독고복이라네

에헤야 네헤야 어야루 난다 디어라 언제나 만나 볼까봐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1003-1 : 18 사발가

석탄 백탄 타는 건 경성 시내가 다알건만

요네 가슴 타는 거는 한숨에든 넘도 몰라주네

에헤요 에헤요 니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녹인다

지붕에 앉은 박덩굴은 세월이 오기만 기다린다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0101-5 : 1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부모같이 중하신 양반/ 세상을 뒤집어도 없으련만
 님 그리워서 애타는 마음/ 어느 남자가 풀어주나
 옛날 옛적 진시왕은/ 당고시선을 불사를 때
 사랑 두자 누가 냈느냐/ 이별은 누가 내구
 사랑 두자 내었거들랑/ 이별 두자는 내지말지
 사랑 두자 낸 사람이/ 날밤에는 신이 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청춘가는게 무정하다

* 1996.7.9, 정동숙(68세, 여, 백사면 현방리)

0101-6 : 2 창부타령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별아 꿈이로구나/ 모두 이별아 꿈이로다
 옛날 옛적 차근 차근/ 모두가 이별아 꿈이로다
 나를 싫다고 나를 마다고/ 나를 박차고 가는 님
 우리 서로 미련이 많아/ 그래도 못잊어 하니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1996.7.9, 오정봉(75세, 남, 백사면 현방리)

0102-1 : 1 창부타령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정월 일송 섭섭한 마음/ 이월 매화에 매겨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에 흩어놓고
 오월 난초 곱게나 피어/ 유월 목단에 춤을 춘다
 칠월 흥쾌지 홀로 누워/ 팔월 봉산에 달이 밝다
 구월 국진 곱게 피어/ 시월 단풍에 똑 떨어졌네

오동잎추야 기나긴 밤에/ 당신 생각에 잠이 올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 1996.7.9, 박찬중(62세, 남, 백사면 내촌리)

0103-1 : 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파 하고도 어느 때요 때는 좋다
벗님네야 죽장을 들고 강산을 넘고/ 밤새 구경을 가련다
닭아 닭아 우지를 마라/ 니가 올면은 날이 샌다
날이 새면 어떻게 하나/ 앞못보는 나의 모친이 불쌍토다
얼씨구 씨구 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새별 같은 찻눈 찬 인생은 홀로 훑날리고
옥에나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를 기다린다
얼씨구 씨구 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 놀다가 가세

* 1996.7.10, 임윤빈(62세, 남, 백사면 송말리)

0104-2 : 4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없구나 오늘 일은 마라/ 노자구 내가 하나라
산등성이 보리 없으매/ 해를 쫓아서 여기왔다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 넉넉하리
일천 간장 맺힌 것은/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너와 나와 만날적에는/ 백년 사자고 언약을 하고
산을 두고 맹세를 하고/ 물을 두고 저늘적에
산지중천은 간 곳이 없고/ 하나 남은 건 이별이라
이별 두자 누가 내었나/ 이별 두자를 누가 내었나

이별 두자 내인 사람/ 나와 생전에 웬수로구나

* 1996.7.11, 성건용(76세, 남, 백사면 상용리)

0201-1 : 9 **창부타령**

가련하구 가련하다/ 춘향모가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온 모퉁이로 돌아들어
 몹쓸년에두 춘향이야/ 허락한다구 한마디만 하려무나
 아이구 어머니 그말 말어/ 허락이란 말이 웬말이나
 고관대작도 내 다 싫다고/ 만중록도 내 다 싫다고
 어머니가 고른 배필을/ 좋고 그르고 다가 웬일인가
 얼씨구나 절씨구나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1-1 : 10 **창부타령**

때는 춘삼월 만화방창/ 때는 좋다 봄이로다
 산천경개 귀경가자/ 죽장망혜 단풍자루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만산이 흥록은 다가
 일년 일도 또 다시 피어/ 춘색을 다 자랑하노라
 새새이 붙었으니/ 창송귀죽은 울울창창
 귀화유전 낙만중에/ 꽃속에 잠든 나비가 자취없이 날아든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시들새들 봄베추는/ 찬이슬 오기를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를 기다린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국화꽃이나 곱다한들/ 함박꽃보다 더 고울손가
 함박꽃이나 곱다한들/ 임보듬두나 더 고울손가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1-1 : 11 창부타령

추야장 밤두나루기루/ 나만 홀로 요밤이 긴가
아마두 요밤이 긴건/ 임이 없는 탓이로다
옥분에 매화를 심어/ 거리노중에 던졌더니
곳은비 찬비 서릴/ 다 맞을대로 다 맞었네
차롱아 말 놓고 창을 쓰지 마라/ 많은 장졸이 다 놀란다
장창은 다 어디다 두고/ 들어 오느니 장금이로다
아들은 품에다 품고/ 돌아 드느니 장관교로다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4-1 : 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일상에 좋기는 덩이덩이 덩덩/ 사철에 좋기는 막걸린데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 한잔 먹고 놀아보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정월 속속 드는 해는/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에 홀어 놓고
오월 난초 노던 나비는/ 유월 목단에 춤을 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봉산을 구경타가
구월 국화 만발하여/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니
동지나 설달 설한풍에는/ 백설만 날려도 니의 생각
넘은 가고 봄은 오니/ 꽃만 피어도 너의 생각
강초 일일이 강수색하니/ 강물만 푸르러도 너의 생각
앉았으니 너의 오시나/ 누웠으니 잠이 오나
앉어 생각 누워 생각/ 생각 생각에 난 못산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다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4-2 : 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정월 속속 드는 해는/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에 흩어 놓고
 오월 난초 노던 나비는/ 유월 목단에 춤을 추니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봉산을 구경다가
 구월 국화 만발하여/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니
 동지나 선달 설한풍에는/ 백설만 날려도 니의 생각
 님은 가고 봄은 오니/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았었으니 님이 오시나/ 누웠으니 잠이 오나
 았어 생각 누워 생각/ 생각 생각에 난 못산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다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금강산 비루봉에/ 지화 지초가 피어있고
 내금강 속성청 넘실대는 파도위에/ 백조 쌍쌍이 흥겨웁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대장경 좋은 풍경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다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2 : 3 창부타령

아니 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았으나 서지는 못하리라
 백구야로 백구야로 가지를 마라/ 너를 잡으러 가느냐
 성산이 버리었는데/ 너를 쫓아 나 여기와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잊어라 꿈이로다/ 나를 싫다 나를 마다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나를 싫어 나를 마다
당신을 변연히 알면서도/ 얼른 속을 잊어 미련이 남아
그래도 못잊어함이로다
이히리 이릴리 이리릴/ 덩이 덩이 덩더쿵 릴리리라

* 1997.2.18, 윤석건(66세, 남, 울면 신양리)

0205-5 : 3 **창부타령**

백구야 가지를 마라/ 너 잡으러 가겠느냐
성산이 버리었는데/ 너를 좇아서 내가 왔다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완벽하지
일천가지 이 내 맺은 설움/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난다

* 1997.2.18, 이보견(74세, 여, 울면 신양리)

0301-1 : 3 **창부타령**

사월이라 초파일날은/ 석가모니에두 탄일인데
집집마다 등을 달구서/ 자손의 명복을 빌건만
우리의 인혁은 어디를 갔기에/ 집 찾아올 줄을 왜 모르나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7-1 : 6 **창부타령**

니히리 리히히 덩기 덩기 덩덩덩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우리부모 한양을 가서
두자돈 두구서 사온 내 덩기/ 서자돈 들여서 접은 덩기
울안에서 그네를 뛰다/ 성밖으로 뚝 떨어지니
열다섯 먹은 이도령남아/ 내 덩기 좇았던 나를 다오

염낭을 집어 은혜를 갚나/ 춘추를 사다가 은혜 갚나
 모범단 조끼에 은혜 갚나/ 염낭도 싫구 춘추두 싫어
 모범단 조끼두 나는 싫어/ 일곱폭 짜리에 병풍을 치고
 너와 나와 마주를 서서/ 맞절을 할 때엔 너를 주지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10-1 : 5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신구명산 만장동이/ 바람이 진다고 설워마라
 송죽같이 굳은 절개/ 매맞는다고 허락하나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도 없을소나
 얼씨구나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12.15, 맹정순(65세, 여, 설성면 상봉리)

0310-2 : 8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초동 술잔에 봉황이울고/ 남편 봉학엔 백학이논다
 노정 아가씨 양산 받구/ 양초 금초 다 노래꽃고
 황금장툼에 노리불면/ 노리 끝애두 돼지얹고
 흑싸리 밭엔 멧토시 놀구/ 홍싸리 밭에는 장토시 운다
 국화주나 놓고 놓아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불쌍하구나 가련두하다/ 춘향이 어머니가 불쌍하구나
 먹을 것을 다 옆에다 끼구/ 동분선을 다 넘나드니
 이몸쓸 내 춘향이야/ 허락이라두 한마디 하려드나
 아유 어머님 그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쌈 웬말이오

이승지하 배꼭지 놓는/ 어머니의 손으로나 싸주시고
 허락이란 말쌈 웬말이나/ 잘생겼어두 내낭군이요
 못생겼어두나 내낭군이요/ 허락이란 말쌈 웬말이요
 보고지구 보고지구/ 한양에 낭군이 보고지구
 못보았어두 병이나 되어/ 병들병자로 누웠으니
 이도령은 모든 것이여/ 춘향이 병든거 왜모르나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우리 부모 한양을 가서/ 두닷돈 들여서나 사온 당기
 초당안에 그네를 뛰다/ 초당 밖으로나 떨어지니
 열다섯 먹은 이도령아/ 내당기 줏엇걸랑 니를 다구
 염낭을 들고 은혜를 갚나/ 눈치를 하다가 대접을 하니
 염낭도 싫고 눈치도 싫구/ 모범단 조끼도나 나는 싫어
 스무푼 짜리에 재를 다지고/ 열두푼 짜리에나 병풍치고
 나는 가운데 마주나 서서/ 홍실청실을 늘어놓고
 맞절할때나 내어주지/ 영글렀구나 영글렀구나
 내당기 찾기는 영글렀구나/올려다보니 고려반자요
 내려다보이나 갑장장관/ 알씨다할씨 이러는 좋구
 셋별같은 재떨이에/ 이경춌대 불밝혀놓고
 조공단으로 깔어를놓고/ 조공단 이불을 덮어놓고
 오날 저녁 맺은 언약/ 백년의 가약을 맺었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406-1 : 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산에 올라 달구경 하니
 길가는 행인이 길 못간다

얼씨구나 에헤 절씨구나
청춘에 소년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 한번가면 요모양이 되누니

* 1998.4.21. 이세채(68세, 남, 마장면 목리)

0510-1 : 12 **창부타령**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진 못하리
간다더니 왜 또 왔어/ 울고나 갈길을 왜 왔어
이왕지사애 왔거들랑/ 발치잡이나 자고가지
잘려면 자고 말려면 말지/ 발치잡이란 말이 웬말이나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거들거리고 놀아보세

* 1998.8.1. 이섬복(62세, 남, 부발읍 아미리)

0601-1 : 8 **창부타령**

얼씨구나 좋을씨구/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인생백년 평수년이나/ 아니 늙을때 노나
청춘가구 백발이러니/ 가는 청춘을 누가 잠구요
오는 백발을 누가 막나/ 그나마 늙고보니
영영 젊기는 글렀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아요/ 아니 놀며는 언제오나

* 1999.1.16. 강대기(81세, 남, 장호원을 나래리)

0605-1 : 5 **창부타령**

에헤헤 니리리/ 니리리리리리 니리리리리
아니 노지는 못하잖구나/ 나를 싫다고 나를 마다고
나를 특차고 떠난 이년아/ 울고야 갈길을 왜 또왔나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일/ 당신 하루 못보군 못살겠네

얼씨구 절씨구 씨구 씨구 지화자가 좋네
요렇게 좋다간 땅팔아 먹겠구나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선율리)

0610-1 : 4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백구야 휘영청 날지 말아라/ 너를 잡으러 내가 왔다
청산에 가렸으니/ 너를 쫓아서 여길 왔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일부중사 못하는 거/ 이부중사가 웬말이나
얼씨구나 좋다네 지화자 좋아/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4, 권태호(58세, 남, 장호원읍 이흥리)

0612-1 : 1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해는 지고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하고소 어딜 가오
칩에 집에 가실라거든/ 나 죽는 꼴이나 보고 가오
칩에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인데/ 연못의 금붕어가 사시사철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나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9.1.11, 최재현(59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612-1 : 4 창부타령

해는 지고 잠오신 날에/ 옥장행두가 다 늙었네
시호시호는 부재네라/ 언정 부지가 예 아년가
송덕수 푸른 가지에/ 높드랏게 그네 매고
노개야 홍사 미인들은/ 오락가락에 추천인데

우리 넘만 어디로 가고/ 왜 요리두나 못오시나
얼씨구 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겠소

* 1999.1.11, 이규섭(74세, 남, 장호원읍 진암리)

0707-1 : 12 **창부타령**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진 못하리
간다더니 왜 또 왔어/ 울고나 갈 길을 왜 왔어
이왕지사에 왔거들랑/ 발치잡이나 자고가지
잘려면 자고 말려면 말지/ 발치잡이란 말이 웬 말이나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거들거리고 놀아보세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803-3 : 6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잊어라 꿈이로구나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옛날 옛적 과거지사를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나를 싫다 나를 두고
가신 님은 잊어야만 올지도/ 어리석은 미련이란 말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
얼씨구 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구서 무엇하니

* 2001.1.26, 김백열(75세, 남, 호법면 매곡리)

0807-1 : 3 **창부타령**

아니 아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해는 지구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해구서 어딜 가오
나의 집이 오실려거든/ 심심산 진안개 속에
좁다란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와집두 다 채쳐놓구
초가 삼칸이 나의 집이라

맘에 있걸랑 오시구요/ 맘에 없걸랑 그만 뒤라
얼씨구씨구 씨구 좋을 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나물 먹구 물마시며/ 팔을 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는/ 그만하면은 만족하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차 떠난 정류장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 있고
배가 떠난 인천항구는/ 고동 소리만 남아 있고
님이 떠난 저 방안에는/ 장모님 소식만 남아 있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2000.4.29. 진광춘(61세, 남, 호법면 주미리)

0904-4 : 11 창부타령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봄이 들었네 봄이 들었네/ 이 강산 삼천리에 봄 들었네
방실방실 웃는 꽃들/ 우쭈 우쭈 능수버들
지지배배 종달새/ 졸졸 흐르는 물소리라
앞집에 수탉이 꼬끼오 울고/ 뒷집 삼살이 킁킁 짖네
앞논에는 암소가 음매/ 뒷내산 꿩이 끼끼끼
울리구나 하는 큰아기 걸음/ 상추끈에 흥을 겨워
사뿐 사뿐 아기 아장이장/ 흥을 거려서 걸어간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삼촌가절이 좋을시구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4-4 : 14 창부타령

일년 삼백육십오일은/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꽃이 피고 잎이 나면은/ 화조월색 춘절이요

사월 남풍 대맥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훈풍이 소슬하야/ 사력충성 슬피울면
국추 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야
천산은 조비절이요/ 만종은 인종멸이며
장수 송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은 고래회요
무정세월은 양유한데/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구서 어이하리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8-2 : 6 창부타령

놀다가 가세요 자다가 오오/ 이밤이 새도록 놀다가오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구나
이때 못놀고 언제 노나/ 늙어지면 고만인데

* 2001.4.28, 허정우(67세, 남, 모기면 양평리)

0910-5 : 23 창부타령

얼씨구나 좋네/ 절씨구 지화자자 절씨구
간다더니만은 왜 또 왔나/ 안온다더니 왜 또 왔나
이왕지사 왔거들랑/ 발치잡이라도 자고 가지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0910-5 : 24 창부타령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저 달도 둥굴면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구선 못하리로다
마른 가장 매고 지고/ 이 못난 날 잡고 아니 놓네

남아 날 잡지 말고/ 지는 저 해를 머물리 주게
이후에 다시 만나서/ 옛날일을 이르고 잘살아보자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기면 원두리)

1001-2 : 10 창부타령

아니 아니 노진 못하리라
백두산 천지가엔/ 들죽열매 아름답고
굽이치는 압록강엔/ 뗏목 또한 경이로다
금강산 비로봉엔/ 가화이초 피어 있고
해금강암 총석정엔/ 님신대는 파도위에 백로 쌍쌍 흥겨웁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대자연 좋은 풍경 마음대로 즐겨볼까
얼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노진 못하리라
한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진다고 서러워 마라
한번 피었다지는 줄을/ 나도 변연히 알건만은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리거던/ 무심코 밟고 가니 간들 아니 슬플소나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살겠네
얼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3.17, 박삼수(74세, 여, 대월면 도리리)

1008-3 : 16 창부타령

시들새들 봄배추에는/ 찬이슬이 오기만 기다리고
수질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칩에 짚에 가실라르느/ 나 죽는 꼴이나 보고 가소
 칩의 집일랑 꽃밭이요/ 나의 집일랑 연못이라
 얼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해같이도 깊은 사랑
 칠년 대한 가문 날에/ 빗발같이도 반긴 사랑
 당명황에 양귀비요/ 이도령엔 춘향이라
 일년 삼백육십일을/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이리리리리리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팔월내월 내 아니라/ 천상에 버리었음에 너를 쫓아서 여기왔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스지는 못하리라

시들새들 봄배추에는/ 찬이슬이 오기만 기다리고
 수절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리네
 불쌍하다 가련도 하다/ 춘향이 모친이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쥐고/ 운물 한잔을 당도하네
 죽일 년아 살릴 년아/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구 어머니 그 말씀마오/ 잘났어도 내낭군이요
 못났어도 내낭군이지/ 토라지란 말이 웬말이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 좋지는 못하리라

* 2002.5.15, 이원세(여, 대월면 사동리)

1009-3 : 3 창부타령

날니리 날니리 날니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신구명산 만장봉에/ 청천사출 금부용은
 서색은 방공 응상박이요/ 숙기는 중용 출인중하니
 만세에 이기 금탕이라

태평연월 좋은 시절/ 정조사를 꿈꾸는데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이 나무로 넘는 해는/ 나의 감회를 돋우는데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002.4.12. 최규식(85세, 남, 대월면 대대리)

0104-2 : 6 청춘가

운산상사 향봉 오래 있는 소나무/ 나와 같이 늙어가 이렇게나 서있구나
무정세월아 오가지를 말아라/ 우리 청춘이 좋다 늙어를 가는구나
아서라 말아라 늙지를 말아라/ 우리 청춘이 늙어지면은 다 늙는구나

* 1996.7.11. 성건용(76세, 남, 백사면 상용리)

0202-1 : 2 청춘가

대문밖에 매화를 심고/ 오리 노중에 던졌더니
찬바람 이슬비에/ 맞을대로 다 맞았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까마귀에 겁다해도/ …(중단됨) …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시들새들 봄배추는/ 찬이슬만 기다리구
수절 춘향이는/ 이도령 올때만 기다리니
이내 낭군님은/ 어이하야 오지를 앓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2.16. 최순철(62세, 남, 월면 신추리)

0202-3 : 3 청춘가

충풍하여 빈나사에/ 애를 꺾는 저 두건아
 고대 공인은 어따 두고/ 내 청춘에 와서 왜 우느냐
 밤중이면 네 울음 소리에/ 억지로 든 잠이 절로 깬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2.17. 배순임(70세, 여, 울면 신추리)

0203-3 : 5 청춘가

날다려 가거라 날모셔 가거라/ 한양에 낭군이 날다려 가거라
 보아라 무엇이 뻗느냐/ 현무 안마당에 임소식 뻗구나
 나비 없는 동산에/ 꽃피어 무엇 하누
 산란한 요내 마음/ 예루하 또 산란거리는구나

* 1997.2.17. 구자원(79세, 남, 울면 본죽리)

0204-3 : 6 청춘가

일본의 동경이 얼마나 좋기에/ 꽃같은 나를두고 연락선 타는가
 무정한 기차야 소리말구 가거라/ 정든 내 낭군이 한숨만 선단다
 간다두 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정 마당이 예루아 한강수가 되었구나
 뻗다두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내려다두 보느냐 좋구나 엄복동 시하로다
 달뜨는 동산에 달뜨기 좋구요/ 저기여 마음 들뜬 것
 예루아 조단이 있구나/ 한많은 요세상 세월두 험악한데
 어느 누구를 믿구서/ 예루아 한백년 사는가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205-1 : 7 청춘가

달아 둥근 달아/ 임의 동창에 비친달아
임으로 누웠느냐/ 어느 불한당을 품었느냐
임을 본대로 일러라/ 널로 인하여 사생결단
세월이 갈려면 혼자나 가지/ 초로같은 우리 인생을 왜 다려가나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1997.2.18, 임동선(69세, 남, 올면 신양리)

0205-2 : 4 청춘가

아 무정무정 아아아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앞전인생 일번히(일본이) 얼마나 좋길래/ 에헤이 꽃같은 나를 두고 가잔다
니가 잘나가서 일생에 잊었구나/ 내가 못나서 목전에 거두었구나
아 무정무정 아아아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 1997.2.18, 윤석건(66세, 남, 올면 신양리)

0206-2 : 6 청춘가

간다구 간다구 가시던님은/ 십리도 못가서 왜 돌아왔나
세월이 갈려면 너나 혼자 가지/ 아까운 우리 청춘 왜 데리고 가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 1997.2.18, 최동훈(81세, 남, 올면 석산리)

0208-4 : 7 청춘가

세월이 유수로구나/ 어느새 봄춘이라
세월아 가던지 말던지/ 이몸 하나는 청춘이다
지금 죽기는 서럽지 않으나/ 늙어가는 것이 서럽구나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올면 오성리)

0209-2 : 2 청춘가

이팔 청춘의 소년 몸 되어/ 문명의 학문을 닦아 봅시다
세상만사를 생각 생각하니/ 요참애가 일숙이로구나
청춘의 흥안을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되었구나

* 1997.2.20, 김병화(67세, 여, 울면 울모리)

0301-1 : 7 청춘가

육분에 매화를 심구/ 거리 노중에 던졌더니
박쥐가 나비인 착하고/ 앓을까 말까 하는구나
수많은 여성을 다버리고/ 속에 속정을 다 들였는데
나의 정 뺏어가서/ 어느 부랑자 다 주었나
배고파 지어는 밥엔/ 메도 많구나 돌도 많아
메 많고 돌 많은 것은/ 임이 없는 탓이로다
언제나 그런 님 만나/ 매돌 없는 밥 먹어를 보나

* 1997.11.16, 김만희(70세, 여, 설성면 금당리)

0305-1 : 7 청춘가

널 다려 날 어서 날 모셔 가거라
한양의 이도령아 좋다 날 모셔 가거라
널 모셔 갈 생각 아마 아마 같지만
충충 슬하에 좋다 어쩔수 없구나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필리)

0307-1 : 7 청춘가

청천하늘엔 잔별두나 많구요/ 요내 가슴엔 좋구나 수십두 많구나
떴구나 보아라 무엇이 떴느냐/ 우편국 마당에 좋다 임 편지가 떴구나

* 1997.11.29, 유병희(54세, 남, 설성면 자석리)

0310-2 : 9 청춘가

돌려라 돌려라 아/ 빠리 빙글 돌려라 아
노래가락을 집어치고/ 좋구나 청춘가로 돌려라
산이 높아야 골두나 깊건마는/ 조그마한 내심정 얼마나 깊을쏘나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 푸른물로/ 우리 낭군에 하는말이
좋구나 내 심정 확 뚫린다/ 당신이 날만치 사랑을 한다면
가시밭길 전부라도/ 좋구나 밭벗고 가노라

* 1997.12.15, 유홍철(60세, 남, 설성면 상봉리)

0503-1 : 8 청춘가

하늘에 잔별도 많구요/ 아가씨 가슴에 총각생각도 많구나
얼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 못하리라
당신하구 나하구 만날적에나/ 이별이 없이도 잘살자고
산을 두고 언약을 하고/ 물을 두고 정참하더니
산수야 정참을 다 끊어듣고서/ 남은 남은건 이별이나
나하고 한백년 원수로구나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0505-1 : 10 청춘가

이이~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바람 앞에 자는 일과/ 수풀 속에 자는 기생
무심히 늦게 되지/ 광대할 대가 없건만은
요요벽을 하구두구/ 소리 소리가 솟느니라
얼시구나 좋구려 절시구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1998.8.4, 조영숙(87세, 여, 부발읍 대관리)

0702-1 : 11 청춘가

넥터 타는데 연기나/ 이내 가슴 타는데 한뼘의 돈냄도 못오지
 에에 어허 어허야 어허야 한다/ 허허 허송세월을 말어라
 국화꽃이 곱다해도/ 춘추단절이구요
 이내 얼굴이 곱다해도/ 이세 이만이로다
 에헤 어허야 어허허 어야/ 어허야 난다 허송세월을 말어라
 개년 개구요/ 도둑을 개면은 캐유지
 남모르게 해동자에/ 근본내력을 왜 캐느냐
 이이 어허 어허야 허허야 란다/ 어허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4-1 : 6 청춘가

나비 없는 동산에 꽃은 피 무엇하며/ 입도 없는 이 세상 화장해 무엇하리
 간다 못간다 어허 얼마나 허물었나/ 정거정마다 에헤 한강수 되었구나
 세브란스병원이 제아무리 명타한들/ 임그려 난 병에 에헤 백약이 무효로다

* 2000.3.4, 황석하(77세, 남, 신둔면 장동리)

0704-1 : 16 청춘가

나비야 나비야/ 너와 나와 같이 놀자
 같이 놀다가 저물거든/ 꽃에나 앉아서 쉬어가자
 꽃에 앉아서 쉬어를 갈 때
 꽃이 팔시를 하거든/ 잎에 앉아서 쉬어가서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08-2 : 2 청춘가

성화를 부려서 무엇하나/ 덩짜른 부려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지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어이 어이 얼싸 으으자 얼씨구 좋다
불나비 이리저리 버벌필/ 별꽃을 따라서 날아든다
어서 한결나게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이북에 가신 우리 낭군은/ 어느 때나 돌아오나
산이 높으면 굽개를 주마/ 물이 깊으면 그물을 주마
묘향산 제일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려드나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라
이럴 때 못놀면 언제 노나

* 2000.3.4, 박계순(68세, 여, 신둔면 수남리)

0709-1 : 8 청춘가

맹자 공자는 내 아들이요/ 옥분의 화분은 내 며느리
천하의 꽃은 내 손주고/ 천하의 옥은 내딸이라
장안의 호걸은 내사위인데/ 이 때 못 놀고 언제 노나

* 2000.3.11, 조병숙(75세, 여, 신둔면 고척리)

0903-1 : 11 청춘가

세월이 덧 없도다
돌아간 봄이 다시오니/ 불탄 불이 성이 난다
앞동산은 봄춘자요/ 뒷동산은 푸를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구비구비 내친자라
동자야 잔 차게 술 부어라/ 마실음자 얼간주라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904-4 : 19 청춘가

이 달은 청춘에 소년 몸 때어서/ 무명의 향루를 (좋다) 답가를 봄시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좋다) 엄복동 자전거
천금을 주고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좋다) 헛소리 맘시다
이팔청춘을 니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 속에 (좋다) 백발이 되누나
녹음방초는 년년이 하나 오건마는/ 한번 간 우리님은 (좋다) 왜 그리 못오시나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4-4 : 35 청춘가

유정하고 이 무정한/ 정 들일 탓이런만
정 들이고 못 살게 (응~좋다)/ 화류계 여자로다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0908-1 : 6 청춘가

노자노자 젊어만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엇그저께 청춘일러니/ 금일날에 백발이로다

* 2001.4.28, 한순현(78세, 여, 모가면 양평리)

0908-2 : 3 청춘가

갈라면 가거라 너 하나뿐이나
산넘어 산있고 예헤 물건너 물있지
아서라 말어라 니가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팔세를 예헤 너무 그리를 말어라
떠나는 기차야 소리 말고 달려라

* 2001.4.28, 허정우(67세, 남, 모가면 양평리)

0910-5 : 22 청춘가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구요/ 요 내 가슴에 술태수심
무정유정 어허라 정든 탓인데/ 정들도 못살린 좋다 화류계 여자라
* 2001.6.26, 김혜순(78세, 여, 모가면 원두리)

0911-2 : 6 청춘가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저달이 등글면 기우니
인생은 일장춘몽 많이 노지는 못하리로다
너도 날 잃곤 못살지 나도 자기 잃곤 못살지
한탄만으로 깊이 든 정이 나의 사랑
우리 깊이 든 정은 어느 누가 막을손가
* 2001.5.26, 송중화(64세, 남, 모가면 진가리)

1001-1 : 12 청춘가

넘어 넘어간다/이팔 청춘에 부르던 놀이를 갑니다
이팔 청춘 헌몸 되었는데/ 이 소릴 어딜가 불러야 맞느냐
* 2002.3.17, 한효순(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1003-2 : 10 청춘가

늙어지면은 못노노니/ 나귀등에다 술질을 하여
송구완장을 둘러타고/ 삼천리 강산에 유람가자 (좋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팔청춘이 다갔으니 이일을 어찌하나
* 2002.3.17, 홍대숙(84세, 여, 대월면 군량리)

0904-4 : 9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예해 풍년이 왔구나
예하 좋다 지화자 좀더 좋다/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 2001.6.26, 조병동(68세, 남, 모기면 소고리)

0905-1 : 19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왔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로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로다

* 2001.6.26, 황영분(67세, 여, 모기면 소사리)

0908-2 : 10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 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왔네
예하 좋다 얼씨구나 점도 좋다/ 명년 이삼월에 꽃놀이를 가세

* 2001.4.28, 권오돈(71세, 남, 모기면 양평리)

0908-3 : 14 풍년가

풍년이 왔네 어얼씨구나 점도 좋다/ 명년 이삼월에 풍년이 왔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 해마다 풍년이 오네
어얼씨구나 좋다 어얼씨구나 점도 좋다/ 화류 춘삼월에 화족놀이를 갈까

* 2001.6.4, 권오돈(71세, 남, 모기면 양평리)

0909-1 : 26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 윤삼월에 다롱놀애로 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풍년 연년이 풍년이로구나

* 2001.4.28, 이돌석(76세, 여, 모기면 어농리)

VII. 시절가

1101-1 : 15 개탄가

일품좌상 이완용아/ 이군불사는 못할망정
삼천리 이내 이씨왕조/ 사역만원에 도매할라
오작자미 보았는가/ 육조참판을 다 버리고
칠조잔목은 대갓나니/ 팔도인민이 요동일세
구중궁궐 우리 황제/ 십팔대 진목이 되단말여
백세유방은 못할망정/ 천조역적이 된단 말이나

* 2002.5.22, 이종학(90세, 남, 이천시 고담동)

0102-1 : 3 해방가

아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오륙년 칠팔월 십오일날에/ 우리 대한의 해방이로구나
북두칠성 삼초성이/ 우리를 보고서 반기누나
봉산영월의 밝은 달/ 우리를 보고서 반기는구나
삼천만 동포야 함께 살자/ 우리 대한의 해방이로구나
해방되어서 좋다고 하더니/ 지긋 지긋한 6.25가 웬 말이나
어린 아들을 품에다 업고/ 늙으신 부모를 앞세우고
한강철교를 건너갈 적에/ 부산으로 갈까 대구로 갈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6.7.9, 박찬중(62세, 남, 백서면 내촌리)

0202-3 : 2 해방가

을미년에 칠팔월에/ 우리네 조선이 해방되고
 북두칠성 삼태평이/ 우리를 보고서 반겨 한다
 삼천만 동포가 해방이 되니
 문전마다 태극기 휘날리고/ 거리마다 만세소리

* 1997.2.17. 배순임(70세, 여, 울면 신추리)

0209-1 : 5 해방가

팔월이라 십오일에/ 조선의 해방이 되었다네
 곳곳마다 만세로다/ 집집마다 태극기요
 만주 봉천 가신 낭군/ 일본 대판에 가신 낭군
 다시 돌아 오셨으니/ 만단 설움을 밤새도록 해도
 나는 너를 못만날줄 알았더니/ 다시 너를 만났구나
 여보 나도 당신/ 못 만날줄 알았더니
 밤새도록 만단 설움을/ 해도 못다하겠네

* 1997.1.30. 배기분(84세, 여, 울면 월포리)

0301-2 : 7 해방가

을유년 칠팔월 십오일 날에/ 조선에나 해방이 되었도다
 북두나 칠성에 삼태성은/ 우리를 보구서 반겨할 때
 공산도 명월 달밝은 빛은/ 삼천리 강산을 비쳐주고
 하늘에는 실안개가 돌고/ 문전 문전에 태극기라
 조선독립 만세소리/ 감었던 눈이나 떼어지고
 삼십년 묵었던 그 체적도/ 그날 그시로나 떨어졌네
 사구라 꽃은 낙화가지고/ 무궁화 이 동산이 되었도다
 효자충신 먹은 마음이/ 비구에두 행복이 돌아왔네
 나랏님께는 충신동이요/ 부모님께는 효자동이라

얼씨구나 하 좋다 지화자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1997.11.16, 이희찬(73세, 남, 설성면 금당리)

0303-1 : 4 해방가

북두칠성은 우리를 보고 반겨할제/ 연락선에 몸을 실어
 부산 항구 당도하니/ 거리 거리 만세 소리
 감았던 눈이 떨어지고/ 삼십년 묵었던 구체적도
 그 날 그 시에 떨어지고/ 서울역을 당도하니
 사꾸라꽃은 낙화되고/ 무궁화 동산이 되었구나
 일조 일시에 지었던 마음/ 미곡(?)에 행복이 되었구나
 나랏님 전에 충신이요/ 부모님 전에 효자동이라
 이것으로 해방되었으니/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정말 좋다

* 1978년도 인천교대 조사단에서 채록한 자료, 임계순(69세, 남, 설성면 행죽리)

0503-1 : 5 해방가

일천구백 사십오년/ 팔월이라 십오일에
 한국 해방이 되었구나/ 조선의 해방이 되었구나
 연락선을 잡아타고/ 둥근해 강물을 감도나니
 하늘인들 속이려 들고/ 문전 문전은 태극기일세
 삼천만 동포 만세소리에/ 남았던 잎이 떨어지고
 사꾸라 꽃은 낙화되고/ 무궁화 동산이 절씨구

* 1998.8.2, 조원성(76세, 남, 부발읍 신원리)

0702-1 : 15 해방가

징용이라 북으로 갈제/ 다시 못을 줄 알았더니
 일천구백 사십오년 팔월 십오일에/ 해방이라고 되고 보니

연락선에다 이 몸을 신고/ 인천항구에 도달해 보니
 문전에 문전 태극기요/ 소리소리 만세소리에
 판데 낭군은 다 오셨는데/ 우리집의 영감은 못오시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 2000,3,11, 성낙용(87세, 남, 신둔면 남정리)

0707-1 : 17 해방가

일천구백 사십오년/ 팔월 십오일에 해방되어
 연락선에다 몸을 신고/ 부산항을 당도하니
 문전 문전에 태극기요/ 거리 거리는 만세소리
 삼천리 온나라 동포가/ 모두 다 모였는데
 남의 남은 다 오셨는데/ 우리남은 왜 안오나
 원자 폭탄을 마지셨나/ 외국나라로 유랑 갔나
 강원도라 금강산이/ 평지가 되면은 오시려나
 병풍 뒤에 그림들이/ 날 보채면 오시려나
 가마솥에 국수 문제가/ 복음지지면 오시려나
 이때 저때 기다렸더니/ 전사 편지가 웬 말이나
 잊어 잊어라 꿈이로구나/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옛날 옛적 과거지사들/ 모두다 잊어라 꿈이로다

* 2000,2,18, 김영달(72세, 남, 신둔면 수하리)

0710-2 : 10 해방가

우리네 조선이 해방되고/ 육두칠성 삼태생이는
 우리를 보고서 반가와하고/ 사쿠라 꽃은 강건너 가고
 삼천만 동포가 무궁활세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904-4 : 15 해방가

일천구백 사십오년에/ 조선해방이 되었구나
연락선에다 몸을 싣고/ 부산항에를 도착하나
거리 거리는 만세소리요/ 문전문전이 태극이라
조선독립만세소리에/ 감겼던 눈이 똑떨어지고
삼십육간 묵은 채증두/ 그날 두시에 떨어지니
사구라 꽃은 낙화가 되고/ 무궁화 동산이 되었구나
대한 동포야 굳게 살자/ 기다리던 우리 해방이 되었구나

* 2001.6.26, 권영찬(60세, 남, 모가면 소고리)

1001-2 : 1 해방가

일본 호국땅 끌려가실 적에/ 다시는 못올줄 알았더니
일천구백사십오년 팔월십오일에/ 해방이 되었다고
연락선에다 몸을 싣고/ 부산항을 당도하니
혼저 혼저 태극기 꽃고/ 방방 곡곡 만세소리에/ 삼천만 동포가 춤을 춘다
남의 집 서방님은 다들 돌아오더니/ 우리집 서방님은 왜 이다지도 아니오니

해방이 되었다고 좋다고 하더니/ 지긋지긋한 6.25가 웬말이나
어린자식은 등에다 업고/ 자란 자식은 손을 잡고
늙으신 부모 앞에다 모시고/ 한강철교를 건너서니
부산으로 대구로 갈까/ 이런 답답이 어디 있나
옛날 옛적 김유신 장군님은/ 삼국통일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은/ 어느 시절에 통일이 되나

* 2002.3.17, 박상수(74세, 여, 대울면 도리리)

0305-1 : 8 국민병시절 노래

에라디여 허 -

뒷 산벌 큰아기/ 가재장사 딸이라지
가재장사 딸 같았으면/ 가재장사 요리두 잘알겠다
요돌목 달씩/ 조돌목 달씩
엎었다 제쳤다/ 제쳤다 엎었다
서사로 삼아 사사하되/ 방방개로 돌려라

에라디여 허 -

뒷 산벌 큰아기/ 병거지장사 딸이라지
병거지장사 딸 같으면/ 병거지 요리두 잘알겠다
요리루 벗구/ 조리루 벗구
흘렀던 병거지/ 벗었던 병거지/ 썼던 병거지
서사로 삼아 사사하되/ 방방개로 돌려라

* 1997.11.22, 강성진(69세, 남, 설성면 신평리)

0310-1 : 13 징용 때 노래

나라에 바치려고 키운 아들은/ 씩씩하게 나갑니다 싸움터로
빛나는 싸움터로 배웅을 할 때/ 눈물을 흘렸다 우는 얼굴로

* 1997.12.15, 유금순(70세, 여, 설성면 삼봉리)

0401-1 : 6 6.25 때 노래

산중에 참매미 한 마리/ 말거머리 줄이 원수요
야적검실 대한청년은/ 삼팔선이 원수로다

* 1998.3.21, 김옥순(60세, 여, 미장면 오천리)

0604-1 : 1 국경아가씨

호루마차 떠나갑니다/ 새퍼린 버들가지 그늘 밑으로
손수건 빨랑빨랑 마주막자쳐/ 웃으며 보낼적에 목이 맵니다
저 언덕 넘어가는 호루마차는/ 오늘도 깜박이는 등불을 달고
쓸쓸히 흔들흔들 돌아오건만/ 그대는 국경넘어 무엇을 하오
앵무새 출랑출랑 달이 뜨면은/ 해 저무는 창문위에 나라사 별빛
그리운 사람에게 보낸 은하수/ 편지를 쓸까말까 다시 읊니다

* 1999.1.12, 이다을(77세, 남, 장호원을 빙주리)

0612-1 : 11 6. 25 군가

우리 우리 용사 승리의 용사/ 무쇠장막 지용문 쳐서 부시고
원한의 이 한밤을 다시 찾아와/ 하늬의 새날이다 얼싸 반겨라

* 1999.1.11, 최순택(67세, 여, 장호원을 진암리)

0704-1 : 14 군인 간 노래

가자고 기차는 폭폭거리고/ 빈 방안에는 담배꽁초가 놓여있고
담배 연기만 가득하고/ 정든님 가자고 기차가 칙칙폭폭 부르네
임의 손은 날 불리놓고/ 내손을 잡지말고 이 해를 잡아보소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0710-2 : 21 왜정 때 애국가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 돌격 돌격 동쪽산에
하늘도 다 버리고 공양도 없다/ 들어라 우리군대 누가 당하라
장상도 다 버리고 국령도 없네

* 2000.2.18, 김창봉(63세, 남, 신둔면 용면리)

0910-5 : 20 제주도 군가

제주도 넓은 들에/ 바람소리 굳세니
한나라 젊은이/ 구령소리 우렁차다
제주를 영키어서/ 즐거웁게 뭉쳤으니
조국을 지킬 사람/ 우리 두고 또 있을까

* 2001.6.26, 문정남(74세, 남, 모기면 원두리)

0206-1 : 7 소풍노래

지나간 옛새동안에는/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오늘 일요일 또 당하니/ 즐겁기 한량없네
삼삼오오 작반하여/ 삼삼오일 산보를 나가보세
산에 올라서 세상구경과/ 지낙강변에 고기잡이
자연 풍 ... (미상) ... 저였으나/ 듣기에 즐겁도다

* 1997.2.18, 도천순(70세, 여, 울면 석산리)

0208-1 : 3 무궁화

공자님 심으신 나무에/ 안자 정자가 물을 주어
자사로 뻗은 가지에/ 맹자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도 그 꽃이름이/ 천초만대에 무궁화로다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209-1 : 4 권학가

장승 큰나무도 깎아야만/ 초가삼간 집을 짓고
청산속에 묻힌 옥도/ 갈어야만 광채 나네

* 1997.1.30, 배기분(84세, 여, 울면 월포리)

0513-1 : 2 권학가

어하 청춘 소년들아/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세월 하지말고/ 낮이면 밭을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만고 순연 순임금은/ 역산에 밭을 갈아
부모봉양하시옵고/ 천하 문장 이적선도
광산에 글을 읽어/ 명전천추하셨으니
시호시호 부재여라/ 하물며 우리 인생이
젊어 청춘에는 고생만 하다가/ 늙어져서 요모양일세

* 1998.8.5, 박용규(75세, 남, 부발읍 가산리)

0602-1 : 11 잡가

산에서 금이 나면 바다에 고기
들에서 쌀이 나면 명예도 많어
먹고 남고 입구 남구 쓰고도 남구
물경이 나와 주는 삼천리강산

* 1999.1.13, 박윤래(70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5-1 : 8 금강산 노래

얼싸좋아 얼싸좋아 흥차하자/ 얼싸좋아 시장이나
흥가 동가 동이나 흥이나/ 얼싸좋아 무신 일이 있어 좋아
동가다가 흥가 흥가다가 동가/ 동가당에는 흥가 흥가당에는 흥가
흥가다가 동가 동가당에는 흥가/ 흥가당에는 동가
이게 시부시나 어느 정도 금강아/ 금강 금강산 이것을 본댄다
얼싸좋다 얼싸좋아/ 금강산 금강산 금강산

* 1999.1.15, 김기현(57세, 남, 장호원읍 선읍리)

0910-2 : 3 성냥팔이노래

성냥사려 성냥사려/ 골라 골러 골러요
소용대로만 골러요/ 마음대로만 골러요
성냥사셔 성냥사셔/ 어딜가면은 거져주나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사나/ 성냥사셔 성냥사셔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히수라
어딜가면은 거져주나/ 이 싹것을 왜 못사나
또 팔았네 또 팔았네/ 빨간눔 팔았네
노란눔 팔았네/ 작은눔 팔았네
성냥사셔 성냥사셔/ 골라 골라 골러요
마음대로만 골러요/ 골라잡아서 십오원
또 팔았네 또 팔았네/ 십원어치 팔았네
이십원어치 팔았네/ 성냥사셔 성냥사셔

* 2001.5.4. 최정화(86세, 여, 모기면 원두리)

1001-1 : 6 기차길 노래

뚝뚝 굴러가는 기차 바퀴는
여기저기 부딪쳐서 잘도 갑니다
뚝뚝 굴러가는 기차 바퀴는
여기저기 부딪쳐서 잘도 갑니다

* 2002.3.17. 한효순(94세, 남, 대월면 도리리)

VIII. 동요

0304-2 : 4 동요

일러일러 삼포를 간다/ 꽃나무 그늘에 앉은 여자는
조금 보여도 아약산/ 흰저고리 흰 옷고름
매는 것도 숨씨 고르다/ 고 옆에서 일을 해다 물어 보니까
부끄럽구 부끄럽구 이내모다

* 1997.4.12, 임영순(60세, 여, 설성면 재요리)

0501-1 : 13 동요

우리 집 뒷동산 나무 가지에
참새들이 짹짹 짹짹 집을 짓다가
일송달송 알 세 개 낳아 놓고서
밤이나 낮이나 엄마 품에 꼭꼭 앉아서
바람아 비야 눈아 불지 말아라

* 1998.7.31, 김창봉(63세, 남, 부발읍 무촌리)

0602-1 : 28 동요

길가에 핀 민들레두 노랑 저고리
내동생 저고리두 노랑저고리
길가에 개나리꽃두 노랑저고리

* 1999.1.13, 박윤례(70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602-2 : 7 동요

아버지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건너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김정치마 흰 저고리 책보를 끼고
학교에 가는 것이 나는 부러워
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매일 아침 머리 곱게 빗겨주시고
학교 가라 학교 가라 하시건마는
어찌하여 요내 신세 이리되었나

* 1999.1.12, 장옥희(65세, 여, 장호원읍 노탑리)

0704-1 : 2 동요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 보내주세요
김정치마 흰 저고리 책보따리 끼고
학교에 가는 것이 나는 부러워

* 2000.3.4, 이성순(73세, 여, 신둔면 장동리)

1001-2 : 8 동요(일본노래)

오데데 쓰나이데 노미찌미 느니
육계와 민화가와이 고도리니 나페
우다와 우다에바 꾸사 가나루

* 2002.3.17, 박상수(74세, 여, 대월면 도리리)

여 백

비밀요

가련하다 가련도하다/ 춘향 불쌍하다
목전을 곁에다 두고/ 옥전에 문전을 넘나들며
에고 내 딸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으나
에그머니 그말씀 마오
부모님 맺어준 배필/ 허락이란 말 웬말이요
옥중에서도 죽는 목숨/ 고이나 고이 있다가
양지에 묻어주면/ 그것도 한이 적을손가

여 백

0208-1 : 5 농부가

형제 한 사람에다/ 끌어낼적에
 천자유학 동문선습/ 전집이며 후집이며
 춘추이람 만고역사/ 무불통지하였구나
 한살에 목소리가/ 옥을 깨트리고
 두살에 재산이 무너지고/ 세살에 말을 배워
 네살, 다섯 살에/ 천자유학을 떼고서
 과장예를 들어가서/ 과거시험을 본다하니
 과장에 들어가서/ 시집한을 바라노니 어허 그글 잘 지었다
 지방시월에 저글을 가진 사람은/ 무슨 과거에 급제를 하겠구나
 과장에서 나와서 이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한철을 지어볼까
 온갖 급제를 다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나 한철 지어볼까/ 무슨 농사를 지었더냐
 앞 뜰에는 논을 사고/ 뒤 뜰에는 밭을 사고
 물은 출렁 수답이고/ 물은 말라서 건답이다
 어떤 벼를 하였더냐/ 쉬엄질었다 양반배
 몽골았다 중의벼/ 샘물가에는 생충달이
 알록달록 까투리차/ 병거지 꼭대긴 상모차
 온갖 벼를 다하고/ 밭으로 들어
 밭농사 보리밭/ 보리를 갈았더냐
 무슨 보리를 갈았더냐/ 몽골았다 중의 보리
 쉬엄질었다 양반보리/ 조를 한참 갈아보자
 무슨 조를 갈았더냐/ 시키멀다 개똥차조
 질머졌다 망태거리/ 콩농사를 하여 보자
 이팔청춘 푸르제 콩/ 알록달록 새알밤콩

* 1997.1.30. 장복희(78세, 여, 울면 오성리)

0804-1 : 9 잡가

자 일랄날이면 옥통수로다/ 일봉서가네 왜님이 사람만 치노라
 자 이두행자 바쁜길이라/ 이리치고 저리치고 벽장안에 걸어놓고 보자 한다
 삼삼시절에 연대풍이라/ 삼란게 연이나 걸렸구나
 녁살이 좋다 광행여자라/ 사시 좋다 송도여자라
 증거리 광천 개천이등 허구두/ 낙동강 떨어진 오리알일세
 자 오춘댁 오춘댁 오춘댁/ 오춘댁이면 당숙모로다
 오라버님 사정에는 버사 둘러메고 담을 넘어가누라
 육육봉 티진봉 개미허리 잘허봉/ 까면에 무시봉 금전꾼에 망치봉이에라
 자 칠구도 영산에 숨은 산이라/ 칠약산 갈가마권데
 자 용천대금에 드는 칼이라/ 있으면 잡고 없으면 놓고 뜰구도 장난꾼이라
 자 팔아 팔아 깊이 팔아지/ 팔면은 불효로다 팔도를 돌았다
 금강산 비류봉이에라/ 자 국궁다테기는 공구리판이라
 국이 풀쿠도 장네가 나노라/ 구월산 나물꾼 나물 가자 한다
 자 장이네 도가면 돈도가미라지/ 장차 할말을 못다 하자 한다
 자 개소리 말아라 범에 소리 나고 온다/ 자 들들 광천이루어다

* 2000.4.29, 김달열(63세, 남, 호법면 송갈리)

0907-2 : 2 단가

가자 가자 어서가/ 가자 가자 어서가
 이수 건너 백로강/ 백로 건너 한개강
 수지노 어릴송/ 귀강어부가 뽀인테
 귀경손자 가녀눔/ 동추월진이 단단
 자라 등쳐 달을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언제가
 한산 백명을/ 위매 얼씨고 좋을시고
 구부천변 이후고/ 지상에 등실 높이 떠
 ... (미상) ... 가 되고 날어드는데/ 파지축 예 아니나

앞발로 벽발을 찍어다리고/ 뒷발로 장롱 탕탕
 이리저리 저리이리/ 안강 등실 높이 떠
 …(미상)… 면 칠백리/ 사면을 바라보니
 녹음은 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렀네
 앞내 버들은 청포장 들이치고/ 뒤내 버들은 누죽장 들이치고
 한가지 찌지고 두가지 핥피져/ 모진 광풍을 못 이겨서
 우줄 우주리 춤을 춘다
 백구야 경충 나지마라/ 너를 잡으러 내 안간다
 성상이 가렸음에/ 너를 좇아 내가 왔다
 강산에 터를 닦고/ 뽕비수를 하여도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 넉넉하지
 일춘간장 맷힌 설움/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곡창 앵두가 붉어/ 은쟁부지가 이별이요
 손득지향 높은 막내/ 높드랏게 끈에 메고
 녹의홍상 미인들과/ 이리가고 저리가고
 오락가락 노니는데
 우리 부모님 어디가시고/ 단오시절을 모르시나
 쳐다보느냐 만화금천봉/ 내려다보니 백설이땅
 허리굽고 늙은 장송/ 광풍을 못이겨 우줄 우줄이 춤을 춘다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들고/ 이골속으로 접어들어
 팔팔 수루룩 저골 물 쇠아
 건너 병풍석에 마르나 광광/ 거품은 부쩍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정금종말 비겨 타고
 장안 대도장으로 달리자

* 2001.6.6. 의령(89세, 여, 모기면 신갈리)

0903-1 : 9 달거리

정월이라 대보름은/ 작교가는 명절이라
우리님은 어디를 갔기에/ 작교 가자는 말도 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개자추의 녀이로다
봉황산천 찾아를 가서/ 무덤을 안고 통곡하니
무정하고도 야속한 님/ 너 왔느냐 말이나 있나
삼월이라 삼짓날은/ 연자새끼 날어와서 옛집을 찾건마는
우리님은 어딜 갔기에/ 가고 올줄을 왜 모르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일이라
집집마다 등을 달고/ 자손의 발원을 빌건마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님 없는 이몸이 소용있나
오월이라 단오날은/ 추천하는 명절이라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 추천건만
우리님은 어디를 갔기에/ 추천가자는 말이 없나
유월이라 유두날은/ 일기는 매우 덥지만은
보리 탁주를 걸러 놓고/ 밀떡 전병을 부쳐 놓고
쫄깃쫄깃 맛 좋것만/ 밀떡 전병도 못 잡순네
칠월이라 칠석날은/ 은하작교 먼먼 길에
견우 직녀 일년에/ 한 번씩 상봉컨만
우리 님은 어디를 갔기에/ 십년에 한 번도 못보시나
팔월이라 대보름은/ 오곡이 풍성하여
오려 송편을 빚어놓고/ 오락가락 양유컨만
우리님은 어디를 갔기에/ 오려 송편도 못 잡순노
구월이라 구일 날은/ 연자새끼 날어와서/ 가겠노라고 지저귀고
청천의 떼 기러기는/ 왔노라고 지저귀네
우리님은 어디를 갔기에/ 한 번 가고서 못오시노
시월이라 상달인데/ 무마있을 골라잡어 고사치성 가관인데
우리님은 어딜갔기에/ 고사치성도 못 잡순노

동짓달이라 동짓날은/ 팔죽 한 그릇 먹고나니/ 일년은 벌써 내년이라
 나이는 벌써 한 살 더 먹었는데/ 임은 또 하나 안 생기네
 설달은 막달이라 빛진 사람 쫓릴적에/ 화동재기 펼쳐놓고
 이리저리 쫓리는데/ 개명성이 깨껴오니 일년 중 초하루에
 초하루라 그럭저럭 헤어지니/ 만사가 태평이라

* 2001.4.28, 이신출(81세, 여, 모기면 서경리)

0204-3 : 2 십장가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전라좌도 남문밖에/ 월매딸 춘향이 불쌍하다
 하날맞고 하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종지심에 먹은 마음/ 일부야종사를 하잖더니
 일각이일시 낙리지에게/ 일일 치형이 웬말이나
 둘을 다 맞고서 하는말이/ 이부불경 이내몸이
 이군불사에 분을 받아/ 이수중분 백로주 같나
 이부지자 아니어든/ 일구어언은 못하리라
 셋을 맞고서 하는 말이/ 삼한갑주 우리낭군
 상당에두나 제일인데/ 삼추한유 성화시에
 춘향이 이도령만나/ 삼배주를 나눈후에
 삼색연분 맺었기로나/ 사또나 거행은 나 못한다
 넷을 맞고서 하는 말이/ 사면차지 우리사또
 사서삼경을 모르시나/ 사시장춘 푸른송죽
 풍설이 잣어두나 변치를 앓소/ 사지를 찢어다가
 사면으로 버린다해도/ 사또거행은 못하리라
 다섯을 맞고서 하는 말이/ 오매불망 우리낭군
 으른에두나 제일인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올까
 오관참장 관운장같이/ 날랜장수 사령두나같이

우리나라 서방님 보고지라
 여섯을 맞고서 하는 말이/ 육궁육세 소진이라도
 날 달래지를 못했거늘/ 육례연분 회열하려할 제
 육진광풍 질끈동여/ 율이나 청산에 버린다해두
 육례연분을 못잇겠다
 일곱 맞고 하는 말이/ 칠일청택 흐르는 물에
 풍덩실 넣는다해도/ 칠월칠일 오작교에
 건우직녀 상봉과 같이/ 우리나라 서방님 보고지라
 여덟 맞고 하는 말이/ 팔자고 기박하다
 팔십노모 어이할꼬/ 팔팔 열이나 틀렸구나
 팔년풍진 초한시에/ 팔진노를 막아내든
 와룡선생 에 와있는고/ 애를 쓴 들 무엇하나
 아홉을 맞고서 하는 말이/ 구차한 춘향에게
 굶이 굶이두 맺힌설움/ 국학 제수 아니허든
 구관 자제만 보고지라
 열을 맞고서 하는 말이/ 시박대죄 웬말인가
 십생구사 할지라도/ 시방전에 맺힌 내 목숨
 십육세에두 나 죽겠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전에 비나이다
 쌍교 독교 어데다 두고/ 칠성판이두 웬말이나
 원수로구나 원수로구나/ 원수로다 한양이 원수로구나
 아가야 아가야 우지말아/ 너 아버지두 죽었단다
 수밀누명 유대군에/ 상여노래 웬말인가

* 1997.2.18. 정지영(62세, 남, 울면 북두리)

0802-1 : 1 십장가

전라좌도 남원 남원 밖에/ 월매 딸 춘향이 불쌍쿠나
 하나를 맞고 하는 말이/ 일편 단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를 하자더니/ 일구이언을 못하겠네
 둘을 맞고 하는 말이/ 이구 울겨 이 내몸이
 이군불사에 본을 받아/ 이 술은 부은 백노주로
 죽으라니 같노니라/ 셋을 맞고 하는 말이
 삼한 가족 우리낭군/ 삼산에서도 즐기리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복원 청장에 관운장 같으예
 날란 장수 좌동같이/ 우리야 낭군만 보고지고
 넷을 맞고 하는 말이/ 사면차지 팔도 사령
 부르짖지도 못하겠네/ 사서삼경을 모르시나
 사또야 거행은 못하겠다/ 다섯 맞고 하는 말이
 호매불을 만개논 우리 낭군/ 보름에서도 제일이요
 오늘 올까나 내일 올까/ 여섯 맞고서 하는 말이
 울고 웃제나 소진이도/ 나를 단매지 못하갔건데
 육진장포 질끈 동여/ 육의 청산들게나 버리셔도
 사또야 거행은 못하겠구나/ 사또야 거행은 못하졌네
 일곱 맞고 하는 말이/ 이리청택 흐르는 물에
 풍기덕색 넣으셔도/ 사또야 거행은 못하졌네
 사또야 거행은 못하졌네/ 여덟 맞고서 하는 말이
 팔자도 기박하다/ 열한살에 맺은 목숨 십육세에는 나죽겠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전에 비나이다

…(중략)…

아홉 맞고서 하는 말이/ 경성사시는 급한 자제
 남원 어사나 출도하야/ 이 내몸을 살려주오
 열을 맞고 하는 말이/ 시방전 내에 매진 목숨이 십육세에는 나죽겠네

* 2000.5.5. 김문용(65세, 남, 호법면 동산리)

0208-4 : 3 적벽가

한강을 추려내어/ 적벽으로 이으니라
난데없는 회어(?)/ 조조앞에 화령도에 가서
굴사가 굶고 먹도 못하나 쉬어가자
조조가 크게 웃어/ 승상 왜 웃으십니까
제갈공명이 재주가/ 교묘하고 용하더니
여기서 진을 치고/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손들고 항복할거 아니냐고/ 조조가 쫓겨가다
화령도에서 적토마를 치켜타고
삼각수를 거스리고/ 봉투문을 제껴치고
청룡도를 번쩍 들고/ 아따 이놈 조조야
조조가 말을 잡아/ 밥반찬을 하고 도망가
뒤를 쫓으면서/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
호조가 하는 말이/ 조조가 승상에 나가 비읍소서
조조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옛일을 생각하시어
삼일에 작은 잔치/ 서일연화하고
오일에 태어날 때/ 한수정을 봉한후에
민요 충궁을 하였으니
상막에 천거이며/ 한화에 백거이다
살려달라고 조조가 비니/ 아따 이놈아
아따 이놈 조조야/ 배경성망 생겼느냐
하구경사 알량원록/ 누래 ... (미상) ...
내가 알량 원추(?) 두 장수를/ 선뜻 때어 내 정성은 같았구나

* 1997.1.30. 황용은(86세, 남, 울면 오성리)

0201-1 : 6 초한가

만승천제 진시왕도/ 아방궁을 다 높이 짓고
 만리성을 쌓은 후에/ 육국 조국 제후받고
 삼천궁녀 시외할제/ 동남동녀 오백인으로
 삼신산 불사약을 다 캐오라고/ 보낸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1-1 : 13 초한가

운문에 원후하니/ 수운이 적막하다
 초패왕은 초를 장차 잃단말가
 역발산도 쓸데없고/ 기개세도 할일 없네
 칼을 쥐고 일어나니/ 사면이 초가로다
 후회 후회 내역하니/ 낸들 너를 어찌하며
 삼보에 주저하고/ 오보에 채읍하니
 삼군이 흠어지고/ 마음조차 산란하여
 평상이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며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우지망이 패망하니/ 어찌다시 낮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보며/ 강동사람 어이 불까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 성부 들어보소
 걸인 여기 부질없고/ 스님 샘이 으뜸이라
 한태공 백만대병/ 구리산 십삼면에
 대진을 다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려고
 지천하병마도원수/ 걸색포며 한신이라
 대장대에 높이 앉아/ 천하제장을 호령할제
 호기 많은 이좌건은/ 제왕어린도 하여
 팽성도 뱃길은 다가/ 거리거리 북병이요
 도루도루 매복이라/ 산 놓던 장자방은

계명산 추양몰에두/ 옥통소를 슬피불어
팔천제자를 홀을 적에/ 그 노래에 하였으되
구추 깊은 밤은/ 하늘이 높고 달이 밝다
울고 가는 저 기러기는/ 객의 수심을 더 돕는 듯하다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1-1 : 3 춘향가

남원읍에서두 신관사또/ 춘향을 불러다가
동헌하에 데려다 놓고/ 수청들라고 달래는 말이
무관 책방 도련님이/ 네 머리를 다 얹었다하니
관속이나 건달이나/ 어러이 알지를 말고 바른대로 말하여라
춘향이 여자오데/ 청려에 두나 자식이나
기안에 두나 책럼치 앓고/ 여염생장 하옵더니
구관자제 이도령이/ 연소한 풍경으로
소녀집을 찾아와서/ 소상강야 간청하니
노모가 다 허락하여/ 이씨댁에 허신하여
백년기약을 받았기로/ 단단히도 맹세를 하여
호사가 다마하여/ 도련님을 다 이별하고
독수공방 주야장천/ 님찾을 날만 다 기다리니
관속건달 애부 말쌈이/ 소녀에겐 당치않네
신관사또 그말 듣고/ 크게 웃고 하는 말이
얼굴보고 말을 들으니/ 안팎으로 다 일색이다
네 마음은 다 그러하나/ 이도령의 어린 나해가
장개를 들고 급제를 하면/ 천리타향 잠시장난
네 생각이야 할 수가 있느냐
가련한 네신세가/ 왜 아니 불쌍하나
의복단정을 곱게하고/ 오늘부터 수청하라

춘향이두나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리라
 올라가신 도련님이/ 무심하여 안 찾으면
 반첩에도 본을 받아/ 옥항형령을 지키다가
 이 몸이나 죽어지면/ 황룡묘를 찾아가서
 이비혼령을 모시웁고
 반주끼에 젊은 날에/ 놀어 볼까하옵는데
 재취부에도 수절 말쌈이/ 소녀께는 당치않네
 신관 사또가 그말을 듣고
 상도 웃고개가 발끈 넘어/ 턱을 뽀뽀 뽀뽀
 여봐라 이방들이 저년을/ 저기다가 얹어놓고
 두다리가 뚝부러지도록/ 두드려 패라

* 1997.1.28, 유인준(77세, 남, 울면 고당리)

0205-5 : 9 춘향가

가련하다 가련도하다/ 춘향모가 불쌍하다
 목전을 곁에다 두고/ 옥전에 문전을 넘나들며
 예고 내 딸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으나
 예그머니 그말씀 마오
 부모님 맺어준 배필/ 허락이란 말 웬말이요
 옥중에서도 죽는 목숨/ 고이나 고이 있다가
 양지에 물어주면/ 그것도 한이 적을손가

* 1997.2.18, 이보경(74세, 여, 울면 산양리)

0209-1 : 7 춘향가

우리 낭군 일각산천 보고지고
 일만이명이 축산을 하오신들/ 이루 경계를 깨우리카
 일만명이 축사를 하오신들/ 이루 경계를 못깨워

신관사또가 수청들라고 조받을적에
 임금불사 충신이요/ 임금불사 공신이요
 충신은 한 임금을 받들지요/ 두 임금은 안받드나이다
 불경이부 열너로다
 열너도 한냥군을 섬기지/ 두냥군은 안섬기나이다
 아파 그년 기생의 딸년이/ 꽃꽃하기도 하구나
 어머니는 기생이나 아버지는 재상이라
 여보시오 왜 허다한 사람을 다두고서
 하필 임자있는 사람을 가지고/ 수청들라고 신관사또 그러시오
 아파 수청든다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아니하고
 저년 반박하는구나
 사령불러 저년 매우 처라하네/ 춘향을 매우 쳐서 쪽 뺨으니까
 춘향어미 달려들어/ 내 딸 죽네 무남 독녀 외팔로서
 나는 너를 바라고 평생을 사는데
 이게 다죽었네/ 뺨뺨하니 이를 어떡하나
 아이고 동네사람들 한테 물어봐요/ 나는 잘못된 일 하나도 없는데
 우리 춘향이 죽었네/ 이를 어찌한단 말이요
 춘향어미 안타까워 우네/ 죽었다가 그래도 깨났으니
 조금 있다가 옥안에 처넣고서/ 큰칼을 씌워 놓으니
 춘향어미가 옆에다/ 밥을 지고 다니면서
 이년아 한마디만 허락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잖니
 허락이라니요 허락 못합니다/ 허락이라니 안됩니다
 이도령이 과거보러 가셨다가/ 갈팡질팡 오니
 모심은 사람들이 듣더니 하는 말이 여보세 아이구
 춘향인지 뭔지 이도령 바라고 있다/ 맞아서 죽게 뵈다네
 이도령이 그소리 듣고서 하는 말이/ 집으로 갈팡질팡 오니까
 옷도 남루하게 입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춘향어미 이도령 기다렸더니/ 저런 거지가 어디 있느냐

개발상에다가 밥이나 한사발하고/ 짬지뿌리 하나 쥐라 하니
 아이고 호반단신을 하고 다먹으니/ 저런 거지를 어떡하느냐
 서방님 오셨는데/ 삼판이가 서방님 오셨어요
 목욕재배 시키고 자게 밥바지에/ 삼팔주 바지 저고리 다 해놓고
 두루마기 도포 다 해놓고/ 갓 망근 다 해놓았으니
 그거 입혀라 하니까 그걸 입고
 나는 오늘 죽어도 이도령님을 만났으니 소원이 없습니다
 사또의 생일은 하는데 야단스럽게 하니
 거기를 쫓아 들어가니까
 저 거지 갈비나 한대 쥐서 먹게 해줘라
 던지며 저리 나가라고 하니
 여보세요 글이나 한 개 지어 봅시다
 어이구 거지가 무슨 글을 지어 보나
 글을 지어 던지니/ 옥서반에 피바다로구나 하니
 그 낮이 익구 눈치채는 사람은/ 그걸보고 그 소리를 듣더니
 찢찢매며 도망을 가고
 암행어사 어사출두/ 암행어사 어사출두
 나졸들이 백질창이로/ 쫓아들어 오더니만
 즉각즉각 끌어내어/ 사또는 말을 거꾸로 타는지 쫓겨나가
 춘향어미는 하는 말이
 아들 두기 좋아하지 말고/ 한딸을 두기 좋아하소
 걸레자박지를 들고/ 등등 등등 내사랑아

* 1997.1.30. 배기분(84세, 여, 울면 월포리)

0903-2 : 3 춘향가

우리 사또 행차시에/ 차림새를 살펴보세
 구름 같이 영킨머리/ 옥수 같은 맑은 물에

휘휘 둘러 감아내어/ 어린아 설설 가려내려
 황나귀 상투를 띤짓 짜서/ 삼호도 흥고
 녹동거서 법을 찾아서 꽃아 놓고
 애월택에 망건에다/ 쥐꼬리 당추를 달아 쓰고
 삼백돌림 통양갓에/ 옥관자를 달어 쓰고
 삼성버선 신으신 후/ 모시행진을 돌려 치고
 오색도포 입으신 후/ 수복대 김해간죽
 수발대는 김해간죽/ 아롱다리로 소상주께
 갓거리 갓노담배대에/ 부채 쌍지 손수건을 고무고루 다 챙겼네
 상노 거동 살펴보자/ 삼단 같이 좋은 머리
 휘휘 둘러 감아내어/ 어리나 설설 가려내려
 뽀뽀 같이 총총 따서/ 감사대이로 끝을 물려
 오야패리 휘취둘러/ 질끈 꽃고
 한발대는 줄담배를/ 모숭모숭 뺨어 내려
 어섯비슷 승승 쓸어/ 째지 가득 집어넣고
 툭툭 털어 공방대는/ 허리춤에 쓸적 꽃고
 간발 짚신 한년후에/ 산수들 병거지에
 나뉠령자를 딱 붙여서/ 맵시있게 새겼으니
 어엿하고 훌륭하다/ 저 상노의 거동 봐라
 우리사또 행차시니/ 물렀거라 하는 소리
 산천이 들백이고/ 조정의 신하들과 장안의 호걸들이
 일시에 일어서서 괴거하니/ 이 아니도 줌도 좋냐
 얼시구 끝을 날까/ 절시구 끝을 날까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저런 자손 두엇건만
 이내 팔자 어이 하여/ 눈먼 딸도 안 걸리노

* 2001.5.10. 박윤복(70세, 남, 모기면 서경리)

0903-2 : 4 춘향가

춘향의 거동보소/ 남원의 월매 딸 성춘향은
 이도령의 영을 받다/ 사또의 호행을 아니한다
 한배를 딱 붙이니/ 일자로나 아뢰리다
 일각일시 난마지역에/ 일일징형이 왜말이요
 두배를 딱 붙이니/ 이자로나 아뢰리다
 일각일시 낙마지역에/ 일일징형이 왜말이나
 셋대를 딱 붙이니/ 삼자로나 아뢰리다
 삼월춘풍 화려시에/ 춘향이가 돈령 만나
 삼배주 나눈 후에/ 삼색연줄을 맺었기로
 사또 또한 밤 못하고
 녀대를 딱 붙이니/ 사자로나 아뢰리다
 사시천년 우리사또/ 사서삼경 모르시나
 사지를 찢어다가/ 삼연으로 붙이서도
 사도 거행 못하겠소
 다섯대를 딱 붙이니/ 오자로나 아뢰리다
 오행불망 우리낭군/ 오날 올까 내일 올까
 온대 간대도 못 믿겠네
 여섯대를 딱 붙이니/ 육자로나 아뢰리다
 육구육새 소진이도/ 나달래다 못하려든
 육진 광포를 질끈 동여/ 육리 청산에 버리서도
 육리 연분 못 잊겠소
 칠자를 딱 붙이니/ 칠자로나 아뢰리다
 칠리 청택 흐르는 물에/ 풍덩실 빠져나 죽어
 이곳 저곳을 다 잊을 것을
 팔자를 딱 붙이니/ 팔자로나 아뢰리다
 팔자도 괘박하다/ 팔십 노모를 어이하리
 팔팔열이나 틀렸구나

구자를 딱 붙이니/ 구자로나 아뢰리다
구관사또 도련님은/ 죽는 처녀 살려가오
열십대를 딱 붙이니/ 십배로나 아뢰리다
십약대죄 이내몸이/ 십육세에 나 죽겠네
아따 저 년 말 잘한다/ 대전통편 가져 오너라
대전통편에 이르기를/ 유부녀 강분도 허락된다
아따 저 년 큰일 났다/ 큰칼 씌워서 하옥하라
하옥을 할 것이니/ 소원 하나 이뤄주소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대로 다일러라
다른 소원 아니 없고/ 지필묵을 내어주소
필묵 갔다 주니/ 화전지 펼쳐 놓고
용인석에 먹을 갈어/ 황로대필을 흠뻑 찍어
한 일자 그은 담에/ 마음 십자를 심을 쓰소
일심으로 먹은 마음/ 매 맞는다 변하리까

* 2001.5.10, 박윤복(70세, 남, 모기면 서경리)

무가(巫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재수가 들었느냐/ 팔지수가 들었나/ 삼재팔합이 들었나
 삼재굿을 막아주자/ 삼재굿을 막을적에
 일년이라 열두달/ 날로는 삼백예순날
 하루같이로 명기줄을 맬적에/ 어느해 도사가 나렸나
 산림도사가 나렸나/ 삼신도사가 나렸나
 삼신할미 점지하와/ 전부로 내려서
 삼배출에 칠공구를 내려와/ …(미상)…로 되었느냐

여 백

I . 무가(巫歌)

0207-1 : 1 액맥이

마냥불상초 하해종신 받으시오/ 이 집터를 잡을 적에
 천하 명지관 불러다가/ 세를 공의 찾아놓고
 자자노인이 금잘러라/ 금자오행의 터를 보니
 자축오미 진사가 뚜렷하니/ 개자오행의 ...(미상)... 하네
 향산 세계로 나왔어/ 그 실을 놓고도 (들을받아)
 온 사기를 돌을 적에/ 도랑에서나 한 삽 붓고
 북방에서도 한 삽붓고/ 서방에서도 한 삽부어
 동서시 사방 부은 터를/ 재제미나 놀래보자
 지제미를 놀들적에/ 동남간에는 등에 허리를 다칠세라
 가만히 가만히 다져두오/ 어화넘차나 지재미야
 간방에는 양의 뿔을 다칠세라/ 가만히 가만히 다져주오
 어화 넘차나 지재미요/ 그 북방에는 (풍란야) 한 쌍이 묻혔으니
 용의 뿔을 다칠세라/ 가만히 가만히 다져주오
 어화 넘차나 지재미요/ 자, 이제 터를 다졌거든
 어느 석수를 불러다가/ 팔도명산의 주춧돌을
 강원도라 금강산 일만이천봉/ 구망자 주춧돌을
 동남간에다 받쳐놓고/ 한양성내 내려나려 나니
 삼각산 연기 주춧돌을/ 요모조모 지어서로

난세영방에 내려놓고/ 충청도로나 내려가자
 충청도로 내려가니/ 계룡산이 명길러라
 거산 명산 주춧돌/ 경상도로나 내려가자
 경상도로 내려가니/ 경상도라 대구 팔공산 명길러라
 부산메에 떨어지니/ 전라도로나 내려가나
 전라도라 삼천리를 불상기듯
 자, 산맥 불렀거든/ 배에 성주를 찾어가
 불씨 서말 사오다가/ 염주장에 뿌렸더니
 용궁도사가 물을 주고/ 지장보살이 김을 매고
 그 솔나무 점점 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가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려
 대부동이가 점점 자라/ 황장무이가 되었구나
 황장무이가 점점 자라/ 황장무이 되었구나
 어느 해 목수를 불러다가/ 황장목을 벨적에
 설경설경에 톱질하여/ 그 소나무 곱게곱게 자랐구나
 침장목을 벨적에/ 저 장목은 쓸모없네
 까치집이나 지었는데/ 하재수가라 뚜렷하니
 나무장목을 나즈막케 들라/ 보리 상량식을 적에
 상기등을 세울적에/ 안방에는 여상지오
 북방에는 나무장목/ 서방에는 향우장목
 사귀에다 기둥 심었거든/ 보리상량 올라간다
 열두 궁녀 궁녀의 노래/ 천상실로 걸어서
 설렁설렁 올라간다/ 천양새로 올라간다
 천양새가 올릴적에/ …(중략)…
 조리가래 조리걸어 놓고/ 조리 열두 조리 걸었거든
 토시달아 풀띠로 올라간다/ 올라가네 흑토신을 올렸거든
 만년지붕 잇고/ 천년기와로 지붕이어
 일년초로는 일년초로 지붕지어/ 초가삼간이 뚜렷하다

초가삼간 집을 짓고/ 성주법랑 찾아보자
 앉아 천리 서서 천리/ 육척만리를 내다보는
 삼만육천의 성주대신/ 성주님은 대주 믿고
 대주님은 성주님을 믿어/ 용왕님은 지주 믿고
 터주님도 지주 믿어/ 의논 공논 하시어
 초가삼간 아래 안정시키시고/ 부는 바람을 재워 놓고
 시벌하고 가가호호마다/ 성주법랑 다 다르다
 한성주 부성주나/ 장성주, 가가성주로 모셨느냐
 성주님을 모셔다가/ 우리안에 만반진수 차려놓고
 삼만육천 성주님을 모시려고/ 동남간에서 꺾어 왔나
 나무장본 잡아 대신/ 장표본으로 만들어서
 흰백으로 옷을 입혀/ 조리반에 눌러 얹혀 안정하고
 천왕매개도 안정하고/ 부는 바람 재우소사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삼만육천 성주님을 모셨거든
 일년이라 열두달 날로는 삼백예순날이요/ 하루같이 밝히시고
 용왕님은 수액을 눌러주고/ 터주님은 지액귀신 눌러주고
 일년 열두달 날로는 삼백 예순날의
 일월달에도 드는 농수매기는 일월 정월이라/ 정월 산달로나 막아주오
 이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이월산을 막아주오
 삼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삼월이라 삼짓날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 서자/ 물어와 뒤울안에 심어놓고
 사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사월이라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하여/ 석가모니 막아내고
 오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오월이라 단오날
 초닷새날 그네줄로 막을지에
 으-유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유월 유두로 막아주어
 칠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칠월이라 칠석날
 복두칠성이 막아주고/ 삼태성이나 막아줄게

지신으로나 막아내어
 팔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팔월이라 한가윗날
 송편으로 막아내고
 구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구월이라 국화주로 막아내어
 아- 시월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시월시에 단상단풍이 곱게 들어
 고운 단풍 꺾어다가/ 화초방에 걸어놓으니
 아-동짓날에 드는 홍수맥이/ 동지하고도 팔죽으로 막을 적에
 시래기로 범벅삼아/ 시래기 범벅 막을 적에/ 수수팥떡 막아내어
 아-선달에 드는 홍수맥이는/ 선달하고도 그림날 흰 가래로 막아내고
 정월이라 상달 정월맛이 드릴 때/ 해묵은 액을 다 막아주면
 농사를 짓더라도 풍년이요/ 개를 먹이면 쟁쟁 짓는 개 바둑이가 되옵시고
 돼지를 먹이면/ 운수대통한 돼지 되옵시고
 닭을 먹이면/ 재수대통 닭이 되옵시고
 한날개를 툭 치면/ 천석인들 쏟아지고
 또 한날개를 툭 치면/ 만석이나 쏟아지오
 아- 액은 장수에 액은 막아내고/ 천왕불상 액을 막아내니
 아- 앞 노작도 노작가리/ 뒷 노작도 노작가리
 노작가리가 쌓였구나/ 노작가리가 쌓였구나
 자손만대 부귀 부귀공명 나릴적에/ 오- 에헤 살로나 막아주자
 마당에는 마당살/ 봉당에는 봉당살
 마루에는 성주살/ 광에는 삼신살
 부엌에는 조왕살/ 수채에는 수전살
 에-헤 모든 살을 막아주고/ 살채살로 막을 지니
 녹두쌀 참깨 들깨/ 에헤--모든 살을 막아주고
 막아내어 오 일년 열두달/ 액운에 잡귀를 막아내결랑
 오곡에 점지를 나리소서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울면 산성리)

0207-1 : 2 대감굿거리

내가 어떤 대감이냐/ 산신대감 뚜렷하오
 이 대감이 뉘 대감이냐/ 팔성산 대산신 대감
 열두대감을 불러다가/ 산신대감 모실적에는
 찬나리 구비구비 신고 들어설 때/ 이제 명당터 좀 터주님 대감을
 오 장사대감 공론을 하옵소서/ 하늘같은 기운을 주옵소서
 산신대감 산신대감을/ 가가호호에 다니시면서
 도는 바람 재우시고/ 악한 자는 성을 삭혀
 선한 자는 선하게 시켜놓고/ 장수를 시킬적에 명장이 되옵시고
 영복을 빌어 주소서/ 장사대감 어흐 - 저기 조왕대감
 이리 산에 오셨다녀/ 명산줄기로 오신 대감
 내려온다 열두대감 내려온다/ 창살대감 걸림대감 산신대감
 걸림대감은 창살대감 도와주고/ 창살대감은 부는 바람을 재우시고
 산신대감님은 대주님을 도와주고
 낮으로는 새가 되어/ 밤으로는 쥐가 되고/ 오곡점지를 마련하고
 어느 대감 뉘 대감이 나리셨나/ 어느 대감이 나리셨나
 팔성산에도 산신도사/ 만당에도 오실적에도
 가가호호 부는 바람을 재웁시다.

...(중략)...

머나먼 길 다니더라도/ 재수 발복하시고
 산신님전에 마련하고/ 복채 마련하소서
 천수천년 천시국으로 연분이나/ 염불공덕을 시울적에
 천세염으로 말의 안장을 하옵시고
 모든 백성 손님들은/ 굽어 살피주시고
 부처님 제석님/ 여러 보살님들
 굽어 살피 주옵소서/ 만가태평을 하옵소서
 많은 중생 그 날이요/ 오복 점지를 하옵소서
 밤으로는 천수공덕/ 낮으로는 염불공덕

산신님전 문안드려/ 염불공덕 받으소서
나무아비타불 나무아비타불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울면 산성리)

0207-1 : 3 치성굿거리

동네 골목맥이/ 소모양 들어올적에
동네 대동네/ 들어오실 적에는
가가호호마다 가가호호/ 천지마련하시고
사주팔자는 아들딸 없는 이는/ 아기상난 마련시키시고
있는 아기 수명/ 장수시키실 적에
잘은 명은 이어 담고/ 긴명은 이어 담고
긴명은 서려 담아/ 오곡점 지나기시고
가가호호마다 채수성가 하옵소서
노인마마 노인대주님을/ 다 보살피서 기운주고
향우같은 기운주고
눈으로는 열기주고/ 귀로는 정기주고
밤으로는 밤잠주고/ 낙성수를 막아내어
낙성수를 막아줄때에/ 모든 부정 동네부정/
가가호호 부정 막아주고
산신님은 산위 앉아 천리 서서 천리/ 육천만리를 내다보고
산천초목 바라보니/ 첩첩인들 산중이라/ 군불마다 집터이니
자손마다 자손부귀 나리시고/ 자손마다 잘 되라고
산신님전 불을 밝혀/ 칠성님전 복을 빌어
팔만 조왕님전 서낭대신에/ 성주님전 서낭대신
팔도장군 열두장군 열으시고/ 노인마마 노인대주님들도
다 향우같은 기운주시고/ 눈으로는 열기주시고
귀로는 정기주고/ 발끝으로 오곡주고

손으로는 재주주고/ 수명장수 소원 성취 바랍니다.
 동네 대동네 가가호호마다/ 가가호호에 가내 안정시키시고
 부는 바람 재우시고/ 수명장수 시키시고
 여러자손들도 길로가면/ 길 대감이 도우시고
 장사하시면 장사대감 도우시고/ 산신님이 도우실 때
 농사를 짓더라도/ 천하지대본야 접지하여
 가가호호 가내 안정을 하옵시고
 팔성산 신령님도/ 가내 안정을 하옵시고
 가가호호마다 가내 안정을 하옵시고/ 부는 바람을 재우소서
 산신님전 비나니요/ 아 받혀놓고 받혀놓으니
 동네 대동네 고을 맥이/ 에 가가호호 가내 안정을 쌓으소서
 부는 바람을 재우소서/ 재난시비도 막아주고
 금전풍파도 막아주고/ 오 모든 삼재를 막아주소
 들삼재 날삼재 삼재풀이/ 삼재도 막아주소
 거리마다 가내안정 시키소서/ 칠성님 받으소서
 아 - 산신대감 받으소서/ 대동네 부는 바람 재우시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울면 신성리)

0207-1 : 4 자리권이

오 - 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는고
 석가여래 공덕으로 나온 사람/ 어머니전 살을 빌고
 아버지전 피를 빌어/ 칠성님전 영으로
 칠성님전 복을 빌어/ 삼가 복을 받을적에
 바닷사래 만날적에/ 백년 연을 맺을 적에
 ... (미상) ... / 초석자리 피워놓고
 삼석달의 피를 모아/ 이수성을 보았더니

열달만에 빛을 넣어/ 한 몸뻘을 탄생하니
 부모은공 모르느냐/ 삼강오륜 막힐쏘냐
 밤은 깊은 야삼경이요/ 초롱불로 이불삼아
 성황당에 불을 밝혀/ 이심육 진지화 하네
 …(미상)…
 실날같은 이 내몸이/ 태산같이 병이들어
 인삼녹용 약을 쓴다/ 약방인들 들을소냐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냐니 냉수로다
 애고 나 땀나 죽겠네/ 애고 나 땀나 죽겠네
 저 일직사자 하는 말을 들어보소
 한손에는 철근들고/ 또한손에 쇠사슬로 목을 걸고
 가자 어서 가자 재촉하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시장한데 요기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가옵시다
 간데 없는 곡소리냐/ 곡소리가 온마을에 진동하네
 적삼벗어 초흔하고/ 사재밥을 지을적에
 짚신벗어 두리반에 올려놓으니/ 눈물이 절로난다
 초로같은 이내인생/ 초로같은 이내인생
 한번 아차 낙화되니/ 살았을제 제복 다하세
 어제까지 성튼 몸이/ 하루 아침에 병이 들어
 백사단이 되었구나/ 백사단이 되었는데
 일평생에 꽃가마가 두 번이라는데/ 이제와 꽃가마가 웬일이나
 칠성판을 등에 지고/ 일곱매로 매를 매어
 열두군의 상두군이/ 발을 맞춰 소리하고
 요량잡이 요량을 흔들면서/ 저승사자 찾아간다
 저승사자 거동봐라
 여보시오 부인네야/ 어서가자 바빠가자
 왕생극락 어서 가자/ 왕생극락 가실적에
 솟대같이 굵은 길로/ 하혜같이 넓은 길로

무지개로 다리 놓고/ 용마타고 구름타고
 왕생극락 가소서/ 어- 왕생극락 가실적에
 젖은 것은 먹고 가고/ 마른 것은 싸가지고 가시다가
 어- 허리에 배고픈/ 혼백 혼신 만나거든
 인심쓰고 극락가자/ 극락대왕 가실적에
 선왕대세 못가거들랑/ 시주공덕 닭거들랑
 시주공으로 극락가여/ 시주공으로 극락세계 가실적에는
 시주공으로 못가시면/ 산신불을 잡고가여
 산신님을 찾아가여서/ 삼신도를 닭고 갈때
 어 - 오 -

왕생극락 가시소서/ 왕생극락 가실적에
 여럿의 중생님들은/ 여러 보살님들과
 부처님이 있듯이 미륵보살 있듯이/ 어 굽어 살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극락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래 여래 진세례
 옴마라 옴마라 다리/ 옴마라 촌수간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바라밀/ 불상불경 이심육
 강산 위에 나리셨나/ 신장 위에 나리셨나
 향로불을 피울적에/ ...(중략)...
 비나니오 비나니오/ 조왕님진 비나니오
 팔만대대 조왕님은/ 지주님을 밋고
 지주님은 조왕 밀어/ 조왕님은 마구 끝에
 삼만육권 성주님을 모셔놓고/ 오아 터주 터신 터주님은
 삼신산불 선왕대신/ 금일같이 받으소서
 대한가정이라 대한가정/ 대동에 마련할 때
 팔도 십팔도를 마련했나/ 아 비나니오 비나니오
 대한민국 마련하니/ 대한민국 마련하니
 조선국이 도련하고/ 조선국에 접어들자

경기도 당돌했나/ 경기도 당돌할 때
이천시 율면이라/ 산성2리라 접어드니
산천초목 우거져서/ …(이하 생략됨)…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율면 산성리)

1103-1 : 4 자리견이

헤~ 여러분 헤~ 여러분 이내몸이
관돌 자리를 못잡고 못갔는지/ 자리견이를 시작하네
이천군 중리동 장록동의 아무개/ 나무애비타불 관살보살
나메 우메 죽었는지/ 나무살이에 가는지
나무 정신에 꼬여서/ 인생 목숨을 버렸는지
삼지고영에 이 은순이/ 차에 운명이 돌아서
운명차서로 도명이니/ 후왕을 갈러 줄라해도
후왕이 갈러지질 않네/ 나무애비타불 관살보살
저승 길이 멀다해도/ 불효자식 이내 말성
나는 내 명에 갔으니/ 만수무강 가족평안
살아서는 오구삼산/ 죽어서도 오구삼산
집안가정 잘되기를 원하나/ 태평 만수 잘되었나
내~ 어머님, 아버님 앞에/ 나는 무릎꿇고 토할세
어머님 저는 잘갔으니/ 아무 통고없이 일편단심
가니마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명이 짧어/ 부모님앞에 불효효자 막심하니
만수무강 오래오래/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요
불효같은 이내 자식이/ 세상을 떠단 말이
불효도 이만저만/ 불효 아니오
어머님 아버님/ 용서 많이 하고
여러 대동어르신네/ 용서 많이 해주시고

아무쫘록 만수무강/ 부락민 여러분들
안녕하시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 2002.5.12. 장병근(75세, 남, 인천시 장록동)

0207-1 : 5 성주풀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재수가 들었느냐/ 팔지수가 들었나/ 삼재팔합이 들었나
삼재굿을 막아주자/ 삼재굿을 막을적에
일년이라 열두달/ 날로는 삼백예순날
하루같이로 명기줄을 맬적에/ 어느해 도사가 나렸나
산림도사가 나렸나/ 삼신도사가 나렸나
삼신할미 점지하와/ 전부로 내려서
삼배출에 칠공구를 내려와/ ...(미상)...로 되었느냐

어시 어시 어여시/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 천세 천만세 불르고/ 신한국으로 만난다
아 - 조선국을 마련할 때/ 십팔도를 마련하고
십팔도를 마련할 때/ 함경북도 함경남도
아 -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잡았다니 강원도로 내려오고/ 한양성에서 솟았구나
한양성내 솟을 적에/ 삼각산이 명기구나
명기를 불러다가/ 아 - 충청도를 마련하라
충청도라 계룡산이 명길러라
그 산맥이 떨어지니/ 그 산맥이 떨어지고
아 - 경상도로 내려가자/ 경산도로 접어드니
대구 팔공산이 명길러라/ 그 산맥이 떨어지고
그 산맥이 떨어지니/ 전라도로 내려가자

전라도를 내려가니/ 전라도 계룡산이 명길러라
 그 산맥이 뚝 떨어지고/ 아 - 제주도를 마련할라 하였더니
 그 바다는 물이 깊어 못 갈러나
 동해바다 변천느냐/ 서해바다 변천느냐
 나무배를 타고 가자 할랬더니/ 나무배는 썩었구나
 돌배를 타고 가자/ 돌배는 가라앉고
 개미허리 불러다가/ 개미허리 타고 가자
 제주도 당도하니/ 제주도는 한라산이 명길러라
 그 명산이 두드러지고/ 그 산맥이 떨어질 때에
 육지 육지로 올적에는/ 아 - 부산이나
 부산 항구로 접어드니/ 부산 항구로 접어들어
 전남으로 왔구나/ 에 - 헤

초가삼간 집을 지니/ 어느 지관 불러다가
 글을 받아 글을 보고/ 자니 길가는 행인이더라
 행인이 시를 놓고 흘을 보니/ 가가 호호에 금자 놓고
 금자 위에 계자 놓고/ 계자 위에 신금자로 놓을 지니
 아 - 지재미를 올려보자/ 어 영차 지재미라/ 가만가만히 다져도
 동방에는 둥나 한쌍이 문혔으니/ 동해 뿔을 다칠쏘냐
 가만 가만히 다져도/ 어허 영차 지재미야
 북방에는 부나 한쌍 문혔으니/ 봉의 뿔을 다칠쏘냐
 가만 가만히 다져도/ 어러 영차 지재미요/ 어러 영차 지재미야
 에 석방에는 석자 한쌍이 문혔으니/ 성의 뿔을 다칠쏘냐
 가만 가만히 다져도/ 어허 영차 지재미요/ 어허 영차 지재미야
 아 - 지재미를 늘렸거든/ 어느 석수 불러다가
 강원도라 금강산에/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그 산 주춧돌을 지을 적에/ 요모조모 찍어서 상기둥을 받쳐 놓고
 상악산 주춧돌을 서남간에다 받쳐 놓고

에고 명당 명당 줄기요/ 주효 명안당에 받쳐 놓고
 아 - 일곱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거든
 나무 장목 비워보자/ 나무 장목 비울적에
 무슨 장목 비웠느냐/ 나무 장목은 쓸모없네
 그 장목은 까치집이 지었으니/ 까치집을 지을수록
 오 - 자 하대수와 생겼느냐/ 하대수와 생기니
 그 장목은 쓸모없네 그러/ 아 - 기둥을 세웠거든
 기둥을 세웠거들랑/ 꼬리 상냥 올라간다
 열두줄이 올리거든/ 꼬리 상냥 올라가고
 아 - 이를 얹어 한 두재기 올라간다/ 한 두재기 올라간다
 아 - 흙토신 올랐거든/ 천하 기와로 지붕일까
 일년초로 지붕 이어/ 초가삼간이 뚜렷하구나
 초가삼간 마련했거들랑/ 삼만 육천 성주님을 모시자
 아 - 초가삼간에 대주가 있고/ 대주 밑에 시라가 있고
 시라 뒤에 하오복 점지 마련 할적에
 삼만육천 성주님은/ 성주님은 대주를 믿고
 대주님은 성주를 믿어/ 성주님은 조왕을 믿어
 조왕은 터주를 믿어/ 터주는 지주를 믿네
 지주는 팔만대 대조왕에서/ 열두날 찰오날 이사가
 액매로다가 밀을 지어/ 조상님들 믿으시오
 시라 자손을 하고 먹고 쓰고/ 먹고 남도록 전기 마련을 하옵소서
 아 - 성주님이시오 가가호호에다 가가 성주/ 호호 가가 성주 무성주
 우 - 아 산신의 신이 산신의 성주/ 가가호호 성주 받으소서
 비나니요 성주님전 비나니오/ 나무아미타물 나무아미타불

* 1997.2.29. 권상균(58세, 남, 울면 산성리)

0608-1 : 2 성주풀이

천지현황하고/ 일월영칙이라
일월영칙 발판 위에/ 산천이 생겨나고
산천이 생긴 위에/ 만물이 번성하고
만물이 생긴 위에/ 인물이 번성하고
인물이 생긴 위에/ 천황씨가 나왔다
대변지 지황하고/ 지황씨가 나시어
요소주당 하오시고
우리 조선 단군시에/ 팔도 명산을 둘러보자
함경도로 내려서서/ 백두산을 꺾어보고
백두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돌아가서
황해도로 내려서서/ 구월산을 굽어보고
구월산 산맥으로/ 뺨어가서/ 평안도로 내려서서
묘향산을 굽어보고/ 묘향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뺨어가서/ 강원도로 내려서서
금강산을 내려오고/ 금강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뺨어가서/ 경기도로 내려서서
삼각산을 굽어보고/ 삼각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뺨어가서/ 충청도로 내려서서
계룡산을 내려보고/ 계룡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뺨어가서/ 경상도로 내려서서
태백산 굽어보고/ 태백산 산맥으로
한가지로 뺨어가서/ 전라도로 내려서서 지리산이 되었구나
내려가다가 팔도명산을 굽어볼제/ 저 삼불 중생 하는 말이
삼만 육천 다방 성주시오/ 백두건을 찾으려고
경상도 안동땅에/ 제주봉을 찾아가서
성주봉을 갖다놓고/ 백운사 찾아가서
수세서말 팔대치로/ 두 사발 가득실고

성주님 성주님네/ 군중바라 할 일없이
 명산대천 올라가서/ 버들잎 새잎 떨어지구
 군중대사 성주님/
 청실 홍실 받쳐들고/ 딸각딸각 건너와서
 조선 삼백육십주가/ 연년 천천 다니시다
 무주공산 올라가서/ 오작을 붙잡으니
 고향으로 돌아갈제/ 하루 이틀에 씨를 받고
 사흘 나흘에 속잎 나자
 이삼년이 지난 후에/ 소부동이 되었는데
 칠팔 년이 되다보니/ 대부동이 되었는데
 열 나무는 열십자/ 백 나무는 백일자
 천 나무는 천일자로다/ 육로 뚫고 내려갈 제 접어들고
 성주목을 깎아 낼 제/ 일월성신 벌려주고
 일월장단 베다놓고/ 사해경이
 첫째를 다려다가/ 조선명장을 마저날 제
 상나무를 비어다가/ 굳센 정기를 마저날 제
 높은 데는 건답하고/ 깊은 데는 수답 할 제
 물이 출렁 수답이면/ 물이 말려 건답이면
 억조창생 인간들이/ 무례하다 하옵시고
 오곡백과 씨를 뿌릴제/ 우리 성주가 만만세니
 우리 군주가 만만세로다/ 태평성대 만만세구
 천세천년 만만세로다/ 그러다가 성주목을 비라하고
 앞집이는 앞 대목/ 뒷집은 뒷 대목
 윗집이는 윗 대목/ 여러 가지 대목을 받아들고
 움박지게 잡아끄니/ 성주님이 손시끄러
 우리 동산 올라가서/ 성주목을 비어낼 제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을 제
 묵은 나무는 깎아내고/ 갓은 나무를 깎아서

용의 머리 같지 자로/ 학의 머리 동행으로
갖은 나무로 다듬어 가지고
명산대천 올라가서/ 주춧돌을 깎어낼제
세모졌다 마늘 주추/ 둥글둥글 호박 주추
깎어다가 삼팔목에다가/ 고비를 내려놓고/
그러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삼광이여 비리간지 오복이라/ 하도 많게 감자 굽고
만두 송편 바로 놓고/ 팔육법으로 목을 쳐서
고대광실 높은 짐을/ 둥그렇게 마련할 제
안채는 목숨수자/ 바깥채는 복복자요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음 오님리)

0608-1 : 1 제석궁

제석궁 어디매나
날이 뜰까 일광제석/ 달이 뜰까 월광제석
청나고나 도제부 제석님은/ 일광 월광 모두 쫓아
이십팔팔 다니시고/ 삼십삼천 내려 강림하소사
지석님은 복이 많고 녹이 많아/ 부자 두 아들 두었는데
장자동은 천금이여/ 중자동은 질끔 싸매어
고명 따님 땅구 맺어 주었으니
천금에두 제일이요/ 월궁에도 제일이다
천금산에 화주중생/ 지금산에두 화주중생
저 삼불중생 구제를 바란다
시는 십팔세로다/ 때는 마침 어느때나
갑자년 춘삼월/ 양춘가절 봄이로다
명사 슬픈 인생/ 심신이 사랑하야
주령태산 올라서서/ 좌정합산 다 잡으니

꽃은 피어 만발하여/ 화산으로 둘러있고
 잎은 피어 만발하여/ 청산으로 둘러는데
 산천경개가 질색이로구나/ 삼불중생 끊는 바라
 아래 둘러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서
 이팔청춘 소년시에/ 원앙같이 짝을 지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양친부모를 모셔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내 일신 다가오는/ 팔자를 못 받았느냐
 가는 사주를 못 막았는지
 이팔청춘 소년시에/ 중생이란 말이 들리느냐
 탄복지심 하루하루/ 난데없는 흥을 반구
 오복이 사랑하며
 궁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삼불중생은 들어를 봐라
 지식궁을 찾아 가며는/ 지식님네 맞바뵈기
 인물 좋고 재주 좋고/ 솜씨좋다 하오시며
 어서 바빠 지체 말고/ 지식궁으로 내려가라
 그 삼불중생 하는 말이
 천지신명 무심하며/ 일월성신 보고 빌어다가
 상당에두 올라가서/ 상당불공 끝마치고
 인간재미 끝나올제/ 지표장삼 들쳐이고
 일월성량을 즐겨쓰고/ 백팔염주를 모셔놓고
 장옷사랑 걸러매고/ 육발장을 들쳐입고
 살대같이 비껴잡고/ 허늘허늘 내려가다
 고생고생 다하다가/ 한곳을 다다르니
 아홉골 아홉선비들이 모여서/ 백흙거적 높이 둘러치고
 바둑 장기 훈수를/ 소리 높여 불러보니
 저 중생 균중들아

구자포를 지나가서/ 한 선비가 나서면서
묻는 말이 애 중생아/ 너 어디 사는 중생이나 물어보니
저 중생 가던 길을/ 멈추면서 하는 말이
천에 산에 천에 중생/ 박명사에 사육는 중생이 읊습니다
한 선비가 나서면서/ 네 어디로 가는 중생이나 물어보니
저 중생 가던 길을/ 멈추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천상으로가 천상에서 급사한 내 조카의 상투배기를
인물 좋고 재주 좋고 솜씨 좋다 하는 말이
천상으로 들어서니/ 한 두 명이 나서면서 하는 말이 가던 길어올시다
한 선비가 나서면서 범에 눈을 부릅뜨고/ 벽력같이 호통하며 하는 말이
장단천에서 염불공덕하는 중생이/ 당구맥이 본단말이 웬말이나 께쌌하구나
이 중생아 어서 바빠 불러다가/ 추상같이 호통하니
저 삼불중생 깜짝 놀라 하는 말이/ 목포시에서 온 선비님들
나도 가문 있는 집 자손인데/ 오는 팔팔 못 새기어
이팔 청춘 소년시에 중생이 되었는데/ 이바지 사람팔자 하옵소서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608-1 : 3 조상굿

우리 인생들이/ 인간세상 태어날 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니 전 살을 빌어
철성님께 명을 빌고/ 지성님께 복을 빌어
양호 실실 맞았는데/ 진시황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제/ 한두살에 철을 몰라
명산대천에 올라/ 무정세월 양유파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608-1 : 4 병곳

달로 들어 노노나니/ 일천하구 이백살이구
 날로 들어 노노나면/ 삼만하구 육천일인데
 병든 날 잠든 날이면/ 걱정근심 다되가고
 만 사십을 못사느니라/ 아침나절 성튼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삼삼약질 가는 몸에
 백 한가지 병이드니/ 부르나니 환이구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 주니
 약덕인들 입을 소내/ 무당 불려 곳을 하니
 굿덕인들 입을 소내/ 편수 불려 불경하니
 경의 덕을 입을 소내/ 부모 동생 처자식을 불러놓고
 처자식의 손을 잡고/ 화다소다 신원하니
 부모 동생 처자식은/ 통곡하며 둘러 앉아
 만년주택 집을 짓고/ 육신의 잔털 짚을 묶어
 소광판에다/ 이차가중 떠나가서
 태산준령 높이 올라/ 덩그렇게 집을 짓고
 우두커니 굽을 보고/ 동지선달 소담풍은
 누가 와서 맞아주며/ 오늘월 화초잎은
 누가 와서 맞아주나/ 불쌍하구 불쌍하다
 유정하던 화초들은/ 명년삼월 부러지고
 강남갔던 제비들은/ 명년삼월 봄이되야
 봄을 찾아 오건마는/ 초로같은 우리인생
 무얼찾아 죽어지나/ 막중같은 강철길로
 태산준령 높이 올라/ 황토돈아 집을 짓고
 잔디돈아 지붕삼고/ 청석으로 우물 삼아서
 이 몸까지 행켰으니/ 살은 썩어 물이되고
 배는 썩어 흙이되어/ 싹이 나며 움이 트느냐
 싹도 움도 가지되어/ 죽어지면 허사올시다

열대 열초 허옵시는/ 좌우 조상 흔들으니
 원을 맡고 한을 마시고/ 이 몸 가문에 오시어서
 축원문을 받으시고/ 해원경을 들으시어
 악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전신 공덕을 닦아서
 연화대주 되어서/ 중도 환생 화해경에
 애원 중신 소원을 풀어서/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무생 염불 들으시고/ 중도 환생 하옵소서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속 나무목 석가모니로다
 그러다가/ 어떤 가문에다
 무슨 지주는다/ 부현이 병이 되고
 부현이 살이 되어/ 그러다가
 침덕이 전혀 없어서/ 의원을 불러다가
 삼백육십사절/ 맨날 맥을 짚어
 사주 사철 육천만에/ 마지막에 침을 노니
 침덕이 있을 소냐/ 할 일없이 할 일없이 노다
 천금같은 자손들/ 만금같은 자손들이
 무복자를 찾아가서/ 하늘같은 부모님네
 아프고 서린 관세를/ 세세히 명시하고
 수명삼절 적어주니/ 무복자가 하는 말이
 아프고 서린 관세는/ 몸에서 솟친 관세
 아니라 하옵고/ 기속김에 김은
 해경법사 사대경문을/ 지성으로 경문하게 되며는
 경에 경덕을 집어 내어서/ 만일 충신 되리라 하옵기는
 그러다가/ 하늘같은 아버님네
 병지 병맥을 고쳐 주자구/ 굿당을 마련할 제
 삼일 정성 못다하구/ 칠일제에 못다하여두
 유복길루 재를하여/ 복을 빌어서
 상덕의 상단에 머리놓고/ 중단에다 맞이하시구

하단에 술노시구/ 구진 의복 벗어 놓으시구
 새로 새 옷 하여 입구/ 제주 담당 전열하야
 그러다가/ 시루 떡반에 심성고원에
 삼색실과 꽃아놓고/ 오색상반 갈리놓고
 의자 몇장 다어리고/ 사주잔에다 육대조를 모셨으니
 선왕대신 흠도 신령님/ 왕가이가 드시어서
 그러다가/ 일가일생 무병불러
 절을 받는다가/ 우리 병자를 고쳐 주시고
 수명장수 불사주를/ 우리 병자 쾌차케만 하소서
 우리 병자 어서 빨리/ 쾌차케만 시키시고
 쾌차케만 시키실 제/ 명과 복을 주실 제
 인삼 녹용을 먹은 듯/ 불노초를 먹은 듯
 부처들이 잡수시느/ 감로수를 먹은 듯
 님이 잡수시던/ 불사약을 먹은 듯
 유향님이 흰종주를 먹은 듯/ 내가 언제 아팠더냐
 내가 언제 슬펐더냐/ 머리 두통 시원하구
 오장육부 후련하야/ 삼백육십 사절에두
 우선은 시원하게/ 육신거림이 하나 없다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음 오남리)

0608-1 : 6 고사반

그러다가
 복 많기두 이 가정/ 연길 반구 이 가정
 가종파실 한바대통/ 슬하자손 일주하구
 그러다가
 금년 해우년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일이오
 대월은 삼십일/ 소월은 이십구일

하루는 열두시를 넘어갈 제/ 이때 가정예두
 농사복을 열어출제/ 농부지거나 썸지거나
 무슨 벼를 심었더냐/ 여주 이천 자채벼냐
 밤낮없이 김을 매어/ 일취월장 깎았는데
 이 바꾸리 저 바꾸리/ 빌때기 사주까리
 나갈적엔 빈밭이여/ 들어올 땐 장밭이라
 앞으로 들어 앞노적/ 뒤로 들어 뒷노적에
 강불강불 쌓아놓네/ 오- 난데없는 봉황들이
 홀리깡땀 놀리와서/ 유적봉에 자릴박고
 한 대뺨을 후려치니/ 이리 천석 쏟아지고
 또 한 대뺨 후려치니/ 저리 천석 쏟아지니
 물매같은 일꾼들은/ 지게 받쳐 저리 지고
 앵무같은 종년들은/ 꺾리 받쳐 여지저라
 앞으로 들어 앞으로 저/ 뒤로 들어 뒤로 저
 일문같이 이만하면/ 홀룡하오리
 그러다가

앞노적은 대주님네 노적이고/ 뒷노적은 제주님네 노적이
 하나 노적봉이 아닐까/ 이만하면 홀룡하니다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0402-1 : 1 제석본풀이¹⁾

누가 너의 아버지인가 하니/ 이 아해 삼형제가 왕가 낭구밑에 가서/ 한 놈이 세
 번씩 삼삼은 아홉번을 절을 한다/ 그때 시절은 어느때 시절이었던지 반 낭비말을

1) 이 무가는 전국에 널리 전승되는 자료이다. 그런데 이정순 무녀의 기억에 착오가 있고, 또한 나이가 많은 관계로 앞뒤의 서사단락이 온전히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이 본풀이의 주요 내용은 삼형제가 왕가나무에게 아버지 예우를 차리자 왕가 나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황금사에 있음을 알려준다. 왕가나무의 예언을 듣고 황금사의 대사를 찾아 나섰으나, 오히려 아버지인 중이 아이들을 속가에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한다. 아이들은 내려와서 삼신제석이 되었다고 전한다.

한다/ 이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를 보려거든 황금사를 찾아가
 라 하니/ 이아해 삼형제가 도로 내려오/ 황금사를 찾아갈제 푸르르름 올라간다/ 중
 생이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은 아들 삼형제가 찾아올 법하니/ 만약에 아들 삼형제
 가 찾아오면/ 언철이 패절이 되고 수취가 대단할 터이니하고/ 이 아해 삼형제를
 도로 내려보내리라 하고/ 아~ 하 중턱에 내려오거니 중턱에 올라가거니 하니/ 비
 로소 저희 아버지를 알고 절을 한다/ 아버지 우리도 절에를 갈테야 하니/ 중생이
 하는 말이 너희가 절에를 가면/ 절이 패절이 되고 수취가 대단할 터이니/ 너희는
 도로 내려 가거라/ 촌락에 내려가 향화현숙을 받아라/ 그 궁애를 갚으려거든/ 삼신
 제석이 되야 부귀영화를 누리 주면은/ 그 궁애를 갚으리라하니/ 이 아해 삼형제가
 혈일없어 절에를 내려온다/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갈라질 것 같은데/ 허
 늘허늘 내려와 촌락에 내려와/ 이리저리 화향하느라니/ 어느 가정에 만방지수 차
 려놓고/ 청학을 날 배고픈 차에 들어가/ 만방지수 차려놓고 먹고나서/ 산신제석이
 되야 부귀영화를 내려주시더라

* 1998.3.28. 이정순(78세, 여, 미장면 양촌리)

0402-1 : 2 객구물림

강남에 노니 지금은/ 우리나라 일시 군웅에
 나라사던 군웅이야/ 쉬어가던 군웅이야
 상장군에 군웅 터줄군웅/ 대주에 죽설군웅
 뒤주에 군웅/ 군웅이 오실적에
 우리 조상이 들어왔으실 적에
 선대조상 후대조상/ 당대 조상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조상/ 조상님이 오실적에
 선왕님이 이산 선왕/ 서립 저산 선왕
 이산 부처 형님이/ 은밀하들들 선왕
 고고 마당 치성 선왕/ 한국땅에 선당
 오늘메기 지하선왕/ 오늘메기 사바선왕

청각에 청대감/ 지각에 지대감
 상냥구에 지저귀듯 죽은 낭구에/ 시대감 지온디 받으시고
 애도춘몽 이틀 낙에/ 대삼에 영삼이야
 거적자리 옆에 끼고/ 허튼머리 귀에 꽂고
 이손도 반절 저손도 반절에 대상 대상이야
 상친은 서른일곱술이야/ 중친은 스물여덟술이야
 하친은 열여덟 술이야
 이 생강 낭술이야/ 좌승강 열술이야
 일가친척 가던 술이/ 도로 역술에 가던 술이
 사돈팔촌에 곽사돈에 가던 술이
 어른 죽어가던 술이/ 아이 죽어 가던 술이
 가을이 들면 죽어 이틀 껍떡 손님마마에 가던 술이
 배앓이 주당에 가던 술이/ 시들어 말라 필경에 가던 술이
 바람적에 구름적에 저 패기에 가던 술이
 일망에 가던 술이/ 동망년에 가던 술이야
 네일이나 내일이나/ 선물나라 가던 매나/ 기는 나라 가던 매나
 상군이야 상군이야 무얼 상군이야
 나상군이야 뜯상군 해상군
 날 받아서 오던 상군/ 씨받아 오던 상군
 응석 끝에 누른 듯/ 청석밑에 따라들고
 발뒤꿈치에 무더안고 따라들던 상군이야
 니 상군에 내 상군/ 동네방네 진상군
 성북지야 가던 상군/ 하판지야 가던상군
 오다가다가 만난 상군/ 오다가다 눈여겨본 상군
 귀로 들은 상군/ 숨진 상군/ 역진 상군
 마른 목을 적시고/ 고평 배 불러
 마른 목숨 싸가지고/ 소채정승 매고 갈제
 아무집 가정에 우환한 것이/ 다 니들의 탓임이 분명하다

오늘은 이름도 일신성도 알았으니
 이 정성 받아가지고/ 술술히 물러나야지
 만약에 아니가면은/ 오방신장 육갑신장
 팔만해수 대신장을 불러들여서
 한손에는 삼지창이요/ 한손에는 칼을 들고
 엎어놓고 목을 따고/ 제쳐 고 배갈라서
 억한 지옥에다 집어 넣으면
 이 세상구경을 오늘밖에 못할테니
 순순히 말할적에 순순히 받아가지고/ 썰썰히 물러나라
 요산이야 영산이야
 높은 산에 도 댕는 산/ 낮은 산에 하타는 산
 술이야 물에 빠져 수산영산/ 불에 타서 하탈영산
 기차 마차에 치여서 가던 영산/ 총알 뜰알에 맞아 가던 영산
 약먹고 죽은 영산/ 목메어서 자결 영산
 낮고 가던 영산/ पे고 가던 영산/ 안고 가던 영산
 상에 흘러 무영산/ 맑게 쳐서 가던 영산
 술에 바쳐 가던 영산/ 뱀에 물려 가던 영산
 어른 죽어가던 영산/ 아이 죽어 가던 영산
 술이야 마른 목을 적시고/ 고평 배를 불려
 마른 음식 싸가지고/ 젖은 음식 먹고갈제
 아무집 가정에 우환 있고 재난 있는 것이
 다 너희들의 파지 분명하니/ 오늘은 이름도 알고 성도 알았으니
 이정성 받아가지고 술술이 물러나야지/ 만약에 아니가면은
 뱀나온 막대기에다 무쇠구멍 씌워놓고/ 팔만 군사들을 불러치면
 혼례 장례 못받고/ 여나 밥도 못 얻어먹을 터이니
 순순히 말할 적에 순순히 받아가지고 썰썰히 물러나라

* 1998.3.28. 이정순(78세, 여, 미장면 양촌리)

0402-1 : 3 성주굿

초년에 초년 성주/ 이년에 신년 성주/ 삼년 십이 대도감
 독술수 마누라는 대할때도 썰썰히 밀리소사
 천신님 본은 천하본이요/ 지신님 본은 지하본이라
 혼인 성주 인연해서/ 십세 만을 낳아도니
 저 애기 거동 보소/ 얼굴은 반월이요/ 풍채는 풍없지요
 의기통달하고/ 안질았음을 앓아도/ 용서한 자의로 앓고
 걸음을 걸어도 봄발로 걷고/ 상통정인하고 바깥드러하느니라
 그 애기 장래에 귀하도나 애기로그구나
 이름이나 지어보자/ 방상구 황해양이라 지었더라
 이때 천하불당 성주/ 난데없는 서방풍이 일어
 패공때 패성주되야/ 그 성주 이룩할 신하가 없어
 천하공탕 만조백관/ 신하 모여 공논하되
 이에 천하불당 성주 이룩할 신하가/ 천하불당에는 없으니
 지하불당 내려가 황해 형님을 잡아오라 하니
 이때 위진이라 하는 신하 복지하야 여짜오되
 그러면 제가 가서 잡아 오리라 하고/ 저 칠사 내려갈세
 황건역사 황건들아/ 홍해역수 날래미라 써붙이고
 육날미투리 낙꼭지를 둘러매고/ 모순석 바꾼길로 거두러 걸어 내려갈제
 이때 황해양이 상통청을 하고/ 하탈길을 하는지라
 벌써 알으시고 철봉에 일천맥을 들고/ 육관대청에 뚜렷이 앉았으니
 음양이 중하여 못잡고/ 뒷동산 노송나무 올라 하동 육송하노라니
 황해양승이 지친할아버님 이르는 말씀
 천하제상인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고 서있느냐
 저 책사 엿자오되/ 나도 천하공탕 제살너이니
 천하공탕 성주패공 때 성주되야/ 거 성주 이룩할 신하가 없어
 황해양을 잡으로 왔나이다하니/ 황해양씨 제주왕 할아버님 이르는 말씀
 황해양님 주웨 대다너 어대 갔다/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주왕에 얻는 제와/ 초하루 걸음으로 주공에 한술 불리놓는 법이 없으니
 내일 아침 필명시에 치간에 들어가는 나가서든 잡아가라하니
 아니나 다르더냐 그 이튿날 저 황해양님 치간에 정말 중심나가니
 저 처사 거동보소/ 응근 필쩍 달려들어
 황해양님 어깨너머로/ 팔베자 턱베자 넘겼다 지는구나
 황해양님 이르는 말씀/ 니가 천하 태산에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고 있느냐
 저 처사 여짜오되/ 나도 천하공 태살러이니
 천하공당 성주 패공패 성주되야/ 그 성주 이룩할 신하가 없어
 황해양님을 잡으러 왔나이다 하니/ 황해양님 허릴없어
 그러면 석달의 말미를 달라하니/ 석달말미 못주겠소
 사흘말미 받아가지고/ 제산을 올라가고
 황해양님 집으로 돌아와/ 성주일 ...(중략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이로다/ 제비원에 이름을 가시는구나
 성주본이 어디메뇨/ 장상곳을 들어다
 대중소취를 받아내어/ 김차를 거머쥐고
 사해명산 돌아댁기며/ 여기저기다 던졌더니
 밤이면 음기 받고/ 낮이면 양기받아
 부산심정이 웅접하고/ 구도신령이 수지가야
 사해용왕이 물을 주어/ 이래 십년 자라더니/ 다방소리 되었구나
 다방소리 점점자라/ 소부동이 되었네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평목장이 되었구나
 두리목이 되었구나/ 향자목이 되었구나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석수장이 거동보소
 정마치 둘러쳐메고/ 광해영수 쑥 들어가
 몰아래 김천지/ 물위에 박계수야

주초를 들어 올라가세/ 주초를 들어 올라가/ 무슨 주초 하여보나
 금따 주초하여 두리둥글주초/ 육모 주초에 팔모 주초를 떠서
 어폭저폭 살어다가 니게 마쳐/ 여기저기다 놓아놓고
 팔만지에 송순님이 되어서/ 굶차가지 대청대주여야
 성주를 하려고/ 동네방장 엮고보니
 귀명 각성하야/ 노자양식 마련할제
 배 투억 추투억 소턱이며/ 배끝 주걸 소꼬리며
 대작이에 중작이에 소작이며/ 대삼도에 대독이며
 평통탕통 물자세지 장철지며/ 갓은 연장 마련할 제
 대독이면 들에 갈고/ 낡은 연장 새로 빚어
 빈차료 거머쥐고/ 천하명산 들어가니
 만학이 높고 높아/ 만학나라 천둥이 솟았는데
 절벽상 폭포수는 고산일경이 제일이요/ 보자면 자연 절백한대
 요요한 오색채 우는/ 선밧간에 둘러이고
 녹원방 친한 부성현대/ 앵무공작 그땡하고
 육모청산에 건우직녀는/ 농촌 화답장을 지어 쌍동쌍 나를 때
 그때는 어느때냐/ 춘삼월 망강이라
 대도천지 빈간/ 진용곳이라 초목대를
 산천중대 넓고 넓은데 초막을 짓고/ 상상봉에 올라가
 대뜸으로 쓸어내고/ 나무를 대도끼로 찍어내어 아뢰오니
 거두절미하여/ 높은데는 구를 올리고/ 낮은데는 다가
 갓은 진의를 불러다 세모를 발문혀/ 온갖 기둥 세워놓고서
 우백호 줄행랑에 오동이를 엮었으니/ 어디까지가 적을소냐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상당고사를 드릴적에
 서말서대 삼색미를 실고 실어/ 열두번을 쓸어내어
 여류근영 대시두/ 열릴 구녕 두시루/ 일곱구녕 동시루에
 구름같이 휘몰리고/ 안개같이 떡 달밀어서

상랑고사를 다 드린후에/ 석가래를 드는구나
 장석가래 중석가래를 그른 후에/ 산자를 받은 후에
 벽을 만들적에 옆에서 초배하고/ 막엽지고 재벽지고
 삼칸대청 오려문 뒷벽에는 황룡/ 앞벽에는 청룡 좌우자개를 물렸으니
 어디까지가 좋을소냐/ 집체장을 차릴적에
 안방문을 열되두고 쳐다보니/ 소라방장 내려다보니
 각장 장판 은담이에 금담이에/ 자개함룡 반담이며
 앵경 대님을 걸어놓고/ 육모꼭지 황초불을 쌍쌍이 걸어놓고
 셋별같은 놋요강은/ 발체 마당 밀쳐놓고
 원앙금침 자수대개/ 여기저기다 늘어놓고
 예복을 장만할제/ 어떤 예복을 장만하나
 낮에 짜는건 공단이요/ 밤에 짜는 건 물방단이라
 제주님의 솜씨를 보소/ 석달 열흘을 짜내더니
 삼천삼백육십필을 짜내서/ 이농저농에 넣어 놓고
 부엌치장을 차릴적에/ 없든 넣든 죽죽 놋두놓든 죽죽
 감에서 세평치서 제옹소시며/ 주발대접도 죽죽
 숟가락도 몇단스 짓가락도 몇단스/ 살공대평에 덩그랑 각시
 아궁지에 아궁귀신/ 굴뚝에는 굴뚝장군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신농씨에서 본을 받아
 베를 심을적에/ 어떤 베를 심어볼까
 인간칠십에 노인베/ 대궐앞에는 임금베
 우물앞에는 샘다리/ 진퍽평지 밀다리
 강화 여주 이천을 차찰베/ 철커덕 쟁기찰/ 알록달록 까투기찰
 회회 득쳐라 상른찰/ 하루이틀에 변덕찰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오곡잡곡 심을적에/ 어떤 콩을 심어볼까
 만리타국 강남콩/ 독수공방 홀애비콩

이팔청춘에 푸르덜콩/ 양증맞다 진웅이콩
 반들반들 우랭이콩/ 지장 찍었다 선대콩
 대추콩 흑세콩/ 용의 눈 세잔달
 잔달팔 이팔은/ 양반의 팔이로구나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어떤 노적을 쌓이볼까
 뒤뜰에는 분노적/ 앞뜰에는 쌀노적
 참새노적 명란 노적/ 열든답을 쌓였구나
 밑에 노적에 싸이냐고/ 웃노적에는 꽃이피니
 어찌아니도 좋을소냐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부황이 푸르르 너더러 오더니
 뒷노적가리 앉아서/ 뒷노적가리 다 따먹고
 앞노적가리도 들어와/ 앞노적가리 다 따먹고
 한나래를 툭툭털면/ 수백석이 쏟아들지고
 또 한나래를 툭툭털면/ 수만석이 쏟아지고
 또 한나래를 툭툭털면/ 수천석이 쏟아들지고
 또 한나래를 툭툭털면/ 억조만석이 쏟아지니
 어디까지나 좋을소냐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아들을 낳으면
 나라에는 충신동/ 부모에는 효자동
 동기간에 의리동/ 일가간에 화목동/ 친구간에 매 유신동
 세상천지에 어떤 부모로 짐지를 하고/ 명발원에 수발을 올리며

그것도 그러하려니와/ 나가서 열두칸 주루루
 앞에 연못가운데는/ 팔모장이 서 있구나
 대적같은 금니들은/ 병긱병긱 웃는구나
 울안을 살펴보니/ 맨드라미 봉숭아 진달래

외철수 키같은 파초잎은/ 광풍을 못이겨서 우주루죽에 춤을 춘다
 삼정승 육판서에/ 국영성에 십이대적
 알성급제가 되겠으니/ 어찌아니도 좋을소나.

* 1998.3.28, 이정순(78세, 여, 미장면 양촌리)

0402-1 : 4 진오귀국

해동은 조선국이야/ 구주방성은 아무게 집이나
 한가정 들어서 있는/ 여러 물밭을 있걸러마는
 불같이 더운날에/ 탈 벗고 지었는가
 책이 놓고 책이 쓰기/ 어렵고 두렵소아
 상삭을 꺼출 몰라/ 이날 성수를 받으려고
 생금수 대출큰 실어/ 천하공당 올라가서
 날금 생육을 제쳐놓고/ 지하공당 내려와
 해탈욕을 내어놓고/ 밀살생기 이금천에 찬하벽제 사주물고
 인송화에 눈송 떡떡/ 질화성명 생기복덕 가려내어
 대주는 미로이고/ 기주는 복을 얻고
 남생기 여복덕에/ 여생기 남복덕에
 가리고 가려내어/ 제주님 거동보소
 이 정성을 드리려고/ 고운 삼베 정히 입고
 낮에 물을 길러가니/ 학이랑 놓던 물이 영정 목공하고
 밤에 물을 길러가니/ 용이라 놀던 물이 누리염정 목공하고
 고군부인 옆에 끼고/ 신근바 손에 들고
 학이 용산 돌아가니/ 허공에서 솟은 물
 실곡심을 한방울 떠다가/ 이 정성을 드렸으니
 오는 이실 왕림하옵시며/ 오늘 이심 아니 하강 하옵시려
 이 정성 오 아립하실적에/ 강남에는 홍사군웅
 우리나라에는 이씨군웅/ 열패는 또 한수요

나라 차던 군웅이야/ 치에 차던 군웅일새
 상상군웅에 평양군웅/ 터진 군웅/ 마진 군웅
 대주에는 직선군웅/ 귀주에는 몸수군웅/ 만수상에 제장군웅
 군웅님 오실적에/ 조귀 조상님들 아니 오시랴
 선대 조상 후대 조상/ 당대에도 조상님네
 오실길에 우환 제단 걱정근심/ 모두 거둬가지고
 오던길로 돌아서서/ 왕생극락 하옵소사
 이왕지사에 왔다가시는 길에/ 해원이나 듣고 가옵소사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 이네 말씀을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 사람/ 뉘 속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바님전 피를 받들고 빌고/ 어머니전 살을 빌고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성님전 약을 빌고
 이에 이에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 몰라/ 부모은공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도하여도/ 부모덕을 다 못갠아
 어이 하고도 애달프구나/ 이등 세월 여등하여
 은수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명 절로난다
 망명이라고 흉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달프고도 설운 마음/ 절통하고도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흉한 백발 덮어간다
 사람마다 이 공도를/ 뉘가 능히 막을 손가
 춘초는 연연녹이나/ 왕서는 귀불귀로다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북망산천 돌아갈제 어찌갈고/ 심산 한논 한정없는 길이로다
 언제 다시 돌아오랴/ 이 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도 가련하다
 처자들의 손을 잡고/ 만담설화를 다 못하고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 목숨 살린손가

옛늬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드니
 오늘 내게 당하여서/ 대문밖이 저승이라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뒷산 앞산이 북망일세
 일가친척 많다한들/ 오늘 어느 누가 대신가며
 친구벗이 많다한들/ 그 누가 동행할까
 호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의배하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재상내의 손에 들고
 혼배불러 조근하니/ 없던 복성 낭자하다
 일식사자 손을 끌고/ 월식사자 등을 밀어
 풍우같이 재촉하며/ 천방지방 몰아갈때
 높은데는 낮아지고/ 낮은데는 높아진다
 악의 악세인들/ 먹고가면 으뜩하라
 사자님아 사자님아/ 이내 말씀 좀 들어주소
 시장한데 점심이나 지어서 먹고/ 신발이나 고쳐서 신고 쉬어서 가자
 애꿎한 듣는척도 아니하고/ 귀로 등을 치며 어서가자 바빠가자
 여러날에 다달으니/ 우두사찰 마두나찰
 손에 치며 달아들어/ 사정구나 사정없이 반푼없다
 담배 끊고 얻은 재산/ 인정 한푼 써볼손가
 심으로 옮겨갈까/ 환전부터 가정할까
 외복버섯 인정쓰며/ 열두 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로 끝이 없고/ 두렵기도 청양 없네
 명을 들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남녀 죄인 잡아들여
 묻는 말이 네놈들아 들어봐라/ 소심하다가 발언하고
 나가여서 무산성신하였는가/ 바른대로 말해여라
 본을 받아 임금님께 간하여서/ 나라에다가 충성을 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로를 세웠으며
 배고픈 사람 밥을 주어/ 아사 구제하였느냐
 헐벗은 사람 옷을 주어/ 금언 공덕하였느냐

좋은곳에 집을 지어/ 행인 공덕하였느냐
 목마른 사람 물을 주어/ 급수 공덕하였느냐
 병들 사람 약을 주어/ 활인 공덕하였느냐
 부처님께 공양올려/ 마음다 주어 선심써서/ 본 공덕을 하였느냐
 높은 곳에 불당지어/ 중생 공덕하였느냐
 무슨 공덕을 하였길래/ 왕생극락을 가라하느냐
 저 망자 거동보소/
 살아생전에 어린자식들/ 데리구 살아가느라고
 공덕한 것은 없아와도/ 염라대왕으로 보내주시오
 나가서 염라대왕으로 보내주시오/ 애꿎복꺾하는구나
 아씨의 가정에 조상 살아/ 생전에 선심공덕 많이 하여
 인생길을 잘 닦아서/ 왕생극락 가게하니/ 아니 좋을손가
 소원대로 물을적에/ 네 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으로 가라느냐/ 염라대로 가라느냐/ 장생불사 하려느냐
 서광로에 상한배야/ 반도서임을 하라느냐
 옥제에게 들통하야/ 태어나서 가라느냐
 백만군이 혁혁돼야/ 장수군 되겠느냐
 어서 바빠 아뢰어라
 남자 죄인처럼하고/ 여자죄인 불러들여
 어명하는 국문하는 나리에/ 내일 너의 죄옥 들어봐라
 시부모가 친부모께/ 지성효도하였느냐
 동기간에 우애하야/ 친척화목하였느냐
 부모말씀 거역하고 강하여서
 형제 돈독하게 하여/ 세상간악 다 부리며
 못듣는데서 욕을 하고/ 마주 앉아서 웃음낙담 말하고
 성내는 년/ 남의 말을 일삼는 년
 시기하기도 좋아하는 년/ 옥에다 가두어라
 제목등은 들은후에/ 온갖 행각하는구나

죄지은 것을 가리어서/ 차례대로 처결할 때
 도살지옥 환상지옥/ 한방지옥 궁수지옥
 독사지옥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으로 분분하고
 큰잔치를 배설하니/ 착한사람 위로하고 대접하니
 내 소원대로 가이더라/ 극락으로 장생불사하라더나
 부귀공명하라느니/ 제후왕되라느니/ 송이대로 다일러라
 아무집 가정애/ 조상님네 살아생전에
 선신공덕을 많이하야/ 후생길을 잘닦아서
 왕생극락을 하게하니/ 마음가꾸어 선심써서
 회심곡을 믿고 믿어/ 면하고 부령면상도 면하니
 수신제가 우리형제/ 자손사업 많이 하야
 어서 왕생극락을 나아가세/ 연화대로 나아가세

* 1998.3.28, 이정순(78세, 여, 미장면 양촌리)

0402-1 : 5 당금애기

신령님이 발동하시니
 해동은 조선국이야/ 아무리 불같이 더운날에
 천하공덕을 올라가서 해쳐놓고/ 대주는 줄도 모르고
 가리고 가려내어/ 이 정성을 드리려고
 앞넷물 길러가니/ 뒷내물을 길러가니
 손에 들고 허공에서/ 이 정성을 드렸으니
 오늘 이 정성 왕림하시니/ 아아 이 정성 왕림하실적에
 신령님 역두신령님/ 양각산 신령님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친군만민의 천하신장 지하신장
 동방엔 청자장군/ 서방에는 백태장군/ 북방에는 황태장군
 일곱칠성에 북두칠성/ 서두는 칠성중에
 사해는 용궁에/ 용궁엔 강남에

할머니와 오늘은 신령님을 마르시고/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 정성을 드렸으니/ 채수여 드 나아가서
 상관대주 상관대주/ 우환이 대좌 걱정근심을 덜어내니
 낮이면 물이 맑고/ 밤이면 불이 밝아
 하루 오실적에 신령님 오실적에/ 다 걷어내라 다 걷어주시고
 채수 아아 우환 걱정 근심/ 모두모두 걷어주시고
 낮이면 물을 맑게하시고 밤이면 불을 밝혀주시오
 일년이 태평하고 삼년이 태평하고/ 십년이 낭보하게끔 해주옵소서
 강남에는 우리나라/ 열두신령님에는 서한대석 대한대석
 채수님 아버지는 채수님 어머니은/ 한두달을 피를 모아 나아가노니
 사주하나 기박하여/ 고공살이하노라리
 접시끝에 던져주니/ 아니갑수 전혀없수
 천금산 기슭으로/ 남근산 기슭으로
 나무하러 올라가니/ 한 두단 하여놓고
 산아래 중이 하나 내려온다/ 한삼고시 붉은 구라
 염불하면서 내려오더니 하는말이/ 하나가 이집 자손인데
 허구많은 날도 많고/ 날도 많은 날을 버리고
 정월이라 대보름이야/ 저애 있다하는 말이
 나도 지성님의 만이들로/ 일가친척 오날 아침 나무하러 왔나니나
 너 그 나무 그만하고/ 나를 따라 절에나 가자
 십리만큼 던져버리고/ 절을 따라 절에가니
 찬란하다 염불을 저애보고/ 아아 상제야 상제야
 글을 먼저 배워야하느냐/ 경을 먼저 배워야하느냐
 하는 말이/ 글을 먼저 배웠습시다
 천자 유학 학문 맹자 공자 외웠으니/ 글도 달통하여
 인물좋다 내려가듯/ 재질 좋다 내려
 저중이 인사않고/ 저중 있다 이중저중하지마오
 밤에 밤중하니 인물좋다/ 내려가듯 재질 좋다 내려가니

선배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앉아 삼년/ 서서 삼년 삼년
 열아홉에 스승 그림자도 못봤는데
 니가 어찌 보라느냐 하는 말이
 하고 살펴보니/ 아홉구절 사대문이 덜커덕 잠겼구나
 그집 주인은 대감집인데
 황대감은 나라에 천하궁으로 귀향을 가고
 아들도 지하궁으로 귀향을 가고
 무남독녀 외딸 하난데/ 없는 광소리가 나더니
 이것이 웬일이야/ 나가서 보라하니
 대문간에 나가보니/ 쥐도 잠잠 새도 잠잠
 이 중생 광문을 크게 울렸더니/ 동동구르면서 이것이 웬일이야
 내가 나가보니/ 열두폭 치마를 짤짤 끌며
 키는 구척이나 되고/ 때란 한눈썹에는 또한 새끼를 쳤네
 이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귀신이냐
 하는 말이/ 나도 살아있는데
 방금 면면 촌촌이 다니며/ 선심을 받아나이다 하니
 중생이 하는 말이/ 어른들이 계시면
 많이 주면은 수백수억이요/ 적게 주면은 대소하기하니
 하는 말이/ 하루밤 자게/ 옥옥추나 단단추나 자리보존하니
 바깥마당에 자리보존하여주니
 아따 나는 여기서/ 하늘에서 벼락 못누워자네
 대문간을 빌려주면/ 아따 나는 여기서도 못누워자니
 수원장이 내려보니/ 대감주무시던 처소를 빌렸더니
 노인네가 나와서 못누워자겠니
 이 중생 들어가 앉아 보고 누워보니/ 무서워서 못누워자겠네
 밤은 깊어 삼경이 지나/ 오도가도 못하고
 윗간에서 이 중생 들어가/ 장삼 벗어 병풍에 걸고
 염주를 끄내 들고/ 수리 수리 마수리

이렇게 밤새도록/ 천수막을 하는데
 쥐꼬리같은 밤에/ 하늘에서 청명 당금하게
 하늘을 올라가/ 이리뒤척 저리뒤척
 광명이 들어/ 혼자하는 말에
 천수막을 읽다가/ 꿈을 어떻게 꾸나
 하늘에서 천명광명이/ 하늘로 올라갈 적에
 이리뒤척 저리뒤척/ 그 꿈이 어떠하더냐
 내가 가면 석달이 되니/ 그제야 도사인줄 알고
 일곱번 절하고 들어가/ 세월을 보낼적에
 세월이 밥을 먹어야 하여도/ 생쌀내음이 나요
 물을 먹어도 시름털털/ 개살구는 옆에다 두고
 옥단추나 단단추니/ 당금아가가 먹고먹고
 그렇저렇 세월을 보내니/ 나라에 경사가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당금아기를 보시더니
 앞으로 서거라/ 뒤에 인간이 인간이
 만약에 가뭄이 맥히고/ 수치가 대단할 터이니
 에 뒷동산에 올라가/ 지하 열길을 타고 하니
 그의 아들이 분명히/ 하릴없어 뒷동산에 올라가
 타고 내려오니/ 당금아기를 인도하니
 아가 당금아가 니가 약해/ 산천으로 병이 들었으니
 울고 달려서/ 뒷동산에 올라가
 지하 아버지 바삐 들라고/ 재촉을 하는구나
 북두칠성을 살리소서/ 경충 뛰어 올라가 그리하자
 아버지가 하루는/ 뒷동산을 바라보니
 고이하다 하고/ 그의 아들을 불러야
 뒷동산에 올라가/ 지하 보고 오라하니
 다리가 올라갈적에는 한사람이더니/ 지금은 세사람이더니 깜짝 놀라
 당금아기 올라갈적에는 한사람이더니/ 지금은 네사람이 되어 있다하니

그의 아버지 생각하기를/ 아들 아들하나를 사려하기에 어려우니
어태 너 뒷동산에 올라가 당금아기를/ 아가 아가 당금아가
아버지 명령이 너를 집으로 데려오라 하니
이 아해 산을 그의 오라버니를 따라 내려오니
그리하자 세월이 여유하야/ 자라서 동네 같이 와
애 너는 애비없는 후레자손이라하니/ 너의 아버지가 이아해

* 1998.3.28, 이정순(78세, 여, 미장면 양촌리)

Ⅱ. 무경(巫經)

0608-1 : 5 부부해로경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 전 비나이다
모계는 내 살이고/ 모친을 뼈 살이고
이팔청춘 소년 시에/ 칠모르고 초로같이
머리를 마주 풀어/ 백년 동락 맺어서
아들 나서 효자 두고/ 딸을 나서 효녀 두고
오색영화를 보겠더니만/ 오는 사주를 못 새겼는지
가는 사주를 못 막았는지/ 불쌍하구 너는 너구
나는 나로다 서로가/ 각방을 해 소일하구
서로가 싸운 닭 보듯이/ 화만내구 이결 맞추지 못하구
허둥 지둥 하는 말은/ 부모님들이 보다 못해
명산대천 산신님전 찾아가서/ 지성공덕 발원하구
창시 명주님/ 만덕곳은 성대한 적
선왕대신 지신 키운 후에/ 자산 동네 광주대성 사중대
창시 기명네/ 시방 밖에 지성 지식님
선왕대신 역상석에 헨해쳐/ 유진 강산도 중생
만리 조선에 청장님/ 구구학과도 허말령
무과이신 기명천네/ 산신님 전 비나이다
산신님 전에 썼는/ 이 두 내우를
이번에서 구해줄제/ 내무산에 익을 두려 두지 말구
해두 백년 시켜줄적에/ 오동나무 열두대에
꼬망같이 해두 백년/ 일월영천 야삼경에
셋별같이 해두 백년/ 근심걱정 다 나올 제
신선같이 해두 백년/ 송죽같이 굳은 절개를

금시같이 해두 백년/ 어긋나리라 해진 연분을
 백발루 해두 백년이/ 소원에 걸시나
 해산서산 선왕대신/ 대학소학 선왕대신
 대천소천 선왕대신/ 이산대산 선왕대신
 명당고당 선왕대신/ 사해주다 선왕대신
 금지대덕 선왕대신/ 청룡백호 선왕대신
 소원성취 하였네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을 오남리)

0608-1 : 7 경문

오불선동 관원수/ 오부선동 마원수나
 병력신력 부원수나/ 육자대명 광원수나
 황건역사 약재신장
 어허- 어떤 일문 까무러쳤더니/ 후이- 병자머리 두통 장난하구
 간병에 장난하구/ 오장육부 장난하나
 삼백육십 사절에두/ 오르냐 그르냐 따지면은
 새가 되구 화되어/ 쥐가 되어 끼어들구 날아다닌다
 병자 두통 장난하구/ 간병에 장난하구 방을 엄살 부린다
 바빠 자식 둘을/ 어서 바빠 자수 차령하시어
 엄나무 수풀통에/ 원새끼로 돌려세고
 살구나무 위에 질러/ 수지풍도 황천으로
 죽수불망하구/ 억만년을 부처세상 하리라
 그러다가
 저리 자는 천지 지죽이요/ 만물은 지쳐령에
 천지간에 육국귀신하거니와/ 송이귀신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생활이 요상한 귀신이로다/ 누구는 황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광대한 천지간에 하초를 불목하고/ 하서를 부랑하여 거닐고서

원차과 중차과 우이병자를/ 장단창에 하고 화기현자 가느냐
 아예 재지자상 지우며/ 만산은 불속이요 좌자는 불사로다
 궁신은 자구장군/ 이 삼경을 해서탈제
 팔년 궁진이 아니라도/ 주자진을 배설하고
 강태공에 심술 빌고/ 사마천에 경험빌고
 재갈량에 팔신들을 빌어다가
 안으로 내진을 집어/ 밖으로다 외진을 쳐서
 내외 불명이 한결같이 불리치고
 불손경자들은 일터 단속에 높이 엮어/ 축의문을 감동하니
 너희가 천령금기라도/ 방애가 뉘이라도 방애 가리라
 그러다가
 어서 바빠 화가 자척하고/ 자꾸 실명하야
 우리 병자를 뒤로하고/ 어서 바빠 도주하야라
 이가 불구불 때히는 귀신은/ 우리 기자들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니 보여
 혼이라도 잡아내고/ 뉘이라도 지워다가
 화기루 형상하구/ 소기 속명하야
 머리두자 귀신의 두골을 뽀개 놓고/ 눈목자 귀신의 두눈을 빼놓고
 입구자 귀신의 입을 찢고/ 팔고자 귀신의 팔을 빌고
 목후자 귀신의 목을 빌고/ 배복자 귀신의 배를 주무르듯 하야라
 다리각자 귀신의 다리를 엮어 놓고/ 발족자 귀신의 발을 엮어
 엄나무 수풀 통에/ 원새끼로 둘러 띠고
 살구나무 획 질러/ 수지풍도 황천으로
 죽수불망하구 억만년을/ 부처세상 하리라
 그러다가
 삼매지물은 가건 불상하구 주술 착용하니
 대덕 공덕을 인심에나 가야 귀신을 잡어내자
 인왕사자는 삼매를 소멸하시고/ 기왕사자는 악귀를 소멸하시고
 시방사자는 귀신을 소멸하시고/ 우수장군은 기마를 소멸하시고

홍백신장은 이매를 소멸하시고/ 오악산악은 동포를 급지하시고
사해유왕은 방협한 눈은/ 일축기사 구천의 사자신장들은
이매 악귀 등을 즉시 소멸하시고

* 1999.1.12. 정구연(68세, 남, 장호원읍 오남리)

여 백

부 록(附錄)

〈부록1〉 이천시 민요자료 조사현황

	백사 면	율 면	설성 면	마장 면	부발 읍	장호 원	신둔 면	호법 면	모가 면	대월 면	고담 동	단월 동	장록 동	소계
논물대기					1									1
논갈기							1	2		1				4
못자리하고 쉴 때				1										1
모찌기									1	1				2
모내기	1	10	15	6	1	4	9	2	7	5			1	61
논매기	9	21	36	12	3	8	9	3	3	8			1	113
밭갈이			1											1
밭매기			1										1	2
지개동발	1		2	4		1	2							10
나무할 때 노래							1	1						2
나물캐는 노래	1		1			1		1	2					6
나물하러갈 때 노래									1					1
배틀가	1	3	2		1	1	1			1				10
소풀이								1		1				2
땅다지기 노래	2	1	4	5	3	5	3	2	1	1				27
물길는 노래								1			1			2
화초 심는 노래									1					1
자장가	3	3	7	7	4	1	3	3	3	6				40
애기 어르는 노래		1	5	3	2	2	3	2	7	3				28
길음마노래			1											1
달거리						1				2				3
성주풀이		1							1					2
태평성대										1				1
홍수풀이										1				1
농사풀이										1				1
고사반	1	3		1				1		1			1	8
우물고사				1						1				2
장승고사										1				1
마당굿										1				1
티우굿										1				1
부엌굿										1				1
대청굿										1				1
상여노래	1	9	15	6	7	11	8	5	6	4			1	73
재도듬노래			2											2
달구질노래	2	10	15	7	2	10	11	5	2	5			3	72

682 이천의 옛노래

국경아가씨						1								1
6.25 군가						1								1
군인 간 노래							1							1
제주도군가									1					1
성냥팔이노래									1					1
기찻길노래										1				1
소풍노래	1													1
권학가	1				1									2
무궁화	1													1
금강산노래						1								1
동요			1		1	2	1					1		6
농부가	1													1
잡가									1					1
단가										1				1
달거리										1				1
십장가	1								1					2
적벽가	1													1
조한가	2													2
춘향가	3									2				5
액댤이	1													1
대감굿거리	1													1
차성굿거리	1													1
자리걸이	1												1	2
성주풀이	1					1								2
제석굿						1								1
조상굿						1								1
병굿						1								1
고사반						1								1
제석본풀이				1										1
객구물림				1										1
성주굿				1										1
진오귀굿				1										1
당금애기				1										1
경문						1								1
부부해로경						1								1
소 계	58	164	173	91	97	127	126	74	151	143	5	2	11	1222

〈부록2〉 제보자 명단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유봉순	여	79	백사면 현방1리	양구출	여	90	울면 신추 1리
전도길	여	79	"	최순철	남	62	"
배경재	여	61	"	배순임	여	70	울면 신추3리
이관형	남	8	"	장영식	남	73	"
오정봉	남	75	"	안달웅	남	60	울면 본죽리
정동숙	여	68	"	구자원	남	79	"
심순애	여	74	백사면 내촌리	김용성	남	71	"
이태화	여	64	"	오관영	남	72	"
김효순	여	61	"	오도영	남	61	"
박찬종	남	62	"	목진순	여	60	"
임운빈	남	62	백사면 송말2리	정지영	남	62	울면 북두1리
임종순	남	75	"	김정천	남	71	"
이수경	여	70	백사면 송말3리	이정호	남	74	"
이상옥	남	64	백사면 상용리	박오봉	남	70	울면 북두2리
성건용	남	76	"	송경수	남	77	"
유준열	남	80	백사면 도지리	박기성	남	68	"
김수동	남	71	"	임동선	남	69	울면 산양1리
유다정	여	10	"	윤석건	남	66	"
허금자	여	84	백사면 경사리	하월례	여	65	"
이광희	남	78	백사면 신대리	이재원	여	64	"
정자호	남	76	백사면 조읍리	이보건	여	74	"
정우영	남	70	"	이종철	남	85	울면 산양2리
김영삼	여	75	"	이명식	남	69	울면 석산1리
박영하	남	57	울면 고당1리	원옥선	여	90	울면 석산2리
박수억	남	65	"	이상열	여	77	"
조창구	남	70	"	최동훈	남	81	울면 석산3리
김학출	남	62	"	최동순	남	71	"
김동환	남	61	"	도친순	여	70	"
박병만	남	52	"	배기분	여	84	울면 월포1리
박운하	남	52	"	김병화	여	67	울면 월포3리
유인준	남	77	울면 고당2리	김을순	여	63	"
최병환	남	66	"	김순식	여	70	"
이근용	남	76	"	박우운	남	70	"
조임석	여	85	울면 고당3리	김상문	남	71	"
오명환	여	91	울면 신추1리	김인용	남	72	울면 월포4리

684 이천의 옛노래

이상원	남	65	울면 월포4리	이재훈	여	70	설성면 제요4리
이상조	남	61	"	김행자	여		"
박인구	남	65	"	방인석	남	66	설성면 신필1리
김홍섭	남	65	울면 총곡리	소서운	여	71	설성면 신필2리
김인배	남	72	"	강성진	남	69	"
권상균	남	58	울면 산성2리	최덕교	남	81	설성면 장천3리
장복희	여	78	울면 오성1리	유병희	남	54	설성면 자석1리
이봉희	남	76	"	한옥희	여	59	설성면 암산2리
조남용	남	66	"	최용석	남	66	"
황용은	남	86	"	최관영	남	80	설성면 송계1리
황길준	남	80	"	권태근	남	83	"
조남성	남	58	"	김귀남	여	65	설성면 송계2리
왕세현	남	70	"	주영표	남	74	설성면 송계3리
김만희	여	70	설성면 금당2리	김옥희	여	70	설성면 상봉1리
이희관	남	73	"	한승우	남	70	설성면 상봉2리
안병희	여	73	설성면 금당2리	유홍철	남	60	"
정호영	남	82	설성면 장능1리	한승우	남	70	"
오성철	남	58	설성면 장능2리	류금선	여	70	"
홍인표	남	72	"	권영신	남	66	설성면 상봉3리
박어연	여	72	"	김재선	남	62	설성면 상봉4리
허경순	여	65	"	정태진	남	67	설성면 수산1리
허원희	여	65	"	정규동	남	70	설성면 수산2리
강영순	여	76	설성면 행죽1리	김용득	남	68	"
변수석	여	74	"	황부자	남	44	설성면 수산3리
김병철	남	47	설성면 행죽2리	양병례	여	59	"
권순남	여	71	"	김명자	여	56	"
정분남	여	66	"	김철희	여	65	"
최병남	여	76	"	김영순	여	62	"
정항기	여	71	"	김인배	남	43	"
서성남	여	71	"	안순균	남	53	"
김영숙	여	70	"	이장훈	남	63	설성면 대죽1리
안학렬	남	81	설성면 제요1리	이철근	남	56	"
이풍룡	남	79	"	서병오	남	68	"
오윤수	남	67	"	안영복	남	76	"
정복섭	남	68	"	김영재	남	67	"
임영순	여	60	설성면 제요4리	정주화	남	62	"
정재례	여	68	"	임기순	여	74	"

김원자	여	54	설성면 대죽1리	서경순	여	75	마장면 관4리
김점순	여	54	"	이철선	남	60	"
김두래	여	62	"	이금난	여	75	마장면 양촌리
안장호	여	68	"	오남철	남	71	"
안한균	여	49	"	유달시	남	75	마장면 작촌리
유순남	여	56	"	박준순	여	57	"
윤태수	남	53	설성면 대죽2리	박억복	여	82	마장면 회억리
민영덕	남	74	"	성기용	여	54	"
이창호	남	36	설성면 대죽3리	김성숙	여	40	마장면 해월1리
김동한	남	78	"	김종필	남	71	"
강태희	남	82	"	이동철	남	69	마장면 해월2리
박천호	남	81	"	이세채	남	68	마장면 목리
김영호	남	83	"	유원학	남	86	마장면 이평1리
전영순	여	79	"	이원준	남	54	"
허덕우	여	63	"	김계수	여	72	마장면 장암1리
정정복	여	65	"	이대복	남	87	마장면 장암2리
김순중	여	73	"	이춘수	남	60	마장면 덕평1리
황명희	여	83	"	임종덕	남	67	마장면 덕평2리
김명선	여	84	"	김순희	여	75	마장면 이치1리
김재분	여	74	"	김상순	여	80	"
김복자	여	58	"	신옥규	여	77	"
이숙자	여	70	"	박기홍	남	45	마장면 각평리
최상복	남	69	마장면 오천1리	김화중	남	10	"
정의남	남	58	"	양승모	남	7	"
박문기	남	66	"	김정은	남	11	"
김복선	여	60	"	양홍모	남	10	"
김성호	남	60	"	서강윤	남	76	마장면 표교1리
최용섭	남	69	마장면 오천2리	송봉순	여	73	부발읍 무촌1리
강주환	남	53	마장면 관1리	권언년	여	61	부발읍 무촌2리
김영주	남	75	"	이현호	남	67	"
김영현	남	44	"	최권숙	여	58	"
김홍수	남	75	"	유석연	남	64	"
한언예	여	80	마장면 관2리	이정우	남	64	"
서정분	여	74	"	김양예	여	58	"
이덕진	여	70	"	서귀당	여	71	부발읍 죽당2리
심영순	여	74	"	오순규	남	46	"
한상경	여	55	마장면 관3리	이상열	남	71	부발읍 신원4리
목영복	여	86	"	이맹균	남	64	"

686 이천의 옛노래

맹효석	남	79	부발읍 신원4리	김진호	남	68	부발읍 응암리
박치복	남	96	"	강건원	남	55	장호원읍 나래1리
김윤수	남	65	부발읍 고백1리	강용	남	58	"
서정수	남	85	부발읍 고백2리	고병찬	남	78	"
김연순	여	68	부발읍 대관리	김덕수	남	55	"
이지순	여	77	"	김병수	남	73	"
조영숙	여	87	"	김원배	남	78	"
이점분	여	73	"	박도호	남	81	"
박채석	여	78	"	박찬용	남	77	"
이창용	남	71	부발읍 마암1리	안기영	남	55	"
윤수열	남	68	"	이금성	남	87	"
우효제	남	73	부발읍 마암2리	이만홍	남	62	"
유금순	여	74	부발읍 산촌리	이종복	남	73	"
김경순	여	77	부발읍 신하리	주내영	남	76	"
이한권	남	66	"	강월성	여	71	장호원읍 노탑1리
안종렬	남	87	"	박상순	여	64	"
문소저	여	78	"	박옥분	여	65	"
윤정분	여	67	부발읍 가좌1리	박치복	남	96	"
이옥순	여	67	"	박윤례	여	70	"
홍일순	여	66	"	김귀녀	여	66	장호원읍 노탑2리
이성복	남	62	부발읍 아미1리	김영제	남	68	"
신장수	남	78	부발읍 아미2리	김종월	여	62	"
강주영	남	73	"	김종환	남	66	"
박성춘	남	57	"	김창식	남	71	"
김연숙	여	45	부발읍 수정리	리종환	남	68	"
노정려	여	69	"	목만기	남	66	"
황춘남	남	63	"	박병근	남	72	"
이명하	남	58	"	배명화	남	66	"
최계순	여	67	"	서병근	남	73	"
박금선	여	67	"	신영락	남	68	"
윤병순	여	61	"	이상삼	남	67	"
변은순	여	66	"	이상태	남	74	"
이용환	남	66	부발읍 송온리	이수희	남	69	"
조금자	여	54	"	정순동	남	75	"
김상분	여	71	"	정재선	남	78	"
김진연	남	73	부발읍 가산1리	지현봉	남	75	"
박용규	남	75	부발읍 가산2리	진용성	남	68	"
안상수	남	68	부발읍 응암리	권영민	남	62	장호원읍 방추1리

김계득	남	87	장호원읍 방추1리	김인제	남	61	장호원읍 진암3리
성기홍	남	63	"	민병수	남	52	"
윤호채	남	77	"	이현제	남	58	"
이영렬	남	66	"	최재현	남	59	"
이재성	남	73	"	한명섭	남	55	"
이준열	남	74	"	최상용	남	66	장호원읍 진암4리
조대석	남	73	"	권영자	여	58	장호원읍 진암5리
김기현	남	57	장호원읍 신읍2리	김숙자	여	62	"
김명수	여	60	"	김옥심	여	64	"
김정환	남	74	"	박영	여	69	"
심창섭	남	75	"	박을순	여	64	"
심태섭	남	61	"	엄귀순	여	62	"
유귀동	남	75	"	유희상	여	61	"
유수열	남	65	"	이경옥	여	63	"
이순성	남	65	"	이미내	남	66	"
이기범	남	65	장호원읍 송산1리	이옥순	여	69	"
조영원	남	68	"	최순덕	여	67	"
김숙	여	68	장호원읍 송산4리	한영자	여	69	"
박영신	여	41	"	홍순례	여	72	"
박재우	남	58	"	권종태	남	67	신둔면 남정리
오민자	여	65	"	권태식	남	41	"
우성모	여	64	"	신영무	남	73	"
이언년	여	77	"	이용춘	남	64	"
박재형	남	80	장호원읍 여석2리	이회찬	남	70	"
최국현	남	76	장호원읍 오남1리	허재돌	남	66	"
김동운	여	77	장호원읍 와현1리	홍인식	남	70	"
유성운	남	62	"	김진오	남	73	신둔면 지식리
이순희	여	86	"	한정석	남	59	"
한상호	남	61	"	황석하	남	77	신둔면 장동1리
한영희	남	61	"	김은함	여	65	신둔면 장동2리
한천희	남	48	"	박순희	여	74	"
한효석	남	72	"	배상림	여	77	"
권태호	남	58	장호원읍 이황4리	오석순	여	88	"
이상호	여	48	장호원읍 장호원리	이성순	여	73	"
단상덕	남	77	장호원읍 진암1리	이희수	여	64	"
석진환	남	75	"	임순자	여	64	"
석재환	남	73	"	허옥범	남	56	"
이규섭	여	74	"	장연희	여	83	신둔면 도암1리

688 이천의 옛노래

김봉수	남	61	신둔면 수하리	김기성	남		호법면 매곡리
김영달	여	72	"	김백열	남	75	"
이재이	여	78	"	김완봉	남	73	"
이정석	여	65	"	문원규	남	60	"
이철용	남	57	"	박덕대	남	91	"
최미옥	여	77	"	박병소	남	59	"
한옥현	여	67	"	안만은	여	75	"
김송자	여	67	신둔면 수남리	이명희	남	78	"
박계순	여	68	"	이상원	남	75	"
한준수	남	64	"	이상윤	남	69	"
조병순	여	75	신둔면 고척1리	전망금	여	61	"
김희순	여	77	신둔면 고척2리	정오순	여	71	"
정을순	여	76	"	정태순	여	59	"
김봉금	여	68	신둔면 용면리	정혁수	남	83	"
김분예	여	87	"	조병성	남	80	"
김순례	여	80	"	조병순	남	76	"
범정순	여	77	"	김단열	남	63	호법면 송갈리
이연안	여	83	"	김억기	남	70	"
이인순	여	78	"	성남예	남	73	"
임삼순	여	66	"	이규재	남	73	"
전정희	여	68	"	정남수	남	56	"
정득진	여	78	"	정만수	남	80	"
허계순	여	76	"	권필순	여	71	호법면 안평리
간석순	여	58	신둔면 인후1리	김숙한	여	74	"
김을순	여	76	"	이용년	여	71	"
신덕순	여	81	"	이초자	여	55	"
연순례	여	73	"	임명순	여	72	"
유남인	여	82	"	전춘자	여	59	"
장양순	여	68	"	박재원	남	74	호법면 유산리
한원순	여	74	"	이종선	남	80	"
양창석	남	80	신둔면 마교리	이종철	남	67	"
이용록	남	65	"	진광춘	남	61	호법면 주미리
김학래	남	61	신둔면 소정리	권혁임	여	55	호법면 주박리
강옥남	여	67	호법면 단천리	김근모	여	74	"
박성자	여	73	"	김복녀	여	76	"
박유병	여	57	"	박상희	여	83	"
정옥봉	여	72	"	유영현	여	64	"
김문용	남	65	호법면 동산리	이순균	여	65	"

이일화	여	90	호법면 주박리	최성석	여	81	모가면 소사리
이지희	남	63	"	손천식	여	72	"
조의길	남	68	"	황영분	여	67	"
신문순	여	66	"	지성순	여	65	"
한정숙	여	62	"	이근순	남	71	"
이정자	여	67	모가면 두미리	박남송	여	68	"
이금분	여	64	"	오성환	남	74	"
최호순	여	72	"	이전배	남	61	"
창만동	여	66	"	박병준	남	71	"
박태희	여	63	"	박옥선	여	77	"
이미영	여	51	"	원복례	여	85	"
황순희	여	76	"	이동호	남	87	"
차침동	여	72	"	양해룡	여	90	"
이한우	남	65	"	강만익	여	72	"
이광일	남	64	모가면 산내리	주영례	여	70	"
유분열	여	84	"	박일순	여	80	모가면 송곡리
이신출	여	81	모가면 서경리	조남분	여	78	"
김유숙	여	75	"	민병국	남	70	"
박윤복	남	70	"	권오철	여	75	"
이근원	남	81	"	이부석	여	67	"
김상규	남	69	"	허기남	여	80	"
김순규	여	66	"	임국환	남	94	모가면 신갈리
구정서	여	85	모가면 소고리	차봉훈	남	80	"
서춘자	여	60	"	전김선	남	80	"
권영찬	남	60	"	김기수	남	73	"
경현순	여	57	"	음복남	남	71	"
임기분	여	61	"	심원서	남	73	"
이신자	여	61	"	최순옥	여	68	모가면 양평리
조병동	남	68	"	한순현	여	78	"
황경준	남	48	"	권오돈	남	71	"
서동예	남	62	"	허정우	남	67	"
정은재	여	59	"	한용원	여	87	"
김금순	여	76	"	권혁남	남	60	"
김숙현	여	65	"	신문자	여	54	"
권정순	여	60	"	이돌석	여	76	모가면 어농리
김경옥	여	67	"	이천순	여	61	"
권영진	여	94	"	정갑수	여	69	"
허인순	여	81	"	최복조	여	74	"

690 이천의 옛노래

이영일	남	59	모가면 어농리	김정길	남	63	대월면 군량리
양승자	여	58	"	김일량	남	61	"
양원석	남	88	"	정재옥	여	61	대월면 송라리
문정남	남	74	모가면 원두리	고인현	여	73	"
송병익	남	74	"	장채순	여	81	"
엄준길	남	74	"	서정기	남	72	대월면 장평리
성기일	여	66	"	박정옥	여	72	"
박순동	여	63	"	박한신	남	71	"
김사순	여	64	"	장순애	여	75	"
김홍대	남	78	"	김은호	남	78	대월면 부필리
김혜순	여	78	"	김주선	남	73	"
김덕례	여	65	"	이순천	남	74	대월면 사동리
임순복	여	70	모가면 진가리	성환길	남	76	"
박환식	여	73	"	전귀해	남	69	"
송중화	남	64	"	전종우	남	78	"
차인순	여	61	"	이재근	남	68	"
한효손	남	94	대월면 도리리	김순용	여	81	"
박상수	여	74	"	조각형	여	76	"
박말순	여	76	"	김이쁜	여	81	"
김성근	남	59	"	채수인	여	72	"
김진각	남	59	"	하성인	여	84	"
심순희	여	65	대월면 구시리	최규식	남	85	대월면 대대리
김희순	여	77	"	한영순	여	83	"
최일본	여	92	"	유정옥	여	76	"
김점순	여	96	"	김봉이	여	69	"
안기순	여	82	"	유경순	여	84	"
김병전	남	62	대월면 군량리	김준배	여	62	"
홍대숙	여	84	"	김석순	여	65	대월면 대홍리
박혜숙	여	80	"	최옥순	여	68	"
최용규	남	65	"	송급주	여	65	이천시 고담동
김병진	여	77	"	이순기	여	60	"
김급산	여	66	"	이종학	남	90	"
김열재	남	67	"	이급너	여	80	"
김영재	남	61	"	성마녕	여	78	이천시 단월동
김길재	남	49	"	장병근	남	75	이천시 장록동
서성훈	남	58	"	정영한	남	70	"
서성직	남	64	"	이범수	남	60	"
김병수	남	68	"	장옥분	여	55	"

편저자 | 홍순석

홍순석은 용인대생으로, 단국대 국문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대 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대 동양학연구소 편찬원, 단대·성대 강사를 거쳐 현재 강남대 인문학부 교수, 인문과학연구소장으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김세필의 생애와 시』, 『박은의 생애와 시』, 『김억한시역선』, 『안재 성임의 시와 삶』, 『국역 형재 이직선생집』, 『성현문학연구, 양사언의 생애와 시』, 『양사언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인명자호사전』(공편) 등이 있다.

이천의 옛노래

2002년 11월 10일 초판 1쇄 인쇄

2002년 11월 20일 초판 1쇄 발행

편저자 홍순석

발행인 홍기원

발행처 민속원

주 소 서울 금천구 시흥5동 220-33 한광빌딩 B-1

등 록 제18-1호

전 화 02) 805-3320, 806-3320

팩 스 02) 802-3346

E-mail minsok1@chollian.net

값 34,000원

ISBN 89-5638-043-0 93810

- ※ 이 책에 수록된 민요자료를 CD로 제작 하였음.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이천의 옛노래	홍순석
제주도 민요연구	김영돈
황성지역 민중의 삶과 문화	김수정·박관수·윤재성·이유진
남도 민속문화론	표인주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	강동하·이영식
대장군 신앙의 연구	임동권
한국구전설화집4(서산·태안편)	최운식
한국구전설화집5(연기편)	최운식
한국구전설화집6(홍성편·1)	최운식 외
한국구전설화집6(홍성편·2)	최운식 외
용, 그 신화와 문화(세계편)	서영대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서영대·송화선
동아시아의 뒷간	김광언
초파일 민속론	편무영
무속 현지조사방법과 연구사례	조정호
문화관광과 박물관	한국민속박물관
중국 소수민족 복식	박춘순·조우현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김미영
우리동네 옛 이야기와 노래	천영진
한국의 굿	하효길 외
제주속담사전	고재환
속담사전	임동권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김형주
달이 피네	임동권
마을 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사마니즘	박원길
말리노우스키의 원시신화론	말리노우스키·서영대
부탄의 문화 민속 엮보기	박환영
우리문화가 온 길	김광언
서사무가 심경 전집	김진영·김영수·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1·2·3	홍태한 외
옛것도 첨단이다	정동찬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관상문
무와 중국문화와 경전저서	김인호
무와 중국문화	김인호
우리민속·역사의 현장답사시	박진태
생활다례	장성금
제주속담총론	고재환
민속문화의 탐구	임동권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최인학 외
한국고전화곡의 역사	박진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홍태한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장철수
마음의 씨앗	임동권
민속의 슬기	임동권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배영동
한국민속학 연구방법론 비판	주강현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홍태한
남도설화문화연구	표인주
민중들이바라본 성문학	이종철·김종대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정동찬 외
기층문화를 통해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상·중·하)	최인학 외
한국구비문학개론	김태곤 외
한국민속학개론	김태곤 외
한국자연신앙 연구	김영진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의 일본사고	김태곤 외
재발견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읍치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전통의 창출	이기태
우리민속의 맥락과 현실의식	박계홍
모계사회의 남성과 여성	김미영
세계민속문화와 역학탐구(1~4)	배영희



개혁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수성이 짙은 전통문화 유산은 원형을 고수하기 어렵다. 특히 민요는 보존의 한계에 달했다. 일부는 이미 대중민요로 변해 있고, 나머지는 기억에서조차 사라졌다. 민요의 핵심인 기능요는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구연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 민요보존회를 구성하여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벗어난 노동요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 비기능요로 전락되었다. 이제 민요의 현장조사는 원형을 잃은 '소리'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천의 옛노래』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값 34,000원 (CD별매)

ISBN 89-5638-043-0